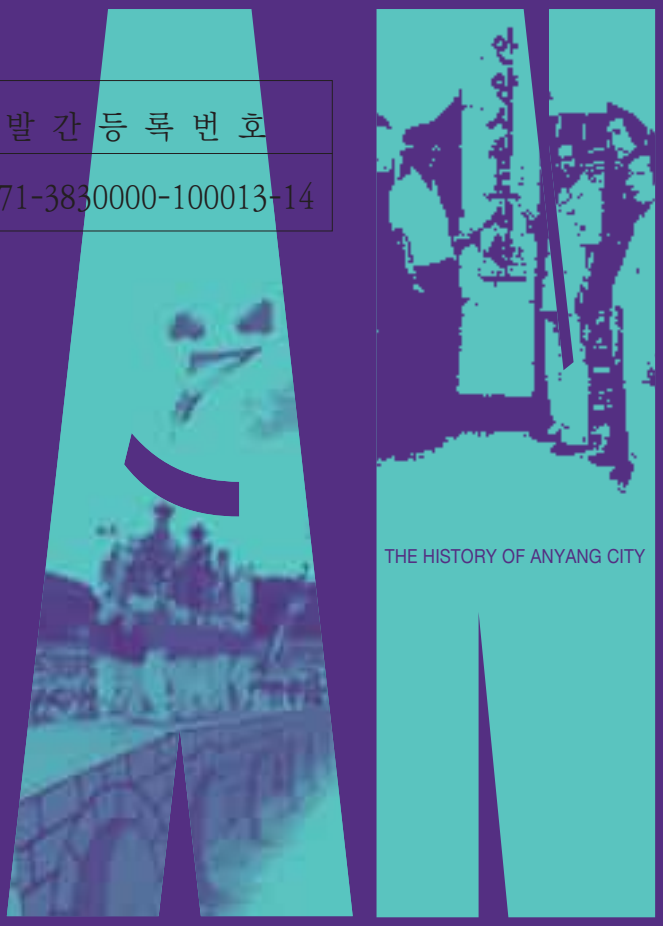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71-3830000-100013-14



THE HISTORY OF ANYANG CITY

08
교육과 문화

안양의 교육과 문화예술은 근현대 시기를 거치며 도시의 역사와 현대적 활력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문화 흐름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발전해 왔다. 현재 안양시는 다양한 장르의 축제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08권

교육과 문화

기획 방향과 구성

○ 안양시사는 총 20권으로 제작되었다.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권	제목
01	지리와 환경	06	산업구조와 산업생태계	11	안양동	16	호계동
02	역사와 지역사회	07	시장과 지역상권	12	박달동	17	평촌동 & 평촌신도시
03	지방자치	08	교육과 문화	13	석수동	18	안양역 & 안양1번가
04	도시의 형성과 성장	09	노동세계와 노동문화	14	비산동	19	안양유원지 & 안양예술공원
05	건축과 주거의 변화	10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15	관양동	20	금천지

○ 제01~10권은 안양시의 지리, 역사, 지방자치, 산업, 상권, 교육과 문화, 노동, 시민사회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 제11-19권은 안양시의 공간을 단일한 생활 공간과 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권을 구성하였다. 단일한 생활 공간은 법정동을 단위로 하였고, 다양한 문헌자료와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자연 및 인문환경, 지역의 변화, 주민들의 생활 모습 등을 서술하였다. 상징적 공간은 안양의 전통적 도심이었던 안양역과 안양1번가, 국민관광지로 이름을 날린 안양유원지와 이후의 안양예술공원,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을 대상으로 하여 각 공간의 역사 및 경관 변화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제20권은 1950년, 시흥군에서 발간된 『금천지(衿川誌)』를 완역하여 수록하였다. 『금천지』는 당시 중심지역인 안양읍을 포함한 시흥군의 사회· 교육· 행정 ·문화 등을 소개한 군지(郡誌)이다.

서술의 범위와 원칙

○ 공간적 범위 : 행정구역상 안양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 간 비교나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 시간적 범위 : 권별 주제와 특성에 맞게 서술 내용의 범위를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 내용적 범위 : 각 권의 기획 취지와 해당 주제에 맞게 목차와 항목을 설정하여 서술하였다. 전체적인 체제와 내용의 충실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집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윤문과 첨삭을 하였다.

저작권과 출처

○ 이 책의 저작권은 안양시에 있다. 이 책에서 사용한 도표와 사진 등에는 출처와 저작권자를 표기하였다. 출처와 저작권자 표기가 없는 경우는 안양시 제작·소장 또는 집필자 제공 자료임을 밝혀둔다.
○ 집필자가 제공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 이 책에서 사용한 지도와 항공촬영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구글 지도·네이버 지도·카카오맵을 사용하였다.
○ 이 책에 수록한 내용과 도표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Contents

제08권 교육과 문화

1 안양 교육의 역사와 지역사회 교육

제1장 안양 교육 발전사/008

1. 안양 교육사의 개요/009
2. 안양의 근대교육사/012
3. 현대 교육의 역사/017

제2장 교육정책과 지역사회 교육/038

1. 안양의 교육정책/039
2. 안양시 교육시설 현황/049

제3장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정책과 이용현황/068

1. 안양 공공도서관의 출발/069
2. 안양시 공공도서관 현황과 이용 변화/071
3. 안양시립도서관의 역사/076
4. 안양시 도서관의 미래/090
5. 도서관 주요 연표/092

제4장 학적부로 본 안양공립보통학교의 학생생활/096

1. 안양공보교의 설립 과정/097
2. 학생 구성의 특성/102
3. 성적 및 성행 평가/107
4. 사회경제적 배경 및 상급학교 진학/114

2 문화예술의 현황과 지역축제

제1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단체/124

1. 안양시 문화예술 정책 진단 및 향후 과제/125
2. 안양문화원/144
3. 안양예총/167
4. 안양문화예술재단/185

제2장 문화행사와 지역축제/196

1. 안양의 주요 문화행사/198
2. 안양의 주요 축제/209

제3장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234

1.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출발과 인식/235
2.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성과/237
3. 공공예술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259

3 안양 문화예술의 지역 활동

제1장 안양의 문학/264

1. 안양의 문학적 배경/265
2. 안양문학 태동과 출범/267
3. 안양문학의 형성과 한국문인협회 안양지부의 창립/272
4. 안양문학의 전환기 /273
5. 안양문학의 정착과 발전/276
6. 안양문학의 현재와 현황/286

제2장 안양의 시각예술/290

1. 미술/291
2. 서예/313
3. 사진/321

제3장 안양의 공연예술/336

1. 음악/337
2. 연극/344
3. 연예/352
4. 무용/359
5. 국악/370

제4장 안양의 영화 산업/380

1. 한국영화와 안양/381
2. 안양 영화의 미래/402

4 안양의 체육·종교·언론

제1장 안양 체육사/408

1. 안양체육의 발달 과정/409
2. 안양체육의 현황/420
3. 안양체육의 활성화 방안/440
4. 안양을 빛낸 체육인/453

제2장 안양 체육의 현재와 지역사회/478

1.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성적/479
2. 전국체육대회 입상 성적/493
3.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입상 성적/509
4.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성적/520
5.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성적/530

제3장 안양의 종교/546

1. 종교인구 현황/547
2. 불교/550
3. 천주교/554
4. 개신교/558
5. 유교/562
6. 천도교/562
7. 대순진리회/563
8. 원불교/563
9. 대종교/563
10. 민간신앙/564

제4장 안양의 언론/566

1. 지역언론 개괄/567
2. 지역언론의 태동과 발전/571
3. 지역 언론의 현재 /577

01 안양 **교육**의 **역사**와 **지역사회 교육**

제1장 안양 교육 발전사
제2장 교육정책과 지역사회 교육
제3장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정책과 이용현황
제4장 학적부로 본 안양공립보통학교의 학생생활

안양의 교육은 지역 주민들이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기성회를 조직하여 현재의 안양초등학교를 개교하면서 시작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학제 개편과 함께 중등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시 승격과 평촌신도시 개발 등 도시발전에 따라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교육 인프라가 발전하였다. 현재 안양은 지속가능한 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1장

안양 교육의 발전사

김예승 대림대학교 사무행정학과 교수

1. 안양 교육사의 개요

1) 안양의 역사[1]

안양安養이란 명칭은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 창건된 안양사安養寺에서 유래되었다. 안양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왕건이 남쪽을 정벌하기 위해 삼성산을 지나다가 산꼭대기에 오색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다고 여겨 사람을 보내 살폈는데, 구름 밑에서 능정이랑 스님을 만나 말해보니 뜻에 맞아 건립하였다고 전해진다.

안양지역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지리지다. 이에 따르면 안양지역은 고구려 율목군, 잉벌노현에 속해 있었다.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큰 변화 없이 내려오다가 일제강점기인 1914년 과천군의 상서면과 하서면이 서이면으로 통합되면서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다. 1941년 서이면은 안양면으로 변경되었고 1949년 안양읍으로 승격하였다. 1963년 1월 1일 시흥군 동면 안양리와 서면 박달리가 안양읍에 편제되었으며, 안양리는 기존의 안양읍 내에 안양리란 행정지명이 있었으므로 신안양리로 개칭되었다. 1973년 3월 12일 「시 설치와 군의 폐치 분합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었다. 1989년 평촌지구의 개발로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관양동 등 행정동 신설과 만안구·동안구 2구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분동과 경계 변경을 거쳐 현재 만안구의 3개 법정동(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안에 14개의 행정동, 동안구의 4개 법정동(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안에 17개의 행정동으로 총 31개의 동으로 편제되어 있다.

2) 교육의 시작

안양의 고대사회에 대한 교육사는 상세한 기록이 부재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일반적인 우리나라 교육사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 현재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한 시기는 바로 4세기 이후 고구려에 태학과 경당이 설립되고, 신라에서는 청소년 집단인 화랑도의 교육이 국가의 기간교육 단체로 존립하면서라고 볼 수 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국가적 필요성에 따라 국학이 설립되었다. 즉 삼국시대는 고구려의 태학과 신라의 국학이 유학 교육기관으로 국가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다.[2] 안양시 교육 역시 고구려의 태학과 신라의 국학에 의해 교육이 체계를 갖추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본격적인 안양의 교육은 조선시대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안양시 역사에 근거하여 안양지역의 구분이 명확한 시기부터 안양 교육사를 논할 수 있어 조선시대부터 세부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3) 조선시대 안양의 교육

(1) 향교

향교는 지방민을 교육하기 위해 나라에서 세운 교육기관으로 지방의 행정단위에 기반하여 성균관을 축소하여 설치한 중등교육 단계의 유학 교육기관이다.[3] 안양 역시 향교를 운영하였는데, 이때 안양은 조선 초기 지리적으로 과천에 속해 있어 당시 안양에 거주한 유생들은 과천향교果川鄕校로 교육을 받으러 다녔을 것이라 추측된다. 과천향교는 1398년(태조 7)에 읍치에서 동북방으로 2리에 있는 관악산 자락에 창건되었다. 그 후 1690년(숙종 16) 현재의 위치인 과천시 중앙동으로 옮겨졌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교육 기능을 상실하였고, 제사 기능만 유지하였다. 1944년 시흥군 관내의 안산향교, 시흥향교가 과천향교에 병합되었고, 1959년 시흥향교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996년 다시 과천향교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4]

과천향교

(2) 안양 호계서원지

조선시대에는 또 다른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서원이다. 서원은 각 지방에 민간 중심으로 선현 선사 및 선열 의사에 대한 사묘를 설치하여 제향을 행하고, 유학 교육을 통해 유생을 양성하던 사립 교육기관이다.[5]

안양의 교육이 문서로 명시된 시초는 바로 호계서원지虎溪書院址다. 호계서원지는 1681년(숙종 7)에 현재의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176-4에 최초의 교육시설로 건립되었다. 독암獨庵 조종경(趙宗敬,1495~1535)과 창강滄江 조속(趙涑,1595~1668)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창건하였으며, 제자들이 학문을 강론하였다.[6]

호계서원이 있던 자리는 현재 호계공원 인근 지역으로 호계공원 서쪽에는 수리산 자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북쪽으로는 관악산이 위용을 과시하며 우뚝 서 있어 한눈에 보아도 훌륭한 자리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부근이 창강 조속 선생을 배향하였던 호계서원이 있던 자리다. 호계서원은 일명 창강서원이라고도 불렸는데, 창강은 조속 선생의

호이기 때문이다. 1681년(숙종 7)에 지방 유림들의 공의로 조종경, 조속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창건하고 위패를 모셨다.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훼철령으로 훼철된 후 두 분의 위패는 서원터에 매안하였고, 그 후 지금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호계중학교와 호계공원에 있는 안내표지판을 통해 호계서원이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다.[7]

2. 안양의 근대교육사[8]

1) 개항기

우리나라 근대교육은 1883년 8월 원산에 설립된 원산학사가 그 시초로 산수, 물리, 기술, 농업, 외국어 등을 교수하는 등의 근대적인 학업 내용을 갖추었다. 원산학사의 설립 이후 같은 해에 영어, 일본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동문학이 설립된 바 있고, 1886년에는 왕의 윤허를 받아 육영공원이 설립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기관이 설립될 당시 안양지역에는 아직까지 근대적인 교육기관이 들어섰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당시 정부는 점차 근대교육을 확충해 가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역에 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수립해두고 있어 안양지역에도 근대적인 학교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은 높았다. 1894년 갑오개혁과 함께 학무아문이 설립된 후 소학교, 중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체계로 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각 군에 1개소씩 소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된 바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1895년 7월 공포된 「소학교령」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정부는 소학교를 각 부군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고, 실제로 이에 의거하여 서울에 정동소학교, 계동소학교, 주동소학교, 장동소학교 등이 설립된 바 있다. 그러나 안양지역에는 소학교, 중등학교가 설립되지 못하였다.

개항기 근대 교육기관으로 쌍명학교와 낙영학교가 있다. 쌍명학교는 안양 인근인 과천군 군내면에 설립된 학교였다. 1906년 과천군 교동에 광명학교가 설립되고 1908년 과천향교에 명륜학교가 들어서자 군내면에만 2개의 사립학교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때 부임한 과천군수가 1909년 두 학교를 합병하여 쌍명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학생을 어린이와 어른으로 구분하고 과로 나누어 갑·을·병 3개 반으로 학급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1912년 과천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면서 사라졌다.

낙영학교는 1908년 과천군 하서면 호계동(현 동안구 호계동)에서 이 지역 방죽말 출신인 조용하와 큰아들 조동우, 한진유 등이 발기하여 설립한 학교다. 이곳은 안양의 각 지역에 있던 서당의 학동들을 편입하여 교육하였다. 주야로 학생이 7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으나 교육에 뜻을 둔 몇몇 인사들의 성금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하여 1912년 문을 닫았다.

2) 일제강점기

안양지역에 근대학교가 들어선 것은 1929년이다. 그해 지역 유지들의 노력으로 안양공립보통학교가 비로소 창립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안양지역 근대교육의 효시다. 안양공립보통학교의 설립은 일제가 3·1운동 이후 문화정책을 표방하며 설립되었다. 일제는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제정, 공포하였는데, 제1차 「조선교육령」이 한국인 교육을 차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개정령은 한국인 차별을 없앤다고 교육연한을 16년 또는 17년으로 연장하였다. 일본화 교육의 효과적인 실현은 보통학교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보통학교의 경우 '3면 1교', 고등보통학교는 '1도 1교' 설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의 교육은 우리 민족에게 고등 정신 기능 및 고등교육의 진흥을 억압하고 식민지 국민으로서 최소한 일인화 교육을 목표로 한 교육정책으로 안양은 물론 시흥군 내에는 중등 이상의 교육기관이 한 곳도 설립되지 못하였다.[9]

안양공립보통학교의 설립은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학교 설립이었다는 것이 신문기사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10]

"시흥군 서이면 면장 조한구 씨와 유지 제씨의 노력으로 안양공립보통학교 기성회를 조직하고 수년간 활동한 결과 만반의 준비가 다되어 지난 9월 중에 총공비 육천오백여 원으로 교사 건축에 착수하여 얼마 전에 준공되었으므로 지난 21일에 개교식을 거행하고 현재 11년생 70명이 취학 중이라는데 안양은 시흥군의 중심일 뿐 아니라 교통이 편하고 장래 많은 발전을 보게 될 중요 지대이므로 장차는 6년 제도의 훌륭한 학교를 만든다더라."

안양공립보통학교 개교(1929)

안양공립보통학교 졸업식(1938)

일제는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보다 공립학교라도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학교를 통해 그 설립자금과 유지비용 등을 조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안양의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의 발의에 따라 보통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성회를 조직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학교를 만들었다. 1922년 「조선교육령」 개정으로 조선인 학교의 수업연한이 6년제로 연장되었으나 실제로는 지방의 사정에 따라 5년제 혹은 4년제로 수업연한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고, 6년제로 개편된 학교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4년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까운 6년제 보통학교로 편입해야 하는 불편을 수정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역시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1]

> "시흥군 서이면 안양에 보교가 하나 없어서 수백 명의 아동이 기차로 멀리 군포, 시흥, 영등포 혹은 과천 등지의 보교로 통학을 하게 되므로 나이 어린 아동에게 기차 통학을 시키는 것은 심히 위험한 일일 뿐 아니라, 안양의 발전상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3년 전부터 공립보통학교 기성회를 조직하고 간부 일동이 많은 활동을 한 결과 만여 원의 기부금을 승낙받았다. 그러나 작년 한재 여파로 수금이 여의치 못하므로 일반은 대단히 비관하던 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 결과 일단 1, 2학년 2학급만이라도 설립하기로 내정한 후…… 앞으로 매년 1학급씩을 증가하기로 예정이라더라."

당시 안양지역은 학부모들의 경제 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편으로 6년제 학교 설립은 사실상 어려웠기에 4년제 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때문에 안양지역 내에서 학업에 뜻을 품은 학생들은 군포 등지에 설립된 6년제 학교에 입학해야 했다. 안양 보통학교가 4년제 학교로 설립된 것에는 일제 당국의 비협조가 크게 작용하였지만 학교 설립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다는 점도 그 배경이 되었다. 처음 안양보통학교가 설립될 무렵 일제는 교사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교사 신축을 위한 모금 운동이 있었으나 당시 지역의 경제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자금이 충분히 모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 당시 안양초등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12]

> "한흥리네 큰아버지가 서당을 하셨는데,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분한테 많이 배우고…… 가만히 보면 안양의 교육 발상지는 방죽말이야. 거기에 서당도 있었으니까. 서당이 각 동네마다 있었다고. 양짓말도 있고, 여기 장내동, 담안 거기도 있었고. 나도 아홉 살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아홉 살까지 천자문 배우고, 동몽선습 배우다가 거기서 끝나고 학교 가고, 1934년……(중략) (질문: 안양보통학교가 4년이고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로 가셨나요?) 나는 시흥으로 갔어. 거기는 4학년, 6학년제인데 나는 가급적이면 서울로 갈라고 일찌감치 거기 지원했어. 두 사람이서 갔어."

이후 안양보통학교가 수업연한을 6년으로 늘린 것은 1940년의 일이다. 당시 경성에 거주하던 이해범 씨가 거액의 기부금을 쾌척한 데 힘입어 수업연한을 늘릴 수 있었다. 1937년 일제는'황국신민서사'라는 것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이를 암송하도록 하며 강제적으로 황민화 교육을 시켰다. 나아가 1938년 3월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일본어 및 일본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내선일체'의 이름 아래 각급 학교 명칭을 일본인 학교 명칭과 동일하게 하였다. 이로써 안양보통학교의 명칭도 심상소학교로 변경되었다. 일제는 1941년 4월부터 소학교를 다시 '국민학교'로 개칭하여 안양심상소학교 역시 안양국민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안양 근현대사 구술자료 녹취록에는 일제강점기 안양의 교육 분위기가 담겨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 애들 학교가 소학교예요. 소학교가 지금 안양중학교, 지금은 안양고등학교지. 공업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자리에 욱구중학이라고 아홉 구 자에 날 일 자 쓰는 아사히, 아사히국민학교 아니 소학교가 왜정 때 있었어요. 그것은 일본 놈들이 일본 애들만 가르쳤지.(질문: 그럼 교육기관이 일본인은 아사히 소

修業證書

國民學校第　學年ノ課程ヲ修了セシコトヲ證ス

昭和　年　月　日

第　號

安養陽智學術講習會

안양양지학술강습회 수업증서(1943, 독립기념관 제공)

학교가 있었고, 조선 사람들은 안양보통학교가 있었는데 안양보통학교가 있기 전에는?) 강습소가 있었지. 각 부락에 강습소, 야학도 있었고. 서당보다 조금 서당이 한문이라고 하면, 강습소는 신학의 서당과 비슷한 거. 보통학교 과정하고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그 동네 지식인들이 했지. 돈은 받고."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일제강점기 후반으로 갈수록 안양 교육은 황국신민화 교육과 일본어 사용 교육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제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확대되면서 학교를 군사교육을 하는 곳으로, 군대의 하부기관으로 인식하는 교육이 확대되었다.

3. 현대 교육의 역사

1) 해방 직후 – 한국전쟁기[13]

해방 직후 들어선 미군정청은 1945년 9월 한국교육위원회를 조직하고 9월 24일부터 초등학교를 개학하고, 10월 1일부터 중등학교를 개학하기로 결정하여 9월 이후 신학기가 되면서 학업도 새로운 분위기를 띠며 시작되었다. 당시 군정청은 일제강점기 '황민화 교육'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한국어로 교수할 것을 결정하는 한편, '민주주의'를 교육 이념으로 하며 의무교육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946년 9월 신학기에 입학 연령을 초과한 취학연령 해당 아동 약 2만 명을 취학시키게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는 취학연령 아동 전원이 입학하기에는 시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으므로 전원 취학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단기간의 학생 수 증가로 전국적으로 교육 붐이 일어나는 가운데 지역의 초등학교도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했다.

당시의 교육 방침은 1948년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에도 이어져 한국 교육의 기본 방침이 되기도 하였다. 안호상 등이 그 기초를 발안한 한국 「교육법」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였다. 동시에 그 주요 기본정책으로 6년제 의무교육 시행, 교육위원회 등 교육자치제 실시, 4월 학기제, 6-6-4학제에서 6-4-2-4 학제로 변경하는 등 약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안양공립국민학교 2학년 학생(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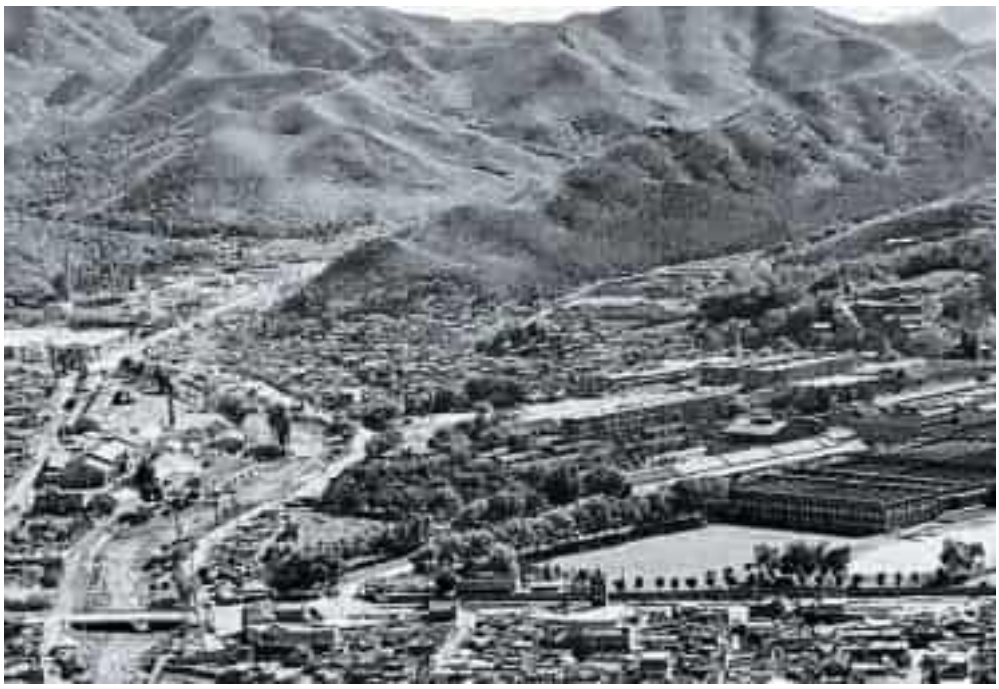
이 시기 안양지역에는 흥안국민학교, 관양국민학교, 안양중학교, 안양공업중학교 등 안양지역의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이 설립되면서 교육난의 해소가 시작되었다. 흥안국민학교는 해방후 최초 설립된 초등학교로 1946년 개교한 이후, 1970년도에 안양남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관양국민학교는 1946년 12월 2일 설립 인가를 받은 후 1948년 4월 1일 개교하였다. 삼성국민학교는 1946년 시흥공립국민학교에서 분교로 인가받은 이후, 1949년 안양초등학교 삼성분교로 전환되었고, 1954년 삼성국민학교로 본격 개교하였다.[14]

이 시기 안양지역 교육 현황으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부족하였던 중등교육시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안양지역 최초의 중등학교는 1948년에 개교한 안양중학교였다. 안양중학교는 1947년 12월 안정호, 이영섭, 곽영근, 서병선 씨

등이 기증한 토지와 임야 1만 6150평에 이재형 씨가 기부한 25만 원을 합하여 설립된 기성회가 그해 12월 31일 안양중학교 개교 인가를 받고 재단법인 시흥학원을 설립함으로써 출범하였다.

안양중학교는 1949년 1월 공립학교로 변경됨과 동시에 안양지역 내 공업기술자 수급이라는 목적 아래 공업중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1950년에 최종적으로 6-3-3-4 학제 변경이 결정되고 다음 해 3월 입법을 통해 6년제 중학교가 3년제 중학교와 3년제 고등학교로 분리됨에 따라 안양공업중학교도 이러한 정부 시책에 따라 3년제 안양중학교와 3년제 안양공업고등학교로 분리, 운영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안양중학교와 안양공업고등학교가 설립될 당시 안양지역에는 안양고등공민학교라는 이름의 교육기관이 있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1~2개 학교만이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할 뿐인 공민학교는 1946년 「공민학교설치요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학교로 1949년 정식으로 제도화되었다.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또는 3년이었고, 교과목은 중학교 교과과정과 비슷한 편이었다. 이 학교는 경제적 혹은 기타 이유로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이식 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규학교와 같이 체계



안양중학교 주변 전경(1960년대, 이정범 제공)

화되지는 못하였지만 교육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학교시설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방 직후 안양지역에는 안양고등공민학교라는 이름의 고등공민학교가 자리 잡아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웠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등교육을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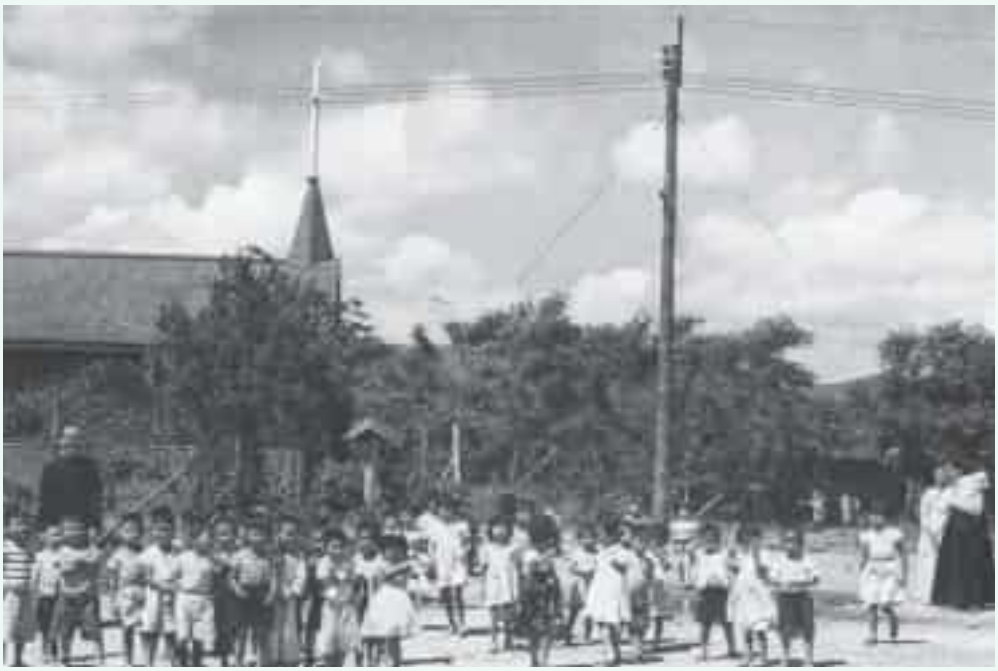
2) 1950년대[15]

안양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수도인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50년 안양여자중학교가 최초 여자 중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되면서 지역 주민의 교육 기회는 확대되었다. 안양여자중학교는 1950년 5월 김건열 군수를 회장으로 하는 안양여자중학교설립기성회에 의하여 태동되었다. 당시 안양에는 안양중학교 등 남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은 설립되어 있었으나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설립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서울로 '유학'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여자중학교 설립이 시도된 것이었는데 한국전쟁 등으로 준비 및 개교가 어려웠다고 한다. 안양여중은 1951년 8월 문을 열었고, 1952년 3월에 여자중학교로 정식 설립인가를 받았다.

안양 유아교육은 '장내동성당 안양유치원'에서 시작되었다. 장내동 성당은 서울교구가 1937년 밤나무밭을 교회 부지로 매입한 후 목조 함석지붕으로 건축하여 설립되었고, 1956년에는 성당 안에 유치원을 개설하였는데, 이것이 유아교육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때는 「교육법」 규정에 따라 안양지역에서도 '교육자치제'가 시행된 시기로, 1952년 5월 시흥군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며 안양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교육청 설치는 1949년 법령에 의해 규정되었으나 이후 지속된 전쟁으로 제대로 된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1952년에 이르러서야 시 교육위원회와 교육구 교육위원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때 안양지역은 시흥군 교육위원회의 교육구에 편입되었는데 당시 실시된 교육자치제는 군에 교육구를 두어 그 구역 내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와 초등교육을 관장하도록 하였다. 교육구의 의결기관으로 군수와 군내의 각 읍·면에서 1인씩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하는 구 교육위원회를 두는 한편 구 교육위원회의 추천으로 도지사와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안양지역은 1973년 안양시교육청으로 개편되었고, 1991년 경기도 안양교육청으로, 2009년 경기

안양여자중학교 망해암 소풍(1953)



1960년대 안양유치원 원아들의 모습

도안양과천교육청으로, 2010년 현재의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 개칭되었다.[16]

3) 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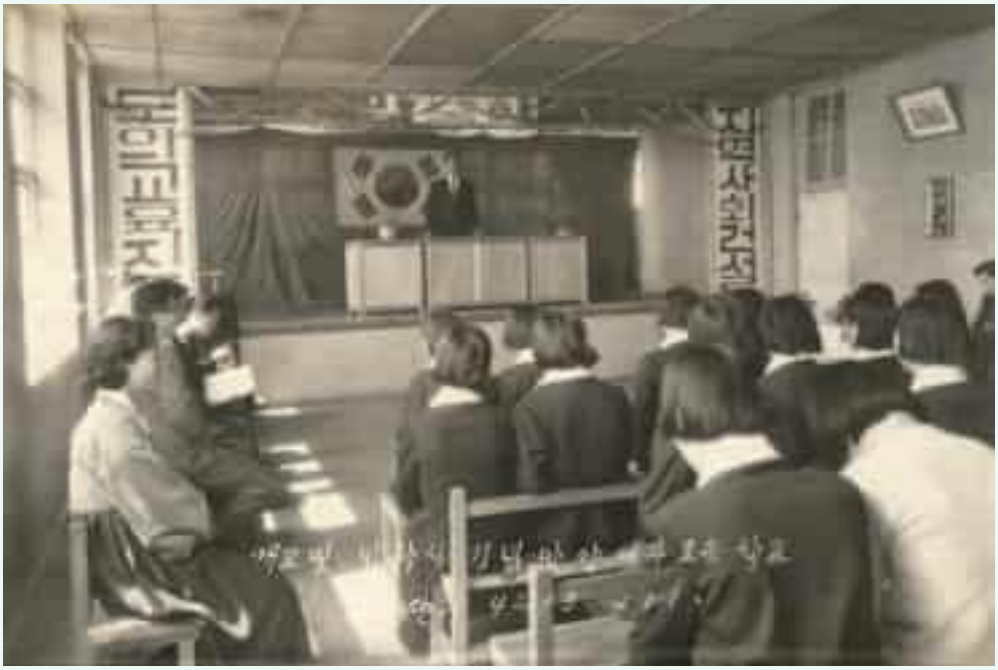
1950년대 이후 안양여자중학교 등이 설립됨으로써 학교시설이 점차 확충되었지만 지역 내 학교시설이 충분하지는 못하였다. 지역 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었으므로 상당수 학생들이 서울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은 1960년대 후반부터 지역 학교의 학업성적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을 정도로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안양지역의 공업화로 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우수한 노동력이 모여들면서 그 자녀들 중심으로 학교의 학업성적이 단기간에 향상되었다.

이 시기에 안양지역 최초 인문계 고등학교인 안양여자고등학교가 1960년도에 개교하였다. 안양여자고등학교는 재단법인 훈세사勳世社를 설립하여 1952년 3월 22일 안양여중 설립인가를 받고 중학교를 운영하던 중 1960년 3월 8일에 다시 안양여자고등학교로 개교한 이후 1967년 6월 3일에 학교법인 청석학원으로 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다시 1970년 8월 18일에 학교법인 대림학원으로 명칭변경인가를 받았다.

그 당시 초등학교로는 1961년 만안국민학교, 1968년 안양동초등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중학교는 1962년 근명여자중학교, 1969년 신성중학교, 고등학교는 앞서 언급한 1960년 안양여고와 1967년 근명상업고등학교(현 근명고등학교), 안양영화예술학교(현 안양예술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17] 이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안양영화예술학교다. 안양영화예술학교는 1954년에 세운 수도영화주식회사 안양촬영소 내에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안양촬영소는 동양 최대의 영화촬영소로 기공식에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할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육성되었다.[18] 이후 폐교 위기도 겪었으나 1982년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로 인가받은 후 2000년도 현재의 안양예술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4) 1970년대

1970년대는 정부가 고교평준화를 시행한 시기로 1974년 시행된 교육평준화 정책의 주요 목적은 '교육평등'이었다. '교육평등'이란 모든 교육의 질을 제도적인 규제를 통해 균질화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



안양여자고등학교 개교 및 입학식(1960)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 수업시간(1970, 경기도 제공)

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앞서 1969년에는 중학교 무시험 제가 시행되었는데 이후 사실상 대부분의 중학교가 목표로 삼고 있던 명문고 진학 열기가 더욱 고조되기에 이르렀다. 1973년 문교부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인문계고 지원자의 40%만이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입시 과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고교평준화 정책이었다. 그런데 그 실시 여부는 각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평준화 실시 지역과 비실시 지역이 구분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함께 안양은 경제개발계획의 계속적인 추진으로 안양지역의 공업은 전 업종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며 공장 입주가 증가하게 되고, 이와 함께 인구가 밀집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결국 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안양시 교육이 확충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 유치원은 2곳, 초등학교 7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4곳을 시작으로 안양시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75년 벧엘유치원을 시작으로 1976년 동은유치원, 1978년 새싹유치원이 개원하면서 유치원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등학교는 1972년 안양서국민학교, 1978년 명학국민학교, 1979년 신안국민학교가 설립되었으며, 중학교는 1970년 성문여자중학교, 1977년 관양중학교, 1979년 안양서여자중학교, 1980년 신안중학교가 개교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1974년 해송고등학교(현 양명고), 안양동고등학교(현 신성고)가 설립되어 교육을 시작하였다. 대학교의 경우 1975년 안양신학대학교(현 성결대), 1976년 안양공업전문대학교(현 연성대), 1977년 대림공업전문대학교(현 대림대학교)가 개교하였다.[19]

1980년에는 유치원은 19곳, 국민학교 11곳, 중학교 8곳, 고등학교 7곳, 대학교 3곳이 설립되어 교육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1973년에 비해 1980년도에는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는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학교 역시 인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표 1〉 1970~1980년 안양시 학교 현황

구분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대학교	
	기관 수	원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1973년	2	121	7	15,417	5	6,936	4	2,696		
1974년	2	80	7	16,913	5	7,555	6	44,35		
1975년	2	81	7	17,831	5	8,563	6	5,693		

안양서국민학교 하굣길(1970년대, 이정범 제공)

구분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대학교	
	기관 수	원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1976년	1	187	7	19,295	5	8,930	6	7,435	1	320
1977년	3	281	8	21,642	6	9,634	6	8,045	2	2,001
1978년	6	511	9	25,235	8	11,099	6	9,003	3	4,328
1979년	7	625	10	28,470	9	11,890	7	10,455	3	4,925
1980년	19	1,070	11	30,803	8	12,993	7	10,755	3	5,810

자료: 1973~1980년 안양시 통계연보.

5) 1980년대

1980년대는 안양시 지역 내 기업체 수가 폭증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1981년부터 1990년까지 기업체의 증가 추이를 보면, 1981년에는 409개이던 기업체가 1983년에는 505개로 100개 정도 증가했고, 1985년도에는 602개로 2년 사이에 100개나 늘어났

다. 1985년 이후부터는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이 활발하여 기업체도 크게 늘어나 1987년에 736개가 되었고, 다음 해인 1988년에는 982개나 되어 1년 동안에 246개 기업체가 새로 입주하여 안양시가 생긴 이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기업체의 증가와 함께 종업원 수 역시 증가하였다. 종업원 수의 증가 추세를 보면, 1981년 3만 4308명에서 1985년에는 4만 729명으로 증가했고, 1990년에는 5만 5048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인구 유입은 학교 설립의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20]

1980년대의 국민학교 설립 현황을 보면 1981년 비산국민학교·석수국민학교·호계국민학교, 1983년 호성국민학교·덕천국민학교·박달국민학교, 1984년 안양중앙국민학교, 1986년 호원국민학교, 1987년 인덕원국민학교, 1988년 안양양지국민학교가 개교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1982년 관양여자중학교(현 인덕원중학교), 1984년 대안중학교, 1986년 대안여자중학교, 1988년 호계중학교, 1989년 안양서중학교가 개교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1981년 안양여자상업교등학교(현 안양문화고), 1983년 안양고등학교, 1983년 성문여자고등학교(현 성문고), 1985년 양명여자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대학교의 경우 1982년 대한신학교(현 안양대)가 안양으로 이전하며 안양 관내 대학교로 설립되었고, 1990년 대림공업전문대학교가 대림대학으로, 1992년 안양신학대학교가 성결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21]

1980년대의 안양 교육기관과 학생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1981년 23개였던 유치원 수는 1982년 35개, 1983년 44개, 1984년 60개, 1985년 78개, 1987년 89개, 1988년 94개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유치원생 수 역시 1981년 1374명에서 1985년 4961명, 1988년 6460명까지 증가하였다. 국민학교 수 역시 1981년 12개에서 1990년 19개로 증가하였다. 학생 수 역시 1981년 3만 2393명에서 1987년 4만 6522명, 1990년에는 5만 7140명에 이르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수는 유치원과 국민학교 수에 비해 증가폭은 적으나 중학교 학생 수는 1981년 1만 3782명에서 1990년 2만 85명으로, 고등학교 학생 수는 1981년 1만 2378명에서 1990년 1만 9497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2〉 1981~1990년 안양시 학교 현황

구분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대학교	
	기관 수	원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1981년	23	1,374	12	32,393	10	13,782	8	12,378	3	6,666
1982년	35	2,165	13	34,267	10	7,534	8	12,464	4	6,933

대림대학(1990년대)

구분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대학교	
	기관 수	원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1983년	44	2,279	15	36,320	11	8,052	10	14,871	4	9,009
1984년	60	3,542	16	38,013	10	17,273	10	15,590	4	4,927
1985년	78	4,961	16	42,544	11	18,437	11	16,512	4	10,340
1987년	89	5,688	17	46,522	11	18,548	11	18,426	4	11,792
1988년	94	6,460	18	50,388	12	18,984	11	19,219	4	11,585
1989년	90	6,139	19	53,939	13	19,336	11	19,746	4	10,706
1990년	92	6,268	19	57,140	13	20,085	11	19,497	4	11,921

자료: 1981~1990년 안양시 통계연보.
비고: 1986년 통계자료가 누락되어 있음.

6) 1990년대

1990년대부터 안양지역의 교육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1990년대 평촌신도시 개발, 2002년 평준화 시책의 적용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1990년대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평촌의 우수한 도시 기반 시설과 교육시설은 구도심 거주 학생들을 흡입하

였다. 그 당시 학부모들은 "위장 전입을 해서라도" 평촌 소재 학교로 자녀를 진학시키고자 하였으며, 여의치 않은 경우 학원이라도 평촌으로 보내고자 하였다. 이는 평촌이 구도심보다 경제적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한다는 데 기인한다. 평촌의 등장과 함께 '평촌 소재 학교+선진적 환경'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평촌 학원가는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쌓았다. 이러한 상황은 안양을 교육특구라는 인식과 함께 교육의 양극화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1990년대는 평촌신도시 개발로 안양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였다. 1992년 평촌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한 1995년 8월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일괄 변경되었다.

1990년대 신설된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의 수가 특히 증가하였다. 1991년 부림국민학교·안양덕현국민학교, 1992년 달안국민학교·안양동안국민학교·범계국민학교·안양신기국민학교·안양부흥국민학교, 1993년 귀인국민학교·민백국민학교·평촌국민학교·희성국민학교, 1994년 안양부안국민학교, 1996년 연현초등학교가 개교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1991년 신기중학교, 1992년 범계중학교·부림중학교·부흥중학교·평촌중학교, 1993년 귀인중학교, 1994년 부안중학교가 개교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1992년 평촌고등학교, 1993년 부흥고등학교, 1994년 동안고등학교·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

평촌고등학교(2000)

1995년 백영고등학교, 평촌공업고등학교·희성정보산업고등학교(현 관악정보산업고등학교), 1996년 안양외국어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평촌신도시 입주의 특성이 학교 개교에 반영되어 1992년 초등학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 뒤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차례로 확대되어 개교하였다. 대학교의 경우 1991년 대한신학교가 대신대학으로, 1995년도에 대신대학에서 안양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22]

〈표 3〉 1991~2000년 안양시 학교 현황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대학교	
	기관 수	원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1991년	89	6,293	19	57,914	14	21,118	11	19,848	4	12,308
1992년	86	7,087	22	57,313	16	23,939	11	16,770	4	16,430
1993년	91	8,188	28	62,596	19	28,649	12	18,115	4	18,978
1994년	106	9,678	31	64,316	20	33,359	14	19,759	4	15,617
1995년	112	9,541	31	61,971	20	34,503	17	23,858	4	19,589
1996년	115	9,702	32	59,654	20	16,985	17	27,273	4	18,406
1997년	115	9,819	32	58,380	20	31,678	18	30,217	4	24,035
1998년	114	8,531	32	56,407	20	29,604	18	30,700	4	26,982
1999년	111	8,481	32	56,382	20	27,938	18	30,579	4	22,688
2000년	103	8,047	33	55,518	20	27,325	18	29,068	4	24,210

자료: 1991~ 2000년 안양시 통계연보.

7) 2000년대

2002년 고교평준화가 도입되며 안양지역 명문고라 불렸던 학교들의 서울대 진학률은 떨어지고 평촌지역 고등학교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2006년 9월 8일 자 『안양신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2006년과 2006년 서울대 진학률을 보면 만안구에 위치한 고등학교는 25명에서 17명으로 감소했지만 동안구에 위치한 고등학교는 13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났다.” 평준화 시행 이후 동안구와 만안구 학교의 진학률이 현저히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평촌신도시 개발 이후 평촌 소재 학교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가운데 평준화가 시행되어 평촌으로의 집중 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평촌신도시의 교육 내용은 「하우징 헤럴드」 2023년 12월 14일 자에 잘 나타나 있다.

평촌학원가

"안양 평촌신도시는 대규모로 지어진 분당·일산과 달리 기존 구도심에 맞붙여 조성한 시가지 연계형 신도시의 대표 격이다. 평촌과 함께 군포 산본과 부천 중동이 시가지 연계형으로 지어진 1기 신도시다. 무엇보다 주민들은 교통과 학원가가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한다. 우선 교통이 편리해 살기 좋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우수한 학원가야말로 평촌신도시를 수식하는 핵심 단어 중 하나다. 주민들은 도시 중심부에 잘 갖춰진 학원가가 평촌신도시 집값을 지탱해주는 밑바탕이라고 소개한다. 분당과 함께 경기도 지역의 톱클래스 수준의 학원가라고 자랑한다. 과천 지역의 학생들도 평촌신도시 학원을 이용할 정도라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안양시의 교육은 교육 내용과 시설적인 부분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즉 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 중심에서 요구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더 이상 교육이 고등교육 진학의 수단이 아닌 시민들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연령별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11년 경기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행하였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1년 2월에 광명, 구리, 시흥, 오산, 의정부, 안양 6개 지자체와 혁신지구 사업을 위한 교

육 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혁신교육지구 시즌 Ⅰ을 운영하였다. 혁신교육지구 시즌 Ⅰ(2011~2015), 혁신교육지구 시즌 Ⅱ(2015~2020)를 거쳐 2021년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5년간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 협력을 이끌어갈 혁신교육지구 Ⅲ가 시작되었다. 안양은 혁신교육지구에 제일 먼저 선정되면서 관련 조례도 제정하였다.[23] 「안양시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혁신교육지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양시 지역혁신교육포럼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공교육 혁신 및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혁신교육도시 간담회(2011)

3. 미래역량 인재 육성
4.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
5. 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6.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교육 관련 지역 특화사업
8. 그 밖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양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자 2011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안양시가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정한 지역으로 11년째 운영하고 있다. 안양 혁신교육지구의 비전은 '안양 혁신교육지구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 실천'이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모두가 행복한 지역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추진과제는 세 가지로 함께 만드는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으로 제시된다. 각각의 큰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사업이 진행된다. 이로 인해 학생은 스스로 삶을 기획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고, 학교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역사회는 학교와의 협력으로 더 나은 안양의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기대효과다.[24]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수가 감소되는 추세가 안양시에도 반영되었다. 1997년 115개였던 유치원 수는 2000년대 들어 90개 전후로 감소하였고, 유치원생 수 역시 1997년 9819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0년에는 6953명까지 감소하였다. 초등학교 학생 수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아 학교 수는 증가하였으나, 학생 수는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34개였던 초등학교의 수는 2010년 40개까지 증가하였으나 학생 수는 2001년 5만 4956명에서 2010년 4만 2082명으로 감소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2001년 20개였던 학교 수가 24개로 증가하였으나 인원수는 2001년 2만 7101명에서 2010년 2만 7118명으로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01년 18개에서 2010년 21개로 증가하였으며, 학생 수 역시 2001년 2만 7614명에서 2010년 3만 1645명으로 증가하였다. 특이한 점은 2001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인원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대학의 경우 대학 규모가 증가하며 정원 역시 증가함에 따라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인교대가 안양으로 이전하면서 안양시 관내 대학은 5곳으로 증가하였다.

경인교육대학교

반면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 관내 학교는 새로 개교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 안양관악초등학교, 2001년 삼봉초등학교·벌말초등학교, 2002년 안일초등학교, 2004년 샘모루초등학교, 2005년 화창초등학교, 2006년 나눔초등학교·안양호암초등학교가 개교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2002년 연현중학교, 2003년 호성중학교, 2006년 비산중학교·임곡중학교가 개교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2002년 관양고등학교, 2004년 충훈고등학교가 개교하였다. 이는 삼성래미안, 비산삼성래미안, 호계e-편한세상 등 대단지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하며 인근 학교의 필요성에 따라 개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양시에는 특수학교가 한 곳 있는데, 바로 '안양해솔학교'다. 안양해솔학교는 2004년 19개학급(유치원 2개, 초등학교 9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 학급) 총 113명으로 개교하였다. 안양해솔학교는 공립특수학교로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다. '건강하고 즐겁게 스스로 생활하자'를 교훈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함께 있다. 교육 목표는 '자립 의지와 자신감으로 꿈을 키우는 학생, 바른 행동으로 사회 적응을 잘하는 학생,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이다.

〈표 4〉 2001~2010년 안양시 학교 현황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대학교	
	기관 수	원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2001년	99	8,046	34	54,956	20	27,101	18	27,614	4	35,601
2002년	97	8,182	36	56,378	21	27,393	19	26,857	4	36,555
2003년	97	8,160	36	56,034	22	27,687	19	27,600	4	37,495
2004년	85	8,144	37	56,979	22	29,222	20	28,278	4	37,890
2005년	89	8,226	38	55,471	22	30,069	20	28,899	4	37,433
2006년	87	7,938	40	53,585	24	30,570	20	29,162	4	37,326
2007년	85	7,304	40	51,504	24	29,722	21	30,120	5	38,569
2008년	84	6,685	40	48,639	24	29,084	21	31,295	5	31,271
2009년	83	6,357	40	44,985	24	28,034	21	31,974	5	23,642
2010년	89	6,953	40	42,082	24	27,118	21	31,645	5	40,247

자료: 2001~ 2010년 안양시 통계연보.

8) 2011~2024년 현재

안양시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교육이 급격히 발전했다. 특히 타 1기 신도시에 비해 학원가가 팽창하여 사교육의 중심이라는 인식도 있다. 이는 안양시 교육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평촌학원가'로 대표되는 사교육 시장으로 교육이 부각되어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으나, 반대로 그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이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맞춰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안양시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교육지구 시즌 Ⅲ을 통해 경계를 넘는 교육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지역에서 교육의제를 논의·결정하고 지역에서 추진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내 대학인 대림대, 연성대와 함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에는 안양이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교육부가 지정하는 미래교육지구에 신규 지정되었으며, 대통령 소속 자치분과위원회가 선정하는 2021 교육자치-지방자치 연계 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25]

2011년 81곳이었던 유치원 수는 2023년 73곳으로 줄었고, 원생 수 역시 2011년 6677명에서 2019년 5974명, 2023년에는 4759명까지 감소하였다. 1994년 1만 명에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2024,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육박했던 원생 수에 비해 절반 정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초등학교는 40곳에서 41곳으로 한 곳 증가하였으나, 인원수는 2011년 3만 9124명에서 2023년 2만 5882명으로 감소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중학교 학생 수는 2011년 2만 5630명에서 2023년 1만 4052명으로, 고등학교 학생 수는 2011년 3만 495명에서 2023년 1만 5572명으로 절반 정도 감소하였다. 대학교 역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3만 3000명 정도 수준에서 유지 중이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2012년 안양외국어고등학교, 안양예술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특수목적고로 변경되었으며, 2011년 대림대학이 대림대학교로, 2012년 안양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연성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표 5〉 2011~2023년 안양시 학교 현황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대학교	
	기관 수	원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2011년	81	6,677	40	39,124	24	25,630	21	30,495	5	40,384
2012년	85	7,201	41	36,197	24	24,243	21	29,110	5	38,479
2013년	86	7,659	41	34,028	24	23,211	21	27,761	5	36,029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대학교	
	기관 수	원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기관 수	학생 수
2014년	88	7,675	41	32,224	24	21,433	21	26,420	5	31,290
2015년	86	7,555	41	31,499	24	19,475	21	25,205	5	37,921
2016년	87	7,316	41	30,053	24	17,793	21	24,247	5	36,271
2017년	83	7,048	41	29,890	24	16,563	21	22,546	5	35,796
2018년	82	6,474	41	29,276	24	15,642	21	20,422	5	27,006
2019년	79	5,974	41	28,467	24	14,858	21	18,623	5	33,748
2020년	77	5,709	41	27,336	24	14,891	21	17,267	5	33,693
2021년	75	5,171	41	26,687	24	14,955	21	16,418	5	33,508
2022년	74	5,033	41	26,648	24	14,396	21	15,615	5	33,073
2023년	73	4,759	41	25,882	24	14,052	21	15,572	5	33,089

자료: 2011~2023년 안양시 통계연보.

9) 안양 교육의 현재

교육은 사회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에 의해 변화하기 시작하며, 반대로 외부 변화로 인해 변화가 요구되기도 한다. 2010년대 들어 교내 체벌이 금지되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등의 제도가 도입됨과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 폭이 증가하면서 학교의 교육 방식과 교육체계는 많은 변화를 맞게 된다. 안양시 역시 이러한 교육부 기조에 따라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일반고의 경우 중점고등학교 선호에 따라 부흥고등학교, 백운고등학교, 안양여자고등학교가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과학중점고등학교는 과학·수학 분야에서 우수한 자질을 나타내고 있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수학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특성화고 역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특성화고 선호도가 감소함에 따라 학생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과거 공학·상업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던 학과는 베이커리, 패션, 미용, 보건 계열로 변화하고 있다.

교육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요구받고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안양 역시 안양의 경제적·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의 안양은 평촌을 중심으로 주

요 학군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교육열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는 평촌 학원가의 성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양의 수준 높은 학교들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이러니하게도 사교육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안양의 교육은 높은 인구밀도와 교통의 중심지, 교육 인프라 확충이 맞물려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발전은 공교육이 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정책의 개발과 함께 안양시의 꾸준한 관심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註

1 안양시청(https://www.anyang.go.kr)
2 피정만, 『한국 교육사 이해』, 하우, 2010, 21쪽
3 피정만, 『한국 교육사 이해』, 하우, 2010, 77쪽.
4 『안양시사』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2008, 4쪽.
5 피정만, 『한국 교육사 이해』, 하우, 2010, 88쪽.
6 네이버 두산백과(https://terms.naver.com)
7 경기도지회, 『경기도서원총람-하』, 국학자료원, 2006, 121쪽.
8 『안양시사』5, 안양시사 편찬위원회, 2008, 5~11.
9 안기영, 「안양교육의 역사」, 『안양학논총』1, 2001, 175~195쪽.
10 『동아일보』, 1929년 12월 26일.
11 『동아일보』, 1929년 3월 18일.
12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Ⅰ)」, 『안양학 자료집 제6권』, 안양시, 2006.
13 『안양시사』5, 2008, 11~21쪽.
14 삼성초등학교(https://samsung-e.goeay.kr)
15 『안양시사』5, 2008, 11~21쪽.
16 안양과천교육지원청(https://www.goeay.kr)
17 안기영, 「안양교육의 역사」, 『안양학논총』1, 2001, 175~195쪽.
18 안기영, 위의 책, 175~195쪽.
19 『안양시사』5, 2008, 11~21쪽 정리.
20 안기영, 「안양교육의 역사」, 『안양학논총』1, 2001, 175~195쪽.
21 『안양시사』5, 2008, 11~21쪽 정리.
22 『안양시사』5, 2008, 11~21쪽 정리.
23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시즌 Ⅲ 추진 기본계획(안), 2020.
24 한국교육개발원, 전국 혁신교육지구 사업 현황 분석, 2018.
25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혁신교육지구, 2021 성장나눔 전시회 및 2022 사업설명회 개최, 『비전21뉴스』 2021년 12월 22일.

2장

교육정책과 지역사회 교육

김예승 대림대학교 사무행정학과 교수

1. 안양의 교육정책

1) 안양의 교육정책 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방교육자치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 즉 생활의 질적 향상 욕구, 문화적인 욕구 등의 충족을 위하여 지역 주민 자신들의 당면 문제를 직접 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그 지방의 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이다.[1]

안양시교육청(1970년대, 안양1동)

헌법재판소의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입장은 99헌바113 판례(2000.3.30.판결)에서 확립되었다.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전, 2017). 1962년 헌법 개정 당시 대한교육연합회가 교육자치를 헌법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 사실에서 비추어볼 때,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은 당시의 교육자치를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자치 내지 지방교육자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김영환, 2011).[2] 이러한 기조에서 안양시의 교육정책 역시 안양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주민이 적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 교육에 대한 정책이 증가하는 추세다. 안양시 역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특히 평생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도별 안양시의 체계화된 교육정책은 2000년도 『시정백서』에서부터 확인되고 있다. 시기별 교육정책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2000~2010년[3]

경기도안양교육청(1996, 호계2동)

2000년대 초반 안양시 교육정책은 현재의 평생교육의 개념보다는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 분야 정책은 별도 교육 분야가 아닌 청소년, 여성, 문화 분야에 분산되어 정책이 수립되었다.

안양시 교육정책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 흔히 청소년기를 '제2의 탄생기'라고 한다. 이 말의 참뜻은 부모로부터 육체적인 출생을 걸쳐 정신적인 성숙기를 맞는 연령층으로서 중요성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학교 교육을 통해 사회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로 장차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 모든 인성과 지성을 좌우하는 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은 우리 모두의 미래이며 희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이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계승하고,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아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1세기를 주도할 청소년들에게 생활공간을 마련해주고자 청소년선도·보호와 병행하여 문화공간과 활동 지원을 중점 실천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춰 미래의 역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민선자치 이후에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 근절, 청소년 복지 증진을 시정의 중점 시책으로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세부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시책으로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으며, 청소년의 창의력과 문화적 소양 개발, 심신 단련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0년도 안양시 예절교육관이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여성 정책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다.

안양시 예절교육관(2003)

2007년부터 안양시는 학교교육지원을 별도 시책으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의 교육정책은 청소년 건전 육성과 학교교육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 건전 육성 정책은 2000~2006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미래의 역군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 근절, 청소년 복지 증진을 시정의 중점 시책으로 선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2008년부터는 평생학습 개념이 정책에 반영되었다. 안양시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도입하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정책을 시작하였다.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시설을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2008년 『시정백서』에는 평생학습원이 별도로 서술되어 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여성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은 여성들의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한 기능 및 취미 프로그램 강좌 운영과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은 각종 도서와 전자정보자료를 갖추어 시민 누구나 다양한 문헌과 디지털 정보,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늘어나는 이용자들을 위해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였고, 권역별 도서관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여성회관 등 총 12개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자원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나가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21세기 안양의 비전으로 '일·여가·학습이 어우러진 평생학습 도시 건설'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간중심도시', '문화예술도시', '지식도시' 건설을 목표로 삼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9년에는 '고품격 명품 교육도시'를 목표로 하여 교육으로 미래를 이끄는 명품 도시 실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세부적으로 첫째, 인재양성 시책 추진으로 인터넷 수능 방송 수강 지원, 영재교육원 설립 등 특화사업 지원, 교육정보화 및 방과후 학교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둘째, 경쟁력 있는 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학교 내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조성, 학교 내 어학 전용 교육실 설치를 추진하였다. 셋째,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급식시설 현대화 및 친환경 급식 지원,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등 교육정보화 지원,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학교 주변 안전시설 정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 및 정비를 시행하였다. 넷째, 평생학습도시 기반사업 추진을 통해 평행학습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시민자치대학을 운영하였다. 다섯째,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책 읽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2) 2011~2019년[4]

2011년도에는 안양·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MOU 체결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이 함께하는 사업이다. 안양시는 교육청의 교육정책사업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특성화 사업에 대해 지역교육 공동체 구축을 통한 행·재정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고양하고, 지역 주민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011년 시행 첫해 지정된 혁신구역(Ⅰ) 학교는 안양서초·신안초·양지초, 안양서중·안양서여중·신안중, 혁신구역(Ⅱ)은 달안초·부림초·부안초, 부림중·부안중이다. 또한 안양시는 20011년 1월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의 일원화 및 지역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1998년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선진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흐름에 따라 기존의 저소득층 자녀 위주로 지급하던 장학금을 학업성적, 예체능, 기타 특정 분야에서 향토를 빛낸 모범학생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향토장학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2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대를 위해 1월 1일 평생학습팀을 신설하였다. 이는 기대수명 연장으로 100세 기준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하고 평생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평생학습 조직 확대 및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다.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 해소와 평생학습 기관 간 네트워크 연결 등의 지원을 위해 평생학습팀 신설과 평생교육사 3인 체제로 개편하고, 여성회관의 명칭을 평생교육센터로 변경하였다.

2015년도는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도시', '소통하고 실현되는 도시', '지식, 정보 격차 없는 도시'로 평생학습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정책사업', '시민친화적인 평생교육운영', '지식창조의 도서관 역할 강화'라는 전략목표를 수립하였다.

2016년은 '배움과 실천을 통한 따뜻한 삶 제고'를 기조로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센터 강좌, 안양시민학당, 찾아가는 두드림 강좌, 경로당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와 동시에 명품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희망창조학교를 46개교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다목적 체육관 건립

평생교육센터(현 만안평생학습센터)

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7년도에는 안양 인문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창의체험 교육특화, 인문 교육특화, 명문 교육특화, 글로벌 교육특화, 보편 교육특화 사업을 진행하였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가족, 부부, 시민 등 전 생애를 아울러 인문 소양, 인성, 소통, 문화·역사,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명품인문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8년도의 정책은 교육의 질을 책임지는 데 방점을 두었다. 안양형 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통해 고등학교까지 GMO 없는 완전 무상급식 실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및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창의융합 미래인재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한양희망창조학교를 확대하고, 초·중·고 학생동아리 및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3) 2020~2024년[5]

2020년대 들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정책은 단순 지원이 아닌, 복지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2023년도부터는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다. 모바일 알림장 앱 안양시청 계정에 교육정보 및 시정 홍보자료를 게시하여 구독 학부모에게 앱으로 푸시 알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미래교육센터 건립 추진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등 진로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신문』 기사(20203년 3월 14일 자)를 보면 "안양시가 3월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힘을 쏟는다. 시는 학교 교실 공기정화를 위해 공기살균기 임대비 지원과 교복·체육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공기청정·살균기 임대비 지원사업은 초·중·고교 음악실과 미술실 등 특별교실의 공기청정기, 공기살균기(또는 겸용기) 임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시는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을 교복 및 체육복 지원사업도 편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중고·교 46개교, 1만여 명의 신입생에게 30만 원 이내의 교복을 지원한다. 그리고 시는 자체 사업으로 중·고교(대안교육기관 포함) 신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7만 원도 지원한다."

2024년도의 안양시 교육정책의 키워드는 '책임지는 교육도시'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역화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41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고등학교 10곳을 대상으로 단계별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안양 인문교육특구 지정 및 2017년 제9회 방과후학교 대상 현판

2) 안양시 교육정책의 특성화

(1) 안양 인문교육특구

안양시는 2018년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정하는 '안양 인문교육특구'에 지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2017.12.11.제정)되었다. '안양 인문교육특구'의 지정 목적은 "안양시는 기업의 지방 이전, 가용토지 부족, 높은 인구밀도 등 정체된 도시발전을 타개하기 위해 사람을 도시의 중심 자원으로 인식하여 연령별·지역별·계층별 맞춤형 인문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구 지정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구현을 통한 지역발전과 정주도시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으로 규정되어 있다. 「안양시 인문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2018.10.5. 제정)」에 따르면 인문교육사업의 범위는 인문교육 인프라 확충 사업, 인문교육 콘텐츠 강화 사업, 생애주기별 인문교육 사업, 인문 창의인재 육성 사업, 글로벌 인문교육 강화 사업, 그 밖에 시장이 인문교육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등이다. 이에 따른 사업 내용은 인문교육 인프라 확충, 인문교육 콘텐츠 확충, 청소년 인문교육 운영, 시민참여형 인문교육 운영, 인문교육 선도기반 조성, 글로벌 인문교육 강화 등 6개 분야로 진행되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정된 이후, 특화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2024년까지 연장되었다. 2024년부터는 기존 세부 사업인 꿈의 오케스트라 '안양 브라보' 사업, 글로벌 인문 엑스포 사업은 폐지하고, 시대 여건에 맞게 정비해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

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구직자 직장 체험, 청년 창업 활성화 등 2개의 세부 사업을 신설해 추진하고 있다.

(2) 미래교육협력지구(혁신교육지구) 사업

2010년 이후로 안양시의 교육 방향이 변화하게 된다. 안양시는 2021년 4월 8일 「안양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 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고, 안양시 지역혁신교육포럼을 지원함으로써 미래교육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이다(「경기도교육청 혁신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혁신교육지구는 2011년 2월 첫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안양시는 경기도 내 최초로 경기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하였다. 현재까지 3개의 시즌이 진행되었는데, 시즌 Ⅰ은 2011년 3월~2016년 2월, 시즌 Ⅱ는 2016년 3월~2021년 2월까지 시즌 Ⅲ은 2021년 3월~2025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6]

시즌 Ⅲ부터는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역교육의 중심, 새로운 미래교육생태계 실현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는 교육자치 활성화를 통한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지역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미래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의 3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7개의 추진과제, 18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했다.[7]

특히 안양시는 사업의 특성화로 2013년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안양희망창조학교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2017년에는 관내 모든 초·중학교인 53개교까지 운영을 확대하였다. 안양희망창조학교는 참여와 소통,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인성함양 프로그램과 학교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안양시만의 특성화된 교육 브랜드로 운영되었다.[8]

〈표 1〉 2025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목표	추진과제	세부사업
(자율)교육자치 활성화를 통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1. 안양지역교육협력 협의체 운영 2. 안양미래교육협력지구 전담팀 운영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3. 학생동아리 지원 사업 4. 학부모 교육
(균형)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조화롭게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안양 특색교육 프로그램	5. 안양시 지역연계 희망창조학교(초·중) 6. 안양 특색교육과정 지원
	배움 공간 확장	7. 함께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8. 지역연계 자유학기 운영 9. 공동교육과정 운영 10. 학생행복도시 고교학점제 운영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인프라 확대	11. 이룸학교(학생기획형 프로그램) 12. 지역교육 역량강화 지원 13. 토닥토닥 교원치유
(미래)지역의 특색에 기반한 글로컬 융합인재 양성	지역연계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	14. 안양 18권역 중심 지역교육 특색 프로그램 15. 지역연계 인문독서교육 및 디베이트
	주체적 삶을 위한 융합형 미래인재교육	16. 인문학 산책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 17. 경제·금융교육 지원(초·중) 18. 금융 리터러시 아카데미 19. 그린리더 성장지원 그린스페이스 20. 안양시 진로교육센터

(3) 평생학습도시

안양시는 2007년 1월 4일 「안양시 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전면 개정하였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안양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주요 내용으로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자아실현과 가치 있는 행복 추구를 위해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제3조).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양시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6조).

안양시는'배움으로 소통하고 변화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비전으로 시민참여형 평생학습강화,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역할 강화를 전략으로 수립하였다. 전략에 따른 세부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민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사업

안양시민학당,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강좌, 新 노년의 평생학습(경로당 평생학습) '그린나래', 소통, 기쁨, 나눔의 인문학 '소·나·기 프로젝트',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평생학습 재능기부사업(학습기부 강좌), 평생학습 네트워크, 평생학습 박람회,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 성인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평생학습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학습마당 운영

② 시민 친화적 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만안·동안평생학습센터), 노인 취미교실 및 정보화교육 운영(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

③ 시민과 소통하는 도서관 역할 강화

독서 문화 교육 및 관련 행사 진행,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독서 생활화 지원, 문화콘텐츠 제공을 위한 전시회

2. 안양시 교육시설 현황

1) 학교

2024년 현재 안양시 관내에는 총 152곳의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치원은 총 64개, 초등학교 41개, 중학교 24개, 고등학교 21개, 특수학교 1개, 평생교육시설 1개가 운영되고 있다.[9]

〈표 2〉 안양시 교육시설 현황

구분	공립학교 수	사립학교 수	계	학급 수	학생 수
유치원	25	39	64	280	4,680
초등학교	41	0	41	1,064	24,988
중학교	20	4	24	494	13,917
고등학교	11	10	21	646	15,686
특수학교	1	0	1	38	206
평생교육시설	0	1	1	4	74
합계	98	57	152	2,526	59,551

2) 청소년수련관

(1) 청소년수련관 개요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은 1998년 11월 17일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가 공포되었으며, 1999년 7월 12일 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안양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2) 운영 현황

① 안양시 청소년재단[10]

안양시 청소년재단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1번길 33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자는 안양시장이다. 설립 목적은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및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 1999년 1월 6일 설립이 허가되었으며, 설립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목적)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한다.

청소년재단의 중장기 발전은 '지속 가능한 청소년 행복 성장도시 안양'으로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미래가 있는 최고의 성장환경을 제공하여 안양시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디자인하고 도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성장케 하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꿈이 자라나는 365일 청소년 행복 플랫폼을 형성하고 도전, 참여, 협업, 자립을 핵심 가치로 한다.

재단은 운영의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경영전략 목표와 17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였다.

문화다양성 통합 활동 '2025년 다다만세 축제'

〈표 3〉 안양시청소년재단 목표 및 전략과제

경영전략 목표	전략과제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구축	• ESG경영을 통한 재단의 사회적 역할 강화 • 체계적 인적자원관리(HRM) 시스템 운영 • 체계적 인적자원개발(HRD) 시스템 운영 • 청소년 활동사업 개발 지원 • 소통중심 홍보 마케팅 운영체계 구축
실질적 청소년 참여기반 조성	• 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 • 안양형 지역사회 참여활동 모델 개발 • 체계적 청소년 동아리 지원 시스템 구축 •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청소년활동 모델 개발
청소년 주도 미래역량 개발 지원 체계 고도화	• 성장주기별 맞춤형 진로개발 운영 • 시설별 특성화 미래역량 강화 활동 모델 개발 운영 • 청소년 미래역량 개발 지원 협의체 구축 • 지역기반 청소년 문화활동 여건 조성
청소년 상담·보호 복지체계 고도화	• 청소년 상담 전문성 강화 • 위기청소년 지원 시스템 고도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 청소년보호복지 여건 강화

② 만안청소년수련관[11]

안양시 만안청소년수련관은 2007년 안양시에서 건립하고 2008년부터 안양시청소년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1번길 33에 위치해 있다. 수련관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는 사회교육과 다양한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지역 공동문화를 가꾸어나가는 생활권 내의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수련관의 시설은 특성화 시설과 청소년 전용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맞춤형 강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성화 시설은 영상미디어센터, 다문화교류센터,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이 있으며, 청소년 전용시설은 동아리실, 활동실, 운영위원회실로 구성되어 있다. 체육시설은 헬스장, 편의시설은 북카페, 맞춤형 강의실은 탁구강의실·음악강의실·체육강의실이 있다. 특성화 시설의 경우 영상미디어센터는 청소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창의적인 동기 유발을 통해 미래 문화사업을 책임질 청소년 육성(녹음스튜디오, 편집실2, 영상교육실)하기 위한 장소다. 다문화교류센터는 다문화 시대의 청소년이 문화다양성 수용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고, 다문화 프로그램과 정보교류를 위한 지역사회의 코어(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은 식품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과 체험교육 및 영양상담을 통하여 시민이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식품안전의 장이다.

만안청소년수련관의 비전은 '행복하게 성장하는 안양 청소년 #No Future Without Youth'로 4개의 전략과 12개의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표 4〉 만안청소년수련관 전략 및 중점과제

전략	중점과제
청소년 참여 ·권리 확대	• 자치조직 중심 청소년 주도성 강화 •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 지역사회 참여활동 활성화 및 저변 확대
청소년 미래핵심 역량개발	• 청소년 균형성장 활동 지원 • 청소년이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및 디지털 활동 환경 조성 • 미래역량개발 평생교육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 신뢰받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중심의 안전한 시설 운영 • 청소년 활동 공간 확대
대·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망 강화 •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콘텐츠 구축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만안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현재 10개의 청소년 활동과 4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활동은 사회참여역량강화, 문화예술감수성, 인성함양봉사, 적성진로탐색, 지식체계활동, 가족소통활동, 지역사회개선활동, 후기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야외체험실천활동 등이 있다.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학교연계사업, 정규강좌 프로그램(평생교육), 정규강좌 프로그램(생활체육), 방학특강이 있다.

학교연계사업은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대상은 안양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며,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유연한 교육과정, 학교적응프로그램 등 강사 매칭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규강좌 프로그램(평생교육)은 영어와 중국어, 음악(성악동요교실, 어린이 난타교실, 기타, 핑거링기타, 바이올린, 키즈뮤지컬, 연극과 뮤지컬 등), 미술(홍익초등 창의아트, 만화캐릭터, 하트하트 미술교실, 현대미술 등), 교과연계(과학탐구, 수학탐구, 사회탐구, 글쓰기 논술 등), 사고력, 창의력, 취미공예, 자격증, 요리, 단기 특강(디저트 교실, 아로마오일 천연제품 만들기, 플라워 클래스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정규 강좌 프로그램(생활체육)은 헬스/휘트니스(체력단련 프로그램), 구기운동(농구, 배드민턴, 실내축구, 탁구교실 등), 체력증진(줄넘기, 인라인 등), 호신무예(검도), 건강관리(요가, 필라테스

만안청소년수련관

등), 댄스/발레(줌바, 방송댄스, 치어리딩, 클래식 발레 등) 등 다양한 수업이 열린다. 방학특강은 정규강좌 외에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단기간 진행 가능한 강좌로 편성하여 성취감을 높여주고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음 학기의 학습 의욕을 돋우는 역할 및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체육프로그램과 평생교육프로그램(과학실험, 코딩, 마술, 도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동안청소년수련관[12]

동안청소년수련관은 수도권의 대표적인 청소년 및 시민의 문화·소통 공간이다. 청소년 및 시민이 주인인 안양을 위하여 전국 최우수 청소년수련시설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여긴다.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지역 공동문화를 가꾸어 나아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안양의 자랑 청소년 수련시설'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5에 위치해 있다.

주요 시설로는 청소년 자유공간, 다목적체육관, 휘트니스룸, 라켓볼장, 문예극장, 동아리실이 있다. 특히 청소년 자유공간인 '포텐'은 자유로운 여가와 휴식을 위한 청소년

동안청소년수련관

전용 북카페다. 청소년 문화 활동 콘텐츠를 지원(독서, 보드게임 등)하며 청소년 문화기획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다목적체육관은 구기운동(농구, 축구, 배드민턴, 탁구), 호신(검도), 인라인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

동안청소년수련관의 비전은 '청소년이 비상하는, For Leading Youth 수련관(청소년이 비상하는, 선도하는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으로 4개의 전략과 11개의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표 5〉 동안청소년수련관 전략 및 중점과제

전략	중점과제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 강화	• 청소년의 참여활동 강화 • 청소년 권익 증진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 청소년 디지털 역량활동 강화 • 청소년 맞춤형 체험활동 확대 •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지원 강화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평생교육 실현	• 다양한 강좌의 개발·운영을 통한 참여기회 확대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업 활성화 • 타당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환류체계 개선
효율적인 수련관 운영을 위한 추진기반 체계화	• 효율적 행정 시스템 확립 및 가족친화경영 실천 • 직원 역량강화 지원 및 전문성 제고 • 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고객 중심 서비스 실현

동안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현재 8개의 청소년 활동과 5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하고 있다. 청소년 활동은 사회참여역량 강화활동, 문화 ·예술감수성 함양활동, 인성함양봉활동, 지식체계활용, 글로벌 시민의식활동, 야외신체 모험활동, 지역사회 개선활동, 후기청소년 등이 있다.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방학특강, 국제아카데미, 체육아카데미, 문화아카데미, 예술아카데미가 있다. 방학특강은 방학기간(여름·겨울방학) 동안 청소년의 취미·교양 습득 및 소질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예술·문화·국제 분야의 특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국제아카데미는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의 국제적 감각 함양을 위한 영어 및 중국어, 일본어 등 어학 분야의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체육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의 기초체력 증진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보급과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이다. 전문시설(헬스, 레켓볼), 호신무예(검도, 태권도, 호신술&유도), 구기 강좌(농구, 축구, 탁구, 배드민턴 등), 댄스 강좌(토탈댄스, 재즈댄스, 치어리딩, 밸리댄스, 에어로빅, 키즈댄스 등), 체력증진 강좌(요가, 필라테스, 서킷, 약봉교정

태라피, 태극권 등), 신체균형발달 강좌(발레, 유아체육, 음악줄넘기, 인라인스테이트 등)가 운영되고 있다. 문화아카데미는 청소년의 창의적 사고력 및 표현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이다. 사고 탐구 과학영재 강좌(과학놀이, 실험, 로봇교실, 생명과학 등), 인성 글쓰기 논술 집중력 강좌(바둑,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슬로우리딩독서 등), 창의 ·학습능력·표현력 향상 강좌(창의영재수학, 주산, 드림스피치, 미니어처공예 등), 자격증 취득 및 성인 취미 강좌(가죽공방, 꽃꽂이 등)가 운영되고 있다. 예술아카데미는 청소년 및 지역 주민의 취미활동 충족 및 예술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음악·미술 분야의 다양한 강좌 프로그램이다. 음악 강좌(기타, 드럼, 피아노, 바이올린, 발성 트레이팅 등)와 미술 강좌(소묘와 수채화, 도예교실, 일러스트·만화, 그림책 창의드로잉 등)가 운영되고 있다.

3) 시립도서관

(1) 도서관 개요

안양시립도서관은 현대사회가 급속히 변화되고 다원화됨에 따라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오늘날 도서관의 역할은 전문성을 갖춘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서 다양한 자료의 신속한 확보와 제공, 각종 문화사업의 추진 등으로 지역사회의 종합문화 정보공간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다.[13]

지방자치제에서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행정 기능 중에서 문화교육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때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14]

박달도서관 어린이 동화구연(2025)

평촌도서관 희곡 글쓰기 프로그램「희희낙락」

첫째, 지방자치라는 정치제도의 변화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도전 중에서 특히 매스컴의 발달과 정보의 급증, 그리고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여가의 증대 등을 극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도구로서 평생교육과 계속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공공도서관이야말로 이러한 계속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 재교육의 기능으로서 지역 주민의 교육 및 문화의 교육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교육 및 문화적 욕구에 필요한 자료와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지적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문화 활성화 기능이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지역 주민들의 욕구는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다양화되었으며 지역적인 특색이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정서에 따른 요구가 강해지고 있어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도서관의 전통적인 정보 서비스 기능에 더욱 확대되고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하는 정보문화 원천으로서의 기능이다. 즉 다양한 형태의 정보와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 제공함으로써 정보를 통한 지역 문화의 창출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서관은 정보제공, 문화활동, 교육기관으로서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성을 갖춘 사서 인력의 확보,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문헌정보학적 배경과 추진력을 갖춘 전문가적 마인드를 가진 리더가 절실히 필요하다.

안양시립도서관은 1992년 8월 31일 만안도서관 설치조례 및 직제규칙 공포, 1994년 4월 26일 시립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가 공포되며 운영이 본격화되었다. 1992년 9월 3일 만안도서관 개관을 시작으로, 1994년 4월 26일 평촌도서관, 1998년 호계도서관, 2003년 12월 19일 석수도서관, 2006년 3월 3일 박달도서관, 2007년 10월 12일 어린이도서관, 2010년 10월 1일 비산도서관, 2014년 3월 26일 벌말도서관, 2016년 6월 13일 관양도서관, 10월 31일 삼덕도서관이 순차적으로 개관되었다. 2024년 현재 안양시립도서관은 총 10개가 운영되고 있다.[15]

도서관은 교육 및 문화 사업의 구심점이 되었는데 2000년부터 도서진흥 사업을 통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교실 운영,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도서관, 어린이 독서퀴즈, 글쓰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시는 도서관의 특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도서관별 자료의 특성화'사업을 진행하였다. 만안도서관은 기술과학 분야·논문 및 연구보고서·전자정보센터화, 평촌도서관은 사회과학 분야·지역사회 향토자료, 호계도서관은 문학자료·논술 지도자료·취업 및 창

업자료 관련, 석수도서관은 순수과학 분야·복합문화센터를 특성화하였다.

(2) 도서관 운영 현황[16]

① 석수도서관

석수도서관은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217번길 34(석수동)에 위치해 있다.

석수도서관의 특화 서비스 분야는 다문화·실버다. 다문화 및 실버를 특성화 주제로 선정하여 다문화 가정 및 실버 계층을 위한 전문자료를 수집하고 차별화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도서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주요 시설은 일반열람실, 노트북실, 시청각실, 멀티디미어체험실, 다문화자료실, 청소년열람실, 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유아방, 이야기방, 어린이문화교실, 보존서고 등이 있다. 도서 현황(2024년 8월 1일 기준)을 보면 총류 1만 9281권, 철학 1만 4652권, 종교 8267권, 사회과학 4만 5492권, 자연과학 1만 8142권, 기술과학 1만 9326권, 예술 1만 195권, 언어 1만307권, 문학 12만 1560권, 역사 2만 2308권, 총 28만 9530권을 소장하고 있다.

② 만안도서관[17]

만안도서관은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51(안양동)에 위치해 있다.

만안도서관의 특화 서비스 분야는 생활과학·사회복지다. 육아, 요리, 건강 등 생활과학 분야와 우리 사회 구성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장서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속에 함께하는 도서관이 되고자 한다. 주요 시설은 일반열람실, 노트북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간행물실, 문화교실, 휴게실 등이 있다. 도서 현황(2024년 7월 1일 기준)을 보면 총류 1만 1895권, 철학 1만 2538권, 종교 7856권, 사회과학 4만 2656권, 자연과학 1만 6670권, 기술과학 2만 9915권, 예술 1만 3137권, 언어 1만 993권, 문학 8만 3169권, 역사 1만 8997권, 총 24만 7826권을 소장하고 있다.

③ 삼덕도서관[18]

삼덕도서관은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58(안양동 782-30)에 위치해 있다.

삼덕도서관의 특화 서비스 분야는 청소년이다. 청소년들이 꿈과 상상력을 키우고 미래의 주역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분야 특성화 자료를 선정하였다. 청소

년 전용서가 운영,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청소년들의 지식과 정서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시설은 일반열람실, 노트북실,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간행물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휴게실, 수유실 등이 있다. 도서 현황(2024년 7월 1일 기준)을 보면 총류 4200권, 철학 4405권, 종교 2209권, 사회과학 1만 3720권, 자연과학 4779권, 기술과학 6075권, 예술 3257권, 언어 3192권, 문학 3만 2939권, 역사 5768권, 총 8만 544권을 소장하고 있다.

④ 박달도서관[19]

박달도서관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59(박달동)에 위치해 있다.

박달도서관의 특화 서비스 분야는 심리·인성이다. 인간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인성과 관련된 분야를 특성화 주제로 선정하여 시민의 인문·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시설은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열람실, 노트북실, 시청각실, 문화교실 등이 있다. 도서 현황(2024년 8월 1일 기준)을 보면 총류 4250권, 철학 5738권, 종교 2704권, 사회과학 1만 6007권, 자연과학 7041권, 기술과학 7238권, 예술 3723권, 언어 4553권, 문학 3만 7406권, 역사 7474권, 총 9만 6134권을 소장하고 있다.

⑤ 평촌도서관[20]

평촌도서관은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66(호계동), 2층에 위치해 있다.

평촌도서관의 특화 서비스 분야는 경제, 교과 연계다. 시민의 이용 빈도가 높고 관심이 많은 경제 분야와 독서활동과 교육과정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교과과정 연계도서를 특성화 자료로 선정하여 시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문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도서 현황(2024년 7월 1일 기준)을 보면 총류 1123권, 철학 1895권, 종교 589권, 사회과학 5035권, 자연과학 1151권, 기술과학 2900권, 예술 1445권, 언어 585권, 문학 1만 88권, 역사 1642권, 총 2만 6453권을 소장하고 있다.

⑥ 관양도서관[21]

관양도서관은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124(관양동)에 위치해 있다.

관양도서관의 특화 서비스 분야는 IT·웹툰이다. IT·웹툰 자료를 특성화 자료로 선정하여 기존 도서관에서 구비하기 어려웠던 자료들을 다량 확보하여 일반 시민 및 IT 및

웹툰 분야 전문가들도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주요 시설은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열람실, 노트북실, 시청각실, 문화교실, 휴게실, 수유실 등이 있다. 도서 현황(2024년 8월 1일 기준)을 보면 총류 5669권, 철학 4835권, 종교 2503권, 사회과학 1만4480권, 자연과학 6954권, 기술과학 7439권, 예술 3855권, 언어 4213권, 문학 3만 7829권, 역사 7688권, 총 9만 5465권을 소장하고 있다.

⑦ 비산도서관[22]

비산도서관은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23(비산동)에 위치해 있다.

비산도서관의 특화 서비스 분야는 미술·음악이다. 미술과 음악 분야를 특성화 주제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관련 문화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도서관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시설은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열람실, 노트북실, 시청각실, 휴게실 등이 있다. 도서 현황(2024년 8월 1일 기준)을 보면 총류 4250권, 철학 4470권, 종교 3476권, 사회과학 1만 4956권, 자연과학 6083권, 기술과학 7317권, 예술 6617권, 언어 4681권, 문학 3만 9548권, 역사 8972권, 총 10만 370권을 소장하고 있다.

⑧ 호계도서관[23]

호계도서관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685번길 26(호계동)에 위치해 있다.

호계도서관의 특화 서비스 분야는 국내·외의 유명 문학상 수상작·한국수필이다. 기존 특성화 분야(문학) 중 세분화하여 문학상 수상작과 한국수필을 주제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도서를 소개하고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시설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간행물실, 열람실, 노트북실, 문화교실, 시청각실, 휴게실 등이 있다. 도서 현황(2024년 8월 1일 기준)을 보면 총류 7851권, 철학 8022권, 종교 5255권, 사회과학 2만 4388권, 자연과학 9853권, 기술과학 1만 1046권, 예술 6580권, 언어 7237권, 문학 6만 2846권, 역사 1만 2673권, 총 15만 5751권을 소장하고 있다.

⑨ 어린이도서관[24]

어린이도서관은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66(호계동)에 위치해 있다.

어린이도서관의 특화 서비스 분야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북스타트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에 맞게 다양한 독후활동 프로

그램을 운영하여 어려서부터 책과 함께 성장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생애 초기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주요 시설은 책사랑방, 동화나라, 꿈나라, 이야기방, 먼나라, 배움터, 쉼터, 정보탐험, 어린이극장, 씨앗도서관, 장난감나라, 하늘정원 등이 있다. 도서 현황(2024년 8월 1일 기준)을 보면 총류 3930권, 철학 1547권, 종교 1342권, 사회과학 1만 2555권, 자연과학 1만 613권, 기술과학 2144권, 예술 1986권, 언어 5995권, 문학 5만 4548권, 역사 9133권, 총 10만 3793권을 소장하고 있다.

⑩ 벌말도서관[25]

벌말도서관은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4번길 19-27(평촌동 58-1)에 위치해 있다.

벌말도서관의 특화 서비스 분야는 시민의 이용과 관심이 많은 여행·지리다. 지리·여행 분야의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여행과 휴가 관련 특강 운영 및 저자 초청 시간을 마련하여 여행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주요 시설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문화교실 등이 있다. 도서 현황(2024년 8월 1일 기준)을 보면 총류 2728권, 철학 3025권, 종교 1329권, 사회과학 9671권, 자연과학 3841권, 기술과학 4924권, 예술 2155권, 언어 2387권, 문학 2만 6855권, 역사 6123권, 총 6만 3038권을 소장하고 있다.

4) 평생학습원

(1) 평생학습원 개요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추진체제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 진행을 위해 설치 및 운영되는 기구 그리고 이 기구의 기능을 포함한다.[26]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추진체제도 법령과 조례에 의해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추진체제는 중앙정부 추진체계와 동일하게 행정기구, 전담기구, 심의기구로 구분된다. 더불어 행정기구, 전담기구, 심의기구에 포함되지 않지만, 평생교육진흥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적 관계를 맺는 대학,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위원회, 평생교육기관 등도 실질적으로 추진체제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 중 행정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행정기구(시·도)와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시·군·구)로 구분된다. 광역자치단체 행정기구는

안양시민학당-내 인생을 바꾼 명화 한점(2024)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다.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다. 지방자치단체 심의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시·군·구 평생교육협의회가 있다. 기초자치단체 심의기구에 실무협의회가 추가되기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협의를 위한 실무진 협의체이다.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는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평생교육 정책 및 사업의 실질적 운영을 전담하는 기구로 시·군·구평생학습관, 소규모 행정 단위 전담기구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에서 안양시는 2007년 9월 시민 모두의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를 위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 안양시는 2010년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 평생학습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도서 및 여러 가지 자료의 수집·보존과 도서관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안양시평생학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안양시 평생학습원은 현재 3과(평생학습과, 만안구도서관, 동안구도서관)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평생학습 정책사업, 만안·동안 평생학습센터 운영, 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27]

주요 사업은 ㉠ 복지사업(이·미용실 운영, 경로식당 운영, 목욕탕 운영, 시간제 보육반 운영, 시설대관), ㉡ 문화사업(자료의 수집 및 정리·보존, 독서진흥을 위한 사업 운영, 도서대출 및 정보제공), ㉢ 교육사업(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교육과 취미·건강·교양 교육,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미교실 운영), ㉣ 그 밖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다.

평생학습원은 안양시민학당, 시민학당 야간 강좌, 두드림 강좌, 학습 재능기부, 학습

동아리, 우리동네 학습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시민학당은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강사들의 열린 강좌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 정보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문화·예술, 인물·역사, 생활·경제 등 시민 관심 분야 강좌 운영)으로 안양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두드림 강좌는 시민 7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학습 팀을 구성하여 배우고자 하는 평생학습 강좌(입문단계)와 시간, 학습장소 등을 정하여 신청하면 강사를 지원하는 학습자 중심의 안양시의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안양시민과 안양시 소재 기업 종사자로 성인 7인 이상 구성된 팀이다. 두드림 강좌의 운영 목적은 다음과 같다.

ㄱ. 평생학습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로 교육과정의 (입문)단계를 지원한다.

ㄴ. 평생학습 참여에 따른 초기비용 및 시·공간적 부담을 덜어주고 중복 참여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ㄷ. 지역 주민 간의 학습공동체 및 학습모임(동아리) 형성의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지속적 학습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

ㄹ. 지역 내 평생학습 기관의 영역을 최대한 보호하고 두드림을 통한 학습 동기 부여가 기관 이용률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한다.

ㅁ. 시민 주도의 학습 구성을 통해 시민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민의 자발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

ㅂ. 선정을 통한 지원사업으로서 학습 수혜에 따른 시민 책임감을 부여하여 적극적 참여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

학습 재능기부란 살아오면서 쌓은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에 강의 형태로 대가 없이 기부하는 자발적인 실천 활동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 평생교육원의 재능기부 사업은 재능기부 강사와 재능기부 희망강좌 신청기관을 연계하여 기부하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재능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부받는 사람에게는 접할 수 없었던 교육 기회가 제공되도록 개인과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시 평생학습원은 등록된 학습동아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지역사회 활동 연계 등 평생학습 문화 저변 확대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ㄱ. 학습동아리 등록을 통한 지역 내 학습동아리 정보망 및 네트워크 구축

ㄴ.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공모사업

ㄷ. 학습동아리 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 리더십 교육 및 워크숍

ㄹ. 학습동아리 활동 사례 발표 및 전시회 개최

ㅁ. 동아리 회원 간 정보 교류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 실시

ㅂ. 학습동아리와 지역사회 연계 지원(지역 내 다양한 학습자원 활동으로 연계)

우리동네 학습공간은 지역 내 유휴 공간을 발굴·확보하여 시민들이 학습 장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확대로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학습공간은 마음애상담 치유센터, 만안아트&힐링 작은도서관,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안양지사, 로봇과학클럽, 평생교육사협회 안양지회, 보드와 놀이교육센터, 햇님달님 작은도서관 등 7개가 있다.

최근 5년간의 안양시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면 2017년 2.7%에서 2021년 8.7%까지 향상되었다. 특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수의 경우 2017년 162개에서 2021년에는 992개까지 증가하였다.[28]

(2) 평생학습원 운영 현황

안양시는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안양 평생학습원 산하 만안학습센터, 만안노인복지회관, 동안평생학습센터, 동안노인복지회관이 안양시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① 만안평생학습센터[29]

1998년 1월 20일에 설립된 만안평생학습센터는 지식기반 사회에 시민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능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배움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풍요롭고 건전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시설로는 체육실, 당구실, 나눔실, 소강당, 인터넷 프라자, 서고, 교양실, 그림방, 묵향실, 강사실, 정보화실, 강당 공예방, 요리실, 미용실, 패션디자인방, 탁구장이 있다.

모집 대상은 18세 이상 안양시민 및 관내 직장인으로 한정하며, 2024년 3기 기준으로 82과목, 116개반 2579명을 모집했다. 수강신청은 인터넷 접수 후 컴퓨터 추첨으로 모집 인원을 선정한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학습·기능·요리, 음악·미술·건강, 야간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주요 강좌로는 현대의상, 필라테스, 통기타, 탁구, 컴퓨터활용능력,

유튜브크리에이터, 수채화&유화, 손뜨개, 서예, 캘리그라피, 당구, 밸리댄스, 바리스타 자격증, 줌바댄스,댄스스포츠, 한문서예, 한국무용, 인지건강, 문인화, 약봉테라피, 수채화, 국악, 화훼장식기능사, 홈패션, 커피라떼아트, 카페사이드&브런치, 중국어, 일본어, 영어, 중식기능사&실생활 활용요리, 실용헤어커트, 실생활 컴퓨터, 생활 제과제빵, 떡앙금플라워, 양식기능조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만안노인복지회관[30]

만안노인복지회관은 1997년 11월 22일에 개관되었으며, 만안구 냉천로 153번길 15(안양5동 707-139)에 위치해 있다. 주요 시설로는 간호사실, 휴게홀, 노인지회 사무실, 강의실, 바둑실, 미용실, 이발소, 서예실, 강당, 체력단련실, 주방, 경로식당, 게이트볼장, 정자 등이 있다.

모집 대상은 60세 이상 안양시 거주자로 한정하며,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12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수강신청은 인터넷 접수, 혹은 현장접수 후 컴퓨터 추첨으로 모집 인원을 선정한다. 교육은 학습·문화 및 예술·운동 및 건강· 정보화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주요 강좌로는 한글교실, 교양 한문,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글서예, 한문서예, 연필화, 바둑, 하모니카, 실버가요, 챠밍댄스, 댄스스포츠, 웰빙댄스, 한국무용, 태극권, 요가, 컴퓨터, 사진편집&동영상, 스마트폰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③ 동안평생학습센터[31]

동안평생학습센터는 1994년 10월 30일 여성회관으로 개관한 뒤, 2015년 1월 1일 안양시 평생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동안평생학습센터는 만안평생학습센터와 동일하게 지식기반 사회에 시민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능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배움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풍요롭고 건전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시설로는 무용실, 체육실, 어린이집, 어학실, 다목적실, 바둑실, 정보화실, 음악실, 쉼터, 섬유아트실, 도예방, 여성협의회, 요가실, 동아리방, 교양실, 묵향방, 공예방, 대강당, 벼루실, 헤어아트방, 요리실, 그림방 등이 있다.

모집 대상은 18세 이상 안양시민 및 관내 직장인으로 한정하며, 2024년 3기 기준으로 90과목, 135개반, 2968명을 모집했다. 수강신청은 인터넷 접수 후 컴퓨터 추첨으로 모집 인원을 선정한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학습·기능·요리, 음악·미술·건강, 야간 분야

로 구분되어 있다. 주요 강좌로는 한국화&캘리그라피, 통기타, 성인발레, 차밍댄스, 요가, 수채화, 댄스스포츠, K-POP, 홈패션, 포토샵, 중국어, 영어, 일본어, 제과기능사, 수제샌드위치, 생활한복, 부동산 경매, 밑반찬&별미요리, 컴퓨터 활용, DSLR카메라활용, 하와이안훌라, 행복웃음힐링교실, 한문서예, 한국화, 한국무용, 채색화, 자신감훈련스피치, 일상드로잉, 유화, 우쿨렐레, 오카리나, 연필인물화, 약봉테라피, 생활도예, 사물놀이, 보타니컬아트, 바둑, 동화구연, 화훼기능사, 홈베이커리, 기초한식요리와 응용, SNS 콘텐츠 디자인, 패션양재, 생활미용, 미용기능사, 가죽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동안노인복지회관[32]

동안노인복지회관은 1993년 12월 24일에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3에 위치해 있다. 주요 시설로는 목욕탕, 건강상담실, 노인지회, 강당, 바둑실, 인터넷카페, 미용실, 이용실, 체력단련실, 식당, 주방 등이 있다.

모집 대상은 60세 이상 안양시 거주자로 한정하며,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38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수강신청은 인터넷 접수, 혹은 현장접수 후 컴퓨터 추첨으로 모집 인원을 선정한다. 교육은 학습, 문화 및 예술, 운동 및 건강, 정보화로 구분되어 진행되고 있다. 주요 강좌로는 생활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글, 한문 논어, 합창, 가요, 민요, 바둑, 아코디언, 오카리나, 색소폰, 하모니카, 장고, 문인화, 우리옛그림&캘리그라피, 서예, 연필화, 요가, 몸틀운동, 우리춤 체조, 댄스스포츠, 하와이안훌라, 신바람웃음체조, 웰빙댄스, 라인댄스, 차밍댄스, 한국무용, 태극권, 컴퓨터 왕초보, 컴퓨터 초급, 컴퓨터 중급, 컴퓨터 사진편집, 컴퓨터 동영상, 왕초보 스마트폰, 생활 속의 스마트폰, 스마트폰 사진편집, 동영상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6) 예절교육관[33]

안양시는 명실상부한 평생학습도시로 평생학습원,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이외에도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예절교육관은 2000년 4월 17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401번길 62(비산동)에 설립되었다. 교육은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다. 예절교육관은 시민을 위한 예절문화공간으로 성인, 청소년, 교원,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禮’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은 성인예절 프로그램, 다례반, 청소년 프로그램,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성인예절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생활 속의 예절, 바른 자세와 행동, 인사, 우리 옷 바르게 입기, 통과의례, 혼례, 차와 예절, 자녀 예절교육, 에티켓과 자기연출, 제례, 태교, 음향오행, 다례, 부모교육, 의사소통 등이 있다. 다례반은 차에 대한 기본 상식부터 관련 이론, 실습까지 이루어지며, 청소년 프로그램은 관내 초·중·고·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절의 원칙 및 실습,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 실습, 절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외국인을 위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으로 기본 예절, 복식 예절(한복 바르게 입어보기), 다도(차 마시는 법), 한과 맛보기 등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註

1 이노국, 「안양시립도서관의 당면과제와 개선방안」, 『안양학논총』 제2권, 2002, 211쪽.
2 김영환, 「헌법상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기」, 『공법연구』, 2011, 40(2):103~132쪽; 이기우, 「한국지방교육의 진단과 발전과제」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창립2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2001, 11~34쪽; 김병주, 「지방교육자치제의 제도사적 평가」, 『교육행정학연구』 40(4), 2022, 259~319쪽 재인용.
3 안양시, 『시정백서』, 2000~2010년 참조.
4 안양시 주요업무계획 2011~2019년.
5 안양시 주요업무계획, 2020~2024년.
6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 기본계획(안), 2020.
7 안양미래교육 이리온(https://www.anyang.go.kr)
8 「공교육에 新바람 불어넣는 ‘안양희망창조학교’」, 『경기신문』, 2017년 3월 1일.
9 안양시 공교육 학교시설 현황은 안양시 역사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10 안양시청소년재단(https://www.ayf.or.kr)
11 만안청소년수련관(https://www.ayf.or.kr)
12 동안청소년수련관(https://www.ayf.or.kr)
13 안양시, 『시정백서』, 2000~2008년 참조.
14 이노국, 「안양시립도서관의 당면과제와 개선방안」, 『안양학논총』 제2권, 2002, 211~212쪽.
15 안양시립도서관(https://lib.anyang.go.kr)
16 안양시립도서관(https://lib.anyang.go.kr)
17 만안도서관(https://lib.anyang.go.kr/manan)
18 삼덕도서관(https://lib.anyang.go.kr/samdeok)
19 박달도서관(https://lib.anyang.go.kr/bakdal)
20 평촌도서관(https://lib.anyang.go.kr/pyeongchon)
21 관양도서관(https://lib.anyang.go.kr/gwanyang)
22 비산도서관(https://lib.anyang.go.kr/bisan)
23 호계도서관(https://lib.anyang.go.kr/hogye)
24 어린이도서관(https://lib.anyang.go.kr/child)
25 벌말도서관(https://lib.anyang.go.kr/beolmal)
26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3 평생교육백서』, 2023, 71쪽.
27 안양시평생학습원(https://learning.anyang.go.kr)
28 안양시, 행복도시 공감지표, 2023.
29 만안평생학습센터(https://learning.anyang.go.kr)
30 만안노인복지회관(https://learning.anyang.go.kr)
31 동안평생학습센터(https://learning.anyang.go.kr)
32 동안노인복지회관(https://learning.anyang.go.kr)
33 안양시 예절교육관(https://www.anyang.go.kr)

3장

안양시 공공도서관의 정책과 이용현황

유옥환 전 안양시 동안구도서관장

1. 안양 공공도서관의 출발

안양은 1973년 7월 1일 자로 안양시로 승격되었으며, 당시 인구는 11만 1075명이었다. 시승격 이전 1960년대 안양읍 시절에는 현 안양4동에 시흥군도서관이 잠시 운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공공도서관의 흔적은 1974년 제1회 통계연보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열람석 98석, 장서 수는 2514권, 연간 1만 3403명이 도서관을 이용하였고, 열람한 책 수는 4952권 집계되었다. 이후 1982년 안양2동에 안양시립도서관이 개관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통계연보 자료를 통해 도서관이 주로 개인 학습공간으로 이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육영수여사 양지회안양어린이도서실 현판식 참석
(1970, 국가기록원 제공)

1992년 9월 3일 안양시 최초로 현대적 규모의 독립된 건물로 만안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기존의 시립도서관을 통폐합하였다. 좌석 수 1076석, 장서 수 1만 9564권으로 도서관 면모를 갖췄다. 1992년 당시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도서관 8개소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4개소 등 12개소에 지나지

안양시립도서관 개관(1982, 안양2동)

안양시립도서관 신축공사 기공식(1987, 안양6동)

않았다. 만안도서관을 기점으로 인근 군포시 산본도서관, 안산시 관산도서관, 광명시 하안도서관, 용인시 용인도서관, 수원시 선경도서관 등이 안양시를 벤치마킹하는 등 지자체별로 공공도서관 건립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였다. 1993년 한 해 동안 도서관을 이용한 시민은 11만 9105명이었다.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은 총 319개소이다. 전국 1271개소에 달하는 공공도서관을 감안하면 25%를 차지한다.[1] 안양시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 운영한 사례로 꼽힌다.

안양시는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11개소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봉사대상 인구는 1개 관당 5만 590명이다. 2024년 말 기준 도서 보유 권수는 약 164만 권으로 시민 1인당 도서 보유 권수는 2.95권이다. 국민 1인당 2.41권에 비하면 높은 장서 보유율을 자랑한다.

2. 안양시 공공도서관 현황과 이용 변화

안양시 공공도서관 현황(2024.12.31.기준)

개관 순서	개관 연도	도서관명	위치	연면적 (㎡)	규모
1	1992	만안	만안구 냉천로 51	4,190	지하 1층, 지상 4층
2	1994	평촌	동안구 관평로 213	3,669	지하 1층, 지상 3층
3	1998	호계	동안구 경수대로685번길 26	2,951	본관동)지하 1층, 지상 4층 별관동)지상 4층
4	2003	석수	만안구 양화로217번길 34	10,652	지하 2층, 지상 4층
5	2006	박달	만안구 박달로 459	2,504	지하 2층, 지상 4층
6	2007	어린이	동안구 동안로 66	3,280	지하 2층, 지상 3층
7	2010	비산	동안구 관악대로 123	3,244	지하 1층, 지상 5층
8	2014	벌말	동안구 흥안대로434번길 19-27	752	지하 1층, 지상 3층
9	2016	관양	동안구 동편로 124	3,889	지하 1층, 지상 3층
10	2016	삼덕	만안구 병목안로 58	2,688	지하 1층, 지상 4층
11	2024	큰샘어린이	만안구 덕천로 102	1,782	지하 1층, 지상 5층

출처 : 안양 만안구청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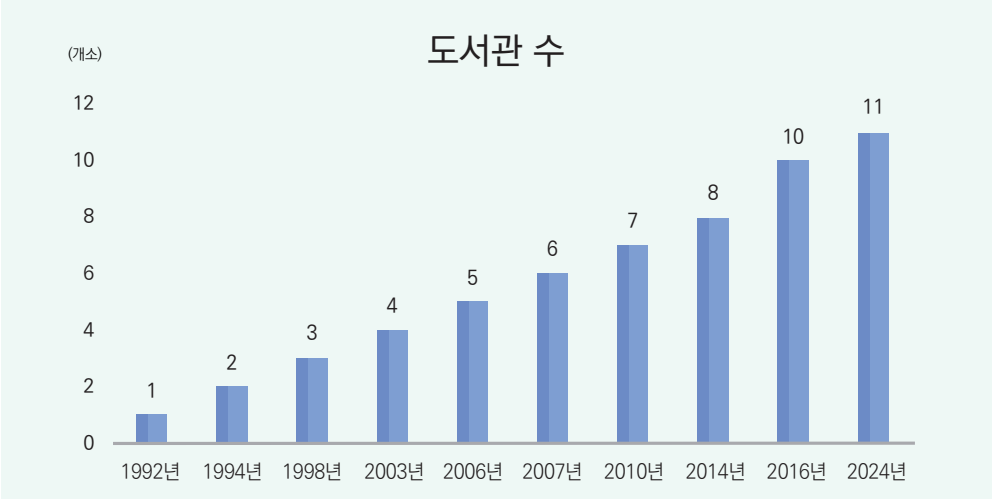
1973년 이후 1992년 만안도서관이 개관하면서 통폐합하기 전까지 5년 주기로 본 도서관 운영 실태는 아래와 같다.

(단위: 석, 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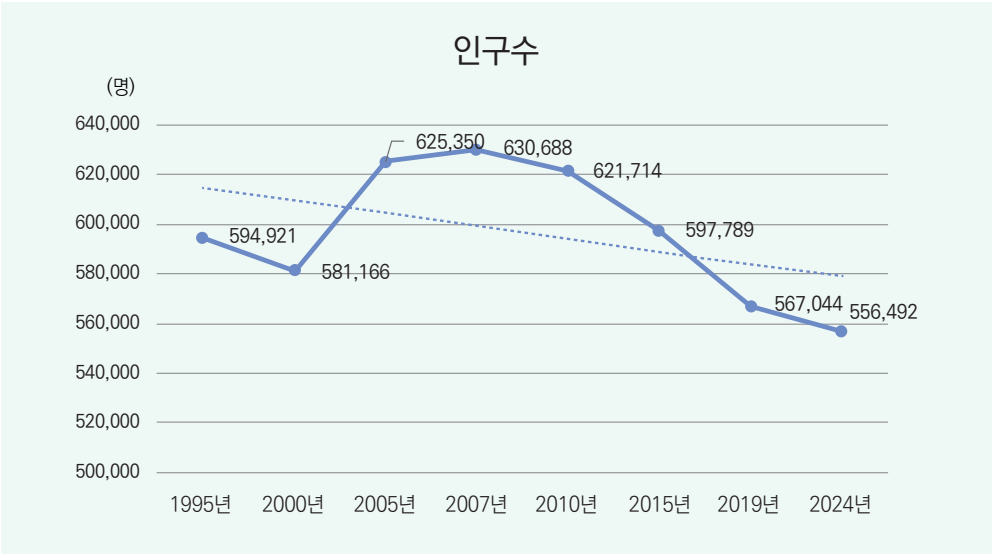
연도	열람석 수	장서 수	연간 이용자 수	인구 수	비고
1973년	98	2,514	13,403	111,075	
1975년	98	2,905	15,127	134,862	
1980년	98	4,767	27,761	253,541	
1985년	300	6,544	45,537	361,530	*81년~ 300석
1990년	300	8,671	31,751	480,668	
1993년	1,076	19,564	119,105	589,002	만안도서관 개관 (92.09.06)

1) 공공도서관 수와 인구수

안양시는 1992년 만안도서관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기준 총 11개소의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11개소의 총 연면적은 3만 9601㎡로 1개소당 평균 3600㎡가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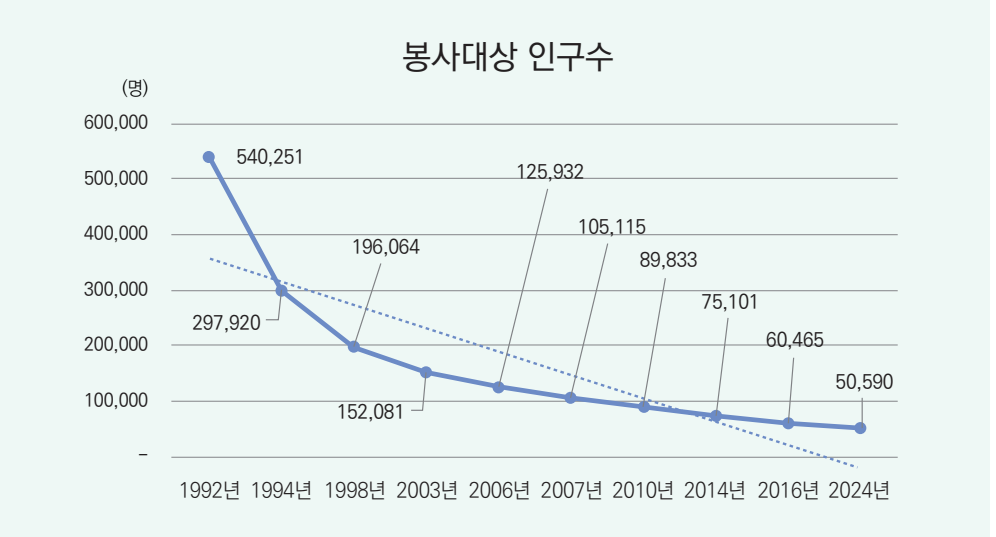


안양시 인구는 2007년 63만 688명으로 증가하여 201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55만 6492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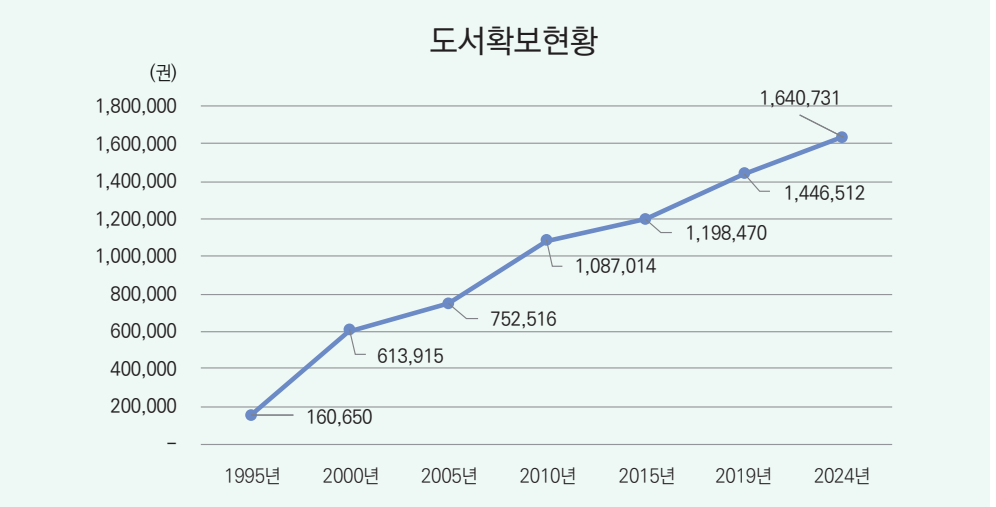


2) 봉사대상 인구수

공공도서관 1개소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1992년 54만 251명에서 32년여 만에 5만 590명으로 변화함으로써 봉사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도서관 시설 증가에 따른 시민 편리와 독서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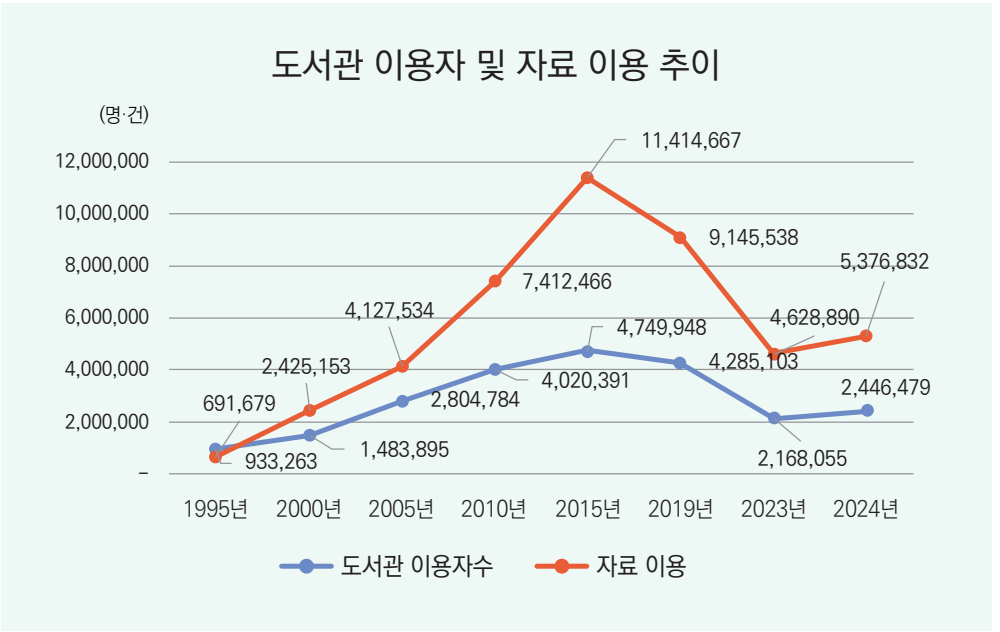
3) 도서 확보



도서관 자료 확보 면에서는 안양시 최초의 만안도서관이 개관한 1992년에는 1만 9564권이었으나 2024년 12월 기준 현재 약 164만여 권에 이른다. 시민 1인당 도서 보유 권수는 2.95로 국민 1인당 2.41권에 비해 높은 장서 보유율을 자랑한다.

4) 도서관 이용자 및 자료 이용 현황

도서관 이용자 및 자료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도서관이 늘어남에 따라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용층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2015년 이후 이용자 및 자료 이용 추이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안양시의 인구 감소세 추이, 특히 2019년 코로나19 발생 및 장기화에 따른 영향, 평촌도서관 재건축에 따른 축소 운영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4년 통계를 보면 도서관 이용자 및 자료 이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만안도서관(2017)

3. 안양시립도서관의 역사

1) 1990년대

1992년 9월 3일 안양시 최초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현대적 의미의 공공도서관인 만안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시에서는 5급 1명과 6급 4명, 7급 이하 13명 등 모두 18명의 정원을 승인했다.[2]

1994년 4월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평촌신도시에 총 사업비 27억 2700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평촌도서관을 건립하여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1000여 평의 현대적 건물로 지어진 평촌도서관은 자료실과 열람실 외에 향토문화관, 어학실습실, 시청각실은 물론 강습회와 전시회도 개최할 수 있는 집회실 등도 갖추었으며, 1억 9000만 원 상당의 도서 2만 권과 시청각 및 어학실습 기자재 3억 6000만 원의 비품 일체도 무상으로 기증하였다.[3]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도서목록함이 존재하던 시기에 소장도서 데이터를 입력하여 온라인으로 도서 검색

(구)평촌도서관(2023)

평촌도서관 재건축 현장 및 조감도(2025)

호계도서관(1998)

안양시 독서감상문 쓰기대회(1998)

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최초로 갖추면서 전국적으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1995년 8월부터 열람실 이용 시간을 1시간 연장하여 22시까지 운영하였고, 12월부터는 관외 대출 권수를 1인 1회 2책 7일 이내에서 3책 10일 이내로 확대하여 이용 시민의 독서 편익을 도모하였다.

1997년에는 전자정보관을 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도서대출 가족회원제를 도입하여 가족수×3권씩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출한 도서를 만안, 평촌, 호계 어디서나 반납할 수 있도록 했고 분기별로 구입하던 희망도서를 즉시 구입하여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2026년 재개관을 목표로 도서관 신축공사 중에 있다.

1998년 세 번째 공공도서관인 호계도서관을 개관하였다. 부지면적 5220㎡의 구 안양시교육청 건물을 공시지가 기준인 평당 300만 원에 매입하고,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및 증축하였다. 호계동 주민의 주민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도서관 기능은 물론 주부교양교실, 어린이독서교실을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1999년 3월부터 시민 1인 1권 목표로 도서 60만 권을 보유하기 위한 '범시민 도서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2000년 11월에 목표를 달성하였다. 기증도서 36만 8471권을 포함하여 총 61만 3915권의 도서를 보유함으로써 1인당 1.05권을 자랑하는 전국 최고의 도시가 되었다. 나무 100만 그루 심기와 도서 60만 권 모으기는 미래지향적인 안양시의 중요 시책으로 추진되었다. 만안·평촌·호계 도서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도서관별 자료 특성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특성화 자료에 대한 장기적 축적과 집중화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 만안도서관 : 기술과학 분야, 논문 및 연구보고서, 전자정보센터화
- 평촌도서관 : 사회과학 분야, 지역사회 향토자료
- 호계도서관 : 문학자료, 논술지도자료, 취업·창업 자료 관련

2) 2000년대

석수도서관(2003)

2003년 안양시의 네 번째 도서관인 석수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지하 2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연면적 1만 652㎡다.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석수도서관은 건축공사비 183억 4000여 만 원과 도서관 비품 및 전자도서관 구축비 등 약 25억 원을 투입하였다. 유아방, 어르신방 등 이용객 편의와 연령층을 배려한 공간을 포함해 모두 18개실에 2000여 석을 갖추었다. 천체관측은 물론 미니 방송과 모핑테스트가 가능한 멀티미디어체험실과 부모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며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어린이자료실도 마련하였다.

또한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갖추어 9485종 6만 4045점의 전자책을 확보하였고 '시흥군지' 등 안양시 향토자료를 대상으로 내용 기반 검색이 가능한 이미지 원문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색인어가 있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므로 검색 시간을 단축시키고, 색인어를 눈으로 쉽게 식별하도록 역상 표시하는 이미지 하이라이팅 기능도 구현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도입한 Fish-eye를 활용한 도서목록, 문화재목록, 이미지 갤러리를 들 수가 있다. Fish-eye, 즉 스타트리를 이용한 도서목록은 마치 서가에 들어가서 훑어보듯이 도서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상세정보 검색을 통하여 대출 가능 여부도 쉽게 알 수 있는 다이내믹한 프로그램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강좌 133종 2000여 점의 강좌를 개설하고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시·공간에 구애 없이 도서검색, 개인 대출 현황 조회, 공지사항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석수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시립도서관과 사회복지사업소를 2003년 11월 통합하여 문화복지사업소로 개편하고 4개과 13담당으로 운영체계를 갖추었다.

2005년 3월부터는 국경일과 공휴일에도 4개소의 시립도서관을 교차 개방하기로 하였다. 공직사회에 변화와 혁신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4월부터는 사서직 35명이 중심이 되어 '도서요약정보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같은 달 경기도사서협의회가 창설되었다. 초대 회장으로 안양시 평촌도서관장인 정문택 관장이 추대되었다.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경기도 내 지자체 소속 57개 도서관, 300여 명의 사서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경기도 도서관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6월에는 안양시 4개소의 도서관이 국회도서관과 상호 협력하여 디지털 원문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국회도서관이 1998년부터 구축한 디지털정보 약 5929만 명(책 50만 4000권 분량)의 자료를 가까운 안양시 도서관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4] 9월에는 안양시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서관 4개소에서 추진한 도서정보지식 제공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도서관에서는 도서요약정보 서비스, 주제별 서지정보목록 서

2006 서울 세계도서관 정보대회(WLIC)에 참가 중인 17개국 40여 명 석수도서관 시설 견학

비스, 도서정보 계간지 발행 등 도서 지식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독서 편익을 도모하였다. 11월에는 만안구에 있는 석수·만안·박달 도서관 직원 36명이 주축이 되어 석수도서관발전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이용자연구분석팀, 환경개선연구팀, 장서개발연구팀, 문화행사기획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월 1회 모임을 정례화하고 분기별 발표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고민하며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학습공동체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바탕에는 업무 개선을 통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창출이라는 목표가 있었다. 12월 26일 석수도서관에서 독서치료교육 수료식 및 특별강연회가 열렸다. '경기도사서협의회 독서전문요원 교육 결과 보고서'[5]에 따르면 독서치료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경기도가 책 읽는 사회 만들기의 중심 허브로 성장하길 바라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책을 통해 마음을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기를 바라는 내용이 수록되었다.

박달도서관(2006)

2006년 다섯 번째 도서관으로 박달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총 사업비 46억 8000만 원을 들여 건립하였으며, 연면적 2504㎡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다. 심리·인성을 특성화 주제로 지정하였고, 어린이자료실, 시청각실, 문화교실, 취미교실,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였다. 8월에는 제72차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서울 COEX에서 개최되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 40여 명의 도서관인들이 석수도서관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도서관 홍보 영상물을 관람하고 시설을 돌아본 후 도서관 운영 등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인 인형극, 세계도서관사진전, 동화원화 그림전시회 등을 관람하였다. 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자와 실버봉사단이 문화행사 공연과 시설안내, 사진촬영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 속의 친숙한 도서관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7년 7월부터는 도서대출회원을 대상으로 독서통장 발급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은행 예금통장과 비슷한 형태로 언제 어떤 책을 대출했는지 기록되어 있어 자신이 읽은 책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안양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1도서대출회원증 갖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각 부서별로 일괄 신청 접수 후 발급하였으며 사진 제출 및 발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증 이면에 회원 바코드를 부착하여 도서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07 지방자치단체 우수혁신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전국 246개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가 참여하였다. 안양시는 경기도를 대표하여 출전하였고 지역 예선 및 본선을 거친 우수사례 16건이 최종 경합을 벌였다. 석수도서관은 2005년에 결성하여 꾸준히 활동해온 석수도서관발전연구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R(연구)하고 G(성장)하며 KS(지식 공유)를 실천하는 도서관 학습공동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학습동아리 활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전개 과정, 책 읽기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려고 노력한 도서요약 서비스, 안양시 발간자료 수집 및 DB 구축 등의 내용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전국대회 2위를 했다.[6] 9월 20일 평생학습원으로 변경 개편되었고, 10월 여섯 번째로 안양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였다. 대지 1398㎡, 연면적 3280㎡의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책사랑방, 이야기방, 책나라, 어울림방, 정보탐험, 어린이극장, 전시실 등을 갖추었다. 어린이도서 2만 5370권을 비롯하여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전자책과 DVD도 확보하였다. 2층 먼나라 자료실에는 외국 자료만을 소장해 외국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건물 뒤에는 놀이시설을 갖춘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옥상에는 정원이 마련돼 휴식공간을 제공하였다.

안양 어린이도서관(2007)

2008년 책 읽는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안양시를 지식기반사회 대표 도시로 육성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함은 물론, 책읽기 운동 전개로 시민의 독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기여가 목적이었다. 대표적인 사업은 지역 인사들의 '이 한 권의 책' 추천이다.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솔선수범하여 한 권의 도서를 선정하여 추천 사유와 독후감을 작성하고 이를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독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7월 31일 안양시 석수도서관에서 이라크 아르빌 주의 자이툰 도서관 자이르 압둘라 관장이 국제 자매결연 협정서에 서명하고 맞교환해 양시 도서관의 우호협력 증진을 도모하였다.[7] 자매결연은 2007년 3월 자이툰사단 그리고 쿠르드 지방 정부 간에 맺은 '자이툰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협의'에 따라 경기도 최우수 공공도서관에 3년 연속 선정된 석수도서관이 도를 대표해 자이툰 도서관과 결연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이뤄졌다. 자이르 압둘라 자이툰 도서관장 등 도서관 및 아르빌 주 인력 8명, 국방부 합참해외파병과 정모 중령, 임모 중령 등 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석수도서관 운영기술을 벤치마킹하고 도서관 관리요원들의 방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석수도서관장이 이라크 현지를 방문하여 도서관 운영 노하우를 교육하였다. 10월 이라크 아르빌주 시내에 자이툰 도서관이 착공 1년여 만에 개관하였다. 자이툰 도서관은 4000㎡ 규모로 446만 달러를 투입해 1층은 복합문화공간으로, 2층은 도서관 및 멀티미디어공간으로 조성하고 약 10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에는 자이툰 부대 파병기념관이 있으며 2층에는 한국의 역사, 문화, 산업, 스포츠, 사계 등을 소개하는 한국 홍보관, 장서고와 열람실, 컴퓨터실과 시청각실 등 멀티미디어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3) 2010년대

2010년 안양시에서 일곱 번째로 비산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며 3만여 권의 장서와 240석에 이르는 열람실과 문화교실, 시청각실,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종합자료실 등을 갖추었다. 비산도서관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도서관, 나눔과 공유의 공간으로 만들고 예산 절감을 위해 도서기증운동을 펼쳤다.

2012년 안양시 7개 도서관(만안, 평촌, 호계, 석수, 박달, 어린이, 비산)의 도서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4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 동안 2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20만 권의 자료와 25만 명의 회원정보를 통합 구축하였다. 유동 인구가 많은 범계역 미관광

비산도서관 개관식(2010)

제5회 안양시 여성 동화구연 경연대회(2010)

인덕원동 작은도서관 개관(2013)

장에 안에 무인 자동대출반납기기를 설치하여 '베스트셀러코너'를 운영하였다. 양질의 우수도서를 약 500여 권 탑재하고 분기별로 도서를 교체함으로써 시민 독서 편익을 증진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1회 전국 독서동아리 발표경진대회에서 만안도서관 주부독서모임인 '다솔회(회장 정명심)'가 우수상[8]을 수상하였다. 책 읽기를 통해 마음이 성장해가는 우리 시 주부들의 저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포상금은 인재육성재단에 기부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201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시범지역'에 안양시가 선정되어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았다. 임곡그린작은도서관 등 44개소를 대상으로 도서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도서대출 통합회원 이용 및 상호 대차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립도서관 7개소와 공·사립, 새마을 작은도서관 44개소 등 51개소 간 상호대차 서비스가 시작되는 전국 최초의 시범 사례가 되었다.

2014년 2012년 동안구 '범계 베스트셀러 코너' 설치에 이어 만안구 안양역사내에'스마트 작은도서관'을 설치함으로써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독서 편익을 도모하였다. 3월에는 여덟 번째 도서관인 벌말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지상 3층, 연면적 753

벌말도서관 개관식(2014)

㎡ 규모의 평촌동주민센터 별관 건물을 15억 9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하였고 종합자료실, 디지털·어린이자료실, 문화교실 등으로 꾸며졌다. 10월에는 안양시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20여 명이 참여하는 「책 읽어주기 사업」 교육을 진행하였다.[9] 28일부터 11월 말까지 명학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삼성초등학교 등 관내 7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인문학도시 안양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간부 공무원이 교육현장에 찾아가 지역 살림을 맡고 있는 공무원과 관공서 역할 홍보는 물론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책읽기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5년에는 석수동 삼성산 경로당 2층에 '고맙습니다. 삼성산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KB국민은행이 후원, (사)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에서 주관하였으며, 문화 혜택 접근이 어려운 소외 지역에 도서관 문화 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2016년 6월 안양시의 아홉 번째 도서관인 관양도서관이 개관하였다. 정보기술(IT), 디자인을 특성화 주제로 하는 관양도서관은 87억 8000여 만 원을 들여 건축면적 785㎡, 연면적 3889㎡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도서관 전체 공간에 스마트기기 사용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IT 특성화 도서 779권을 구입하였으며, IT 특화 도서관으로서 미래지향적 테마 도서관을 지향하였다. 10월에는 안양시에서 열 번째

관양도서관(2016)

삼덕도서관(2016)

로 삼덕도서관이 개관하였다. 총 6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연면적 2688㎡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지정된 만큼 청소년 관련 도서가 주류를 이룬다. 개관식에는 안양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이 꾸미는 사진 및 그림 전시와 안양공업고등학교 윈드 오케스트라 현악 4중주 공연이 개관 축하 무대에 올랐다. 인근 초·중·고·대학교 등 16개소의 학교시설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중심의 테마 도서관으로 운영하며, 청소년 인문학 코너를 설치하여 관내 학교의 필독 도서와 국내외 문학상 수상작 등 청소년을 위한 2000여 권의 우수도서를 비치해 인근 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역량 있는 청소년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7년 5월 23일 관양도서관은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였다. 5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웹툰창작체험관을 조성하였으며, 웹툰창작 프로그램 운영, 웹툰자료 코너 운영, 웹툰창작 전시회 등에 역점을 두었다.

4) 2020년대

2024년 11월 13일 만안구 안양7동에 큰샘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였다. 2007년 개관한 안양어린이도서관이 그동안 안양시 어린이 독서문화활동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큰샘어린이도서관 개관으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정보격차 해소와 더불어 모든 어린이가 동등하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1782㎡ 규모로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유아샘·어린이샘 자료실과 미디어 체험활동이 가능한 창작샘,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배움샘,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인 가족샘 등 독서, 놀이,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10] 어린이들의 다양한 독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도서들은 물론, 추천도서 시스템을 통한 개인 맞춤형 추천도서 검색도 가능하므로 어린이들은 자신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책을 좀 더 쉽게 만

큰샘어린이도서관(2024)

날 수 있다.

2026년 하반기 재개관을 목표로 신축 건립을 추진 중인 평촌도서관은 도시계획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공공청사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또한 지하철 4호선 평촌역과 범계역,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부지면적은 9900㎡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9610㎡ 규모의 오픈 스페이스 공간으로 신축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키워드는 미래형 첨단도서관이다. 전통적인 개념의 도서관에서 탈피해 자료, 문화, 공간, 사람이 다양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역사회의 지식과 문화가 모여 발전하는 문화발전소 기능은 물론 제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를 미래지향적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4. 안양시 도서관의 미래

1994년 IFLA-UNESCO 공공도서관 선언에서 명시하는 12개 항목을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이란 교육과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생생한 힘이고, 평화를 지키려는 정신을 고양할 뿐 아니라, 인류의 정신적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알 수 있다.[11] 안양시는 총 11개소의 공공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공·사립, 새마을 작은도서관은 총 75개소에 이른다. 다양한 양질의 도서관 자료를 확보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상호 대차 서비스를 통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안양시는 도서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서관 이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는 독서 진흥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상·하반기 정기 강좌는 물론 월별·테마별 특강을 마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폭넓은 독서문화정보를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수행한 안양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도서관과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도시, 안양'을 비전으로 4대 전략 목표와 12항목의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4대 전략 목표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첨단도서관 구축, 생활 정보의 공유 기반 조성, 운영 및 협력체계 강화이다. 세부 추진 과제는 큐레이션 기반 정보서비스, 정보불평등계층 서비스 개선 및 확대, 시민 주도형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공공도서관 단계별 공간 개선, 체험 서비스 및 공간 마련, 스마트도서관 서비스 제공, 지역 주민의 복합 커뮤니티 마련, 동아리 활동지원 확대, 온라인서비스 강화, 도서관 운영체계 질적 수준 제고, 협력 네트워크 강

화, 장서개발 방안 마련이다.[12]

2020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발생과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는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 등 도서관 서비스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시대 변화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 양상 또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안양시 시립도서관은 나날이 성장, 발전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 속에 열린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 활용 교육은 물론 온라인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도서관의 수많은 장서는 인류의 기억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도서관은 기억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이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다양한 배경과 필요를 가진 모든 주민에게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지성의 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도서관 주요 연표

1987.01.18. 시립도서관(만안) 착공
1992.09.03. 시립도서관(만안) 개관(첫 번째 도서관)
1994.04.26. 시립도서관 평촌분관 개관(두 번째 도서관)
1998.03.03. 시립도서관 호계분관 개관(세 번째 도서관)
2003.12.29. 안양시립석수도서관 개관(네 번째 도서관)
2005.08.30. 제1회 안양시 행정혁신경진대회 최우수부서 수상
2006.02.28. 경기도 공공도서관경영평가 최우수상 수상
2006.03.03. 안양시립박달도서관 개관(다섯 번째 도서관)
2006.04.08. 학습연구(동아리)활동 우수사례로 지정 통보
2006.09.14. 제2회 안양시 행정혁신경진대회 우수부서 수상
2006.09.26. 안양시 제2회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2006.08.23.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방문도서관 선정
2007.03.02. 경기도 공공도서관 경영평가 최우수상 수상(2년 연속)
2007.07.18. 안양시 제3회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노력상 수상
2007.10.12. 안양어린이도서관 개관(여섯 번째 도서관)
2007.10.19. 제1회 혁신학습동아리 전국대회 우수상 수상
2007.12.31. 안양시 혁신 마일리지 우수부서상 수상
2008.07.28. 석수도서관 - 자이툰 도서관 자매결연 협정
2008.02.25. 경기도 공공도서관평가 최우수상 수상(3년 연속)
2009.06.10. 성결대학교 - 자료와 시설의 공동이용, 기타 업무 및 홍보 협력
2009.12.10. 하반기 홈페이지 부서평가 사업소 부문 1위
2010.10.01. 안양시립비산도서관 개관(일곱 번째 도서관)
2011.04.27. 안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 도서 정보제공, 다문화 프로그램 계획/관리, 다문화사업지원
2011.07.14.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구연대회 우수상 수상
2011.12.15. 대림대학교 - 자료와 시설의 공동이용, 기타 업무 및 홍보 협력
2012.01.10. 범계 스마트도서관 설치(1호)

2012.06.01. 안양시 7개 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리베카) 교체 및 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개편
2012.07.16. 도서관 자원봉사활성화 사례 장려상 수상(박달도서관 행복한 의자나무)
2012.12.27. 제1회 전국독서동아리축제 우수상 수상(만안도서관 주부독서모임 '다솔회')
2013.02.26. ㈜미앤미케이크 – 기업독서경영 지원. 도서단체대출
2013.05.01. 공공도서관/공·사립·새마을 작은 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 개시
2014.01.01. 안양역 스마트도서관 설치(2호)
2014.01.06. 경기도 공공도서관평가-독서문화진흥 분야 우수상 수상
2014.02.27. 석수도서관 제45회 한국도서관상(단체상) 수상
2014.03.18.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 장애인 대상 강좌 운영, 희망도서제공 및 도서배달, 도서관 견학 안내
2014.04.24. 만안청소년수련관 – 청소년 사업 지원 및 업무협력
2014.03.26. 안양시립벌말도서관 개관(여덟 번째 도서관)
2014.12.24. 인문독서아카데미 사업 우수기관 수상
2015.01.15. 경기도 작은도서관 정책 우수상
2015.06.03. 국민은행&(사)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 지원
2015.10.22. 연성대학교 학관교류협력 공동협의회 – 자료와 시설의 공동이용, 기타 업무 교류 및 홍보 협력
2016.03.30. 동안청소년수련관 – 인문학 프로그램 교류, 도서의 재기증 및 단체 대출 지원, 독서문화 강사 및 강의자료 지원
2016.06.13. 안양시립관양도서관 개관(아홉 번째 도서관)
2016.10.31. 안양시립삼덕도서관 개관(열 번째 도서관)
2016.12.31. 경기도 도서관평가 장려상 수상
2017.04.21. 만안청소년문화의 집 –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체험활동 개발 및 지도인력 지원, 독서문화 강사 및 강의자료 지원
2019.12.06. 안양대학교 HK+사업단 – 인문사업 추진 협력 및 교류
2020.07.01. 도서관자료관리시스템 교체(ALPAS) 및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2020.08.03. 장서구독서비스 시범운영
2020.09.29. 2020 함께하는 청렴퀴즈대회 보람상(우수부서) 수상

2020.12.11. 경기도 공공도서관평가 장려상 수상
2020.12.31. 독서문화진흥 유공 도지사상 수상
2021.05.17. 범계 스마트도서관 기기교체 및 동안구청 스마트도서관 설치(3호)
2021.10. 안양시공공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수립(2022~2026)
2022.04.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2022.06.07. 인덕원역 스마트도서관 설치(4호)
2022.10.12. 평촌도서관 전국도서관운영평가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
2022.12.14. 평촌도서관 온라인도전청렴퀴즈 부서 버금상 수상
2023.02.24. 평촌도서관 제55회 한국도서관상(단체상) 수상
2024.11.13. 큰샘어린이도서관 개관(열한 번째 도서관)

참고문헌

안양문화원, 『안양문화 2020-2021』 vol.18, 94~108쪽.
안양시, 『시정백서』 1996년 ~ 2024년
안양시, 『통계연보』 1974년 ~ 2024년
안양시, 「안양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2021.
안양시립도서관, 「주요업무보고자료」, 1995년 ~ 2024년

기타 기사 및 통계 내용은 각주 참조.

사진출처

안양시 홈페이지 포토갤러리(https://photo.anyang.go.kr/site/photo/photoSearchResult.do)
「안양시 벌말도서관 '문 활짝」, 『경인매일』, 2014년 3월 27일

註

1 국가도서관통계(https://www.libsta.go.kr)
2 「안양시립도서관 기구·인력 보강」, 『연합뉴스』, 1992년 8월 14일
3 「토개공, 안양시에 도서관 등 무상기증」, 『연합뉴스』, 1994년 4월 25일
4 「안양서 국회도서관 열람」, 『조선일보』, 2005년 6월 3일
5 경기도, 「경기도사서협의회 독서전문요원교육 결과보고서 : 독서치료교육 수료식 및 특별강연회」, 2005.
6 「안양 석수도서관 – 우수혁신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우수상」, 『뉴시스』, 2007년 10월 22일
7 「사막에 지식정보의 싹 피울 석수도서관-이라크 아르빌시 자이툰 도서관과 자매결연협정 맺어」, 『cnbNEWS』, 2008년 8월 2일
8 「만안도서관 주부독서동아리 '다솔회' 제1회 전국독서동아리 축제에서 우수상 수상」, 『안양광역신문』, 2012년 11월 2일
9 「안양시, 간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책 읽어주기 사업'추진」, 『국제뉴스』, 2014년 10월 24일
10 「안양시 큰샘어린이도서관 개관...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키운다」, 『중앙뉴스타임스』, 2024년 11월 13일
11 최미숙, 「파리공공도서관: 삶을 나누는 열린공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9, 12쪽.
12 안양시, 「안양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 2021.

4장

학적부로 본 안양공립보통학교의 학생생활

김명숙 전 동덕여대 국사학과 교수

1. 안양공보교의 설립 과정

현 안양초등학교의 전신인 안양공립보통학교(이하 안양공보교)는 1929년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에 설립된 4년제 공립보통학교로 1936년 6년제로 승격되었다. 서이면의 아동들은 안양공보교가 개교하기 이전에는 1905년 개통된 경부선 열차를 타고 안양역에서 군포·시흥·영등포에 있는 학교까지 통학을 하였는데, 이는 어린 아동들에게 적지 않은 위험과 불편이 따르는 일이어서 『동아일보』에 간간이 '기차통학 위험론'이 등장하기도 하였다.[1] 이런 가운데 3.1운동 이후 '배워야 산다'는 각성으로 신식 교육에 대한 교육열이 고조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1927년부터 서이면민을 중심으로 보통학교 설립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당시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 설립정책도 1918년부터 추진되던 '3면 1교제(3面 1校制)'가 1927년부터는 국민교육 보급의 '기회균등주의'를 표방하며 '1면 1교제(1面 1校制)'로 추진되던 시기였다.[2]

安養公普期成會
負擔金外에七義捐으로募集
今年度內에設立計劃

안양공립보통학교 기성회 조직
(『동아일보』, 1927년 3월 11일)

이러한 상황에서 안양공보교 설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27년 3월 3일 「시흥군학교평의원회」에서 안양공보교의 신설을 의결하고,[3] 나흘 뒤인 3월 7일 서이면 유지인 엄기승·조한구·이기동·이사규의 발의로 '안양공립보통학교 기성회(이하 기성회)'가 조직되면서부터였다.[4] 3월 9일 기성회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안양공보교의 교사校舍 조성비와 토지마련 방안을 논의한

결과, ①교사 조성비는 1만 8000원으로 책정하고 ②이를 서이면의 전체 호수 1188호에 호세戶稅로 부과하며, ③부족액은 서이면의 토지를 소유한 경성 방면의 지주들에게 의연금義捐金을 모금하여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5]

위의 이사회 결정에서 주목되는 점은 공립학교를 설립하는데 왜 교사 조성비를 서이면의 면민들이 부담해야 했는가이다. 이는 1922년 2월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보통학교 규정」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조선인 공립보통학교의 경우는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달리 학교 설립과 운영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구역(府·郡·島)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학교비學校費」[6]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학교의 신설 및 운영 비용을 조달하게 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보통학교 설립에 면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기에 면민이 중심이 되어 보통학교를 설립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아일보』를 통해 전달되는 안양공보교 건립 의연금 답지 소식에서 서이면의 면민들이 안양공보교의 설립을 환영하고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즉 1927년 3월 3일 「시흥군학교평의원회」에서 안양공보교 설립이 결정되고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3월 25일, 기성회에 전달된 의연금 약정액 누계가 3542원 30전이라는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이러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7] 그런가 하면 10월 21일자 『동아일보』에는 경성 충신동(현 종로구 법정동)에 거주하는 부재지주 이용문 씨가 교사 건축용 토지 4000여 평(시가 2000원)을 기부한 사실이 미담으로 소개되기도 하였다.[8]

이러한 희소식 덕분에 1927년 12월 초 안양공보교의 건립 상황은 매우 낙관적이었다. 1927년 봄 기성회 창립 이래 간부 일동의 많은 노력과 서이면민의 열렬한 찬조 약조로 예상한 의연금 1만 3000원 중에서 9800여 원이 약정된 상태였고, 4000여 평의 교사 기지基地도 기부받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9]

이제 남은 과제는 서이면민들로부터 약정한 의연금을 어떻게 수합할 것인가였다. 12월 6일 역원役員회의에서 논의된 의연금 수합 방법을 보면, ①의연금을 수합하는 업무는 각 리 부락에서 선정된 사원社員 2명이 담당한다. ②아직 의연금 기부를 약정하지 않은 면민들에게는 재차 통지서를 보내 독려하여 1927년 12월 25일까지 의연금 수합을 완결한다. ③만일 12월 25일까지 의연금 승낙이 없는 면민에게는 범례에 따라 호세戶稅의 8배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이사회는 1927년 12월 20일에 기지 공사에 착수하여 1928년 2월까지 교사신축을 완성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하였다.[10]

그러나 서이면민들의 근대교육에의 열망은 1928년 조선 전역을 휩쓴 대한재大旱災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1928년 시흥군의 대한재는 가뭄에 병충해까지 극심하여[11] 농작물이 전멸全滅하다시피 하였고, 초근목피草根木皮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던 재난민들이 급기야 남부여대男負女戴하고 살길을 찾아 떠나기에 이르렀다.[12] 당시 시흥군의 지주와 사음舍音[13]들이 간담회를 열고 한재의 피해 정도에 따라 소작료를 완전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하기로 의결할 정도였다.[14]

1928년 대한재의 여파로 의연금 수합이 여의치 않자 기성회의 활동도 1년여가 지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에 1928년 10월 15일, 기성회 간부와 각 리 대표는 긴급회의를 열고 견책 차원에서 임원을 개선하고 기성회 육성방안을 논의하였다.[15] 그 결과 1929년 3월 18일, 기성회 임원들은 시흥군과 협의하여 우선 1·2학년 2학급을 선발하여 7월에 개교한 후 매년 1학급씩 증가하기로 합의하였다.[16] 1929년 7월 개교가 목표였으나 실제 공사는 8월 30일에 시작되어 마침내 12월 20일 개교식을 거행하고 수업이 진행되었다. 안양공보교 1회 입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70명이었으니,[17] 1개 학급의 정원은 35명이었던 것이다.

1927년 3월부터 시작되어 약 3년여에 걸쳐 완성된 안양공보교의 설립은 조선총독부의 강제나 그들의 시혜施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대교육을 열망하던 서이면 면민들의 뜨거운 교육열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었던 '교육운동'이었다. 1929년 4년제 보통학교로 출발한 안양공보교는 1936년 6년제로 승격되었는데, '6년제 승격 운동'을 전개한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안양공보교의 개교를 축하하는 『동아일보』 1929년 12월 26일자 기사에 의하면, "안양은 시흥군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교통이 지극히 편한 지역으로 장래 많은 발전을 보게 될 중요 지대이므로, 장차 6년제의 훌륭한 학교가 될 것이다."[18]라고 하면서 6년제로의 승격을 전망한 점이나, 안양공보교의 학적부 형식이 1929년 4년제 보통학교로 출발할 때부터 5·6학년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란이 마련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안양공보교는 1929년 설립 단계부터 학제상 상급학교 진학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4년제 보통학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6년제 보통학교로의 승격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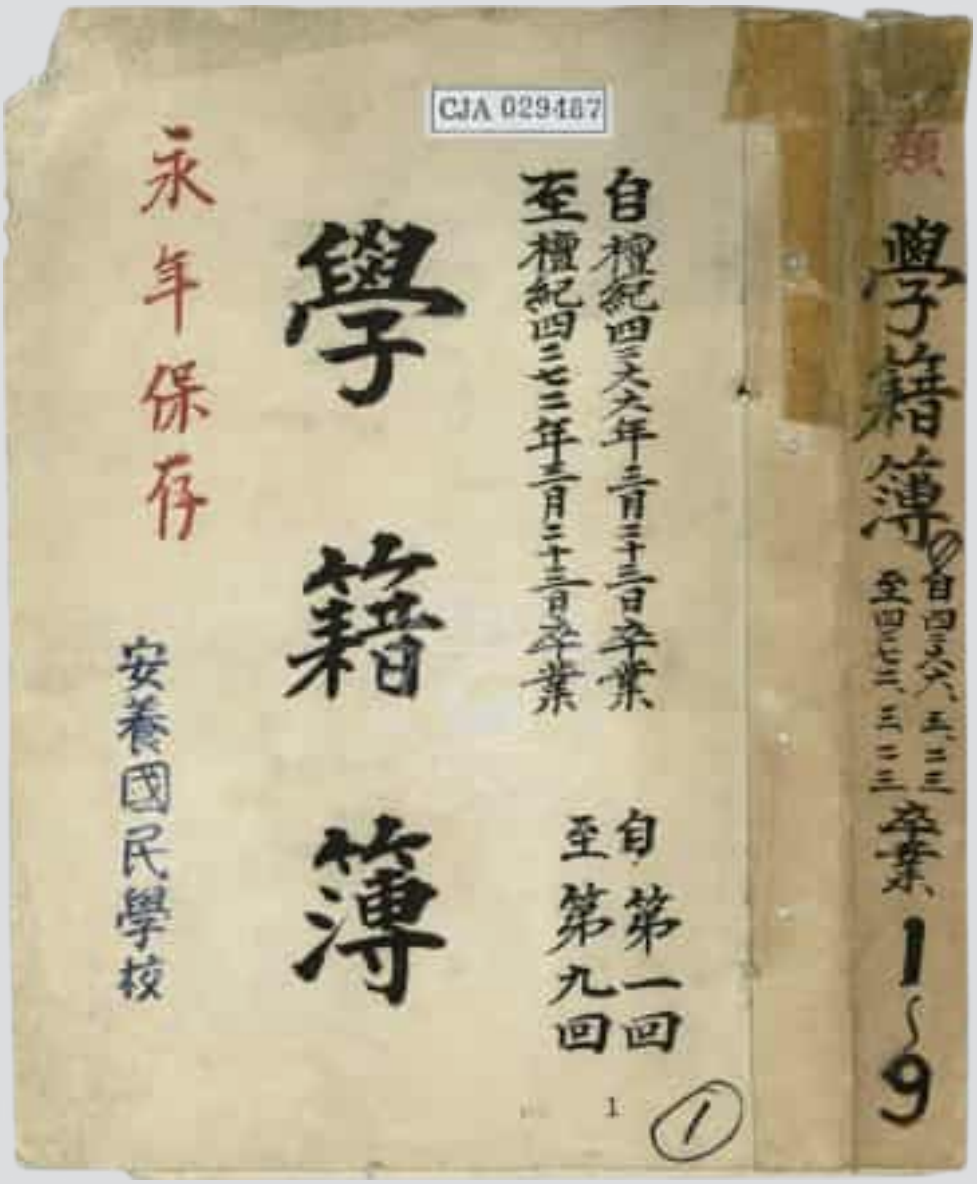
끝으로 안양공보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기록한 학적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학적부는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관찰하여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지만, 식민지배체제에서의 안양지역 보통학교 학생들의 교육 실태와 존재 양태를 보다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이다. 다음의 〈표 1〉은 현재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안양공보교 학적부의 보존 실태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표 1〉 안양공립보통학교 학적부의 보존 실태

졸업 기수		입학 연도	졸업 연도	학생 수	자료 채택 여부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번호
4년제	1	1929	1933	·	×	CJA 029487
	2	1930	1934	·	×	
	3	1931	1935	·	×	
	4	1932	1936	·	×	
	5	1933	1937	31	○	
	6	1934	1938	31	○	
	7	1935	1939	38	○	
	8	1936	1940	·	×	
	9	1937	1941	·	×	
6년제	10	1936	1942	75	○	CJA 029488
	11	1937	1943	80	○	CJA 029489
	12	1938	1944	108	○	CJA 029490
	13	1939	1945	107	○	CJA 029491
	14	1940	1946	·	×	CJA 029492
	15	1941	1947	·	×	CJA 029493
합계				470		

〈표 1〉에서 보듯이 안양공보교의 학적부는 4년제 보통학교에 재학한 1~9회 졸업생의 학적부를 하나로 묶은 합본 1부와 6년제로 승격된 이후에 재학한 10~15회 졸업생의 학적부 6부가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안양공보교 학적부는 앞뒤 양면 2장으로 되어 있는데, 1~4회 졸업생의 학적부는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다. 8~9회 졸업생 학적부는 1936년 6년제로 승격이 되면서 4학년을 마치고 졸업한 학생과 5·6학년 과정까지 마치고 졸업한 학생들의 학적부가 섞여 있다. 이에 앞의 두 경우는 연구자료로 선택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해방 이후에 졸업한 14~15회의 학적부는 일제강점기를 연구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기준과 달라 이 또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년제 졸업생인 5회·6회·7회의 학적부와 6년제 졸업생인 10회·11회·12회·13회의 학적부를 기본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안양공립보통학교 제1~9회 학적부(국가기록원 제공)

2. 학생 구성의 특성

안양공보교는 1929년 설립 당시부터 남녀공학으로 운영되었는데, 다음의 〈표 2〉에서 보듯이 전체 학생 470명 중에서 남학생 346명(73.6%), 여학생 124명(26.4%)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8배 정도 많았다. 그러면 안양공보교 학생 구성의 특성을 입학 연령, 출생 순서, 입학 전의 교육경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입학 연령

조선총독부는 제1차 조선교육령(1911~1922)에서 보통학교 입학 연령을 '8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였다가, 제2차 조선교육령(1922~1938)에서 이를 6세로 낮추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유지하였다.[19] 그러나 이는 법적 학령일 뿐 실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다음의 〈표 2〉에서 보듯이, 안양공보교 학생들은 7세부터 13세까지 다양한 연령의 남녀 학생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의 입학 연령의 분포가 나타내는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안양공립보통학교 입학 기념(1942, 이석효 제공)

〈표 2〉 입학 연령

졸업 기수 / 입학 연령	4년제						6년제								계	
	5회 (1937)		6회 (1938)		7회 (1939)		10회 (1942)		11회 (1943)		12회 (1944)		13회 (1945)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7세	1						1		1		2	2	3	3	8	5
8세	6	4	1	1	2	2	7	4	11	9	22	7	16	7	65	34
9세	3	2	9		10	4	22	5	24	11	31	10	21	3	120	35
10세	7	1	7	1	5	3	13	2	12	4	16	2	24	11	84	24
11세	3	1	5	2	6	1	10	4	4	2	4	5	9	4	41	19
12세	1		3	2	4		2			2	6	1	4	2	20	7
13세	2				1		4								7	
미상							1								1	
소계	23	8	25	6	28	10	60	15	52	28	81	27	77	30	346	124
계	31		31		38		75		80		108		107		470	

첫째, 1929년에 설립된 안양공보교는 제2차 조선교육령기에 해당되므로 입학 연령은 '6세 이상의 자'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안양공보교의 4년제·6년제 전 시기를 통하여 6세에 입학한 아동은 1명도 없었다. 7세 입학생은 4년제에서는 5회 남학생 1명뿐이었으나 6년제가 되면서 12명(남7·여5)으로 증가하였음이 주목된다. 이는 3·1운동 이후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한 안양지역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아진 데다가, 안양공보교가 6년제 공립보통학교로 승격되면서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안양공보교 학생이 가장 많이 입학한 연령대는 남녀 모두 9세이지만, 이를 남녀로 분리해서 보면 남학생은 9·10세에 59.0%가 입학하였고, 여학생은 8·9세에 55.6%가 입학하여 여학생이 다소 적은 나이에 입학하였다. 이를 남녀 학생 전체로 보면 77.6%(362명)가 법적 학령보다 2~4세가 많은 8~10세에 입학한 것으로, 1910년대 보통학교 입학생의 평균 연령이 11.5세였던 점을 감안하면,[20] 안양공보교 학생들이 다소 어린 나이에 보통학교에 입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법적 학령보다 무려 5~7세나 많은 11~13세에 입학한 만학도도 94명(20.1%)이나 되었는데, 여학생 만학도의 경우 13세에 입학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점이 주목된다. 일제강점기 여성의 초혼 평균연령이 16~17세였음을 감안할 때,[21] 13세에 보통학교에 입학한 여학생이 19세에 졸업을 할 경우, 당시의 사회분위기상 나이가 결혼이나 상

급학교 진학에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13회 졸업생 ○○益子의 경우를 보면, 그녀는 11세에 주접강습소에 입학하여 3년을 수료한 후 안양공보교 3학년으로 편입하여 17세에 졸업을 한 경우로, 숙명고녀나 여자사범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담임교사는 "두뇌가 치밀하고 향학심도 강하여 공부를 열심히 하나, 나이가 많아 상급학교 진학은 적당하지 않다."고 학적부에 소견을 피력한 것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22]

2) 출생 순서

학적부에 '보호자의 몇째 아들(딸)'로 기입된 출생 순서는 단순히 가정 내에서 형제 관계의 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대교육에의 열망이 컸던 것에 비해 근대학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입학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교육비의 부담 또한 적지 않았던 일제강점기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학적부의 출생 순서는 근대교육의 혜택을 어떤 자녀가 많이 받았는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근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 출생 순서[23]

출생 순서 \ 졸업 연도		4년제						6년제								계	
		5회 (1937)		6회 (1938)		7회 (1939)		10회 (1942)		11회 (1943)		12회 (1944)		13회 (1945)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장남	장녀	9	3	11	0	10	5	23	7	20	13	38	11	31	14	142	53
차남	차녀	8	2	5	1	7	1	16	3	8	5	21	10	25	5	90	27
삼남	삼녀	3	1	5	2	7	1	6	0	9	2	10	2	12	8	52	16
사남	사녀	1	2	2	0	2	1	0	2	8	4	5	1	5	2	23	12
오남 이상	오녀 이상	2	0	1	2	0	0	2	1	2	3	3	4	2	1	12	11
소계		23	8	24	5	26	8	47	13	47	27	77	28	75	30	319	119
계		31		29		34		60		74		105		105		438	

〈표 3〉에서 주목되는 점은 첫째, 4·6년제 졸업생 모두 장남·장녀의 취학률이 가장 많다는 점이다. 즉 남학생은 장남이 142명(44.5%), 여학생은 장녀가 53명(44.5%)으로, 남녀 학생 모두 장남·장녀가 절반 가까이 되었다. 장남·장녀는 부모의 기대 속에 근대교육의 기회를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받은 기대주였던 것이다.

둘째, 차남·차녀만 하더라도 90명(28.2%)·27명(22.7%)으로 남녀 모두 취학률이 20%대로 낮아졌고, 삼남·삼녀는 52명(16.3%)·16명(13.5%)으로 10%대였다. 사남·사녀, 오남·오녀로 출생 순서가 내려오면 이들의 취학률은 10% 미만이었다. 이는 학부모가 비싼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여러 자녀에게 고르게 근대교육의 기회를 부여할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2회 졸업생인 김진행 님의 구술에 의하면, 1930년대 안양공보교의 월사금은 40전이었는데 형제가 다니면 60전으로 감액해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쌀 서너 말 정도에 해당하는 60전을 월사금으로 내기가 어려워서, 김진행 님 마을에 살던 또래들 19명 중에서 3명 정도만 안양공보교에 입학하였을 정도였다고 하니, 일제강점기의 보통학교 입학 자체가 대단한 수혜였던 것이다.[24]

3) 입학 전의 교육 경험

안양공보교에서는 학적부에 기입된 학생의 '입학 전 경력'을 통하여 안양공보교에 입학하기 이전의 교육 경험을 파악하였다. 다음의 〈표 4〉는 다른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안양공보교로 전학이나 편입을 한 학생을 제외한 177명(37.7%)의 교육 경험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입학 전의 교육 경험

학습 기관 \ 졸업 기수		4년제			6년제				계
		5회 (1937)	6회 (1938)	7회 (1939)	10회 (1942)	11회 (1943)	12회 (1944)	13회 (1945)	
서당	내촌서당					1	1		78
	안양서당					1			
	양지서당					1	1		
	서당	10	21	14	6	9	9	4	
(주·야학) 강습소	내촌강습소						1		68
	부림강습소				1	1			
	양지촌강습소						7		
	양인리강습소							1	
	주접리강습소				2	6	10		
	필동강습소					1	1		
	강습소				1	2	10	22	
	양지촌강습소·야학						1		
	강습소·야학							1	

학습 기관 \ 졸업 기수		4년제			6년제				계
		5회 (1937)	6회 (1938)	7회 (1939)	10회 (1942)	11회 (1943)	12회 (1944)	13회 (1945)	
사립 각종 학교	사립 동아학원					1			3
	사립 양문학교						1		
	학원							1	
기타	사숙私塾						1	6	28
	가정학습(한문)						14	7	
	계	10	21	14	10	23	57	42	177

〈표 4〉에서 보듯이 1929년 서이면에 안양공보교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향촌사회에 서당, (주·야학)강습소, 사립 각종 학교, 사숙과 같은 사설 학습기관이 있었다. 학생들이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가장 많이 접한 배움터는 서당으로, 학적부 '입학 전 경력'에 기입된 177명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78명(44.1%)이 서당 출신이었다. 특히 보통학교 4년제 시기에는 학생들이 안양공보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접한 교육시설로 서당이 유일했다. 서당은 내촌리·안양리·양지촌과 같이 촌락명을 붙인 서당 출신이 5명 있고, 73명은 '서당'이라고만 기입하여 어느 서당 출신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일제강점기의 서당은 한학을 가르치는 전통서당과 보통학교 교과목인 일본어·조선어·산술·지리·역사 등을 가르치는 개량서당이 공존하였는데, 1930년대까지도 서당의 3분의 2 이상은 여전히 한학 위주로 초등교육을 담당한 전통서당이었다. 2회 졸업생인 최갑환 님과 이용구 님의 구술에 의하면, 학생들은 대개 서당에서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감』을 마친 후에 보통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였다고 한다.[25] 제2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면서 보통학교 교과목에서 한문이 선택과목으로 되자 일상생활에 필요한 한문이나 한자를 학생 스스로 제도권 밖에서 습득해야 했으므로, 조선인들은 전통서당과 보통학교를 상호보완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식하고 활용하였다.

한편 아동들이 안양공보교에 입학하기 전에 서당 다음으로 많이 접한 학습시설은 (주·야학)강습소였는데, 검토 대상 177명 중 68명(38.4%)이 강습소 출신이었다. 서이면에 강습소가 설치된 마을은 내촌리·부림리·양지촌·양인리·주접리·필동이었는데 그중에서 주접리 강습소 출신이 가장 많았고, 야간에 운영된 강습소, 즉 '야학' 출신도 2명 있었다.

강습소는 3·1운동 이후 치열해진 보통학교의 입학난이나[26] 가정형편으로 보통학교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아동들에게 보통학교 수준의 초등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1920년대 초 각 지방의 유지나 청년회, 개량적 노동운동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개설한 교육기

관이었다. 주간에 운영되는 '강습소'와 야간에 운영되어'야학'이라 불린 강습소가 있었다. 교과목은 보통학교와 같이 조선어·일본어·한문·산술 등을 가르쳤고, 강습 기간은 1년 단기였는데, 교사는 보통학교 졸업자가 다수여서 수준이 낮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습소는 보통학교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동자·농민의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근대교육을 보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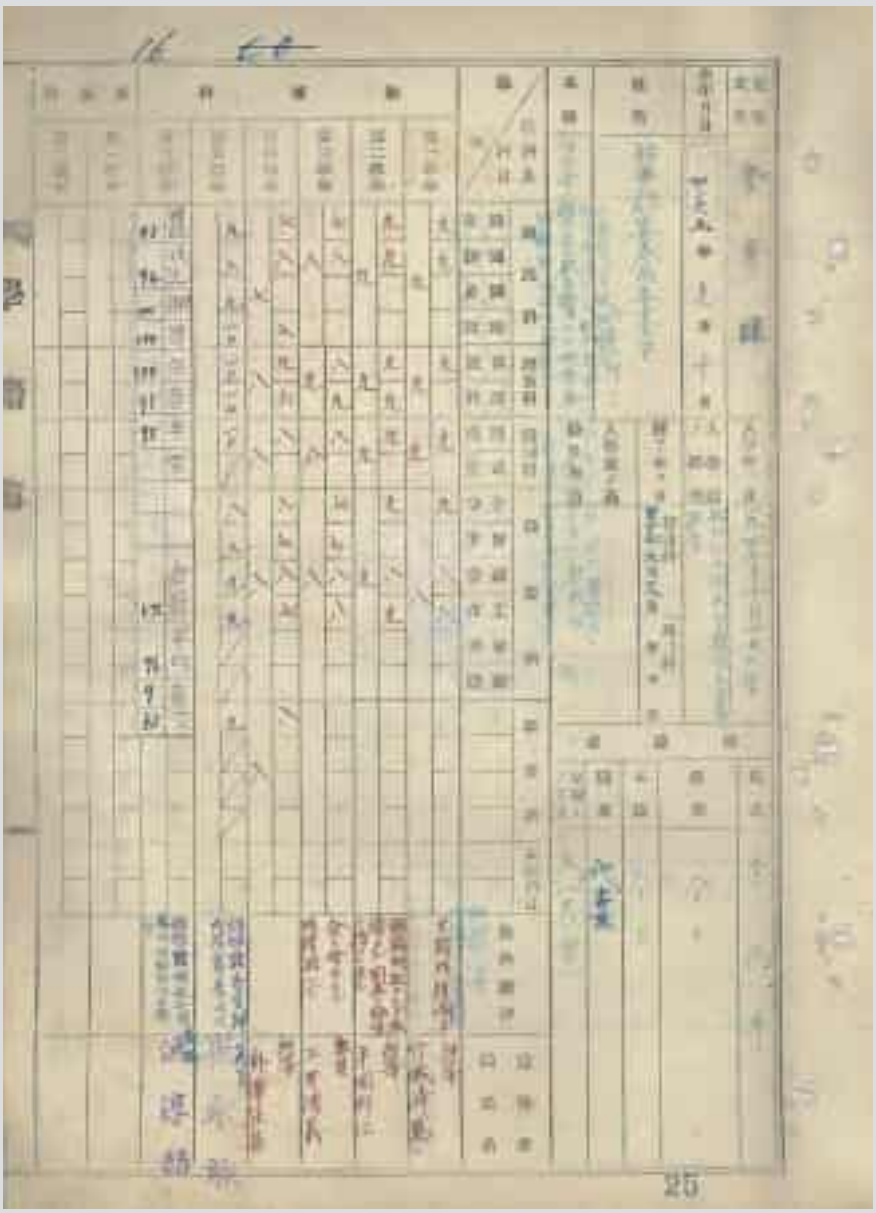
서당과 강습소 이외에 사립학교인 동아학교·양문학교 출신이 3명(1.7%) 있었고, 사숙[27]을 한 경우가 7명, 가정학습을 통해 한자·한문 등을 공부한 경우[28]가 21명 있었다.

3. 성적 및 성행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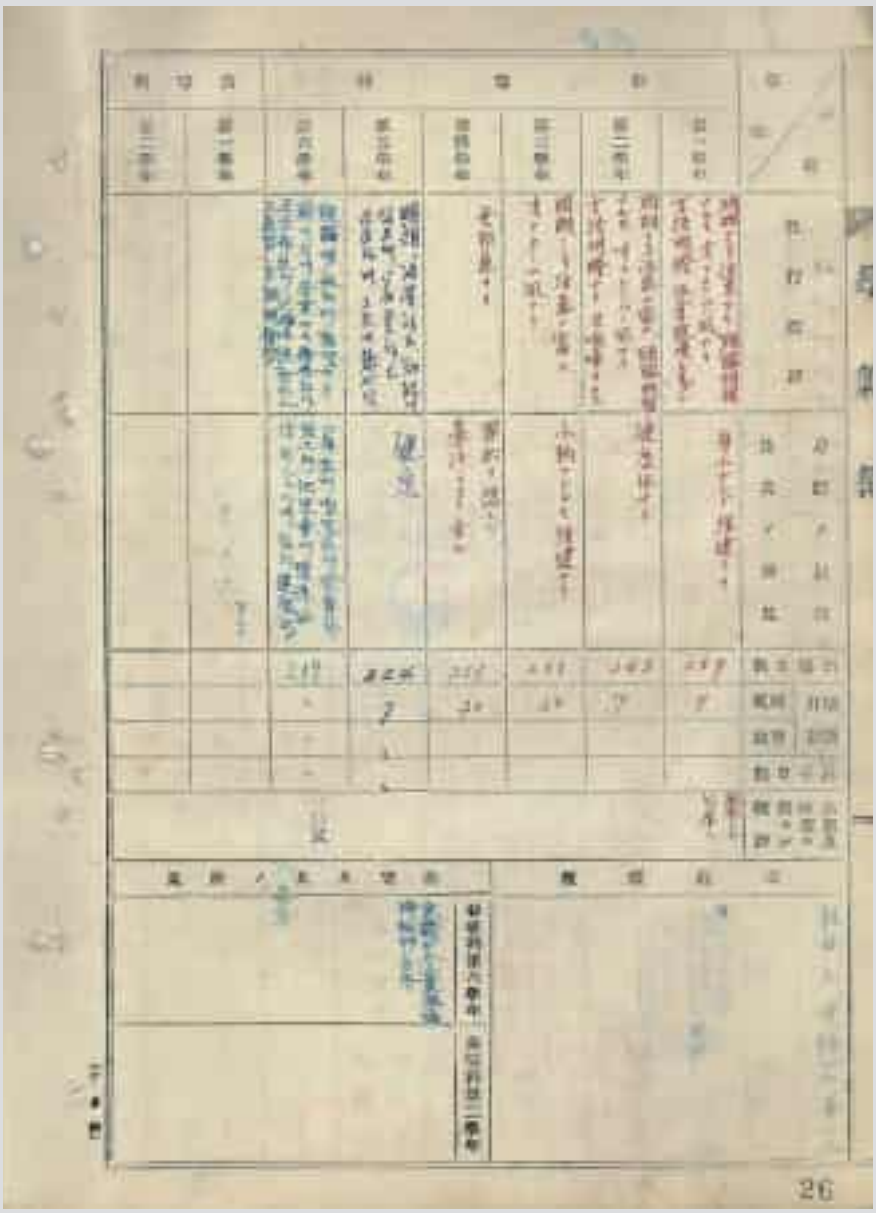
다음의 〈표 5〉에서 보듯이 학적부는 앞뒤 2면으로 구성되는데, 제1면에는 학생과 보호자의 신상정보·학업성적·출결석 일수, 그리고 비고에는 주로 수상실적이 기입되었다. 제2면에는 담임교사가 학생의 행동이나 성격의 장·단점을 관찰하여 기록한 성행 평가 및 신체 상황에 대한 담임 소견이 적혀 있고, 가정환경·가정상황에는 가족구성원, 가정의 빈부, 부모의 교육열 등이 기록되었으며, 지망 및 소견에는 졸업생의 취업·상급학교 진학·군 입대 그리고 장래희망이 기입되었다.

〈표 5〉 학적부의 형식과 내용

항목		내 용
제1면	생도	씨명氏名,[29] 생년월일, 주소, 본적 입학연월일, 입학 전 경력, 졸업 연월일, 퇴학 연월일, 퇴학사유
	보호자	씨명, 주소, 본적, 직업, 아동과의 관계
	학업성적	과목별 성적, 총점, 평균점수, 조행操行, 석차
	출석 및 결석	출석일수, 결석일수(病氣, 사고), 기인(忌引=喪故)일수
	비고/기타 상벌	수상실적(우등상, 가량상佳良償, 개근상, 정근상)
제2면	성행평가 및 개성 관찰	학생의 행동이나 성격의 장·단점
	신체상황 및 소견	학생의 신체상황 및 소견
	가정환경, 가정상황	가족구성원, 가정의 빈부 정도, 부모의 교육열
	지망 및 소견	취업, 상급학교 진학, 군입대, 장래희망



학적부 제1면



학적부 제2면

1) 교과목 운영 및 성적 평가

학적부 제1면의 학업성적란에는 안양공보교 4년제와 6년제 시기에 개설된 교과목 성적이 기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안양공보교의 교과목 운영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6〉 안양공보교에 개설된 교과목

교과목 / 학제	수신	국어(일본어)	조선어	산술	국사	지리	이과	도화	창가	체조	직업	가사 및 재봉	수공	습자
4년제	○	○	○	○	×	×	○	○	○	○	○	○	×	×
6년제	○	○	×	○	○	○	○	○	○	○	○	○	○	○

첫째, 안양공보교 4년제 시기(1929~1936년)는 제2차 조선교육령(1922~1938년)이 시행되던 시기였는데, 수신·국어(일본어)·조선어·산술·이과·도화·창가·체조·직업·가사 및 재봉(여학생 수강)의 10개 과목이 개설되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의 목표가 조선 학생에게 일본어·일본 역사를 주입하여 민족사상을 말살하고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일본어를 '국어'로 칭하며 그 비중을 더욱 강화한 반면 조선어는 시수를 대폭 줄이고 일본어 수업을 위한 보조적인 언어로 격하시켰다.

안양공보교가 6년제 보통학교로 승격된 1936년 이후는 중일전쟁으로 군국주의적 기조가 강화되고 제3차 조선교육령이 시행되던 시기로, 조선인을 전시동원체제에 적합한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학교교육도 일본어·일본 역사·수신·체육이 강화되면서 공립학교에서는 조선어를 거의 교육하지 않았고, 총독부에서 편찬한 교과서 사용을 강요하였다. 6년제 안양공보교 교과목에서 조선어가 폐지된 반면 일본어가 강화되었고,[30] 4년제에서 개설되지 않았던 국사(일본 역사)와 지리(일본 지리)가 4학년 과정에 개설되었으며, 3학년에 수공手工과 6학년에 습자習字가 개설되었다. 초등과정인 안양공보교 교과목에 직업·수공·가사 및 재봉(여학생만 수강) 등 실업 교과가 적지 않게 개설된 것은 일제의 식민지교육의 목표가 농민·기술자·하급관리 위주로 인재를 양성하는 우민화정책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6년제 안양공보교의 교과목으로 6학년 과정에 '습자'가 개설된 점도 주목된다. 일제는 붓글씨 쓰기 과목인 습자 시간을 이용하여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정국신사참배靖國神社參拜'를 반복해서 쓰게 하여 신사참배에 익숙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징병 감격

연성徵兵 感激 鍊成'과 같이 침략전쟁을 독려하는 구호를 반복·연습시켜 일제의 침략전쟁을 익숙하게 수용하도록 하는 등[31] 붓글씨조차 일제 침략주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둘째, 성적평가 방식을 보면, ①각 과목별 성적을 10점 만점으로 하여 합산한 총점을 과목 수로 나누어 평균 점수를 내고, ②'조행操行' 과목을 '우·양·가' 3등급으로 평가하여 평균 점수에 더한 후 ③최종 석차를 결정하였다. '조행'이란 학생의 태도와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자인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그런데 이를 점수화하여 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학생에게 복종과 순종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무리가 많은 성적평가 방식이다.[32]

다음의 〈표 7〉은 조행 성적과 석차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안양공보교 10회 졸업생의 6학년 성적을 표본추출하여(Sampling) 정리한 것이다.

〈표 7〉 조행 성적과 석차와의 상관관계

조행 성적 \ 석차	상위권 (1~25등)	중위권 (26~50등)	하위권 (51~75등)	계
우(優)	20(26.7)	1(1.3)	·	21(28.0)
양(良)	6(8.0)	24(32.0)	24(32.0)	54(72.0)
가(可)	·	·	·	·
계	26	25	24	75(100.0)

우·양·가 3등급으로 평가된 조행 성적은 우 21명(28.0%), 양 54명(72.0%)으로 양이 우보다 2.6배 정도 많았고, 가는 한 명도 없었다. 조행 성적이 우인 학생 21명(28%) 중에서 20명(26.7%)은 석차가 상위권(1~25등)이었고, 조행 성적이 우이면서 석차가 중위권(26~50증)인 학생은 1명뿐이었다.

조행 성적이 양이면서 석차가 상위권(1~25등)인 학생은 6명(8.0%)뿐이었고, 조행 성적이 양인 학생 중에서 석차가 중위권(26~50등)인 학생 24명(32.0%), 하위권인 학생도 24명(32.0%)이었다.

이상은 조행 성적과 석차와의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 일본인 교사들은 평소 수첩에 학생의 태도와 행위를 관찰하고 기록하여,[33] 학생들이 식민지 지배체제에 복종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2) 성행 평가

학적부 제2면의 성행 평가는 담임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관찰하여 기록한 주관적 성격의 기록으로, 주로 학생의 성품과 품행에 대한 평가이다. 다음의 〈표 8〉은 12회 졸업생의 4학년 시기의 성행 평가를 표본추출하여 긍정적 표현과 부정적 표현으로 정리한 것이다. 학생 한 명에 대한 성품과 품행을 복수로 서술하였으므로 〈표 8〉에서도 복수 처리하여 비슷한 성질을 같은 항목으로 묶은 것이다.

〈표 8〉 성품·품행 평가

	성품과 품행에 대한 긍정·부정적 평가
긍정적 표현	1. 온순, 종순, 어른의 명에 복종
	2. 정직, 진면목眞面目, 간사한 기질 없음
	3. 활발, 활기, 쾌활, 명랑, 친절, 다정, 익살스러움,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다.
	4. 학업에 열심, 작업作業에 열심, 착실 통솔력, 통제력, 승기勝氣 기억력·사고력·상상력·이해력 풍부
	5. 언어 명료
	6. 용의 단정, 단정한 자태, 자제심, 침착
부정적 표현	1. 짓궂은 성격, 거칠고 난폭함, 다투기 좋아함 냉정, 예민, 신경질적, 의심·질투심 많음, 너그럽지 못한 성질
	2. 위선적 행위(겉과 속 다름, 겉으로 종순하나 반항심 있음, 부정직, 진면목 없음)
	3. 동작 둔함, 활발하지 못함, 명랑하지 않음 의지 박약, 담력 약함, 용기 없음, 겁쟁이, 여성적 성격, 과묵
	4. 학업태도 불량, 작업 싫어함, 노력 부족, 성의 부족, 머리 둔함 주의력·기억력·사고력·이해력·발표력 부족, 문재文才 떨어짐
	5. 언어 불명료, 언어 어눌 다변(허튼소리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함, 시끄럽게 떠들다)
	6. 용의 단정치 못함, 주의산만, 학용품 자주 분실

〈표 8〉에서 보듯이, 12회 졸업생의 4학년 일본인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품과 품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은 '온순·종순·복종'이었다. 온순·종순·복종은 유교사회였던 조선에서도 강조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던 덕목이었으나, 일본인 교사의 관점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12회 졸업생들이 학창 시절을 보낸 1938~1943년은 일제가 충량한 황국신민의 육성을 표방하며 황민화정책을 추진하던 시기로, 일본인 교사의 입장

에서는 온순·종순·복종은 식민지민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태도로서 강조하였을 것이다. 반면에 '짓궂고 거칠며 난폭하여 다투기를 좋아하는 성행'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순종 다음으로 많이 강조한 긍정적인 성행은 '정직하고 간사한 기질이 없는 진면목眞面目함'이었다. 이에 '겉과 속이 다르다거나, 겉으로 순종하나 반항심 있는 학생'을 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교사가 학교생활 전반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평가하던 상황에서 말수가 적은 '과묵'한 성품조차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주목하였다.

한편 일제는 1930년대 식민통치와 대공황의 여파로 결코 '명랑'[34]할 수 없었던 식민지 조선에서,'활발·쾌활·활기차고 명랑'하거나 '익살스러운 코믹함으로 급우들을 즐겁게 하는' 학생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런가 하면 학업이나 작업(作業: 교내 노동)에 열심이었던 모범생들과 통솔력과 책임감이 강한 급장·부급장에 대한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반면에 '행동이 둔하고 활발·명랑하지 못한' 학생은 '의지 박약, 담력 약함, 용기 없음, 겁쟁이'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심한 경우 '무뇌아에 가깝게 머리가 둔하나, 진면목한 면이 있어 가사·재봉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하여, 조선인 학생에 대한 일본인 교사의 모멸과 무시가 어느 정도였는지 느껴지기도 한다.

한편 초등학생인데도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많은데, 이는 일본어를 학습언어로 하는 초등생들이 일본어에 능숙하지 못했던 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 4학년 학생들인데도 '언어가 명료하다'는 학생은 단 2명뿐인 데 비해 '언어가 불명료'하거나 '언어가 어눌'한 학생은 10명이나 된 것은,'국어화'된 언어, 즉 일본어에 능숙하지 못한 것을 언어 능력의 문제로 저평가한 것이다.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대리통치자적 입장에 선 일본인 교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학생은 '용의가 단정'하거나 '단정한 자태'를 갖추고, '순종적'이면서도 '명랑·쾌활'하며, '국어(일본어)에 능숙'한 '황국신민'이었던 것이다.

4. 사회경제적 배경 및 상급학교 진학

1) 사회경제적 배경

1930~1940년대의 안양공보교 학생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계층에 속했는지 가늠해 볼 수 하나의 지표는 보호자인 학부모의 직업이다. 〈표 9〉에서는 학적부에 기입된 1930~1940년대 안양공보교 학부모의 직업과 〈표 9〉 비고에 제시된 1930년대 조선 전체 인구의 직업을 비교하여 안양공보교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9〉 1930~1940년대 안양공보통학교 학부모의 직업

직업	안양공립보교 학부모의 직업(%)	1930년대 조선 전체 인구의 직업(%)[36]
농업	286(60.8)	16,165,983(82.1)
상업	77(16.4)	1,253,895(6.4)
광공업	11(2.3)	449,262(2.3)
공무직	29(6.2)	523,105(2.7)
자유업	60(12.8)	
무직·미상	7(1.5)	1,293,342(6.6)
계	470(100.0)	19,685,587(100.0)

〈표 9〉에서 보듯이, 안양공보교 학부모의 직업은 농업이 286명(60.8%)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상업 77명(16.4%)·자유업 60명(12.8%)·공무직 29명(6.2%)·광공업 11명(2.3%)의 순이다. 이는 〈표 9〉에 제시된 1930년대 조선 전체 인구의 직업에 비해 농업 종사자가 21.3% 적고 상업 종사자는 10.0%, 공무·자유업[37]은 16.3%가 크다. 이는 안양공보교 학부모의 직업 구성이 미작 위주의 전형적인 농업사회와는 조금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농업에 종사한 학부모의 경우 지주부터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적 처지가 다양했으나, 학적부에는 대부분 '농업'이라고만 기입되었다. 다만 12회 졸업생의 경우는 농업 종사자 65명 중에 24명은 '농업'이라고만 기입하였지만, 41명은 ( )안에 자작농·자소작농·소작농으로 구분하여 기입해서 참고가 된다. 즉 자작농 5명, 자소작농 11명, 소작농 25명으로 소작농이 제일 많았음을 알 수 있다.[38] 7회 졸업생 학적부에는 담임교사가 '생활 궁핍', '생계 곤란', '생활 상당히 곤란' 등으로 기록한 학생이 전체 38명 중 12명이나 되었는데, 이들 학부모는 소작농이면서 날품팔이를 하는 등 사

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형편에도 자식에게 근대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한편 안양공보교 학부모의 상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1905년 개통된 경부선이 안양역을 지나면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경부선이 안양역을 통과하고 안양에 역사가 개설되면서 안양역에서부터 만안로를 따라 현 안양초등학교에 이르는 도로변에 상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상업에 종사한 학부모들은 전통적인 행상·미곡상·약종상·과일상에서부터 술집·요리업·음식점·정육점과 같은 요식업 그리고 자본주의적 근대 직업에 해당하는 양복점·의복상·피복상·모자가게·신발가게·종이가게·자전거점 등을 경영하였다.

자유업 종사자는 날품팔이·철로선 인부·도로공사 인부와 같은 일용직에서부터 자동차 운전수·마차 인부·인력거꾼 그리고 회사원(은행원, 조선직물[39]·영등포방직·태창직물·안양직물공장, 삼창정미소, 京電사원, 금광사무원)이 있었고, 개인업으로 의업, 건축기사, 측량기사, 도장 파는 집, 대장간, 여관, 이발소 경영 등 다양하였다.

이처럼 안양역 주변이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1917년 호계동에 있던 서이면사무소가 안양리로 이전하였고, 1926년에는 안양역 인근에 공설시장이 들어섰다. 안양우편소를 시작으로 안양 최초의 금융기관인 안양금융조합·안양연초조합·안양주재소 등의 관가 건물들이 속속 들어섰다. 이제 안양역 일대는 관공서들이 모여 있는 행정의 중심가가 되어 공무직 종사자의 활동무대가 되었다. 공무직에 종사한 학부모의 직업군을 보면, 교원·훈도와 같은 교육계 종사자와 경기도청·평안도청의 관공리官公吏, 경찰관, 삼림주사보, 교통국원, 철도국원과 같은 일반공무직 종사자였다.

2) 상급학교 진학 상황

일제는 4년제 보통학교 교육을 식민지 조선에서의 종결교육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중등학교 이상의 교육에 대해서는 제한이 많았다. 반면에 조선인들은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을 겪으면서 '배워야 산다'는 각성하에 향학열이 고조되었다.[40] 그러나 조선학생들의 중등교육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인문계 중등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1937년 전국 중학교 입학경쟁률이 평균 6:1을 넘을 정도로 입학난이 심각하였다.[41]

이런 상황에서 1936년 6년제로 승격된 안양공보교 졸업생의 중등학교 진학 상황은 어떠하였을까. 다음의 〈표 10〉은 학적부에 기입된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남녀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0〉 상급학교 진학 상황

구분	진학한 학교		비고(학생 수)
남학생	공립	중학교	**공립중학교(1)
		사범학교	춘천사범학교(1)
		상업학교	경성공립상업학교(1)
		공업학교	경성공립공업학교(1)
		직업학교	경성공립직업학교(2)
	사립	중학교	성남중학교(2), 보성중학교(1), 중동학교(1), 경신학교(1)
		상업학교	동성상업학교(1), 광신상업학교(1), 선린상고(1), 김포대곶상업학교(1)
		공업학교	한성공업학교(1), 경기공업학교(1), 경성전기학교(1)
		직업학교	대전직업학교(1), 한국항공병학교(1)
	소계		20
여학생	사립	고등여학교	동덕고등여학교(5), 진명고등여학교(3), 수원매향학교 고등과(1) 경성매동국교 고등과(1), 명성학교(1)
		여자상업학교	동구여상전속학교(1), 수원여자상업학교(1)
		여자실업학교	덕성여자실업학교(4)
	소계		17
총 계			37

첫째, 안양공보교는 1936년 6년제 보통학교로 승격됨으로써 졸업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해졌다. 6년제로 승격된 이후의 졸업생은 총 370명인데 그중에서 37명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였으므로 안양공보교의 상급학교 진학률은 10.0%였다. 이를 남녀학생으로 구분해서 보면, 남학생은 270명인데 그중에서 20명이 진학하여 7.4%의 진학률을 보인 반면, 여학생은 100명인데 그중에서 17명이 진학하여 17.0%의 진학률로 남학생보다 9.6%나 높은 진학률을 보였다. 이는 여학생들의 향학열도 높았지만, 학부모의 교육열 또한 높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의 〈표 11〉은 1930~1940년대에 상급학교에 진학한 안양공보교 여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늠해보기 위하여 여학생 학부모의 직업을 정리한 것이다.

〈표 11〉 상급학교에 진학한 여학생 학부모의 직업

직업 구분	졸업 기수	진학한 학교명	여학생 학부모의 직업
농업	12회	동구여상전속학교	농업
	13회	명성학교	농업(모)
	13회	경성매동보통학교 고등과	농업
상업	10회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잡화상, 주조업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잡화상
		덕성여자실업학교	잡화상
	11회	동덕여고보	잡화상, 주조업
		덕성여실교	상업
	12회	덕성여실교	잡화상
		동덕여고보	주酒 판매상
공무직	10회	진명여고보	철도국원
	13회	수원여자상업학교	교통국원
자유업	11회	동덕여고보	의업
		진명여고보	조선직물회사 회사원
	12회	덕성여실교	영등포방직주식회사 회사원
		동덕여고보	건축기사
	13회	수원매향학교 고등과	도로 공부工夫
계			17

〈표 11〉에서 보듯이 여학생 학부모 17명의 직업이 상업 7명, 자유업 5명, 농업 3명, 공무직 2명의 순으로 많았다. 상업의 경우 주로 잡화상·주류상이었고, 자유업은 의업·회사원·건축기사·도로 공부 등 다양했으며, 공무직은 철도국·교통국 직원이었다. 즉 상급학교에 딸들을 진학시킨 안양공보교 여학생의 학부모들은 자신의 딸들에게 당시 1% 미만의 소수 여성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중등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42] 근대 자본주의적 직업에 진출한 여성교육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계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일제강점기에는 '공립만능시대'라 할 정도로 공립학교가 시설·교사의 질이 높고, 일본어 실력 등에서 입학시험에 유리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선호하였는데,[43] 그만큼 입시경쟁률은 더 치열하였다. 안양공보교 졸업생 중에서 공립중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남학생만 6명이 있었고 여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셋째, 상급학교 진학을 인문계와 실업계로 구분해보면, 인문계 중학교에 진학한 학생

은 총 17명인데 그중에서 남학생 6명·여학생 11명이었고, 반면에 실업계 진학은 총 20명인데 그중에서 남학생 14명, 여학생 6명이었다. 즉 남학생은 인문계보다 상업·공업·직업학교와 같이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한 실업계 중학교를 선호한 반면 여학생은 인문계 중학교를 선호하였다.

넷째, 안양공보교에서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 37명은 '경성유학'을 한 셈인데, 〈표 10〉에서 보듯이 춘천사범학교, 김포대곶상업학교, 대전직업학교, 수원매향학교 고등과, 수원여자상업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모두 당시 경성 소재의 중등학교에 진학하였다. 학생들이 이처럼 경성에 있는 학교를 선호한 것은 경성에 명문 중학교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930~1940년대의 경성은 비록 식민도시였으나, 점차 '식민지 근대'가 이식되는 가운데, '화려한 근대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동경과 선망이 대단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안양공립보통학교 학적부』

안양시지편찬위원회, 『安養市誌』, 1992.
안양시사편찬위원회, 『安養市史』, 2006.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안양학논총』 창간호, 2001.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안양학자료집』 6, 2006.
소래섭,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다』, 웅진지식하우스, 2011.
전봉관, 『경성자살클럽』, 살림, 2008.
조미은, 『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생-개항기부터 일제시기까지-』, 서해문고, 2018.

구광모, 「창씨개명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국제정치논총』 45-4,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김명숙, 「1943-1945년 수원공립고등여학교 학적부 분석」, 『한국사상과 문화』 73, 2014.
김명숙, 「일제강점기 고등여학교 학생들의 꿈과 이상, 그리고 현실-1945년 동덕고등여학교 학적부를 중심으로-」, 『鄕土서울』 78, 2011.
김명숙, 「일제강점기 조선인 여학교와 재조선 일본인 여학교의 특성 비교 연구-동덕·수원고녀 학적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76, 2015.
김지순, 「학적부에 나타난 1910년대 통영공립보통학교의 학생생활」, 『靑藍史學』 21, 2013.
문원식 편집, 「제 1차 안양 근현대사 구술자료 녹취록」, 『안양학자료집 6-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 I 』,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2006.
박지향, 「일제하 여성고등교육의 사회적 성격」, 『사회비평』 1, 나남, 1988.
이상규, 「이상규 교수의 역사칼럼 : 무엇이 일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들게 하는가」, 『교회와 사랑』, 2006.9.4.
현경미, 「식민지 여성교육 사례연구-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註

1 『동아일보』 1927년 10월 21일,「安養公普 基地 四千餘平寄附 李容汶氏 特志」;『동아일보』 1928년 10월 17일,「前途가 有望한 安養普校 期成會 任員改選코 積極活動」;『동아일보』 1929년 3월 18일,「年來의 宿題이든 安養普校 設立 七月一日부터 開校

2 1927년 당시 시흥군에는 10개의 면에 8개의 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어 있었는데, 1927년 3월 3일, 「시흥군학교평의원회」에서 안양공보교(서이면)와 서면공보교(서면)를 설립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시흥군의 경우 1면에 1개교의 보통학교가 설립되게 되었다(『동아일보』1927년 3월 5일,「二個公普校 增設, 學校平議院會서 決定 始興은 一面一校 施設」).

3 『동아일보』1927년 3월 5일,「二個公普校 增設, 學校平議院會서 決定 始興은 一面一校 施設」

4 『동아일보』1927년 3월 11일,「安養公普期成會 負擔金 외에는 義捐으로 募集 今年度內에 設立計劃」

5 『동아일보』1927년 3월 11일,「義捐募集決議 理事會에서」

6 일제강점기의 「학교비」는 교육재정을 중심으로 조선인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담당한 단체로, 조선인 교육 중에서도 공립보통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이 이 단체의 주목적이었다. 서이면의 경우 '안양공립보통학교 기성회'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반면 재조선 일본인의 교육사무를 담당하는 독립적 법인단체로서 재조선 일본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업무를 총괄한 단체는 '학교조합'이었다(조미은,『재조선 일본인 학교와 학생-개항기부터 일제시기까지-』, 서해문고, 2018, 249-257쪽, 117-137쪽).

7 『동아일보』1927년 3월 28일, 「義捐金還至 安普期成會에」

8 『동아일보』1927년 10월 21일, 「安養公普 基地 四千餘坪 寄附 李容汶氏 特志」

9 『동아일보』 1927년 12월 8일, 「公普校舍 起工 竣工은 明春二月」

10 주 9)와 같음.

11 『동아일보』 1928년 9월 14일, 「旱災우에 病까지 五百町步 全滅 酷甚한 始興郡 一帶 」

12 『동아일보』 1929년 3월 8일, 「草根木皮도 업서 男負女戴로 流離 始興郡內의 旱災餘波」

13 사음은 지주로부터 소작지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인으로 마름이라고도 한다.

14 『동아일보』 1928년 10월 27일, 「始興郡의 旱災와 三處의 地主會 作料減免 등 諸項 決議」

15 『동아일보』 1928년 10월 17일, 「前途가 有望한 安養普校 期成會 任員改選코 積極活動」

16 1928년 대한재의 피해를 고려하여 교사 건축비용 7,500원 중에서 6,000원은 도지방비에서 보조하였고, 나머지는 서이면민의 의연금으로 충당하였다(『동아일보』1929년 3월 18일, 「年來의 宿題이든 安養普校 設立 七月一日부터 開校).

17 『동아일보』 1929년 9월 5일,「安養普校 落札 明春來竣工 有志活動으로」;『동아일보』 1929년 12월 26일, 「安養公普開校 지난 이십일에」

18 『동아일보』 1929년 12월 26일, 「安養公普開校 지난 이십일에」

19 김지순,「학적부에 나타난 1910년대 통영공립보통학교의 학생생활」, 『靑藍史學』21, 2013, 59쪽.

20 김지순, 앞의 논문, 2013, 61쪽.

21 박지향, 「일제하 여성고등교육의 사회적 성격」『사회비평』 1, 나남, 1988, 278-279쪽.

22 13회 졸업생 ○○益子의 학적부

23 〈표 3〉은 안양공보교 졸업생 470명 중에서 출생 순서를 기입하지 않은 32명을 제외한 438명을 대상으로 정리한 것이다.

24 문원식 편집, 「제 1차 안양 근현대사 구술자료 녹취록」『안양학자료집 6-이야기로 듣는 안양 근대사 Ⅰ』, 성결대학교 안양학연구소, 2006, 8쪽.

25 문원식 편집, 앞의 책, 2006, 5쪽.

26 1930년대 보통학교 부족에서 야기된 입학난의 해결책으로 강습소 증설이 제안되기도 하였다(『동아일보』1933년 3월 10일,「社說: 年

中行事의 入學難, 특히 普通學校의 入學難에 대하여」).

27 사숙은 한 가정에서 교사를 초빙하여 일족一族의 자제들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28 6회 졸업생 이○훈의 경우"부는 직업이 농업이고 질박·근면하지만, 생활이 곤란하여 조부로부터 한문을 수학하였다."고 학적부에 기록된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29 안양공보교 10-13회 졸업생 학적부의 학생 씨명난에는 입학 당시에 기입한 조선식 성명 위에 줄을 긋고 그 옆에 일본식 씨명氏名이 기입되어 있다. 창씨개명은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주도한 황민화정책皇民化政策의 하나로, 이에 불응할 경우 직장인은 취직·직장 이동 시 불이익을 당했고, 학생은 교사로부터 입학·전학을 거부당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질책과 구타를 당하였다. 1940년 3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강행된 창씨개명정책으로 조선인 호주의 80.3%가 일본식 씨명으로 변경하여 신고했다(구광모,「창씨개명정책과 조선인의 대응」『국제정치논총』45-4,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32쪽). 안양공보교 졸업생 중에서 창씨개명을 하지 않고 학적부에 조선식 성명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학생으로 12회 졸업생 오영근이 있다.

30 4년제 안양공보교의 일본어 수업은 읽기[讀方]·글짓기[綴方]·글쓰기[書方]로 구성되었는데, 6년제에서는 말하기話方가 추가되면서 일본어가 더욱 강화되었다.

31 이상규, 「이상규 교수의 역사칼럼 : 무엇이 일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들게 하는가」『교회와 사랑』, 2006.9.4.

32 조일공학이었던 수원공립고등여학교 학적부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조행 점수를 평균 점수에 가산하여 석차를 내는 방식은 일본학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다(김명숙,「1943-1945년 수원공립고등여학교 학적부 분석-일제강점기 한일공학의 특징을 중심으로」『한국사상과 문화』 73, 2014, 176-178쪽.).

33 수원여고보 3회 졸업생 홍영애의 구술에 의하면, 수원여고보 1학년 때의 담임이었던 일본인 여교사는 항상 학생들의 행동과 대화를 교실에서 살피고 수첩에 기록하여, 학생들이 담임교사를 무척 싫어했다고 한다(김명숙,「일제강점기 조선인 여학교와 재조선 일본인 여학교의 특성 비교 연구-동덕·수원고녀 학적부를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76, 2015, 127쪽).

34 소래섭, 『불온한 경성은 명랑하다』, 웅진지식하우스, 2011.

35 박지향, 앞의 논문, 1988, 265쪽.

36 박지향, 앞의 논문, 1988, 265쪽.

37 〈표 9〉에서 공무직과 자유업은 성격이 다른 직업군이지만, 근대 부르주아지들이 많이 진출한 자본주의적 근대 직업이기도 하고, 또 위의 박지향의 논문에서 제시한 분류 기준에 맞추어 비교해보기 위하여 공무·자유직을 하나로 묶어서 제시한 것이다.

38 안양공보교 2회 졸업생인 김진행 님의 회고에서, "안양은 제(전부-필자 주) 빈농이고, 그 당시에 소작하다가 잘못하면 마름 보는 사람이 땅이 떨어져요. 마름이 참 무서운 사람이야"라고 한 데서도 농업 종사자 중에서 소작농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문원식 편집, 앞의 책, 2006, 20쪽).

39 일본자본가들은 1930년대에 세계공황과 일본정부의 산업통제를 피해 식민지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는데, 1932년 안양역 앞인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에 설립된 조선직물회사도 그 중의 하나였다.

40 『동아일보』, 「배워야 살겠다는 이 絶叫 : 向學熱에 불타는 農民層 冬寒期 夜學에로 雲集 學齡지난 사람들을 大量救濟」

41 전봉관,『경성자살클럽』, 살림, 2008, 219-220쪽.

42 현경미, 「식민지 여성교육 사례연구-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52-53쪽.

43 현경미,위의 논문, 1998, 49-50쪽.

02 문화예술의 현황과 지역축제

제1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단체
제2장 문화행사와 지역축제
제3장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안양지역의 문화예술은 전통과 깊은 역사적 뿌리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술을 매개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문화예술 정책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지역 예술계가 주도적으로 건강한 문화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1장

문화정책과 문화예술단체

이재옥 안양예총 회장
강혜영 전 안양문화원 학예연구사
김수정 안양문화예술재단 차장

1. 안양시 문화예술 정책 진단 및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안양시는 지리적 특성상 서울 근교로 서울 중심의 생활문화권과 밀접해 있지만 타 시에 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도시가 아닌 유서 깊은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도시다. 서울과의 용이한 접근성은 안양 본래의 독자성보다는 서울의 베드타운으로서의 부속성이 강조되

제6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 안양시 입장식(1989)

는 심각한 정체성 위기로 내몰기도 한다. 급증하는 서울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 초 평촌신도시 개발과 입주로 안양은 원주민들보다 유입된 주민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정주 의식의 부족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만안구와 동안구, 구도심과 신도시의 문화적 차이로 지역 주민들이 적지 않은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하지만 안양지역 문화예술은 전통과 뿌리 깊은 역사가 있다. 많은 전문가가 지역 발전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예술을 꼽고 있듯이 예술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예술 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정책을 통해 지역 예술과 예술인들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 생각한다,

2) 안양 문화예술

초기 안양예술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안양영화촬영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1957년 경기도 안양의 11만 550㎡(3만 3500평) 대지에 건설된 안양촬영소는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다. 이후 1966년 신필름에 인수되었고 1960년대 후반 연간 30여 편의 영화를 제작하였다. 또한 신필름은 안양촬영소 내에 신필름영화예술학교(현 안양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해 영화인 양성 교육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닥친 한국영화계의 불황과 과도한 제작 편수, 무리한 합작, 제작 인력의 비대화 등으로 인한 운영의 부실화로 신필름은 상당한 자금 압박에 시달렸고, 정치권과의 불화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몇 차례의 부도를 맞으며 신필름은 안양영화주식회사, 신프로덕션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그 규모가 축소되면서 1975년 11월 허가가 취소되었다. 1978년에는 영화배우 최은희 씨가 북에 납치되고 신상옥 감독도 북으로 가면서 주인 잃은 영화사는 1981년 문을 닫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1]

그러나 안양시와 이들 부부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다. 탈북한 부부가 1987년 미국으로 망명하였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인 2002년 안양시는 한국영화 촬영장으로 각광받던 안양시의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추억의 영화 회고전을 안양문예회관에서 개최한다. 그리고 시 소유 건물인 옛 안양경찰서 건물을 이들에게 임대하였다. 최은희 씨와 신상옥 감독은 여기에 2년 과정의 영화학교인 '신필름예술센터'를 세웠다. 운영 첫해인 2003년에만 160여 명이 입학해 목표대로 운영되는 듯했지만, 이듬해 입학생이 100명

으로 줄더니 2005년에는 30여 명까지 떨어져 어려움이 가중됐다. 시의회 등에서도 시가 이들 부부에게 특혜를 준 점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신필름예술센터는 결국 2006년 2월 안양시에 철수 의사를 밝혔다. 그해 4월 신상옥 감독도 별세하였다.[2]

이러한 안양의 영화 역사를 기반으로 2016년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를 개최하였다. 이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개최해오던 대한민국 청소년창작영화제를 확대·발전시킨 것이다. 제2회 행사에서는 105개국에서 2162편이 출품되었고, 제3회 행사에서는 총 100개국에서 2330편의 영화가 출품됐다. 그러나 안양시가 영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개최해왔던 '청소년국제영화제'는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3회째를 치르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조금씩 높아졌는데 폐지돼 안타깝다는 의견들도 많았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이 안양의 독특한 콘텐츠로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매우 아쉽게 생각된다.

(1) 안양 문화예술의 시작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양 근현대사 문화예술 분야 첫 행사로 1927년 개최된 '안양소년동화대회', 첫 영화 상영은 1928년, 첫 연극 공연은 1928년, 첫 음악회 역시 같은 날 군자면에서 개최된 점을 들어 안양문화예술의 시작을 1920년대로 들고 있다.[3]

1940년 말부터 안양 문화예술은 협회 혹은 동인회, 개인 활동을 통해 전개해 나갔다. 앞서 기술한 영화와 관련된 특별한 활동은 없었다.

안양시 초창기 안양 문화예술 활동에서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단체 기관은 문화원·예총 각 문화예술 분야의 동아리들이다. 안양문화원이 1970년에 설립되었고, 안양예총은 1990년에 각각 창립되었다. 예총의 협회별 활동은 창립 이전부터 있었으나, 5개 협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만 예총 창립이 가능했던 이유로 그 이전의 많은 예술 활동이 문화원 행사와 함께 병행되었다. 안양예총은 문인, 미술, 음악, 사진작가, 연예예술인, 연극, 무용, 국악 8개 협회의 전문 예술인들의 연합체로 안양예술의 시작 단계에서 안양예총을 중심으로 한 회원들의 활동이 있었다.

1970~1980년대에는 시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해 변변한 공연장이나 전시장조차 없던 시기였으나 지역의 뜻 있는 개인이 사재를 털어 예술인들에게 발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안양문화원 주최 김동리선생 초청 내고장 문화논단(1985)

안양예총 창립총회(1990)

안양문화예술회관 개관(1989, 경기도 멀티미디어)

(2) 안양 문화예술의 도약기

1989년 안양문예회관이 건립되었다. 안양문예회관은 당시 안양시가 직접 운영하였다. 1997년부터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고 2000년부터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하면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04년 평촌아트홀 개관으로 동안구에 공연장과 안양역사관을 겸한 문화공간이 조성되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체제의 지역문예회관은 전문성이 결여된 전시행정의 모순을 드러내었고 이와 같은 문화행정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새로 도입된 개념이 문화재단이다. 재단 운영의 장점은 전문경영인의 영입이 쉽고 재원 확보의 융통성, 행정의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은 국내 문예회관 운영의 주체를 문화재단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4]

(3) 안양 문화예술의 성장기

2005년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의 시작은 매우 의미가 크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는 미술,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안양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도시환경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국내 유일의 국제적 공공예술행사였다. 2007년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으로 2회, 3회의 행사를 치르면서 국내외적으로 안양을 알리게 되었다. 그러나 2009년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설립으로 통합되면서 최초의 운영방식과 다른 구조로 바뀌면서 기능의 약화를 낳았다.

1989년부터 안양문예회관을 건립·운영해 오던 안양시는 2004년 안양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를 진행하였고, 2008년 2월부터 재단 설립을 추진해온 안양시는 시민공청회 개최, 조례 공표, 발기인대회 개최, 설립허가 및 등기,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완료한 뒤, 2009년 5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출범하였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은 안양문화예술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4) 안양 문화예술의 발전기 – 안양문화예술재단 10년을 중심으로

안양시는 2009년 안양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여 기존에 추진 중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시민문화축제, 시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을 재단의 관리 아래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주관하던 안양공공예술재단이 2011년 7월 안양문화예술재단과 통합됨으로써,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안양시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자리하였다. 재단 설립 시 조직은 상임이사 아래 3개 팀(행정지원팀, 문화사업팀, 시설무대팀) 30명으로 구성해 운영하였다.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안양문예회관과 평촌아트홀을 주요 시설로 인수하여 공연, 전시, 문화교육 사업을 추진하며, 안양시 유일의 공립박물관인 안양역사관 운영과 안양시민축제를 개최하였다.

2011년 7월 안양시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면서 조직개편과 인원이 확충됐다. 박물관 개관과 신규 사업의 수탁, 이관 등을 통해 재단의 조직개편이 단행되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재단 사업이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인원과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과 '경영/지원' 이원화 체계로 큰 틀에서 업무 범위를 조정하였다.

또한 '감사'와 '평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감사평가실'을 신설하였다. 재단 설립 초기 새로운 사업의 편입과 확대에 따라 잦은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이후에는 정부와 시의 문화정책 기조에 따라 변화를 모색해왔다. 조직의 변화에 따라 30명에서 시작한 정원이 2021년 현재 83명으로 늘어났다.[5]

3) 국가 문화예술정책과 안양 문화예술정책 변화

(1) 국가 문화예술정책 변화

우리나라 지역 문화예술정책은 국가정책에 따라 큰 흐름의 맥을 잡고 변화해왔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사회적 혼란 속에 6·25전쟁을 겪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암울한 시대상을 기억하게 된다. 이후 경제적 성장 시대를 거쳐 그 짧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K-컬처 시대를 맞이하였다.

해방 이후 문화는 공보에서 출발하여 공보처(1948), 공보부(1961), 문화공보부(1968),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1990), 문화부(1990), 문화체육부(1993)를 거쳐 문화관광부(1998)로 변경, 문화체육관광부(2008)로 소관 부처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이후 전쟁으로 인한 시대적 환경 속에 문화예술의 비중이 매우 낮았던 시기 문화예술정책은 중앙집권적 정책체계로 일원화되었다. 1990년대는 문화정책의 수혜가 중앙에 집중되었다. 상대적으로 지역문화는 '향토문화', '지방문화'로 서술되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지역문화의 근본이 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지역 문화정책 및 사업과 각종 문화적 활동의 기본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015년 「지역문화진흥법」의 본격 시행으로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10년 동안의 문화정책 방향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를 발표하였다.

2019년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자치', '포용', '혁신'의 가치를 지향하여 '내가 만드는 지역문화',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 '사회를 혁신하는 지역문화'의 목표를 제안하였다.

2022년 새 정부는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 있는 지역'으로 문화정책 비전을

제시하였다. K-컬처가 세계 문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한편 전통문화를 보존해 우리 문화의 저변을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2) 안양시의 문화예술정책 변화

안양시의 문화예술정책도 시대적 환경에 따라 내용의 변화를 가져왔다. 국가정책에 기반하여 기본 내용을 수립하고 운영해 왔으나 시의 구체적 문화예술정책 실현은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지자체장의 공약,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것이다.

2002년 안양시에서 추진한 '안양아트시티21' 정책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안양아트시티21' 사업 추진으로 각종 건축물과 공작물들의 외관 형태 등에 예술성을 가미하여 자연환경과 도시 미관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준 높은 문화적 자산을 만들어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문화를 가꾸어 나가고자 하였다. 2005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안양유원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 '비산조각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공미술의 내용을 담아 국제적인 행사로 추진되었다.

2010년 안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안양비전 2030' 발표를 통해 '산업도시에서 지식창조도시로의 전환'을 위하여 문화예술산업을 도시기반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안양비전 2030'은 안양시의 미래상으로 '자연, 문화예술과 사람이 만나는 초록문화도시 안양'을 제시하였다.

2012년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을 표방하면서 안양시는 2012년 대한민국 최초의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을 통해 창조적 글로벌 미래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산업 전반에 스마트 기술환경을 구축하여 최첨단 지식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풍요로운 시를 만들고, 시민의 생활 전반에 스마트 상용 환경을 적용하여 문화와 감성이 살아 있는 창조적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감성과 품격이 넘치는 도시'로 안양시의 문화예술 미래를 구상하였다.

2014년 8월 출범한 민선 6기의 문화예술 관련 주요 정책은 '안양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힐링도시'를 만들고자 하였다.

2022년 시민축제 우선멈춤

2018년 민선 7기 공약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을 확대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축제 등을 지원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가는 한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국내 최대의 공공예술행사로 개최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2년 민선 8기 박달스마트밸리에 안양 대표 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한류문화와 예술을 선도하는 K-아트컬처 중심으로 활성화, 안양시민축제 '춤의 도시'를 개최하고 청소년 거리공연을 지원하며, 문화예술 창작지원금 규모도 늘리겠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강화하여 안양문화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6]

4) 안양 문화예술의 현실

(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안양문화정책

① 안양시의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법규

안양문화예술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안양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시정에서 중요한 문화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일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3년 현재 안양시의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안양시 문화예술정책 관련 자치법규 현황(2023년 현재)

구분	법규명	제/개정일
조례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0.3.2.
조례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7.10.
규칙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6.7.7.
조례	안양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7.10.
조례	안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2020.3.2.
조례	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2020.7.10.
조례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019.12.31.
조례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2017.10.17.
조례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2015.6.24.
조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7.10.
조례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2020.4.1.
규칙	안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0.6.15.
조례	안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2020.12.31.
조례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항 조례	2019.11.19.
조례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	2018.12.18.
조례	안양시 향토사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3.20.
조례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019.10.28.
조례	안양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	2020.11.13.
조례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2021.2.19.
조례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21.8.10.
조례	안양시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0.20.

자료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②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출범 당시 '재단은 행정지원, 문화사업, 시설무대 등 3개 팀으로 구성.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해오던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알바로시자홀(현 안양파빌리온) 그리고 개관 예정인 유유(제약)부지 복합문화공간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7]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안양시가 운영한 여러 종류의 문화예술 사업을 이관하여 운영하였고, 안양예술공원 내 유유(제약)부지 개발 사업을 통해 예술인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 문화 향유 공간 등의 계획으로 진행된 복합문화시설 운영 계획은 개발 과정에서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당초 계획은 무산되었다. 안양예술인센터는 안양예총의 요구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그 운영 주체는 재단으로 편입되었다. 안양아트센터와 평촌아트홀 이외에 운영시설이 재단으로 이관되면서 기획인력과 시설관리 인원과 비용이 함께 증원되어 인력과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기초 지자체의 문화예술정책의 운영은 대부분 재단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운영예산은 연간 약 150억 원으로 적지 않으나, 아트센터, 예술인센터,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관리 등 시설관리를 함께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운용 가능한 사업비는 3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안양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에서도 전문 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은 예술인 지원사업, 지역연고 작가전 정도이며, 지원예산도 적다.[8]

안양시 문화예술 예산의 상당 부분을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문화재단 설립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예산으로 지역예술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는 안양예술인들에게 새로운 기획의 창작활동 기회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안양시와 문화예술재단, 안양예총과 지역예술인들의 협치를 통한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한다.

2022년도 연차보고서에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비전과 목표 제시에서 '모두 함께하는 행복한 문화예술 도시 안양'을 미션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비전으로, '문화예술 저변확대, 시민행복지수 향상, 공공예술 활성화, 안전관리 강화'를 경영 목표로 밝혔다. 이에 따른 전략 목표를 '문화예술 성장동력 확보', '핵심사업의 지속성장',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 '혁신을 통한 역량강화'로 들고 있다.[9]

(2) 안양 문화예술의 현주소

① 문화예술 기반시설

안양시 문화기반시설을 살펴보면 안양시에는 미술관과 문화의 집이 없으며, 생활문화센터도 운영되는 곳이 없다.

시·군·구	합계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경기(31)	591	1	300	284	11	5	128	54	63	12	58	14	41	3	19	44	31	10
안양시	16		10	10			3	2	1							2	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2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운영시설은 안양시 만안구에 5곳, 동안구에 1곳이 있다. 만안구에는 안양아트센터와 박물관 2개소, 안양파빌리온, 안양예술인센터가 있고 동안구에는 평촌아트홀이 있다. 재단 설립 당시 안양아트센터, 평촌아트홀, 알바로시자홀(현 안양파빌리온) 세 곳이었지만, 2014년 김중업박물관(현 김중업건축박물관), 2017년 안양예술인센터와 안양박물관(구 안양역사관)이 더해져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안양의 모든 문화기반시설의 운영이 안양문화예술재단에 편중되어 있고, 일반 단체와 시민들의 대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양문화원의 자체 시설 이외에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은 한 곳도 없다 보니 민간 차원의 좋은 행사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오픈 스튜디오, 문화 향유 공간 등의 계획으로 진행된 복합문화시설 운영 계획이 무산된 이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② 중장기적 문화예술정책과 안양예술 정보 플랫폼 및 DB 구축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설립 이후 안양시 문화예술의 많은 사업은 재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재단은 지금까지 지원과 향유 확대를 위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중장기적 계획 아래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진 예는 드물다. 지역 문화예술 수요 및 공급 관련 현황 자료의 부재로 지역맞춤형 문화예술정책 수립이 어려울 수 있다.

지역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교류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아 문화 향유에 애로가 많다. 문화예술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구심체가 필요한데 안양시 예술 활동 정보 플랫폼은 매우 미비하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지원사업 및 안양 예술활동 정보 등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통합적 구조의 플랫폼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안양시 전체적으로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의 필요성은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두 차례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도 비중 있게 언급된 부분이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2012년, 2021년 두 차례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양문화예술 현황과 앞으로의 비전을 살펴보았다. 2012년 「예술인 복지법」 시행으로 예술인 창작 환경이 제도적 전환기에 진입함에 따라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차별화된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예술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거론된 내용 중 안양시가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한 지역 예술인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안양 예술인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환경 개선 요구에서 예술인 활용 공간은 시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고려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안양 예술인들 사이에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히 예술인들은 재단 또는 시와의 소통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신진 예술인이 안양에서 정착하여 활동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신진 예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예술인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10]

2021년 안양 예술인 활동실태 조사에서는 정보탐색의 어려움, 활동 공간의 부족, 예술 소비자 확보, 안양만의 예술 특수성 부재 및 예술 커뮤니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들었다. 안양에 기반이 없는 예술인 또는 신진 예술인이 안양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초기 예술 활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없음을 들었다.[11]

③ 안양의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특색 있고 고유한 문화, 특화 콘텐츠 개발에 대한 관심은 비단 현 정부만의 정책은 아니었다. 오래전부터 중요한 지역문화 활동으로 강조되어 왔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을 통해 진행되어 온 내용 중 주목해야 할 사업과 안양의 정체성, 문화적 내용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진행되었던 단체 및 안양예총의 몇 가지 사업을 살펴본다.

■ 안양문화예술재단 활동 중심

-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시개발에 공공예술을 접목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안양의 공간, 안양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였다.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 국내외 작가들은 안양유원지 현장 탐구를 통해 그들의 작품에 안양의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공공미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작가들은 직접 안양 현장을 답사한 뒤 영감이 떠오르는 특정 장소를 결정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작품이 만들어지는 동안에도 전문가로 구성된 안양시 공공예술추진위원회는 끊임없이 작가와 소통하고 공간과의 조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정을 거듭하였다. 안양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들로 그 의미를 크게 둘 수 있다.

- 안양시민축제

안양시민축제는 안양시가 시민 대표들과 축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시민축제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시와 민간위원회가 힘을 모아 2000년 제1회를 개최하였다. 시민 중심의 안양시민축제는 시민들의 참여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안양시민축제의 테마에 대한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고, K-컬처 시대에 지역 출신 안무가 리아 킴을 배경으로 2020년부터 '춤'으로 주제를 정하게 된다.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담은 로컬 콘텐츠 발굴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코로나로 전국의 모든 축제가 정지된 시기, 온라인을 통한 〈우선멈'춤'〉의 축제는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첫해 코로나19로 전국의 거의 모든 축제가 취소되었던 시기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안양시민축제는 리아 킴의 유명세로 국내외 반응이 매우 컸다. 2년간 비대면 축제로 운영되었고, 2022년 안양중앙공원에서 시민들과의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과거 시민축제에 비해 전 연령층 참가의 어려움에 불만의 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2023년 안양시민축제는 안양춤축제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였고 2024년도 다섯 번째를 맞이한 춤을 테마로 한 시민축제의 변모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단체 활동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예술 활동에 지역 예술인들, 시민들의 관심과 실천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올해 12년 차를 맞고 있는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는 과거 종이 공장이었던 삼덕제지의 공간적 특성에 기초한 것이다. 기부자에 대한 예우, 종이를 소재로 한 문화예술축제로 그 배경은 안양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 안양예총의 활동

- 공연으로 담아낸 안양

2014년, 2017년 안양국악협회의 '테마가 있는 안양소리여행', 2019년 안양무용협회 '개땅쇠의 노래' 사업이 운영되었다. 안양연극협회는 2019년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안양에 거주하셨던 독립운동가이자 아나키스트인 이회영의 아내 이은숙 님이 쓴 육필본 『서간도 시종기』(1966)를 바탕으로 창작극 '서간도 시종기'를 연극무대에 올렸다.

2021년 안양문화예술의 대표적 인물인 김대규 시인을 소재로 한 연극 '문향 김대규' 그리고 2022년 대마도 정벌, 강인한 소신의 영의정 '월정 류정현'을 창작극으로 공연하였다.

- 안양 우리 동네 이야기

안양예총은 2017년부터 '우리 동네 이야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안양사진작가협회 회원의 과거 동편마을 사진을 바탕으로 하여 안양의 이야기를 예술적 감성으로 풀어나

냉천마을 이야기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과 기억(2022)

갔고 안양예술공원(2018), 안양천(2019), 냉천마을(2020), 박물관마을(2021), 안양중앙시장(2022) 이야기, 안양1번가 이야기(2023)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 '우리 동네 이야기 4 :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록'과 '기억_안양 냉천마을 이야기'는 안양의 공사 현장 가림벽 프로젝트로 이어져 의미가 남다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가림벽은 그동안 시의 상징이나 이미지들을 활용해 형식적으로 꾸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22년 8월 안양예총은 안양5동 냉천지구 재개발 사업의 가림벽 공사에 안양 예술인들의 작품으로 꾸미는 사업을 완료하였다. 안양냉천지구 재개발 공사 현장 가림벽의 변모는 삭막한 공사 현장이 시민들에게 감성적 문화공간으로, 사라져가는 마을을 회상하는 또 다른 추억공간으로 제공되어 예술문화도시 안양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연계 문화예술교육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소재로 한 예술교육 프로그램도 큰 의미를 갖는다. 안양예총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미술, 문인, 사진, 무용, 연극, 국악 등) 전문 예술인들이 운영하는 아트 캠프를 통해 융합적 사고의 증대를 바탕으로 하는 특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2020년 '경기꿈의학교' 사업을 통해 지역을 내 손으로 직접 디자인하는 공공예술프로젝트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공공예술의 의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의 가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공공예술로 접근하게 하여 창의적 발상으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5) 안양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제안

지자체 시대의 문화예술정책에서 문화예술 기반 시설, 창작 공간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를 살리기 위한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지역 예술단체, 예술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 안양문화예술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1) 기반 시설의 확충과 전략적 운영방안 모색

인구 6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에 더해 국제적인 공공미술 개최지로 알려진 안양시에 변변한 미술관 하나 없다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미술관은 안양지역 미술계의 오랜 숙원 사항인 만큼 안양시는 '안양미술관'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안양 문학계의 오랜 숙원으로 2019년 안양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제안하여 진행 중이었던 '김대규문학관'이 '안양문학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진행 중이다. 타 시의 문학관과 차별화된 안양의 문학 콘텐츠를 담아 안양지역의 핵심적 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는 문화예술의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안양예술공원 활성화를 위한 '예술의 거리' 조성, 예술문화가 있는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및 안양지역 전문 예술인들의 축제인 '안양예술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양예술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안양시의 유휴·노후 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전시 및 문화교육·체험 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안양지역 문화예술 기반시설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들의 활동 기반이 되는 사업 공간도 적극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안양시의 문학, 미술, 음악, 사진, 연예, 연극, 무용, 국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전문 예술인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안양예총의 독자적인 사업 공간 조성을 제안한다. 안양예총의 독자적인 사업 공간 조성은 안양예총의 활동 기반을 강화할 것이고 이는 곧 안양지역 문화예술의 핵심 거점 공간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중장기적 문화예술정책의 필요

2018년부터 시작된 국가 프로젝트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도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해 새롭게 디자인하고 도시의 경쟁력과 차별화를 끌어내는 것이 문화도시의 핵심이다.

2021년 제정된 안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문화 창

조력 강화를 통해 일상에서 문화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로 정의하였다.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진행된 일련의 과정 속에 안양시의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우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안양문화예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안양시 문화예술의 중장기적 정책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느껴진다.

(3) 안양예술 플랫폼 및 DB 구축 필요

안양 내의 공연, 전시 리스트 및 일정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예술가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시민은 문화예술 관련 정보탐색이 편리하다. 현재 안양문화예술재단 및 안양예총, 안양문화원 등 단체 홈페이지를 통한 플랫폼을 제외하면 안양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개인의 문화 활동 현황을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안양지역 문화예술 아카이빙 사업을 적극 제안한다. 하루가 다르게 지역 문화예술의 흔적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문화예술 DB 구축은 시급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가 주관하여 구축된 '경기도메모리관'이 있으나 안양시만의 독자적인 지역 유·무형 단체 및 개인의 문화예술 관련 아카이빙 사업을 통해 안양지역 문화예술의 사료를 체계적으로 발굴, 관리, 보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안양시에서 지원한 예술가들에 대해 지원기간, 지원금액, 활동 내용 등 관련 자료 DB화는 지역 주민이나 안양지역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기획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역 예술인 경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유·무형 문화 관련 연구는 물론 지역 인물들에 대한 아카이빙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적·문화자원에 대한 전문적 기록도 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지역 예술인,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안양의 원활한 문화예술, 교육 정책실현에 접목해야 할 것이다.

안양 예술인 DB 구축 관련 2021 안양 예술인 실태조사 중 참여한 안양 예술인들은 안양 예술인 DB가 단순한 예술인 명단이 아닌 아카이브 형식의 DB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일단 구축된 DB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만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온라인 이외에도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4) 안양의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의 발굴 육성

현대는 '글로컬'시대다. 글로컬(Glocal)은 세계를 뜻하는 글로벌(Global)과 지역을 말하는 로컬(Local)의 합성어다. 21세기를 특징짓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바로 세계화와 지역화다. 이 두 가지는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크게 좌우될 것이다.

2023년 3월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전략에 대해 정부는 "K-컬처가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는 상황에서 지역마다 특색 있고 고유한 문화 매력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지역별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매력 100선을 선정하여 국내외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체성은 어떤 지역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그 지역의 자기다움이다. 이러한 지역 정체성은 지역의 역사·문화·사회·경제적 특성 등으로 형성되며,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안양 예술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안양다움'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육성해야 한다.

(5) 정기적 포럼, 세미나 개최

안양예술포럼 출범식 및 포럼 개최(2025)

안양시 예술정책 수립에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시 문화예술 정책들을 입안하기 전에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안양시와 안양 전문 예술인 간 정기적인 소통 창구인 '(가칭)안양문화예술정책회의'를 설치·운영하거나, 안양 문화예술 정책 관련 정기적인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안양시 중장기적 문화예술정책,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의 발굴 육성 등에 대한 안양예술의 현황 파악과 수요 조사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여 안양시가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정책 수립의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안양문화원

1) 안양문화원의 역사

안양문화원은 안양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1970년 1월 10일 창립되었다. 당시만 해도 불모와 다름없던 지역문화가 문화원을 중심으로 번성하게 된 계기가 된다. 안양문화원 관련 내용은 현재 위치(만안구 현충로 53)에 안양문화원사가 정착, 신축하기까지 이전했던 시기별로 안양문화원의 역사를 서술하며, 안양문화원에서 2020년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안양문화원 50년사』를 토대로 그 이후 내용을 추가하였다.

(1) 안양시민회관(안양2동 읍민관) 시기(1970~1987)

안양문화원은 1970년 1월 10일, 창립총회를 마치고 약 13㎡ 정도 되는 읍민관 분장실에 간판을 내걸며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곳 읍민관은 현 안양2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위치하였다. 안양읍민관은 1973년 시승격 이후에 안양시민회관으로 불렸으며, 안양시립도서관과 함께 있었다. 당시 이상윤 초대 원장의 취임 후 약 6개월을 임직하던 중 안양읍장으로 발탁되어 원장직을 사퇴하게 된다. 이어 박태현 초대 사무국장도 정당 사무장으로 취업하면서 안양문화원은 1년도 되지 않아 문을 닫았다. 문화원이 다시 문을 연 것은 1971년 11월 20일로 임시총회에서 박경재 원장이 취임하였다. 그리고 1972년

육영수 여사 안양읍민관 내 어린이도서실 개관식 참석(1970, 국가기록원 제공)

문화원 사무국 입구

5월 23일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가를 얻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 1973년 9월, 박경재 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구 시민회관에서 '안양문화원 재건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렸고 이사회 만장일치로 선임된 김정대 씨가 제1대 원장의 잔여 임기를 포함하여 제5대 원장까지 역임하며 문화원의 큰 발전을 이루어낸다.

안양시 승격 축하 예술의 밤 초대권

김정대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안양의 향토문화를 알리고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세 가지 숙원사업으로 '향토종합문화지 발간', '향토종합문화제 시행', '문화원사 건립'을 내걸었다. 김정대 원장 연임 시기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안양시의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지역사회에 문화적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관악백일장, 관악문학의 밤, 관악사생대회, 관악미술전람회, 관악음악제 등 예술 분야와 관련된 폭넓은 사업을 펼쳐 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둘째, 옛 문화의 전통을 계

승·발전·승화시키기 위한 전통문화 사업인 단오제를 시작으로 향음주례 재현 행사, 전통혼례 등을 진행하였다. 셋째, 안양시 시민대상의 시초인 '안양시 애향시민상', 향토종합문화지 『안양문화』 발간, 안양시 종합문화제로 시작한 '안양만안문화제'의 시행으로 애향심을 북돋았으며 현재까지도 계승·발전되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

취임 다음 날 이사회를 열어 첫 행사로 '관악백일장'개최를 결정하였다. 관악백일장은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더욱 드높이며 지역 문학도들의 문학적인 기량을 마음껏 갈고 다듬는 행사로 기획되었다. 그리하여 1972년 10월 9일 '제1회 관악백일장'대회가 안양문화원 주최, 안양문인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안양 및 시흥군 내 학생 및 일반인들의 참가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개최 장소는 애국 애족의 뜻을 전하고자 현충탑에서 진행되었다. 대회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상식을 분리하여 1974년부터 '관악문학의 밤' 행사를 따로 마련하였고, 이후에는 관악백일장 입상 작품집을 만들어 배부하고 입상자들의 작품을 낭독하여 지역의 기성 문인들과 함께 합평회合評會를 여는 보다 내실 있는 행사로 발전하였다. 관악백일장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행사로 안양권 내에서 적지 않은 문인들을 배출하였으며, 관악백일장 입상자들이 안양지역 문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 '낙엽문학동인회'가 주축이 되어 동인지를 발간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오랫동안 문화원의 대표적 사업으로 주최하였으나, 1989년 제18회 관악백일장대회부터 안양문인협회의 주최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5년 5월 4일 시작된 '제1회 관악사생대회'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심적·정서적 성장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매년 봄 현충탑 주변 숲속에서 진행되었다.

관악사생대회는 규모가 점차 확장되어 입상작과 지역사회의 기성 화가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는 관악미술전람회로 발전하였다. 1983년부터 공모전으로 변경되었고 관내 학교들이 참가하며 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에서 심사를 맡았다. 1991년 제17회 관악사생대회부터는 안양미술협회로 이관되었고, 1999년 제25회부터는 관악학생미술실기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계속되고 있다. 이 밖에도 1972년 써클단합체육대회, 1973년 시승격 기념 연극제, 1974년 현충가족위안음악공연, 1975년 시민위안종합예술제, 1977년 시민위안의 밤, 1981년 관악음악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였다.

1976년 3월 20일 제3대 원장으로 김정대 씨가 다시 선임되었고 부원장 제도가 도입되어 김행웅 씨가 부원장을 맡게 되었다.

세시풍속 행사인 제1회 단오제가 1979년 5월 30일(음력 5월 5일) 개최되었다. 단오제

제3회 단오절맞이 그네뛰기행사(1982, 안양유원지)

에 이어 선현들의 고귀한 예법과 조상의 얼을 되새기기 위해 육례六禮를 재현하는 기획을 했는데, 그중 먼저 시행한 것은 향음주례鄕飮酒禮였다. 1982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과천 시흥향교(현 과천향교) 명륜당에서 안양문화원 측이 주인, 시흥유도회 측이 손님으로 출연하였다. 이 행사는 과천향교에서 선조들의 전통예절을 80년 만에 재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녔다. 또한 같은 해에는 김정대 원장의 3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향토종합문화지인 『안양문화』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1984년에는 향토를 사랑하고 향토 발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인정과 의리의 아름다움을 되찾기 위하여 애향시민상을 제정하였다. 첫 행사로 1984년 12월 28일 오후 3시 안양시청 대회의실에서 문화공보부, 문예진흥원, 경기도, 안양시의 후원 아래 '제1회 안양시 애향시민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애향시민, 봉사인, 효자, 효부를 찾아 격려하고 정의 사회의 귀감으로 삼음으로써 시상식에 참가한 여러 시민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였다. 제2회까지는 문화원에서 진행하다가 1986년부터 시에서 인수하여 현재는 '안양시 시민대상'으로 발전해 매년 시민의 날 효행,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체육, 환경보전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다.

안양문화 창간호(1982, 표지화 오용길 화백)

제1회 만안문화제 포스터

1985년 11월 16일, 안양시민회관 마당에서 결혼할 신랑, 신부를 선정하여 육례 중 하나인 전통혼례를 재현함으로써 고유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시대에 맞게 변모해야 할 우리만의 고유 혼례식을 정립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1986년에는 김정대 원장의 또 하나의 숙원사업인 향토종합문화제 '제1회 만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10월 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된 이 행사는 그동안 문화원에서 주최했던 전통혼례, 관악백일장, 내 고장 문화 논단 등을 만안문화제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학교와 연계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종합문화제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1987년 6월 16일, '안양문화 5호 출판기념회 및 신구원장 이취임식'이 안양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5년간 문화원을 이끌어온 김정대 원장은 사임 의사를 밝히며 후배에게 그 업적을 물려주고, 어려운 시기에 뜻을 같이하고 아낌없이 협조해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1980년대 안양시립도서관과 이병택 원장의 현판식

(2) 안양시립도서관 시기(1987~1990)

1987년 6월 16일 제6대 원장으로 이병택 씨가 취임하였다. 이병택 원장은 시에 요청하여 안양시립도서관에 문화원 사무실을 이전하고 안양시민회관에 회의실을 설치하였다.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활동으로 '안양만안답교놀이'의 복원을 들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단절되었던 답교놀이를 원로들의 고증을 통해 전문가에 의해 복원되었다. 『안양문화』 제6호에서 특집으로 이 내용이 실려 현재까지도 안양만안답교놀이의 역사성과 고형古形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쓰이며, 연행에 있어 큰 뿌리가 되고 있다. 복원된 안양만안답교놀이는 당시 1989년 9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시행된 제6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 60여 년 만에 재현함으로써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안양만안답교놀이는 안양의 전통 민속놀이로서 정월 대보름날에 연행하고 있다.

1988년 3월 정기총회에서 이병택 원장의 사표가 수리되고 방극인 부원장이 원장 대행 체제로 문화원을 이끌었으며, 6월 30일 임시총회를 거쳐 원장에 김행웅 씨가 선임되었다.

제6회 경기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한 안양만안답교놀이(1989)

세시풍속놀이 행사

안양문예회관 앞 전통혼례(1990)

(3) 안양문예회관 시기(1990~1991)

1990년 시립도서관 신축 공사를 위해 건물이 철거되면서 새로 지어진 문예회관(현 안양아트센터) 2층으로 문화원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전통 민속놀이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문예회관 뜰에서 '제1회 세시풍속놀이'를 개최하였으며 19개 동에서 참가해 제기차기, 윷놀이, 널뛰기 등의 대항전을 벌여 전통 세시풍속놀이의 맥을 이어가고 활성화하는 데 효시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청소년과 일반인들에게 역사적 긍지와 식견을 넓혀주고자 유적지 순례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현재 '역사탐방'으로 이어져 문화가족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4) 안양문화센터 시기(1991~1995)

안양문화원 입주식 및 출판기념회(1991)

1991년 7월 안양문화센터로 새로 입주한 문화원은 260여 ㎡(80여 평) 공간에 향토민속관, 원장실, 사무국, 문화사랑방 등을 마련하며 문화공간의 면모를 갖추었다. 7월 30일 개관한 향토민속관에는 국가무형유산 제77호 유기장 기능 보유자 이봉주 씨의 방짜유기와 김재의 옹의 짚공예품 등을 전시했으며, 문화사랑방은 온돌방·마루·영창문 등 전통 한식으로 꾸며진 전통예절, 다도예절, 한문글방 등을 운영하며 문화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김행웅 원장은 "안양은 인구와 학교가 많지만 여타 박물관이나 민속

관이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러한 취지에서 조금이나마 향토의 살아 있는 민속관으로서 문화학술연구와 교리연구에 활용하고자 개관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1994년 1월 김행웅 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안용승 부원장이 직무를 대행하였고 3월 30일 총회에서 이상윤 원장이 취임한다.

(5) 구 동안구청 시기(1995~1998)

이상윤 원장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1995년 문화원은 구 동안구청으로 이전하였다. 문화원은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새마을 단체, 택시기사자원봉사회, 독립유가족회, 파월장병회, 고엽제피해인협회, 안양시여성민속회 등 10여 개 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해 각 사무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이 시기에 2층의 남은 사무실을 활용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풍물, 서예, 전통예절, 꽃꽂이, 컴퓨터 교실, 사진반 등을 개설하여 첫 상설 문화강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안양에 있는 각 지방의 도민회와 향우회가 참여하는 '재안양 도민회 민속놀이'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화합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6) 안양시 농촌지도소 시기(1998~2008)

안양문화원이 현재의 위치에 자리 잡은 것은 1998년 농촌지도소 건물을 인수하면서부터다. 해당 건물 2층을 문화강좌 교실로 조성하여 문화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또한 향토문화 연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원 부설 조직으로 향토사연구소를 설치하라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공문에 따라 2000년 2월 20일 향토문화연구소가 설립되었다. 이후 김정대 씨가 향토문화연구소 초대 소장으로 취임하여 지역사 관련 연구, 편찬 업무를 수행하며 여러 학술 서적을 발간하였다.

2001년에는 1986년부터 안양의 대표적인 종합예술제였던 '만안문화제'가 1989년 평촌신도시의 개발로 만안구, 동안구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지고 2001년 10월 새로운 안양시민축제의 형식이 바뀌면서 10월 개최 시기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양지회(이하 '안양예총') 주최의 '안양예술제'와 통합되어 '안양문화예술제'라는 이름으로 5월에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현재 문화원 산하단체인 '안양문화유산해설사회'의 전신인 '안양시 문화재 길라잡이'가 2002년 4월 결성되었다.

구 농촌지도소 건물에 입주한 안양문화원과 전통혼례식장으로 사용하던 뒤뜰의 전통가옥

2003년 3월 20일 장석재 원장이 취임하며 현재의 시스템으로 변화를 이룬다. 당시 문화원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후원금을 유치하는 한편 임원 분담금 및 부원장 5인 체제, 문화가족 제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4년에는 전국문화원연합회(현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실시된 지방문화원 관리운영평가에서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비해 적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 등 외부 인력 및 지역문화 인력과 자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범문화원, 문화대학, 교양강좌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 외에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 등 노력하는 문화원'으로 평가되어 A등급을 받았다.

2007년 장석재 원장의 재임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3월 20일 안양문화원 강당에서 제11대 원장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장석재 원장은 '실버문화의 거점으로서의 문화원 기능 강화'와 '1인 1악기 다루기 운동 전개' 등 10가지 문화원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특히 앞으로 4년간의 재임 기간 동안 '새 시대는 문화가 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한다'를 안양문화원 캐치프레이즈로 정하고 안양지역의 전통문화 보전과 계승에 힘쓰고자 하였다.

(7) 안양소방서 임시 원사 시기(2007~2009)

김정대 전 원장 때부터 3대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신축 원사의 꿈이 드디어 2005년 장석재 원장 때 실현되었다. 원사로 쓰이던 구 안양시 농촌지도소 건물은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해당 건물 부지 내에 신축하는 사업이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되었다. 2007년 12월 공사가 시작되자 안양소방서의 깊은 배려로 문화원은 안양소방서 3층 강당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임시 원사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화강좌를 비롯한 문화원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고 안양소방서 건물뿐만 아니라 문예회관과 구 서이면사무소도 적극 활용하였다.

(8) 신축 원사 시기(2009~현재)

2009년 8월, 4층 규모의 새 원사 건물이 완공되었다. 이 건물은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에서 독창성, 공간 구성의 효율성, 도시경관 기여도와 색채 조화,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공성 확보 등의 심사 기준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 은상을 수상하였다.

같은 해 10월 17일 원사 개관 및 제37회 문화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필운 안양시

장, 김국진 시의회 의장, 지역 원로, 시·도의원, 문화원 임원 그리고 시민들이 참석하여 이 뜻깊은 순간을 함께 축하하였다. 행사와 연계하여 제15회 안양문화원 문화가족 작품전과 특별 사진 전시회로 '안양 옛 사진전', 원사 개관 기념 '원로 작가 안양8경전', '안양의 무형문화유산' 작품 전시회가 문화원 1층 전시실과 로비에서 개최되었다.

2013년 12월 28일 신기선 원장이 12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안양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수업으로 '안양문화원 금요 상설 국악 공연', '안양문화원 서당', '안양만안답교놀이 및 안양소리 전수교육', '역사탐방 코스 개발' 등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 화합과 지역문화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7년 12월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인문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안양문화원은 이를 선도하기 위해 2018년 '나만의 인생디자인', '고전 읽기와 이야기 치료' 등의 강좌를 개설할 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대 '수요 인문학 특강'을 신설하여 인문학 사업을 특화했다.

이후 2017년 12월 27일 13대 정변규 원장이 취임하였으며, 2019년 6월 27일에는 14대 원장으로 전풍식 원장이 취임하였다. 당선된 전풍식 원장은 취임식을 통해 "시민에게 존경받는 문화원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원을 만들겠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지고 새로운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해 발로 뛰며 이전의 문화원에서 탈바꿈하여 새롭게 변화하고 도약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0년 1월 8일,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원내 4층 강당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및 2020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화가족들은 함께 모여 정월 세시 전통놀이인 윷놀이를 즐기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화원 사업 강화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2월부터 긴급 휴관에 들어가 행사와 교육이 취소되었으나, 10월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문화강좌 개강과 '제7회 수리산 무巫예술제(현 수리산 산신제)' 등 문화행사를 재개하여 문화활동에 목마른 시민들에게 물꼬를 터줬다. 또한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참여로 인력을 채용하고 '사람이 좋다; 명인들의 이야기와 삶 공유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전통문화기자단을 모집하고 안양의 무형문화유산과

『안양문화원 50년사』 발간

안양문화원 신축 원사 및 개원식(2009)

관련된 명인을 취재하여 기사집으로 엮음으로써 안양의 무형유산을 재조명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향토문화연구소의 연구원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정비하여, 향토문화연구소 주관하에 그동안 주춤했던 향토문화 연구와 마을지 서적 발간을 추진하였다. 특히 교하, 냉천마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마을이 사라지기 전 기록하기 위해 『안양5동』 마을지를 발간하였다. 무엇보다도 안양문화원 창립 50주년 기념 『안양문화원 50년사』를 발간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문화원을 바라보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책자를 만들기 위한 자료 수집, 축하 작품 및 인터뷰지 모집 등을 통해 소통하고 발전하는 발판으로 삼아 새로운 부흥을 향해 나아갔다.

2021년 12월 27일, 김용곤 원장이 제15대 원장으로 취임하며 '문화로 가슴 뛰는 안양'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다. 먼저 양명고등학교, 연성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등 관내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류함으로써 문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경기도와 안양시의 지원을 받아 유휴공간 문화 재생 사업을 통해 사무실 공간을 확장하고, 회의실 및 전시실을 개선하였다. 또한 전풍식 전임 원장 시절부터 추진해온 안양시사편찬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4년 4개월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2008년 『안양시사』 발간 이후의 내용을 보완하고 연속성을 확보하여, 분야별 주제의 조사와 자료수집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안양시의 역사와 현재의 정체성을 담아낼 예정이다.

2023년 안양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하여 안양시사편찬실은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안양愛 도시의 기억과 풍경' 전시를 2023년 7월 1일부터 14일간 안양아트센터 갤러리미담에서 개최하였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안양시 승격 해인 1973년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출발, 아픔, 극복과 성장의 여정을 사진 66점, 지도 4점, 서지류 40여 점으로 재현하였고 마지막 섹션에서는 거울에 비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지금을 돌아보게 하였다. 그리고 안양시 시목인 은행나무 모형에 내가 사는 동네의 옛 지명을 은행잎 포스트잇에 써서 붙일 수 있게 하고, 안양시민으로서 안양에 바라는 희망사항을 작성하는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로 구성하였다. 특히 한국전쟁 중 벌어진 수리산 전투(1951), 이승만 대통령의 안양촬영소 정초식 참석(1956), 박정희 대통령의 안양 수해지역 방문(1977), 안양시 공무원 구두쇠 운동(1988) 등 역사적 순간들의 생생한 장면을 상영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문화원은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안양문화원의 소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디지털화하여 아카이브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안양愛 도시의 기억과 풍경' 전시

통해 문화원의 역사와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공공정보로 공개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둘째,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안양지역의 무형유산을 재조명하고 새롭게 발굴하여 안양만안답교놀이, 수리산산신제, 안양검무를 향토유산으로 계승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2021년 4월 16일 '안양향토무형유산 발굴 및 계승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25일에는 병목안시민공원에서 시연행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2022년에는 안양문화원과 각 보존회(안양만안답교놀이보존회, 수리산산신제보존회, 안양검무보존회) 간 산하단체 지정 협약을 체결하였고, 각 종목에 대한 학술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학문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수리산산신제』 학술조사연구보고서를 제작하였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해 안양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을 위한 학술조사 및 자문회의를 통해 보완한 결과, 안양만안답교놀이(지정일 2022년 8월 9일)와 수리산산신제(지정일 2023년 6월 23일)는 안양시 향토유산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앞으로 안양의 대표적 무형유산으로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축제로 나아가고 지역의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아 법고창신 할 수 있도록 안양문화원과 각 보존회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많은 문화예술 관련 행사와 단체들이 즐비한 현시점에서 이제는 문화원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중심지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다. 이를 기반으로 질 높은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시민 화합과 지역문화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21세기에 걸맞은 문화원의 새로운 역할도 고민해볼 때다. 또한 안양문화원만의 대표적인 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여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콘텐츠의 개발로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량을 발휘하고자 중장기적 계획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할 것이다.

2) 안양문화원의 주요 활동

안양문화원은 지역문화 전승, 연구 및 발간, 교육, 세시풍속 및 전통문화 행사 등을 주최·주관, 지원하며 지역문화 진흥에 힘쓰고 있다.

첫째, 지역문화 전승을 위하여 안양만안답교놀이, 수리산산신제, 안양검무에 대한 전수교육 사업을 진행 및 관련 공연도 지원하고 있으며, 음력 7월 1일, 10월 1일경 8곳에서 진행되는 마을제의 사업비와 제례복을 지원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 둘째, 연구 및 발간 사업으로 '향토문화연구소 운영'과 『안양문화』 발간이 있다. 『안양문화』는 1982년 12월, 지역의 문화를 시간·공간적으로 후세에 전승하고 파급시킨다는 가치를 지니며 당시 지역문화의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발간되기 시작하였다. 책자는 발간의 중단, 계간 소식지 형태 정기발행물 발간, 복간 등 우여곡절을 거쳤으나, 최근 시 보조금 삭감 등으로 2022년 이후 발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양문화원의 역사와 함께해온 『안양문화』의 발간이 재개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셋째, 교육 측면에서 우리나라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고취시키는 '역사탐방', 지역문화해설가로서 전문성과 역

안양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량을 강화하고자 지역문화 보존과 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안양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및 탐구사업', 문화의 생활화를 실천하게 하는 '문화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원의 3대 고유 전통행사 중 2013년 안양문화원 주관으로 시작된 '안양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는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체험과 안양만안답교놀이 공연 및 달집태우기 등이 펼쳐진다. 1979년 안양문화원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려는 최초의 사업으로 행해진 '안양단오제', 1986년 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 향토종합문화축제로서 정조의 효심을 상징하며 만인의 평안을 기원하는 만안교에서 명칭을 정해 개최되기 시작한 '안양만안문화제'가 있다. 이를 비롯한 연간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행 사 명	날 짜
안양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음력 1월 15일경
안양만안답교놀이 공연	음력 1월 15일경
수리산산신제	4월 마지막 주 일요일
안양검무 공연	4월 중
경기도 민속예술제	연중
안양단오제	음력 5월 5일경
안양만안문화제	10월 중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9 ~ 10월 중

3) 부설단체 및 산하단체

(1) 부설단체-향토문화연구소

향토사의 조사, 연구를 위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원 아래 2000년 2월 20일 설립하였으며, 연구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안양문화원 및 안양 향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 안양의 전통문화, 역사, 유·무형 문화재, 문화유적 조사·연구·발굴·보존·홍보
- 지역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 문화원이 위탁하는 연구 및 사업
• 기타 안양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역대 향토문화연구소장
김정대 소장(1대 : 2000.02.20. ~ 2004.08.19.)
장석재 소장(2대 : 2004.08.20. ~ 2005.01.25.)
채수안 소장(3대 : 2005.01.26. ~ 2007.05.09.)
최현용 소장(4대 : 2007.05.10. ~ 2009.03.09.)
신기선 소장(5대 : 2009.03.10. ~ 2011.06.16.)
우동호 소장(6대 : 2011.06.17. ~ 2015.05.27.)
고정웅 소장(7대 : 2015.05.28.~ 2017.05.22.)
오면교 소장(8대 : 2018.01.18. ~ 2019.08.22.)
양형모 소장(9대 : 2020.04.14. ~ 2022.04.13.)
김호석 소장(10대 : 2023.10.16.~ 현재)

주요 활동은 『안양시 교육 총람』·『안양시 체육사』·『안양시 종교 총람』·『집성촌 자료 조사집』·『안양의 옛 사진』 등 향토문화연구서를 발간하였고, 문화원 역사서 『안양문화원 30년사』·『안양문화원 40년사』·『안양문화원 50년사』와 『안양5동』 마을지, 안양시 향토유산 관련 『안양만안답교놀이개론』, 『수리산산신제개론』, 『안양만안답교놀이 음악본』 발간 및 『안양시 마을제례』, 『안양애愛 향토무형유산』 등을 제작하였다.

(2) 산하단체

① 원로회

전통문화 보존을 통하여 안양문화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산하단체로 설립되었다. 원로회 회원은 원로회의 목적에 적극 동참하며 안양문화원 임원 및 자문위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8년 이상 활동하고 문화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65세 이상 남녀 중 원로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람이다.

홀수 달 둘째 주 월요일에 월례회의, 11월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활동하고 있다.

원로회는 초대 김정대 회장(1대 : 2011년), 백낙금 회장(2대 : 2012 ~ 2013년), 안형재 회

장(3대 : 2014 ~ 2015년), 우동호 회장(4~6대 : 2016 ~ 2021년), 최현용 회장(7대 : 2022 ~ 2023년)에 이어 전풍식 회장(8대 : 2024년 ~ 현재)이 맡고 있으며 총 19명 회원이 있다.

② 문화서포터즈

2013년 결성된 문화서포터즈는 다양한 분야와 풍부한 경험을 지닌 문화가족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안양문화원의 설립 목적인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 육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양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단오제, 만안문화제 등 문화원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부터 관내 제례까지 문화사업에 필요한 재능을 기부하여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원 발전에 기여하는 자원봉사 단체이다. 현재 문화서포터즈는 박옥희 회장을 중심으로 총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③ 안양문화유산해설사회

안양의 문화유산을 안내하고 해설하는 재능기부 봉사자 모임으로 2002년 4월 이론과 현장답사 연수교육을 마치고 위촉받은 해설사들로 활동이 시작되었다.

안양9경 해설집 제작 및 해설뿐만 아니라 안양시 관내 문화유산을 주제별로 7개 코스로 개발하여 시민들 대상으로 해설하고 안양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문화유산, 관내 제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안양문화원이 주최·주관하는 3대 대표 전통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안양만안문화제의 일환인 전통혼례에서 집례, 집사, 수모 등의 역할을 맡아 시민들에게 안양을 알리는 전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매월 네 번째 수요일에 월례회를 개최하고, 자체적으로 슬로 답사 등 해설사들의 소통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재 박석환 회장을 비롯해 총 25명의 안양문화유산해설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④ 안양만안답교놀이보존회

안양만안답교놀이는 정조의 효심이 깃든 만안교 위에서 정월대보름에 다리를 밟으며 한 해의 복록을 비는 세시풍속의 민속놀이로 '길놀이-다리밟기놀이-무동춤놀이-선소리꾼놀이-대동놀이'로 구성되어 있다.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인 만안교 위에서 연행되며 유·무형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안양시 향토유산으로 2022년 8월 9일 지정되었다. 1987년 원로들의 고증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에 의해 복원되었으며 안양만안답교놀이보존회가 보존·계승하고 있다. 현재 민향숙 대표를 포함해 총 5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안양만안답교놀이

⑤ 수리산산신제보존회

수리산산신제는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단절된 전통 종교의 맥을 이어가며 국태민안과 안양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로, 매년 4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진행된다. 2023년 6월 23일, 수리산산신제가 안양시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수리산산신제보존회에 의해 보존·계승되고 있다. 2012년 '수리산 도당굿'을 시작으로 '수리산 무巫예술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21년부터 '수리산산신제'로 계승되었다. 수리산산신제의

수리산산신제

구성은 기본 굿거리인 선부정거리-산신거리-불사거리-가망거리-대안주거리-창부거리-계면거리-뒷전거리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수리산산신제보존회는 한상윤 대표를 포함해 총 1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⑥ 안양검무보존회

안양검무는 2001년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된 고 이봉애(1923~2019) 선생이 한국전쟁 직후 안양에 정착하며 안양지역의 농악과 결합된 형태로 발전한 검무이다.

따라서 안양검무는 평양검무를 근본으로 지역문화와 결합된 형태의 검무이며 안양농악의 쩍쩍이 가락과 어깨춤 등이 가미되어 활기차고 흥겨운 느낌을 준다. 안양검무보존회에 의해 보존·계승되며 매년 4월 정기공연을 통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주정연 대표를 중심으로 총 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안양검무

3. 안양예총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안양지회(이하 안양예총)는 1990년 8월 10일 문인, 미술, 음악, 사진, 연극 5개 협회의 구성으로 창립되었다. 이후 1992년 연예, 무용, 국악협회의 입회로 2024년 현재 총 8개 단체의 전문예술인 650여 명이 활동하는 예술문화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다.

안양예총은 초대 고 김대규 회장(1~3대 : 1990년 8월~2001년 1월), 고 홍사영 회장(4~5대 : 2001년 1월~2009년 1월), 천진철 회장(6대 : 2009년 1월~2013년 1월), 이선구 회장(7대 : 2013년 2월~2017년 2월)을 거쳐 이재옥 회장(8~10대 : 2017년 2월~2025년 현재)으로 그 역사를 잇고 있다.

'예술 안양을 품다' 안양예술제(2022)

1) 안양예총의 태동과 형성 (1950~1980)

1990년 창립된 안양예총의 태동은 1947년 8월, 박두진·정귀영 등이 주도한 안양문학동인회에서 동인지 『청포도』를 창간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1963년 성기조 시인이 젊은 문인들을 중심으로 안양예총을 결성하여 한국예총으로부터 정식 인준을 받아냈다. 성기조 시인이 초대 지부장으로 취임했지만 이렇다 할 사업이나 행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얼마 되지 않아 안양을 떠나면서 안양예총은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었다. 이후 지역의 예술인들이 1967년 총회를 열고 김대규 시인을 지부장으로 선임하여 재출발의 계기로 삼았다. 그러나 당시 안양예총 산하에 결성된 협회가 없어 각 예술 장르의 협회가 결성된 후 안양예총을 다시 창

립하기로 협의를 하였다.[12]

안양예총 창립 이전에 협회별 활동이 안양에서 전개되어왔다.

문인협회가 주관하는 '관악백일장'은 안양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예술행사로 1971년 10월 9일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뜻을 기리기 위해 시작되었다. 1982년 문화원 주최로 열린 김동리·문덕수 선생 초청 강연회를 주관하는 등 문인협회의 수준 높은 활동이 전개되었다.

1950년대 안양공고에서 교편을 잡았던 이재호·조병유 선생으로부터 시작된 미술인들의 활동은 이어 1960년대 초 고교생이었던 염신용에서 중학생이었던 오용길·홍사영 등으로 이어졌다. 안양미협 결성 전인 1974년 5월 6일 안양문화원 주최로 시작된 '관악학생 미술실기대회' 또한 안양미협 회원들의 주관으로 치러졌으며 예총 설립 후 안양미협으로 이관되었다.

안양음악은 학교, 교회, 기업체를 중심으로 태동하였다. 1975년 8월 ㈜금성통신 합창단을 시작으로 1976년부터 안양상공회의소에서 기업체 대항 건전가요 경연대회가 열렸으며, 1977년에 안양청년회의소에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양음악제'가 개최되었다. 1978년 전평화가 창단한 '쌍투스합창단'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음악협회 초대 지부장이었던 마광재가 지역의 음악 교사들과 결성한 '음악교사협의회'는 실질적인 음악협회 안양지부의 기반이 되었다. 1981년 문화원에서 주최한 '제1회 관악음악제'는 경연과 공연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 작곡가 김동진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하여 안양 음악인의 등용문으로 권위를 과시하면서 대규모 음악행사로 진행되었다.

1979년 12월 안양사진작가협회의 모태가 된 '안양사진연구회'가 발족되었다. 1989년 10월에 시작된 '제1회 어린이 사진공모전'은 4회부터 '전국사진공모전'으로 운영되었다.

안양 연극활동의 시작을 살펴보면 1970년대 초 '가로등', '로빈', '동그라미' 등의 학생활동을 통해 연극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1974년에는 윤고성, 조동관 등이 안양 최초의 극단 '동행'을 창단하여 안양 연극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해체되었다. 이후 박봉서(극단 민중 대표)가 안양에 내려와 안양사랑에서 공연을 진행하였고, 1980년 이봉운이 '극단80'을 창단하였다. 1984년 5월 안양1동 국도변에 소극장 '자리'를 마련하여 총 28회의 공연을 선보이며 연극협회 안양지부 결성의 모태가 되었다. 1990년에는 임부경이 극단 '버팀목'을 창단하며 안양 연극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안양의 연예활동은 1970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로자회관에서 근로자를 위한 소

규모 노래자랑 등의 공연을 해오다가 1980년 9월 한국연예협회 경기도지부 안양분실의 설립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연예인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안양지회(초대 지회장 천진철) 출범 이후 자연보호운동, 시민위안공연, 사업체, 보훈, 경로위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안양의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 발전에 힘입어 1980년 중반에는 회원수가 400명을 넘었고 1985년부터는 매년 '안양시민가요제'를 개최하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안양지역의 무용은 1970년대 초 황연주 고전무용학원, 유성옥 고전무용학원, 배조무용학원 등이 후학을 양성하면서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황연주는 1986년 가칭 무용협회 안양지부를 창립하고 1987년 '제2회 만안문화제'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황연주가 안양을 떠나면서 지부도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1989년 한국무용을 전공한 조경남이 다시 가칭 한국무용협회 안양지부를 재창립하였으나 공식 인준은 받지는 못하였다.

안양의 국악은 1963년 인천에서 시조계에 입문한 안덕기가 시조창을 알리기 위해 안양시우회를 창립하여 이후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당시 박성순·배수옥·윤태길·안희진 등은 경기민요를, 이봉애는 평양검무를 되살려 안양의 국악을 빛냈으며, 상쇠의 장석봉과 경기제 호적의 김원제 등도 농악 활성화에 힘썼다.[13]

안양예총의 공식 출범은 1990년이었으나, 그 이전부터 다양한 예술 분야의 협회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다. 문인협회는 1971년, 미술협회는 1976년, 음악협회는 1985년, 사진협회는 1987년, 연극협회는 1989년에 각각 창립되었다. 당시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은 시 지원 없이 순수한 예술인들의 열정과 자발적인 의지로 이루어졌다. 관악백일장, 관악사생대회 등 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행사들도 예술인들의 사비로 시작되었다.

2) 안양예총의 창립과 성장(1990~1999)

1990년 6월 18일 안양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가 열렸다. 회원 단체로는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사진작가협회, 연극협회, 연예협회 등이 참여했다. 7월 13일에는 예총 안양지부의 창립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축하연이 열렸고, 같은 해 8월 10일에 한국예총으로부터 공식 인준을 받았다.

1992년 6월 14일에는 김기백 지부장으로 무용협회 안양지부가 인준되었고, 같은 해 8월 24일에는 이용복 지부장으로 국악협회 안양지부가 인준되어 총 8개 회원 단체가 참여하는 현재의 예총 안양지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제1회 안양예술제 개막식(1992)

안양예총이 창립된 다음 해인 1991년 9월 안양예술큰잔치를 개최했다. '문협시화전', '제16회 안양미협전', '제3회 전국어린이사진대전', '음악의 밤', '시민위안공연 및 동 대항 노래자랑', 연극 '토끼와 포수', '제1회 무용인의 밤'으로 창립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협회 지부들의 활동을 한자리에 모아 전례 없는 대규모 종합 예술행사로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이는 안양예술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행사로 그 의미를 크게 남겼다. 이어 다음 해인 1992년 '제1회 안양예술제'의 개막식을 5월 안양문예회관 연회장에서 열고 사진 강좌 등을 통해 시민들과 예술적 소통을 이어나갔다. '제3회 안양예술제'에서 문예회관 야외무대 개막식을 통해 기존 실내 행사를 개방된 공간으로 끌어내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이후 '제8회 안양예술제'는 문예회관 야외무대와 평촌중앙공원에서 펼쳐지면서 안양의 대표적인 예술축제로 성장했다.

국가가 제정한 예술의 해를 맞아 각 협회는 1994년 이후 새로운 예술행사를 개최했다.

1994년 5월 1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제3회 안양예술제에서는 '국악의 해'를 맞아 안양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우리 고유의 국악 한마당으로 개막식을 장식하고 '제1회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1995년 4월에는 '제4회 안양예술제'를 개최해 안양문예회관 야외 광장에서 개막식을 치렀고 이어서 시민가요제를 진행하였다. 연예협회는 시민의 날 전야제에 동 대항 노래자랑을 열어 당시 1만여 명의 시민들이 동 대표들의 노래 실력을 즐겁게 감상했다. 미협 안양지부는 1995년 '미술의 해'를 맞아 전국공모전인 제1회 관악현대미술대전을 새롭게 개최했으며 오늘날까지 행사가 지속되고 있다.

1995년 6월 9일 김덕수 사물놀이패 초청공연이 안양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는데 입추의 여지가 없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1996에는'제5회 안양예술제'개막식을 안양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개최하였다. 문인협회는 정부가 정한 '문학의 해'를 기념하여 조정래의 소설을 영화한 '태백산맥'을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상영하였고, 『안양문학사』를 발간하여 안양문학을 총정리하였다. 그해에 특히 연극협회 최정환 사무국장은 제1회 경기연극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으며, 김기백 무용단은 '서울국제무용제'에 창작 무용 '어둠의 땅 간드레 불빛을 찾아서'로 참가해 탄광촌 삶을 통해 불확실한 사회를 그려낸 작품을 선보였다.

1998년은 IMF 환란으로 인해 시대적으로 암울한 시기였고, 예술계도 침체되었다. 그러나 '제7회 안양예술제'는 6월 19일 안양문예회관 야외 광장에서 500여 명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막을 올렸다. 안양사진작가협회는 '사진 영상의 해'를 맞아 슬라이드 영상쇼 및 사진 강좌, 혼자 사는 노인 영정 무료 촬영을 진행했으며 '제1회 안양사진대전'을 함께 개최하여 오늘날 전국 규모 공모전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국악협회는 안계출 지부장, 안희진 사무국장의 노력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국악 금요상설무대'를 진행해 관람객 이 5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성공적인 공연을 통해 국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안양예총은 12월 28일 새 천년맞이 국악경로 큰 잔치와 12월 27일 새천년 연극제 '굿 닥터' 등 새천년맞이 기념 축제를 안양문예회관 대강당에서 대규모로 진행하며 2000년을 맞이하였다.

3) 안양예총의 발전(2000~2009)

2000년 안양시는 '제1회 안양시민축제'를 개최하며 안양예술제의 주요 공연행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안양시민가요제는 현재까지 안양시민축제와 그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시는 가을에 개최되는 안양시민축제로 인해 지역의 축제 시기를 조정하였다. 2002

년 그동안 예총 단독으로 열었던 '안양예술제'와 안양문화원에서 진행했던 '만안문화제'를 '2002 안양문화예술제'로 통합하기로 했다. 첫 행사 개막식을 5월 9일 평촌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공동 주최하고 이후 격년제로 주관 단체를 바꿔가면서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안양예총은 기획단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행사 준비를 위해 고심하였다. 2004년 5월 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안양문화예술제에서는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를 기념하는 예술행사 지원으로 대대적인 개막공연을 마련하였다. '2006 Good Anyang Art Festival'로 특별 기획된 프로젝트에서는 국악, 무용, 음악, 연예가 한데 어울린 토털 공연 형식의 안양지역 예술인 합동 공연과 경기도 문화의 전당 '리듬 앙상블' 특별초청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

2007년 10월 27일 진행된 '찾아가는 작은 예술무대, Happy Day 어린이 예술캠프'는 안양예술공원의 하늘 다락방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악, 미술, 무용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었다. 안양예총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한 예술교육 행사는 여타 예술교육 방식과는 다른 형태의 예술캠프로 그 의미가 매우 컸다. 이는 2005년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로 조성된 예술공원에서의 새로운 프로그램이었다.

2008년 5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안양문화예술제가 안양천에서 특설 무대를 설치하여 개최되었다. '안양천 A+ 페스티벌'과 함께 열린 안양문화예술제는 생태 복원으로 다시 살아난 안양천에서 진행되어 더욱 의미 있었다.

이 과정에 안양문화예술제의 야외 공연 무대는 커졌으나, 내부적 운영에 전문 예술가들의 의지는 긍정적이지 못했고 분리 개최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2 안양문화예술제는 2009년까지 8년간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 2006년 2월 25일 안양미협에서 『안양미협 30년사』 및 안양지역에서 활동한 전문·아마추어 미술동호회의 역사 및 회원활동을 기록한 『안양미술 근현대소사』 출판기념식을 열었다. 이는 당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발행된 미술협회 역사서였다.

2008년 11월 9일 안양예총 태동기에 큰 기여를 한 홍사영 전 회장이 별세하였다. 그의 장례는 안양예총 최초로 안양예술인장으로 치러졌다.

4) 안양예총의 중흥(2010~2018)

2010년 안양예총은 독자적으로 '제19회 안양예술제'를 개최하였다. 기존 예산의 절

반으로 다시 시작한 안양예술제는 어려움이 컸다. 특히 대형 무대설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제19회 안양예술제는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개막식을 열고 이어서 '제19회 주부가요제', 8개 협회 회원 전시 및 공연, 관악학생미술실기대회 및 제11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지역 예술축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이후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 삼덕공원 등 기존 소규모 무대 공간으로 무대를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안양예술제는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그동안 안양예총의 협회별 행사 규모가 커지면서 전시실의 대관 문제 등으로 예술제 기간의 협회 행사 개최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2012년부터 안양예술제는 각 협회의 연례적 행사를 더 이상 포함하지 않았다. 협회별 행사가 활발해지면서 독자적 행사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안양예술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막식, 어울림 한마당, 어울림갤러리, 안양주부가요제, 마당놀이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그런 중에도 미술, 사진, 문인협회 회원 전시는 실사 출력을 통해 기존 전시장과는 달리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2016년 하반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만안벤처센터가 문화예술센터로 바뀌면서 안양예총 사무실도 이전하였다. 오래된 건물로 불편함이 있고 전체 건물을 사용하는 상

제26회 안양예술제(2017)

2017 안양예술인의 밤

황은 아니었지만, 독립적인 공간 운영에 대한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2017년 안양예술공원에서 열린 안양예술제는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국악 체험, 미술, 사진작가들이 펼치는 시민 참여 예술 이벤트 코너를 신설하고 '2017 안양의 봄', '내가 본 APAP' 등 시민 참여 사진을 실사 출력으로 전시하였다. 각 협회의 공연은 질적 수준의 향상을 보여주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17년 안양예총은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안양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담아내고자 '안양, 우리 동네 이야기1_동편마을 이야기'를 기획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상인과 주민, 안양예총 소속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앞으로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안양예총의 활동을 예고하였다. 또한 안양예총 역사상 최초로 '안양예술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선대 안양예총 회장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8개 협회 회원 간의 우의를 다지며 미래 지향적 안양예총의 모습을 제시했다.

2018년 5월 25일, 김중업박물관 내 세미나실에서 안양예총과 성결대학교가 공동 주관하고 시카미술관이 후원한 '뉴미디어아트와 공공미술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2005년부터 시작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안양시 지역 예술인과 학생들에게 미

디어아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시대에 부응하는 안양예술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같은 해 평촌중앙공원에서 그동안 예산 문제로 추진하지 못했던 무대 신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술체험 부스를 대대적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안양 예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예술체험 이벤트와 협회 공연은 탄탄한 구성력으로 예술축제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 8월에는 안양여자고등학교 행사 중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주제로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아트 캠프'를 주관하면서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2018년 안양예총 초대 회장 김대규 전 회장이 별세하였으며, 그의 장례는 안양예술인장으로 치러졌다.

2019년 안양예술제 개막 공연은 '여행'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 공연으로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구성을 통해 안양예술제의 또 다른 기폭제 역할을 했다. 안양 예술가들의 퍼포먼스와 작가 자신의 작품과 연계된 예술체험 이벤트 행사는 기존과는 차별화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얼어붙은 예술 현장에서 예술제는 언택트가 아닌 온택트 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해야만 하였다. 명확한 매뉴얼 없이 예산 제약과 장비 한계, 그리고 이미 공중파를 통해 대규모 공연 등에 익숙해져 있는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된 예술제는 예상 밖의 큰 호응을 얻으며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이후 안양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과 보급에 힘쓰던 안양예총은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경기꿈의학교 '지역사회 APAP연계_안양을 디자인하다'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우리동네 이야기3_학의천 이야기'를 통해 과거 오염된 하천의 대명사였던 안양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은 과정을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재해석하였다. 생태복원으로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 공간으로 거듭난 안양천에서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였다.

2020년은 '제29회 안양예술제'가 코로나19로 연기를 거듭하면서 10월 29일 30일 양일간 평촌아트홀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시도되는 행사였지만, 협회 간 긴밀한 협조와 스태프들의 노련한 운영 덕분에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염원을 담아 정부와 안양시 방역방침을 준수하며 온라인으로 개최된 이번 예술제는 '예술, 안양을 품다'의 슬로건 아래 '안양'을 주제로 공연, 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8개 예술단체(문인, 미술, 음악, 연극, 사진, 연예예술, 무용, 국악)의 주

『안양예총 30년사』 발간(2020)

관으로 안양시와 안양예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야외 전시도 함께 진행되었다.

2020년 가장 괄목할 성과는 안양예총 창립 30주년을 맞아 발간된 『안양예총 30년사』다. 안양예총은 이를 기념하여 '어제를 돌아보고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온라인 사진전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어 5회를 맞이한 2021년 우리동네 이야기는 '안양예술공원 박물관 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안양예총 소속 30여 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2일까지 평촌중앙공원에 개최된 제31회 안양예술제는 '추억'을 공식 주제로 삼아 '어제를 기억하고 오늘을 추억에 담다'라는 테마로 펼쳐졌다.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공연, 전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예술제는 안양예총 소속 8개 예술단체(문인, 미술, 음악, 연극, 사진, 연예예술인, 무용, 국악)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안양중앙시장 이야기'를 주제로 한 2022 우리동네 이야기6에는 약 22명의 예총 회원이 참여하여, 중앙시장 상인들의 자서전적 이야기와 시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특히 2018년부터 안양시 국제자매도시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작품을 받아 전시한 '2022 안양시 국제자매도시 학생작품 전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양만안청소년수련관, 안양동안청소년수련관과 안양예술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냉천지구 재개발 현장 공사장 가림막(2022)

안양예총은 지난 8년 동안 '우리동네 이야기' 프로젝트를 통해 안양의 과거를 기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술적으로 기록해 나가고 있다. '동편마을 이야기', '안양예술공원 이

아파트예술축제-안양씨엘포레자이(2023)·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2024)

야기', '학의천 이야기', '안양 냉천마을 이야기_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록과 기억', '박물관마을 이야기', '안양중앙시장 이야기', '안양일번가 이야기'에 이어 2024년 '병목안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동네 이야기 중 '안양 냉천마을 이야기_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기록과 기억'은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현장을 기록하고 작가들의 감성을 담아 예술로 재탄생시킨 작업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냉천지구 재개발 현장 공사장 가림막에 출력물로 전시되면서 삭막한 공사 현장을 스트리트 갤러리 공간으로 바꾸어 놓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23년과 2024년 '아파트예술축제'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로, 현재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공간적 특성을 살려 주민 주도적 예술제로 발전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24년 현재 안양예총의 임원진은 회장 이재옥(미술협회), 수석부회장 홍미숙(문인협회), 부회장 박용하(사진작가협회)·조태영(미술협회)·안교영(연극협회)·주명남(연예협회), 감사 허인혜(문인협회)·이영섭(사진작가협회), 사무국장 박형만, 간사 하재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실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8번길 5, 102호 안양예술인센터 내에 있다.

■ 안양예총 회원단체 활동

(1) 한국문인협회 안양지부

1971년 4월 5일 김대규 시인의 주도로 결성된 안양문인협회는 1972년 3월 1일 정식 총회를 열고 창립하였으며, 초대 지부장에 김대규를 선임하였다. 첫 사업으로 1972년 10월 9일 '제1회 관악백일장'을 개최하였으며 이 대회는 안양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행사로 자리 잡았다. 1975년 12월 10일 본부로부터 정식 인준을 받았다.

이후 협회는 관악백일장, 회원 시화전, 시낭송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활동 기반을 다져나갔다. 1990년 초, 안양문인협회를 비롯한 안양문화예술계는 큰 전환점을 맞았다. 7월 31일, 기관지 『안양문학』이 창간된 것이다. 2018년 3월 24일 안양문학과 안양문화예술의 상징이었던 김대규 시인이 지병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77세 나이로 별세하였다.

안양문인협회는 1972년 시작된 '관악백일장'이 53회로 이어지고 있으며, 1987년부터 시작된 '안양문인협회 시화전', '안양백일장', 1996년 시작되어 현재 전국 규모로 확

대된 '전국안양시낭송대회', 1990년 창간된 『안양문학』 발행 등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힘쓰는 한편, 회원들의 창작 열정은 매년 개인 시집 수필집 발간으로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안양문인협회는 2024년 현재 홍미숙 지부장이 협회를 이끌고 있으며 김미자·김산옥·김성금·장지섭·허인혜 부지부장이 활동하고 있다. 사무국장은 조은숙을 거쳐 현재 류순희가 맡고 있다.

(2) 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

1976년 오용길을 초대 지부장으로 안양미협이 결성되었고, 1980년 본부 인준을 받았다. 협회가 결성되기 이전인 1975년부터 이미 '관악사생대회'가 안양문화원의 주최로 열리고 있었다. 16회까지 안양문화원에서 주최한 이 행사는 예총 창립 후인 1991년 제17회부터 미술협회 안양지부로 이관되어 2024년 제50회의 행사가 이어졌다. 미협 결성과 함께 시작한 '안양미협전'은 1976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4년 제49회 전시회까지 쉼 없이 전개되었다.

1992년에는 안양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미술인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과거 안양의 상징인 포도를 주제로 한 '포도미술제'가 시작되었다. 1997년 제6회에는 안양 청년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제7회에는 한국화·서양화 작가들을 대상으로 '형상과 감정의 표출 전'을, 제8회에는 디자인·공예 중견작가 초대전을, 제14회는 공예·디자인 등 매회 장르를 달리하여 안양 미술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알렸다. 이 행사는 2024년 제33회까지 진행되었다. 1995년 미술의 해를 맞아 미술협회는 오늘의 현실전, 산업 디자인전, 현대 도예의 단면전, 안양지역 중견 서예인전을 열었다.

1995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안양문예회관에서 열린 '제1회 관악현대미술대전'은 한국화, 서양화, 조각, 공예, 디자인, 서예 부문에 걸친 첫 공모전으로 2024년 제28회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부장은 초대부터 5대까지 오용길, 6대부터 8대까지 고 홍사영, 9대는 박한춘이 맡았다. 이재옥은 제10대에 보선으로 선임되어 11대부터 12대까지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제13대는 이강은, 제14대는 주운항, 15·16대는 전동화, 제17대 조운희를 거쳐 현재 제18대 지부장은 조태영이 맡고 있다.

(3) 한국음악협회 안양지부

음악협회 초대 지부장이었던 마광재가 지역의 음악 교사들을 모아 결성한 음악교사협의회는 실질적인 음악협회 안양지부의 모태였다. 음악협회 창립 이전 1981년 문화원에서 주최한 '제1회 관악음악제'는 경연과 공연으로 나뉘어 실시되었는데, 작곡가 김동진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하여 안양 음악인의 등용문으로 권위를 과시하면서 대규모 음악행사로 발전하였다. 음악협회는 1985년 2월 8일 창립총회를 열고 1987년 3월 7일 본부 인준을 받았다. 창립 후인 4월 19일 김자경 초청 음악회를 시작으로 청소년음악회와 송년음악회를 진행하며 안양 음악의 활성화에 힘썼다.

1986년 10월 6일 처음 개최된 '만안음악제'는 1990년까지 진행되었으며, 특히 1990년의 만안음악제에는 전 회원과 산하 단체가 참가하였다. 1987년 4월 25일과 1988년 5월 28일에는 중앙대학교 콘서트밴드 초청 연주회를, 1987년 11월 21일에는 국립경찰악대 초청 연주회를 열었다. 1988년 5월 27일에는 안양시립합창단 초청연주회를, 1990년 4월 29일에는 수원시립교향악단 초청 연주회를 개최하여 안양 음악의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1991년 7월 20일 첫 개최된 '제1회 회원음악제'는 1997년 제7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반면 1993년 11월 7일 열린 '제1회 청소년음악제'는 꾸준히 이어져 2024년 제33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008년 12월 10일 시작된 '제1회 안양시민 아마추어 시민가곡제'는 2015년 제8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고, 2016년부터 '가을음악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2024년까지 진행되었다. 안양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이 출연하는 '범 안양합창제'를 안양예술제의 참여행사로 진행해오다 '재즈 페스티벌'로 변경하여 예술제에 참여하였다. 2024년 현재 2016년 시작한 '해피콘서트', 2017년 시작한 '가을음악회', 1985년 5월 처음 개최한 '청소년음악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마광재 초대 지부장 이후 김태환(제2~3대, 당시 양명고 음악 교사), 박순자(제4대) , 유태왕(제5대), 장영애(제6대), 백은영(제7~10대) 등이 지부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박두섭이 제11대 지부장을 맡고 있다.

(4)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

안양의 사진은 1979년에 창립한 '안양사진연구회'를 토대로 발전해왔다. 이후 '마니

아 사진회'의 창립을 시작으로 사진촬영과 전시회를 통해 사진동호인의 저변을 넓히고 창작 영역을 확대하는 데 힘썼다. 또한 월간 『사우』지 발행인 정철용과 사협 학술평론 분과위원인 고영일이 안양에 이주하면서 지역 사진의 발전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는 1987년 7월 18일 창립하여 같은 해 9월 5일 인준을 받았다.

전문적인 사진작가로서 지역 사진예술의 선구자 역할을 맡은 협회는 창립 임원으로 이미 고인이 된 최인석 지부장, 사무국장 김덕렬, 연구 간사 고상준, 이영섭 감사로 구성되었다. 협회는 1989년 10월 '제1회 전국 어린이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행사는 1992년 제4회부터 '전국사진 공모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더 큰 행사로 발전시켜 나갔으며, 2024년 '안양전국사진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제36회까지 개최되고 있다. 또한 1992년 6월 제1회 사협 회원전 및 합동 사진전을 시작으로 2024년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 회원전'으로 제33회까지 이어오고 있다.

협회는 매년 정기적인 회원 출사 행사와 함께 2011년부터 안양시민축제에서 '안양사랑 사진잔치' 부스를 운영하며,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촬영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인석이 초대 지부장 이후 김병연(제2~3대), 우명률(제4대), 이선구(제5대), 김병기(제6~7대), 채영애(제9~10대), 신선건(제11~12대), 백승의(제13~14대)가 지부장을 연임했으며, 현재 박용하가 제15대 지부장을 맡고 있다.

(5) 한국연극협회 안양지부

1974년에는 윤고성·조동관 등이 안양 최초의 극단 '동행'을 창단하여 안양 연극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 단체는 해체되었다. 이후 박봉서(극단 민중 대표)가 안양에 와서 안양사랑에서 공연을 이어나갔고, 1980년 이봉운이 '극단80'을 설립했다. 1984년 5월에는 안양1동 국도변에 소극장 '자리'를 마련하여 총 28회의 공연을 선보이며 이후 연극협회 안양지부 결성의 모태가 되었다. 1990년에는 임부경이 극단 '버팀목'을 창단하였다. 안양연극협회는 1989년 9월에 창립되어 이봉운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으며, 1990년 5월 18일 본부 인준을 받았다.

1993년 예총 연극협회 안양지부에서 경기도 소인극 경연 권역별 대회를 유치하여 지

역 연극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2008년 12월에 임홍빈 대표를 중심으로 극단 '무아몽'이 창단되어 극단 '각시'와 함께 협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협회는 매년 새로운 창작극을 선보이고 있으며, 2018년에는 미투 운동 다룬 '침묵, 9136일', 빨치산의 고백을 다룬 '어느 고백', 2019년에는 이은숙 선생님을 다룬 '서간도 시종기', 바보 같은 은행 강도의 이야기를 다룬 '인터뷰', '문향 김대규'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현재까지 창작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또한 매년 전국연극제 예선대회와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안양예술제' 공연을 통해 야외무대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연극의 미래를 위하여 '전국연극제'에 적극 참여하고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초대 지부장 이봉운에 이어 임부경(제3~4대), 최정환(제5~9대), 임홍빈(제10~11대)이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 제12대부터 현재까지 안교영이 지부장을 맡고 있다.

(6)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안양지부

안양의 연예활동은 1970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로자회관에서 근로자를 위한 노래자랑 등 작은 규모의 활동을 해오다가 1980년 9월 한국연예협회 경기도지부 안양분실이 창립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연예인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안양지회(초대 지회장 천진철) 발대를 계기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안양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한 도시 발전에 힘입어 1980년 중반에는 4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였다. 1985년부터는 '안양시민가요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다.

1990년 3월 23일, 본부로부터 (사)한국연예협회 안양지부로 공식 인준을 받아 창립총회를 열었다. 2000년에는 안양시에서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시민축제를 기획하여 10월 7일, 평촌중앙공원 특설무대에서 '제1회 안양시민축제'를 개최하였다. 협회는 그동안 안양예술제의 일환으로 진행하던 '시민가요제'를 처음으로 시민축제 행사로 변경하여 개최하였다.

2007년, 중앙회에서 한국연예협회의 명칭을 한국연예예술인협회로 변경함에 따라 협회도 공식 명칭도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안양지부'로 바뀌었다.

창립 초기부터 군부대 위문 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안양예총이 주최하는 '안양예술제'에 참여하여 수준 높은 공연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1995년부터 '안양시민축제'의 일환으로 '안양시민가요제'를 개최하여 2024년 현재 제39회를 맞이하며 유능한 신

인 가수의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2017년부터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2006년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로 출발한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2017년부터 '7080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공연하고 있다.

분실 시절부터 지부로 인준받은 이후 초대부터 제5대까지 천진철이 지부장을 맡았으며, 제5대 직무대행으로 유창민, 제6대 직무대행은 정용배가 맡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최재훈(제7~8대)이 지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제9대 주명남 지부장이 협회를 이끌고 있다.

(7) 한국무용협회 안양지부

안양의 무용은 1970년대 초, 황연주·유성옥 고전무용학원, 백조무용학원 등이 후진을 양성하면서 활성화되었다. 황연주는 1986년 가칭 무용협회 안양지부를 창립하고 이듬해 제2회 만안문화제에 참여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황연주가 안양을 떠나면서 지부도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1989년 한국무용을 전공한 조경남이 다시 가칭 한국무용협회 안양지부를 재창립했으나 본부 인준을 받지 못하였다. 이후 1992년 김기백이 무용협회 안양지부를 재창립하고 1992년 6월 14일 비로소 정식 인준을 받았다.

무용협회 안양지부는 매년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1990년 시작한 '안양무용제'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청소년무용제'를 개최하였다. 1993년에는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에서 '불 항아리'로 대상을 받았으며 전국무용제에서 장려상과 남자연기상을 수상하였다.

초대 황연주 지부장을 시작으로 2대 조경남 그리고 실질적 창립 주역인 김기백이 제3~4대를 맡았으며, 1999년 제5대부터 현재까지 김성나 지부장이 협회를 이끌고 있다.

(8) 한국국악협회 안양지부

안양의 국악은 1963년 인천에서 시조계에 인문한 안덕기가 안양4동 경노당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되어온 시조창을 알리고자 안양시우회를 창립하고 이후 '전국 남녀 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하면서 안양극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박성순·배수옥·윤태길·안희진 등은 경기민요를, 이봉애는 평양 검무를 되살려 안양의 국악을 빛냈으며, 상

쇠의 장석봉, 경기제 호적의 김원제 등도 농악 활성화에 힘썼다. 안양국악협회는 1992년 4월 16일 창립하여 같은 해 8월 24일 인준을 받았다.

국악협회는 1993년 '국악의 향연'을 예술제 기간에 맞추어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이후 '국악 한마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또한 '추석맞이 국악한마당', '전국학생 국악경연대축제'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였다. 협회의 대표적인 행사인 '금요상설 국악무대'를 20여 년 이상 운영하며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고,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전국시조남녀경창대회' 그리고 각 학교를 순회하며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을 실시하며 국악 보급에 앞장섰다.

현재 협회의 대표적 사업인 '우리소리 춤의 한마당'은 2024년 현재 33회로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 국악 예술작품 안양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시조창을 했던 이용복 지부장을 거쳐 제3대 안기덕, 제4대~7대까지 안희진이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김혜진 지부장이 협회를 이끌고 있다.

안양예총은 창립 당시 안양의 대표적인 문화예술단체로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단체 활동에 대

2022 안양 예술제 밖으로 나온 미술관

해 안양예술인들에 대한 배려는 예총의 출범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지역예술 지원 변화의 속도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안양예총은 그동안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파생된 성과도 평가해볼 시기다. 이는 또 다른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안양예총 단체들은 예산 부족과 예술인들의 생활고로 인해 예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사 지원 수준도 타 시에 비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까닭에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수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양예총은 다양한 방식의 예술행사를 기획하고 실천하며, 각 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안양예총의 활동은 2024년 11월 기준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 217개의 동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4. 안양문화예술재단

1)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설립 역사

안양문화예술재단은 2008년 11월 10일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조례 제2125호)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18일 15명의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안양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을 통해 안양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9년 2월 26일 설립되었다.

이후 2009년 3월 11일 제1대 박형식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안양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주요 시설을 인수하였다. 행정지원팀, 문화사업팀, 시설무대팀 3개 팀 30명 인원으로 안양문예회관(1989년 개관, 현 안양아트센터), 평촌아트홀(2004년 개관), 알바로시자홀(2006년 개관, 현 안양파빌리온)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안양시 유일의 공립박물관인 안양역사관 운영과 안양시민축제 개최 등 다양한 공연·전시·문화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재단 출범과 동시에 20여 년 만에 안양문예회관을 리모델링하고, 2010년 5월 1일 안양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후 5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안양아트센터 재개관 기념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경기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지원'으

안양아트센터

안양아트센터

평촌아트홀

안양파빌리온

로 극단 하땅세와 코윈스 예술단 두 곳의 상주단체를 육성했으며, 2018년까지 다섯 곳의 예술단체와 함께 문화사업을 진행했다.

2011년 7월 1일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를 수행하던 안양공공예술재단을 흡수 통합하면서, 7개 팀 46명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시민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자체를 하나의 갤러리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로 2005년부터 3년 주기로 진행했던 사업이다. 재단은 그동안 진행된 3회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APAP 작품 종합 관리(안)」을 도출하고, 제4회 프로젝트 추진을 대비하여 안양시 공공예술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 개발에 집중했다.

2012년 3월 12일 제2대 노재천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문화시설 중심에서 문화예술 정책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했다. 문화정책실을 신설해 '2012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만안구 문화 참여 활동 조사' 등을 실시하며 시민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으며, 재단의 3개년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재단 운영 5대 과제로 예술가와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일상화, 차별화된 문화예술 도시 이미지 구축, 예술가와 관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 구축을 꼽았다.

2011년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시 정책에 발맞춰 2013년부터 여성축제를 운영했으며, 2013년 안양시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해 '열정의 40년, 도약의 100년'이라는 주제로 안양시민축제를 개최했다.

시민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족합창단을 운영하고, 주부 극단인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 과 청소년 대상 '꿈의 오케스트라-브라보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으며, 2014년에는 가족합창단이 '2014 생활문화동호회축제'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공공예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알바로시자홀을 안양파빌리온으로 2013년에 개편했으며, 옛 유유산업 안양공장을 문화적으로 재생해 2014년 3월 28일 김중업박물관으로 개관했다. 같은 해 3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재단 주관으로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진행했으며, 2014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우수사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015년 3월 27일 제3대 구자흥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정부의 문화 기조가 '생활문화'로 변경되며, 생활문화 사업이 확대되었다. 생활문화 커뮤니티 사업,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등이 늘어났으며 시민의 직접 참여 사업도 증가했다. 특히 김중업박물관에서 진행한 시민참여박물관 〈안양, 기억의 공간전〉은 시민이 제공한 소장품 70여 점과 지역

김중업건축박물관과 안양박물관

작가들이 시민 소장품을 바탕으로 시민이 꿈꾸는 도시 안양의 미래를 시각화한 회화, 영상 등 총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 의미 있는 사업으로 손꼽힌다.

2016년 4월 8일 제4대 정재왈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안양역사관이 안양박물관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김중업박물관도 정체성을 부각해 명칭에 '건축'을 넣어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같은 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개최했으며, 『메트로신문』이 주최한 '2016 공공미술대상' 뉴트렌드 부문 대상을 받았다. 2017년에는 석수동 시민들이 주최하던 안양충훈벚꽃축제를 재단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며, 축제의 규모를 확대했다.

2017년 7월 4일 제5대 남궁원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안양박물관이 호계동의 평촌아트홀에서 석수동의 김중업건축박물관으로 이전하며, 안양박물관 자리를 전시실로 변경했다. 905㎡ 규모의 전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평촌아트홀 특별전시실 재개관 기념전〉을 개최했다. 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국내 작가 110명, 해외 작가 10명이 참여하여 평면 회화 작품 104점과 입체 조형 작품 16점을 선보였다.

만안구청 인근의 만안벤처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안양예술인센터를 조성해 10월 25일에 개관하였다. 매년 공모를 통해 안양시에 연고를 둔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창작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기획 사업을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월 10일 제6대 박인옥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안양박물관이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승격했으며, 7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전 〈새겨진 아름다움, 안양의 보물을 찾아서〉 전시를 개최했다.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시민 100여 명과 함께하는 음악극 '파랑새'를 제작해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안양아트센터에서 공연했다. 10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공생도시'라는 주제 아래 예술과 기술, 도시, 환경 등의 공생 관계를 되짚어보는 '제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개최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박물관 VR전시 채널을 제작하여 온라인 박물관을 개설하고, 공연은 무관중 라이브 중계와 녹화 방송 등 온라인 관람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하였다. 안양시민축제 또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춤'을 중심으로 한 〈우선멈'춤'〉프로젝트로 선보였다. 마인크래프트에 평촌아트홀 맵을 만들어 〈신비한 동물 시계〉라는 어린이 체험전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등 비대면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악화로 4월부터 10월까지 안양아트센터를 '백신접종센터-만안센터'로 전환해 문화사업보다는 백신접종 지원에 힘을 보탰다. 백신센터 운영 종료 후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한 의료진, 봉사자, 시민들을 위해 '덕분에 희망 콘서트'를 개최해 서로를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0년에 이어 비대면 전시·공연·문화예술교육·축제를 진행하였으며, 9년 만에 '안양예술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안양형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며, 안양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시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현하며, 참여하는 문화 토양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펼쳤다. 나아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2년에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회복'을 위한 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쳤다. 찾아가는 공연을 비롯해 공연, 전시, 문화교육, 문화사업을 추진하였다. 평촌중앙공원과 삼덕공원에서 '안양시민축제'를 열어, 2105명의 출연진과 14만 2195명(통신사 집객 기준)의 시민이 참여해 축제를 즐겼다. 김중업건축박물관에서는 김중업 건축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기획전시 〈김중업, 더 비기닝: 건축예술의 문을 열다〉를 마련하였으며, KBS와 협업하여 〈자화상, 중업〉을 제작하고, 국제 컨퍼런스와 학술 콜로키움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023년에는 안양시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안양시민축제'를 '안양춤축제'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고, 9월 20일부터 9월 24일까지 5일

간 안양을 축제의 열기로 물들였다. 안양을 대표하는 원로 작가 오용길 작가를 초대해 〈오용길: 마음을 담은 풍경, 안양〉 전시를 개최했으며, 세계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안양 출신 피아니스트 임현정과 선우예권 공연을 기획했다. 안양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안양천 국가정원' 사업에 발맞춰 안양천이 흐르는 광명시와 금천구 문화재단과 함께 '경계 없는 안양천에서 함께 춤추며, 움직이자!'는 주제로 '안양천 100리길, 무무무(無舞Move)'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처음으로 실내 전시를 도입한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는 24개국에서 48팀 88명의 작품을 전시해 6만 7000여 명의 관람객을 동원했다.

2024년 4월 17일 제7대 최우규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재단의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2) 안양문화예술재단 주요사업

■ **지역문화진흥** : 기초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안양예술인센터 공간지원' 사업과 예술 전문 인력 육성 사업, 예술인 실태조사, 예술인 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문화 진흥에 힘쓰고 있다.

안양예술인센터

■ **문화향유** : 안양아트센터, 평촌아트홀 두 곳의 복합공간을 운영하며 공연과 전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평촌아트홀 아침음악회((2009~2016)를 비롯해 평촌아트홀 실내악 페스티벌(2013~2015), 국악콘서트(2013~2016), 썸머스쿨클래식(2009~2012) 등 시리즈 공연을 기획했으며, 연극 〈아이스크림 라디오〉와 뮤지컬 〈셜록홈즈〉, 음악극 〈파랑새〉를 자체 제작했다. 특히 뮤지컬 〈셜록홈즈〉는 '제17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최우수상·극본상·작곡상을 수상하고, 서울·제주·부산 등 전국투어 공연으로 2700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예술단체에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상주단체육성사업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며 5개 예술단체와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하였다.

■ **생활문화** : 시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평촌아트홀 아카데미(2009~계속)를 운영하고, 학교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2012~2019), 안양 혁신교육지구 위탁사업(2016년~계속), 경기 꿈의 학교(2016~2018), 어린이 교육 체험전(2013년~계속) 등을 추진했다. 또한 시민 문화 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가족합창단(2011~2019), 엄마들의 유쾌한 반란(2012~2019),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2015~2017), 꿈의 오케스트라(2013~2020) 등을 운영하며 생활예술 활동의 폭을 넓혔다. 생활문화 예술동아리 발표 사업과 안양사랑 한마음 합창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발표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공연

찾아가는 공연

■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 안양을 배경으로 2~3년마다 열리는 국내 유일의 공공예술 축제를 추진하며, 시민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자체를 하나의 갤러리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4회부터 7회까지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한 상설전시를 안양파빌리온에서 추진하며, APAP 작품투어와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안양파빌리온 실내 전경, APAP5(2016)

■ **문화축제** : 2000년 안양시민의 날을 맞이해 처음 개최한 '안양시민축제'를 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주관해왔으며, 2023년 '안양춤축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시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며 관람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기획해 출연자만 연간 3000명이 넘는

대규모 축제이며, 코로나19 기간에는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안양시민축제 이외에도 재단에서는 대종상영화제 안양축제, 안양여성축제, 안양충훈벚꽃축제 등을 주최했으며, 마을의 특색 있는 소규모 축제를 지원하는 마을축제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김중업건축박물관 '어린이 건축학교'

■ **박물관 운영** :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 두 곳의 공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박물관은 안양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전시·교육·연구하고 있으며, 고대 유물부터 현대 생활용품까지 13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김중업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 건축 전문박물관으로 김중업의 작업 도면, 자필 수첩, 건축모형, 사진 등 7000여 점의 중요 건축 유물과 아카이브를 소장하고 있으며, 현대건축 문화와 관련한 전시·교육·연구 사업을 펼치고 있다.

3)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시설

■ **안양아트센터**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36번길 16

1989년 12월 안양문예회관으로 개관해 시설 노후화로 1년간 운영을 중단하고 대대적인 개선 공사를 거쳐 2010년 '안양아트센터'로 재탄생했다. 1126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82석 규모의 소공연장, 갤러리 미담, 컨벤션홀, 동아리 연습실, 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 **평촌아트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76

2004년 9월 개관한 문화공간으로 638석 규모의 중극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905㎡ 규모의 전시실에서는 대형 기획전시와 함께 무빙 파티션을 활용해 3개의 소규모 전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개인연습실과 대연습실, 음악, 무용, 미술, 감상 등 7개의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 **안양박물관·김중업건축박물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103번길 4

안양박물관과 김중업건축박물관은 부지 자체가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다. 보물로 지정된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와 고려시대 삼층석탑이 자리하고 있으며, 1959년 김중업이 설계한 유유산업 안양공장을 리모델링해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중업건축박물관 상설전시실, 안양박물관 상설전시실, 특별전시관, 교육관, 부속시설 등이 있다.

■ **안양파빌리온**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80

안양파빌리온은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일환으로 조성된 작품으로 포르투갈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알바로 시자(Alvaro Siza)가 아시아 최초로 설계한 작품이다. 2006년 7월 알바로시자홀로 문을 연 이후 2013년 공간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예술 전문센터 '안양파빌리온'으로 재개관했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1회부터 7회까지의 자료를 축적해 아카이빙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설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 **안양예술인센터**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38번길 5

안양예술인센터는 기존 만안벤처센터를 리모델링해 안양시에 연고를 둔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예술단체와 예술인에게 창작공간과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개관했다. 입주 공간, 회의실, 연습실, 사무실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입주단체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註

1 "안양촬영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 최모란,「최은희·신상옥이 사랑한 도시 안양…영화 도시가 되다」,『중앙일보』, 2008년 4월 19일
3 안양시,「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안양-문화」,『안양시사』5, 2008, 196쪽.
4 박호중, 「안양문예회관의 운영주체 변화 양상 및 발전 방안 연구」,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0.
5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백서 2009-2020』, 2021, 28~29쪽.
6 이민우·최대호 안양시장 후보「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협치로 변화 이끌 것」,『 뉴스피크』, 202년 5월 25일
7 강준호,「안양문화예술재단 출범 기념식 열어」,『아시아뉴스통신』, 2009년 5월 7일
8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백서』, 2021.
9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2022년 연차보고서』 2023, 9쪽.
10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 예술인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12.
11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백서 2009-2020』, 2021.
12 안양예총, 『안양예술』 창간호 내용 정리.
13 안양예총, 『안양예술』 창간호 중에서 발췌.

2장

문화행사와 지역축제

장지섭 안양문인협회 부회장

안양시는 대한민국 경기도에 위치한 인구 약 55만 명의 중소도시로, 수도권 도시 중에서도 뛰어난 자연환경과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안양예술공원, 안양천, 수리산도립공원, 평촌중앙공원 등 자연과 문화자원을 보유한 안양시는 전통과 현대적 도시 인프라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시민들이 문화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를 통해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안양시의 문화행사와 축제는 전통과 현대, 자연과 기술이라는 다양한 요소를 아우르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안양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대표적 문화행사인 안양단오제,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수리산산신제,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등 전통적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계승, 보존하고 있다. 또한 지역 대표 축제인 안양춤축제, 안양예술제,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와 안양스마T움축제는 시대적 트렌드와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향하는 전향적인 시민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지역 문화행사와 축제는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그리고 미래 도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현재 안양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주요 문화행사와 축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안양의 주요 문화행사

1) 안양만안답교놀이

개최 시기: 매년 2월 중순

장소: 만안교 일대

주최·주관: 안양문화원

주요 내용: 개막식, 길놀이, 다리밟기놀이, 무동춤놀이, 선소리꾼놀이, 대동놀이

안양만안답교놀이는 한 해의 풍년과 건강을 빌며 만안교 다리를 오가면서 풍악을 울리고 다리를 밟는 전통 행사다. 조선시대의 석교인 만안교를 중심으로 정월대보름에 다리를 밟으며 한 해의 복록을 빌어보는 세시풍습으로 안양시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만안교萬安橋는 안양만안답교놀이가 연행되고 있는 곳으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다. 1973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된 만안교는 조선시대 정조正祖가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의 능인 현륭원顯隆園에 참배하러 가기 위해 1795년(정조 19) 축조한 홍예석교虹霓石橋로, '만백성의 편안함을 위해 놓은 다리'라는 뜻을 담고 있어 정조의 효심과 애민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987년 실시한 문화원의 실태조사를 통해 호계지역과 만안교지역에서 답교놀이가 성행했다는 고증을 바탕으로 호계지역 및 만안교지역의 답교놀이를 실존하는 만안교를 중심으로 복원했다. 안양문화원 산하 '안양농악단', '주부민속단', '풍류시대'가 연합하여 2013년 6월 3일 창립한 '안양만안답교놀이보존회'가 이를 보존·계승하고 있다.

행사는 길놀이-다리밟기놀이-무동춤놀이-선소리꾼놀이-대동놀이 순으로 진행되며, 이 중 '다리밟기놀이'와 '대동놀이'에서 안양지역에서 이루어지던 정월 세시풍속인 고사반, 다님절을 비롯해 시민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줄다리기,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이 행해지고 있다.

2022년 8월 9일 안양시 향토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으며, 그동안 안양대보름축제와 함께 열리다가 2023년 10월 14일 독립 공연으로 자리를 잡았다. 2024년 2월 24일 제2회 안양만안답교놀이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안양만안답교놀이(2023·2024)

제11회 수리산산신제(2024)

2) 수리산산신제

개최 시기: 매년 4월 초(봄)

장소: 수리산도립공원 내 산신제단

주최·주관: 안양문화원

주요 내용: 제례 의식, 전통 공연, 환경 탐방 등

산신제는 산신에게 올리는 제의로 단군왕검이 산신이 되었다는 단군신화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후 민간신앙으로 자리 잡으며 마을마다 안녕을 비는 제의로 이어져왔다.

안양의 대표 전통문화인 수리산산신제는 수리산 계곡에 오랜 제의 장소들이 남아 있고, 예부터 많은 구도자가 수리산을 찾았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전까지만 해도 창박골 주민들은 해마다 음력 7월 1일 수리산산신제를 지냈으나, 내선일체와 민족말살정책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무속과 전통문화에 대한 외면으로 명맥이 끊겼으나 2012년 수리산산신제보존회 한상윤 회장을 비롯해 지역 무속인들이 뜻을 모아 '수리산 도당굿'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했다. 이어 2013년에는 '제1회 수리산 무巫 예술제'로 2021년부터는 수리산산신제'로 명칭을 바꿔 매년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안양시 향토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었다.

수리산산신제는 매년 4월 마지막 주 일요일 병목안시민공원에서 열리며, 국태민안國泰民安과 시민안녕市民安寧을 기원한다. 주요 의식으로는 제수 차림, 길놀이, 산신거리 등 전통 의식이 진행되고, 시민들과의 대화와 다양한 공연도 이어진다. 500여 분에 걸쳐 펼쳐지는 산신제는 전통문화가 자취를 감추는 요즘 시대에 시민들에게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3) 안양단오제

개최 시기: 음력 5월 5일 전후
장소: 평촌중앙공원 및 안양시청 앞 광장
주최·주관: 안양문화원
주요 내용: 기원제, 경연마당, 전통문화 체험부스, 대동놀이

제3회 단오제 현수막(1982)

제23회 안양단오제 그네뛰기(2004)

단오端午는 1년 중 양기陽氣가 가장 왕성한 날로 여겨져 중국, 한국, 일본에서 음력 5월 5일에 지내는 명절이다. 한국에서는 3대 명절 중 하나로 '술의 날' 또는 순우리말로 '수릿날'이라고도 한다. 여름을 맞기 전 초여름에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고 있으며, 예전에는 설날, 한식, 추석과 더불어 한국의 4대 명절로 꼽혔으나 지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명절로서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

단오에 여성들이 창포물로 머리를 감아 치장하는 단오장 풍습이 있었다. 창포의 특이한 향기가 나쁜 귀신을 쫓고 머릿결도 좋아진다고 믿었다.

대표적인 단오 민속놀이로는 그네뛰기와 씨름이 있다. 그중 씨름은 단오날이 양

기陽氣가 가장 왕성한 날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다.

안양단오제는 1979년 안양문화원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시작한 행사다. 처음에는 그네뛰기 중심이었으나 점차 씨름, 향토음식 자랑, 농악 경연, 줄다리기 등 종목이 확대되었다. 현재는 평촌중앙공원에서 개최되는 안양단오제는 기원제를 시작으로 전통놀이 체험, 판소리·가야금 등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 참여와 볼거리가 풍성하다.

4) 안양만안문화제

개최 시기: 매년 10월

장소: 평촌중앙공원

주최·주관: 안양문화원

주요 내용: 전통혼례, 어린이 과거시험 재현, 문화강좌 수강생 발표회, 안양시립합창단 공연, 안양만안답교놀이 등

안양만안문화제는 안양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경기도 유형문화유산 제38호로 지정된 '만안교'에서 유래했다. 만안교는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능을 수원으로 옮긴 뒤, 매년 참배하러 갈 때 행렬의 편의를 위해 만든 돌다리다. 원래는 석수로 교차지점에 있었지만 1980년도 국도 확장으로 지금의 위치에 복원되었다.

제5회 만안문화제 전통혼례(1990)

안양문화원에서는 정조의 애민정신과 효심을 기리기 위해 이 축제에 '안양만안문화제'라는 이름을 붙였다. 1986년 제13회 안양시민의 날을 기념해 처음 개최된 만안문화제는 음악, 미술, 문학, 연극, 국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꾸며졌다. 지금은 예술인들이 안양예총에 소속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대부분 안양문화원에서 활동해 만안문화제가 여러 협회의 초창기 사업 무대로 자리 잡기도 했다.

1990년 안양예총이 공식 출범하고 1992년부터 독자적으로 안양예술제를 열면서 만안문화제는 별도로 개최되었다. 주요 행사로 만안답교놀이와 정조대왕의 황산능어가행진, 전통혼례, 고전무용, 탈춤놀이 등 민속행사와 다양한 전시, 경연대회가 열렸다. 2002년 안양시의 제안으로 안양예술제와 통합하여 '안양문화예술제'로 열렸으나, 2010년부터 다시 분리 개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5)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

개최 시기: 매년 10월 초

장소: 서울~금천 / 안양~의왕~수원~화성

주최·주관: 안양문화원

주요 내용: 능행차 퍼레이드, 전통 공연, 역사 교육 프로그램

정조대왕 능행차는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시작된 역사적 행렬이다. 1789년 사도세자 묘가 수원 화산으로 옮겨지면서 정조는 여러 참배를 다녔고, 그때마다 엄청난 규모의 행렬이 안양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지나갔다. 정조는 재위 기간 동안 열두 차례 참배하였는데, 특히 1795년에는 수행원 6000여 명과 말 1400여 필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안양에서는 안양문화원이 1991년부터 매년 안양만안문화에서 어가행렬을 재현하고 있다. 지역 고등학생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200~500여 명 규모로 재현되어 왔다. 행렬은 경기 감사를 선두로 왕이 어가, 혜경궁 홍대비, 병조판서, 문무백관, 대기치, 금위대장 순으로 시연된다.

2007년에는 안양시민축제에서 육군 수도군단 장병들이 참여한 대규모 행렬이 펼쳐졌으며, 이날 퍼레이드에는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는 1997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가 세계적 문화축제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행사

성하며 시작되었다. 2018년에는 화성시, 경기도, 서울시, 수원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총인원 5096명과 말 690필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 대규모의 퍼레이드로 진행되었다.

지금도 매년 10월이 되면 안양은 수원 행행 구간의 한 부분으로 시내 주요 구간에서 어가행렬을 이어가고 있으며, 참가자는 시민 공모로 선정된다.

6) 안양예술제

개최 시기: 매년 5월

장소: 평촌중앙공원

주최·주관: 안양예총

주요 내용: 전시회, 체험 및 판매 부스, 축하공연, 협회 공연

안양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축제한마당으로 1990년 안양예총이 창립되었고, 이듬해인 1991년 '안양문예술큰잔치'로 첫발을 내딛었다. 1992년 '안양예술제'로 명칭을 변

제28회 안양예술제(2019)

경하며 첫 회를 개최했으며, 2001년 '제10회 안양예술제'까지 진행한 후 안양시의 정책에 따라 2002년부터 안양문화원의 '만안문화제'와 통합되어 '안양문화예술제'로 명칭을 바꾸어 2009년까지 이어졌다. 2010년부터는 다시 안양문화원과 분리하여 안양예총 단독으로 '제19회 안양예술제'를 진행했다.

안양예술제는 안양예총 소속 8개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문학부터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무용, 연예, 국악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만나볼 수 있는 안양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인들의 축제다. 개막식을 필두로 협회의 공연과 전시 그리고 시민 참여 체험부스로 나눠져 춤, 노래, 마당놀이, 전시회, 체험 등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축제가 아닌 지역예술의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진솔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2024년 현재 '제33회 안양예술제'를 진행했다.

7) 안양여성인권영화제

개최 시기: 매년 9월

장소: 롯데시네마 평촌, 평촌CGV

주최·주관: 안양여성의전화

주요 내용: 여성인권·성평등 주제 영화 상영

제18회 안양여성인권영화제 개막식(2024)

안양여성인권영화제는 안양여성의전화가 안양시의 안양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받아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여성인권과 성평등 이슈를 문화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여성 폭력을 비롯한 성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성평등 사회를 위한 의식 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007년 처음 개최되어 2024년 현재까지 지역 주민의 평등과 인권 의식을 확산하고,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폭력 없는 안양만들기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매년 특정 주제로 개최되는 이 영화제는 대부분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 폭력에 당당하게 맞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상영한다. 양성평등, 여성인권에 초점을 맞춘 작품들로 채워지는 영화제는 안양시민 누구나 예매 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8)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개최 시기: 3년마다

장소: 안양시 일원

주최·주관: 안양시

주요 내용: 미술, 조각, 건축, 영상, 디자인, 퍼포먼스 등 공공예술 작품 전시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개막식(2023)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3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공공예술 축제다. 안양의 지형·문화·역사 등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어 도시 곳곳에서 미술·조각·건축·영상·디자인·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을 선보이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시 자체를 하나의 갤러리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가 시작된 시기는 2005년으로 당시만 해도 공공예술이 생소했지만, 안양시는 낙후된 안양유원지를 예술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대규모 사업을 국내외 예술가, 건축가, 디자이너와 함께 추진했다. 그 결과 2005년 11월 5일 개막한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는 국내 작가 35명과 외국 작가 38명 등 73명이 참여해 97점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이 중 52점은 영구 작품으로 남았다. 제2회 행사부터는 평촌 일대 대로와 공원에서 펼쳐졌다.

제3회 프로젝트에서는 '일상이 예술'이라는 주제로 많은 시민과 작가가 함께하며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무게를 예술로 승화시켰다. 제4회는 '퍼블릭 스토리'라는 테마 아래 1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공공예술의 방향도 모색했다.

제5회부터는 어려운 개념보다 시민이 공공예술을 직접 경험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

춰 다양한 장르로 진화한 공공예술을 회화, 조각 작품 외 영화, 패션, 사운드, 퍼포먼스 등 새로운 분야와 결합하는 시도를 통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였다.

제6회에는 '공생도시(Symbiotic City)'를 주제로 인간과 자연, 디지털과 아날로그, 새로움과 오래됨, 예술과 일상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을 조명했다. 2023년 열린 제7회에서는 '7구역-당신의 상상공간(ZONE7-Your Imaginary Space)'이라는 주제로 24개국 48팀, 88명의 작가가 70일간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이처럼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안양시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함께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현대적인 문화를 예술로 풀어내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공예술 축제로로 자리매김했다.

9) 안양건축문화제

개최 시기: 2년마다

장소: 안양시 김중업박물관 일원

주최·주관: 안양시/안양지역건축사회

주요 내용: 건축문화상 공모전 작품 전시, 건축사 작품전, 어린이 건축물 그리기 대회, 3차원(3D) 건축모형 만들기, 건축 문화답사, 건축 강연 등

2024 안양건축문화제

안양건축문화제는 건축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며 품격 있는 도시로 가꾸기 위한 Anyang Art City 21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열린 안양시 건축문화상 Festival이 2018년부터 확대된 안양시 건축문화축제다.

안양시는 2003년부터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과

‘계획부문’의 입상 작품과 참가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하는 건축문화상을 개최해왔다. 2018년 제12회 건축문화상부터 안양건축문화제로 변경하고, 안양지역건축사회와 공동으로 확대하여 개최하고 있다.

2년마다 열리는 안양건축문화제에서는 건축문화상 작품전과 우수건축물 작품 전시가 진행된다. 건축문화상 작품은 건축설계, 도시계획, 실내건축디자인 부문으로 나뉘며 대학부와 고등부의 건축창작 부문으로 구분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시상한다. 또한 기관장 특별상은 대학부와 고등부로 나누어 수여되고,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은 문화제 개최 이전 2년간 안양시에서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2. 안양의 주요 축제

1) 안양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개최 시기: 매년 2월

장소: 만안교, 박달동 박석교 주변

주최·주관: 안양문화원

주요 내용: 대보름 기원제, 전통문화예술 공연, 세시체험, 달집태우기, 대동놀이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에 해당하는 한국의 전통 명절로, 설날 이후 처음 맞는 보름날을 일컫는다. ‘상원’ 혹은 ‘오기일烏忌日’이라고도 한다.

정월 대보름날에는 부럼, 오곡밥, 약밥, 귀밝이술, 김과 취나물 같은 묵은 나물 및 제철 생선 등을 먹으며 한 해의 건강과 소원을 빈다. 또한 다리밟기, 쥐불놀이, 달집 태우기, 고싸움, 석전 등과 같은 행사와 다양한 놀이를 하였는데, 이 풍속들은 오늘날에도 일부 이어져 행해지고 있다. 지역별, 마을별로 제사를 지내는 곳도 있다.

2004년 2월 4일 안양예총은 잊혀가는 정월대보름의 전통을 되살리고, 안양천에서 시민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해 안양천 박석교 둔치(만안구 박달1동)에서 첫 대보름 축제를 개최하였다. 당시에는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하여 대표적 대보름 놀이인 깡통 쥐불놀이, 달집 태우기 등의 행사를 즐겼다.

해를 거듭할수록 1만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로 발

제7회 희망맞이 안양천대보름축제(2010)

전했으며, 2013년에는 안양문화원이 주최·주관하게 되었다. 같은 해 처음으로 '안양만안답교놀이'를 선보여 전통문화 재현에 힘썼다.

2015년부터는 '안양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매년 2월경 안양문화원 주최·주관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안양만안답교놀이'를 시작으로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대보름기원제, 세시풍속 체험 마당, 신명마당, 흥겨운 공연, 달집태우기, 복나누기 등의 행사와 대동놀이가 진행되고 있다.

2) 안양충훈벚꽃축제

개최 시기: 매년 4월 초

장소: 충훈 벚꽃길(석수3동)

주최·주관: 안양시, 안양충훈벚꽃축제추진위원회/안양문화예술재단

주요 내용: 개막공연, 불꽃쇼, 안양 꽃길 그리기대회 및 걷기대회, 버스킹 공연 등

제4회 충훈부 벚꽃축제(2009)

도심 속의 생태 하천인 안양천이 흐르는 안양 충훈부는 매년 벚꽃잎이 만개하여 장관을 이룬다. 석수3동 주변 안양천 일대는 대표적인 수도권 벚꽃 명소로 안양충훈벚꽃축제는 안양천 충훈1교부터 충훈고에 이르는 약 1.5km 구간에 걸쳐 피어난 벚꽃길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2003년 마을 축제로 시작된 안양충훈 벚꽃축제는 안양시의 대표적인 봄 축제로 매년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인 4월 초에 열리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었고, 2023년 다시 개최되어 2025년 현재 16회째를 맞이했다.

안양충훈벚꽃축제는 벚꽃길을 배경으로 개막공연, 불꽃쇼, 안양 꽃길 그리기대회 및 걷기대회, 버스킹 공연, 야외 공연, 먹거리 마당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안양시의 자연적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벚꽃 시즌 동안 지역 주민과 외부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3) 안양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

2017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

개최 시기: 매년 10월
장소: 병목안 시민공원, 학운공원, 평촌 중앙공원 등
주최·주관: 안양시/안양시수의사회, 경기도수의사회
주요 내용: 펫티켓운동회, 펫스타패션쇼, 반려동물 장기자랑 대회, 체험부스 등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는 2017년 안양시민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 10월 28일 병목안 시민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반려동물 사랑걷기대회, 어질리티 클럽경기, 반려견 매너 운동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반려견 무료진료, 무료미용, 행동교정 등의 서비스도 제공되었다. 여기에

반려동물 소원나무, 사랑의 기부탑 만들기, 행사코인을 모아라, 제2의 안양 부흥 로고 찾기 등 흥미로운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어 2018년 안양시 주최, 경기도수의사회 주관의 설재현·이학범 수의사의 토크콘서트를 비롯해 명랑운동회, 사진콘테스트, 문화학교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반려동물 무료진료와 무료미용, 행동교정 상담, 페이스페인팅 등의 부대행사가 열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안양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월 안양시 주최, 안양시의사회와 경기도수의사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2024년부터 안양시 단독 주최로 5월 개최되었다. 현재 안양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소통하고 반려 문화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대규모 시민참여 행사로 자리매김하여, 건강하고 긍정적인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 안양시 청소년축제(젊음의 축제)

개최 시기: 매년 5월

장소: 평촌중앙공원 등

주최·주관: 동안청소년수련관/안양시청소년축제기획단

주요 내용: 청소년의 댄스, 밴드, 치어리딩, 공연, 체험부스, 청소년의 날 기념식 등

안양시 청소년축제는 안양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축제로, 청소년 문화를 반영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

특히 안양시에서는 2019년 4월 전국 최초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안양시 젊음의 축제 한마당(1996)

제26회 안양시 청소년축제 기념식(2024)

5월 네 번째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에게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5월 청소년의 날에 맞춰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와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안양시 청소년 축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작은 1996년 9월 11일 안양시 주최, 안양YMCA 주관으로 열린 '안양시 젊음의 축제 한마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97년 '안양시 청소년 한여름 밤의 축제', 1999년 5월 2일 안양시 주최, 경기방송·한국청소년마을 공동 주관의 '젊음의 축제'를 거쳐 2014년 제18회 행사까지 매년 5월 '젊음의 축제'가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 제19회 행사부터 명칭을 '청소년 축제'로 변경하고, 안양시 주최,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청소년축제기획단 주관으로 매년 다른 주제로 개최해 왔으며, 2024년 5월 25일 안양시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제26회 안양시 청소년축제'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5) 안양북페스티벌

개최 시기: 매년 5월, 6월

장소: 평촌중앙공원 등

주최·주관: 새마을문고 안양시지부

주요 내용: 오행시, 좋은 책 전시, 책 놀이터, 각종 체험부스, 포토존, 공연 등

안양북페스티벌은 안양지역 최대의 독서문화 축제로, 책을 통해 시민들과 의미를 나누는 행사다. 매년 5월경 새마을문고 안양시지부 주관으로 열리며, 15개 새마을작은도

제3회 새마을문고 책축제(2009)

제16회 안양북페스티벌(2024)

서관, 석수도서관을 비롯해 시립도서관, 자원봉사센터, 관·내외 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안양북페스티벌의 첫 시작은 2007년 6월 28일 '제1회 새마을문고 책축제'라는 이름으로 안양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렸다. 당시에는 추천도서 전시, 알뜰도서교환전, 동화구연, 동화 속 캐릭터 만들기,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미니 북 만들기 등 책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2009년에는 책의 도시 안양 선포식과 함께 탤런트 선우재덕이 '2009 책의 도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이후 2011년부터는 '안양북페스티벌'로 명칭을 변경하여 2025년 현재 제17회째를 맞았다.

2025년 6월에 개최된 제17회 안양북페스티벌에서는 '책과 함께 꿈꾸는 안양'을 주제로 도서 전시, 체험, 오행시 짓기, 네컷 만화 그리기, 도전 골든벨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펼쳐졌으며, 1000권의 책도 무료로 배포해 많이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책을 받아갔다. 공연에는 평촌청소년오케스트라, 귀인초 사물놀이, 부림중 댄스 동아리, 라틴 댄스팀이 참여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안양북페스티벌은 '한 도시 한 책 읽기'를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활동을 통해 시민 정서 함양과 독서문화 체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책과 더불어 행복도시 안양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6) 안양스마T움축제(안양사이버과학축제)

개최 시기: 매년 6월
장소: 안양실내체육관
주최·주관: 안양시
주요 내용: 로봇, 발명대회, 드론, 코딩대회, 체험관운영 등

제2회 사이버문화축제(2003)

안양스마T움축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과학과 IT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대규모 과학축제로, 안양시가 주최한다.

이 축제는 지식정보화 선진도시를 지향하는 안양시의 정책 일환으로 2002년 '제1회 안양

제21회 안양스마T움축제(2024)

시 사이버축제'라는 명칭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첫 사이버축제는 컴퓨터 활용,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 만들기, 워드 타자 등 실력을 겨루는 경진과 스타크래프트 대회 등 게임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2007년에는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체계를 강화했고, 해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왔다. 2009년엔 '안양사이버과학축제'로 이름을 바꾸며 과학 분야를 본격적으로 접목했다. 2014년 축제에는 5만여 명이 참가하며 디지털 축제로 주목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 동작인식게임 체험관과 트릭아트 체험관이 큰 인기를 얻었다.

2023년에는 20주년 및 안양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로봇을 주제로 공연과 체험, 전시가 펼쳐졌고, 국제 로봇팀들도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2024년에는 시민 공모를 통해 명칭을 '안양스마T움축제'로 바꾸고, 드론을 주제로 행사가 진행됐다. 안양스마T움축제는 과학과 기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스마트도시 안양의 이미지를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과학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7) 안양 효 실버축제 한마당

개최 시기: 매년 5월, 10월

장소: 안양시청 대강당, 동안평생교육센터

주최·주관: 안양그린문화예술단

주요 내용: 노래자랑, 초대 가수 공연 등

안양 효 실버축제 한마당은 어르신들의 노인문화 정착과 효친 사상을 알리는 목적으로 안양그린문화예술단 주최하는 안양시의 대표적인 실버 문화축제 행사로, 매년 5월경 개최된다.

안양그린문화예술단은 안양시의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더욱 밝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4년 10월 창단되었으며, 기념공연을 시작

으로 지금의 안양 효 실버축제 한마당 행사로 발전했다.

안양 효 실버축제 한마당은 당시 지역에 노인을 위한 행사가 없었던 시절 단비 같은 실버축제로 어버이날 무렵에 열린 일종의 효도잔치였다. 관내 소외계층 노인들을 초대하여 노래자랑과 유명 가수들의 흥겨운 공연을 통해 퇴색해가는 효 문화를 되살리는 데 앞장섰다.

제3회 효 한마당축제(2006)

안양 효 실버축제 한마당은 2017년까지 매년 5월경 열렸으며, 2018년 제15회 행사는 9월에, 2019년 제16회 행사부터 현재까지 매년 10월에 개최되고 있다.

8) 안양여성축제 스마일맘 페스티벌(안양 아줌마축제)

개최 시기: 매년 5월
장소: 평촌중앙공원
주최·주관: 안양문화예술재단/경인일보
주요 내용: 축하공연, 네일아트·캘리 등 다양한 체험 부스 등

안양여성축제 스마일맘 페스티벌은 여성친화도시 안양의 위상을 높이고, 안양지역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여성축제다. 이 행사는 2013년 '세상

제1회 안양 아줌마 축제(2013)

2023 여성단체 화합 한마당

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힘! 아줌마! 그들의 도전은 계속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첫발을 내디딘 '2013 안양시 아줌마축제'에서 시작되었다.

2013년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린 제1회 축제는 쿠키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부스와 연예인 공연 무대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엄마와 아내로 살아온 아줌마들에게 힐링 시간을 선사했다.

이후 2014년 제2회 안양 아줌마축제로 이어졌고, 2015년 제3회부터는 5월에 개최되기 시작하여, 코로나19로 중단되기 전인 2019년까지 계속되었다. 2018년 제6회 행사에서 처음 '안양여성축제 스마일맘 페스티벌' 이름으로 열렸으며, 2019년 7회 행사가 코로나19 전 마지막 행사로, 인기 가수들의 공연, 아빠의 피크닉 도시락 경연대회, 여성가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여성 중심의 축제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러나 2020년 제8회 행사는 코로나19로 취소된 후 축제가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대신 2023년부터는 '여성단체 화합 한마당'이 안양시 주최,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최대 여성축제로 열리고 있다.

9) 안양청년축제

개최 시기: 매년 9월

장소: 평촌중앙공원 일대

주최·주관: 안양시/청년축제기획단

주요 내용: 청년예술가 공연, 전시·홍보·체험부스 운영, 축하공연, 청년상 시상 등

제1회 안양청년축제(2019)

안양청년축제는 청년들이 기획 단계부터 준비 과정까지 직접 참여하여 청년들에게 문화·소통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안양지역의 대표적인 청년맞춤형 축제다.

2019년 10월 19일 처음 개최된 안양청년축제는 안양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축제가 전무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지역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해 안양시 청년정책 서포터즈들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범계 로데오 거리에서 23개 청년 관련 단체가 30여 개 부스를 설치해 '청년도 놀 줄 아냥?'이라는 부제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시상식 등이 펼쳐졌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했고, 2021년 제2회 축제는 온라인과 비대면으로 안양시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2022년 9월 17일 평촌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에서 열린 제3회 축제는 '안양랜드'라는 슬로건 아래 퍼레이드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버스킹 공연, 놀이체험·직업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또한 청년의 날 기념으로 안양시 청년상과 청년정책 UCC 영상 공모전 시상도 함께 진행되었다. 2023년 제4회는 '청년휴양지', 2024년에는'행? 페스티벌'이라는 슬로건으로 각각 성황리에 치러졌다.

안양청년축제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지역 청년의 문화적 감수성을 반영한 다양한 전시·홍보·체험부스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소중한 소통의 장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한다.

10) 안양춤축제(안양시민축제)

개최 시기: 매년 10월

장소: 평촌중앙공원, 삼덕공원, 병목안시민공원

주최·주관: 안양시/안양시민축제추진위원회

주요 내용: K-POP 댄스대회, 댄스버스킹, 전시, 체험, 공연

안양춤축제는 2022년까지 진행된 안양시민축제가 2023년부터 안양춤축제로 명칭을 바꾸어 개최되고 있다. 이 축제는 안양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 속의 문화예술을 부각시켜 시민 참여를 통한 화합과 연대감을 조성하며, 살고 싶은 도시를 홍보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2025 안양춤축제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시민 참여형 생활예술 축제로 20여 년간 자리매김해 왔다.

안양시민축제는 1973년 안양읍의 시 승격과 함께 시작해, 처음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형식이었으나 2000년부터 문화예술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후 공연, 전시,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고, 2019년까지 계속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축제의 명칭도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2000년엔 안양시민축제로 시작해, 2012년 잠시 '안양 추억 페스티벌'로 변경됐지만 이듬해 다시 돌아왔다가 2023년부터 '안양춤축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2024년 축제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촌중앙공원과 삼덕공원에서 개최됐다. 스트리트댄스 배틀, 시민 커뮤니티 댄스, 댄스 버스킹, DJ 놀이터, 청소년 댄스 경연 등 '춤'을 주제로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안양춤축제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사회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예술 축제로, 안양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며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 안양시 학생동아리축제

개최 시기: 매년 10월

장소: 평촌중앙공원

주최·주관: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

주요 내용: 공연, 전시, 체험, 이벤트 등

제5회 학생동아리축제(2018)

안양시 학생동아리축제는 안양시 학생동아리연합회(CUJU)가 기획하고, 청소년 서포터즈가 운영·홍보에 참여하는 청소년 주도의 축제로 매년 10월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261개 동아리가 참가하여 그동안의 동아리 활동 성과를 발표하는 지역 최대 학생 동아리 축제다.

안양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화 공유와 정보제공, 재능을 마음껏 뽐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마련된 안양시 학생동아리축제는 2014년 10월 25, 26일 양일간 평촌중앙공원에서 '제1회 학생동아리 Anyone Festival'로 첫선을 보였다. 관내 중·고등학교 100여 개의 동아리가 참여한 이 축제는 '꿈을 펼치다!'를 주제로 한 공연마당에서 50여 개 동아리의 공연, '꿈을 보여주다!'를 주제로 한 체험마당에서 45개 동아리의 체험 부스, 마지막으로 '꿈을 느끼다!'를 주제로 한 전시마당에서 12개 동아리의 사진 및 그림 전시가 이루어졌다.

이후 2015년 제2회는 'Get Your Crayon!', 2016년 제3회는 '너나들이', 2017년 제4회부터는 연합회가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며 '쿠주랜드' 등 참신한 부제를 내걸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행복을 팝니다-쿠주장터', '쿠주 팔레트' 등이 주제로 선정됐다.

2020년 제7회와 2021년 제8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축제로 전환되었으며, 유튜브와 홈페이지, 쿠주카를 통해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됐다. 2022년 제9회부터는 다시 대면 축제로 돌아와 '어게인 쿠주랜드 with 할로윈'이라는 부제 아래 245개 동아리가 참여했다. 2023년에는 '이리오너라, 쿠주 업고 놀자'를 주제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부스, 작품 전시도 열려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2024년 제11회 축제는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OTT(Oh~! 쿠주)를 콘셉트로 264개 학교 동아리가 참여해 182개 체험 부스, 24개 전시 부스, 58개 무대공연을 선보였다. 약 4만 명의 시민과 청소년이 함께하며 명실상부 지역 최대 청소년 축제로 자리 잡았다.

12)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개최 시기: 매년 10월

장소: 안양삼덕공원

주최·주관: 페이퍼리본/페이퍼리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주요 내용: 종이 작품 전시 및 체험 부스 운영,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 등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는 과거 종이 생산 공장이었던 삼덕제지 부지에 조성된 삼덕공원에서 열리며 부지를 기부한 고 전재준 회장의 기부 정신을 기리는 의미 깊은 행사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종이를 주제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다양한 예술 체험

제13회 삼덕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2024)

을 하고, 교육적 가치도 나누는 시민 참여형 축제다.

2012년 10월 20일 열린 제1회 축제는 '종이, 다시 탄생하다'를 부제로, 안양여성포럼과 안양미술교육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첫발을 뗐다. 이 축제가 가능했던 건 '문화예술발전소'의 노력이 컸다. 당시 이 단체는 안양여성포럼과 함께 삼덕공원과 종이문화에 관한 포럼을 열고, '종이 페스티벌' 준비 등 축제의 토대를 다졌다.

2013년 제2회부터는 축제 추진위원회가 꾸려져 기획과 운영을 본격적으로 맡으며, 전시와 체험, 공연 등 행사가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종이작품 전시, 동아리 체험, 종이 패션쇼, 다양한 공연 등이 펼쳐지며 참여의 폭도 넓어졌다. 2014년 제3회에는 안양지역 21개 학교도 동참했고, 2015년 제4회부터는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자로 나서면서 축제 규모가 더욱 커졌다.

2016년에는 주요 주체들이 모여 비영리 문화예술단체 '페이퍼리본'을 결성하면서 축제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았다. 제5회 축제에서는 2200여 명의 학생들이 자원봉사단으로 참가해 44개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했고, 공연도 더 풍성해졌다.

그 이후로 매년 10월 삼덕공원에서 페이퍼리본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축제를 이어오

고 있다. 이 축제는 지역사회, 예술가,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종이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는 소중한 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과 학생 창의력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안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

개최 시기: 매년 10월

장소: 동안평생학습센터 광장

주최·주관: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주요 내용: 평생학습 성과발표, 축하공연, 평생학습 전시, 체험 부스 운영 등

제1회 평생학습박람회(2013)

안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는 지역 내 평생학습 기관, 단체, 학습동아리들이 모여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나누고 체험하는 자리로, 학습자와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다. 이 축제는 2013년 11월 15~16일 안양시 평생학습원이 처음 개최한 '제1회 평생학습박람

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박람회에는 서예, 유화, 시화전 등 다양한 전시와 홈패션, 제과제빵, 가정요리 등 33개 팀이 참가했고, 하모니카·통기타·색소폰·오카리나 연주, 밸리댄스·한국무용·패션쇼 등 공연에는 27개 팀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노인회관에서 익힌 색소폰 연주, 태극권·실버요가 등 어르신들의 무대 역시 박수를 받았다.

축제가 만들어진 배경은 2007년 안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다양한 기관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이 확산된 데 있다. 당시 만안·동안 평생교육센터와 노인회관 등에서는 290여 과목의 정기 과정을 운영했고, 시민학당, 두드림강좌, 그린나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었다.

이 박람회는 2013년부터 매년 10~11월 학습 성과를 나누는 축제로 열렸으며, 2017년엔 인문난장 행사와 통합해 '2017 안양 인문도시축제'로 개최됐다. 이후 2019년부터는 명칭을 '안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로 바꾸고, 기존 내용과 형식을 유지하며 '내 삶에 찾아온 열 번째 배움의 기적'을 주제로 2024년 '제10회 안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지금까지 언급한 안양시의 문화행사와 축제 이외에도 안양시 진로페스티벌,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 실버문화축제, 평촌1번가 거리문화축제, 경기중부 통일힐링걷기 평화통일축제, 안양일번가 넘버원 페스티벌과 신연화 마을축제, 댕리단길 마을축제, 귀인동 마을축제, 관양신바람축제, 쌍개울축제, 두루미축제, 수푸르지 음악회 등 각 마을의 특징을 살린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다. 가히 문화예술 축제의 도시라 불러도 될 정도로 세대와 성별, 계층과 지역, 분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문화행사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안양시의 축제 대부분은 시민 참여형 성격을 띠고 있어, 지역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를 추구한다.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와 같은 수준 높은 문화행사부터 소규모 마을 단위 축제까지 그 스펙트럼은 매우 넓고 다양하다.

이러한 문화행사와 축제는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안양의 다양한 문화행사와 축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자긍심과 즐거움을, 외부 방문객들에게는 안양시의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 다양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안양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 각 문화행사의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확대, 최신 IT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개념의 혁신적 문화행사 개발, 지역 예술인들의 참여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 등이다.

AI 시대에 발맞춰 지역의 문화행사나 축제도 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온라인 플랫폼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과 안양의 역사, 문화,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문화행사나 축제를 기획하여 실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문화행사와 축제들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도시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오늘이 있기까지 지역에서 펼쳐진 수많은 문화행사와 축제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시대 변화에 맞는 발 빠른 대처와 개선을 통해 안양시가 명실상부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안양시 문화행사 및 축제 연표

1977년 10월 1일	제4회 시민의 날 시민위안의 밤 노래대잔치
1979년 5월 30일	제1회 안양단오제 개최(안양문화원 주최)
1986년 10월 6일	제1회 만안문화제 개최(10.6~10.15)(안양문화원 주최)
1987년 10월 2일	제2회 만안문화제(10.2~10.19)(안양문화원 주최)
1988년 2월 25일	민속의 날 축제 및 제6공화국 출범 경축 윷놀이대회
1988년 9월 8일	제3회 만안문화제(9.8~9.18)(안양문화원 주최)
1989년 9월 25일	제4회 만안문화제(9.25~9.30)(안양문화원 주최)
1989년 12월 5일	안양문예회관 개관(대강당 1500석, 소강당 500석)
1990년 9월 27일	제5회 만안문화제(9.27~11.12)
1991년 9월 26일	제6회 만안문화제(9.26~10.22)
1991년 9월 28일~10월 20일	1991 안양예술큰잔치(안양문예회관)
1992년 5월 9일~6월 7일	제1회 안양예술제 개최(예총 안양지부 주최)
1992년 9월 29일	제7회 만안문화제(9.29~10.24)
1992년 10월 2일	제1회 형설축제(방송통신대)
1993년 5월 13~29일	제2회 안양예술제 개최(예총 안양지부 주최)
1993년 10월 4일	제8회 만안문화제(10.4~10.24)
1994년 5월 12~29일	제3회 안양예술제 개최(예총 안양지부 주최)
1994년 10월 1일	제9회 만안문화제(10.1~10.23)
1995년 4월 14일~5월 5일	제4회 안양예술제 개최(예총 안양지부 주최)
1995년 9월 30일	제10회 만안문화제(9.30~10.)
1995년 10월 4일	제22주년 시민의 날 기념 동대항 노래자랑(중앙공원)
1995년 11월 21일	제1회 대학문화예술제 개최
1996년 4월 26일~5월 26일	제5회 안양예술제 개최
1996년 5월 5일	제1회 곰두리 축제
1996년 5월 6일	안양시민가요제 개최(문예회관)
1996년 6월 2일	제1회 범시민 안양천 건강걷기 달리기 대회
1996년 6월 8일	제1회 안양성가 합창제
1996년 9월 11일	안양시 젊음의 축제 한마당
1996년 9월 12일	제1회 안양시청소년 문화축제
1996년 10월 2일	제11회 만안문화제(10.2~10.27)
1996년 10월 26일	제1회 안양1번가 거리문화축제
1996년 11월 2일	제1회 평촌 먹거리촌 문화축제
1996년 11월 22일	제2회 동대항 한마음합창 경연대회
1997년 4월 25일	지체장애인 한마음축제
1997년 5월 1일~6월 1일	제6회 안양예술제 개최
1997년 8월 24일	안양시 청소년 한여름 밤의 축제
1997년 10월 2일	제12회 만안문화제(10.2~10.19)
1997년 10월 4일	제24회 시민의 날 기념 안양시민축제
1997년 10월 12일	제2회 안양1번가 거리축제
1997년 10월 18일	제2회 평촌먹거리촌 문화축제
1998년 6월 19일~7월 12일	제6회 안양예술제 개최
1998년 7월 4일	안양시민가요제 개최(문예회관)
1998년 8월 13일	별밤의 음악축제 개최(중앙공원)
1998년 9월 12~13일	제2회 평촌1번가 문화축제
1998년 9월 25일	제13회 만안문화제(9.25~10.24)
1998년 9월 26일	제25회 시민의 날 기념 안양시민축제
1998년 10월 19일	제3회 안양1번가 거리축제
1998년 10월 24~25일	평촌먹거리촌 제3회 거리문화축제
1999년 5월 2일	젊음의 축제(평촌중앙공원)
1999년 5월 13~30일	제8회 안양예술제 개최
1999년 5월 29일	제2회 곰두리 축제
1999년 6월 18일	제19회 안양단오제

1999년 10월 1일	제14회 만안문화제(10.1~10.10)
1999년 10월 2일	제26회 시민의 날 기념축제(안양종합운동장)
1999년 10월 9일	제4회 안양1번가 거리축제
1999년 10월 19일	조형미술대축제
1999년 10월 23~24일	제3회 평촌1번가 거리 문화축제
1999년 12월 31일	새천년 맞이 기념 밀레니엄 음악 대축제
1999년 12월 31일	새천년 맞이 화합의 한마당 축제
2000년 1월 1일	새천년맞이 기념 축제
2000년 5월 7일	제10회 젊음의 축제(평촌중앙공원)
2000년 5월 12~25일	제9회 안양예술제 개최
2000년 10월 2일	제15회 만안문화제(10.2~10.11)
2000년 10월 5일	제27회 시민의 날 기념 제1회 안양시민축제
2000년 10월 21일	제5회 안양1번가 거리축제
2000년 11월 22일	제1회 안양시 청소년문화 Festival 개최
2001년 5월 10~23일	제10회 안양예술제(종합운동장)
2001년 9월 14일	제6회 안양1번가 거리 대축제
2001년 9월 22일	제5회 평촌1번가 거리문화축제
2001년 9월 23일	2001 안양사랑 열린조형미술 대축제
2001년 10월 12~14일	시승격 28주년 기념 제2회 안양시민축제
2002년 5월 9일	2002 안양문화예술제 개최(안양문화원과 안양예총 공동 주최)
2002년 5월 15일	연등거리축제
2002년 11월 16~17일	제1회 안양시 사이버 문화축제
2003년 4월 5일	제1회 인라인 건강마라톤 축제
2003년 5월 9일	2003 안양문화예술제 개최(안양문화원과 안양예총 공동 주최)
2003년 5월 17일	제13회 젊음의 축제
2003년 6월 22일	제2회 안양 사이버 문화축제
2003년 9월 27일	제7회 평촌1번가 거리문화축제
2003년 9월 28일	안양사랑 열린조형 미술대축제 평촌중앙공원에서 개최
2003년 10월 3~5일	시승격 30주년 기념 제3회 안양시민축제
2003년 10월 19일	제2회 인라인 건강마라톤축제
2003년 10월 29일	2003 안양건축문화상 페스티발
2003년 12월 3일	제2회 안양시 책 읽는 도시문화 조성을 위한 책 축제
2003년 12월 6일	제1회 장터문화제(중앙시장)
2004년 2월 4일	제1회 안양천대보름 축제 개최
2004년 5월 2일	제1회 효도실버 축제한마당
2004년 5월 8~31일	2004 안양문화예술제 개최(안양문화원과 안양예총 공동 주최)
2004년 5월 29일	제15회 젊음의 축제
2004년 6월 22일	제23회 안양단오제
2004년 7월 3일	제9회 여성주간 기념 2004 안양여성축제
2004년 7월 19일	제2회 건축문화 페스티벌
2004년 10월 8~10일	시승격 31주년 기념 제4회 안양시민축제
2004년 2월 23일	2005 을유년 대보름행사 낙원마을
2005년 5월 2일	제2회 효도 실버축제 한마당
2005년 5월 5일~6월 1일	2005 안양문화예술제 개최(안양문화원과 안양예총 공동 주최)
2005년 6월 7일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전시 작품 공모
2005년 9월 24~25일	제4회 안양사이버축제
2005년 10월 7~9일	시승격 32주년 기념 제5회 안양시민축제
2005년 12월 17일	석수청소년축제 삼성초등학교
2006년 5월 1일	제3회 효 한마당축제
2006년 6월 9일	제25회 안양단오제
2006년 6월 10~18일	2006 안양문화예술제 개최(안양문화원과 안양예총 공동 주최)
2006년 9월 24일	제5회 안양사이버축제
2006년 10월 13~15일	시승격 33주년 기념 제6회 안양시민축제
2007년 3월 3일	2007 희망맞이 안양천 대보름축제
2007년 5월 2일	제4회 효실버축제 한마당
2007년 5월 5일~6월1일	2007 안양문화예술제 개최(안양문화원과 안양예총 공동 주최)

2007년 5월 12일	제12회 젊음의 축제
2007년 6월 19일	제26회 안양단오제
2007년 6월 23일	제1회 새마을문고 책축제
2007년 7월 6일	제12회 여성주간기념 안양시여성축제
2007년 9월 15일	제6회 안양사이버축제
2007년 10월 5~7일	제7회 안양시민축제
2007년 10월 10일	제10회 평촌 일번가 문화의 거리 축제
2008년 2월 21일	정월대보름 축제
2008년 5월 6일	제5회 효 실버 축제 한마당
2008년 5월 10일~6월 1일	2008 안양문화예술제 개최(안양문화원과 안양예총 공동 주최)
2008년 5월 17일	제13회 젊음의 축제
2008년 5월 24일	안양천 A+페스티벌 축제
2008년 5월 24일	제2회 새마을문고 책축제
2008년 6월 5일	제27회 안양단오제
2008년 7월 7일	제13회 여성주간기념 안양시 여성축제
2008년 8월 23일	안양 제4회 학의천 축제
2008년 9월 20~21일	제7회 안양사이버축제
2008년 10월 1~10일	2008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2008년 10월 3~5일	제8회 안양시민축제
2008년 10월 10~11일	제11회 평촌 일번가 문화의 거리 축제
2009년 2월 8일	제6회 안양천 대보름축제
2009년 4월 11일	제4회 충훈부 벚꽃축제
2009년 5월 12일	제6회 효 실버 축제 한마당
2009년 5월 24일	책의 도시 안양 선포식 및 제3회 새마을문고 책축제
2009년 5월 28일	제28회 안양단오제
2009년 6월 6일~7월 25일	2009 안양문화예술제 개최(안양문화원과 안양예총 공동 주최)
2009년 5월 12일	제6회 효 실버 축제 한마당
2009년 5월 24일	책의 도시 안양 선포식 및 제3회 새마을문고 책축제
2009년 6월 10일	중앙시장 사랑나눔 대축제
2009년 6월 20일	제8회 안양 사이버 과학축제
2009년 7월 11일	남부시장 수박축제
2009년 9월 5일	제5회 학의천 한여름밤의 축제
2009년 9월 25일	제12회 평촌 일번가 문화의 거리 대축제
2009년 10월 17일	수리산 문화축제
2009년 11월 2~10일	2009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2010년 2월 28일	제7회 안양천 대보름축제
2010년 4월 17일	2010년 청소년축제 FOR YOU
2010년 5월 4일	제7회 효 실버 축제한마당
2010년 6월 6일~7월 25일	제19회 안양예술제 개최
2010년 6월 10일	제29회 안양단오제
2010년 6월 19~20일	제9회 안양 사이버 과학축제
2010년 10월 1~3일	제9회 안양시민축제
2010년 10월 8일	제13회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대축제
2010년 10월 9일	제25회 안양만안문화제
2010년 10월 16일	만안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축제
2011년 4월 9일	제5회 안양충훈벚꽃축제
2011년 5월 3일	제8회 효 실버 축제한마당
2011년 5월 5일	제4회 가족사랑 행복나눔축제
2011년 5월 13~31일	제20회 안양예술제 개최
2011년 5월 14일	제5회 안양북페스티벌
2011년 5월 21일	제15회 젊음의 축제
2011년 6월 18일	제10회 사이버과학축제
2011년 9월 23~25일	제10회 안양시민축제
2011년 9월 30일~10월 1일	제14회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축제
2011년 10월 8일	제26회 안양만안문화제
2011년 10월 30일	제9회 장터문화제 안양천 열린축제

2012년 2월 5일	제9회 안양천 대보름축제
2012년 4월 22일	제6회 안양충훈벚꽃축제
2012년 5월 1일	제9회 효 실버 축제한마당
2012년 5월 11~13일	제21회 안양예술제 개최
2012년 5월 26일	제20회 안양시 청소년종합예술제
2012년 6월 2~3일	2012 경기과학축전 및 제11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2012년 6월 9일	제16회 젊음의 축제
2012년 6월 23일	제31회 안양단오제
2012년 9월 12일	2012 안양여성 파워축제
2012년 9월 21~23일	2012 안양 추억 페스티벌(제11회 안양시민축제)
2012년 10월 10일	제27회 안양만안문화제
2012년 10월 12일	제15회 평촌 일번가 문화의 거리대축제
2012년 10월 20일	제1회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2012년 10월 28일	제1회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
2013년 2월 23일	2013년 안양대보름 축제 만안답교놀이
2013년 4월 21일	제7회 안양 충훈 벚꽃축제
2013년 5월 11일	제7회 안양시 새마을금고 북 페스티벌
2013년 5월 15일	제10회 효 실버축제 한마당
2013년 5월 23일	2013 평촌 7080 문화의 거리 축제
2013년 5월 24~26일	제22회 안양예술제 개최(삼덕공원 특설무대)
2013년 5월 25일	제17회 젊음의 축제
2013년 6월 1일	제12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2013년 6월 8일	제1회 안양 환경축제 한마당 및 쌍개울 음악회
2013년 6월 15일	제32회 안양단오제
2013년 8월 30~31일	2013 안양 아줌마 축제
2013년 9월 6일	2013 안양 여성파워 축제
2013년 9월 20일	제2회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
2013년 9월 27~28일	제16회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대축제
2013년 10월 4~6일	제12회 안양시민축제
2013년 10월 1~30일	제28회 안양만안문화제
2013년 10월 26일	제2회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2013년 11월 2일	제4회 학의천 걷기축제
2013년 11월 15~16일	제1회 평생학습박람회
2013년 12월 20일	2013 관악 한마음축제
2014년 2월 14일	제11회 안양정월대보름 축제
2014년 4월 6일	제8회 안양충훈벚꽃축제
2014년 5월 24일	제2회 안양 환경한마당
2014년 6월 13~15일	제23회 안양예술제 개최(삼덕공원 특설무대)
2014년 6월 14~15일	제13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2014년 8월 7일	제10회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2014년 8월 23일	제2회 안양아줌마축제
2014년 9월 14일	제3회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
2014년 9월 19일	제17회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축제
2014년 9월 25일	평촌 7080 문화의거리 축제
2014년 9월 26~28일	2014 제13회 안양시민축제
2014년 10월 5일~12월 5일	제29회 안양만안문화제
2014년 10월 18일	제3회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2014년 10월 25일	제18회 젊음의 축제
2014년 10월 25~26일	제1회 학생동아리 축제
2014년 11월 14~15일	제2회 평생학습박람회
2014년 11월 26일	제3회 안양마을축제
2015년 2월 28일	2015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
2015년 4월 12일	제9회 안양충훈 벚꽃축제
2015년 5월 9일	제9회 안양북페스티벌
2015년 5월 13일	제12회 효 실버 축제한마당
2015년 5월 23일	제3회 안양 환경한마당 축제

2015년 5월 30일	제3회 안양아줌마축제
2015년 5월 30일	제19회 청소년축제
2015년 6월 8~10일	제24회 안양예술제 개최(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
2015년 9월 2일	제9회 안양여성인권영화제
2015년 9월 5일	제4회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2015년 9월 12일	제14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2015년 9월 13일	제4회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
2015년 9월 18일	제18회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대축제
2015년 10월 2일	만안구민 축제한마당 큰잔치
2015년 10월 2~4일	2015 제14회 안양시민축제
2015년 10월 16~17일	제3회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
2015년 10월 17일	제30회 안양만안문화제
2015년 10월 24일	제2회 학생동아리축제
2015년 11월 11일	2015 안양실버축제 한마당
2016년 2월 20일	2016 안양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2016년 3월 1일	안양남부시장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
2016년 4월 10일	제10회 안양충훈벚꽃축제
2016년 5월 3일	제13회 효 실버축제 한마당
2016년 5월 21일	2016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축제
2016년 5월 21일	2016 동편마을 한마음축제
2016년 5월 21일	제10회 안양북페스티벌
2016년 5월 21~22일	제25회 안양예술제 개최(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
2016년 5월 28일	제20회 청소년축제
2016년 5월 29일	제4회 안양아줌마축제
2016년 5월 31일	제1회 위풍당당 안양시 실버문화축제
2016년 6월 4일	제33회 안양단오제
2016년 6월 11~12일	제15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2016년 7월 9일	2016 귀인동 먹거리촌 한마당축제
2016년 8월 3일	석수1동 삼막마을 축제
2016년 9월 4일	제5회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
2016년 9월 9일	2016 안양 한가위 가족문화축제
2016년 9월 24~25일	2016 제15회 안양시민축제
2016년 10월 15일	제5회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2016년 10월 22일	제3회 안양시 학생동아리축제
2016년 10월 29일	제4회 안양 환경 한마당축제
2016년 11월 4~5일	제4회 안양시평생학습박람회
2016년 11월 5일	제31회 안양만안문화제
2016년 12월 1~9일	2016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2017년 4월 9일	제11회 안양충훈벚꽃축제
2017년 5월 17일	2017 평촌역 문화의 거리축제
2017년 5월 19일	제2회 위풍당당 안양시 실버문화축제
2017년 5월 20일	2017 박달2동 유채꽃 한마음축제
2017년 5월 20일	제11회 안양북페스티벌
2017년 5월 27일	제21회 청소년축제
2017년 5월 28일	제5회 안양아줌마축제
2017년 5월 30일	제14회 효 실버 축제한마당
2017년 6월 2일	관양 신바람 동편마을 카페거리 축제
2017년 6월 2~4일	제26회 안양예술제 개최(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
2017년 6월 10일	제16회 안양시 사이버과학축제 및 2017 경기과학축전
2017년 6월 24일	제5회 안양 환경한마당
2017년 9월 10일	제6회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
2017년 9월 15~17일	2017 제16회 안양시민축제
2017년 9월 23일	2017 다문화가족 축제
2017년 9월 23일	박달2동 해당화 마을축제
2017년 10월 14일	제32회 안양만안문화제
2017년 10월 14일	제6회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2017년 10월 21일	제4회 학생동아리축제
2017년 10월 28일	2017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
2017년 10월 28일	2017 안양 인문도시축제
2017년 11월 4일	2017 두루美 명학마을 축제
2018년 3월 2일	2018 안양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2018년 4월 7일	2018 제12회 안양충훈벚꽃축제
2018년 4월 12일	제6회 안양시 환경한마당
2018년 4월 13일	안양1번가 봄나들이 축제
2018년 5월 12일	제6회 안양 여성축제
2018년 5월 26일	제22회 안양시 청소년축제
2018년 6월 16일	제35회 안양단오제
2018년 6월 17일	제26회 안양시 청소년종합예술제
2018년 6월 23일	제17회 안양 사이버 과학축제
2018년 6월 23~24일	제27회 안양예술제 개최(평촌 중앙공원)
2018년 9월 5일	제15회 孝 실버 축제한마당
2018년 9월 9일	제7회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
2018년 9월 14~16일	2018 제17회 안양시민축제
2018년 10월 2일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안양시 실버문화축제
2018년 10월 5~7일	2018 안양건축문화제
2018년 10월 6일	제33회 안양만안문화제
2018년 10월 12일	제21회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대축제
2018년 10월 13일	2018 안양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
2018년 10월 13일	제7회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2018년 10월 19~20일	제6회 안양시 평생학습박람회
2018년 10월 19~20일	동편마을 카페거리축제 & 관양 신바람축제
2018년 10월 20일	제12회 안양북페스티벌
2018년 10월 27일	제5회 안양시 학생동아리축제
2019년 4월 5~7일	제13회 안양충훈벚꽃축제 및 걷기대회
2019년 5월 18일	제7회 안양여성축제 스마일맘 페스티벌
2019년 5월 25일	제23회 안양시 청소년축제 청소년의 날 선포식
2019년 6월 8~9일	2019 경기과학축전 및 제18회 안양시 사이버과학 축제
2019년 6월 18일	제1회 청년희망축제 기획단 발대식
2019년 7월 4일	제13회 안양여성인권영화제
2019년 8월 31일	제28회 안양예술제 개최(평촌 중앙공원)
2019년 9월 8일	제8회 2019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
2019년 9월 20~22일	2019년 안양시민축제
2019년 9월 27일	제22회 평촌 일번가 문화의거리 축제
2019년 10월 11일	제16회 孝 실버 축제한마당
2019년 10월 12일	제34회 안양만안문화제
2019년 10월 15일	2019 동안구 어울림 한마당 축제
2019년 10월 19일	제1회 안양청년축제
2019년 10월 19일	제8회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2019년 10월 19일	제7회 안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
2019년 10월 26일	2019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
2019년 10월 26일	제6회 안양시 학생동아리축제
2019년 11월 2일	제23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실버문화축제
2019년 11월 20일	제18회 평촌역 문화의거리 김장축제
2020년 9월 4일	제14회 안양여성인권영화제 개막
2020년 9월 13일	제9회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
2020년 9월 25일~11월 27일	2020 안양시민축제(온라인 개최)
2020년 10월 17일	2020 안양건축문화제
2020년 10월 25일	2020 제7회 학생동아리 온라인 축제
2020년 10월 29~30일	제29회 안양예술제 개최(온라인 개최)
2020년 11월 28일	제9회 삼덕종이 문화예술교육축제(온라인 개최)
2021년 8월 20~21일	제30회 안양예술제 개최(온라인 개최)
2021년 9월 12일	제10회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축제

2021년 10월 9일	제2회 안양청년축제
2021년 10월 13일	제18회 효 실버축제 한마당
2021년 10월 16일	제35회 안양만안문화제(온라인 개최)
2021년 10월 16일~11월 30일	2021 제20회 안양시민축제(온라인 개최)
2021년 10월 23~24일	제8회 안양시 학생동아리 축제
2021년 11월 1일	2021 안양시민축제 드론라이트쇼
2021년 12월 14일	제10회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온라인 전시
2022년 2월 12일	2022 안양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2022년 4월 24일	제9회 수리산산신제
2022년 5월 21일	제24회 안양시 청소년축제
2022년 5월 28일	제36회 안양단오제
2022년 9월 3~4일	제31회 안양예술제 개최(평촌 중앙공원)
2022년 9월 17일	제19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2022년 9월 17일	제3회 안양청년축제
2022년 9월 18일	제11회 사람사랑생명사랑 걷기캠페인
2022년 9월 23~24일	2022 안양시민축제
2022년 10월 8일	제14회 안양북페시티벌
2022년 10월 15일	제36회 안양만안문화제 개최
2022년 10월 15일	제11회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2022년 10월 18일	제19회 효 실버축제 한마당
2022년 10월 22일	제6회 관양신바람 축제
2022년 10월 22일	제8회 안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
2022년 10월 28일	제26회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 축제
2022년 10월 29일	비산골 빛 축제
2022년 10월 29일	제9회 안양시 학생동아리 축제
2022년 10월 30일	2022 안양 반려동물 사랑나눔축제
2023년 2월 4일	2023 안양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2023년 4월 9일	2023 안양충훈 벚꽃축제 콘서트
2023년 4월 20~22일	제32회 안양예술제 개최(평촌 중앙공원)
2023년 4월 30일	제10회 수리산산신제
2023년 5월 13일	제15회 안양북페스티벌
2023년 5월 20일	2023 세계인의 날 축제
2023년 5월 25일	평촌역 문화의 거리 봄맞아축제
2023년 5월 27일	제25회 안양시 청소년축제
2023년 6월 2일	제9회 I LOVE 방송대 마라톤 축제
2023년 6월 10일	제20회 안양사이버과학축제
2023년 6월 17일	제37회 안양단오제
2023년 7월 22일	제31회 안양시 청소년종합예술제
2023년 9월 7일	제7회 관양신바람 축제
2023년 9월 10일	제12회 사람사랑생명사랑 걷기캠페인
2023년 9월 16일	제2회 귀인동 마을축제
2023년 9월 16일	제12회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2023년 9월 22~23일	2023 안양춤축제
2023년 9월 22~23일	제17회 안양여성인권영화제
2023년 9월 23일	2023 안양시 음식문화축제
2023년 9월 23일	2023년 제9회 안양시 평생학습한마당축제
2023년 9월 23일	제4회 안양청년축제
2023년 9월 23일	제9회 안양시 평생학습한마당축제
2023년 10월 4일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실버문화축제
2023년 10월 6일	제26회 평촌1번가 문화의거리축제 페스티벌
2023년 10월 13일	비산2동 제8회 쌍개울 예능한마당 축제
2023년 10월 14일	2023 반려동물 사랑나눔 축제
2023년 10월 14일	명학음악회와 함께하는 미디어아트 축제
2023년 10월 14일	제1회 갈산동 마을축제
2023년 10월 21일	제37회 안양만안문화제
2023년 10월 28일	2023 관양동편마을 축제

2023년 10월 31일	제10회 안양시 학생동아리 축제
2023년 11월 14일	2023 여성단체 화합 한마당
2024년 2월 23일	보름달 가득 놀이 대잔치
2024년 2월 24일	2024 안양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
2024년 3월 31일	2024 안양충훈벚꽃축제
2024년 4월 28일	제11회 수리산산신제
2024년 5월 10~11일	제33회 안양예술제 개최(평촌 중앙공원)
2024년 5월 18일	2024 안양 반려동물 사랑나눔 축제
2024년 5월 25일	제26회 안양시 청소년축제
2024년 5월 30일	제9회 안양시 진로페스티벌
2024년 6월 1일	제21회 안양스마T움축제 개회식
2024년 6월 8일	제32회 안양시청소년종합예술제
2024년 6월 8일	제38회 안양단오제
2024년 6월 15일	제16회 안양북페스티벌
2024년 9월 6일	제18회 안양여성인권영화제
2024년 9월 7일	석수2동 신화연 마을축제
2024년 9월 7일	안양3동 댕리단길 차없는거리 문화축제
2024년 9월 7일	제3회 귀인동 마을축제
2024년 9월 7일	제5회 안양청년축제
2024년 9월 8일	2024 사람사랑 생명사랑 걷기캠페인
2024년 9월 11일	제8회 관양신바람 축제
2024년 9월 27~29일	2024 안양춤축제
2024년 10월 2일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실버문화축제
2024년 10월 5일	제13회 삼덕공원 종이문화예술교육축제
2024년 10월 5~12일	2024 안양 건축문화제
2024년 10월 12일	안양8동 제6회 두루미축제
2024년 10월 19일	제38회 안양만안문화제
2024년 10월 19일	제11회 안양시 학생동아리축제
2024년 10월 26일	제10회 안양시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
2024년 11월 2일	제3회 경기중부 통일힐링걷기 평화통일축제
2024년 11월 12일	2024 여성단체 화합 한마당
2024년 11월 15일	제2회 안양일번가 넘버원 페스티벌 개최
2024년 10월 18일	제9회 쌍개울축제

3장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김연수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본부장

1.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출발과 인식

안양시는 '매력적인 친환경도시 안양' 비전에 따라 '푸르고 여유로운 도시 조성' 계획을 추진했다. 2004년 12월 16일 안양유원지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로 개설과 상하수도 시설 및 경관 조명 설치 등의 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유원지 내 벽천광장과 조각공원, 휴게광장 등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비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위하여 1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녹지 공간 조성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 공간의 공원화 사업도 함께 진행되어 병목안 시민공원과 삼덕공원 등이 함께 조성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도시 개발의 부정적인 측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친환경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안양시는 안양유원지 재개발의 배경 속에서 2005년부터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nyang Public Art Project, 이하 APAP)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안양 전역을 대상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주제를 설정하고 현대 공공미술의 예술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시민들과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내 유일의 공공예술 국제 미술 행사이다.

안양유원지 재개발 당시 조각공원에 대한 계획이 논의되었지만 APAP는 더욱 넓은 공공의 예술을 선보이며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를 담은 차별화된 문화 자산으로 발전했다. 동시에 국내 공공예술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예술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범위에서 벗어나 좀 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공공의 예술로 그 역할과 영역을 확장하는 등 예술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1)는 안양시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위원회와 인력은 기존 행정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공공예술 관련 세부 사업을 위해서 토털미술관의 인력을 보강하여 행정과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 행정의 핵심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APAP1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상의 어려움과 한계 등으로 민간 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7년 1월 '안양공공예술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공예술추진위원회에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 사업예산 심의를 받아 추진됐으나, 출연금 내에서 예산 운영의 탄력성과 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립 재단 조직을 구성했다. 이는 당시의 공공예술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새로 출범한 조직으로 제2회, 제3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2, APAP3)를 개최해오다 2011년 7월 1일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조정과 조직 통폐합 등의 이유로 현 안양문화예술재단에 통합되었다. 이는 공공예술 업무를 단독으로 추진하던 기관에서 기존 문화예술재단 내 부서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 규모가 축소된 사실로 볼 때, 조직 통합은 안양시의 주요 시책에서 멀어지고 초기보다는 그 관심도와 호응도가 떨어지며 추진 동력을 잃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에는 건축물 조형물 위주의 야외 작품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춘 작품들도 많았지만 단순한 외형적 아름다움이나 조형적 형태에 의존한 조각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APAP의 작품 대부분은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와 공간, 환경과의 상호 관계성을 고려하여 작가적 예술성에만 의존하던 작품에서 벗어나 공간적 일치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작가가 직접 방문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분석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많은 과정과 시간을 거쳐 작품을 완성했다. 대부분의 일반 전시 작품들이 작가의 기존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 중심적 경향을 보이는 반면 APAP 작품은 특정적 요소가 결합된 장소 중심적 작품을 보이는 특징을 가진다. 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 준비 및 조직 운영 방식에서도 각 대회별 예술감독제를 도입하여 시대적·사회적 흐름에 부합하는 현대 공공예술의 경향을 반영하고 대회별 특징을 부각시키며 예술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강조했다. 전체적인 대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다소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예술감독들의 공공예술에 대한 관점과 지향점을 다각도로 실현하여 현대 공공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다각적으로 다룬 것은 예술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2. 공공예술프로젝트의 성과

1)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The 1st 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1)

APAP1 포스터

안양예술공원은 일반적인 공원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원이 아니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이다. 공원 내에는 사찰과 문화재, 관악 수목원 등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1977년 7월 안양에 내린 많은 비로 인하여 안양천이 범람하고 많은 이재민과 피해가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이전에는 안양유원지라는 이름으로 서울과 인근 도시 주민들에게 사랑받았으며 여름철 피서지로 1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이기도 했다. 하지만 안양 대홍수 이후 주변 시설의 노후화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위생과 환경 등의 사회적 구조의 변화로 쇄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에 안양시는 2003년 재개발에 착수하여 2005년 안양유원지 명소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새로운 공공예술의 장을 마련하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가 탄생했다. 당시 공공예술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시기에 공공예술과 도시 재개발을 접목하여 도시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한 것은 시대를 앞서는 결정이었다. 이는 국내 미술과 예술의 발전 및 확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APAP1은 예술공원을 거점으로 '역동적 균형'이라는 주제 아래 이영철 예술감독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해외 38개 팀을 포함해 총 73개 팀의 작가가 참여했다. 프로젝트 예산은 작품 설치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 이외에 제반 시설 공사 등이 혼합되어 사용되었다. 유원지 재개발비 47억 원을 포함하여 약 76억 원이 투입되었고, 총 75점의 예술 작품을 선보였다. 아울러 기존 '안양유원지'라는 명칭을 '안양예술공원'으로 변경하여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프로젝트의 개념은 안양예술공원의 지형적 특성, 즉 하천을 중심으로 상가지역과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장소적 특징에 주목하여 끊임없이 균형을 찾는 데 주목했다. 예술성과 기능성, 공공성을 고려한 작품의 성격을 규정하고, 공학과 예술, 디자인의 긴밀한 결합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는

건축가와 예술가들을 참여시켜 이미 개발된 공간에 개입하며 불균형 속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치유적 공공예술을 지향했다.

세계적인 예술가와 건축의 참여로 안양을 넘어 세계 미술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작품의 규모와 양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APAP1을 통해 참여한 작가들이 이후 국내 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1회 때 대부분의 작품은 '안양'이라는 지명과 역사에 주목했으며,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적 성격의 모티브(Motive)[1]를 지니는 작품군과 예술공원에서 자연 재료를 작품의 오브제(Object)[2]로 사용하는 작품군, 주변의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작품군으로 크게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새로운 재료와 강렬한 색채의 사용보다는 예술공원의 자연적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보이지 않는 공간적 균형감을 찾는 주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안양예술공원의 삼선천 중간쯤에는 포르투갈의 건축가인 알바로 시자 비에이라(Alvaro Joaquim de Melo Siza Vieira)가 아시아 최초로 설계한 APAP1의 대표적인 건축 작품인 「안양파빌리온(Anyang Pavilion)」이 자리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예술공원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작품으로, 1977년 대홍수 때 산사태가 있었던 장소에 위치해 있다. 수리산의 형상을 자연스럽게 이어받은 곡선의 아름다움과 회백색의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해 단순하면서도 유연하게 디자인되었다. 셸(Shell)[3] 구조물의 크기에 비해 놀랍도록 얇은 재료로 만들어진 곡면판상 구조로, 기둥 없이 다양한 곡면을 이루고 있다. 단일 공간으로 구성된 내부는 공간 활용도가 높고 네 개의 큰 창문을 통해 자연 채광이 들어와 시간에 따라 공간의 밝기가 달라지는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당시 건축가는 이 건축물 외에도 인근 상가 건축물을 유사한 디자인으로 연결하는 더 큰 프로젝트를 상가 주민들에게 제안했으나 그의 명성과 건축적 가치를 인지하지 못해 모든 제안이 거절되어 현재의 안양파빌리온만 건축되었다고 한다. 이 공간은 파빌리온[4]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목적 공간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파출소, 화장실, 기계실 등을 포함한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자연 재료를 예술적 오브제(Object)로 사용하는 작품으로는 프랑스 작가 장-뤼크 빌무트(Jean-Luc Vilmouth)의 「발견」으로 얼핏 보면 작품이 많이 녹슬고 낙후된 모습 때문에 많은 이로 하여금 작품 관리에 대한 민원을 받기도 했다. 이 작품은 작가가 예술공원을 조사하던 중 지표면에 묻혀 있던 방갈로를 발견하고, 이에 새로운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여 이곳의 아련한 추억과 기억을 재현한 듯한 작품이다. 이렇듯 변화와 균형 속에서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1회 대회의 대규모 건축과 조각 작품들은 변화하는 현대

도시와 예술의 상생을 보여준 새로운 시도와 시작이었다. 기성세대들에게 잊혀가는 안양유원지의 장소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예술과 자유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에도 주요 건축물과 설치 작품들은 작품투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2) 제2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The 2nd 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2)

안양공공예술재단 출범하면서 기존의 안양시 주도 사업 방식에서 민간 재단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진행한 대회로, APAP1의 경험과 방식에서 진화하여 시 담당 부서의 일부 공무원이 안양공공예술재단에 파견되어 업무를 추진했다. 제2회 대회의 규모는 해외작가 24팀을 포함하여 총 45팀이 참여했으며 전체 45점의 작품 중 32점을 남겼다. 작품비 약 35억 원을 포함하여 총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한 약 44억이 소요되었고, 2007년 10월 20일 개막하여 11월 18일까지 행사가 진행되었다. 안양예술공원에서 출발한 APAP는 새롭게 탄생한 평촌에 주목했다. 수도권 일대 밀집과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평촌신도시는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주거 환경의 쾌적성과 편의성 등의 추가적인 도시 개선 사항이 대두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평촌신도시의 정체성과 환경을 재생하고, 도시 환경을 혁신하고자 공원과 도심을 중심으로 '전유, 재생, 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현대미술의 본질을 유지한 가운데 반복되고 경직된 도시생활에 색다름과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공공성에 주목하여 도심 공공장소에서 일반인들이 공공미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시 환경에 부합하는 기능성을 겸비한 작품과 도시 기능에 필요한 시설물을 활용한 공공디자인 작품을 중심으로 설치했다. 이는 평촌신도시의 수도권 베드타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공공예술의 도시로 변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특히 도심의 공원과 도로변에 설치된 작품은 현대적 이미지의 조형미와 더불어 회색 도심에 예술적 색채를 더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시선을 이끌어내 공공예술을 넘어 도시 전체에 공공디자인을 적용하고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반복적이고 평범한 일상에서 마주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시점을 넘어 설치된 작품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색다름과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도시 환경이 주는 또 다른 에너지일 것이다. 현대 공공예술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누구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대중을 위한 예술로 쉽게 접하고 느끼는 공공의 혜택을 부각시킨 대회였다.

도심 곳곳에 놓인 작품들은 산책하거나 걷거나 쉬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적 접근성을 지니고 있었다. 만지고 매달리고 체험하고 느끼고 마주하는 경험은 공공예술의 특징이자 APAP2의 숨은 의도이기도 하다.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작품과 평촌로를 따라 설치된 형형색색의 큐브 박스는 비정형화된 필수 불가결한 시설물들이 도시 환경에 미치는 시각적 저해 요소를 해결하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더욱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들었다. 궁극적으로 현대 공공예술을 통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며 매력적인 예술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다. 안양시청 인근에 위치한 평화공원에는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5]의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색채의 다섯 마리 강아지와 한 송이 꽃이 어우러진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쿠사마는 자신의 편집증적 강박을 작업 방법으로 승화시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물방울무늬를 통해 독특한 개인의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 그의 작품에서 반복, 증식, 확산은 정신적 편집증과 환각증에서 작가를 해방시켜 주는 유일한 수단인 동시에 작가의 작품에 지속적으로 등장해온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 쿠사마 스튜디오의 관계자는 직접 안양을 방문하여 작품 설치 위치와 지반을 유심히 살펴보기도 했다. 다양한 색채로 밝게 빛나는 다섯 마리의 강아지와 꽃은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새로운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동화 속 이상향과도 같은 안양의 모습을 상징한다. 작품이 설치된 평화공원 도로변은 외부 방문객들이 드나드는 승하차 장소로 마치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손님을 마중 나간 귀여운 강아지들과 화려한 꽃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한다.

평촌도서관 주변 인도에 자리 잡은 회색 육면체는 지상 개폐기를 위장하는 구조물로 APAP2의 의미를 가장 부각한 작품이다. 일본의 마사토 나카무라(Masato Nakamura)는 일본의 다다미를 근대적 건축 모듈로 변형한 모듈 원(M1) 유닛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모듈 구조체[6]로 도심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환경 개선 성향의 설치 작품이다. 알루미늄 재질의 직육면체 모듈 제로(M0)는 하나의 모듈이 지상 개폐기

2018년 3월 24일 개봉식 모습

를 완벽하게 은폐하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과 결합이 가능하다. 각 구조물은 가로표지판, 재활용 분리수거 체험기, 타임캡슐 기능을 겸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를 지상 개폐기로 위장한 구조물 위에 타임캡슐 기능의 또 다른 구조물을 올려 완성했다. 타임캡슐에는 2007년 평촌 신기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10년 후의 모습을 그리며 각자의미래 꿈을 상자에 담아 밀봉했다. 10년이 지난 2018년 3월 24일 안양파빌리온에서 타임캡슐 공개 행사 및 전달식을 가졌고, 10년 후의 세월을 간직한 오동나무 상자들은 성인이 된 학생들에게 전달되며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이 작품은 외형적 조형미를 보여주는 환경 조각품인 동시에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담아 추억을 선물한 참여형 프로젝트로 그 신선함을 인정받았다. 개봉식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의 상자는 아직 안양파빌리온에 보관되어 10년의 꿈을 기다리고 있다. APAP2는 도심 환경과의 조화와 대비를 이루는 환경디자인적 경향을 보이는 작품들로 흥미와 관심을 끌었다. 때론 화려한 색채와 정형화된 구조의 도심 작품들이 도시에 활력과 생동감을 불어넣으며, 구조물을 활용하여 색다른 기능과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한 특징을 지닌다. 현재는 APAP2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감상할 수 있는 '평촌 작품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제3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The 3rd 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3)

APAP3은 이전 대회와 차별화된 특징을 지닌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 등을 담은 작품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예술 실천의 과정과 공동체적 협력에 의한 작품을 감상하는 수동적 관람자에서 예술을 직접 생산하는 능동적 참여자로 변화하는 공공예술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예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등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새 동네-열린 도시 안에서'란 주제로 펼쳐진 APAP3는 2010년 10월 2일 개막하여 한 달간 다양한 전시와 행사,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사업 예산 규모는 전 대회보다 약간 축소된 41억 원의 규모로 국내외 21팀이 참여하여 25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참여프로그램 운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운영비를 투자한 점이 대회의 차별성을 드러냈다.

APAP에서 선보인 존치 작품은 「오픈스클」, 「오픈하우스」, 「오픈파빌리온」 등 총 3점이며, 나머지 22점은 새로운 커뮤니티 아트(Community Arts)[7]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지역공동체 중심의 예술로 결과보다는 실행 과정과 의사결정 방식에 중점을 둔 예술 장르에

집중했다. APAP3는 도시의 다양한 담론을 배경으로 도시의 인위적인 생태는 자연 생태를 반영한다는 도시 생태론과 예술이 결과보다 예술적 실천 과정을 통해 사람들과 협력 속에 행해져야 한다는 다학문적, 연구 중심, 과정 지향적인 대중과의 협력이라는 공공문화론의 관점에서 출발했다.[8] 기존의 작가 중심 예술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통해 창작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시도하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예술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참여자들을 시민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 모임이나 교육기관 및 사업체 그 밖의 단체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창조적 잠재력을 끌어내는 다양한 교육과 디자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구성되었다. 주요 키워드는 참여와 권한, 지속가능성, 환대와 공유, 계몽의 도시로 요약되며, '새동네 열린 도시'를 통해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예술 창작자의 민주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미술을 시도했다. 현재 많은 지역민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아트'의 발전과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대회이기도 하다. 다양한 관객들과 함께 그들의 삶과 직접 연관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 해결점을 모색하는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공공미술의 시도다. 프로젝트의 세부 주제를 참여자와 예술가가 함께 결정하고 작업의 시작부터 진행 완성까지 협력하여 지역의 현안과 사회적 문제를 다루면서 참여 의지와 관심을 높이고 대안적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다만 이러한 공공예술 방식은 민주적 문화와 주인의식의 기반이 되지만, 지속적이고 주체적인 시민 참여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문화에서는 그 효과와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자의 문화적·사회적 배경과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참여 방식과 방법을 면밀히 연구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학운공원 내 설치된 존치 작품 3점은 본래의 작품 취지와 의도, 주제의 연결성 등 공공예술의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만, 작품을 활용한 워크숍이나 프로그램 운영 시 제반 시설의 부족으로 작품 설치 당시 의도한 활용성과 운영에 한계가 있다. 본래 작품의 위치는 처음에 학운공원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는 곳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려 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학운공원 끝자락의 현재 위치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작은 행사나 지역 작가의 전시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할 때 주차 및 화장실 시설 부족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공간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작품의 본래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적

조건이 미흡한 상태로 작품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본래의 작품 의도를 약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방방」, 라움라보어, 2010

대표적인 또 하나의 작품으로 현재는 철거되어 볼 수 없지만 인근 장소에 라움라보어(Raumlabor) 작가 그룹의 「오픈하우스」라는 작품이 설치되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작가팀이 함께 만든 20개의 방 구조를 쌓아 올린 형태로 열린 도시를 지지하며, 시민들의 공공 공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보센터, 비즈니스센터, 자전거 대여소, 어린이들을 위한 정자, 마을 텃밭, 사랑방, 전시 공간, 온실 등을 포함한 다목적 다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작품 설치 이후 철골 구조와 화판, 목제로 제작된 재료의 한계로 노후화가 지속되어 2015년 안전 문제와 공간의 슬럼화 등으로 철거가 결정되었다. 철거 방법과 방식에서도 많은 고민과 의견을 나누어 일괄적인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일몰 프로젝트의 맥락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오픈하우스를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자재를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가족을 위한 새로운 가구를 만드는 프로그램인 '플레이백' 워크숍을 진행하여 작품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 참여 프로젝트로 재탄생시켰다. 라움라보어 작가 그룹의 '방방 프로젝트'는 개조한 트럭에 투명 반구형의 거대한 풍선 모양을 결합한 형태로 커다란 비닐 속에 바람을 불어 넣어 내부 공간을 만들어 작은 토론회나 연주회 등을 할 수 있는 움직이는 이동식 공공예술 공간으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방 문화에서 착안하여 이름을 지었다. 작품의 크기는 폭 12m 길이 20m 높이 6m로 방방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야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필요한 지역에 언제든 짧은 시간 안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 문화와 예술적 기회를 넓혔다는 데 있다.

이렇듯 공공예술 작품은 작품이 설치 장소와 내구성에 따라 작품의 존치 기간이 좌우되며, 작품의 기획 및 구상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교훈과 함께 시대와 주변 환경이 변화하면서 작품의 활용과 본래의 의도가 반감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APAP3는 기본 공공예술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매체와 형식을 통해 국내 공동체 미술과 예술 민주주의 확산 및 대중화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현재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예술 지원 사업과 주민참여 사

업에서 중요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예술의 생산자가 전문적인 교육과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 중심 방식에서 당당한 예술적 참여자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의 예술, 공동의 예술로 그 영역과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공공예술의 범주를 넘어 사회문화적 분야에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고, 예술 주체와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실체적인 존치 작품이 없는 점과 단발성 사업, 과도한 운영비 등으로 지속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4)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4)

APAP4 대회부터는 안양시 산하기관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으로 기존 운영 주체가 안양문화예술재단(이후 재단)에 통합되어 운영하게 되었다. 2011년 기존 공공예술재단을 해체하고 관련 자료와 작품 현황 등을 인수인계한 후 재단 내 공공예술기획단으로 구성하여 APAP 업무를 추진했다. 무엇보다도 공공예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작품 관리 상태였다. 대회를 거치면서 작품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나 방법, 세부적인 재료 사항 등이 없는 상태에서 육안 확인과 관련자들에게 문의하여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왔다. 이러한 과정 중 제4회 대회를 맞이하게 되어 여러 문제와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장 큰 관심과 이슈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작품 훼손과 파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습도 편차가 큰 기후적 특성 등으로 인해 노후화와 훼손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적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작품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가의 표현과 구현을 위한 재료 선택권이 제한된 불가피한 상황이었을지 모르겠다. 이에 APAP4는 작품 재정비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되었다. 이는 야외에 설치된 공공예술 작품이 환경과 마주하는 것은 그들의 숙명이자 운명이다. 작품 관리 문제는 안양뿐만 아니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로고, 2014

라 전 세계 미술인과 건축가들의 과제다. 우선 기존 작품의 컨디션을 면밀히 조사하고 작품이 설치된 환경과의 조화, 작품 의도 유지, 변경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여 APAP4의 핵심 프로젝트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APAP4는 '퍼블릭 스토리(Public Story)'라는 주제 아래 '모두를 향한 지식', '각자를 위한 이야기', '서로를 통한 듣기'를 슬로건으로 삼았다. 1회부터 3회까지 10여 년간 진행된 APAP의 지난 시간을 면밀히 진단하고 작품의 유지·보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프로젝트의 기록을 재정리(아카이브)하는 등 공공을 탐구하는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기존 알바로시자홀로 명명된 안양파빌리온을 공공예술과 시민이 만나는 열린 상설전시 및 아카이브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2013년 재개관했다. 당시 APAP에 대한 시민 및 시의회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예결위에서 재편성하는 등 진통을 겪어 다음 해인 2014년 3월 27일 김중업건축박물관(이후 박물관) 개관과 함께 개막하여 해외 8팀을 포함한 총 22팀이 참여한 세부 프로젝트의 결과를 박물관 야외와 실내에 특별전으로 전했다.

안양 지명의 유래인 안양사가 위치한 박물관을 주 장소로 삼아 지역의 역사와 의미를 담은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다. 작품의 전면 재정비는 1~3회에 걸쳐 설치된 92개 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의 주변 환경 조성과 노후된 작품의 정비를 통하여 작품 감상 여건을 마련하고 향후 연계 사업을 위한 근본적 정비를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물리적 보수, 이전, 철거 공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사 초기부터 마무리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 디지털 콘텐츠와 아카이브 등으로 작품을 확대 재생산하고자 했다. 또 작품 상태 진단을 통해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고 작품관리 매뉴얼을 구축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었다. 작품의 유지·관리와 더불어 점검, 관리, 보수에 초점을 맞추어 각 작품별 점검 리스트와 내용을 체계화했다. 또한 작품의 재질과 제작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작품심의위원회를 두어 향후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당시 작품에 생의 주기를 부여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존치와 보수 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야외 설치 작품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유지·보수 비용과 가치를 고려하여 철거 또는 존치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각종 자료를 아카이빙했다. 관람객의 감상과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작품 앞에 국문과 영문이 표기된 설명판을 설치했다. 작품 재정비는 전면 및 부분 보수 39점, 이전 4점, 철거 18점으로, 특히 이전과 철거되는 작품은 당시의 계약서 검토 후 작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다. 철거 작품

을 위한 기준 마련도 내부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 가지로 정립했는데, 그 조건은 관련 법령으로 작품이 부합하지 않을 때, 보수비가 제작비를 초과할 때, 그리고 각종 안전과 사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대표적인 철거 작품은 '놀이터'와 '오징어정거장'이다. 먼저 '놀이터' 작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강화로 존치가 불가능해 철거되었고, '오징어정거장'은 습기가 많은 위치와 구조적인 안전 문제, 타일 탈락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으로 불가피하게 철거되었다. 이전된 4점의 작품은 원래 위치의 환경과 부조화 및 지속적인 파손 등의 문제로 예술공원 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여 이전되었다.

APAP4 대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그동안 특별전시장으로 사용되던 안양파빌리온(구, 알바로시자홀)을 공공예술과 APAP 관련 자료를 체계화하여 시민 누구나 편하게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아카이브 공간으로 구성하여 새롭게 재개관한 것이다. 공공예술 관련 서적 2000여 권과 각종 작품 도면 및 드로잉을 전시하여 방문객이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열린 시민 공간으로 조성했다. 2005년 당시 설계 건축가는 이 공간을 '안양파빌리온'으로 명명했으나 안양공공예술추진위원회에서 '알바로시자홀'로 이름을 변경하여 사용해왔다. 건축가 이름을 딴 명칭은 마치 개인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과 같아 보인다는 문제점과 알바로시자의 공식 웹사이트와 각종 국제 건축 잡지와 논문 등에서 여전히 안양파빌리온으로 표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건축가와 협의 과정에서 자신도 본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매우 기뻐했다. 그래서 본래의 이름인 '안양파빌리온'으로 변경하여 현재에는 APAP 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안양파빌리온 내부는 1~3회까지의 모든 작품과 관련된 자료를 총망라한 아카이브 자료로 채워졌다. 졌다. 각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각 회차와 단체의 참여 예술가들을 이야기의 저자로 설정하여 물리적·비물리적 형태의 작품이 탄생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구체적인 내용물로는 좁게는 공적, 행정 문서, 참여 예술가와 작품 관련 자료, 진행 기록물, 공식 발행물과 언론보도 성과물, 구매 단행본 등 문서 및 비문서 자료와 함께 남아 있는 실물 작품과 프로젝트 현장에서 수집된 사물을 포함했다. 작가와 작품명 번역, 작품 유실 여부를 검토하여 목록을 정비하고 남겨진 기록물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자료화 작업은 비물리적 공간인 웹으로 옮겨져, 서술식 정보와 선별된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현되며 공공적 접근성을 넓혀갔다.① APAP4 대회는 그동안 바쁜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각종 자료를 재정립하여 존치하지 않는 작품에 대해서도 그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인 아카이빙 시

「무無」, 후지코 나카야, 2015

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 대회는 국내애서 각종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각종 아카이빙 전시를 개최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했다.

또 하나의 주요 과제는 많은 시민에게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홍보와 참여 문제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민하던 중 자연과 경치가 어우러진 예술공원에서 작품을 함께 관람하는 산책형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작품을 재정비하고 세부 계획을 세워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도슨트[9](Docent)를 모집하여 약 2개월간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들 중 40여 명을 선별하여 별도의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최종 인력을 구성했다. 이를 위하여 설치된 작품과 작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재구성한 후 공식적으로 개막식에 처음으로 작품 투어 프로그램을 선보여 많은 호응과 찬사를 받았다. 현재도 연간 4000~5000명의 유료 관람객이 참여하고 있어 공공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APAP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핵심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APAP4의 대표적인 작품은 후지코 나카야(Fujiko Nakaya) 작가의 「무無」로 손에 잡히지 않은 안개를 반복적으로 생성해 혼재되고 중첩된 역사의 흔적을 오랫동안 간직해온 안양사 터의 장소적 특성을 반영한다. 어디에도 실재하지 않는 이상향의 세계를 표현하며 시공간

을 초원하는 몽환적이고 신비스러운 공간을 연출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조각 중심의 작품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이고 비물질의 소재와 장식을 활용한 비물질 조각[10]의 장르를 선보여 작품 유지 보수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된 작품이다. 지속성을 위한 보존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물질 조각과 작품 유지 시스템, 기록과 아카이빙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으며 시민들과 더욱 쉽게 소통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공예술로서 APAP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 제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The 5th 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5)

APAP5는 열린 개념의 다원적 접근을 통해 공공예술의 영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대회였다.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예술의 공공성을 극대화하면서 공공예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작품을 선보였다. 특히 기존의 성공적인 요소들을 계승하면서도 주제와 장소에 대한 제약 없이 작가의 창의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시도였다. 다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데, 이는 전통적인 하이라이트 갈라쇼(Gala Shows)[11] 형식을 탈피한 실험적 축제 공연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 작가는 해외 작가 12개 팀을 포함하여 총 23개 팀으로 약 25억 원의 예산으로 총 26개의 프로젝트를 안양예술공원을 중심으로 선보였다. 또한 원활한 프로젝트 계획 수립과 진행을 위하여 8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을 구성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1회를 포함하여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집행위원회는 대회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관계자로 구성되어 전반적인 사업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심도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사업 계획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얼핏 보면 예술감독과 위원들 간의 이견과 상충하는 내용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술감독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APAP5는 이전 대회의 연장선상에서 안양파빌리온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한 프로젝트로 철저히 작가의 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시민 참여 확대와 더불어 다원적 공공예술의 시도, 지역 작가의 참여 확대 등을 추구했다. 미디어 매체, 문학, 퍼레이드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예술의 다양성을 극대화했으며, 안양의 도시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깊이 있게 반영했다. 장기 보존 작품에 대해서는 재료 선택, 제작 방법 등을 면밀히 연구하고 작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도시와 환경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무문관無門關」, 최정화, 2017

APAP5의 주요 특징은 안양시의 인문학적 비전과 방향에 맞추어 문화예술을 통한 지식 인프라를 구축한 점이다. 이를 위하여 시민협업을 대폭 강화하여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확대했으며, 지역 예술단체와 상인이 협업하여 전시공간을 다각화했다. 이는 안양예술공원 내 상점 등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작가와 신진 작가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공공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추가적으로 방문하는 관람객을 위한 정보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웰컴 센터(Welcome Center)에 대한 기본 설계와 방향을 제시하여 예술공원의 미흡한 기능적 역할을 강화하고 향후 건립을 위한 기초 계획도 수립했다.

대표적인 작품 「무문관無門關」은 1회 대회에 참여한 한국의 최정화 작가의 작업으로 안양파빌리온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필요해진 다기능적 실내 설치 작품이다. 작가는 본인의 작업 방향과 공공미술, 실내 디자인 요소를 융합한 작품을 선보였다. 공사판에 버려진 거푸집 판넬, 개인이 사용한 자개장, 유유제약 실험실의 약재 수납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 작품은 각기 다른 의미와 사연을 지닌 재료들이 만들어내는 색채와 질감의 조화가 마치 거대한 현대 추상화를 연상케 한다. 안양파빌리온의 흰색 벽면과 어두운 색채, 건축물의 곡선과 직선을 대비시키며 조화를 이루는 직육면체 형상의 작품

은 강렬한 인상을 주면서도 실용적인 수납 아이디어도 담고 있어 흥미롭다. 또한 아카이브 전시장이자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는 이곳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리스티나 김 작가는 '돌베개 정원' 작품을 선보였다. 친환경 천에 안양유원지를 방문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안양천의 바위와 돌 패턴을 적용해 관람객들이 편하게 눕거나 앉아서 책을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작품은 시각적으로 느끼는 돌의 단단한 질감과 천의 부드러운 촉감이 주는 모순적이고 상반된 느낌을 통해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더불어 작품과 어우러지는 도슨트의 유니폼과 토트백도 함께 제작하여 사용되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작품으로 마이클 주(Michael Joo)의 「중간자(안양)」 작품이 있다. 작가는 작품 구상과 위치를 정하기 위하여 안양에 머물면서 삼성산을 등산하며 영적 에너지를 연결하고 안양의 역사를 알아가고 여러 사찰을 방문하여 작품의 개념을 정리했다. 그는 자신이 1998년 스웨덴 남부에 설치한 작품인 「중간자」(1998)와 안양을 연결하여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두 작품이지만 하나의 콘셉트와 동질성을 유지하고 우주의 기운과 힘을 안양에 투영하는 영적 의미를 담았다. 「중간자(안양)」는 땅을 깎아 만든 미완성의 반구半球로 위성방송 수신 접시 안테나나 해시계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해시계와 안테나는 인간이 우주를 이해하고 정보와 에너지를 주고받는 상호 소통의 매개체임을 내포하고 있다. 조각품의 중앙에 위치한 큰 동銅 기둥은 피뢰침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반원구를 이루는 주변의 화강암 조각들은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미래, 공간, 시간, 장소, 만남의 함축적 의미를 표현한다. APAP5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공공예술 장르의 다양화 추구와 대중의 참여 확대에 있다. 대중에게 익숙한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미디어, 영화, 퍼포먼스 등을 선보임으로써 다양성과 공공성을 두루 충족시켰을 뿐 아니라 새로운 창작에 그치지 않고 기존의 작품과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새로운 공간 역할을 부여했다. 시민과 예술의 접점을 좁히고,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층 업그레이드하며 관람자와 예술가, 참여자가 함께 공존하고 공감하는 협업적 의미를 부여한 프로젝트로 평가할 수 있다. 대회 준비 및 진행 기간에 세계적인 예술 매체 『이플러스(e-flux)』, 패션 매거진 『하퍼즈 바자(Haper's Barzaar)』, 글로벌 미술 전문 매체 『아트 아시아퍼시픽(Art Asia Pacific)』 등에서 APAP5를 주목하여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관심을 끌어냈다.

6) 제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The 6th 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6)

APAP6는 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공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공생도시(共生都市·Symbiotic City)를 주제로 시민 참여를 통한 '클린 스마트 시티(Clean Smart City)'를 지향하는 안양의 미래 비전을 품은 공공예술 방향을 설정했다. 총 7개국 53명의 작가팀이 참여해 약 26억 원의 예산으로 12개 세부 프로젝트에서 140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다른 대회보다 작가 수가 많았던 이유는 '안양작가 프로젝트'에 많은 지역 작가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6회 대회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부작용과 자연환경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예술과 도시, 기술과 환경의 공생관계를 되짚어본 대회였다. 공생도시라는 대주제 아래 환경적·문화적·사회적 가치에 지향점을 두고 추진되었다. 당시 급속한 도시 발전에 따른 환경 재앙에 대한 극복이 중요한 화두였으며, 특히 미세먼지 문제는 환경적 극복의 상징적 키워드로 떠올랐다. 이에 네덜란드의 단 로세하르더의 「스모그 프리 타워」를 통해 우리가 초래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

문화적 가치를 담은 문주 작가의 「지상의 낙원」은 안양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안양파빌리온과의 건축적 맥락을 고려한 유연한 곡선미를 지닌 돔 형태의 대형 작품으로 안양의 지도를 투각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햇빛의 실루엣을 선사했다. 구형의 돌 의자와 더불어 소규모 무대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쉼터의 역할을 하면서도 작은 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의 기능도 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형성과 활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공공예술을 제시했다.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안양예술공원 내 상인들과 협력한 지역 작가 프로젝트가 있다. 아는 지역의 상업 공간에 지역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여 일상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즐기는 상호 상생의 의미를 한층 사회적 가치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더불어 주제전과 아카이브 리뷰 기획전을 통해 공존의 공간을 창출하고 대안적 비전를 제시했다. 이 외에도 평촌중앙공원과 안양예술공원을 거점으로 환경적·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작품과 전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선보였다.

대표적 작품인 단 로세하르더의 「스모그 프리 타워(Smog Free Tower)」는 예술과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새로운 차원의 작품으로 단순한 기능을 넘어 미세먼지라는 시대적 이슈에 대한 도심 환경의 대안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양이온 기술을 적용한 공기 정화 장

「스모그 프리 타워」, 단 로세하르더, 2018

치가 접목된 높이 7m 크기의 이 설치 작품은 환경 문제에 대한 예술적 접근을 보여준다. 처음에는 평촌중앙공원 내 영구 설치를 계획했으나 제작 및 지속적인 유지비용이 과대하여 전시 기간에 한정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당시 설치된 작품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설치됐던 작품을 분해·해체 과정을 거쳐 안양 평촌중앙공원에 조립·설치되었다.

도심 환경과 조화로운 변형된 육각기둥의 조형은 건축미와 조형미를 동시에 갖추었으며, 필터링된 미세먼지는 화학적 분석을 통해 공기 오염 방지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기도 하고 수집된 먼지는 아주 작은 투명 육면체 속에 담겨 반지로 재탄생되어 판매되는 순환적 사이클을 이루는 프로젝트를 구현했다. 작품이 설치된 이후 많은 시민과 관람객은 과연 공기 정화 기능의 실효성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후각이 발달한 반려견들이 유독 작품의 주변에 밀집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작품 주변 공기 정화 효과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야외 전시 기간 동안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서초구청 등에서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는 아직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아 작가와의 추가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작품에 대한 비평도 있었는데,

「3D Archive」, 서울과학사, 2018

해외 작품 운송 및 설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여 전시 기간이 짧은 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APAP6의 색다른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카이브 전시와 주제전을 개최했다. 먼저 아카이브 전시는 APAP 리뷰 기획전으로 '지금 여기, APAP'라는 소주제로 안양박물관 특별전시관에서 58일간 열렸다. 이 전시는 APAP 1~5회 리뷰와 6회 프리뷰를 담은 아카이브 기반 전시로 관람객에게 APAP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회를 거치면서 축척된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선보이는 전시로 미디어·영상·3D 아카이브 등 다양한 매체로 구현됐다. 이 전시에는 서울과학사, 제로랩, 레벨라인 3팀과 김혜련 작가가 참여했다.

전시는 총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었데 아카이브 기록물 전시·인터뷰 영상 상영·작품 바인더 열람 공간으로 이루어진 리뷰(Review) 섹션(Section)과 APAP 아카이브 연구 및 해석을 통한 미디어·3D 모형·애니메이션 등 아카이브 연구 신작 섹션, 그리고 인터뷰 영상 상영·주요 작품 모형 등으로 전시된 APAP6 프리뷰(Preview) 섹션이다. 전시 준비를 위해 기존 APAP 작품 중 작품 투어에 참여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점을 선정하여 스케일 모형으로 재구현했고, 현존하는 작품과 철거된 작품을 중심으로 3D 모형으로 제작했다. 기존 보관 중인 기록물 834건과 작품 정보 259건을 체계적

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고밀도 전시를 완성했으며, 관람객에게 시각적 이해를 높이고 흥미로운 전시로 평가받았다.

APAP 작품의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 스케치·설계도면·시공 과정 자료·사진 등의 아카이브 기록물을 연구하고 실제 작품을 찾아 촬영도 했다. 또 작품의 형태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3D 프린팅 기법과 수작업 등 다양한 제작 방식을 병행하여 회색빛의 정교한 스케일 모형 '3D archive'를 완성했다. 더불어 각 작품의 관리번호, 작품명, 작가명을 각인한 철제 소재의 전시대는 보관함 기능을 겸하도록 제작해 작품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역할을 부여했다.[12] 또한 APAP 작품을 3D 모형으로 재구현하면서 작품의 형태적·디자인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주목하도록 했다. 이는 작품에 대한 감상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제 작품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하며 새로운 시각으로 작품을 바라볼 기회를 제공했다. 대회 이후 안양파빌리온에 상설로 전시되어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시에도 작품에 대한 이해와 의미를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

'내일보다 나은' 주제전은 공생도시와 안양의 관계를 재고하고 APAP6의 고민과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 오늘, 어제, 모레 혹은 안양의 이야기를 미술 장르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총 9명의 작가가 8작품을 안양파빌리온에서 선보였다.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네덜란드의 작가 셀리아 아런스(Celia Aarons)의 '수직적 의식' 작품을 들 수 있다. 과거와 현재 소리 등을 교차시키면서 도시화와 모더니즘의 침묵에 대해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안양의 소리를 담아 표현했다. 또한 최원준 작가의 작품은 장소와 인물들이 겪어온 상황을 기반으로 안양 내 존재하는 무슬림 라비타 성원(모스크)에 대한 커뮤니티를 깊이 들여다보고 안양을 통해 대한민국 전반에 일어나는 이주와 거주 문제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두 품은 각각 사운드 아트를 대중적으로 소개한 점과 종교적 역사와 배경이 다른 다문화와의 상호 존중 및 공존의 의미를 되새기는 데 의의가 있다.

대회 개최 기간 중 야외에서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 수 있는 리웬(Lee Wen)의 「핑퐁 고-라운드(Ping-Pong Go Round)」 작품도 눈에 띄었다. 이 작품은 기존의 탁구 형식과 규칙을 작가가 새롭게 해석하여 10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넓은 도넛 형태의 탁구대를 통해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 예술를 선보였다. 이는 공생과 공존, 화합과 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이 프로젝트는 1998년 호주 멜버른 미술관에서 시작되어 세계를 돌며 선보였으나 작가 르웬이 프로젝트 진행 중 갑작스럽게 작고하여 유작이 되었다.

6회 대회는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느끼는 환경, 즉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시점에 이를 주제화하여 이에 대한 문제 인식과 더불어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공생과 공존의 도시, 미래도시에 대한 희망을 예술적 대안으로 제시한 대회였다. 또한 환경적·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작품과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공공예술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완성도 높은 실내 전시 구성과 APAP의 기록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완성한 아카이브 작업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7)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The 7th 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7)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7)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으로 개최 시기가 1년 연기되어 2023년 8월 25일 안양시 승격 50주년에 맞추어 열렸다. 이전 대회보다 더 긴 준비 기간을 가짐으로써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였다. 대회 규모는 총 약 25억 원의 예산으로 24개국 88인이 참여하여 48점의 작품을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안양예술공원에서 선보였는데, 이는 대회의 메인 프로젝트인 실내 전시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동에서 진행되면서 많은 작가가 임시 작품을 출품했기 때문이다. 7회 대회는 기존의 야외 작품 중심 전시와는 달리 실내 전시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실내 전시는 주로 주제와 관련한 전시나 야외 설치 작품을 보여주는 아카이브 전시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나 이번 대회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하나의 파트로 구성되어 어느 대회보다도 그 성격과 의미가 확연히 다르다. 반면 실내 전시가 중심인 프로젝트가 그동안 이어온 공공예술과 부합하는지 아니면 여느 비엔날레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도 있다. 이는 예술감독이 추구하는 성향과 표현 방식의 강점을 감안한 선택인 듯하다.

7회 대회는 그동안의 대회와 다르게 오랫동안 미공개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공간적 특성에 주목했다. 이 장소는 1942년 가축위생사업소로 동물과 축산물의 검역, 위생 검사 등 가축의 질병 방역 사업을 수행했다. 이후 새 청사 건립과 변화를 거쳐 2010년 안양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김천으로 이전한 뒤 일부 공간만 시민에게 개방하고 나머지 공간은 폐쇄되었다. 본관 건물은 1950년대 한미경제원조 조치로 건립되었으며 한국의 대표적 건축가 이광노가 설계했다. 건물 3층 전면에 설치된 부조 작품은 당시 업무 담당자의 회고록을 토대로 조각가 김세중이 도안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APAP7이 본 건축물에서 개최된 것은 단순한 작가의 예술적 표현을 넘어 공간의

특성을 담아낸 안양의 공공미술의 효시적 장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유휴 도시 공간의 활용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도시 재생적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제7회 대회는 '당신의 상상 공간-제7구역'이라는 주제로 도시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선 도시 속 새로운 상상의 공간을 탐구하는 공공예술을 선보였다. APAP7은 기존의 1~6구역을 벗어나 '7구역'이라는 새로운 상상 공간을 주제로 삼아 도시 속 상상 공간과 혁신적인 공공예술의 본질을 제시한 대회였다. 전체적인 사업 구조는 시간의 순차적 구성에 의한 프레(Pre), 메인(Main), 포스트(Post) 프로젝트로 세분화하여 준비했는데, 이는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사업에 좀 더 일찍 착수함으로써 프로젝트의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하고, 동시에 APAP7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었다.

프레 프로젝트(Pre-Project)로 진행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시민 및 전문가 간담회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프로젝트로 작가와 참여자를 포함하여 총 789명이 참여했다. 특히 안양 내 중고생 661명이 직접 참여한 아트캠프는 학교 밖 실기교육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창의성을 길러주는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을 만들어 교육적 성취도를 높인 프로젝트이다. 또한 재개발 지구인 냉천, 상록지구 및 명학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아트펜스 프로젝트는 사라지는 마을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주민들의 인터뷰와 더불어 재개발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펜스를 매개체로 하여 정서적으로 접근했다. 옛 마을의 정취와 추억을 담아 도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더불어 향후 안양시 전역에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프로젝트로 지역 작가 9명과 주민 18명이 참여했다.

안양의 시각예술작가 11인을 대상으로 예술가의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한 '비주얼 아카이브'는 지역의 예술단체 및 재단에서 보관 중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안양의 예술적 생태계를 조사·분석한 프로젝트이다. 지역 예술을 이끌어온 예술가를 중심으로 관련 아카이빙과 예술지도를 만들어 예술 발전을 위한 상호 관계성과 연관성을 이해하고 축척하여 이후 새로운 예술 지원과 협업 모델을 구상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참여작가 3명을 포함하여 총 18명이 참여했다. 그리고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를 프로젝트 착수하기 전인 2022년 10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7회 대회의 가장 핵심 사업인 메인 프로젝트(Main-Project)는 야외 전시 5점과 실내 전시 43점, 그리고 온라인 전시로 구성되었다. 대표적인 야외 설치 작품으로는 1999년

에 설립된 네덜란드 건축 그룹 넥스트 아키텍츠(NEXT Architects)[13]의 건축가 바르트 뢰저(Bart Reuser)와 그룹 소속의 한국인 건축가 지백현이 설계한 '비밀의 숲' 작품이 있다. 처음에는 안양파빌리온 맞은편의 중간 정도에 작품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 지역이 유물 분포 지역인 관계로 유물표본 조사와 발굴조사 과정에서 도자 파편과 와편 등이 출토되어 부득이하게 당초 계획한 장소에서 현재의 장소로 옮겨 설치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작품이 설치된 장소는 기존 APAP1 때 설치된 '안양사원'이라는 작품이 있던 자리로 작품의 재료가 대나무로 되어 자연적인 뒤틀림과 손상이 발생하여 존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던 작품을 철거하고 설치되었다. 작품은 숲의 일부를 구조물로 에워싸 주변 풍경과 덱의 기능을 새로운 관점에서 숲속 나무와 같이 일상적 경험들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작품의 전체적인 형상은 일정한 높이가 있는 벽의 모습이 나선형 구조를 이루며 세 그루의 나무가 감싸고 있다. 작품 입구에 서면 벽을 따라 자연스럽게 빨려 들어가도록 유도되고 가운데로 갈수록 벽은 높아지고 하늘의 모습은 좁아진다. 내부 소재는 밀러 스테인리스 판재로 주위 모습을 투영하여 보행자의 모습과 어우러져 나선형을 따라 거닐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색다른

「비밀의 숲」, 넥스트 아키텍츠, 2023

실루엣을 경험할 수 있다.

작품의 중앙에는 계절 꽃들이 식재된 작은 정원과 원형 의자가 있어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제공한다. 작품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내후성 코르텐(Corten) 강판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한 갈색으로 변화하며 관람객의 시선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색감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작품의 웅장함을 더해준다. 이 작품은 현실을 떠나 새로운 상상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길이자, 현실과 이상을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작품으로 안양파빌리온 옆 공간에 설치된 우종택 작가의 「반영산수」는 자연의 본질을 탐구한 작가의 작품 세계관을 잘 나타낸 작품이다. 회화에서 보이는 강렬한 붓 터치를 유기적이면서도 유연한 흐름의 형상으로 펼쳐진 조형에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바위와 소나무가 조화되어 마치 평면적인 한 폭의 산수화가 현실의 공간에 등장한 듯한 현실감을 준다. 작품을 지나다 보면 매끈한 스테인리스 면에서 반사되는 모습과 변형된 이미지는 또 다른 조형미를 만들어내며, 회색의 안양파빌리온 벽면을 배경으로 계절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빛의 형상은 생동감 있는 예술성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삼선천 벽면에 설치된 링크 그룹의 「유닛(A unit)」 작품과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공간에 휴식과 독서를 할 수 있는 재활용 타이어를 활용한 이자스쿤 친치야(Izaskun Chinchilla)의 「보자기 라운지」 작품, APAP7 개막식 진행 등 해외 행사를 할 수 있는 국형걸의 「팔렛세움(Palletseum)」 작품이 전시 기간 중 설치되었다.

이전 대회와 다르게 대규모 실내 전시를 도입하여 야외 전시에서 소개하기 어려웠던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커뮤니티 아트 등의 미술 장르를 휴먼 스페이스, 에코 스페이스, 스마트 스페이스 섹션으로 구분하여 실내 전시 프로젝트로 총 43점이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본관동에 전시되었다.

실내 전시는 장소적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공공'의 의미를 시민과 대중이 재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전시와 연계하여 체험 프로그램과 편의 공간 구성 운영 등을 통해 다채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관람객에게 제공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공간었기에 전기, 동선, 창문 등의 시설 보완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 전시 공간에서 옛것의 모습을 얼마만큼 보여주고 작품과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등 관람객을 위한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불필요한 구조물을 철거하고 단전된 전기는 임시 전력으로 대체했으며, 각 방을 작품의 성격과 규모에 맞게 내부 공사를 거쳐 마무리했다. 출품작은 총 22개국 43점으로 회화·조각·설치·미디어아트 등의 미술

장르를 인간과 사회를 성찰하는 휴먼 스페이스, 인간과 생태를 성찰하는 에코 스페이스, 인간과 기술을 성찰하는 스마트 스페이스 섹션으로 구분하여 전시했다. 이와는 별도로 안양파비리온에서는 덴마크 작가 마리에 뭉크와 스티네 데아(Marie Munk & Stine Deja)의 「신성한 욕망」이란 작품을 선보여 인간과 기술의 관계, 기계를 통한 인간의 새로운 사회적 행동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마지막 메인 프로젝트는 앞에서 언급한 작품의 내용을 APAP7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감형 시청각 전시를 개최하여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전시를 운영했다. 포스트 프로젝트로는 APAP7 프렌즈 운영과 사후 간담회를 통해 지역 청년과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와 평가 기회를 마련했으며, 유물 발굴 등의 문제로 지연되었던 「비밀의 숲」 작품이 완성되어 작가와의 대화와 논의를 위한 작품 공개 기념식을 가짐으로써 APAP7을 마무리했다. 이 외에도 APAP7과 공공예술의 가치와 사례를 논의하는 국내외 학술 콘퍼런스, 작품 감상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이 함께 하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풍성한 프로젝트로 마무리되었다.

APAP7은 야외 작품과 실내 작품을 동시에 선보이는 전시 형식의 구조를 통해 공공예술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유관 및 협업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작가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했다. 더불어 방치된 도시 공간의 재생과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3. 공공예술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

APAP는 2005년 시작하여 20년간 일곱 차례의 대회를 개최하며 국내외적으로 안양시의 공공예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예술 분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또한 현대미술의 발전과 공공예술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공공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더불어 제도권 안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공공예술을 확장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공미술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APAP의 사례와 경험을 참고하는 등 공공예술이 정착하고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예술의 범주를 시민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술 대중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현재 APAP는 시 재정의 어려움과 시민들의 공감대 부족으로 점차 그 규모가 축소되어왔다. 이는 프로젝트의 양적 성과로 귀결되어 예술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한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각 국가와 지자체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에 안양의 문화적 가치를 지역 발전을 위한 원형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이다. 적지 않은 문제와 해결해 나아가야 할 사항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기반의 프로젝트로 자리를 잡아 국제 예술행사로 발전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APAP는 새로운 미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 발전과 미래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공공예술의 역할과 가치를 재정립하고 문화예술이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註

1 예술 등에서 표현과 창작의 동기가 되는 이유.
2 일상의 물품이나 자연물을 그대로 작품으로 제시하여 일상적 의미와는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3 구조물의 크기에 비해 대단히 얇은 재료로 만들어지는 곡면판상의 구조.
4 전시회 등에 이용되는 가설 건축물로 예술과 결합한 건축의 한 형태로 정자, 가설물 등을 뜻함.
5 일본의 예술가로 자신의 편집적 강박증을 그대로 작업방법으로 연결시킨 그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물방울 무늬를 통해 독특한 자기만의 예술세계를 구축.
6 여러 개의 기능적 구성요소(Module, 모듈)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확장하는 구조체.
7 예술의 생산과 소비가 지역 공동체 중심의 예술로 자발적인 참여와 결과보다는 실행과정과 의사결정 방식을 중요하는 예술 장르.
8 APAP 3회 도록 중 박경 감독 글.
9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사람.
10 물, 빛, 소리 등의 비물질적 요소로 이루어진 조각.
11 격식을 따르지 않고 변형시킨 축제성 공연을 말함.
12 APAP 홈페이지(https://apap.or.kr)
13 1999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설립된 건축그룹으로 주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함.

03 안양 **문화예술**의 **지역 활동**

제1장 안양의 문학
제2장 안양의 시각예술
제3장 안양의 공연예술
제4장 안양의 영화 산업

초창기 안양 문화예술 활동은 안양문화원과 안양예총 산하 각 문화예술 분야의 동아리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안양예총 창립 이전에는 대부분의 예술 활동이 안양문화원 행사와 함께 이루어졌다. 현재 안양예총을 중심으로 문인, 미술, 음악, 사진작가, 연예예술인, 연극, 무용, 국악 8개 협회의 전문 예술인들이 안양이라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1장

안양의 문학

장지섭 안양문인협회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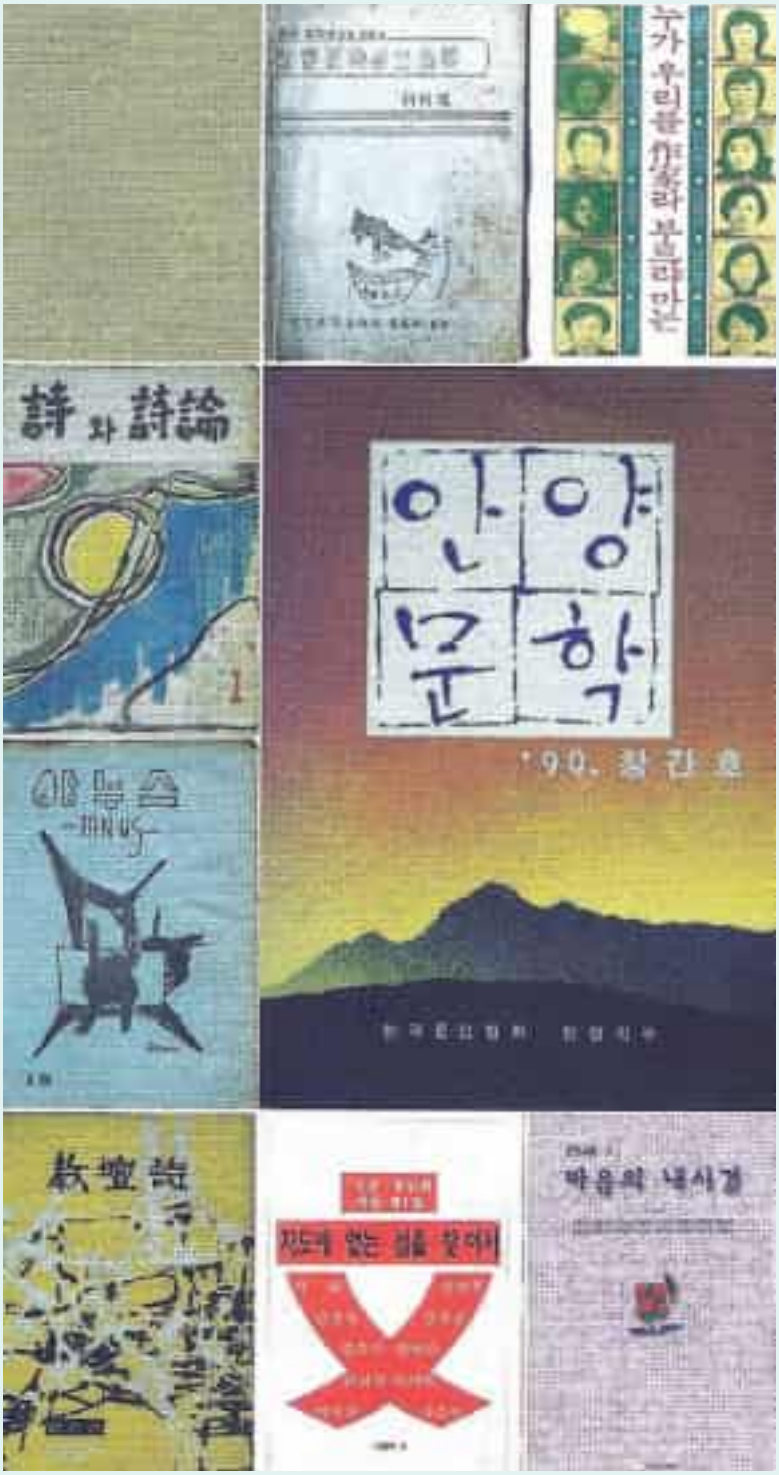
안양은 도시 형성과 발전의 후발성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분야에서 고려·조선 시대와의 전통 맥락을 찾아보기 매우 어렵고, 전해져 내려오는 옛 한시나 작품들도 안양 사람들의 작품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안양의 예술이나 문학 또한 '현대'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안양문학'이 70여 년 이상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큰 자산이라 여겨진다.

안양의 문학에 대해 집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오랜 기간 안양의 문학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역사적 고찰과 연구를 진행했던 고 김대규 시인의 저술 자료들인 「안양문단사」(『안양문화』3, 1984), 『안양시지』(1992) 예술 부문 중 문학, 『안양문학사』(2005), 『안양시사』(2008), 『안양문학 60년사』(2008) 등을 참고하였다. 다소 중복성을 피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최근에 집필된 『안양예총 30년사』(2022)에 수록된 '안양문인협회사'의 내용을 최대한 참고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먼저 안양의 문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안양문학이 있기까지의 문학적 배경과 전통 수립의 초석이 된 태동기의 문학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1. 안양의 문학적 배경

김대규 시인은 안양문학사를 정리할 때마다 안양문학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청포도』가 한 권도 남아 있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셨다. 『청포도』는 1947년 안양문학동인회가 결성되면서 발행된 책이다. 그런데 2018년 11월에 개관한 안성의 '박두진 문학관'에



『안양문학 60년사』 표지

서 『청포도』 제1집이 발견되어 초창기 안양문학 태동의 실마리를 풀어주었다. 그동안 1947년 8월 30일, 『동아일보』 신간 소개란의 기사로만 확인되었을 뿐, 자료가 전무했던 동인지 『청포도』에는 박두진, 설웅규, 박준석, 양순영, 송세영, 전재찬, 고의종, 서수옥 8명의 동인 이름과 주옥같은 작품들이 실려 있었다. 이는 1947년부터 안양에서 문학적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한 것으로, '안양문학'의 뿌리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8·15 광복 이전에는 '안양문학'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당시 안양지역에 거처를 마련한 이서구李瑞求, 채만식蔡萬植, 이무영李無影, 박두진朴斗鎭, 정귀영鄭貴永 등의 문인들은 '안양문학'의 초창기 선구자들이었으나, 한국문단에서 오로지 개인적인 활동만 했을 뿐이다. 따라서 '안양문학' 또는 '안양문단'이라는 어휘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1947년 「안양문학동인회」 결성과 이 동인회가 같은 해 8월에 창간한 동인지 『청포도』를 안양문학의 효시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문단의 주목을 받았던 1958년에 창간한 『시와 시론』이 실질적인 '안양문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다.

2. 안양문학 태동과 출범

모든 문화사의 태동기에는 선구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안양문학에서는 이서구, 채만식, 이무영 등이 그 역할을 했다. 아쉽게도 이들 모두 안양 출생은 아니다.

먼저 극작가 이서구(1899~1981)는 서울시 중구 출생이지만, 가문의 호주 상속 관계로 본적을 안양동 911-2로 옮김으로써 안양과 관계를 맺었다. 이서구는 『동아일보』 창간 기자(1920)를 거쳐 『조선일보』 동경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극단 토월회土月會의 창립 회원(1923), 조선연극협회장(1930), 한국무대예술원장(1949),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1959) 등을 역임하였으며, 희곡·시·수필·평론 등 문학의 전 장르에 걸쳐 작품활동을 했다. 그 가운데서도 방송극에 주력하여 「장희빈」, 「햇빛 쏟아지는 벌판」, 「강화도령」 등 30여 편의 작품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가요 '홍도야 우지마라'가 새겨진 그의 추모비가 시흥시 방산동 산 20의 가족 묘역에 건립되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안양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그는 안타깝게도 2002년 8월경 민족문학작가회의 및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친일문학인 42명의 명단에 포함되었다.

채만식(1902~1950)은 전북 옥구 출생으로, 1923년 일본 와세다대학 부속 고등학원을 중퇴한 이듬해 『조선문단』에 단편 「새길로」를 발표하여 문단에 데뷔하였다. 『조선일

보』·『동아일보』·『개벽』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1936년부터 창작에만 전념하였다. 그는 1940년 인천 송도에서 안양3동으로 이사를 왔다가 1946년에 이리로 낙향하여 폐결핵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290여 편의 작품을 발표하는 저력을 보였다. 특히 대표작인 장편소설 『탁류』가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1941년은 그가 안양에 거주하던 시기여서 '안양문학' 태동기의 빛나는 유작으로 간주한다.

소설가 이무영(1908~1960)은 충북 음성 출생으로 본명은 용구龍九다. 그는 일본 유학 중이던 1926년 19세의 나이로 장편 『의지依支 없는 영혼』을, 다음 해에 장편 『폐허』를 발간하여 조숙한 소설가로 출발하였다. 그가 안양지역과 관계를 맺은 것은 1939년부터 1950년까지 현재 군포1동 당말터널 입구인 '이구랑'에서 살게 된 까닭이다. 당시 행정구역상 안양지역'으로 통칭되던 이곳에서 그는 인양문학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안양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농민』, 『흙의 노예』, 『제1과 제1장』 등 한국 농촌소설의 대표작들이 이 기간에 발표되었고, 「군포장 깍두기」라는 수필도 쓴 바 있다. 단국대 국문과 교수로 후학 양성에 심혈을 쏟던 이무영은 1960년 단편 「범선에의 길」 발표를 마지막으로 뇌내출혈로 타계하였다. 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작품비作品碑'가 군포시 능안공원에 건립되어 있다.

이상의 세 문인이 안양문학사의 태동기를 빛내고 있는 인물들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출범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시인 박두진과 평론가 정귀영을 꼽는다. '안양문학' 또는 '안양문단'이라는 말이 공식화되기 시작한 1947년 「안양문학동인회」 결성과 동인지 『청포도』 발간을 안양문학 출범기의 원년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청록파 시인의 한 사람인 박두진(1916~1998)은 위의 세 문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안양과 인연을 맺었다. 경기 안성 출생인 박두진은 1939년, 『문장』지를 통해 등단한 직후인 1942년 8월 안양으로 이주해 금융조합 사무직으로 취업하였다. 1944년 가족 5명 모두가 안양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1947년에는 장로에 장립되었다.

박두진은 장로 장립 이후 삼덕제지 서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문학사에 두 가지 중요한 족적을 남겼다. 그 하나가 한국 시문학사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청록집』의 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안양문학의 모태가 된 '안양문학동인회'의 결성과 동인지 『청포도』의 창간이다.

『청록집』은 1946년에 발간되었는데, 이는 박두진이 안양에서 시작詩作에 전념하던 때이고, 『청록집』에 수록된 12편의 시를 탈고한 것으로 볼 때, 안양문학에서 박두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가 1947년 안양문학동인회를 결성하고, 동

안양감리교회 박두진 장로 장립식(1947)

인지 『청포도』를 창간한 것은 안양문학의 시작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받아야 할 점이다.

안양문학의 효시로 불리는 안양문학동인회의 동인지 『청포도』는 "1947년 8월 30일 『동아일보』 신간 소개"란에 게재된 기사에서 처음 존재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6·25 전쟁으로 소실된 것으로만 알려져 왔다. 그러다 최근에 우연히 발견되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두진은 1950년 초에 서울로 이주하여 안양에서의 삶이 비록 길지는 않았지만, 안양문학동인회 결성과 동인지 『청포도』 창간의 주역이며, 『청록집』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을 안양에서 썼다는 점에서 안양문학사의 출범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사실 박두진 시인보다 안양문단의 초창기를 빛낸 사람은 평론가 정귀영이다.

정귀영(1916~2013)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이 고장 출신은 아니지만, 일찍이 안양에 정착하여 2013년 작고할 때까지 평생을 안양에서 문학활동을 하였다. 1942년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1952년 안양여중고의 교감으로 부임하면서 교직 생활을 시작한 정귀영은 1949년 『교국敎國』지에 「창조하는 계산」을 발표하면서 평론가로 등단했였으며,

『청포도』 표지(1947월 8월 5일 발간)

1958년 『詩와 詩論』 창간 멤버로 안양을 전국 지방문학의 메카로 부각시킨 주인공이다. 당시 안양에 거주하던 김창직·노영수·성기조 시인과 더불어 이 고장에 문학의 씨를 뿌리기 시작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지방문학이 미미하던 시절, 그들의 활동은 작은 전원마을이었던 안양에 예술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정귀영은 2013년 노환으로 별세하였으며, 안양여중고 교정에 그의 교가 작사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詩와 詩論』 창간호(1958)

1958년 4월 20일 『詩와 詩論』의 창간은 한국 문학사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당시 시 전문 잡지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편집위원을 동인으로 하고 외부 원고를 폭넓게 수록해 주목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범문단 시지가 지방의 작은 도시 안양에서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詩와 詩論』의 활동은 1958년에서부터 1972년까지 활발하게 전개되어 안양문학의 황금기를 이루었

『詩와 詩論』동인들(1969)

다. 정귀영·김창직·성기조·노영수 등이 주도했던 제6집(1966)까지를 『詩와 詩論』전기 동인으로, 김대규· 최계식 등이 이어받아 속간한 제7집(1966)부터 제26집(1972)까지를 후기 동인으로 구분한다.

『詩와 詩論』활동에서 주목할 점은 1960년 9월에 발행된 제3집에 실린 정귀영·김창직·노영수 3인의 공동명의 「知性의 宣言」이라는 서문이 우리나라의 문학사에 기록될 만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안양'이 지방문학의 요람으로 급부상하는 계기를 만든 점과, 1967년 7월 발간한 제10집에 발표한 「한국 시단에의 공개제언」이라는 장문의 성명서를 통해 당시 '한국시단의 독립선언서'로 불리며 '안양'을 새로운 시 정신의 산실로 부각시킨 점이다.

이 기간 안양에서는 비교적 젊은 층들이 모여 1963년 9월에 동인지 『야누스』 제1집을 발간하며 활동했던 야누스 동인회와,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1967년 5월 동인지 『교단시』를 발간하며 활동했던 교단시 동인회가 있다.

지역에서는 1970년 1월 10일 윤필노, 유해엽, 전귀설, 김대규, 박유선 등 10여 명에 의해 안양문화원이 공식 발족하고, 초대 회장에 이상윤을 선임하였다.

3. 안양문학의 형성과 한국문인협회 안양지부의 창립

안양의 문학이 실질적으로 형성된 시기는 한국문인협회 안양지부(이하 안양문인협회)의 창립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詩와 詩論』의 퇴장과 더불어 안양문학이 침체에 빠지자 정귀영, 노영수, 김대규, 최계식, 이세종 등은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문인협회 안양지부의 설립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1971년 4월 5일 결성식을 진행하며 출범하였고, 1972년 3월 1일, 총회를 개최하며 정식 창립하게 되었다. 총회에서는 그동안 『詩와 詩論』 동인회 활동으로 안양문단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김대규가 초대 지부장을, 최계식과 이세종이 부지부장을, 지역 선후배 관계로 화가였지만 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홍사영이 사무국장에 선임되었다. 또한 『詩와 詩論』 전·후기 동인으로 활동했던 정귀영, 김창직, 노영수, 안진호, 송인식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였다.

안양문인협회 창립을 주도한 『詩와 詩論』 동인회는 6월 20일 『詩와 詩論』 제26집을 발간하였다. 그때까지 동인회의 역사로 보나 활동으로 보나, 지령誌齡으로 보더라도 한국문단의 선두 주자로서 안양의 대명사代名詞가 되었다는 것은 실로 쾌거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장 발전의 한계와 지방 동인지가 숙명적으로 안고 있던 난관을 극복하지 못한 채, 또다시 동면冬眠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이후 복간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더는 안양에서 발행되지 못하고 성기조에 의해 안양을 떠나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다. 김대규 시인의 회고 기록에 따르면, 몇몇 동인들이 『詩와 詩論』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모색했으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타결이 무산되었다. 1979년 성기조가 『詩와 詩論』 동인회의 재편성을 제안하였고, 신·구 동인들의 회의 끝에 김대규 시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인들이 서울 이관에 찬동하였다. 당시 김대규 시인은 안양에서의 발행을 지켜내지 못한 상실감과 다른 동인들의 사전 묵계에 대한 배반감, 문단의 병폐에 대한 회의로 동인회 탈퇴까지 고심하였다.

김대규 시인이 집필한 『안양문단사』에서 당시 서울 이전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추후에 지면을 통해 밝히겠다고 언급하였지만, 이후 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없었고 지금은 작고한 터라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일개 지방 동인지가 한국문학에 끼친 영향은 낮추어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72년 『詩와 詩論』이 동면하는 동안, 당시 고등학교 재학생이던 배준석의 주도로 결성된 학생 문예서클인 낙엽문학동인회가 8월 25일 동인지 『낙엽문학』 창간호를 발행하며, 안양문학의 동인지의 맥을 잇고 동인회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안양문인협회는 창립기념 사업으로 지역 내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대회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당시 먼저 설립된 안양문화원에서도 문화사업의 하나로 백일장대회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문화원 측과 합의하여, 1972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안양문화원 주최, 안양문인협회 주관으로 '제1회 관악백일장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안양문인협회의 첫 사업으로 동인회 주도 시대를 마감하고, 문인협회주도의 새로운 문학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안양문인협회는 협회의 기틀을 다지며 1973년 10월 9일 제2회, 1974년 10월 9일 제3회 관악백일장대회를 진행하였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학 강연회와 주기적인 회원 모임을 이어나갔다.

1975년 2월 정기총회에서는 김대규를 제2대 지부장으로, 최계식·이세종을 부지부장으로 , 홍사영을 사무국장으로 그대로 유임시켰다. 10월 9일 '제4회 관악백일장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12월 10일에는 출범한 지 5년 만에 (사)한국문인협회로부터 안양지부로 정식 승인을 받았다. 1976년과 1977년에도 제5회, 제6회 관악백일장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협회의 활동 기반을 성실하게 다져나갔다.

4. 안양문학의 전환기

제1회 안양시 여성글짓기 대회(1978)

1978년 2월 14일, 안양문인협회는 정기총회를 열어 김대규 지부장과 최계식·이세종 부지부장을 연임시키고, 당시 낙엽문학동인회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배준석을 새로운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였다. 5월 9일, 가정의 달을 맞아 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안양문인협회가 주관한 '제1회 안양시 여성글짓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안양시 아동여성과 과장 정어진의 전폭적인 지원과 김대규 지부장의 열정이 만들어낸 안양시여성글짓기대회는 안양지역 여성 문인 발굴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해냈으며, 그해 10월 9일 대회 입상자들을 모아 안양여성문우회(현 안양여성문인회)를 창립하였

다. 김대규 시인의 지도 아래 발족한 안양여성문우회는 주부들만의 문학모임이라는 특이점도 있지만, 시·수필·동화·소설 등 다양한 문학 장르에서 활동하며 이후 안양문학의 중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979년 12월, 안양의 관악산과 쌍벽을 이루는 수리산의 이름을 딴 '수리시동인회'가 창립되었다. 당초 문학, 음악, 미술 등을 포함하는 예술 동호인의 모임으로 출발한 수리시동인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후 시詩 전문 동인회로 변모하였다. 기형도, 박인옥, 김우식, 유재복, 강미경, 이재학, 윤봉기, 홍순창 등이 동인으로 참여해 독자들과 직접 대화하는 현장 문학 시 운동에 주력하였으며, 동인지 『그날 저녁 꽃불이 떨어지는 하늘을 배경으로』라는 제목으로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1980년 초, 안양문단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문인협회 회원 장태범이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문에 당선된 것이다. 문인협회는 1981년 2월 정기총회에서 기존 임원진을 그대로 유임시켰다. 김대규 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지역문학 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그 노력의 성과로 1981년 9월 25일, '안양근로문학동인회'가 창립되었다. 당시 안양상공회의소에 재직 중이던 김대규 시인의 제안과 노력으로 1980년 안양상공회의소는 '근로문학상'을 제정하였고, 그 문학상 수상자와 응모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것이 바로 안양근로문학동인회(현 글길문학동인회)다. 김대규 시인과 안진호 시인의 지도 아래 초대 회장 한석홍, 부회장 김세진·이필분, 총무 이재선이 활동을 시작한 안양근로문학동인회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창립을 기념해 '제1회 근로문학 시화전'과 '조병화 시인 초청 문학 강연회'를 개최하고, 동인지 『근로문학』 제1집을 창간, 발행하였다.

1982년 문인협회 회원인 김영희가 『경향신문』 신춘문예 동화 부문에 당선되었으며, 협회는 10월 9일 제11회 관악백일장대회를 개최하였다. 10월 23일에는 시상식과 함께 '관악문학의 밤' 행사를 마련하여 예술원장 소설가 김동리 선생과 한국현대시인협회장인 문덕수 시인을 초청하여 특별강연회를 진행하였다. 1983년 10월 9일, 문인협회는 현충탑에서 제12회 관악백일장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안양시 관내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 1300여 명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심사를 통해 149명의 입상자를 선정하였으며, 11월 3일 시상식과 함께 합평회를 진행하였다.

1984년에는 지역 문학 동인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안양여성문우회, 근로문학동인회, 낙엽문학동인회가 연이어 동인지를 발행하였으며, 특히 근로문학동인회는 KBS 제2TV 〈사랑방 중계〉에 동인회 활동이 방송되기도 하였다. 1985년 수리시동인회로 활

동하고 있던 기형도가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었고, 안양여성문우회에서 회원 조한순이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화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1986년 지역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안양문화원은 안양시에 종합문화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원로와 문화예술계 인사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정조대왕이 세운 '만안교'의 역사적 유래를 반영하여 '만안문화제'로 명명된 이 축제는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첫 회를 개최하였다. 문인협회는 만안문화제의 일환으로 10월 9일 오전 10시, 현충탑에서 제15회 관악백일장대회를 주관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안양시 관내 학생과 일반인 약 2000여 명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오후 6시 30분에는 안양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정을병 소설가의 초청 문학 강연회와 협회 회원의 시 낭송회를 개최하였다.

1987년 문인협회는 10월 13일 제2회 만안문화제의 일환으로 안양시 현충탑에서 제16회 관악백일장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안양시내 대양빌딩 전시장에서 협회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로는 처음으로 〈안양문인 합동시화전〉을 열었다. 그해 11월 5일, 안양에서 시조로 작품 활동을 하던 안의선, 전현하, 임영석, 이상섭, 이남식 5인이 '잉벌시조문학회'를 창립하였다. 고구려 시대에 사용한 안양의 옛 지명인 '잉벌'을 차용한 잉벌시조문학회는 당시 시조 동인회가 없던 안양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88 신춘문예 당선자 시상식

1988년 초, 문인협회 회원이자 안양여성문우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종희가 『경인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었다. 해마다 안양의 문학계에 전해지는 신춘문예 당선 소식에 김대규 지부장과 협회는 1월 20일, '88 신춘문예 당선자 시상식'을 열어 축하의 뜻을 전하였다. 9월에는 안양문화원 주최로 제3회 만안문화제가 열렸으며, 문인협회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안양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안양문인 합동시화전〉을 진행하였다. 이어 10월 9일에는 안양시 현충탑에서 제17회 관악백일장대회가 개최되었다.

1989년 문인협회 회원이자 낙엽문학동인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김기택이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었다. 협회는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안양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안양문인 합동시화전〉을 개최하였고, 10월 9일에는 현충탑에서 제18회 관악백일장을 열었다. 그동안 안양문화원이 주최하고 문인협회가 주관해왔던 백일장이 이때부터 안양문인협회 단독으로 주최·주관하는 대회로 바뀌며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였다.

1990년 초 안양여성문우회 소속 문인협회 회원 백종선이 『경인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4월 10일, 문인협회 회원 신광순이 시 전문 무크지 『기호문학』을 창간한다. 『기호문학』은 안양에서 발행된 최초의 시 전문 계간지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 무렵 문인협회를 비롯해 안양문화예술계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그동안 지역 문화예술계의 숙원이었던 안양예총이 6월 18일 창립된 것이다.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사진작가협회, 연극협회, 연예협회를 정식 단체로 하고, 본부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한 무용협회를 참관단체로 구성한 안양예총은 창립총회에서 문인협회 지부장인 김대규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사무국장에 배준석을 선임한다. 이로써 지역 문화예술계에 든든한 구심점이 생긴 것이다. 이어 7월 31일, 문인협회 기관지 『안양문학』이 창간되었다. 김대규 지부장과 협회 회원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이 결과는 문인협회 창립후 근 2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였다. 김대규 지부장은 창간사에서 "만시지탄의 자책감이 깊다"라고 쓸 정도로 안타까움을 표하였다. 하지만 문인협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5. 안양문학의 정착과 발전

1991년 5월 지역 문단의 안양여성문우회가 화요문학동인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요문학』 제1집을 발행한다. 10월에 창립 1주년을 맞은 안양예총은 그동안 안양문화원

에서 주최하던 '만안문화제'의 예술행사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안양예술큰잔치'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 참여한 문인협회는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안양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기존 〈안양문인 합동시화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안양문인협회 회원 시화전〉을 처음 열었다. 11월 25일 지역에서는 안양시 최초의 종합 문예지인 『열린문학』이 창간된다. '수리시'동인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열린문학』은 문학계와 출판계의 폭넓은 정보 제공과 신문 지면에 의지하던 문예 진흥의 한계성을 타파하여 지역문학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문인협회 박인옥이 발행인을, 홍순창이 편집인을 맡아 발행되었다.

1992년 5월, 안양예총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제1회 안양예술제'를 개최한다. 문인협회는 예술제에 참여하여,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안양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안양문인협회 회원 시화전〉을 열었다. 이어 10월 9일 삼림욕장 내 한마음 놀이터에서 제21회 관악백일장대회를 개최하고, 10월 30일 시상식을 한 뒤 입상 작품집 『세상 노래 다 듣고』를 발행하였으며, 11월 30일 『안양문학』 제3집을 발행하였다.

1993년 1월 문인협회 회원인 화요문학동인회의 김성금이 『문화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에 당선되었고, 협회는 5월 13일부터 안양예총이 주최한 제2회 안양예술제에 참여하여 안양문예회관 소강당에서 '봄밤, 시 낭송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안양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안양지역에서 발간 도서전'을 열었다. 1993년 정부가 지정한 '책의 해'를 맞아 개최된 도서전은 그동안 안양지역에서 발간된 각종 도서와 문예지 등 1000여 권을 전시하였다. 10월 7일, 안양6동에 있는 한마음 놀이터에서 제22회 관악백일장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 초·중·고 학생 및 일반 시민 14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1994년 5월 25일 문인협회에 비보가 전해졌다. 당시 협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왕성하게 활동하던 안진호 시인의 타계 소식이었다. 예기치 못한 안진호 시인의 타계 소식에 문인협회는 물론 지역 문화예술계가 비통에 잠겼다. 5월 27일 경기도 광주군 한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故 안진호 시인 영결식

1995년 초, 문인협회 김대규 지부장이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회 지회장에 당선되어 취임하였고, 박인옥 시

인이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다. 10월 6일에는 제24회 관악백일장이 평촌중앙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11월 3일에는 시상식과 함께 입상 작품집 『습기찬 시선을 꽂고』를 발행하였다. 11월 20일에는 『안양문학』 제6집을 발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1996년 정부가 지정한 '문학의 해'를 맞이하여 문인협회는 다채로운 문학 행사를 개최한다. 4월 27일 안양문예회관 대강당에서 '문학의 해' 기념으로 영화 〈태백산맥〉을 상영하여 안양시민 500여 명이 무료로 관람하였다. 이어 5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안양문예회관 전시실에서 4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시화전을 열었고, 전시장에 도서대를 설치해 '안양지역 발간 도서전'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도서전에는 지역에서 발간된 총 200여 종의 시집, 동인지, 문예지 등 1000여 권이 전시되어 성황을 이뤘다. 9월 20일에는 문인협회 사무국장인 배준석이 안양지역 최초의 여성 문예지 『문학산책』을 창간하였으며, 9월 24일에는 문인협회에서 기관지 『안양문학』 제7집을 발행하였다. 10월 9일 평촌중앙공원에서 열린 제25회 관악백일장대회에는 관내 초·중·고 학생과 일반 시민 16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11월 1일에는 안양문예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문학의 해'기념행사로 제1회 안양시민시낭송대회가 처음 개최되었다.

1997년에는 5월 7일 안양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제6회 안양예술제의 일환으로 문인협회 주최의 '봄밤 시 낭송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어 5월 30일 김대규 시인의 지도로 '문향동인회'가 창립되었다. 이 동인회는 동안구청 문학창작교실에서 활동한 주부들로 구성되었으며, 곽금·김문경·김산옥·신명옥·신정균·양영순·이미원·이충숙·이희영·허자경 등의 동인이 참여하였다. 1998년에는 문인협회가 제7회 안양예술제의 행사로 6월 25일 안양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초여름 밤의 시 낭송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9일에는 평촌중앙공원에서 제27회 관악백일장대회를, 10월 24일에는 안양문예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3회 안양시민시낭송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 30일에는 기관지 『안양문학』 제9집을 발행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1999년에는 문인협회가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안양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지역 문인들이 발간한 작품집들을 모은 '안양지역 문인 발간 도서전'을 개최하였다.

새로운 천년의 문이 열리는 2000년 1월 20일, 배준석 시인의 지도로 '안양여성문학회'가 창립되었다. 이는 안양지역 여성문학의 기반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2001년 들어 문인협회는 5월 16일 제10회 안양예술제 행사로 안양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봄밤 시 낭송회를 열었고, 10월 9일에는 안양시청 강당에서 제30회 관악백일장대회를 개최하였다. 11월 9일에는 안양문예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관악백일장

시상식을 겸해 제6회 안양시민시낭송대회를 진행하였으며, 11월 15일에는 『안양문학』 제12집을 발행하였다.

2002년 새해, 지역 문단에 기쁜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 문인협회 회원이자 근로문학동인회에서 활동하던 석철환이 『농민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화요문학회에서 활동하던 강현자가 『전북일보』 신춘문예 수필 부문에 당선되었다. 이 무렵 안양시는 새롭게 안양시민축제를 출범시키면서 안양예총과 안양문화원에서 각각 진행해오던 안양예술제와 만안문화제의 중복성을 문제 삼아, 두 예술제를 통합하여 '안양문화예술제'를 선보였다. 안양예총과 안양문화원이 공동 주최한 안양문화예술제의 하나로 문인협회는 5월 22일 안양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봄밤 시 낭송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10월 9일 평촌중앙공원에서 제31회 관악백일장대회를 성황리에 마쳤고, 11월 2일에는 제7회 안양시민시낭송대회를, 11월 12일에는 『안양문학』 제13집을 발행하였다.

2003년 들어 5월 13일, 배준석 시인의 지도로 동안여성회관에서 수필창작 수업을 받던 회원들을 중심으로 '안양수필문학회'가 창립되었다. 회장은 최예옥이 맡았다. 8월 30일에는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회에서 『경기도 문단사』가 발간되었다. 이 책에는 김대규 문인협회 지부장이 집필한 「안양문인협회 약사」가 17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었다. 2004년 5월 7일에는 문학산책문인회가 첫 사화집 『그녀가 말을 건다』를 발행하였으며, 문인협회는 안양문화예술제 일환으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안양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안양문인협회 시화전〉을 열었다. 그동안 예술제 행사로 개최되던 '봄밤 시 낭송회'가 중단되었고, 이때부터 시화전이 예술제의 문인협회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5월 30일에는 안양수필문학회가 첫 동인지 『안양수필-마음의 내시경』을 발행하였다.

2005년 2월 25일, 문인협회는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제12대 지부장에 김대규를 유임시키고, 최계식·이세종을 고문으로 위촉하였으며, 신임 부지부장으로 정동수·배준석을, 사무국장에 박인옥을 선임하였다. 지역에서는 7월 2일, 배준석 시인의 지도로 문인협회 회원인 김말희를 회장으로 토요수필문학회를 창립하였다. 문인협회는 12월 9일 안양문예회관 컨벤션홀에서 제10회 안양시민시낭송대회를 개최하였고, 김대규 지부장이 집필한 향토문학연구시론 『안양문학사』를 발간하였으며, 12월 31일 『안양문학』 제16집을 발행하였다.

2006년 초, 문인협회 정용화 회원이 『대전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어 지역문단에 기쁨을 선사하였으며,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안양문화예술제에 참여한 문인협회가 안양문인협회 시화전을 안양 대표 서점인 대동문고와 평촌중앙공원에서 연이어

『안양문학 60년사』 발행

개최해 시민들에게 문학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7년에는 지역 문단에서 2000년 초 창립한 '안양여성문학회'가 9월 20일, 출범한 지 8년 만에 첫 동인지 『안양시학』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10월 23일에는 문인협회가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제36회 관악백일장대회를 열었으며, 12월 29일에는 안양예술공원 카페 '자유인'에서 제12회 안양시민시낭송대회를 개최하고, 12월 31일 『안양문학』 제18집을 발행하였다.

2008년 2월 25일 문인협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3대 지부장에 김대규를 연임시키며, 현 임원진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안양문예회관 로비에서 안양문인협회 시화전을 열고, 10월 22일에는 우천 관계로 안양시청 강당에서 제37회 관악백일장대회를 진행하였다. 12월 30일에는 2005년부터 활동한 토요수필문학회가 첫 시화집 『토요수필』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같은 날, 문인협회는 안양문단에 기념비적인 『안양문학 60년사』를 발간하였다.

2009년 들어 문인협회는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안양문화예술제 일환으로 삼덕공원에서 〈안양문인협회 시화전〉을 개최하였다. 비록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라 전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많은 시민이 관람하여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이 무렵 신종인플루엔자의 대유행으로 제38회 관악백일장은 우편 공모로 개최되었다.

안양문인협회 정기총회 모습(2010)

제1회 안양·군포 문인 등반한마당 모습(2010)

2010년 초, 안양지역 문화예술의 선구자이자 안양문학의 상징과도 같았던 김대규 지부장이 문인협회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면서 4월 29일, 그랑팰리스웨딩홀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제14대 지부장으로 정동수 소설가를, 부지부장에 배준석·박인옥·장순금을, 감사에 홍미숙·허인혜를, 사무국장에 장호수(현 장지섭)를 선임하였다. 이후 협회는 5월 14일 첫 이사회를 개최하여 김대규 전 지부장을 명예회장에 추대하고, 고문에 최계식·정태륭·방극인·이세종·신규호 등 5인을 위촉하였다.

새롭게 조직을 정비한 문인협회는 제19회 안양예술제에 참가하여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안양아트센터 갤러리 미담에서 〈2010 안양문인협회 회원 시화전〉을 개최하였으며, 시화전에는 회원 75명의 시화가 전시되었다. 그 무렵 문인협회의 장순금 부지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였다. 이어 10월 22일 삼덕공원에서 제39회 관악백일장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24일에는 수리산에서 '제1회 안양·군포 문인 등반한마당'을 진행하였다. 안양문인협회와 군포문인협회 회원들의 친목과 교류를 위해 처음 진행된 이 행사는 양 협회 회원들이 참여해 친목을 다졌다. 12월 3일에는 안양문화원 강당에서 제15회 안양시민 시낭송대회를, 12월 27일에는 평촌에 있는 그랑팰리스웨딩홀에서 '2010년 안양문인협회 송년회 및 안양문학 제21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송년회는 협회 설립 이후 회원들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2011년 들어 문인협회는 2월 25일, 안양문화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공석이었던 부회장에 이숙희를 선출하였다. 4월 24일에는 수리산에서 군포문인협회와 함께 제2회 안양·군포 문인 등반한마당을 개최하였다.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안양아트센터 갤러리 미담에서 제20회 안양예술제의 일환으로 〈2011 안양문인협회 회원 시화전〉을 열었으며, 전시회 도록을 제작하여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였다. 12월 2일에는 안양문화원 강당에서 제16회 안양시민 시낭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17일에는 『안양문학』 제22집을 발행하고, 평촌에 있는 그랑팰리스웨딩홀에서 처음으로 군포문인협회와 공동으로 '2011년 안양·군포문협 통합 송년회 및 『안양문학』 제22집·『시민문학』 출판기념회'를

안양·군포문협 통합 송년회(2011)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양 지역 문인협회의 소통과 교류를 상징하는 첫 행사로 지역 문학사에 의미 있는 행사로 볼 수 있다.

2012년 문인협회는 2월 25일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4월 15일 오전 11시에 수리산에서 군포문인협회와 함께 제4회 안양·군포 문인 등반한마당을 진행하였다. 이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21회 안양예술제의 일환으로 평촌 로데오거리의 전시공간에서 미술협회, 사진협회와 함께 〈어울림 갤러리〉에 참여하여 시화 30점을 전시하였다. 6월 8일부터 13일까지는 안양아트센터 갤러리 미담에서 〈2012년 안양문인협회 시화전〉을 열고, 10월 19일에는 평촌중앙공원에서 관내 학생 및 일반 시민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1회 관악백일장대회를 개최하였다. 11월 30일에는 안양문화원 강당에서 제17회 안양시민 시낭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12월 21일 그랑팰리스웨딩홀에서 2012년 안양문협 송년회 및 『안양문학』 제23집 출판기념회를 열고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2013년 문인협회는 2월 22일 안양문화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새롭게 박인옥 부회장을 제15대 지부장으로 선출하였으며, 감사로 박공수·조은숙을, 부지부장으로 이숙희·홍미숙·허인혜를 선임하고, 장지섭은 사무국장으로 유임되었다. 박인옥 신임 지부장의 선출은 안양문학의 형성과 전환기를 이끌었고 문인협회 창립 주역인 1세대의 퇴장

석수도서관 안양작가 자료 코너 개소식(2014)

과 새롭게 안양문학의 정착과 발전기의 주역인 2세대로의 교체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분기점으로 보여진다. 6월 4일 『詩와 詩論』 창립 주역이자, 안양문단의 태동과 함께 초창기를 빛낸 정귀영 시인이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협회는 김대규 명예회장을 중심으로 조문단을 꾸려 시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였다. 11월 30일 안양문화원 강당에서 개최된 제18회 전국안양시낭송대회는 기존 시민 대상 대회에서 전국대회로 확대되어 안양문학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11월 10일 석수도서관 주최로 '안양 작가 자료 코너' 개소식이 열렸다. 문인협회의 협조를 받아 조성된 이 코너는 안양 지역 문인 65명의 저서 192종 807권과 8개 지역문학 단체 소개 패널을 2층 공간에 전시해 지역 시민들에게 지역 문학을 알리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11월 29일에는 안양문화원 강당에서 제19회 전국안양시낭송대회가 개최되어 전국의 시 낭송 애호가들이 열띤 경연을 펼쳤다.

2015년 들어 4월 25일 삼덕공원에서 문인협회 주최로 제35회 안양시 여성백일장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1978년 안양여성글짓기대회로 시작되어, 1987년 '안양여성기능경진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1년 제34회 '안양여성능력개발솜씨대회'를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문인협회가 이관 받아 부활시킨 행사로 지역 여성 문사 발굴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안양아트센터 갤러리 미담에서 〈2015년 안양문인협회 시화전〉이 열렸다. 앞서 문인협회와 석수도서관은 지역작가와 시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안양작가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4월 30일 김대규 시인을 시작으로 11월까지 8개월간 14명의 문인협회 소속 작가들과 시민들이 소중한 만남을 이어갔다.

2016년 3월 4일 문인협회는 안양문화원 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제16대 임원선거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박인옥 회장과 이숙희·홍미숙·허인혜 부회장이 재선출되었고, 박공수·조은숙 감사, 장지섭 사무국장도 유임되었다. 정관 개정으로 부회장 정원이 5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김미자, 김산옥이 새롭게 부회장에 선임되었다. 10월 14일에는 평촌중앙공원에서 관내 학생 및 일반시민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5회 관악백일장이 개최되었고,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평촌중앙공원에서 '제1회 안양시 인문난장'이 인문축제로 열려 문인협회 회원 도서전을 비롯한 시화전, 시낭송 등이 진행되었다. 10월 25일 평촌아트홀에서 열린 안양시 늘푸른합창단 창립 10주년 공연에서는 문인협회 김대규, 최계식, 이숙희 시인의 작품이 처음으로 가곡으로 작곡되어 공연되었다.

2017년 7월 17일, 문인협회 고문 이세종 시인의 별세 소식을 접하였다. 김대규 명예

제1기 문학해설사 양성과정 개강식(2017)

회장을 중심으로 조문단을 꾸려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모금한 위로금을 전달하였다. 고 이세종 고문은 『詩와 詩論』 동인으로 활동하였으며 문인협회 창립의 주역이었다.

한편 7월 19일 문인협회는 삼덕도서관에서 제1기 문학해설사(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개강식을 진행하였다. 안양시 미래인재교육센터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문학해설사 프로그램은 안양문인협회가 기획하고 개발한 전국 최초의 문학 해설 프로그램으로 60여 명의 신청자 중 30명을 선정하여 11월 18일까지 총 12회 강의를 진행해 28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이어 12월 1일 평촌아트홀에서 제1회 송년콘서트 '시와 음악의 수다'가 안양음악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어 문학과 음악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협업 예술의 전형을 제시하였다. 12월 28일 포시즌코리아에서 안양예총이 주최한 '예술인의 밤' 행사에서는 김대규 명예회장과 장지섭 사무국장이 공로패를 받았으며,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지역 예술인들과 교류하며 친목을 다졌다.

2018년 초, 문인협회 회원이자 글길문학동인회 소속 신준희 시인이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조 부문에 당선되면서 지역 문단에 큰 기쁨을 선사하였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3월 24일 안양지역 문화예술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그날 0시 35분, 안양문학과 안양문화예술의 상징과도 같았던 김대규 시인이 끝내 지병을 극복하지 못하

고 김대규 시인 영결식 모습

고 77세로 별세하셨다. 안양샘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문인협회와 안양예총을 비롯한 안양지역 시민사회 각계각층이 애도를 표하며 '고 김대규 시인 안양예술인장 장례위원회'가 꾸려졌다. 3월 26일 오전 8시 30분, 협회 회원과 안양지역 문화예술인, 지역 시민사회 인사들, 최대호 안양시장과 이필운 전임 안양시장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결식이 거행되었고, 안양이 낳은 천재 시인은 시흥시 능곡동 부모님 묘소 앞 채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영면하였다.

이어 문인협회는 6월 23일 평촌중앙공원에서 제38회 안양시 여성백일장대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9일부터 14일까지 평촌에 있는 금강펜테리움 로비에서 '일터에서 시화를 만나다'란 부제로 〈2018년 안양문인협회 시화전〉을 진행하였다. 또한 7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제1기 문학해설사 양성과정 수료자 중 15명을 선정해 '제1기 문학해설사 심화과정'을 진행한 결과 총 14명이 수료하고 정식 '문학해설사'로 배출되었다. 12월 19일에는 안양예술인센터에서 '2018년 안양문협 송년회 및 『안양문학』 제29집 출판기념회'가 열렸으며, 12월 31일에는 지난 6년 동안 문인협회를 이끌었던 박인옥 회장이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보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안양문학의 성공적인 정착과 함께 2세대를 통해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2019년 안양문인협회 정기총회

6. 안양문학의 현재와 현황

2019년 초, 문인협회를 이끌었던 박인옥 전 회장이 지역 문화예술계의 축하를 받으며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문인협회는 이숙희 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2월 22일 안양예술인센터에서 열린 2019년 정기총회 및 제17대 임원선거에서 신임 회장에 홍미숙, 부회장에 김미자·김산옥·김성금·장지섭·허인혜, 감사에 조은숙·정용채가 감사로 선임되며, 안양문학에 새로운 변화를 맞는다.

이 무렵 문인협회와 안양예총, 지역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중심으로 '고 김대규 시인 1주기 추모위원회'가 꾸려졌고, 3월 24일 오후 3시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안양지역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故 김대규 시인 1주기 추모 및 유고 시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지역 문화예술계의 숙원 사업인 '김대규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였다.

4월 20일 문인협회는 안양아트센터 야외무대에서 '고 김대규 시인 「엽서」 시비詩碑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계 및 시민사회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지역 출신 시인의 시비가 지역 최초로 아트센터 앞 작은

김대규 시인 1주기 추모식(2019.03.24)

공간에 세워졌다. 6월 15일에는 평촌중앙공원에서 문인협회 주최로 제39회 안양시 여성백일장대회가 열렸으며,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안양아트센터 갤러리 미담에서 '일상에서 시화를 만나다'란 부제로 〈2019년 안양문인협회 시화전〉이 개최되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연기되었던 '제28회 안양예술제'가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평촌중앙공원에서 펼쳐졌으며, 문인협회는 '회원 도서전'과 '시여, 다시 희망을 노래하라!'란 주제로 미술협회, 사진협회와 함께 회원들의 시화 30점을 전시하였다. 10월 25일 평촌중앙공원에서는 제48회 관악백일장대회가 개최되었고, 11월 23일 오후 2시 안양문화원 강당에서 제24회 전국안양시낭송대회가 열렸다. 12월 21일에는 평촌에 위치한 트리니티컨벤션에서 '2019년 안양문인협회 송년회 및 『안양문학』 제30집 특집호 출판기념회'가 개최되며, 안양문학계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2020년, 새로운 해의 문이 열렸다. 이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안양문학을 이끌어온 문인협회는 매년 지역 예비 문사를 발굴하는 안양백일장과 관악백일장을 지속해왔으며, 지역 시민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 시화전, 안양예술제의 '어울림 갤러리', '전국안양시낭송대회' 등의 행사를 꾸준하게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박두진 시인을

중심으로 「안양문학동인회」가 결성되고, 『청포도』 동인지가 발간된 이후 70여 년간 안양의 문학의 질적·양적 성장과 함께 수없이 많이 변화를 거듭하며 발전해왔다. 그 발전의 핵심 배경으로 무엇보다도 동인회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실질적인 문인협회의 모태가 되는 '시와시론동인회'(1958)부터 '낙엽문학(시울림)동인회'(1972), '화요문학(안양여성문인회)동인회'(1978), '수리시동인회'(1979), '근로문학(글길문학)동인회'(1981), '잉벌시조문학회'(1987), '문향동인회'(1997), '안양여성문학회'(2000), '안양수필문학회(안양수필작가회)'(2003), '문산문인회(글향동인회)'(2004), '토요수필문학회'(2005)에 이르기까지 안양 문학은 지역 동인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들이 발행한 동인지와 함께 『기호문학』(1990), 『열린문학』(1991), 『문학산책』(1996) 등 지역 문예지의 역할도 상당했으리라 생각된다. 지난 과정에서 안타깝게 사라진 동인회나 문예지도 있지만, 현재 안양문인협회와 함께 안양 문학의 근간을 이루며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동인회가 대부분이라는 점은 안양 문학이 지닌 큰 자산이라 여겨진다.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문인들이 계속해서 문인협회에 참여하고 있어 안양문학의 미래는 더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지역보다도 안양의 문학은 그 뿌리가 깊다. 지방 변방의 문학이 중앙 문단의 변화를 일깨우고, 끊임없이 새로운 문학적 세계를 개척하며, 문학의 정도를 가고자 노력했던 선대 문인들의 정신을 흐트러짐 없이 올곧게 이어가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그들이 흘린 땀과 열정,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안양문학이 존재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글이 왜 글이어야 하고, 문학이 왜 문학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선대 문인들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안양문인협회를 비롯한 지역 문학단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끊임없이 묻고 되새기며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바로 그 길이 안양의 문학을 밝힐 미래이기 때문이다.

2장

안양의 시각예술

이재옥 안양예총 회장

안양의 시각예술을 기술함에 있어 미술, 서예, 사진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안양의 대표적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은 타 영역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전 『안양시사』에 상세히 기술되었던 부분을 간략히 요약하고, 이후의 시각예술 상황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특히 안양 시각예술 활동을 기술하기 위해 2005년 발간된 『안양미협 30년사』와 동년 안양미술 근현대소사의 기록을 참고하였으며, 2021년 『안양예총 30년사』, 『안양문화예술재단 백서』, 2023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프레 프로젝트_비주얼아카이브 자료 등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1. 미술

1) 안양미술(1950~1960)

안양미술의 시작은 1950년대 후반 안양공고 미술 교사로 부임한 한국화가 이재호, 조병유 등의 활동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재호(1927~2008, 전 인천교대 미술대 학장)는 청전 이상범에게 전통 수묵화를 배웠던 만큼 안양지역 학생들에게 전통 산수화를 보급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의 교육 활동을 통해 김세호, 서기원 등을 배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홍익대 출신의 두 화백과 당시 중학생이었던 오용길, 김광헌, 홍사영을 지도한 염신용이 미래의 안양 한국화가들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초기 안양 화단에서 한국화가 차지한 비중이 컸던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1]

1960년대 안양미술은 역전 부근의 금잔디다방을 전시 공간으로 삼아 몇 차례의 그룹

전과 개인전이 열리면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안양미술과 관련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화가이자 작가, 시인, 조각가, 여성운동가, 사회운동가, 언론인이었던 나혜석이 안양에 머물렀던 시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해방 전 안양경성보육원에서 자원봉사를 하였던 박인경은 1947년 농막에서 나혜석을 보고 "반듯하였고 그림도 가지고 있었고, 원고도 쓰고 있었다"고 한다.[2] 또한 1960년대 말 이응노 화백이 독일을 거쳐 프랑스 파리에 정착하며 서구 미학의 콜라주로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던 중 6·25 때 월북한 아들 관계로 북한 공작원과 만난 것이 반공법에 위배되어, 1967년 서울로 유인된 뒤 안양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기간에 안양 풍경을 소재로 한 수묵화를 그린 기록이 남아 있다.

안양미술의 본격적인 활동은 안양미협 출범 이후로 볼 수 있다.

2)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 활동을 중심으로 본 안양지역 미술 (1976~2024)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이하 안양미협)는 안양의 격동과 전환의 시기와 함께 걸어왔다. 당시 안양은 공장이 즐비한 산업도시이자, 1974년 수도권 전철의 개통으로 서울의 위성도시로 자리 잡았으며, 유신체제가 절정에 달했을 때로 군사정권은 사회의 모든 가치를 근대화·산업화에 집중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한국미술계는 서구 사조의 무차별적 유입으로 혼돈의 양상이 가속화되던 시기에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찾는 데 골몰하고 있었다. 그 결과 1970년대 서구 사조의 비판적 수용과 지역 미술계의 자각은 수많은 미술단체의 탄생과 예술적 실험, 그리고 주체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미술 탐구와 지역 고유의 색깔 찾기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이에 따른 인식론적 각성이 결실을 맺어 안양미협이 탄생한 것이다.'[3]라고 이경모 미술평론가는 진단하였다.

1976년 9월에 창립된 안양미협 초대 지부장은 오용길이 맡았으며, 같은 해 11월 26일에서 2월 4일까지 〈제1회 안양미협전〉을 개최하였다.

1980년 7월 7일 전국 28번째 지부인 한국미협 안양지부로 정식 인준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경기도에서 수원, 부천에 이은 세 번째 인준이었다. 안양미협의 창립은 지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중앙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오용길은 안양을 아끼는 마음에 낙향하여 안정적으로 안양미협을 5대까지 이끌었으며, 1988년 12월 홍사영이 제6대 회장에 선임되었다. 오용길이 이끌던 1970~1980년대가 안양미협의 내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 시기였다면, 홍사영이 이끌던 2기 집행부는 안양미술의 위상을 경기도뿐 아니라 중앙으로 확장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초기 안양미협전은 본전다방, 중앙지하상가, 안양사랑, 안양미술관, 본백화점 문화홀 등에서 진행되었으나, 1989년 12월 안양문화예술회관(현 안양아트센터)이 건립되면서 전시장의 면모를 갖춘 곳에서 전시를 열릴 수 있게 되었다.

초기 문화원에서 주관했던 관악사생대회는 1990년 안양예총 창립 이후 1991년 실질적 운영 주체인 미협으로 이관되었다. 2024년 현재 50회 행사를 통해 안양의 많은 중견작가가 관악학생미술실기대회 출신임을 살펴볼 때 그 역사적 의미가 크게 느껴진다.

안양미협은 1995년 국가가 제정한 미술의 해에 분과별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였다. 회화 분야의 중견작가 초대전인 '오늘의 현실전', 공예분과의 '현대도예의 단면전-PLAY WITH CLAY', 디자인분과를 주축으로 '산업디자인전', '서예 중견작가 초대전'등 특별기획전을 통해 미술 각 분야의 전문성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전국 규모의 〈관악현대미술대전〉도 첫선을 보였다.

지방화시대 맞맞춰 전국 미술계 흐름주도

제1회 관악현대미술대전 보도(1995, 안양저널)

충혼탑, 독립유공자탑, 안양시청 상징 조형물 등 공공미술 영역에도 안양미협이 참여하게 되었다. 안양시청사 이전 시 작품을 기증하여 오늘날 안양시청사 복도 및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1998년 2월 9대 집행부 박한춘 지부장 체제가 출범하였다. 이전 홍사영 지부장이 다양한 행사 기획으로 대외적인 이미지 구축에 힘썼다면, 박한춘 지부장은 행사의 내실을 다지고 분과별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를 분담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0년 평촌신도시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문화 불모지로 불릴 정도로 상설전시관 조차하나 없었으나, 2월 15일 동안구청 청사 2층에 53평 규모의 평촌전시관(현 동안문화관)이 개관되었다.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개관 기념전에 안양미협 소속 서양화, 동양화, 조각, 서예 등 7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어 박한춘 지부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사임하고 이재옥이 보선으로 제10대 지부장에 선임되었다.

이재옥 지부장은 행사 내용을 확장하고 내실 있는 기획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만들어갔다. 2000년에는 관악학생미술실기대회 입상작 전부를 CD에 수록하여 학생들에게 보급하고, 안양미협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디지털 시대·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정보전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제30회 관악학생미술실기대회(2004)

2002년 안양역 롯데백화점에 갤러리를 개관함으로써 안양미술은 새로운 장을 펼치게 되었다. 이 갤러리는 안양 미술인들에게 좋은 시설의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획전으로 안양 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 서울에서만 열리던 개인전이 갤러리의 초대로 안양에서 개최되면서 안양미협 회원들의 개인전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안양미협은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제7회 관악현대미술대전을 정비하여 '관악현대미술', '관악디자인공예대전', '관악서예대전'의 3개 부문으로 분리 운영했는데, 이는 경기도 최초로 분야별 분리 개최된 대전으로 기록되었다. 12월에는 '한중일 어린이 이벤트' 행사를 통해 국제아동 교류전을 열고 중국 바오터우시의 소년궁 교사 2명과 어린이 2명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아동미술 분야의 국제교류를 확대하였다.

2000년대 초 IMF 이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한계가 더욱 심각해져 양적·질적으로 팽창된 지역 미술인들의 미술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였다. 괄목할 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동결된 예산으로 지역 문화발전의 청사진은 어둡게 퇴색되었다. 안양미협의 연례행사 지원 외에는 별다른 예산 지원이 없었다. 이러한 어려운 사회적 현실에서도 역량 있는 작가들의 왕성한 활동을 지역에서 펼치고자 안양미협은 수년 전부터 전공 분야별 회원들의 소그룹 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2001년 창립전을 열었던 안양공예가회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시를 기획하면서 판매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시민에게 예술적 생활용품을 공급하였다. 2003년 안양원로작가회의 창립전은 안양미협 60세 이상 원로작가 모임으로 출발하였으며, 같은 해 봄 〈봄의 아코디언〉전을 통해 우리의 고유한 미감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2005년 여름 〈Summer -Blue Day〉전에서는 안양의 한국화 청년작가들과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지역화단과 중앙화단을 오가며 활동하는 청년 작가들의 한국화 전시가 이어졌다. 2004년 창립전을 가진 안양조각회는 안양지역에서 활동해온 회원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미술관'이라는 기본 취지를 바탕으로 지역 단체들과 다각적으로 교류하여 새로운 공공미술에 접근하였다. 안양의 문화공간을 확장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접근할 수 있는 전시 방식을 통해 예술의 본질적 기능과 삶의 질을 향상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성결대학교 내 어록비 설치에 전 회원이 참여하여 공공미술 개념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2016년 제12회 안양조각회전 이후 활동은 다소 주춤한 상태다.

제비울미술관이 주최하고 임근우와 이재옥을 공동대표로 한 〈우리동네 현대미술 청년작가회〉는 주목할 만한 전시였다. 과천, 군포, 안양, 의왕시의 45세 미만의 청년 작가들로 구성된 전시는 100호 이상의 대작전을 통하여 청년 작가들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

휘하면서 지역 청년 작가들의 창작 의지를 고무시켰다. 평면, 입체,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 청년 작가들의 관심을 '우리동네'로 집중시킨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미협이라는 제도권 작가와 비제도권 작가가 경계 없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점도 특별하였다.

2005년 'Anyang Arts Festival'에서는 안양미협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안양지역의 아마추어 단체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연합전을 개최하여 지역의 모든 단체를 망라하는 초대형 전시를 선보였다. 같은 해 주목할 만한 행사로는 안양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으로 기획된 '어! 이것도 미술이네'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단체와 각급 학교 간 연계협력시범사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전국 예총단체 중 유일하게 안양미협이 선정된 이 사업은 안양 학생미술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Anyang Arts Festival(2005)

'어! 이것도 미술이네' 결과 작품전(2005)

2006년 2월에는 『안양미협 30년사』와 『안양미술 근현대소사』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예술단체의 상세한 기록은 후일 타 시의 모범이 되었으며, 『안양미술 근현대소사』 발간을 통해 안양지역의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단체 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안양미술의 근현대 소중한 역사를 기록하였다.

2005년 '제1회 안양공공미술프로젝트'가 개최되면서 국내외 미술계에서 안양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으며, 안양미협의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전시 및 행사로 이어졌다.

2006년 10월 8일부터 16일까지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로 조성된 안양예술공원 내 알바로시자홀 및 야외 공간에서 '쉼, 숨 쉬는 자연, 예술 그리고 안양...'이라는 타

이틀로 제15회 포도미술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미술제는 공공예술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며 안양미협의 조각, 서예분과와 초대작가, 홍익공간디자인그룹,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과, 중부대학교 인테리어학과, 덕성여자대학교 실내디자인과 등이 참여하여 공공예술 도시 안양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안양문예회관 주최, 안양미협 주관으로 진행된 〈아이들이 그린 공공예술 프로젝트전〉은 2005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을 대상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현대미술의 다양성을 소개하고,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 단순한 묘사를 넘어 미술인들의 다양한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 발상과 사고의 전환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7년 이강은이 13대 지부장으로 선임되어 기존의 안양미술협회 회원전, 관악학생실기대회, 포도미술제, 관악현대미술대전 등의 행사를 유지하고 발전시켰다. 특히 새로운 사업으로 '제1회 안양예술공원 아트마켓'을 개최하였는데, 이는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이후 주민공모를 통해 명칭이 바뀐 안양예술공원에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예술 행사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시기였다.

2008년에는 안양청년미술제를 안양 롯데화랑에서 개최하였다. 전국 공모로 만 40세 미만의 청년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역량 있는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안양 작가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순수미술 분야의 평면, 입체 부문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청년 작가들의 참여로 지역 미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제17회 포도미술제는 알바로시자홀에서 '생활과 여유'를 주제로 디자인, 공예분과 회원들과 초대작가들의 작품으로 전시되었다. 전시 기간 중 전시장을 설계한 알바로 시자가 안양을 방문해 전시장을 찾은 일은 매우 뜻깊었다.

2009년 9월 부림상호신용금고 이건선 대표는 만안구 CGV 빌딩 15층 일부 공간을 안양미술협회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부림갤러리를 개관하였다. 인테리어 일체를 지원하고 갤러리, 사무실 등 안양미협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안양미술협회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열린 개관 기념초대전에는 외부 초대작가 13명과 안양미술협회 오용길 외 33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였고, 이후 부림갤러리는 의미 있는 전시들로 소중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2010년에는 주운항이 안양미술협회의 제14대 지부장으로 선임되었다. 주운항은 국제교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졌던 안양미협의 활동을 해외로 넓혀 국제교류전을 개최하며 안양미협 작가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힘썼다. 중국을 시작으로 진행된 국제교류전은 미국, 필리핀으로 확대되어 임기 동안 총 4회의 전시를 진행

하였다.

2010년 중국 옌타이 미술가협회 동귀함 회장을 만나 한중 국제교류전 개최일을 협의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이후 중국 옌타이 미술협회가 한국의 안양미술협회 회원들을 초청하였고,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막식과 함께 전시 관람 및 여러 행사를 진행하였다. 제2회 한국-중국 국제교류전은 2011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안양아트센터 미담갤러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제3회 국제교류전은 2011년 1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미국 뉴멕시코 알바커키 박화인아트 갤러리에서 열렸다. 2012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는 필리핀 국립 미술관에서 제4회 필리핀 마닐라 국제교류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한중 국제교류전 개막식(2010)

2013년 1월 12일 정기총회에서 전동화가 15대 지부장으로 추대되었다. 일본 유학 경력과 해외에서 작가 생활을 해온 전동화 지부장은 기존 안양미협의 정례적인 행사 이외에 해외 전시에 주력하였다. 재임 중 이전 집행부가 추진해온 국제전을 계속 개최하며 안양미협 회원들의 해외 활동 영역을 넓혔다. 제5회 국제전은 2013년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미국 뉴저지 리버사이드 갤러리에서, 제6회 국제교류전은 2014년 5월 19

일부터 5월 23일까지 중국 청도 출판예술관에서, 제7회 국제교류전은 2015년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미국 뉴저지 리버사이드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제8회 국제전은 2016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958 미술관'에서 열렸다. 제16대 지부장을 연임하며 6년간 총 4회의 국제전을 운영한 전동화 지부장은, 안양미협 회원들에게 해외 방문과 전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작품의 역량을 배가시켰다.

이후 우리나라 국제 정세가 중국과의 대립 관계로 소원해지고 국제행사의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양미협은 제8회 국제전을 마지막으로 잠시 휴식기에 접어들었다.

2017년 안양의 대규모 전시장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에 평촌아트홀의 안양박물관이 김중업박물관으로 이전하면서 300여 평 규모로 전시공간이 확대되었다. 평촌아트홀 전시장이 재개관하면서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평촌아트홀 특별기념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전에는 국내 초대작가 111명과 해외 초대작가 10명이 참여하여 평면 회화작품 104점과 입체 조형작품 16점을 선보였다. 안양에서 열린 미술 전시 중 최대 규모였으며, 특히 대형 공간에서 진행된 전시는 수준 높은 전시회로 평가 받았다. 전시 기간 중에는 안양미협 회원 중심의 미술 이벤트 행사를 병행하여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평촌아트홀 재개관 이후 2017년부터는 관악현대미술대전 전시를 평촌아트홀 전체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장소 부족으로 동시 개최가 불가능했던 미술, 디자인, 공예, 서예, 문인화 등 전 분야를 한 장소에서 전시하며 관악현대미술대전의 위상을 재정립하였다. 안양미협 회원전도 평촌아트홀 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제28회 포도미술제 '공감1+1'(2019)

2019년 1월 12일 안양미협은 총회를 열어 제17대 안양미협 지부장으로 조운희를 선출하였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주최하는 '경기꿈의학교'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5월 25일부터 9월 21일까지 '거꾸로 가는 아트스쿨 – 가즈아!!' 미술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안양미협 작가 20여 명이 분야별 총 11개 강좌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예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생 작품 전시와 책자 발간으로 교육사업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2019년 9월 5일에서 8일까지 제28회 포도미술제 '공감1+1'과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 제44회 안양미술협회 회원전

이 대규모로 개최되었다. 평촌아트홀 1·2·3 전관에서 134점 작품 전시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20년 1월 안양미술협회는 소식지를 발간하여 1년간의 활동과 회원 동정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안양의 부족한 전시공간에 대한 대안으로 카페 대표와 업무협약을 맺고 새로운 전시공간도 확충하였다. 1호관 명당 카페갤러리, 2호관 블루버드 평촌 2호점, 3호관 블루버드 평촌 3호점을 개관하며 전시 〈생각의 다리 전〉 및 작품 판매, 렌털을 위한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안양시청 복도 미술관, 2021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열린 공간' 갤러리 등 공공기관 내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회원 개인전을 연계하고 시민들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 김현미는 제3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조영희는 행주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안양 KOREA ART 우수작가 300인전(2021)

2021년 12월 22일부터 12월 29까지 평촌아트홀 전관에서 〈2021 안양 KOREA ART 우수작가 300인전〉을 개최하였다. 경매 형식의 작품 판매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판매금액 일부를 안양시에 기부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김희중은 제51회 충남미술대전 대상을, 전현경은 나혜석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22년 조운희의 경기도미술협회 도지회장 당선과 함께 조태영을 지부장으로 하는 새로운 집행부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된 관악학생미술실기대회에 작품 1735점이 접수되어 934명을 시상하였으며, 관악현대미술대전에는 작품 860여 점이 접수되어 613명을 시상하는 등 기존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2023년 관악학생미술실기대회는 안양예술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상인연합회의 협력을 통해 입상작을 출력하여 예술공원 내 펜스에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23년 안양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안양문화예술재단 특별기획전으로 평촌아트홀 1·2·3관에서 안양미협 초대 회장 오용길의 '안양을 담은 풍경' 초대전이 개최되었다.

2024년 안양춤축제와 연계하여 현장크로키 및 드로잉콘서트를 진행하여 행사 기간 중 현장에서 전시를 열어 일상 속에 미술 활동을 연계하였다. 2024년 현재 안양미협은

안양시 승격 50주년 기념 오용길 초대전 〈안양을 담은 풍경전〉(2023)

149명의 회원 참가한 제49회 안양미협전을 평촌아트홀 전관에서 개최하였으며, 제33회 포도미술제, 제50회 관악학생미술실기대회, 제28회 관악현대미술대전 등의 단체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안양미협은 회원들의 개인 활동 또한 매우 활발하다. 최근 국내외 아트페어로 미술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2019년 42건, 2021년 50건, 2022년 46건, 2023년 39건, 2024년 52건의 개인전이 개최되었다.[4] 많은 회원이 해외 전시 및 국내외 아트페어 참가를 통해 작가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제50회 관악학생미술실기대회 시상식(2024)

제28회 관악현대미술대전(2024)

3) 안양지역 미술 단체(1970~2024)

1970~1980년대 안양지역에서 미술 활동은 서울에 인접한 위성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뚜렷한 정체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이후 안양미술은 작가들의 내적인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미술 접근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양상을 보였고, 각 분야별 전문 소그룹 미술단체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였다. 최근 청소년 수련관, 안양시 평생교육원 등에서 아카데미 강좌가 급증하면서 안양미협 회원을 비롯한 전문 미술가들이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고, 이들이 지도하는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동호회를 결성하여 오랜 기간 회원정기전을 통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미술 동호회의 창립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5]

안양일요화가회 안양지역에서 최초로 결성된 미술 소그룹이다. 1978년 7월 안양 근교의 야외 스케치를 시작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1979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창립전을 열었는데, 이 전시에는 안양지역 미술 애호가와 아마추어 화가, 그리고 지도위원인 화가들이 참여하였다. 이후 회원들은 각종 공모전에서 입상하고, 개인전을 열거나 꾸준한 그룹전 활동을 통하여 전문 작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2024년 한석봉 회장을 중심으로 제46회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매월 넷째 주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여 활동하고 있다.

목련동인전 첫 전시회는 1982년 안양중앙시장 내 지하공간인 '안양사랑'이라는 작은 소극장식 카페에서 열렸다. 안양여고 전 미술 교사인 이철량(현 전북대학교 교수)의 지도 아래 당시 고3 미술부원들의 작품으로 전시가 시작되었다. 목련동인전은 동문전 형식으로는 안양에서 처음 열린 전시회였으며, 이후 대학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한 회원들은 제21회 정기전 개최를 통해 20여 년 넘게 활동하면서 2000년대 초 지역의 대표적 미술 그룹으로 성장해갔다.

제46회 안양일요화가회전(2024)

목련동인전 전주 누벨벡미술관 초대전

목련동인회 단순히 친목 모임이라 보는 일부의 시선과는 달리, 안양미술의 역사 속에 소집단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며 지역 미술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2002년 제21회를 맞이하면서 목련동인전은 롯데화랑에서 새로운 이름 'Magnolia'로 초대 전시를 열었다. 2010년 〈목련동인전-목련판타지아〉를 부림갤러리에서 연 이후 12년간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2023년 두나무아트큐브 초대전, 2024년 전주 누벨백미술관에서 초대전시를 하면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청목회 1985년 1월 서양화와 조각을 통해 만난 안양의 미술인 5명이 결성한 모임이다. 3회의 전시 이후 그 명칭을 유형회로 바꾸면서 많은 서양화 회원을 영입하여 다시 탄생하게 되었다.

백합동인전 1987년 안양본백화점 5층 문화홀에서 창립전을 개최한 성문여중·고를 졸업한 동문들의 단체로,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등 다양한 미술 분야에서 미술대학을 진학하고 졸업한 동문들로 결성되었다. 백합동인전은 16회의 전시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후배들에게 문화적 체험을 하게 해주었다.

우리그림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4일 창립전과 창립대회를 안양근로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지역 미술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성립된 우리그림은 안양독서회, 민요연구회와 더불어 작가와 시민이 함께 주도한 지역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출범하였다.

안양시미술교원 작품전 1987년 처음 개최되었다. 안양미술 초기 안양문화원에서 주최한 관악사생대회(현 관악학생미술실기대회) 수상 작품 전시와 지역 작가 및 미술 교사들의 초대전인 관악미술 전람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2003년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안양과천교원미술전〉은 첫 교원전으로 재탄생하였다. 2004년 전

시를 통하여 안양과천교원미술전은 학생들과 교사들 간의 작품을 통해 소통을 유도하고, 새로운 교과 통합적 미술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혁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예향회 1988년 아마추어 미술동인회로 출발하면서 창립전을 개최하였다. 홍사영의 지도 아래 주부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전문 미술인들의 참여와 함께 회원들은 각종 공모전에 참여하고 수상하며 활동을 이어갔다. 1997년 제10회전 이후 더 이상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과거 예향회의 활동은 안양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유형회 1988년 4월 29일 3회까지 청목회의 명칭을 유형회로 바꾸면서 서양화 회원을 대거 유입하였다. 탄탄한 작가 구성으로 안양지역의 서양화 동인회의 대표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면서 그 활동은 2003년 제16회 회원전까지 이어졌다.

우리들의 땅 그림사랑동우회 우리그림의 활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그림의 성과를 바탕으로 1989년 지역 작가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우리들의 땅'이라는 젊은 미술가 모임을 결성하였다. 지역 자치문화 활동을 추구한 이 전문 미술인 모임의 다양한 활동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10회 전시회로 막을 내린 우리들의 땅 전시는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 미술문화를 일구려는 노력과 고민을 잘 드러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00년 석수시장에 문을 연 대안공간 '스톤앤워터'(당시 회원 박찬응)의 적극적인 지역문화 발전 의지로 이어졌다.

안양도예가회 1993년 창립되었으며 윤재일, 주언식을 주축으로 의욕적인 젊은 도예가들이 모여 안양문예회관에서 전시를 개최하였다. 안양도예가회의 발족은 생활도예를 비롯한 작가의 창작활동에 바탕을 둔 실험적 작품으로 전시를 개최하면서 타 지역의 도예전과는 차별화된 활동을 해왔다. 출범 당시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이고 패기 넘치는 작품 전시를 특성으로 하고자 한 청년 공예가들의 열정만큼이나 해를 거듭할수록 대규모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안양은 조선시대 궁중에 진상되는 도자기 가마가 비산동에 있는 등 과거 도자공예의 역사를 지닌 곳으로, 1970~1980년대에는 수많은 도예공방이 있었으며 많은 중견작가가 거쳐갔다. 지역 도예동호회원들의 저변확대와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크게 기여한 안양도예가회는 제5회전에 35명의 작가와 함께 대규모 전시를 개최하였다. 10여 년간의 활동 후 더 이상 활동이 진행되지 않았고 회원들은 안양공예가회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안양청년작가회 1993년 안양에 거주하며 꾸준히 작업하는 젊은 작가들이 모여 결성되었다. 1999년 평촌 뉴코아백화점 맞은편 미관공원에서 '바깥미술제'라는 제목으로 안양 지역 최초로 설치미술 전시를 선보였고, 2003년 창립 10주년을 맞아 안양천변에

서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시를 시도하였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을 주도하며 새로운 설치미술로의 확장을 추구한 환경미술 개념을 시대 흐름에 맞춰 접목하였다.

안양청년작가회는 목련동인회, 백합동인회와 더불어 당시 중앙으로만 향했던 청년 작가들의 활동을 지역으로 끌어들인 계기를 마련하였고, 그룹의 활동은 2024년 현재 정기적 활동은 중단되었지만 회원들 각자의 개인 활동을 통해 안양을 대표하는 중견작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련동인회, 안양청년작가회, 백합동인회 보도자료(1995)

일어서는 사람들의 기록전(2017)

소울음회 1992년 소해미술관에서 최진섭, 임인식, 금영보의 전시로 시작된 장애인 그림동호회로 지역 미술활동을 전개하였다. 안양청년작가회와 1995년 3월, 안양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작가 25명이 참여한 〈제1회 일어서는 사람들의 기록전〉을 개최하고, 안양미협이 주최한 포도미술제의 초대전에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미술활동에 더욱 깊이 참여하게 되었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의 신체적 어려움을 고려해볼 때 지금까지의 전시활동은 거의 기적적이라 할 만큼 놀라운 성과를 보여왔다. 장애 작가 초대전, 소울음전, 전국 누드 크로키전, 선사랑 크로키전, 안양시민과의 만남전 등 28년간 다양하고 의미 있는 전시와 개인전을 꾸준히 펼쳐왔다. 2019년 6월 최진섭 대표의 작고로 운영 위기를 겪었으나 김옥규 대표의 노력으로 소울음회는 2024년 28회 정기전을 개최하였다.

감꽃창작연구회 당시 안양미협 서양화분과장인 금영보의 지도로 시작된 모임으로 1996년 11월 제1회 〈감꽃그림회원전〉을 개최하였다. 매년 작품전과 기획전, 바자회전을 열었으며 회화에 대한 새로운 모색과 그림에 열정이 많은 일반인, 구족화가, 장애 미술 동호인들과 함께 작품 토론회 및 실기를 통해 창작 의욕을 높였다. 2003년 제8회 전

시 이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새물수채화동인전 1996년 10월 26일 창립되었으며, 안양미협 중견작가들로[6] 구성된 탄탄한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당시 시대적으로 중요성이 점점 커지던 수채화의 현대적 해석과 보급·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2005년 롯데화랑 제9회 정기전 등 10여 년간 활동해왔다. 현재 우리나라 수채화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수채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양에서 일찍이 동인 그룹이 형성되어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빛 드로잉 2000년에 발족하였다. 수도권 지역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드 크로키를 중심으로 독특한 선의 세계를 추구하였다. 정기전과 전국 누드 크로키전에 회원들이 참여하며 활동하였고, 꾸준히 빛 드로잉 정기전을 개최해왔으나 2019 코로나 이후 활동이 주춤한 상태다.

다 도예가회 2001년 당시 안양미협 공예분과장을 맡은 윤재일의 지도를 주축으로 하여 창립되었다. 창립 전부터 수준 높은 작품으로 창작 열정을 보여주며 취미 도예 동호회의 이미지를 크게 뛰어넘었다. 현재까지 회원들은 개인 활동 및 정기전 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4년 제22회 정기전을 개최하였다.

이모션 2001년 8월 30일 창립전을 평촌전시관에서 개최하였으며, 2019년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현재 회원 대부분이 중견작가로 활발한 개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들꽃향기회 2002년 안양여성회관 수채화반 회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미술단체로, 매년 1회 회원전을 열었으며, 2016년까지 꾸준히 정기회원전을 열었다.

빛 그리고 색 2002년 첫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감꽃그림회원전에서 분리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2024년 제33회 정기전을 이어오고 있다.

안양공예가회 2003년 1월 창립하였다. 안양에 거주하고 도자기 공예를 전공한 사람들이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흙과 도자기에 대한 열정으로 모인 단체다. 도예, 염색, 금속, 목공예 등 다양한 공예 분야로 회원들을 확대하며 매년 1회 정기전과 기획전, 초대전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공예를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제20회 정기전을 개최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움이 있는 풍경전 처음에는 고운빛회로 출발하였다. 1996년 봄 동안여성회관 유화반이 개설된 이래 많은 회원이 오가는 가운데 본격적인 모임 결성과 전시회 계획을 추진하여 2003년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평촌전시관에서 '제1회 그리움이 있는 풍경전'이라는 명칭으로 창립전을 개최하였으며, 2024년 현재까지 정기전 등을 통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수묵회 2004년 한국화동호회로 출발한 안양시청 공무원 동호회이다. 시청 홍보실 2층에서 정기전을 통해 2024년 현재 15회 정기전으로 꾸준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뜰마루회 2004년 한국화를 지도하는 박순희 강사를 중심으로 발족하였다. 2016년 3월 현대여성미술협회의 제주지부에서 초청교류전 등의 활동을 펼치면서 2022년 〈제14회 뜰마루회전〉을 미담갤러리에서 개최하였고. 2024년 현재 15회 정기전을 열었다.

그리나래 2005년 안양예미술학원 동호회로 회원이 구성되어 예사랑 작가회로 창립전을 개최하였다. 6회 정기전까지 동안구청 동안갤러리에서 전시를 열었고, 이후 7회부터 그리나래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회원 모두 한국미협 정회원으로 2023년 조형갤러리에서 회원전을 개최하였으며, 2024년 16회 회원정기전을 열었다.

예원우전 2006년 한국화가 박효선을 지도강사로 출발한 미술단체이다. 해마다 새로운 주제를 선정해 회원들의 개인 작품과 공동 주제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며, 2024년 제19회 정기전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에코블루 2007년 서양화가 박은애를 중심으로 출발한 미술단체로, 2015년 안양에서 제9회 에코블루 정기전을 개최하였다.

지상회 2009년 수채화동호인들의 모임으로 창립되어 2022년까지 꾸준히 정기전을 열었다.

미동인 2010년 창립된 서양화 중심의 동호회로, 2024년 9명의 회원이 파구스 갤러리에서 제15회 전시회를 개최하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물빛전 2011년 동안청소년수련관 인효경 강사 수업 이후 자발적으로 구성된 동호회로, 물소리전을 모태로 2회의 전시를 거쳐 2024년 제12회 회원정기전을 개최하였다.

화수분 2013년 이강은을 지도강사로 서양화 동호회에서 출발하였다. 자체적으로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제12회 정기전을 평촌아트홀에서 개최하였다.

귀인회 2013년 이상현을 지도강사로 출발한 서양화 동호회로 수채화 유와 아크릴화 등을 선보이고 있으며 현재 24명 회원으로 2024년 12회 전시를 열었다.

그리고 2013년 10월 만안평생교육원 연필화반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동호회이다. 월 4회 모임을 하며 회원들의 창작활동, 전시회 관람, 동·서양 미술사 공부를 진행하며 유화, 수채화 등 여러 분야로 활동 폭을 넓혀왔다. 2024년 제10회 회원전을 미담갤러리에서 전시하였다.

그림애 2013년 동아리를 창단하고 2014년 창립전을 열었다. 박순영 회장 아래 2023

년 10주년 기념으로 인사동에서 전시를 개최하고, 2024년 제11회 정기전을 열었다.

그리다 2015년 안양시 평생학습원 고순남 강사의 수채화 동아리 활동으로 결집되어 15명 정도 회원들이 단단한 구성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도서관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2024년까지 정기전을 지속하고 있다.

이메진 2016년 창립되었으며 1회전을 중동평화와 난민 돕기로 시작하였다. 2024년 제9회 정기전을 평촌아트홀에서 14명 회원과 함께 개최하였다.

신기루나래 2017년 창립되어 첫 회원전을 개최하였으며, 연필 색연필화를 선보였다. 2024년 제7회 회원 정기전을 열었다.

W(더블유) 2018년 황종연을 중심으로 한 젊은 작가들로 구성된 목공예 단체로 탄생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몽당연필 안양문화원 아카데미 고순남 수업을 수강한 동아리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만안평생교육센터 2층 로비와 도서관 등에서 정기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

아트다름 2021년 창립된 안양시 중견작가들의 그룹으로, 창립초대전에 11인이 참가해 2021년 10월 20일 ~ 10월 26일까지 A-One 갤러리에서 전시를 개최하였으며, 다수의 개인전과 국제전의 이력을 갖춘 작가들이 각기 다른 색채의 작품을 선보였다.

한국민화협회 안양지회 그동안 금송민화회란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2023년부터 안양지회로 새롭게 창설되었다. 지역축제 및 행사에서 민화부채 그리기 체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안양지역의 미술단체 활동은 1970년대에서 1990년 말까지 분야별 전문작가 단체들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면, 2000년대 초 평촌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급격히 늘어난 동호회 단체들의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오랜 동안 이들 단체 활동을 통해 많은 회원이 전문 미술가로 성장하면서 대규모 연합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2015년 11월, 안양지역 11개 여성작가 단체 회원 115명이 참여한 '안양시여합작가회'가 창립되어, 안양아트센터 갤러리 미담에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창립 기념전을 개최하였다. 당시 참여한 11개 단체로는 미동인(회장 정희진), 이모션(회장 강영미), 그림애(회장 조현숙), 빛드로잉(회장 이해경), 에코블루(회장 박은애), 들꽃향기(회장 이윤미), 그리움이 있는 풍경전(회장 정옥자), 더누크(회장 유명희), 지상회(회장 전홍숙), 귀인전(회장 김정희), 화수분(회장 황명희) 등이다. 아쉽게도 이후 이들 단체의 자체적인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4) 안양미술 문화공간과 활동의 특징

작가들의 역량 있는 활동에 비하여 안양의 미술작품 발표 공간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1990년 말까지 정식적인 전시공간 형태를 갖춘 것은 1989년 개관된 안양문예회관 전시실이 유일하였다. 안양 본백화점 내 전시실, 벽산(현 2001아울렛), 평촌의 뉴코아백화점 내 전시실은 개장 초기에 잠시 시민들에게 전시 장소를 제공하고 바로 폐쇄되었다. 매장의 수익 창출 개념의 계산에서 온 결과였다.

지역의 절대적 문화공간의 부족 속에서 1970~1980년대 개인들이 사재를 털어 안양 미술인들에게 전시 장소를 제공한 일은 안양 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안양중앙시장 지하공간인 김만호의 안양사랑의 전시공간 폐쇄 이후 안타까운 현실에 당시 안양미협 지부장인 오용길이 개인적으로 이안과 건물 4층에 '안양미술관'을 개관하였다. 안양 본백화점 문화홀의 개관과 더불어 공간 운영을 중단하였고, 이후 서예가 이남아의 서실로 공간을 줄여 잠시 명맥을 유지하였다.

1992년 소해미술관 개관으로 지역 작가들의 전시가 일부 수용되었다. 2000년 당시 동안구 이병걸 구청장이 청사 내 공간을 개조하여 만든 165㎡(50평) 규모의 평촌전시관[7]을 개관하여 대관료 없이 지역 미술인에게 제공하였다.

2002년 안양역사 롯데백화점 내 갤러리의 개관은 그야말로 안양미술에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전문 큐레이터의 기획으로 지역 작가들의 초대전 및 연중 다양한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풍성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개관 후 실로 짧은 기간 동안 롯데화랑은 참신한 기획으로 수준 높은 전시를 선보이며 안양미술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롯데화랑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미술작품 기획전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석수시장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박찬응의 '스톤앤워터'가 외부 작가 초대로 지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전시를 개최하였다. 대안예술공간 '스톤앤워터'는 2002년부터 석수시장과 안양천을 거점으로 실험적 예술활동을 추진해온 비영리 복합예술공간이다. 개관 이래 지역이 가진 공공성, 지역성, 생태성을 주목하며 삶과 예술이 조우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시하였다. 2007년부터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 석수아트프로젝트(SAP)를 시행하면서, 지역과 세계를 잇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대표 프로젝트로는 '리빙퍼니처'(2002), '리바이벌'(2003),'안양천프로젝트-FLOW(2004)', '석수시장프로젝트'(2005~2007) 등이 있다.[8] 스톤앤워터의 주요 활동공간은 석수시장 일대였다. 2012년부터 위창완 대표가 운영해오던 스톤앤워터는 20년 동안 주민들과 긴밀하게 소

통하며 협력해왔다. 이제 석수시장에서의 마침표를 찍고, 석수시장과 한 발 떨어진 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였다.[9]

2004년 평촌아트홀이 개관되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하여 그곳을 드나드는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불편한 요인으로 남아 있다.

2006년 3월 문화예술발전소 석수동 본부와 문화예술발전소 1번가갤러리(구 대동문고 6층)가 개관하였다. 1번가갤러리는 역량이 뛰어난 지역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문화생활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08년 안양 -인턴전〉은 지역 청년 예술가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세대 간 격차를 좁히고 연령의 폭을 크게 확대하였다. 문화예술발전소 1번가갤러리에서 진행된 다양한 기획전은 안양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2013년 이후 활동은 다소 주춤했으나 회원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갔으며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2005년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로 탄생된 안양예술공원의 알바로시자홀(현 안양파빌리온)이 전시관으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기획전이 개최되었다. 2006년 정식 개관 이전부터 지역 예술인들의 관심 속에 다양한 전시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안양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의 사진초대전과 〈예술가의 정원전〉, 안양미협 '제15회 포도미술제'로 알바로시자홀의 독특한 공간 해석에 바탕을 두고 야외 공간과 실내 공간을 활용한 〈쉼, 숨 쉬는 자연 그리고 안양...〉 전시를 통해 그동안의 전시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알바로시자홀이 2006년 정식 개관 이후 안양에서 보기 힘든 전시들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2008년 〈근·현대미술의 흐름 시정풍경전〉, 2009년 〈근·현대미술로 보는 해학과 풍자전〉·〈테마가 있는 예술사진전〉, 2010년 〈실경산수의 색과 향〉·〈일상의 행복 비타민전〉, 2011년 〈체게바라와 쿠바 코르디 사진전〉·〈국제 도예 초대전〉, 2011년 〈하이퍼리얼리즘전〉, 2012년 〈현대미술 속으로〉, 야외설치그룹 마감뉴스 20주년 기념 〈길에게 묻다〉·〈TRY UNITY-자연〉·〈예술 테크놀로지의 아름다운 조우〉·〈기억프로젝트_GATEWA〉 등 기획전으로 미술관 역할을 대신하였다.

알바로시자홀이 2014년 안양파빌리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미술관으로 전환하면서 더 이상의 기획전이 열리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현재 미술관이 하나도 없는 안양의 실정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더욱 크다.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 활용을 살펴보면 안양시청 지하 복도 미술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4층 봄갤러리와 2014년 문을 연 안양시장애인복합문화관 1층 로비에서 작품 전시 시설을 갖추고 개관 기념 전시를 열었다.

2021년 10월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 '열린 공간' 갤러리 개관으로 잠시 활용되었으나 2년여 간 운영 후 중지된 상황이다. 2023년 안양문화원이 1층에 갤러리를 개관하였고, 2024년 인재육성재단 로비 갤러리를 조성하였다. 교회 로비를 적극 활용한 공간으로는 새중앙교회 로뎀갤러리, 안양천변 안양감리교회 파구스갤러리 등이 있다. 2023년 비산그림교회 1층에 문을 연 '문화공간 151'은 안양시 비산동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소개하며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하고 있다.

안양예술공원 내 카페갤러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만안구에는 안양예술공원 내 수목원 가는 길, 올토갤러리 도자기 카페, 안양박물관 1층 카페, 안양삼덕공원 옆 엘몽끄, 안양 만안구청 맞은편 카페링크, 안양일번가 잭콤865, 동안구에는 관양동 동편마을 갤러리 카페 아프리카, 범계 로하스, FOTO, 예사랑안양, 마일러까페, 페르소나 등이 있다.

최근 대안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들이 생겨 새로운 기획전 등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2021년에 개관한 아트포랩(Art for Lab)은 독립예술 공간이자 공유 작업실로, 안양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각예술 기반 실험 및 실연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미디어와 공간을 기반으로 실험적인 예술과 담론을 생산하고 있으며, 공유 작업실 및 공간 대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양 평촌 학원가에 자리한 대안예술공간 2기적팩토리는 2022년 6월 예술, 문화, 공간이 융합된 전시와 워크숍, 문화기획 소통의 장소로 문을 열었다. 2024년 도시공상가는 건축과 도시를 주제로 비그라운드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전시문화공간을 겸한 공유 서재다.

사설 갤러리 운영을 통해 초대개인전 및 기획전으로 지역 미술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안양예술공원 내 갤러리 아뜨리에는 2012년 문을 열어 초대전과 함께 작품 판매를 진행하였다. 1층에서는 국내외 작가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게 하였고, 2층에서는 기획전을 개최하여 작품 판매에 주력했으나 현재는 경기도 광주로 이전하였다.

관양동 안양천변에 2013년 8월 개관한 A-One 갤러리는 브레송, 로버트 카파 등 유명 작가의 사진전과 구와바라 시세이전 등을 선보였고 현재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평촌동에 위치한 온유갤러리는 2014년 개관한 이래로 다채로운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준 높은 예술 전시와 더불어 '아티스트 토크', '원데이 클래스' 등 전시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그 내용을 꾸준히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안양의 비중 있는 전시공간으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2023년 7월 온유갤러리에서 100회 기념전에 이어 2024년 11월 온유로의 초대 113번째 전시가 진행되었다.

안양예술공원 내 2023년 개관한 두나무아트큐브는 지역 출신 중견작가 금영보의 뜻으로 문을 열었다. 서울로 떠났던 지역 중견작가들의 초대전 및 국내 정상급 작가들의 초대전 및 기획전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미술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공공미술에서 큰 역할을 해왔던 박찬응 초대 개인전, 12년 만의 목련동인전 재개, 신성고등학교 미술부 출신들의 작가전 등 그동안 안양미술의 기초를 다졌던 작가와 단체의 초대전으로 모처럼 안양미술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주식회사 YK건기는 2024년 9월 7일 석수동에 위치한 본사 건물 1~2층에 YK건기 갤러리를 개관하였다. 개관전부터 비중 있는 기획전을 운영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005년 제1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이후 안양의 미술공간은 도심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안양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유휴공간으로 APAP7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 구 농림축산검역소 본부동에 대한 지역 예술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작가들의 개인적 역량과 활동, 그와 연계된 안양미술계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다.

안양미술인들의 창작 열정은 대단하다. 대부분의 비중 있는 개인전이 안양이 아닌 서울 중심에서 열렸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오용길은 2002년 예술의전당 전시 이후 2005년 선화랑 1·2·3층 전관에서의 초대 개인전으로 창작 열정을 드러냈으며, 그가 재직하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의 미술대학장에 취임하면서 지역 미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였다. 2023년 안양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해 평촌아트홀 전관에서 개최된 안양 주제의 대작전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전시였다. 2003년 중국 교환교수로 활동한 김광헌(전 강남대학교 교수)은 안양미협 초창기 회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전동화와 이종국은 2004년 일본 초대전을 비롯하여 한국 프랑스도예페스티벌, 2005 세계도자비엔날레, 2006 상해아트페어, 2006 상해조각비엔날레, 2007 퀠른아트페어에 참가하였다. 이재옥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시카고, 퀠른 아트페어, SH Contempoary 등 30여 차례 해외전과 2018 다카르비엔날레에 참여하였다. 최순녕은 1997년 뉴욕에서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한국·중국·일본 등에서 2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중국·일본·프랑스·러시아·케냐 등 세계 각지의 기획전에 참가하였다.[10] 이기숙은 국내는 물론 미국, 호주, 프랑스, 싱가포르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

해왔다. 주운항은 2004 K.P Fine Art Biennale(필리핀 국립 현대미술관) 시작으로 40여 회의 해외전에 참가하였으며, 김길자·구자숙·김미정·여정희·이수애·이종혜·전현경 등의 작가가 해외전에 작품을 출품하는 등 안양 작가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문화가 곧바로 세계와 연결되는 국제적 흐름을 실감케 한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2014년부터 지역 연고 작가전을 통해 청년 작가들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4 안양 연고 작가 발굴 지원전은 김중업박물관에서 이영희, 박재환 두 작가를 선정해 지원하였으며, 2018년 미담갤러리에서 김필래, 김혜련, 남경민, 박형근, 요원, 최종희 작가의 회화·사진·영상·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30여 점을 선보였다. 2019년 중견작가 육경란, 청년작가 강현아·김재유·박은하·정재범의 40여 작품을 전시하였다. 2021년 유혜경, 이수진, 전장연, 조민아를 선정해 지원하였으며, 특히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아트페어 어반브레이크'에 안양문화예술재단 부스를 운영하며 국내 미술 행사를 적극 지원하였다. 2022년에는 노재억·문그루·서해영·이현지 작가를, 2024년에는 김수연·나나와 펠릭스·조해나 청년 작가를 지원하였다. 청년작가 발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원로 중견작가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세대 간 지원 불균형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안양미술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미술관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미술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로 조성된 안양미술을 바탕으로 안양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문화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2. 서예

안양의 서예 활동은 197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에 안양서도회의 창립과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를 중심으로 서예인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에는 더욱 다양한 서예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1990년 안양여성서예가회를 시작으로, 1995년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안양시지부, 1997년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안양지회가 창립되었다. 2017년 사단법인 추사협회가 결성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안양서예의 전체적인 흐름을 단체 활동 속에 짚어 보았다.

1)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안양지부 – 서예

1970년대 당시 서예인으로는 손경유 선생을 비롯해 유광열, 장태봉, 황인호 등이 있었으며 지금도 후학 지도를 하고 있는 박한춘은 안양지역의 한글서예 보급에 기여한 바가 크다.

1980년대에 경기미술대전에서 이남아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1984년과 1985년에 윤옥규, 박한춘 이남아, 이영락, 허회태 등 여러 작가들이 권위 있는 '동아미술제'와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입선하며 중앙무대에 등단하게 되었다. 또한 KBS 주최 '전국휘호대회'에서 최민렬이 금상을, 이영락이 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처럼 안양에서도 명실공히 전문성을 갖춘 많은 서예가가 탄생되었으며, 관악학생미술실기대회에서는 미술뿐만 아니라 서예 부문에 참여한 학생들이 1000여 명에 이를 정도였다. 이렇듯 1980년대는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과 성과가 있었다.

1990년대에는 서예 인구가 늘어나는 동시에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 이영락은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과 경기미술대전 1990년도 최우수상, 1991년 대상을 받았다. 문인화 부문에서 주시돌은 경기미술대전 최우수상을, 한문 서예 부문에서 1997년 박병선이 경인미술대전 대상과 1999년 전국휘호대회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동아미술제에서는 최민렬이 동아미술상을 받아 대외적으로 안양 서예의 위상을 높였으며, 1995년 미술의 해를 맞아 전국 규모의 관악현대미술대전이라는 공모전을 개최하여 안양미협 서예활동은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에 이르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예실을 찾는 취미생들의 감소와 우후죽순 개설되는 서예 강좌로 회원들의 활동이 다소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안양미협 회원들은 여러 변화에 순응하면서도 대학 서예과에 다수를 합격시켜 전문적 후배 양성에 힘을 썼다. 2000년대 안양미술협회 회원들의 꾸준한 개인적 역량 계발에 힘을 기울여 2004년 이혜숙이 경기미술대전 서예 부문 대상을, 이강순·강윤정·김향선 등 많은 서예인이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주시돌·정국영은 문인화에서, 박병선은 서예에서 수회 입선과 특선으로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초대작가로 활동하고 있고, 최민렬·이남아·이영락이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으로 안양 서예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높인 바 있다. 이영락은 2015년 대한민국 서예대전 3차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하였다.

학문적 정진을 위한 노력으로 강윤정·김향선이 대학원을 진학하였으며, 김향선은 한

관악현대 서예대전 전시 장면(2015)

관악현대미술대전-서예 문인화(2024)

글서예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마음체, 이슬체, 민들레체 등 3종의 한글 폰트를 개발하여 그의 학문적 열정을 실현하였다.

최민렬·이남아·김향선·전건형 등이 대학 서예 강사로 활동하였으며, 많은 회원들이 동사무소, 여성회관, 문화센터 등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 서예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장순자 관악현대미술대전 대상, 하계환의 경기미술대전 최우수상, 김현미의 제39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부문 최우수상 등 다양한 공모전 수상으로 회원들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오영인·김현미·장순자·유향순·전건형 등이 서예과 석사학위 취득으로 서예 분야의 학구적 탐구에도 정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박병선·김영남·장순자 등이 해외 교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 최고 권위 있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로는 서예 분야 이남아·이영락·박병선·강윤정·김향선·김용분·이혜숙·이강순·김영남·유향순이, 문인화 분야 주시돌·정국영·박완·하계환·김현미 등의 작가가 있다. 이들 중 안양미협 서예분과 회원으로, 이는 안양 서예의 높은 수준을 잘 보여준다. 1995년 시작된 전국공모전 관악현대미술대전은 2024년 현재 제28회를 맞아 서예·문인화 부문에서 많은 서예인을 배출하고 있다.

2) 안양서도회

안양서도회는 1975년 10월 12일 안양지역에서 활동하던 서예인들이 최초로 서예단체를 창립하였다. 그해 12월 10일 안양시 시흥군 서도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1976년 10월에 첫 창립서예전을 개최하였다. 산하단체로 금성통신 직장서우회와 대한잉크 페인트 등의 서우회를 창설하는 등 후진 양성에 힘을 썼다. 1983년에는 청소년 근로자를 대

상으로 근묵서학회를 설립하고, 1985년에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성묵회를 창설하였다.

1987년 차성규가 제7대 회장에 선임되었다. 1988년 금천문화제를 제3회 만안문화제로 변경하여 서도회전을 열었으며, 안양시 시흥군 서도회의 명칭을 안양서도회로 변경하였다. 1992년 우동호가 제9대 회장으로, 1996년 전남훈이 제11대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동안구청에서 제1회 동안구민 휘호대회를 주관하였다. 1998년 이명종이 제12대 회장으로, 2000년 1월에는 이인희가 제13대 회장으로 선임되어 2001년 동안구 휘호대회와 만안구민 서예한마당(안양초등학교 체육관)을 주관하였다. 동안구민 휘호대회는 안양실내체육관으로 옮겨 더욱 큰 규모의 행사로 발전하였다. 2004년 제14대 주시돌이 회장으로 선임된 후, 같은 해 6월 12일 동안구청의 휘호대회와 만안구의 서예 한마당 행사를 통합하여 제1회 안양시민휘호대회를 개최하였다.

제2회 안양시민휘호대회(2005)

제18회 안양시민 휘호서예 공모전(2023)

역대 회장으로는 2006년 박병선(제15대), 2008년 윤봉주(제16대), 2010년 이윤주(제17대), 2012년 우동호(제18대), 2016년 김용영(제19대), 2020년 장숙자(제20대), 2022년 주시돌(제21대)을 거쳐 2023년 장숙자가 제22대 회장을 맡고 있다.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안양시민휘호대회는 공모전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안양서도회는 현재 제19회 안양시민휘호대회(공모전)와 제46회 안양서도회전을 개최하며 50여 년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회원 각자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도전 초대작가 및 각종 단체에서 예술 활동에 전념하고 개인전과 그룹전, 서예 지도로 후진 양성 등 안양 서예 발전에 힘써왔다.

3) 안양여성서예가회

안양여성서예가협회는 1990년 8월 24일 설립되었으며, 초대 회장으로 윤옥규를 선출하고 회원 선정 기준을 엄격히 정하였다. 같은 해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안양미술관에서 창립전을 열었다. 1994년 제5회 회원전에는 안양서도회와 연합전을 열어 지역 예술 단체들과 적극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안양시 상설부녀기능대학 서예반에서 서예 지도 봉사를 하였으며 졸업생들의 동문회 이문회, 한우리회, 명지회를 1994년 4월 조직하여 서예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중에 이문회는 명실상부한 여성단체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1995년 2월 안양시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하였다. 2001년 9월에는 관악여성서예공모전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총 5회의 공모전을 개최하여 여성 서예가들을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2017년도 제28회 안양여성서예가회 회원전을 평촌아트홀에서 개최한 후 단체 활동의 막을 내렸다

역대 회장은 1~2대 윤옥규, 3대 이남아, 4대 이강순, 5대 서인자, 6대 이혜숙, 7~8대 강윤정, 9대 김영남, 10대 이목회, 11대 김향선, 12대 정길자, 13대 장순자가 회장직을 맡았다.

제24회 안양여성서예가회 회원전(2013)

4)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경기도지회 안양시지부

사단법인 한국서가협회 경기도지회 안양시지부는 1996년 6월 설립되었다. 2000년 7월 10일 초대 지부장으로 우동호가 선출되었으며, 1회 지부전을 평촌전시관에서 개최하였다.

안양서가협회에서는 회원들의 서예활동의 일환으로 삼막사 주시경 선생의 글씨 탁본과 전국의 고古비문의 탁본을 통하여 선인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공부하는 단체로 활동하였다. 2011년에는 제12회 지부회원전 '선인들의 풍류와 시'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역대 회장은 2000년 1·2대 우동호, 2003년 3~4대 박정규,

2008년 5대 손근식으로 이어졌다.

5)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경기지회 안양지부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안양지회는 1997년 1월 20일 안양, 과천, 군포, 의왕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경기지부 회원을 기반으로 2월 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제1대 지회장으로 김춘태를 선임하고, 3월 10일 경기도 지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경기지부 안양지회로 인준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14일 안양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제1회 안양시지회 창립회원전을 열었다.

2000년 11월 20일 안양지회 소속 군포시 회원들이 정관에 따라 독립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23일 제1회 안양시서예대전을 안양문예회관에서 진행하였다. 2·3·4대 지회장을 역임한 김춘태는 2004년 제5회 대전에서 한국서예와 중국 웨이팡시의 교류전을 성사시키고 웨이팡시 서법협회 회원 작품 30점을 전시하였다.

2005년 1월 29일 류기곤이 제5대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같은 해 12월 제6회 안양시서예대전을 개최하였다. 이때 그동안 배출된 초대작가들의 작품을 깃발에 인쇄하여 전시장 광장에서 깃발전을 선보였다. 2006년 1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의 정관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 경기지회 안양지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9년에는 안양시페스티벌 깃발전에서 특별한 전시 기획으로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2010년 최명식 회장은 2017년까지 안양시서예대전을 운영하며 2015년 9월 5일 제16회 안양시서예대전과 한·중서화교류전을 동시에 개최하였다.

2018년부터 정윤주, 2020년부터 강옥규, 2023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양순영 회장이 단체를 이끌어오고 있으며, 2023년 12월 11일 안양시서예대전 초대작가전, 2024년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제25회 안양시서예대전 및 초대작가전을 개최하였다.

안양시서예대전의 운영 방법에서 특선 이상 입상자는 현장 휘호를 거쳐 확정하며, 공모 부문에 현대서예(캘리그래피)가 있다.

6) 사단법인 추사서예협회

2015년 8월 20일 사단법인 추사서예협회가 창립되었다. 김대식을 초대 회장으로 하여 같은 해 11월 11일 비영리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2016년 8월 22일 추사서예협회

창립회원전을 열었다.

추사서예협회(2023)

추사 김정희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본받으며 우리의 전통 서화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제1회 한국추사서화예술대전을 안양아트센터 미담에서 개최하였다. 한글, 한문, 문인화, 캘리그래피, 추사체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 공모전과 다르게 추사체 부문을 포함시키고 학생 부문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추사서예협회 창립 전 김대식에 이어 이준서가 운영하던 '전통문화예술전수원'을 추사협회 내에 두기로 정관에 명시하였으며, 따라서 이 기관은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노인휘호대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이준서에 이어 박완이 책임을 맡아 2024년 제13회 노인휘호대회를 개최하였다.

역대 회장은 제1대 김대식, 제2대 최병인, 제3대 이충영 회장이 단체를 이끌어왔으며 2024년 현재 제9회 한국추사서화예술대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6년 1회 회원 정기전 이후 임원들은 한국추사서화예술대전 초대작가전에 함께 참여하여 회원전을 대신하고 있다.

7) 서예 동호회 활동

보름서학회 1985년 보름 손근식이 보름서실을 개관하고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시작되었다. 같은 해 10월 27일 안양근로자회관에서 첫 전시회를 연 이래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서예전시를 개최하는 등 2024년까지 40여 년간 해마다 정기전을 개최해왔다.

꽃실한글서우회 1999년 꽃실 김영남의 제자들로 결성되어 소외계층인 빚진자들의 집, 안양보육원, 중앙시장 내 공부방, 서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등에서 서예 지도 자원봉사를 하였다. 만안평생학습센터, 안양문화원 등에서 학습하며 평생학습박람회장, 안양시민축제, 안양예술제 등 축제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서예 캘리그래피 체험과 가훈, 좋은 글 써주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정기전 '아름다운 한글 먹빛향기전'을 꾸준히 열고 있으며, 2024년 안양문화원에서 정기전을 개최하였다.

우석묵연전 2005년 주시돌의 문화생이 주축이 되어 활동한 문인화 동호회이다. 동안문화관에서 12년간 정기전을 이어왔으나, 현재는 모임이 유지되지만 지속적인 정기전은 열리지 않고 있다.

가묵회 2013년 동안평생교육원 양순영을 지도 강사로 한 서예 및 문인화 동호회로 출발하였다. 동안문화관에서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2024년 제9회 가묵회전을 개최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일정연묵회 2013년 1월 15일 창립한 문인화 동호회로, 하계환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2023년까지 1회부터 8회까지 정기 회원전을 개최해왔다.

송재묵연회 2015년 10월 창립되한 문인화 모임으로, 안양시평생교육원 만안노인복지회관과 안양문화원 문화학교에서 수강하는 30~80대 우동호의 수강생들이 함께 출품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24년 제10회 송재묵연회를 안양문화원에서 개최하였다.

묵향 2009년 3월 4일 창립총회를 연 동아리로, 노인회관에서 공부한 60세 이상 회원들로 구성되었다. 생업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기고 문인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으로, 2011년 안양시 묵향회 제1회전을 동안갤러리에서 연 이래 2024년 묵향 제11회 회원전을 평촌아트홀에서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정기전을 이어가고 있다.

묵기 1991년 창립한 현대서예를 추구한 그룹으로, 2006년 6월 '먹의 오르가즘'이란 주제로 첫 전시를 열었다. 그룹 묵기 회원 대부분이 안양과 성남, 군포, 용인 등 경기도에 거주하며 현대서예를 추구하고 있다.[11] 3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인 이 그룹은 제2회전을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제4회전은 군산시민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2013년 제5회전은 안양아트센터 갤러리 미담에서, 제6·7회전은 서산 안견창작스튜디오에서 개최하였다.[12] 2015년 이후 안양에서의 활동을 지속하며, 제13회 '먹칠하다', 제15회 '本是를 찾다', 2024년 제16회 '각인각색전'을 안양아트센터 갤러리 미담에서 개최하였다. 16회 전시에서는 화선지와 스카프 등 의복 등에 현대서예의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전시마다 주제를 정해 최근 안양에서 전시를 개최하고 있는 묵기 그룹의 현대서예 활동은 안양지역 서예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 사진

안양의 사진 활동은 197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안양의 사진문화는 열정적인 동호인들의 창작활동과 모임을 통해 형성되었다. 금성통신주식회사 내에 인포멀그룹 사진회가 활동하고 있었고, 사진협회와 인연이 깊은 여동희 회원이 사진협회 본부 최인석 이사를 지도위원으로 모시고 회원을 모집하여 안양사진연구회를 창립하였다.[13] 이를 통해 안양지역 사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후 '마니아사진회'의 창립과 함께 안양지역의 사진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의 창립으로 각종 촬영대회와 공모전, 전시회, 세미나 등을 통해 사진 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면서 안양지역의 사진 발전을 이끌었다.

1)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

합동사진전 개막식(1991)

1987년 6월 20일 최인석을 중심으로 사진협회 안양지부 첫 발기인 회의를 로만다방에서 개최하였다. 7월 18일에는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로 정식 인준을 받아 공식적으로 창립되었다. 지역 사진예술의 선구자 역할을 맡은 협회는 초대 최인석 지부장을 중심으로 1989년 10월 제1회 전국어린이사진공모전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14]

1992년 3월 제2대 지부장으로 김병련이 선임되었다. 그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안양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동호회들의 협조를 받아 제1회 안양 예술제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제1회 사협 회원전 및 합동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합동사진전에 참여했던 사진동호회들은 안양지역의 사진 발전과 사진작가협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안양지역 사진써클총연합회를 발족하였다.

1992년 10월 3회에 걸쳐 실시한 전국 어린이 사진공모전의 명칭을 '제4회 전국사진공모전'으로 변경하여 협회의 활동을 확대하였다.

1998년 2월 경선을 통해 우명률을 제4대 지부장으로 선출하였다.[15] 4대 지부장 시기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효도 사진 촬영 및 전달 행사를 진행하였으며,'98 사진 영상의 해'를 기념하여 제1회 안양사진대전을 개최하였다. 이 대전은 안양시민들의 사진예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으나 예산 문제로 단 1회로 막을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

2000년 제5대 지부장으로 이선구를 선출하였다.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자 전국사진공모전을 대폭 수정하여 '안양전국사진공모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 가족, 효, 안양의 상징과 문화를 주제로 한 사진을 공모하였다. 안양 홍보와 함께 지역사회 문화를 민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제12회 안양전국사진공모전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선구 지부장은 임기 중에 안양예술제 일환으로 2000년 안양지역 합동사진전을 신설하여 2001, 2002년 개최하였고 제3회, 제4회 안양지역 합동 촬영회와 제219회 전국사진강좌를 운영하였다.[16]

2003년 2월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병기는 2004년 '안양팔경'을 주제로 한 전국사진공모전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많은 사진동호인이 안양을 방문하였다. 2005년 5월에 실시한 회원전은 과거에 해오던 전시 방식을 바꾸어 액자에 의존하던 전시가 아닌 포트폴리오, 테마 사진, 다큐멘터리 사진 등 작품에 담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여 관람객과 공감할 수 있는 전시회를 기획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17]

200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안양예술공원 알바로시자홀 개관 기념 APAP 작품 사

망해암 낙조, 안양8경 제16회 전국사진공모전 금상 수상작(2004, 권영동 작가)

APAP 사진전(2006)

진전을 개최하였으며 제15회, 16회 회원전은 실내 전시장에서 벗어나 안양예술공원 전망대 진입 등산로와 전망대에서 진행하였다. 제16회 회원전은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치러졌다. 같은 해 시민의 날 기념 축제 기간에 2007년 제1회, 2008년 제2회 안양시민축제 사진촬영대회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또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작품을 주제로 APAP 디카 전국사진콘테스트를 실시하여 작품집을 남겼다.

2009년 제8대 박상민 지부장은 임기 중 제21, 22회 전국사진공모전의 명칭을 '어린이 가족사랑 효 전국사진공모전'으로 변경하여 개최하였다.

2012 안양 추억의 페스티벌 안양사랑 사진잔치

2011년부터 제9대, 10대 채영애 지부장은 임기 중에 시민의 날 촬영대회를 시민 무료사진 촬영으로 변경하여 2011년부터 3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하였다.

제11대, 12대 신선건 지부장은 2014년 안양시민의 날 축제에서 '안양사랑 사진잔치'를 주제로 가족사진을 무료로 촬영하여 720 가족에게 현장에서 즉시 사진을 전달하였다. 또한 임기 중에는 2007년부터 중단했던 전국 사진강좌를 제739회부터 재개하여 82명의 수강생을 수료하게 하였으며, 제858회(2018.10.20)에는 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전국사진강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2019년 1월 백승의 지부장이 선임되었다. 그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점차 지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이 증가하였고, 각종 공모전에 관심을 가지고 입상하는 회원들이 많아지면서 안양지부 작가들의 전문성과 위상을 높였다. 10월 26일에는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안양지부 '회원의 날' 행사를 새롭게 운영하였다. 일시적으로 중단된 사진 강좌 대신 사진협회 안양지부의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안양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진 강좌를 실시한 것이다.[18] 코로나 시기인 2020년에는 유튜브를 통해 회원전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이후에는 작품과 함께 전시장 스케치를 제작해 시민들과 폭넓게 소통하였다.

2023년 박용하 지부장이 선임되었다. 2004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평촌아

안양옛사진전 '안양, 시간을 걷다'(2014, 이정범 제공)

제24회 안양지역 사진써클연합전(2016)

제34회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양지부 회원전(2025)

트홀에서 정기회원전과 특별기획전 포트폴리오 3인전 'Travelism: 세 개의 여정, 하나의 이야기'를 개최하였다. 특별기획전은 Travelism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고, 3인 작가의 서로 다른 여정과 Travelism의 공통된 주제인 자연과의 교감, 역사적 감성, 내면의 성찰을 담고 있어 관람객들에게 Travelism의 다채로운 의미를 경험하고, 여행이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넘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2) 안양지역 사진 단체

안양사진연구회

1970년대 당시 안양에는 금성통신주식회사 내에 인포멀그룹 사진회가 활동하고 있었고 사진협회 관련 업무 내용을 많이 접하고 있었던 여동희 회원이 사진협회 본부 최인석 이사를 지도위원으로 모시고 회원을 모집하여 안양사진연구회를 창립하여 안양지역 사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19] 안양사진연구회는 1979년 12월 창립하여 1980년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정우빌딩에서 첫 회원전을 개최하였다. 당시 회원들은 매월 정기 촬영과 월례회를 통해 기량을 연마하였다.

역대 회장은 초대 홍석진, 3대 이덕영, 4~6대 김병련, 7대 윤세명, 8~9대 김병련, 10대 최현돈, 11~12대 우명률, 13~14대 여동희, 15~16대 이선구, 17~18대 김홍헌, 19~20대 이창재, 21~22대 박민기, 23~24대 정준식, 25대 이영섭, 26~27대 고정수, 28~29대 채영애, 30~31·32대 윤세명, 33~34대 이석준, 35~36대 최병진, 37~38대 김성은, 39~40대 강성휘, 41~42대 김운성, 43~44·45대 윤세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양에 있는 사진동호회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결속력이 강한 동호회이다.

45년의 역사를 배경으로 2024년 11월 10일에서 14일까지 평촌아트홀에서 44회 회원전을 개최하였다.

2024년 제44회 안양사진연구회 전시 초청장

예사연(안양예술사진가연합회)

1985년 11월 결성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서 한정식 교수를 초청하여 사진강좌를 개최하였다. 1986년 2월 1일 창립하여 초대 회장으로 이상윤을 선임하고, 같은 해 제1회 만안문화제 사진전을 선보이며 회원 활동을 시작하였다. 1988년에는 안양유원지에서 제1회 시민촬영대회를 개최고 만안문화제 회원 사진전에 함께 입상작을 전시하며 1994년까지 총 6회에 걸쳐 행사를 운영하였다.

1995년부터 전국사진공모전을 시작하여 1997년까지 운영하였다. 회원전은 'Life',

‘사진의 입체주의’, ‘신 풍경전’, ‘빛과 그림자’, ‘The Colour Inside’, ‘각각’ 등 다양한 주제로 정기전을 이어오고 있다. 보육시설 ‘좋은집’에서 지속적으로 촬영 봉사를 하였으며, 2012년 전효복을 지도 강사로 모시고 안양예술사진연구회를 조직하였다. 이후 매주 모여 사진이론을 배우고 작품 합평회를 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24년 10월 13일 안양아트센터 미담갤러리에서 제39회 회원전을 여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986년 초대 회장 이상윤을 시작으로 2~3대 강윤원, 4대 유승관, 5대 강윤원, 6~7대 강세일, 10대 임창희, 11대 전효복, 11~13대 성백달, 14~15대 박동욱, 16~17대 백영미, 18~19대 전효복, 20대 백영미. 21~23대 장순범, 24~25대 이인철, 26대 김두환을 거쳐 2024년 현재 제27대 이제숙 회장이 단체를 이끌고 있다.

제36회 예사연(안양예술사진작가연합회) ‘각각’전(2021)

안양사진써클연합회(안양지역사진써클총연합회)

안양사진써클총연합회는 1992년 발족하였다. 1993년 초대 회장으로 김영일을 추대하였으며, 창립 단체로는 안양사진연구회를 비롯해 10개 단체[20]가 참여하였다. 합동 쎄미누드 촬영회를 시작으로 사진 세미나, 안양 환경사진 전시회, 합동촬영회, 효도사진 무료촬영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기록사진, 풍경사진, 생태사진, 구성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각각의 개성을 살린 폭넓고 수준 높은 회원전을 개최해왔다.

2012년 20주년을 맞은 안양사진써클연합회는 정기전에 '우리안양 그 안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안양의 일상과 찰나의 모습들이 담긴 작품을 대거 전시하여 관심을 모았다. 회원들의 작품 75점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013년 21회 전시에서는 알래스카 횡단(동서남북)을 촬영한 작품 앨범 4권과 이규정 회장의 덕천마을 재건축 기록사진 앨범 5권을 전시장에 배치하여 관람객과 사진 애호가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안양사진써클연합전은 2024년 제32회 정기전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역대 회장으로는 1993년 초대 김영일 2~6대 심성권, 7대 우명률, 8~9대 김병련, 10~12대 심성권, 13대 이규정, 14~5대 송창헌이 활동하였으며, 현재 16~17대 전효복이 회장을 맡고 있다.

빛띠 관악사우회

1995년 1월 창립총회에서 정대석을 초대 회장으로 선임하였다.

1998년 안양문예회관에서 제1회 회원전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2007년 제10회 빛-띠 관악사우회 특별회원전, 2009년 제12회 빛-띠 관악사우회 특별회원전(평촌아트홀 전시실), 2013년 제16회 빛-띠 관악사우회 부스 개인전을 안양아트센터 미담갤러리에서 전시하며 회원 각자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었다. 2024년 12월 2일부터 평촌아트홀에서 제27회 빛-띠 관악사우회 회원 정기전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제32회 안양사진써클연합회 회원전(2024)

역대 회장은 정대석(1995), 허역(2000), 이규정(2002), 박상민(2004), 박춘순(2006),이규정(2008), 이영철 연임(2010), 현재 임병술(2015~2024)이 회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제16회 빛-띠 관악사우회 부스 개인전(2013)

안양시청 사진동호회

안양시청 사진동호회는 2008년 8월 21일 창립되어 2010년 11월 2년 만에 첫 작품전을 개최하였다. 안양시청 홍보실(민원실 2층)에서 열린 이 전시회에서는 27명의 공무원 회원들이 포착한 순간을 작품으로 선보였다. 매월 1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렌즈를 통해 사물과 풍경을 담는 취미활동을 전개해왔다.

안양포토마니아(구 안양포토아이리스)

2008년 11월 14일 창립된 안양포토아이리스는 안양에 거주하며 사진을 취미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로 구성되었다. 현재 안양포토마니아로 명칭을 바꾸어 활동 중이다.

학의사진연구회

2012년 결성된 학의사진연구회는 A-One 갤러리[21] 개관 이후 계원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마틴리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고 학의사진 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하였다. 2013년 제1회 학의사진연구회 회원전을 개최한 이래 회원전 및 안양시민축제 촬영부스 운영 등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사진여행 회원전

2015년 창립한 동안평생교육원에서 사진에 입문한 사진가들의 동호회로, 2021년 6회 사진여행 회원전을 A-ONE 갤러리에서 개최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카메라루시다

2019년 9월 1일 창립되었으며, 안양시청 베이비부머 지원 센터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진촬영 강좌에서 모인 단체이다. 우리 동네 풍경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으며, 안양 9경 등을 촬영해 전시하였다.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사진작가협회 안양지회

2012년 6월 20일 한국디지털사진작가 안양지회를 설립하였다. 디지털카메라의 대중화로 문화 콘텐츠 아카이브의 생성·축적·관리를 통해 국가문화유산 기록사업에 기여하고,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사진·영상 및 융합예술 영역의 창작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국제협력과 교류를 수행하여 국가와 회원들의 예술적 자질 향상과 권익 옹호를 목

적으로 하고 있다. 2015년 6월 20일 제1회 안양지회 회원전을 평촌아트홀에서 개최하였으며, 2018년 3회 전시 이후 코로나로 인해 4~7회 회원전을 협회 온라인으로 전시하였다. 2015년 8월 25일 안양지회 등록을 하고 2016년 6월 18일 제1회 안양지회 전국사진공모전을 주최하였다.

역대 회장은 1대 박왕업, 2대 정복희, 3대 최충영, 4대 정복희, 5대 황인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3) 안양사진 활동

안양시승격 30주년 기념
닐 마샬로프 특별사진전 도록(2003)

단체 중심의 활동 이외에 안양지역에서 개최된 사진 관련 전시 및 행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진문화의 다양한 전개를 살펴볼 수 있다.

1960년대 말 안양 석수동에서 군복무 중 안양의 모습을 찍어 보관해온 미국인 닐 마샬로프의 사진전시가 2003년 10월 안양시민축제 때 마샬로프의 사진들로 특별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이 시기 안양에서 기록사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전시된 사진들은 1960년대 안양의 옛 모습과 당시 시민들의 생생한 생활상 등 우리의 소중한 삶의 모습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안양에서는 기록사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계기가 되었다.

안양롯데백화점 내 롯데화랑은 미술뿐 아니라 사진전시를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2년 9월 20일 〈최민식 사진전-소년시대〉, 2015년에 열린 〈한·중·일 사진작가전〉은 현대미술계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세 나라의 작가 8명이 참여해 작품을 선보였다. 그들의 사진을 통해 동시대인들의 삶과 문화를 반영한 현대사진의 진면모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2010년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서는 사진을 매개로 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제3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2010)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림미술관 프로젝트 '2010 만안의 이미지-기록과 기억'에는 김재경·박형근·석재현 전문 사진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안양에 거주하는 7개 고등학교[22]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당시 뉴타운 개발 등 급격한 도시 변화로 사라져가는 마을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한 작품 230여 점이

제3회 APAP 만안의 이미지 기록과 기억(2010)

대림대학 아트홀 갤러리에서 전시되었다. 〈2010 만안의 이미지-기록과 기억전〉은 관람객들이 만안의 이미지를 공유하고, 보존할 수 있는 대규모 아카이빙 프로젝트가 되었다.

2016년 관양도서관에서 11월 두 달간 심성권의 동편마을 풍경사진 29점 전시되었다. 1985년부터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개발되기 이전까지 동편마을의 모습을 담은 이 사진들은 특히 '동편마을'의 사계와 관악산을 배경으로 한 장면들이 관람객을 아련한 추억 속으로 이끌었다.

2017년부터 안양예총의 '우리동네 이야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안양사진작가협회 심성권의 동편마을 사진에서 비롯된 사업은 사진작가협회, 미술협회, 문인협회의 협업으로 안양 우리 동네를 예술적 감각으로 기록하고 기억하였다. 이어서 2018년 '안양예술공원 APAP 이야기', 2019년 '안양천, 학의천 이야기', 2020년 '냉천마을 이야기_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과 기억', 2021년 '양지마을 이야기', 2021년 '안양예술공원_박물관 마을 이야기', 2022년 '안양중앙시장 이야기', 2023년 '안양1번가 이야기', 2024년 '병목안 이야기'로 이어졌다. 2020년 냉천마을 이야기는 냉천지구 재개발사업 현장 가림막에 스토리텔링으로 재디자인되어 2022년 공사 현장을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안양예총 냉천지구 재개발사업 현장 가림막(2022)

2018년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평촌아트홀 제2기획전시실에서는 '안양, 시점'을 주제 로 전시회가 열렸다. 〈안양, 시점〉전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안양'의 다양한 대상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점에서 바라본 모습을 담아낸 아카이브 사진 전시회였다. 최병렬을 중심으로 안양기억찾기 탐사대 활동 등을 통해 안양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고 기록하는 작업을 해온 결과물이었다. 이 전시회의 사진들은 단순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공간, 이야기를 담아내는 기록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안양, 시점〉전(2018)

안양예술고등학교 사진영상과는 학생들의 안양에서의 전시활동을 전개하였다. 안양 롯데화랑, A-One 갤러리, 삼덕도서관, 만안청소년 로비 등에서 사진전시를 개최하였다. 사진영상 분야의 인재들을 양성해온 안양예술고등학교 사진영상과는 2019년 27기 작품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2019년 9월 건축사진 전시 그룹 KAP(Korea Architectural Photography)가 기획전시 〈田지적 창견시점 : Ways of Seeing Windows〉전을 오픈스쿨에서 개최하였다. KAP는 2016년에 창단한 신진 건축사진 창작 그룹으로,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건축사진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건축사진 네트워킹 플랫폼이다.

2013년 사진 전문 갤러리로 문을 연 A-One 갤러리의 운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One 갤러리는 사진을 전문으로 전시하는 안양 최초의 사진 갤러리이다. 2013년

8월 세계적 다큐멘터리 사진가 구와바라 시세이 사진전을 열었으며 2013년 9월 정명오의 〈From My View〉 , 2014년 4월 박신흥의 〈나의 살던 고향은〉, 2014년 7월 송승진의 〈회귀〉 등 초대전과 개인전, 단체전을 개최하였다. 한·중 국제교류전, 한·미 국제교류전, 한·일 국제교류전 참가 등 해외 교류전에 참가하였으며, 2015년 2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괴테문화원 초대전 해외 전시 주관 기획을 통해 대내외적인 활동의 폭을 넓혔다. 또한 사진동아리 학의사진연구회, 학의사진아카데미, 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있다.

註

1 홍사영 의 글(경기미술 창간호 중), 이경모 글 (안양미협. 『안양미협 30년사』2006년) 글 근거로 정리함.
2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티스토리]-'안양지역근대건축' 편에서 건축사 최승원은 대부분의 기록을 보면 '나혜석이 말년에 행려병자처럼 살다 죽었다고 되어 있으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분석하였다.(https://ngoanyang.or.kr/994)
3 안양미협, 『안양미협 30년사』, 2006.
4 2019년 이후 안양미협 활동은 안양미협 소식지를 참고함.
5 안양시 단체 지원금 선정 단체 공고문, 안양아트센터 미담갤러리 전시, 평촌아트홀, 동안전시관 등의 전시 기록을 기초로 조사하였으며, 다소 누락된 단체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6 천기원, 오정식, 금영보, 이강은 등.
7 2000년 개관 당시 신도시의 의미를 부여코자 '평촌'이란 명칭으로 사용돼 왔으나 이 명칭은 동안구 관내 '평촌동'으로 국한되는 느낌이 있는 데다, 비슷한 명칭으로 2004년 개관을 앞두고 있는 '평촌아트홀'과의 혼동이 예상되어 현재 동안문화관으로 개칭됨.
8 「대안예술공간 스톤앤워터」, APAP(https://www.apap.or),
9 경기신문(https://www.kgnews.co.kr)
10 전북도민일보(http://www.domin.co.kr)
11 https://www.kyeonggi.com/article/200802120268046
12 NEWS REPORT(뉴스리포트)(http://www.news-report.co.kr)
13 이영섭, 『안양예총 30년사』, 안양예총, 2020.
14 이영섭, 『안양예총 30년사』, 안양예총, 2020.
15 안양시, 『안양시사』, 2008 참조.
16 이영섭, 『안양예총 30년사』, 안양예총, 2020.
17 안양시,『안양시사』, 2008 참조.
18 이영섭, 『안양예총 30년사』, 안양예총, 2020.
19 이영섭, 『안양예총 30년사』, 안양예총, 2020.
20 가나안제과 사진동호회, 군포 사진연구회, 금성 화인더 멤버, 동아제약 사진회, 만안 사진회, 안양 흑백사진 연구회, F- 64 사진회, 유한양행 사진회, 가축위생연구소 찌금패, 포토타임 사진회
21 사진 전문 갤러리로 출발하였다.
22 안양여자중·고등학교, 성문여중, 신성중·고등학교, 안양여상, 안양예고.

3장

안양의 공연예술

박형만 안양예총 사무국장

공연예술(公演藝術, Performing Art)이라 함은 무대에서 공연되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말한다. 본질적으로는 표현자와 관객이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그 자리에서 작품의 실체가 만들어져 가는 형태의 예술을 가리킨다. 공연예술은 관객을 위해 공연되는 예술로 미술, 사진 등과 같은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시각예술과 다르며, 대표적인 공연예술 분야로는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연예예술 등이 있다.

안양은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과거 농업 중심 지역에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문화적 중심지로 발전해왔다. 이와 같은 역사적 변화 속에서 안양의 공연예술은 다양한 장르와 결합하며 그 뿌리를 깊게 내려왔다.

이 글에서는 안양의 공연예술을 음악, 연극, 연예예술, 무용, 국악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안양시사』(2008), 최근에 집필된 『안양예총 30년사』(2022)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1. 음악

1) 안양음악의 태동

안양의 음악은 학교, 교회, 기업체를 중심으로 뿌리를 키우며 태동하였고, 학교를 중심으로 창가를 배우고 불렀으나, 당시 안양에는 음악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없었다. 서울에 진학했던 부유층의 자녀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구전으로 열심히 배우고 뽐내던 것이 고작이었다.

특히 해방 후 음악은 정식 교과목으로 편성되었고, 음악 교사들이 부임하기 시작하였다. 안양중학교의 신현익이 음악을 전공한 최초의 교사였다고 한다. 안양중·고등학교에 부임한 강현구는 학생들에게 오페라를 관람시키고, 가곡과 아리아를 가르쳐 음악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1954년에는 안양공고 예술제가 화단극장에서 열려 화제를 모았고 안양의 음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한편 교회들은 각기 찬양대가 있어 예배를 위해 찬송가를 공부하고, 또 예배 때 성도들과 찬송가를 불렀다. 이것을 이 지역 서양음악의 시작으로 보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음악은 교인들 사이에서만 알려졌을 뿐 일반화되지는 못하였다.

1958년 장상덕은 '서울합창단'이라는 어린이 합창단을 창단하고, 단원을 모집하여 독창·합창을 지도하며 발표회 겸 공연을 열기도 했으나 어려운 여건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국 KBS합창단으로 떠났다.

1972년 2월 단장 이세종(안양대 교수)과 지휘자 노동은(중앙대 교수)을 중심으로 '글로리아합창단이 창단되었다. 80여 명의 단원들이 모여 합창 연습과 음악 교육을 받았고, 서울과 지방 순회공연을 다닐 정도로 수준 높은 활동을 펼쳤으나 초청자가 주로 교회 중의 성가에 치중하였다. 종교음악의 틀을 벗어나 합창 전반으로 공연의 폭을 넓혀보려는 열망에서 1975년에는 '은파합창단'으로 개명하고, 다양한 합창곡들을 연습·공연하였으나, 여전히 교회음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운영되다가 1976년 재정난으로 해체되었다.

1973년 안양청년회의소가 농아연주단을 초청하여 화단극장에서 공연했는데, 이는 안양지역 최초의 유료 음악회이면서 자선 음악회로 큰 관심을 받았다.

1975년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전개하며 국민의 관심을 결집시키기 위해 합창 활동을 장려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의 여파로 안양에서도 안양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합창단을 창단하였다. 이에 각 기관과 단체, 회사들이 앞다투어 합창단을 창단하기 시작하여 8월에는 금성통신(주)이 합창단을 창단하였고, 이어서 기아산업(주), 동일방직(주), 대우중공업(주) 등 여러 회사에서 많은 합창단과 중창단이 생겨났다.

1977년 12월 3일, 안양 삼원극장에서 안양청년회의소(회장 김행웅)가 '제1회 안양음악제'를 개최하였다. 이는 안양에서는 처음으로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음악행사였다.

1978년 3월 전평화(당시 안양여고 음악교사)는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을 '쌍투스합창단'을 창단하였다.(안양시사에는 1975년 문화목재 사장 이상윤에 의해 창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명확하지 않다.) 장배순이 제1대 단장을, 전평화가 제1대 지휘자를 맡은 쌍투스합창단은 당시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안양지역 합창음악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안양시립합창단의 모체가 되었다.

제1회 안양음악제(1977, 이정범 제공)

1980년에 들어서면서 안양지역 각 학교에서 근무하는 음악 교사들이 정기모임을 가졌고, 이 모임에 참여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음악교사협의회(회장 마광재)가 결성되었는데, 이것이 한국음악협회 안양지부의 모태가 되었다. 또한 안양대학교에 안양지역 대학 최초로 교회음악과가 신설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음악과로, 음악대학으로 발전하면서 수많은 음악인을 배출하며 안양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1년 9월 26일에는 양명고등학교 강당에서 안양문화원이 주최한 '제1회 관악음악제'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안양지역 음악인의 등용문으로서의 권위를 과시하였다.

제1회 관악음악제(1981)

2) 안양음악의 형성과 한국음악협회 안양지부의 창립

안양의 음악이 실질적으로 형성된 시기는 안양음악협회의 창립부터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당시 서울과 수원의 양 대도시 사이에 위치해 있던 안양은 문화예술의 열악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특히 음악 분야는 더욱 심하였다.

몇몇 합창 단체와 소수 음악인들의 활동은 있었으나, 지역민들의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미약하였다. 이러한 안양지역 음악의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하고, 체계적

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할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한 근명여상 음악 교사 마광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음악교사협의회'와 뜻 있는 지역 음악인들이 모여 1985년 3월 19일 '(사)한국음악협회 안양지부'를 창립하였으며, 이는 안양음악 형성의 중요한 기점이 되었다. 초대 지부장에 선출된 마광재와 협회는 첫 행사로 4월 19일, 양명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성악가 김자경 교수를 초청하여 창립음악회를 열고, 5월 22일 국제청소년의 해를 맞아 안양시 주최, 음악협회 주관으로 수원시립교향악단을 초청하여 '제1회 청소년음악제'를 개최하였다. 또한 12월 21일 송년음악회로 쌍투스합창단의 정기공연을 주최하는 등 각종 음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당시 안양예총이 설립 전이라 안양 예술인들 대부분은 안양문화원에서 활동하였고,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 행사도 문화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1986년 10월 안양문화원 주최로 '제1회 만안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음악협회 또한 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제1회 만안음악제'를 진행하였다. 만안음악제는 기존 '안양음악제'와 성격을 달리하여 전 회원과 산하 단체들이 참가하는 등 대규모 음악행사로 개최되어 대성황을 이

만안음악제(1986)

루었으며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87년 3월 7일, 음악협회는 창립 2년 만에 본부로부터 공식 지부로 인준을 받았으며, 유료 초청 연주회와 음악회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청소년 음악회를 개최하여 어린 꿈나무들의 재능을 선보일 무대를 마련하였다.

1988년 1월에는 안양시립합창단이 창설되었는데 안양시장이 단장, 전평화가 초대 지휘자를 맡았다. 음악을 전공한 유급 단원들로 구성된 수준 높은 합창단이었다.

3) 안양음악의 전환기

제1회 회원음악제 팸플릿(1991)

1990년 3월 21일 음악협회 마광재 지부장이 물러나고 김태환(양명고 교사)이 제2대 지부장으로 취임하였다. 6월 18일에는 문인협회·미술협회·음악협회·사진작가협회·연예협회·연극협회 등 6개 단체가 각 협회 본부로부터 지부 인준을 받았고, 무용협회는 정식 회원 단체로 인준을 받지 못해 참관 단체로 참여하였다. 이로써 안양예총이 창립되었고, 이는 지역 음악뿐만 아니라 안양지역 예술계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 시기 음악협회는 1991년 7월 '제1회 회원 음악제'를 처음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안양예총이 그동안 안양문화원 주최로 진행되던 만안문화제의 예술 부문 행사를 분리하여 '안양예술 큰잔치'라는 명칭으로 독자적인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듬해인 1992년 5월, 이 행사는 현재 안양지역 전문 예술인들의 최대 축제로 자리 잡은 '제1회 안양예술제'로 변경하여 첫발을 내디뎠다. 또한 1992년 6월에는 정연훈을 초대 단장으로 하고, 임학빈이 상임 지휘자를 맡은 안양소녀합창단이 창단되었다. 이 합창단은 전국소년소녀합창제 , 서울세계합창제, 하와이 해외공연, 자선음악회 등 총 70여 회에 달하는 크고 작은 음악회를 통하여 활발한 음악활동을 전개하다 1996년 1월 경기도 최초로 창단한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 흡수, 개편되었다.

이 무렵 안양음악협회는 정회원 420여 명과 별도로 50명의 이사 회원을 비롯해 7개의 전문 합창단과 연주인, 음악교육자, 음악학원장이 참여하는 범안양음악인 단체로 성장하여 명실공히 지역사회 음악계를 대표하며 안양의 음악을 주도하였다.

음악협회는 1993년 5월 22일, 제2회 안양예술제 일환으로 제3회 회원음악제를, 9월 21일 안양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제14회 경기음악제를, 11월 7일에는 처음으로 '제1회 청소년음악제'를 연이어 개최하며 안정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4) 안양음악의 정착과 발전

안양음악협회의 막강한 조직력과 활동에 힘입어 안양의 음악은 안정적인 정착기에 들어섰다. 협회가 주관하는 신춘음악회, 회원음악제, 청소년음악제, 송년음악회 등은 안양지역 음악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어느 한 부분도 빠짐없이 골고루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996년 4월 19일 오후 7시 안양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신춘음악회'는 테너 유태왕·김희찬, 소프라노 이은순·유미자·함현숙, 메조소프라노 김영옥, 피아노 기성원·조명선 등이 출연하여 예술의 중앙 집중현상을 극복하고 지방 문화를 발전을 추진하였다. 특히 5월 18일 안양예술제 일환으로 개최된 '제5회 회원음악제'에는 협회 산하 전문 합창단이 총출연하는 축제 형식의 매머드 음악제였다. 김영생 부지부장이 이끄는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강은구 전문이사의 '동안구어머니합창단', 박순자 부지부장의 '샬롬성가합창단' 윤복자 간사의 '만안구어머니 합창단', 안명선 전문이사가 이끄는 '쌍투스 합창단', 박광제 전문이사의 'YWCA합창단', 그리고 안양시립합창단의 '남성합창단' 등이 출연해 가히 음악협회의 위상을 짐작케 하였다.

음악협회의 이러한 행사는 1998년 박순자 지부장, 2001년 유태왕 지부장, 2004년 장영애 지부장, 2006년 백은영 지부장 등 집행부가 새롭게 바뀌어도 변함없이 이어져 2000년대 중후반까지 매년 성황을 이루며 개최되었다. 그 와중에 2001년 9월 26일, 안양지역 음악의 상징과도 같았던 안양음악계의 거장 전평화 선생이 타계하였다.

2009년 안양시는 지역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예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던 문화기획 부문을 전문화하여 5월 1일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를 총괄할 기구인 안양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하였다. 문화예술재단의 출범은 그동안 지역문화예술의 일익을 담당했던 안양예총과 공연문화를 선도했던 음악협회를 비롯해 지역문화

예술계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안양시에서는 안양시립합창단 최초로 여성 지휘자가 탄생한다. 그 주인공은 조현진 씨로 국내 시립합창단 중에서 유일한 여성 지휘자로 6월 11일, 안양시로부터 안양시립합창단 부지휘자로 위촉되었다.

2011년 7월 초, 독일 함부르크 국립극장 솔리스트로 활동 중인 안양 출신 박종민 씨가 제14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남자 성악 부문 1위를 차지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이어서 2012년에는 세계적인 음악가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와 바리톤 한명원이 안양대학교 교수로 임용되면서 지역 음악계의 기대를 모았다.

음악협회는 2013년부터 박두섭 지부장의 지도 아래 현재까지 변함없이 안양음악계를 이끌어왔다. 가족음악회, 안양합창제, 아마추어 가곡제, 해피 콘서트, 가을음악회 등 다양한 음악행사들을 새롭게 선보이며, 안양지역 음악 발전을 위해 공헌하였다.

2019년 (사)한국음악협회 안양지부 정기총회

특히 안양지역 최초의 교향악단인 코리아콘서트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이끌어온 박영린 지휘자가 1999년 4월부터 매주 월요일 진행한 '박영린의 월요음학회'가 2021년 1000회를 맞으며 안양음악계의 의미 있는 족적을 남겼다.

5) 안양음악의 현황

이렇게 안양의 음악은 안양음악협회의 역사와 맞닿아 있으며, 협회의 다양한 활동에 힘입어 변화와 발전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열악한 음악 환경 속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 사라진 수많은 음악 단체의 공과도 가벼이 여길 수만은 없지만, 안양음악의 중심에는 음악협회가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이후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설립되며 협회에서 주관하던 각종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들이 재단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다소 위축되는 상황도 초래하였으나, 그 또한 지역 음악의 범주에 속하는 것임으로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 세대를 거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음악 단체들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새로운 음악 단체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이제 안양의 음악도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음악 전용 연주공간 확충과 민간 음악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2. 연극

1) 연극의 태동기

연극은 배우가 무대에서 극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주는 공연예술의 한 종류로 연극의 기본 요소로는 배우, 무대, 관객, 희곡이 있다. 연극은 기본적인 요소 이외에도 대본, 미술, 조명, 음향효과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합예술이라고도 한다.

안양의 연극은 해방 이후인 1953년 3월 화단극장이 건축되면서 그 활동무대를 얻었으나, 당시 안양에는 극단이 없었다. 서울의 신파 연극단들은 일회성 순회공연으로 흥행에 급급하였고, 8·15해방과 6·25전쟁 기간에는 선전극과 계몽극이 간간이 공연되었으나 그 후 영화 상영과 음악 공연 무대(대중가요 또는 흥행을 위한 쇼)로 활용되었다.

학교에서 학예회 명목으로 단막극 수준의 허술한 연극이 공연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찬양극이나 성탄극이 공연되는 등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연극의 싹

이 트기 시작하였다.

1954년 안양공고 예술제로 화단극장에서 '사도세자'를 공연한 것이 순수예술극의 효시라 할 것이다. 당시 '사도세자'는 관객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어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1973년 7월 안양시 승격을 기념하여 극단 기교를 초청해 화단극장에서 단막극을 공연하였으나, 이 지역에서 처음 있는 뜻깊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성황을 이루지 못하고 성과도 미미하였다.

1974년 윤고성, 조동관, 이성환 등이 안양 최초의 극단 '동행'을 창단하여 1978년까지 '강제 결혼', '토끼와 포수', '수전노', '그해 겨울' 등 많은 작품 활동과 전국 순회공연을 하였다. 전용극장을 마련하기 위해 단원들과 함께 '곧 망할 집'이란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는데, 내부 인테리어를 자신들이 직접 무대처럼 만들었다. 이곳은 문학, 음악, 화가 등이 매일 모여 즉석에서 피아노 반주로 독창·합창을 하거나 첼로·바이올린 등을 연주하는 등 예술인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당시는 독재정권 시절로 젊은이의 모임과 예술 활동이 종종 위험한 경계를 넘나들었는데, 특히 레스토랑 이름이 당시 당국의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다. 중앙정보부는 윤고성을 끌고 가 상호를 문제 삼아 취조하였고, 결국 상호를 '대합실'로 바꾸는 조건으로 풀려났다고 한다. 중앙시장 입구 중앙교회 앞에 있던 '곧 망할 집'은 '대합실'로 이름을 바꾸고, 이후 안양1번가로 옮겨 1980년대 중반까지 운영되었다. 당시 이곳은 지역 예술인과 젊은이들의 휴식처로 안양연극의 산실이자 만남의 장소로 그 역할이 상당히 컸다. 윤고성은 안양을 떠나 강원지역으로 옮겨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며, 「장미 시들다」 등 희곡을 쓰고, 많은 연극을 연출하였다.

극단 민중의 대표 박봉서가 '안양사랑'이라는 곳에서 수차례 공연하며 연극 활동을 펼쳤으나 큰 호응은 없었다. 또한 '팔도 말뚝이' 시리즈가 여러 차례 공연되는 등 동호인들의 연극 활동은 계속되었으나 영화에 밀려 활발하지 못하였다.

2) 안양연극의 형성과 한국연극협회 안양지부 창립

1980년대 이봉운이 극단 '80'을 창단하였다. 또한 1984년경 1번가 국도변에 '자리'라는 소극장를 개관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8회 이상의 공연을 펼쳤다. 극단 80은 1985년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12일간 충북 청주의 충북예술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회 전국지방 연극제'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여 '끝없는 종말'(이봉은 작, 이광진 연출)

극단 80 창단기념작 연극 '수전노' 공연 모습(1984)

을 선보였으며, 이러한 활동은 후일 한국연극협회 안양지부의 모태가 되었다.

1987년 6월, 이봉운(40·극작가·극단 80 대표)과 김희(안양상의 홍보실장), 임인규(삼천리건설 대표), 현경헌(안양경찰서) 등이 주축이 되어 한국연극협회 안양지부를 결성하였다. 1988년 6월 2일 극단 안양예술극장의 연극 '바꼬지'가 최우수상(대통령상)과 연출상(이재인), 연기상을(서이숙)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1989년 9월 1일 한국연극협회 안양지부가 정식으로 창립되었으며, 지부장에는 이봉운, 부지부장 한기림과 배진석, 사무국장에 김남도가 선임되었다. 이듬해인 1990년 5월 18일 한국연극협회로부터 정식 인준을 받고, 6월 18일에는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사진작가협회, 연예협회와 함께 안양예총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안양예총의 창립은 지역 연극뿐만 아니라 안양지역 예술계에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안양연극협회의 결성과 창립 과정에서 안양연극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임부경이 극단 '버팀목'을 창단하고 왕성한 연극 활동을 펼쳤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극단 '성좌'를 초청하여 '세일즈맨의 죽음'을 공연하여 안양 최고의 관객 동원을 기록하였다. 10월 16일에는 제5회 만안문화제 일환으로 연극 '환절기'를 성공적으로 공연하였다. 한편 지역 대학인 안양대학교에 연극 동아리가 결성되어 김창률을 비롯한 학생들이 매년 열정적으로 공연을 이어갔으나 규모와 호응 면에서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제5회 만안문화제 연극「환절기」공연(1990)

1991년 9월 안양예총이 안양문화원에서 주최하던 만안문화제의 예술 행사를

분리하여 독자적인 안양예술큰잔치를 개최하였다. 연극협회도 이때부터 안양예총이 주관하는 예술제 행사에 참여하여 연극 '토끼와 포수', '각순이', '화가 이중섭' 등 매년 새로운 창작극을 선보였다.

연극협회는 1993년 경기도 소인극 경연 권역별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연극의 활성화를 꾀하였으며, 1994년 1월에는 이봉은 지부장이 물러나고, 임부경을 새 지부장으로, 한동근·조경숙을 부지부장으로, 최정환을 사무국장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1995년 5월 21일 제13회 전국연극제 경기도예선대회에 출전한 극단 버팀목이 '상화와 상화'로 우수상을 받았다. 1996년 제14회 전국연극제 경기도예선대회서는 황석영의 중편소설을 각색한 '한씨 연대기', 안양예술제 참가작 '길 떠나는 가족' 등 수준 높은 연극 작품들을 선보이며, 시민들로부터 많은 찬사와 높은 평가를 받아 안양지역 연극계의 밝은 앞날을 예고하였다.

1996년 제6회 소인극 경연대회 경기도대회에 안양시 대표로 출전한 '거목' 극회가 이진주 작, 정기영 연출의 '시인과 모델'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협회 최정환 사무국장은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가 처음 제정한 '제1회 경기연극상'을 수상함으로써 안양연극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1997년 1월 연극협회 4대 지부장에 연임한 임부경과 협회는 5월 31일 안양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임부경이 직접 연출한 연극 '굳 닥터'를 안양예술제 일환으로 공연하였다. 이후 1998년 7월 '택시 드라이버'를, 1999년 5월에는 최정환이 연출한 연극 '살아있는 이 중생 각하'를 연이어 공연하여 시민들에게 박수갈채와 큰 호응을 얻으며 안양의 연극을 주도하였다.

3) 안양연극의 전환기

2000년 2월 연극협회 총회에서 그동안 사무국장으로 실무를 총괄했던 최정환이 새롭게 지부장에 선출되었고, 한동근·조경숙이 부지부장으로 선임되면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며 협회도 일대 전환을 맞았다.

같은 해 4월 23일 안양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제10회 경기도 소인극 안양시 예선대회'에서는 아마추어 연극 동아리 만안여성 회관 연극반의 연극 '밤새 안녕하십니까'를 안양시 대표작으로 결정하고, 경기도 예선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5월 20일에 개최된 제18회 전국연극제 경기도 예선대회에서는 연극협회의 엄인회 작, 최정환 연출

의 연극 '작은 할머니'가 공연되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제9회 안양예술제 공연 작품으로 연극 '그녀의 소설'을 공연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12월 1일 임홍빈 연출의 연극 '다시라기'는 상가懷家에서 행해졌던 민속 놀음굿의 하나로 민속 발굴과 보존의 의미를 담아내는 동시에 해학과 풍자, 삶의 희열을 생생하게 표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갈채를 받았다. 12월 12일에는 안양 최초의 여성극단 답교가 창단되어, 기념 공연으로 연극 '울고 넘는 박달재'를 공연하였다. 만안여성회관 연극반 출신들이 모여 창단한 여성극단 답교의 출연으로, 안양연극의 내일을 밝게 비추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2001년 5월 23일에는 제10회 안양예술제 일환으로 연극협회 임홍빈 연출의 연극 '닥터'가 공연되었으며, 12월 19일에는 최정환 연출, 박경훈 감독, 장유경, 배정자 등이 출연한 연극 '홍도야 울지 마라'가 공연되어 시민들로부터 큰 갈채를 받았다.

2002년 5월 23일에는 2002년 안양문화예술제 일환으로 연극협회 회원들이 출연한 연극 '여배우와 도둑놈'이, 10월 18일에는 연극 '방자전'이 공연되었으며, 2003년 5월 24일에는 연극 '늙은 도둑 이야기'를 선보였다.

2004년 1월 안교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극단 각시가 창단되었다. 그해 5월에는 창단 공연으로 연극 '용띠 위에 개띠'를 공연하며 안양지역 극단의 새로운 계보를 이어갔다. 이어 5월 9일에는 안양문화예술제 일환으로 안양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연극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를 공연하였고, 12월 30일 안양문예회관 소극장 무대에서 이창호 작, 최정환 연출의 역사 인물 시리즈의 첫 번째 공연으로 시인 이상의 일대기를 그린 '감각행렬'을 공연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시인 이상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 '감각행렬' 팸플릿(2004)

2005년 3월 29일 제23회 전국연극제 경기도 예선대회가 안양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되었는데, 연극협회 안양지부는 '지하도'로 무대에 올랐다. 5월 25일에는 광복 60주년을 기념하여 이창호 작, 최정환 연출의 '도마 안중근'이 안양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되었다.

2006년 5월 25·26일 안양문예회관 소극장에서 화가 이중섭의 일대기를 그린 '길 떠나는 가족'을 최정환 연출로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7월 19·21일에는 안양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제15회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예선대회(안양권역)가 개최되었다.

2007년 5월 18일에는 '코레아우레 도마 안중근'이 이창호 작, 임홍빈 연출로 공연되었다. 특히 이 시기부터는 역사 인물을 다룬 창작공연에 대한 의지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제25회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에서 극단 각시의 '동거'가 공연되었는데, 이때부터 안양연극지부의 공연은 안양의 극단들과 함께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4) 안양연극의 정착과 활동

2008년 12월 임홍빈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극단 '무아몽'이 창단되어, 극단 각시와 함께 안양연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2009년에는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창작연극 〈배웅〉이 공연되었다. 이때부터 연극협회는 창작공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역사, 지역문제, 여성문제, 사회문제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안양연극의 내일을 위한 깊이 있는 성찰을 시작하였다. 2010년부터 전국연극제 경기도대회에 참가한 동파지는 이러한 안양연극지부의 성찰의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현재 안양연극을 창작공연의 산실로 여기는 결과를 낳았다.

2011년 창작공연 〈마중〉은 쪽방촌 서민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그린 작품으로, 연극지부가 우리의 이웃을 주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같은 해 제20회 안양예술제에서 공연된 〈무엇이 될꼬하니〉는 마당극 형식으로 우리 고유의 연극 정체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제20회 안양예술제 마당놀이 '무엇이 될꼬하니' 공연(2011)

2012년 창작공연 〈죽어야 사는 남자〉와 〈배비장전〉은 연극지부의 꾸준한 창작 의지를 보여준 결과물이라 수 있다.

2013년 안양예술제의 마당극 〈신춘향전〉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안양연극을 위해 청

춘을 바쳤던 최정환 지부장의 뒤를 이어 총회에서 임홍빈을 지부장으로, 이용직을 사무국장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여 창작 산실의 계보를 이어갔다. 임홍빈 지부장은 안양연극 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14년에는 김유정의 소설을 각색한 〈메밀꽃 필 무렵, 봄봄〉을 성문고등학교 강당에서 공연함으로써 교육과 예술이라는 두 분야를 접목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극단 무아몽의 대학로 공연을 지원함으로써 안양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를 모색하였다.

2015년 제33회 전국연극제 경기도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지박령들이 모여 사람 간의 관계를 코믹하고 감동적으로 풀어내 관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창작공연이다. 공연을 본 타 지역 연극 관계자들은 안양을 창작공연의 산실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4회 안양예술제에 공연된 〈옹가네 옹!〉은 용인연극지부와 합작으로 공연한 마당극으로 연극지부의 확장성에 대한 또 하나의 성과를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2016년 연극지부는 창작의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연인의 관계, 고독, 희망'이라는 주제로 〈세개의 단편, 그리고 희망〉이라는 옴니버스 형식의 창작공연을 선보였다. 공연을 본 많은 관계자와 관객은 난해한 관계들의 설정을 어렵지 않게 풀어낸 점에 호평을 보내며 안양연극의 한 단계 높은 도약에 찬사를 보내주었다. 또한 그해부터 연극협회는

연극 〈서간도 시종기〉 공연 후(2019)

마당극 창작에 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보였으며, 제25회 안양예술제에서 공연된 마당극 〈신 뺑파전〉은 이러한 연극지부의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였다.

2017년, 안양연극협회는 총회를 거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지부장에 안교영, 부지부장에 임홍빈, 사무국장에 양윤희 등이 선출되어 연극지부의 더 나은 도약을 위한 발판을 삼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선출된 안교영 지부장은 안양의 창작공연 계승, 역사 인물 발굴, 교육연극의 발전 방향 모색 등을 중요 관제로 제시하였다. 또한 안양연극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극단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이 맡고 있는 극단 각시와 무아몽의 긴밀한 협조를 제안하였다. 앞서 연극협회는 2012년 안교영 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된 창작공연 〈우당 이회영〉을 더욱더 보완하여, 7월에 공연한 바가 있었다. 제작극단으로 무아몽의 이름만 올랐으나 실제로 각시와 협업한 작품이었다.

안교영 지부장 체제로 바뀐 후 현재까지 안양연극협회는 매년 창작을 쉴 새 없이 발표하고 있다. 2018년에는 미투 문제를 다룬 〈침묵,9136일〉과 빨치산의 고백을 다룬 〈어느 고백〉을, 2019년에는 이은숙 선생님에 대한 〈서간도 시종기〉, 바보 같은 은행 강도의 이야기를 다룬 〈인터뷰〉 등을 통해 창작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5) 안양연극의 현황

이처럼 안양의 연극은 안양연극협회의 궤적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으며, 자생적으로 활동했던 극단들 또한 대부분 연극협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였기에 안양연극협회의 역사가 곧 안양연극의 역사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특히 연극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안양에서 열성적으로 사재를 털어 활동했던 초창기 연극인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안양연극협회가 출범하였고,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전개하면서 안양의 연극이 이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하여, 창작연극의 미래를 밝혀줄 등대로 자리매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안양연극협회를 비롯한 극단 각시, 무아몽, 미스터리, 바오, 찰리 등이 안양연극의 맥을 이으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있는 한 안양의 연극은 발전할 것이고, 더욱 성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연장을 비롯한 연극 환경의 개선이 필수일 것이다.

3. 연예

1) 안양 연예예술의 태동

연예예술 환경이 열악했던 상황에서 1953년 3월 개관한 안양 최초의 극장 '화단극장'은 극장의 기능을 뛰어넘어 '쇼쇼'라는 이름으로 가수들의 공연과 단체 행사, 학생들의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장으로 활용되었다. 그 후 1957년 석수동에 들어선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종합촬영소였던 안양촬영소는 당시 동양 최대 규모로 최고의 시설을 갖추어 안양이 한국영화의 메카로 불린 단초가 되었다.

1963년, 신상옥 감독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안양촬영소를 인수하여 1966년 신필림을 설립하고, 같은 해인 1966년 신상옥 감독과 최은희 배우가 안양영화예술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967년 3월 1일 한국 최초로 안양영화예술학교(현 안양예술고등학교의 전신)를 개교하였다. 안양촬영소에서는 1970년대 중반까지 제작한 80여 편의 영화가 관객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며 안양에 연예의 씨앗을 발아시켰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지방에서는 영화관이 드물었던 당시 서울 외곽의 자그마한 읍내 안양에는 이례적으로 1953년 개관한 화단극장에 이어 두 번째 극장인 읍민관(1968년 안양극장으로 개칭, 현 2001아울렛 사거리)과 세 번째 극장인 삼원극장(현 CGV 자리) 등 대형 극장이 3개나 있었고, 인구수가 적었음에도 성황을 이루었으며, 1970년대 후반까지 전성기를 누렸다. 영화관람료가 서울보다 저렴하여 개봉 영화를 보기 위해 인근 도시에서 원정을 올 정도였다고 한다.

안양은 서울의 근교라는 지리적 여건과 방직공장, 제지공장, 제약회사 등 산업체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다. 특히 젊은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가 많아 시장 형성과 경제 흐름에도 영향을 미쳤다. 안양역을 중심으로 유흥업소, 여러 종류의 음식점, 음악다방 등 다양한 상가들이 생기며 안양1번가는 번창하기 시작하였다. 1970~1980년대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보급은 문화예술이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대중가요와 유행가의 인기는 연예계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져 연예 지망생들이 늘어났다.

화단극장에서 열린 가수들의 공연과 가요 콩쿠르의 폭발적인 인기는 수요자인 근로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컸던 것이고, 가요 콩쿠르는 연예계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연예에 대한 안양지역 사람들의 관심은 높은 편이었지만, 읍 소재지에서 연예 단

체의 출현은 녹록하지 않았다.

2) 안양 연예예술의 형성과 안양연예예술인협회의 창립

안양 연예예술 활동의 조직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76년, 30여 명의 회원으로 예능인 안양노조분실을 창립하면서부터다. 초대 분실장으로 이일남(기타리스트)을 선출하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활동 대부분이 군부대와 교도소 재소자 위문 공연 정도였다. 당시 안양교도소 재소자로 구성된 밴드악단(지휘자 김순현)이 대중음악, 경음악으로 시민 위안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시민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예능인 안양노조분실은 2대 김영도(아코디언 연주자), 3대 김석대 분실장으로 이어지며 군부대 위문, 노인정 방문 등의 봉사활동을 주로 전개하였다. 또한 '시민의 날'을 맞아 주부노래자랑 행사를 처음으로 개최하는 등 안양지역 연예예술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연예협회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은 1980년 8월 20일, 예능인 안양노조분실을 연예협회 안양분실로 조직을 개편하면서부터다. 9월 1일에는 (사)한국연예협회 수원지부 안양

한국연예협회 수원지부 안양분실 창립총회(1980)

분실 창립식을 개최하고, 초대 분실장으로 천진철을 선출하였다. 당시 9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노래, 연주, 코미디, 댄스 분야에 종사하는 대중연예 예술인들로, 안양1번가를 중심으로 한 유흥업소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협회 회원들은 이러한 전문성을 살려 안양에서 펼쳐지는 각종 행사의 진행과 공연을 도맡아 하는 등 안양 연예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협회는 군장병 위문공연,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시민의 날 기념 공연, 동 대항 노래자랑 등을 꾸준히 개최하여 시민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러한 노력 끝에 안양분실에 첫발을 디딘 후, 약 10년 만인 1990년 3월 23일, (사)한국연예협회 안양지부의 창립총회를 열고, 본부로부터 공식 인준을 받았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천진철이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문명수와 이인희가 부지부장으로, 신성철이 상임위원으로, 정두화와 김주희가 감사로, 장태희가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었다.

창립을 통해 조직을 새롭게 정비한 연예협회는 4월 안양교도소 방문 위문공연, 6월에는 안양시민 경로위안잔치 등을 열어 공연하였다. 특히 6월 18일 안양예총의 창립에 적극 참여하면서 협회뿐만 아니라 안양지역 연예예술 전반에 큰 변화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안양연예협회 창립총회(1990)

3) 안양 연예예술의 전환기

연예협회는 1990년대 노래방의 등장으로 생음악 연주 회원 수가 줄어들고 전업하는 회원들이 늘어났지만,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1991년 안양예총은 창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안양문화원이 주최했던 만안문화제의 예술 부문을 분리하고, '91 안양예술 큰잔치'를 개최하였다. 9월 30일 안양문예회관 대강당에서는 제18회 시민의 날 기념 '시민위안공연'과 함께 제6회 동 대항 시민노래자랑을 열었다. 이날 시민위안공연은 박상규의 사회로 가수 태진아·김지애·설운도·인순이·김수희·최진희·김유미·강혜미, 코미디언 남철·남성남·한무, 탤런트 이덕화·김영철·박용식 등이 출연해 시민들을 위로하였으며, 시민노래자랑에는 각 동을 대표해 참가한 시민들의 열띤 경연이 펼쳐졌다.

1992년 들어 연예협회는 안양예총과 함께 지역 예술인들의 최대 축제인'제1회 안양예술제'를 출범시켰다. 예술제의 일환으로 '연예인 시민위안공연'을 개최하며 지역 연예

시민위안공연 및 동 대항 노래자랑(1991)

예술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1993년 5월 27일, 안양예총이 주최한 '제2회 안양예술제'에 참여한 연예협회는 안양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시민위안 공연 및 제8회 동 대항 노래자랑을 열고, 10월 16일 (주)안양교차로 신문사와 공동 주최로 안양시 승격 20주년을 기념해 '제1회 시민가요제'를 개최하였다. 시민가요제는 각 동에서 선발된 참가자들의 열띤 노래 경연과 인기 연예인들의 초청공연, 에어로빅 시범 등으로 큰 성황을 이루었다.

1994년 5월 25일, 제3회 안양예술제의 일환으로 열린 연예인 초청 시민위안 공연에는 가수 최희준·양수경·김국환·박상규·선우혜경·문주란·정경수와 삼태기, 탤런트 이덕화, 코미디언 이영자·한무·남철·남성남이 출연하여 수준 높은 노래와 큰 웃음을 선사해 공연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로부터 큰 환호를 받았다.

1995년 민선시대가 안양에 열리면서 연예협회는 4월 14일 시민가요제를 개최하였다. 이어 9월 30일에는 제22회 시민의 날 기념 시민의 날 전야제 축하 공연과 동 대항 노래자랑을 평촌중앙공원에서 안양시민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펼쳐져 시민들과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연예협회는의 시민가요제, 동 대항 가요제 등 대표적인 시민 참여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며 새천년을 맞이하였다.

4) 안양 연예예술의 정착과 활동

새천년에 접어들면서 연예협회는 새로운 비전 수립과 협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2000년 첫 사업으로 '제9회 안양예술제'에 참여하여 5월 13일 평촌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처음으로 '안양주부가요제'를 기획하여 개최하였다. 안양시의 시민의 날 기념 행사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마련하여 10월 7일 평촌중앙공원 특설무대에서 제1회 안양시민축제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연예협회에서 안양예술제 행사로 열리던 시민가요제를 이때 처음으로 시민축제 행사로 변경하여 개최하였다.

2006년까지 연예협회는 안양주부가요제, 시민가요제를 지속적으로 주관하였으며, 이러한 협회의 사업은 안양지역 연예예술인들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평범한 시민들도 가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가수로 데뷔한 시민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백제현, 홍혜숙, 엄상금, 신나, 구정옥 등이 알려졌다.

2007년 한국연예협회가 한국연예예술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안양연예협회도 공식 명칭을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안양지부'로 변경하였다. 이후 6월부터 10월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8월에서 10월까지 '토요음악회'를 열어 시민들 곁으로 한발 다가서는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2009년 천진철 회장이 안양예총 제6대 지회장에 선출되며 안양지역 예술계를 이끄는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협회는 유창민을 지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2009 안양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5월 24일 제18회 안양주부가요제를 개최하였다.

2009 안양문화예술제 제18회 안양주부가요제

2010년에는 정용배를 지회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였다. 안양시의 주도로 안양시민축제가 출범하며, 기존에 안양예총과 안양문화원이 공동 주최하던 안양문화예술제가 원래대로 안양예술제와 만안문화제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안양예술제 행사의 일환으로 제19회 안양주부가요제를 개최하고, 이어 7월 22일과 9월 16일 만안구청을 시작으로 9월 18일 안양예술공원, 10월 22일 병목안시민공원, 10월 30일 병목안 제2 휴게소, 10월 31일 평촌중앙공원에서 '2010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콘서트는 2000여 명의 관람객을 모으며 안양시민들의 화합과 정서 함양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에도 '제20회 안양예술제의 일환으로 5월 20일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제20회 안양주부가요제가 코미디언 이용식의 사회로 개최되었으며, 9월 24일에는 평촌중앙공원 야외무대에서 제26회 안양시민가요제를 열었다. 11월 3일과 4일 안양예술공원, 12월 21일 동안여성회관에서 '2011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를 진행하며 성공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안양의 연예예술은 대부분 안양연예예술협회가 대부분 주도하였으며, 협회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횟수와 장소를 달리하며 안양예술제와 안양시민축제를 중심에 두고 안양주부가요제,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 안양시민가요제, 7080 콘서트, 낭만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안양의 연예예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다양한 퍼포먼스로 안양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인 활동을 꾸준하게 펼쳐왔다.

제34회 안양시민가요제(2019)

5) 안양 연예예술의 현재

2020년 안양연예예술인협회가 1980년, 수원지부에 소속된 안양분회로 첫발을 뗀 지 40년이 되었다. 과거 대중예술인을 '딴따라'라 부르며 천대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젠 전문 예술 영역으로 인정받으며 위상도 높아졌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변화다.

안양의 연예예술은 산업화로 인해 유흥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안양에 유입된 대중예술인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협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고, 그만큼 현실은 열악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천진철 회장을 비롯한 안양의 대중예술인들의 시대 인식과 열정이 안양 연예예술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협회 창립 초기부터 군부대 위문공연을 시작으로, 매년 안양예총이 주최하는 안양예술제에 참여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으며, 지역 연예예술의 미래를 위해 2024년 현재 '안양춤축제'로 명칭이 바뀐 안양시 대표 축제에서도 꾸준히 안양시민가요제를 개최하여 유능한 신인 가수 발굴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삶의 현장과 생활 곳곳을 찾아가 한여름 밤 낭만콘서트,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7080 희망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공연하고 있다.

오늘의 연예예술 환경은 AI 시대의 중심에서 대중음악의 작사, 작곡, 편곡 등 모든 영역에서 AI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등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연예예술인협회뿐만 아니라, 안양지역 모든 예술인이 협력하고 함께 고민하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무용

1) 안양무용의 태동

무용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신체를 이용하여 사상, 감정, 감각, 정서 등을 미적 율동으로 표현하는 예술적 행위라고 정의한다. 인류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는 무용은 원시시대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술적 의식 행위에서 비롯되어 고대,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민족의 역사와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성장, 발전해 왔다.

1930년대 들어 신무용의 시대를 맞으며 새로운 변환점이 찾아왔다. 우리 춤은 조금씩 무대형식을 취하게 되고 틀이 갖춰지면서 무대예술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지만 1950년대까지도 각종 경사에 직업적으로 우리의 춤을 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이들을 '화랭이'라 불렀는데 사회적으로는 천대와 멸시, 학대를 받았다. 이는 무당, 광대, 남사당에 대한 멸시의 관습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무용은 1960년대 들어 창작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였고, 내용과 형식에 따라 세분화되면서 현대적 춤의 양식을 모색하는 단계로 들어갔다. 1962년 국립무용단이 창단되었고 1963년부터 각 대학에 무용과가 개설되기 시작했으며 무용 인재들이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배출됐다. 이러한 경향은 안양 무용에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리라 짐작한다.

안양무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다. 바로 황연주다. 황연주는 안양무용의 태동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안양무용사에서 비중이 컸다. 황연주가 안양에 정착한 시기는 1966년쯤이다. 수원 태생인 황연주는 어린 시절, 조선 마지막 광대라 불리는 화성 재인청의 명무 운학 이동안 선생의 수제자이자 수양딸인 옥당 정경파 선생에게서 수학修學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동안 선생이 재인청 자리인 수원 화령전에 머물며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정경파 선생이 이동안 선생을 찾아가 선생으로부터 재인청 춤을 전수받았다고 한다.

이동안 선생이 서울로 떠난 후에도 정경파 선생은 그곳에 남아 화령전을 전수교육장이자 거처로 삼고 제자들에게 재인청 춤을 전수하였다. 우리 시대 재인 계보에 보면 정경파 선생의 제자로 박경현, 김희영, 최근자, 고희자, 이정희, 김명순, 이영미, 이선영 등과 함께 황연주의 이름이 올라 있으니 황연주도 정경파 선생에게서 재인청 춤을 전수받았으리라 짐작한다. 이런 이력의 황연주가 1966년 안양여고 앞 2층에 '황연주고전무용학원'을 개원하고 재인청 춤인 팔박기본무, 팔박수건춤, 승무, 살풀이춤, 검무 등을 지도한 것이 안양 최초의 무용 교육기관이었다고 하니 이 시기가 본격적인 안양무용의 태동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당시 황연주는 무용을 배운 학생들과 함께 무용 발표회를 열었는데, 당시에는 획기적인 일로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안양에 유성옥 고전무용학원, 백조무용학원(현대무용) 등이 개원하고 후학들을 지도하였다.

1970년대 성문여자중·고등학교에 학생무용단이 창립되고,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인기가 높았는데, 이 역시 현대무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에 상당한 변화를 주었다.

1980년대 황연주는 무용계의 협력과 친목,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며 모두를 아우르는

한국무용협회 안양지부 창립을 역설하며 공동 발표회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안양지역 무용의 맥을 일깨우는 데 노력하였다.

2) 안양무용의 형성과 안양무용협회의 창립

1986년 10월 15일 그동안 연극영화과와 미술과만 있던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에 무용과가 신설되었다. 무용과의 신설은 안양지역 무용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무엇보다도 신진 무용인들이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용의 저변확대 기반 마련과 안양지역 무용계의 성장 동력이 되어줄 만한 바탕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1986년 11월 29일 황연주무용단을 중심으로 안양지역 무용가들이 안양시 학원연합회 사무실에 모여 한국무용협회 안양시지부를 창립했다. 드디어 황연주의 노력이 결실을 보는 순간이자, 안양지역 무용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한국무용협회 안양지부 창립총회(1986, 학원연합회 회의실)

이날 창립식에는 변석 안양시 교육장, 김정대 안양문화원장, 박광석 안양시 공보실장을 비롯하여 한국무용협회 본부 사무국장 등 내·외빈들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1987년 10월 17일에는 협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안양문화원이 주최한 제2회 만안문화제 행사에 참여, 안양예고 강당에서 '무용인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무용인의 밤' 행사에는 지역의 여러 무용팀이 참가하여 공연하였으며, 시민들로부터 많은 갈채를 받아 지역 무용에 대한 인식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확한 이유와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수많은 제자를 키워내고 안양지역 무용의 태동과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던 황연주가 고전무용학원을 닫고 안양을 떠나면서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무용협회도 중앙의 인준을 받지 못한 채 유명무실해졌다.

황연주가 떠난 후 흐트러진 안양 무용계를 새롭게 정비하고 한국무용협회 안양지부를 재건한 건 조경남이다. 조경남은 1989년 2월 19일 안양지역 무용가들을 규합하여 한국무용협회 안양지부를 창립하고, 지부장에 선출되었다. 조경남 지부장은 '무용인의 밤'을 개최하는 등 시민들로 하여금 지역 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중앙예술무용학원을 설립하여 후학들을 가르쳤다. 또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 높은 차원의 이론과 지식을 쌓는 등 안양지역 무용의 토양을 가꾸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1989년 조경남 지부장 체제로 무용협회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1990년에 접어든 무용협회도 점차 안정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그 무렵 안양지역 문화예술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사건이 발생하는데 안양예총의 창립이었다. 안양예총에는 본부로부터 인준을 받은 협회만 정식 회원단체로 참여할 수 있어 인준을 받은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사진작가협회, 연예협회, 연극협회만 정식 회원단체가 되었고, 안타깝게도 인준을 받지 못한 무용협회는 참관단체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 11월 4일 무용협회는 제5회 만안문화제 행사에 참여하여 처음으로 안양지역 춤꾼들의 예술제인 「제1회 안양무용제」를 개최했다.

1991년에 들어 무용협회는 본부로부터 인준을 받기 위해 무용과 교수들과 안양지역 명망가들을 고문과 자문위원에 위촉하고 신입 회원을 모집하는 등 조직 정비에 나섰다. 또한 조경남 지부장은 자신의 이름을 건 '조경남무용단'을 창단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해 10월 창립 1주년을 맞은 안양예총이 그동안 안양문화원에서 주최하고 매년 분야별 예술단체들이 참여했던 만안문화제의 예술행사를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안양예술큰잔치'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 참여한 무용협회는 10월 20일 안양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제1회 무용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협회는 1991년 11월 3일 중앙디딤돌

무용단(중앙대 무용과 출신으로 구성)의 '전국순회 무용발표회'를 유치하여 공연하였는데, 그동안 안양지역에는 전무했던 무용공연이었다.

1992년 들어 전국의 무용계는 정부가 제정한 '춤의 해'를 맞이했다. 이는 그동안 중앙에 편중되어 있던 무용이 지방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 간 무용 교류와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한국 무용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한국 무용계의 흐름 속에서 무용협회는 1992년 5월 9일부터 안양예총이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마련한 '제1회 안양예술제'에 적극 참여, 5월 16일 안양문예회관 소강당에서 '제2회 무용인의 밤'을 개최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안양무용협회를 재건하여 흐트러진 협회를 추스르고 의욕적으로 본부 인준을 받기 위해 애써왔던 조경남 지부장이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에 사임한다. 무용협회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지부장으로 김기백, 부지부장 김진원, 사무국장 황병홍, 이사 조대식·김성나 등으로 새로운 임원진을 구축한다.

3) 안양무용의 전환기

새롭게 안양무용협회를 맡은 김기백 지부장과 임원들은 앞서 황연주, 조경남 지부장들의 숙원이었던 본부 인준을 받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 그 결실로 드디어 1992년 6월 14일 한국무용협회로부터 인준을 받고, 그동안 참관단체로 머물러 있던 안양예총에 정식 회원단체로 합류하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는 안양무용계와 무용협회 역사의 일대 변환이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어 12월 20일 '제1회 안양시 청소년 무용제'를 안양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했다. 이는 무용협회 인준 후 첫 행사로 안양시 관내 초·중·고 학생 25개 팀, 58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제1회 안양시 청소년 무용제 팸플릿(1992)

1993년 5월 29일, 30일 양일간 무용협회가 안양예총의 정식 회원단체로 가입한 후 첫 행사인 '제2회 안양무용제'가 개최되어, 안양지역 무용인들의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6월 20일 제2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에서는 무용협회 김기백 지부장이 이끄는 김기백 무용단이 「불항아리」라는 창작무용으로 대상을 수상하였고, 곧이어 9월 20일 대전우송예술회관에서 열린 본선대회에서 같은 작품으로 문예진흥원장상인 장려상과 연기상을 수상하며, 안양무용의 위상을 드높였다.

1995년 5월 5일에는 안양문예회관 대강당에서 무용협회 주최로 「제3회 청소년무용제」가 개최되었으며, 관내 초·중·고 학생 30여 팀이 출연하여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어 9월 14일부터 22일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무용협회의 주최로 대구 문화예술회관대극장에서 열린 제4회 전국무용제에 경기도 대표로 김기백 지부장의 안양무용단이 「죽竹의 비가」라는 창작무용으로 참가하여, "한국무용극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는 극찬을 받았으며, 대회 단체상인 우수상과 개인 연기상(김성나)을 한꺼번에 수상했다. 이는 1993년에 이은 두 번째 쾌거로 안양무용계의 큰 경사였다.

1996년에도 무용협회에서 주최한 제4회 청소년무용제가 5월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안양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11월 5일에 열린 제18회 서울국제무용제에 김기백 무용단이 참가하여 「땅, 어둠의 땅」이라는 창작무용을 공연한다.

1998년 6월 21일 안양문예회관 대극장에서는 김기백 무용단이 「간드레 불빛을 찾아서」라는 창작무용을 안양시민들에게 처음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다. 이 작품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제7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그리고 9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전주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회 전국무용제 본선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했다. 또 한 번 안양무용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이어 7월 4일에는 안양무용협회의 대표 사업인 '제1회 안양무용제'가 개최되었다. 이렇듯 안양무용협회를 중심으로 안양무용계는 왕성한 활동과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99년 초 그동안 안양무용협회를 맡아 본부 인준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안양무용계를 이끌었던 김기백 지부장이 경기도무용협회 지회장에 선출되어 안양을 떠났고, 그 자리를 김성나가 물려받아 안양무용협회를 이끌었다. 5월 13일 개최된 제8회 안양예술제 개막공연에서는 무용협회의 김성나, 유지나, 황원실, 박민정, 우하나가 장고춤을 선보였다. 이어 5월 15일 안양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제2회 안양무용제가 개최되었다. 12월 8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경기도무용협회 주관으로 '새로운 천

년을 향한 우리 춤의 대향연'이 펼쳐졌으며, 이 공연에 안양무용협회 김성나와 조대식이 무대에 올라 「푸른 사랑」이라는 창작무용을 선보여 관람객의 큰 찬사를 받았다. 이렇게 안양의 무용은 출발과 변화, 성장의 진통이 소용돌이쳤던 큰 전환 시대, 1990년대를 마감했다.

4) 안양무용의 정착과 활동

온 국민의 기대와 희망 속에 새로운 천년, 2000년의 문이 열렸다. 안양에서도 새천년의 서막을 안양무용의 미래세대를 위한 공연으로 출발하였다. 5월 13일 제8회 안양 청소년무용제를 시작으로, 5월 15일 제3회 안양무용제가 안양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7월 25일부터 30일까지 안양에서 펼쳐진 제9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에서 김성나, 조대식이 이끄는 안양무용단이 「혼-성」이라는 창작무용으로 대상을 수상해 또 한 번 안양무용계에 큰 기쁨을 선사했다.

전국무용제 대상 수상 안양무용단 「혼-성」 공연(2000)

2001년 10월 24일에는 안양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김기백 무용단의 창작무용 「그들만의 세상」이 공연되었으며, 12월 21일에는 안양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2001 송년무용 대공연'이 개최되었다. 2003년에는 5월 10일 안양청소년 무용제가, 이어 5월 20일에는 제6회 안양무용제가 무용협회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7월 3~4일 이틀간 용인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제4회 기전무용대제전에 출전한 안양 무용단이 「땅 어둠의 땅-몽가夢家」라는 창작무용으로 대상과 함께 안무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냈다.

2004년에도 무용협회의 '안양청소년무용제가', 김기백 무용단의 창작무용 「그대 영혼 위에 누웠어라」가 공연되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05년에는 무용협회의 '안양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춤 나들이'와 '2005 안양무용제', '춤 야외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으며, 2006년에는 제15회 전국무용제 경기도대회에 김성나가 이끄는 안양무용단이 출전하여 창작무용 「낙화」라는 작품으로 은상을 수상했다. 2007년에는 안양무용협회 주관으로 안양 전통춤 공연과 2007년 안양문화예술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2007년 안양무용제 '우리춤의 대향연'이 개최되었다.

안양청소년무용제(2004)

2009년에 들어 안양 무용계의 첫 무대를 장식한 것은 무용협회 김성나 지부장이었다. 4월 4일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2009 김성나의 춤」이 안양예총 주최, 김성나 전통춤연구회 주관으로 안양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아 개최되었다. 2010년에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19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가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개최되어, 안양무용계의 위상을 실감케 하였다. 대회 첫날 첫 무대에 오른 김성나가 이끄는 안양무용단의 창작무용 「母心-어머니의 마음으로」는 출연진의 열연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입상하지 못하였다.

또한 무용협회는 2011년 2011 안양무용제, 2012년에는 2012 안양 전통춤 공연, 2012 안양무용제, 2013년 춤 페스티벌, 2013 안양무용제를 개최하였다.

2014년에는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된 제23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에 안양시를 대표해 출전한 김선정 무용단이 창작무용 「비나리, 열두 마디」를 공연해 대회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 경기도 대표로 선발되었다. 이어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과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된 제23회 전국무용제에서 단체부문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안양무용계를 크게 빛냈다.

2015년 5월에는 무용협회의 창작무용 「꽃은 지지 않는다」가 공연되었고, 9월 「2015 안양무용제」가 개최되었으며, 2016년 5월 삼덕공원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제25회 안양예술제의 일환으로 「봄의 하모니」가 시민들에게 공연되었으며, 6월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25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에 안양시 대표로 김성나 무용단이 창작무용 「그리움을 삼킨 안개」로 출전하였다. 8월에는 안양아트센터 야외무대에서 2016 안양무용제 '한여름 밤 댄스페스티벌'이 개최되어 현장을 찾은 많은 시민에게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가시게 할 만큼 멋진 공연을 선사하였다.

2017년 1월에는 안양시와 중국 DTM CHINA가 공동 주최한 '안양국제무용페스티벌(AIDF)'이 한·중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이어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무용협회의 창작무용 「물 길러 가는 길」이 펼쳐졌고, 6월에는 구리 시장자못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된 제26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에 안양시 대표로 이영아 무용단이 창작무용 「오·화 五·化」란 작품으로 출전하였다. 7월에 개최된 2017 안양무용제 '한여름 밤 댄스페스티벌'에서는 전자바이올린 연주자 제니유의 연주와 박규리 무용단의 교방무, 부채춤, 경고무 그리고 김성나 무용단의 태평무, 사물놀이, 진도북춤, 장구춤, 김유정의 국악가요 공연, 비보이팀의 젊음 넘치는 비트박스와 열정적인 춤이 공연되어 시

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처럼 무용협회는 전통춤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대의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들과의 접목을 시도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의 식상함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2018년에는 김성나 무용단이 제27회 전국무용제 경기도 예선대회에 출전하여 창작무용 「붉은 빛, 솟아오르다」를 공연하였으며, 12월 무용협회가 동안평생교육원 강당에서 2018년 안양무용제 '가을연가'를 개최하였다.

2019년에 들어 안양무용협회는 1월 19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개선 작업을 통해 앞으로 협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유능한 신예 젊은 무용가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그해 5월에는 구리 장자호수공원에서 개최된 제28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에

2019년 안양무용협회 정기총회

출전한 김성나 무용단이 창작무용 「개땅쇠의 노래」란 작품으로 대회 단체상 부문 동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어 9월에는 「춤의 향연」이, 10월에는 2019년 안양무용제 '가을의 연정과 흥'이 개최되어 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2020년에도 제29회 전국무용제 경기도예선대회에 출전한 김성나 무용단이 창작무

용 「드라플럿」이란 작품으로 동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5) 안양무용의 현재

1966년 황연주로부터 안양무용의 싹이 심어진 지 6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수많은 무용인들이 안양을 거쳐가며 무용의 맥을 이어왔고, 새로운 인재들이 꾸준히 안양무용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무용인들이 안양의 무용과 함께할 것이다. 안양무용협회도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지만 안양무용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 무엇보다도 희망적인 것은 무용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재능을 겸비한 인재들이 안양무용에 모이고 있고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에 집착하거나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요소들과 결합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작품에 담아왔다. 이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안양무용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며 안양무용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몇 가지 제언을 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협회 운영에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체계는 집에 비유하면 기초이다.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오래가는 것처럼 협회의 체계를 잘 세우고 운영했으면 한다. 둘째는 지역 신진 무용인의 발굴과 육성에 노력했으면 한다. 안양무용계의 미래 성장 동력인 신진 무용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무용협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된다. 셋째는 안양무용인들의 구심점이 되었으면 한다. 안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인들을 한데 모으고 아우를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함께 안양무용의 성장과 발전을 고민하는 중심축이 되었으면 한다. 넷째, 무용에 대한 연구와 창작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했으면 한다. 위에 언급한 제언을 꼭 살펴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희망으로 가꾸어 올곧게 성장하는 안양무용계가 되기를 소망한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 노력과 열정으로 흘린 모든 땀의 흔적들은 의미 없이 잊히거나 그냥 버려지지는 않는다.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들춰지고 소중하게 기록될 것이다. 어느 무대 위에서건 열정으로 빛나는 모든 무용인의 몸짓을 응원한다.

5. 국악

1) 안양 국악의 태동과 형성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 조선시대 제례음악이나 아악을 제외한 민속음악이나 대중들의 향악(농요, 속요, 타령, 무가)은 저속한 것으로 여겨 양반 사대부가에서 금기하고, 특히 광대, 남사당, 무속인을 천시하던 풍조 때문에 그 명맥이 겨우 유지되거나 일실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옛날 안양의 충훈부(충훈동)에는 무악을 집안 대대로 세습한 남성 악사들 속칭인 '화랭이'들이 모여 사는 화랭이촌이 있었는데, 관혼상례나 대동굿을 할 때 삼현육각(향피리 둘, 대금, 해금, 장구, 북)을 잡히고 창을 하러 다녔다고 한다. 하지만 8·15 해방 이후 후손들이 천대를 기피하여 전업하거나 이사하여 그 맥이 끊겼다. 이러한 연유로 안양지역에서 국악을 하는 소리꾼이나 춤꾼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민간인들이나 술집에 접대부 중 간혹 창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국악인들에게는 창唱과 무舞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왔다. 그것이 전통국악의 본래 모습이다. 따라서 창과 무는 불가분의 영역이다. 그러나 안양지역에는 이러한 기능보유자가 많지 않았다. 서양 음악이 밀려와 음악의 주류로 자리 잡던 시절, 유일하게 양반계층이나 학자들이 불러온 시조는 연로하신 어른들에 의하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1960년대 안양노인정(안양4동)에 시우회時友會가 조직되어 당시 원로들이 수시로 모여 시조를 공부하고 부르며 친목을 나누었다고 한다.

안양에서는 1966년 황연주가 안양여고 앞 건물 2층에 개원한 '황연주 고전무용학원'이 안양지역 최초의 국악 교육기관으로 무용과 창을 지도하였으며, 안양여고 강당에서 무용 발표회에서 몇 곡의 창을 불러 인기를 모았다고 한다. 황연주는 1986년 안양무용협회를 창립하고, 1987년 안양을 떠나기까지 학원을 운영하며 후학들을 양성하였다.

제1회 만안문화제 전국시조경창대회 모습(1986)

1980년대 안양에서는 평양권번 출신 김학선 선생에게서 평양검무를 사

사한 유일한 평양검무의 전승자인 이봉애가 1985년 '평양검무 보존회'를 만들어 평양검무 원형 복원에 힘썼으며, 1983년 전국민속 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연기상과 감독상을 받았다. 1984년에는 베짜기로 개인상을, 1985년과 1986년에는 조심기로 장려상을 받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또한 윤태길은 1985년 '윤태길 경기민요학원'을 열고 민요를 가르쳤다.

1986년 10월에는 15일부터 17일까지 안양문화원 전국시조총연합회 주최, 안양시우회 주관으로 '제1회 만안문화제 전국시조경창대회'가 열렸다. 1987년에는 1963년 8월 인천에서 시조계에 입문하고, 명인 정해암 선생에게 시조를 사사한 안덕기가 안양시우회 회장에 취임하여 1989년 8월 전국남녀시조 경창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시조 보급에 힘썼다. 김영애는 1989년 안양시 상설주부대학에서 한국무용을 지도하였다.

1978년 전북 전주도립국악원 단원으로 활동했던 정애자가 1990년 한국민속예술연구원 안양지부에서 가야금 산조와 병창을 지도하였으며, 그와 함께 서울예전 국악과를 졸업한 젊은 농악 후계자인 김창진이 사물놀이, 단소, 대금 등을 지도하였다. 또한 박성순은 1990년 안양에 경기민요학원을 설립한 후 1991년에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이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안양 국악의 태동과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

2) 안양 국악의 정착과 한국국악협회 안양지부의 창립

국악의 불모지 안양에서 본격적으로 국악이 정착된 시기는 한국국악협회 안양지부(안양국악협회)의 결성부터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안양 국악의 태동과 형성을 위해 발벗고 뛰었던 대부분의 국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조를 가르치던 이용복이 중심이 되어 1990년 초 안양국악협회를 결성한다.

그 무렵 지역에서도 지역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할 안양예총이 창립하는데, 이는 지역 예술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안양예총에는 본부로부터 인준을 받은 협회만 정식 회원단체로 참여할 수 있어 본부 인준 전이었던 국악협회는 안타깝게도 참여하지 못했다.

국악협회는 1992년 4월 16일 총회를 개최하고 정식 창립했다. 당시 지부장은 이용복(시조)이, 부지부장은 최숙희·이복필이, 사무국장은 배수옥이 맡았다. 이어 같은 해 8월 24일 본부로부터 공식 인준을 받고, 안양예총에 정식 회원단체로 가입했다. 이로써

국악협회는 예술단체로서 역량 있는 회원을 결집하고 후배들을 양성하는 구심점에 서서 활기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당시 협회에는 유영순(시조), 안덕희(시조), 김창진(시물, 학원경영), 정애자(기악, 학원경영), 이봉애(평양검무), 김영애(전통무용), 안희진(경기소리), 윤태일(경기소리) 등이 참여하여 안양의 국악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1992년 10월에는 안양문예회관에서 국악협회 주관으로 '제2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가 개최되었으며, 1993년 5월 23일에는 안양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안양예총이 주최한 제2회 안양예술제에 참여한 국악협회가 '국악의 대향연'을 개최하였으며, 이어 제3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하였다.

1994년은 정부가 지정한 '국악의 해'였다. 5월 27일에는 국악협회가 안양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안양예총이 주최한 제3회 안양예술제 일환으로 국악의 대향연을 진행했고, 이어 안양문예회관에서 제4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도 개최했다. 10월에는 제1회 안양 국악경연대회가 성황을 이루며 막을 올렸다.

1995년 4월에는 국악협회가 국악의 대향연을 5월에는 제5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를 연이어 개최하였으며, 10월 27일에는 안양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제2회 안양 국악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열어 지역사회 국악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국악협회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1996년 초 안양 국악계를 주도하고 있는 국악협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협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협회를 결성하고, 창립하는 등 협회의 초창기를 이끌었던 이용복 지부장이 뒤로 물러나고, 3대 지부장에 안덕기, 부지부장에 이봉애·김영애·정애자, 사무국장에 김창진을 선임했다. 5월 4일에는 국악협회가 제5회 안양예술제의 일환으로 제4회 국악한마당을 개최하였으며,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제6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를 안양시우회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날 대회는 을부, 갑부, 특부, 명인부, 국창부 총 4개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당시 국창부 금상에게는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었다. 9월에는 안양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한국경기소리보존회가 주최한 '추석맞이 국악한마당'이 개최되어 대성황을 이룬다.

1997년 4월 평양검무보존회의 발표회가 있었으며, 5월 2일에는 국악협회가 제6회 안양예술제의 일환으로 '제5회 국악한마당'을 열었다. 10월 17일에는 안양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제4회 안양 국악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998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안양문예회관 야외공연장에서 '금요상설무대'를 열었고 전통국악을 비롯하여 창작국악가요, 북한 예술 등 26회를 공연하여 시민들

제5회 국악 한마당 모습(1997)

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제8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1999년에도 국악협회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안양문예회관 야외공연장에서 '금요상설무대'를 개최했다. 이어 5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제9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가 개최되어 성황을 이루었으며, 5월 21일에는 안양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제6회 국악한마당'이 개최되었다. 이날 공연에는 시조창, 화관무, 경기민요, 평양검무, 사물놀이, 오복 등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이봉애의 평양검무가 큰 갈채를 받았다. 12월 28일 안양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안양시와 안양예총이 공동주최한 '새천년맞이 국악경로잔치'가 성황리에 펼쳐졌다.

3) 안양 국악의 전환기

새천년의 문이 활짝 열렸다. 안양의 국악계도 새로운 전환의 시간을 맞이하였다. 안양 국악의 초기를 이끌었던 1세대들이 뒤로 물러나고 열정 넘치는 새로운 인물들이 국악협회의 전면에 나섰다. 2000년 2월 국악협회는 총회를 열어 신임 지부장에 안희진, 부지부장에 조병익·강재천·백승훈·김소정, 사무국장에 김혜진이 선임했다.

국악협회는 2000년 5월 19일 안양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제8회 국악한마당'을 개최했다. 2000년 여름 국악협회 안양지부가 일본, 중국(소주, 연변, 심양, 관동, 장춘), 러시아(모스크바), 몽골 등 세계 순회공연에 나서 국위를 선양하고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다시 방문해줄 것을 청탁받고 돌아왔다. 10월 과천에서 개최된 경기소리보존회 정기공연에 출연하여 열렬한 박수와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또한 연변예술단과 함께 '장애인과 함께하는 안희진 무대'를 열고 회원들이 찬조 출연하여 장애인들을 위문하고 큰 호응을 얻었다.

제5회 국악 한마당 모습(1997)

2001년 5월 18일 국악협회는 안양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우리 소리 춤의 대 향연'을 무용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국악과 무용 두 협회가 처음으로 함께 꾸민 행사로 국악협회는 '제9회 국악한마당' 일환으로, 무용협회는 제4회 안양무용제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2003년에는 사단법인 한국경기소리보존회 안양지부가 공식 인준을 받았다. 임원진은 국악협회 임원이 대부분 그대로 겸임하였다. 또한 안양시의 후원을 받아 조길호를 단장으로 '안양국악관현악단'이 창단하였다. 대금, 피리, 해금, 거문고, 가야금 등에 걸쳐 모두 4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안양국악관현악단은 단원 대부분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국악을 수학중이거나 전공하고 전국대사습놀이 등 국악 관련 각종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이들로 구성되었다.

2004년 10월 22일에는 국악협회가 안양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사물, 무용, 기악, 민요 등 4개 분야에 대한 경연이 있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400여 명이 참가하여 열기가 매우 뜨거웠으며 신진 국악인을 발굴하여 그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11월 29일 평촌아트홀에서는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조길호가 창단한 안양국악관현악단이 창단공연을 펼쳤다.

2005년 국악협회는 전국 순회공연을 기획하여 안양을 비롯해 전남, 광주, 광산, 완도, 부산, 전주 등지에서 공연을 했고, 9월 9일에는 안양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안희진의 국악무대'가 개최되어,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와 앙코르를 받는 등 성황리에 마쳤다. 안희진은 이 공연에 보내준 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의 앙코르 무대를 12월 17일 경기도 지원으로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 송년무대'를 개최하였다.

2006년 6월 23일과 24일에는 안양문예회관 소강당에서 국악협회가 주최하고 안양시우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전국시조경창안양대회'가 개최되었으며, 25일에는 '제13회 전국학생 국악경연 대축제'가, 9월 23일에는 안양문예회관 야외무대에서 '추석맞이 국악한마당' 행사를 경기소리보존회 주최로 개최했다. 9월 24일에는 병목안시민공원 특설무대에서 '가을 소리여행' 공연이 개최되었다. 11월 26일에는 안양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안양실내악 정기연주회'가 안양시 문화예술진흥원 지원으로 개최되었다.

2007년 5월 6일에는 안양예총 주최, 안양국악협회와 한국경기소리보존회 안양지부가 공동주관으로 「제14회 전국학생 국악경연 대축제」가 안양문예회관 소공연장과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고, 5월 13일에는 안희진국악단 주최로 「안양시민과 함께하는 어버이를 위한 효도공연」이 개최되었으며, 6월 30일에는 안양예술공원 알바로시자홀 앞에서 안양국악관현악단 주최로 「찾아가는 국악대공연」이 개최되었다.

4) 안양 국악의 발전기

2010년 들어 안양지역 첫 국악 행사로 3월 18일 대학당안경원 음악회가 주최한 「제59회 안양국악관현악단 Forall 국악 앙상블 초청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이어 국악협회가 6월 29일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제19회 우리소리 춤의 한마당」을,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제17회 전국학생 국악경연 대축제」를, 7월 9일에는 「제19회 전국시조경창 안양대회」를 개최하였으며, 9월 9일에는 (사)한국경기소리민요보존협회가 주최한 「제13회 추석맞이 국악한마당」이 안양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2011년에는 국악협회가 5월 22일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제20회 우리소리 춤의 한마당」을, 안양아트센터에서 「제18회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를, 5월 30일 「제20

회 전국시조경창 안양대회」를, 9월 3일에는 (사)한국경기소리민요보존협회가 주최한 「제14회 추석맞이 국악한마당」이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개최되었다. 10월 2일에는 안양아트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안희진예술단이 주관한 「제15회 금요상설무대」가 펼쳐졌다. 이어 11월 28일 전북 정읍시에서 개최된 「제24회 전국남녀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에 출전한 안양시 국악인 김복순이 대상부 장원에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2년에는 국악협회가 5월 18일에는 「제22회 전국시조경창 안양대회」를, 6월 1일에는 「제2회 전국 국악 예술작품 안양대회」를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개최하였으며, 9월 16일에는 (사)한국경기소리민요보존협회가 주최한 「제15회 추석맞이 국악한마당」이 안양아트센터 야외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10월 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안희진예술단이 주관한 「제16회 금요상설무대」가 펼쳐졌으며. 10월 6일에는 국악협회가 주관한 「제21회 우리소리 춤의 한마당」이 개최되었다. 이어 10월 9일부터 2주 간격으로 12월 10일까지 안양문화예술재단이 기획한 국악 시리즈 공연 「이판사판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대중적 기반이 취약한 전통공연예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공연에는 김백봉, 이종대, 안숙선, 김덕수, 송용태, 김정민 등 전통공연예술의 스타급들이 출연하였으며, 국악협회 지부장 안희진 등 안양지역 전통 예술인도 함께해 다채로운 무대를 꾸몄다.

2013년에는 강응민을 비롯한 안양에 거주하는 20~30대 청년 국악인 10여명이 모여 「안양국악예술단」을 창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9월 7일에는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안양지부가 주최한 「제16회 추석맞이 국악한마당」이 삼덕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되었으며, 11월 26일에는 한국춤보존회(대표 조희순)가 주최한 「안양시민과 함께하는 한국춤보존회 국악대향연 제4회 정기공연」이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개최되었다.

제4회 전국국악예술작품 안양대회(2014)

2014년 10월 31일에는 국악협회가 주최한 「제4회 전국 국악 예술작품 안양대회」가, 11월 7일에는 「제24회 전국평시조 노랫가락 경창 안양대회」가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

서 개최되었으며, 11월 21일에는 안양소리보존회 주최로 「테마가 있는 안양소리여행」이 개최되었다. 이날 공연은 무대인원만 300명 이상이 출연하는 대규모 공연으로 안양시에만 전해 내려져 오던 안양의 전통민요를 오랜 기간의 고증과 연구를 통해서 어렵게 복원된 안양아리랑, 채석요, 담바구타령 등이 공연되었다.

2015년 국악협회가 5월 16일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제24회 우리소리 춤의 한마당」을 개최하고, 6월 26일에는「제5회 전국국악예술작품 안양대회」를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개최하였다. 10월 31일에는 안희진예술단이 주최한 「제19회 국악상설」 공연이 삼덕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되었다. 11월 13일에는 국악협회가 주관한 「제5회 전국 국악 예술작품 안양대회」 가 개최되었다.

2016년에는 국악협회가 5월 16일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제25회 우리소리 춤의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이어 6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13주년 기념식에서 안양의 소리 발굴과 보존에 힘써온 안희진 안양소리보존회 대표가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하였다. 10월 6일에는 국악협회가 주관한 「제6회 전국 국악 예술작품 안양대회」 가 개최되었다.

2017년에는 국악협회가 6월 18일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제26회 우리소리 춤의 한마당」을 개최하고, 9월 8일에는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안양지부가 「제20회 추석맞이 국악한마당」을 개최하였으며, 10월 15일에는 안희진예술단이 「제21회 국악상설」 공연을 개최하였다. 10월 27일에는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가 제15회 정기공연 '경기천년, 경기소리로 수놓다'를, 12월 10일에는 국악협회가 「제7회 전국 국악 예술작품 안양대회」를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개최하였다.

2017년 12월 말, 안양 국악의 전환과 발전기를 주도하며 국악협회를 이끌었던 안희진이 이선으로 물러나며, 안양의 국악계에 새로운 변화가 생겨난다.

국악협회는 총회를 개최하고 8대 지부장에 김혜진을, 부지부장에 김종회, 윤영자, 김정선을, 사무국장에 김현혜를 선임한다.

5) 안양 국악의 현재

2018년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국악협회가 6월 23일 안양예술공원 벽천광장에서 「제27회 우리소리 춤의 한마당」을 개최하였으며, 9월 8일에는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안양지부가 「제21회 추석맞이 국악한마당」을, 10월 7일에는 안희진예술단이 「제22회

국악상설 '시민을 위한 비나리'」를 공연하였다. 11월 3일에는 국악협회가 「제8회 전국 국악 예술작품 안양대회」를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서 개최하였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에도 안양의 국악은 국악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우리소리 춤의 한마당」, 「전국 국악 예술작품 안양대회」와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안양지부의 「추석맞이 국악한마당」, 안희진예술단의 「국악상설공연」 등이 대부분이고, 2022년 11월 17일 지역청년예술가로 구성된 안양국악예술단(대표 강응민)이 공연한 창작 국악뮤지컬 「마애종」은 안양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소재로 창작 국악뮤지컬을 제작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현재 국악협회를 이끌고 있는 김혜진은 경기도 31개 시군 국악협회 지부장들 중에서 몇 안되는 젊은 재원으로 협회 사업을 통해 안양지역의 젊은 국악인과 꾸준히 교류하며 활동하고 있다. 특히 국악협회 젊은 회원들 중심으로 안양국악실내악단(현 A-FRIEND´S), 안양창작연구소 등의 모임을 만들어 퓨전 국악 등 다양한 형태의 국악 공연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만들어 기존 국악공연과 접목하는 활동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2월 9일 안양지역 토속소리인 '안양 일소리'가 안양시 향토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국악협회를 이끌며 안양소리보존회를 만들어 안양의 소리 발굴과 복원에 힘썼던 안희진은 안양시향토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이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안양지역 소리를 보존에 헌신한 결과일 것이다.

제22회 추석맞이 국악한마당(2019)

이제 안양의 국악은 A-FRIEND′S와 안양국악예술단과 같은 젊은 안양의 국악인들이 선도할 것이다.

그들은 무대에서 과거의 전통국악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새로운 창작국악들을 공연하고, 최근에는 전통국악기와 서양의 드럼이 어울려 세련된 형태의 창작국악을 선보였다. 바로 이것이 현재 안양 국악의 현주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4장

안양의 영화 산업

정민아 성결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1. 한국영화와 안양

1) 안양의 영화 역사와 영화인

안양은 한국 최초의 대규모 영화촬영소가 건립된 곳이다. 1956년 7월 수도영화주식회사는 한국의 할리우드를 꿈꾸며 안양영화촬영소安養映畵撮影所 건립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 소식은 한국영화 역사에서 안양이 중심적인 위치에 서게 된 사건이다. 이 일의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영화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화는 크게 제작, 배급, 상영과 감상으로 구성된다. 기획과 촬영 등 실제 영화를 만드는 첫 번째 단계, 완성된 영화를 배급하고 유통하는 두 번째 단계,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관객이 감상하고 수용하는 세 번째 단계를 아우르는 과정이 영화인 것이다.

안양촬영소 정초식(1956. 10월, 국가기록원 제공)

이러한 관점에서 안양의 영화 역사를 살펴보면, 영화제작이 이루어졌던 영화촬영소가 영화산업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시에 극장에서 영화 상영 과정과 함께 관객의 감상과 수용 또한 영화산업의 한 요소를 담당한다. 따라서 '안양의 영화'를 정의할 때, 안양지역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영화제작, 극장 운영을 통한 배급, 관객의 영화관람, 영화인 양성을 위한 기관, 영화 교육과 행정을 아우르는 광의의 개념으로 글을 서술하고자 한다.

1895년 프랑스 뤼미에르 형제가 처음으로 영화를 탄생시킨 후 1900대 초 조선에도 영화가 들어왔다. 안타깝게도 기록의 한계로 조선에 정확히 언제 영화가 처음 상영되었는지는에 대해서는 영화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 1897년에 영화를 봤다는 심훈의 구술이 있으며, 1899년 조선에서 영화를 영사하였다는 버튼 홈즈의 기행문이 있다. 1903년 『황성신문』에 난 광고는 영화가 대중에게 소개되었다는 점을 알려주는 최초의 기록이다.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인 심훈은 "조선에 활동사진이라는 것이 맨 처음 수입되기는 1897년, 즉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이현에 있었던 '본정좌'라는 조그만 송판쪽 바라크 속에서 일본인 거류민을 위해서 실사 몇 권을 가져다가 놀린 것으로 효시를 삼는다."[1]라고 증언하였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을 겪으며 부침을 거듭하던 한국영화는 1955년 〈춘향전〉(이규환)과 1956년 〈자유부인〉(한형모)의 대성공으로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영화촬영소의 건립은 안양을 한국영화의 중심으로 등장시킨 일대 사건이었다. 특히 1956년 6월 9일 개봉한 〈자유부인〉은 최초의 한국형 모던 멜로 드라마이며, 문자 중심의 소비(신문 연재소설, 라디오드라마 등)에서 스크린으로 문화적 관습이 넘어가던 과도기에 영화가 대중문화의 중심이 됨을 널리 인식시켰다. 불륜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시각적으로 세련되고 환상적인 취향을 자극하였으며, 이후 도시화와 근대화라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슈를 그리는 멜로 드라마의 붐을 이끌었다. 이에 한국영화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한국도 외국 여느 나라처럼 영화가 산업화할 수 있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두 편의 한국영화의 성공은 영화제작을 유망한 투자사업으로 부각시켰고, 제작 편수의 증가로 영화계는 활기를 띠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에 6편이었던 제작 편수가 1955년 15편, 1956년 30편, 1957년에 37편, 1958년 74편, 1959년에는 111편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2]

영화학계에서는 1955년에서 1959년까지 기간을 한국영화 중흥기로 분류한다.[3] 유현목 감독이 〈교차로〉(1956)로, 김기영 감독이 〈주검의 상자〉(1955)로 데뷔하였으며,

1952년 〈악야〉로 이미 입봉한 심상옥 감독 등 젊은 감독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조미령, 최은희, 김지미 등의 스타 배우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던 때였다.[4] 이 시기에는 영화제작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한국영화가 관객의 호응을 얻으며 대중의 최고 오락으로 등극하였으며, 한국영화의 수준도 눈에 띄게 성장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영화제작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조잡한 세트 촬영이 한국영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되었다.[5] 미국 아세아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기자재를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 정릉스튜디오, 〈자유부인〉을 제작한 삼성영화사의 삼성스튜디오, 수도영화사의 안양촬영소 등 1957년 3개의 스튜디오가 동시에 건립되었다.

1956년 평화신문사의 사주이자 수도극장과 국도극장을 소유한 굴지의 재력가 홍찬[6]은 이승만 대통령의 배려로 경기도 안양의 2만 5000평에 달하는 대지를 구입, 수도영화사를 설립하고 동양 최대의 촬영 스튜디오 건설을 추진하였다.[7] 홍찬은 일제강점기에 〈나그네〉(이규환, 1937), 〈군용열차〉(서광제, 1938)를 제작한 성봉영화원의 대표 인물이다. 1956년 10월 17일 이승만 대통령과 정치계 및 영화계 인사가 참석하여 정초식을 거행하고 1년여의 공사 기간을 거친 후 촬영소가 준공되었다. 『대한뉴스』 제94호(1956.10)에 따르면, 홍찬의 사회로 진행된 정초식에서 현제명 박사가 공사 경과를 보고하였고, 이승만 대통령과 최규남 문교부 장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민의원 의장 이기붕, 내무부 장관 이익홍 등의 정부 인사가 자리하였고, 영화배우 주증녀가 단상에 올라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전달하였으며, 정초식 이후 대통령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촬영소 모형도를 살폈다.

안양촬영소 모형도를 돌아보는 이승만 대통령
(1956, 국가기록원 제공)

정초식에 참석한 홍찬(좌3), 현제명(좌4)
(촬영감독 김학성 컬렉션,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안양촬영소 전경(1958, 약진하는 우리경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3만 5000평에 달하는 대지에 건설된 안양촬영소는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으며,[8] 한국 영화 기술의 선구자인 이필우[9]의 설계로 건설된 3개 대형 스튜디오(500·380평·150평), 래보라토리(laboratory, 105평), 녹음실(60평), 소도구·대도구 제작실(150평), 분장실(100평), 촬영장비 저장소(100평)가 있었다. 그리고 한꺼번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중욕장과 300평의 식당(1500명 수용), 총 3300㎾를 출력할 수 있는 3개의 변전실(각 50·30·20평) 등의 부대시설까지 일개의 촬영 스튜디오라기보다 그야말로 '영화공장'이라고 할 수 있었다. 또한 여기에 미국 MGM 영화사를 통해 들여온 미첼(Mitchell) NC 카메라 3대와 웨스트렉스(Westrex) 녹음 시스템 일체를 비롯해 당시로서는 다양한 최신식 기재들이 구비되어 있었다.[10]

흥찬은 화려한 기재와 설비를 바탕으로 한국 최초의 시네마스코프 영화인 첫 번째 작품 〈생명〉(이강천, 1958)을 제작했지만, 당시 최신식 기재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 기술적 한계를 드러냈고 흥행에서 실패하였다. 두 번째 작품 〈낭만열차〉(박상호, 1959)마저도 흥행에 실패하면서 수십억 원의 부채를 떠안았고, 결국 안양촬영소는 1959년 4월 부도 처리되어 상업은행의 관리로 넘어갔다.[11] 안양촬영소는 애초 계획했던 수중촬영 시설, 기숙사 건물 등 추가 부대시설을 완성하지 못한 채 벌판으로 남겨졌다.

영화 〈생명〉 촬영 전 고사 장면과 안영촬영소 세트장(촬영감독 김학성 컬렉션,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이후 수도영화사는 이름만 남은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7년간 방치되었던 안양촬영소는 1966년 9월 사세를 확장해가던 신필름에 인수되었다. 신필름이 안양촬영소 문을 다시 열었다는 것은 안양이 한국영화의 중심지 역할을 회복할 것임을 의미하였다. 신상옥 감독이 설립한 신필름은 1958년 〈어느 여대생의 고백〉의 성공을 계기로 급부상하기 시작하였고, 〈로맨스 빠빠〉(1960), 〈성춘향〉(1961), 〈연산군〉(1961)의 연이은 성공으로 영화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사로 자리매김하였다. 신필름은 1959년 용산에 1018평 규모의 원효로촬영소를 소유하고 있었고, 다수의 전속 배우와 감독, 작가를 확보하고 명보극장과 배급 체인을 체결하는 등 제작, 배급, 상영의 수직적 통합을 이룬 한국 최대 메이저 스튜디오였다.[12] 1966년에 안양촬영소를 인수하면서 신필름의 위용은 절정에 이르렀으며 1960년대 후반에 연간 30여 편의 영화를 내놓았다. 영화마다 흥행에 성공하고 영화상을 휩쓸었으며, 영화를 동남아 시장에 수출하는 등 영화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안양필름촬영소 전경(1968, 국가기록원 제공)

〈성웅 이순신〉 안양촬영소 세트장 및 제작자 김진규 인터뷰(1971, 『대한뉴스』 836호)

1967년에 신필름은 안양촬영소를 '안양필름'(1967~1968)으로 이름을 바꾸며 사업 확장을 노렸지만, 과도한 제작 편수, 제작 인력의 비대화,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운영상의 문제들이 겹치면서 결국 1970년 영화사 등록이 취소되었다. 한때 약 200여 명에게 월급을 주던 영화사였지만, 장비와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정도로 많은 작품을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었고 정부의 지원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재정적 위기에 몰리면서 그 위상이 추락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안양영화주식회사(1970~1973)로 개편하며 회사 규모를 축소한 신상옥 감독은 안양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재기를 시도했지만, 당시 불어닥친 영화계 불황으로 연이은 부도를 맞이하였다. 1973년에 신프로덕션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화업을 지속하고자 했지만 1975년 홍콩과 합작한 〈장미와 들개〉의 예고편 검열 과정에서 삭제된 키스 장면을 극장에서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1975년 11월에 허가가 취소되었다.[13]

1978년 신상옥·최은희 부부가 납북되면서 안양촬영소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석수현대아파트 정문, 옛 안양영화촬영소 터 안내판 제막(2017)

안양이 한국 영화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라는 찬란한 기대 역시 쓸쓸히 무너져 내렸다. 현재 안양촬영소 자리에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섰고 그 공간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안양영화촬영소의 영화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안양은 한국 영화의 산업화 초창기를 상징하는 공간이며, 기술적 발전을 입증하는 대작영화와 해외 합작영화 제작 시스템이 실험되던 장소였다. 둘째, 정권과 가까운 영화인이 소유함으로써 정치와 영화 권력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셋째, 물리적 흔적은 거의 사라졌지만 기억과 회고를 통해 안양의 영화적 유산이 유지되고 있다.

신필름이 안양촬영소를 인수하면서 영화사를 소유하고 있던 신상옥 감독과 배우 최은희가 안양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게 되었다. 1926년 함경북도 청진 출신인 신상옥과 1921년 경기도 광주 출신인 최은희는 1954년 〈코리아〉에서 감독과 배우로 함께 작업하였으며 이후 부부가 되어 감독과 배우로 협업을 지속하였다. 두 사람은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1959)을 안양촬영소에서 동시녹음으로 촬영하며 안양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다. 이 영화는 대선을 앞둔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선전을 위해 만든 영화로 임화수의 반공예술단이 제작을 맡았고, 미첼 카메라 등 안양촬영소가 보유하고 있는 최고 수준의 장비로 만들어졌다. 당대 최고 스타인 김진규가 이승만 역을 맡았으며, 스타 배우로 인기가 많은 김승호, 최은희, 김지미가 출연하였다. 국보급 고종황제의 마차를 소품으로 사용하였으며, 서대문형무소 안에서도 장면을 찍는 등 경무대 경호실장 곽영주의 비호를 받으며 정치권력을 동원하여 영화를 제작하였다.

신상옥은 이전과 비교하면 다소 주춤했지만, 안양에서 〈꿈〉(1967), 〈대원군〉(1968) 같은 흥행대작을 연출하였고, 박종호·심우섭·이용민·김기·김기덕 등 인기 감독들의 영화를 제작하였다. 최은희는 안양에서 두 번째 연출작인 〈공주님의 짝사랑〉(1967)을 만들었다. 영화는 신필름 연기실의 연구생들을 동원하였다. 이 시기 최은희는 박남옥, 홍은원과 여성 감독 트로이카를 형성하였다. 〈공주님의 짝사랑〉은 〈민며느리〉에 이어 '신필름의 건재와 새로운 출발'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14]

최은희는 신필름이 내리막길에 있던 1972년 세 번째 연출작 〈총각선생〉을 연출하였다. 제작은 신필름이 아닌 새한필름에서 진행되었으며, 크레디트에는 '안양영화예술학교 제1회 작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영화는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총출연시키며 교육자 최은희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신상옥, 최은희는 1975년 신프로덕션이 사업 허가를 취소당하자 영화계에서 사라지는 듯했으나, 1978년에 납북되면서 북한으로 활동 공간을 옮겼다. 북한에서 7편의 연출

안양영화촬영소 회고전(2010)

작과 13편의 제작 지도 작품을 남겼고, 1986년 미국으로 망명해 영화 활동을 재개한 뒤, 2002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하였다. 두 사람은 안양영화예술학교를 운영하던 경험을 살려 만안구 안양6동 안양경찰서 자리에 신필름인스티튜트라는 교육 시설을 개원하였다. 2003년 문을 열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06년 폐원하였다. 신상옥은 2006년 80세를 일기로 사망하였고, 최은희는 2018년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신상옥과 최은희가 안양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영화인이며, 이들 외에도 한양영화 감독으로 안양 일대 야산에 만리장성 세트를 지어 〈신시황제와 만리장성〉(1962)을 촬영한 권영순(1923-1992)이 있다. 그 외 안양 출신 영화인으로 감독 이하〈여교수의 은밀한 매력〉(2005)가 있으며, 배우로는 차승원〈독전〉(2018), 지창욱〈조작된 도시〉(2017), 김규리〈미인도〉(2008), 류덕환〈천하장사 마돈나〉(2006), 이현우〈은밀하게 위대하게〉(2013), 우도환〈사냥개들〉(2023) 등이 있다.

안양읍 소재 극장 포스터(1968, 닐 미샬로프 제공)

2) 안양의 영화관과 영화교육기관

안양에 처음 영화가 소개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928년 신문기사에 안양에서 영화상영회가 열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 시흥군 서이면 안양에 잇는 안양청년회에서는 창립후제일착사업으로 동지일반인사에게 현대과학의 이해와 또는 납량위안을 주기 겸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역전광장에서 활동사진대회를 무료공개하얏섯다는데 동지에서는 차거가 금반이 효시인만치 무려 수천 명의 관객으로 대성황을 일우엇다더라.[15]

당시 안양은 경부선 철도 운행의 영향으로 시세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16] 지역 청년들이 1928년 7월에 안양청년회를 결성하고, 첫 사업으로 영화상영회를 연다는 것을 알리는 기사다. 영화의 국적, 제목이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수천 명의 관객이 모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보아 재미있는 오락영화일 가능성이 크다.

안양의 극장에 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52년 신문기사다. 기사는 지난 16

일 오전 11시 화단극장에서 다수의 내빈과 100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자유당 시흥군당부 결성식에 대해 전하고 있다.[17] 이 기록에 따르면 화단극장은 안양의 각종 행사를 위해 활용되었으며, 영화관 전용관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이후 기록을 보면 영화관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64년 신문기사에서 신문배달원들에게 무료로 영화관람을 시켜준 행사에 관해 쓰고 있다.[18]

화단극장은 안양역 1번 국도변에 세워진 540석 규모를 갖춘 극장으로 각종 단체나 기관의 행사장으로도 쓰여 학교 발표회, 여성 국극단 공연, 가수 순회공연 등이 무대에 올랐다.[19] 화단극장 뒤를 이어 생긴 것은 읍민관이다. 1956년 중앙시장 근처에 500석 규모의 좌석을 갖춘 읍민관은 읍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주로 영화를 상영하였다. 읍민관이 등장하면서 안양의 극장은 경쟁체제로 들어섰다. 안양의 중심가였던 1번가 근처에 읍민관이 들어서면서 화단극장은 위치상 변두리 극장으로 위상이 떨어지게 되었다.

안양의 규모가 커지면서 도심 집중력이 강화되자 읍에서 운영하는 읍민관의 영업 행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 영화나 쇼 등 프로그램 관리를 공무원이 전담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1969년에 이르러 읍민관은 민간에 이관되었고, 명칭 또한 안양극장(780석

안양지역 최초 극장 화단극장 앞

1970년대 안양극장

삼원극장(1972)

으로 개조)으로 바뀌었다.[20] 1970년대를 맞이하며 영화관은 본격적인 흥행공간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도심에 자리 잡은 안양극장은 1970년 최신 설비를 갖춘 삼원극장(497석)의 등장으로 주도권을 빼앗겼다. 삼원극장은 외국영화를 주로 상영함으로써 안양의 영화 흥행을 주도하였다. 서울시민도 저렴한 가격으로 개봉영화를 보기 위해 안양을 찾을 정도로 3개 영화관은 인기를 끌었다. 작은 도시에 개봉관 성격의 극장이 3개나 있었는데, 이렇게 이어지던 3개관 체제는 1978년 안양극장이 경영상의 문제로 폐관함으로써 깨졌고, 화단과 삼원 2개 영화관만 남게 되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연장법 개정에 따라 별다른 제한 없이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소극장을 상영장으로 사용하는 길이 열리면서 규모가 작은 소극장들이 안양에도 많이 생겨났다. 1985년 호계동의 군포극장을 시작으로 안양동에 씨네타운(139석, 1986년), 안양극장(232석, 1987년), 무비프라자(298석, 1987년), 명보극장(96석, 1987년), 명동극장(171석, 1988년), 중앙극장(178석, 1988년), 대한극장(134석, 1989년), 명학극장(129석, 1989년), 신세기1관(160석, 1989년), 신세기2관(160석, 1989년), 신세기3관(216석, 1989년), 아세아극장(38, 1990년), 씨네아트2관(280석, 1991년), 무비프라자2관(186석, 1992년), 비산동의 코리아극장(185, 1991년) 등 1991년 12월에 18개의 극장이 성업하였다.[21]

소극장의 대거 등장으로 안양의 극장들 간 영업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모임인 안양극장협회(1990~1995)가 생겼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후반 한국 영화산업의 유통구조가 재편되고 한국영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영화관람 문화의 변화로 인해 급격하게 바뀌었다. 1998년 CGV 강변 11관이 국내 최초 멀티플렉스로 개관하면서 영화관은 대중문화 향유 공간으로서 극장 개념을 재정의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 체인이 등장해 전국 단위로 확산되면서 안양의 극장도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2002년 안양에 8개 스크린을 갖춘 킴스시네마가 최초의 멀티플렉스로 문을 열었다. 부대시설 없이 단관으로만 운영되던 기존 극장과 달리 킴스시네마는 쇼핑몰과 결합된 복합건물로 관객의 사랑을 받았다. 이로 인해 안양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소극장이 경영난으로 허덕였고, 영화관람은 쇼핑과 결합하는 소비문화로 변모해갔다. 화단극장, 삼원극장, 대한극장, 씨네아트, 무비프라자가 등 기존 극장들은 차례로 문을 닫았다. 2004년 4월 안양 CGV가 안양1번가 쇼핑몰 상가 4개 층 8개 스크린을 갖추고 오픈하였다. 안양 CGV는 교보문고, 식당가, 대형카페 등이 같은 건물에 있어 많은 관객을 끌어들였으나, 가맹계약이 끝나며 2014년 롯데시네마로 바뀌었다가 평촌신도시로 관객이 이동하

안양영화예술학교 개교식(1967)

였다. 코로나19와 함께 상권 불황이 이어지며 극장의 활기가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다.

2024년 기준 안양의 영화관 현황은 6개 멀티플렉스관, 35개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 상영관, 독립예술영화 상영관, 특별관 등 다양한 형태의 극장이 도심 곳곳에서 성업 중이다.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의 소극장에서도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정기적으로 독립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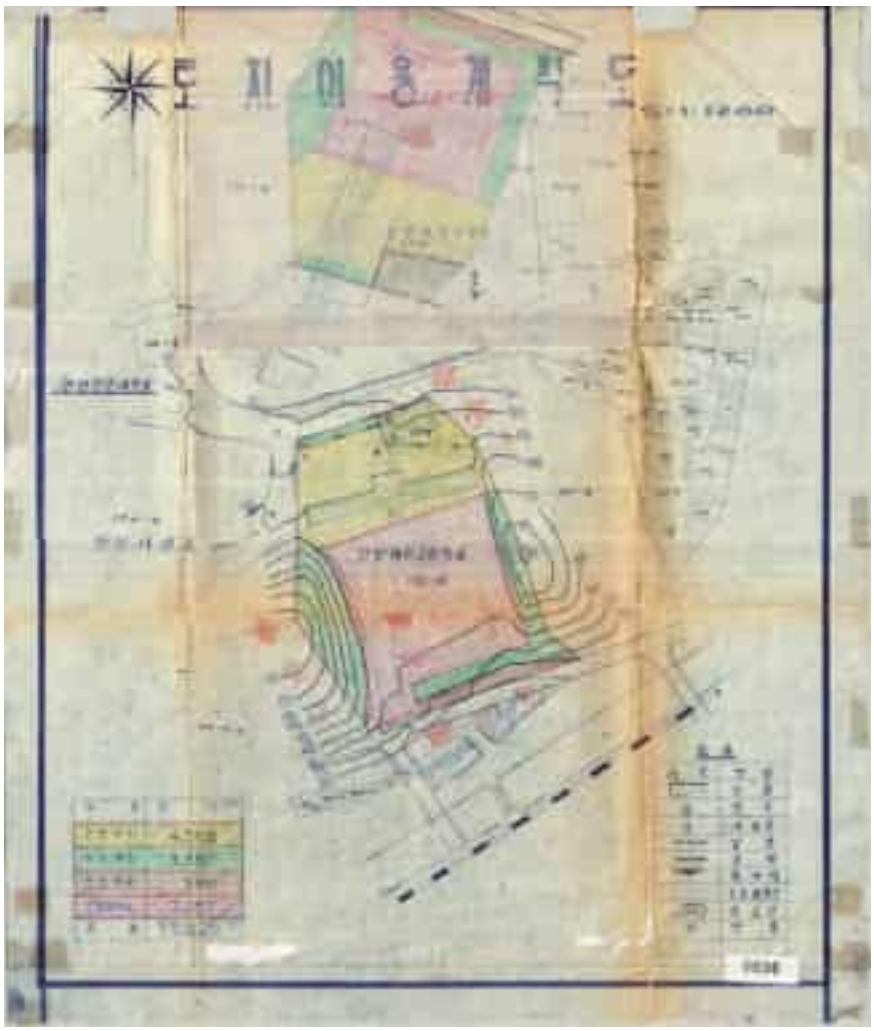
극장명	위치	스크린 수	좌석 수	개관일	비고
롯데시네마 안양역	만안구 만안로 244	6	1,108	2004.12.10	
롯데시네마 안양1번가	만안구 안양로 292	5	1,012	2007.11.16	경기인디시네마 상영관 운영, 독립·예술영화 상영.
롯데시네마 평촌	동안구 동안로 119	8	1,407	2005.12.23	4D관, 샤롯데관 등 특별관 보유
롯데시네마 인덕원	동안구 흥안대로 517	6	1,034	2007.12.14	
CGV 평촌	동안구 시민대로 180	7	1,215	2004.10.01	아트하우스관 운영, 예술영화 관람에 적합
CGV 범계	동안구 평촌대로 217	3	1,020	2005.11.25	소규모 상영관

안양의 영화교육기관으로는 안양예술고등학교와 성결대학교에 영화영상학부, 안양대학교 공연예술학과가 있다. 이 세 기관에서 감독, 배우, 촬영 등 영화계 각 분야의 인력을 활발히 배출하고 있으며 안양을 소재로 하는 영화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만안구 양화로에 위치한 안양예술고등학교의 전신은 1967년 신필름이 세운 안양영화예술학교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필름은 서울 용산에서 사무실을 운영할 당시 신인 배우를 양성하기 위해 설치했던 '연기실'을 안양촬영소를 인수한 후 전문적인 교육기관으로 만든 것이다. 1966년 고교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아 1967년 3월 개교한 안양영화예술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문교부 예술과장 출신인 남상영이 취임하였으며, 그가 사망한 후 배우 최은희가 1969년부터 납북되던 1978년까지 약 10년간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최은희가 대표로 있던 극단 배우극장의 공연 작품이나 신상옥 감독의 영화에 학생들을 출연시키는 일이 많았다. 특히 한국판 '사운드 뮤직'을 만들겠다는 야심으로 신프로덕션에서 제작한 70mm 뮤지컬 영화 〈아이 러브 마마〉(신상옥, 1975)에 학생들이 대거 출연하기도 하였다.[22]

안양예고 학생들이 출연한 〈아이 러브 마마〉 한 장면과 신문광고(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안양예술고등학교 토지이용계획도(경기도고시 제1984-104호)

학교 운영은 안정적이어서 학생 수가 1000여 명에 이르렀으며, 초급대학 인가를 받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그러나 영화사 신필름의 부진이 학교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최은희·신상옥 납북사건으로 학교는 주인을 잃고 표류하게 되었다.

1980년 7월 안양예술고등학교 기성회가 조직되었고 1981년 1월 만안구 안양3동 42-1번지에서 새 교사 가공식이 열렸다. 1981년 3월 1일 연명흠이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1982년 1월 학교법인 연암학원 인가를 받았다. 1982년 12월 17일에 연극영화과 3학급, 미술과 2학급 등 2개 학과 5학급 규모의 안양영화예술고등학교로 정식 인가

를 받았다. 2000년 3월에 현재의 명칭인 안양예술고등학교로 바뀌었으며, 영화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공을 개설하였다.

현재 교장은 2025년 3월에 취임한 안정호이며, 연암홀·본관·급식실·우호관·경옥관 총 5개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예술고등학교 중 가장 다양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연극영화학과(80명 정원), 음악과(80명), 무용과(40), 미술과(80명), 문예창작과(40) 등 총 입학 정원 320명, 5개 학과 8개 학급으로 운영 중이다. 예고 중 전국 유일하게 있던 사진영상과는 2020년에 폐과되었다.

이 중 연극영화과는 안양예고를 대표하는 학과이자, 고등학교에 설치된 가장 오래된 연극영화 전공이다. 세부 전공으로는 영화와 연기 전공으로 나뉘며, 영화 전공은 다시 영화와 시나리오로 연기 전공은 연극과 뮤지컬로 세분화된다. 이들은 연암예술제에서 큰 규모의 뮤지컬 공연과 연암영화제를 연다.

안양예고의 문화적 의의는 한국 최초의 실기 중심 영화예술 고등학교라는 점, 안양촬영소와 연결된 전후 한국 영화산업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 연극영화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통을 유지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안양예고를 졸업한 영화인들은 다음과 같다.

영화감독으로는 신정균〈삼양동 정육점〉(1999)과 가성문〈드림팰리스〉(2022) 등이 있으며, 배우로는 서미경〈수학여행〉(1969), 강주희〈고교얄개〉(1977), 금보라〈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1981), 김보연〈꼬방동네 사람들〉(1982), 나영희〈백구야 훨훨 날지마라〉(1983), 이상아〈길소뜸〉(1985), 김혜선〈화엄경〉(1993), 오연수〈게임의 법칙〉(1994), 김민종〈귀천도〉(1996), 신은경〈조폭 마누라〉(2001), 안재모〈야인시대〉(2002), 전미선〈마더〉(2009), 고수희〈써니〉(2011), 신성록〈밀정〉(2016), 전종서〈버닝〉(2018), 김재화〈그녀에게〉(2023), 이상이〈대도시의 사랑법〉(2024), 임수향〈미녀와 순정남〉(2024), 신예은〈정년이〉(2024) 등이 있다.

안양에서 최초로 대학 단위 영화교육을 시작한 곳은 성결대학교 연극영화학부로 2004년 3월 1일 교육부 설립인가를 받은 후, 4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2023년에 영화영상학과와 연기예술학과로 분리하여 전문적인 영화제작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실무 중심 교육을 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입학 정원은 35명이며, 연출, 촬영, 기획/프로듀서, 사운드, 프로덕션디자인, 시나리오, 이론 등으로 전공을 세분화하여 교육한다. 경조사영화제, 시나리오 창작 콩쿠르 등의 다양한 교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미장센단편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많은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성결대 단편영화 〈원주민〉
24회 대한민국국제청소년영화제 대상 수상(『자유일보』, 2004)

성결대학교 기념관 신학예술대학 건물

성결대 출신 영화인으로는 영화감독 김세인〈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2021), 배우 위하준〈오징어 게임〉(2021), 유수빈〈사랑의 불시착〉(2019) 등이 있다.

안양시 만안구 섬덕로에 위치한 안양대학교 공연예술학과는 2008년에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뮤지컬&영상트랙과 연기트랙을 운영하며 연극, 뮤지컬, 영상연기 등 공연 예술 전반에 걸친 교육을 통해 연기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는 폐원됐지만, 한때 안양에 터를 잡았던 영화교육기관 '신필름예술센터'가 있었다. 최은희·신상옥 부부가 1987년 미국으로 망명하였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인 2002년, 안양시는 시 소유 건물인 옛 안양경찰서 건물을 이들에게 임대하였다. 여기에 2년 과정의 영화학교인 예술센터를 개원하였다. 분장실, 방송실, 미디어 실습실, 음악·개인 연습실, 소품제작실, 의상 제작 및 보관실 등을 갖추고, 영화제작, 방송제작, 연극제작, 실용음악, 영상미디어 등 5개 학부 23개 과를 설치하였다. 운영 첫해인 2003년에만 160여 명이 입학해 목표대로 운영되는 듯했지만, 이듬해 입학생이 100명으로 줄더니 2005년에는 30여 명까지 떨어져 어려움이 가중됐다. 신필름예술센터는 결국 2006년 2월 안양시에 철수 의사를 밝혔고, 그해 4월 신상옥 감독도 별세하였다.[23]

3) 영화와 드라마에 재현된 도시 안양

영화와 드라마에서 안양시를 로케이션으로 촬영하는 이유는 미적·역사적·지리적 이점이 많아서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도시의 이질성과 다층적 풍경이다. 뉴타운, 구도심, 재개발 지대 산업단지가 혼재되어 있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시각적 대비를 제공할 수 있는데, 석수동과 박달동의 재개발 이전 풍경은 복고 무드의 영화에 안성맞춤이

다. 반면 젊은 상업지구와 서민적 분위기가 어우러져 다채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더불어 안양천, 안양예술공원, 병목안시민공원 등 로케이션 허가가 비교적 쉬우며 상징성 있는 공간 또한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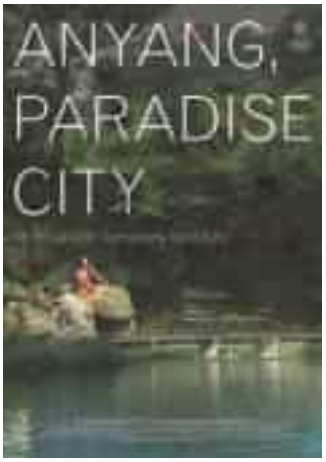
촬영 유산과 도시 기억의 연속성이라는 면에서도 안양은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안양촬영소의 역사를 비롯해 과거 영화 인프라가 있던 장소로 인해 '영화 도시'로 기억되고 있으며, 이는 영화산업의 기억된 장소로서 큰 매력을 지닌다. 안양 출신 영화인들이 많아 이들이 안양을 친숙한 로케이션 공간으로 선택하는 경향도 있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쉬운 지리적 이점 또한 강점으로 촬영팀의 이동이 용이하며,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여 다양한 풍경을 담을 수 있다. 여기에 시 행정에서 제공하는 간편한 촬영 허가 절차와 안양문화재단의 지원은 영상 및 문화 콘텐츠 관련 프로젝트에 실질적 장소 제공과 홍보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점을 갖춘 안양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리스트는 아래 표와 같다.

[다큐멘터리]

제목	감독	제작 연도	내용	로케이션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에	박찬경	2010	안양의 역사와 현대화를 조명하며,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탐구하는 실험 다큐.	안양사, 1988년 그린힐 화재 현장, 안양예술공원, 안양천
울림의 탄생	이정준	2021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0호 악기장 임선빈과 그의 아들이 전통 북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장인의 삶과 예술을 조명	안양시청, 안양문화재단, 신안 유도 체육관, 세기 보청기 안양점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선호빈, 나바루	2024	FC안양의 서포터즈 'A.S.U. RED'의 역사와 열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와 축구 문화의 관계를 탐구	안양종합체육관, 평촌중앙공원, 안양시청 앞 광장, 범계로데오거리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에〉는 안양의 여러 장소를 통해 도시의 복합적인 얼굴을 드러낸다. 1000년 만에 발굴된 절터 안양 중초사지 발굴 현장을 통해 안양이라는 지명의 불교적 의미인 '극락'을 탐구하며 도시의 영적 기원을 탐색한다. 1988년 2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그린힐 호재사건을 통해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겪은 아픔과 도시의 어두운 면을 부각한다. 또한 안양예술공원을 통해 현대예술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을 포착하며 안양의 문화적 재생과 예술성을 섬세하게 기록한다. 이 영화는 2011년 안양시공공예술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진·비디오·설치 등 다양한 작품 활동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에〉
해외용 포스터(영화진흥위원회)

〈다시 태아나고 싶어요, 안양에〉 장면(영화진흥위원회)

으로 국제비엔날레에 초청받은 박찬경 감독의 첫 장편영화다.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상영되었으며, 전주국제영화제 장편경쟁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하였다. 이 영화에는 안양예고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배우로 참여해 도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안양 출신 연주자들이 참여해 지역의 소리를 담아냄으로써 영화는 살아 있는 주체로서의 안양과 시민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를 보여준다.

〈수카바티〉는 안양시를 단순 촬영 배경이 아닌, 서사의 중심이자 정체성으로 승화시킨다. 이 다큐멘터리는 FC안양의 창단 과정과 서포터즈 RED의 이야기를 통해 도시 안양과 시민의 관계를 조명하며 자부심 넘치는 안양시민의 모습을 흥미롭게 그려낸다. 영화는 안양 곳곳을 비추며 도시의 정체성과 시민들의 열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며, 안양시만의 독특한 매력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브랜드 안양의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안양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영화 속 캐릭터로서 주목받았으며, 이로 인해 이 영화는 안양 영화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았다.

〈수카바티〉 장면(영화사 진진)

이 작품은 2024년 영평상에서 독립영화지원상을, 노이다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작가상을, 요코하마축구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영화]

제목	감독	제작 연도	출연	로케이션
연산군	신상옥	1961	신영균, 신성일, 김동원	안양촬영소 세트
진시황제와 만리장성	권영순	1962	김진규, 김지미, 김승호	안양 일대의 대규모 세트장
폭군 연산	신상옥	1962	신영균, 도금봉, 김진규	안양촬영소 궁중 세트
로맨스 그레이	신상옥	1963	김승호, 최은희, 신영균	안양 시내 거리
벙어리 삼룡	신상옥	1964	김진규, 최은희, 박노식	안양의 자연 풍경
빨간 마후라	신상옥	1964	최은희, 신영균, 최무룡	안양 인근 비행장
민며느리	최은희	1965	최은희, 김희갑, 황정순	안양의 전통가옥 세트
마적	신상옥	1967	신영균, 박노식, 황해	안양의 산악지대
산	신상옥	1967	최은희, 신영균, 김희갑	안양의 산악지대
대원군	신상옥	1968	신영균, 김지미, 최남현	안양촬영소 궁중 세트
이조 여인 잔혹사	신상옥	1969	최은희, 김지미, 윤정희	안양의 전통가옥 세트
만종	신상옥	1969	최은희, 김진규, 신성일	안양의 주택가
연애도적	신상옥	1971	최지숙, 트위스트 김, 박지현	안양 시내 거리
성웅 이순신	이규웅	1971	김진규, 김지미, 황정순, 신성일	안양촬영소 해전 세트
효녀심청	신상옥	1972	윤정희, 김성원, 신성일	안양촬영소 전통 세트
교장선생 상경기	이형표	1973	허장강, 김희라, 장욱제	안양 시내 거리
13세 소년	신상옥	1974	신성일, 김정훈, 나하영	안양의 학교 세트
춘희 75	신상옥	1975	오수미, 이일웅	안양의 주택가
장미와 들개	신상옥	1975	오수미, 남석훈, 이대근	안양의 골목길
여수 407호	신상옥	1976	허진, 서미경	안양의 호텔 세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조문진	1978	방희, 하명중, 도금봉	안양의 전통가옥 세트
공공의 적 2	강우석	2005	설경구, 강신일, 정준호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충훈터널
과속스캔들	강형철	2008	차태현, 박보영, 왕석현	안양 시내 거리 및 주택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장훈	2018	소지섭, 손예진	안양의 공원 및 주택가
유열의 음악앨범	정지우	2019	김고은, 정해인	안양 시내 거리 및 카페

안양 시내 거리에서 촬영한 〈유열의 음악앨범〉 장면
(CGV 아트하우스)

안양 아단문고에서 촬영한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장면
(롯데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제목	감독	제작 연도, 제작사	출연	로케이션
아이리스	김규태, 양윤호	2009 KBS2	이병헌, 김태희	안양종합운동장
파스타	권석장	2010 MBC	공효진, 이선균	안양예술공원
힐러	이정섭	2014 KBS2	지창욱, 박민영	안양대학교
너를 기억해	노상훈	2015 KBS2	서인국, 장나라	안양대학교
도깨비	이응복	2016 tvN	공유, 김고은	안양 동편마을 카페거리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김진민	2017 tvN	이현우, 조이	안양 아발론호텔
나의 아저씨	김원석	2018 tvN	이선균, 아이유	안양예술공원, 안양벤처밸리, 석수동
스토브리그	정동윤	2019 SBS	남궁민, 박은빈	안양역 엔터식스
블랙독	황준혁	2019 tvN	서현진, 라미란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단짠 오피스	정헌수	2018 MBC every1	송하윤, 김지훈	안양 동편마을
너는 나의 봄	정지현	2021 tvN	서현진, 김동욱	안양예술공원
펜트하우스 3	주동민	2021 SBS	이지아, 김소연, 유진	안양 봄빛병원
오늘도 사랑스럽개	김대웅	2023 MBC	박규영, 차은우	안양 양명고등학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재규	2023 넷플릭스	박보영, 연우진	인덕원역, 벨라카우라 와인바

동편마을 배경의 〈도깨비〉 장면

안양예술공원 배경의 〈너는 나의 봄〉 장면(tvN)

앞으로도 많은 영상 제작자가 안양시를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는 영상 로케이션 지원정책과 행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영화와 드라마는 더 이상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글로벌 콘텐츠이니만큼 도시 브랜딩의 글로벌화라는 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4) 영화제와 영화단체

안양국제청소년영화제는 2016년에 시작한 국제행사다.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과 만안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한 이 영화제는 경쟁 부문을 마련하고, 평촌중앙공원의 야외 상영, 롯데시네마 평촌, 안양아트센터 등 관내 상영관과 공간을 활용한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통해 지역축제로 성장해왔다. 시민을 심사위원단으로 참여시키는 등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안양의 유일한 국제영화제로서의 입지를 다져갔으나 2018년 3회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다.

안양여성인권영화제는 안양여성의전화 주최로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24년에 18회를 맞이하였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를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영화상영이라는 기치를 걸고 무료상영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

안양독립영화협회는 2004년 8월 안양시와 연고가 있는 20~30대 영화인 50여 명이 참여하여 창립되었다. 이 협회는 2005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안양변방영화축제를 개최하였다. 독립영화, 단편영화 중심의 대안영화제 기치 아래 주제의 진정성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작품을 시민에게 선보인 변방영화제는 미술전, 공연 등의 부대행사와 함께 진행되었지만 지속하지 못하였다. 또한 독립영화협회의 첫 작품으로 다큐멘터리 〈동편마을〉을 기획했으나, 이는 제작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2. 안양 영화의 미래

안양은 산업, 자연, 예술, 기술이 교차하는 도시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독자적인 대중문화가 잘 형성된, 기억의 도시이자 전환의 도시다. 과거 공업도시였던 추억, 영화촬영의 중심지였다는 기억은 중요한 영화적 자산이 될 수 있다. 폐공장, 낡은 주택가, 오래된 시장은 리얼리즘 서사와 누아르 스타일의 배경으로 풍부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독립영화와 장르영화 모두에서 매력적인 공간이다.

공공예술프로젝트를 통해 미디어아트와 공공예술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도시로서 XR과 결합한 영화제작, AR 기반의 인터랙티브 시네마 공간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 주거지에서 실험적 예술공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내는 안양의 모습은 그 자체로 영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원천이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안양 영화의 미래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이 가능하다. 첫째, 영상 로케이션 유치 및 지원, 둘째, 영화박물관 건설, 셋째, 테마가 있는 미디어영상제 기획, 넷째, 독립영화 및 다큐멘터리 지원 등이다.

산업적 유산과 영화적 기억 위에 세워진 예술실험 도시로서의 안양 브랜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술공간과 생활문화의 접점을 살린 생활밀착형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이에 대한 시의 지원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안양은 독자적 문화정체성을 지닌 영화예술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풍부하다.

현재 안양을 로케이션으로 하는 상업영화와 드라마가 관객과 만나면서 안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중이다. 그러나 더 공격적으로 안양 로케이션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모범 사례 중 하나로, 부산이 할리우드 마블 영화 〈블랙 팬서〉(2018) 촬영을 유치한 일이다. 이 영화는 영도구 일대, 광안리 해변로, 광안대교, 동서대 앞, 과정교, 사직북로 일대에서 촬영을 진행하였다. 완성된 영화에서는 압도적인 자동차 추격전 장면에 부산의 공간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부산 중년 여성의 사투리가 등장하는 유머러스한 장면이 나온다. 이로 인해 부산이라는 도시에 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크게 상승하며 홍보 효과를 톡톡히 봤다. 〈블랙 팬서〉는 마블 영화 최초의 아카데미 수상작(음악상, 미술상, 의상상)이며 세계적으로 13억 4680만 달러의 흥행 대기록을 달성하였고, 역대 북미 박스오피스 6위에 올랐다. 부산영상위원회가 부산 로케이션을 유치하기 위해 2016년부터 2년여간 할리우드 로케이션 매니저와 함께 헌팅을 시작하고 영화 투자를 결정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또한 한국영화사에서 중요한 전통이 깃든 안양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안양촬영소의 기억을 살려 영화박물관과 영화공원의 건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획은 '영화의 도시' 안양이라는 명성을 되찾고 새로운 문화산업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해줄 것이다. 유산을 잘 활용하여 미래를 향한 동력으로 활용하는 창의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산, 부천, 전주는 20년 넘게 국제영화제를 훌륭하게 치러내고 있다. 이 영화제들은 각 도시의 대표 문화 상품으로 세계 예술영화계에서 확고한 명성을 얻었으며, 외국인 관객들도 영화제를 위해 일부러 이 도시들을 찾을 정도다. 성공한 영화제는 영화관, 호텔, 쇼핑몰 등의 인프라를 활성화하며 지역 관광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도시의 중요한 자산이 된다. 꾸준히 가꾸어온 지역 축제 하나가 도시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아 자연스럽게 도시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안양시는 서울 위성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경제적·인구적으로 자족도시로 확고한 위상을 갖추고 있다. 이에 도시를 상징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지역 영상축제가 필요하다. 여기에 안양시가 가진 산업과 도시재생, 도시와 자연의 공존, 영화 전통을 지닌 문화예술도시, 풍부한 교육 및 인적 인프라 등의 장점을 활용하면 전통과 현대, 역사와 동시대성을 융합하는 도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문화 소외지역, 경제적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약자에 대한 문화적 지원에도 초점을 두는 연대와 배려의 운영 철학을 결합하면 안양시의 브랜드 가치는 크게 상승할 것이다.

도시가 대중문화에 잘 반영되면, 이를 보고 체험하러 오는 외지인들의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도시는 더 활기를 띨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산업 유산과 도시재생을 조명하는 작품들을 초청하여 '도시와 기억'을 주제로 한 미디어영상제를 기획할 수 있다.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외부인이 즐겁게 찾아올 수 있는 행사로 발전된다면 안양시는 하나의 독자적인 도시 브랜드로서 더욱 빛나게 성장해나갈 것이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중요도가 외부로부터 내부로 인식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영화, 드라마, 케이팝, 웹툰, 예능 등 대중문화가 한국인의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중문화 수용에서 생산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중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도시의 브랜딩, 경제, 관광 등 여러 요소와 맞물린다.

안양시에 있는 안양예술고등학교, 성결대학교, 안양대학교 등 교육기관의 대중문화 전공 학과에서 많은 문화 종사자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영상물 촬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우호적인 인식도 높기에 안양시가 화제성 있는 작품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인구 유입 증가와 경제적 성장, 외국인의 활동 범위 확대에 따라 다양

성, 개방성, 역동성이라는 면에서 대중문화가 갖추어야 할 근간을 잘 형성하고 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곧 사라질 안양의 모습을 기록하는 시민 참여 영상 기록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안양을 서사적으로 흥미롭게 담아낼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안양시는 영상물에 더 활발하게 그려질 것이다.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청소년영화제와 시민영화제 같은 행사들이 중단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다른 사업으로 흡수되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안양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 활용, XR과 AR 기술의 접목,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교육 협력, 안양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테마 영상제 기획 등을 통해 과거와 미래,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영화도시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화, 드라마 로케이션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안양의 공간 특성을 반영한 작품을 기획하는 데 투자한다면, 이 또한 안양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밝은 영화도시 안양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공 지원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된다.

註

1 심훈, 「조선영화총관」, 『조선일보』, 1929년 1월 1일.

2 김종원·정중헌, 『우리 영화 100년』, 현암사, 2001.

3 김종원·정중헌, 『우리 영화 100년』, 현암사, 2001.

4 영화사가 이영일은 한국영화사에 세 번의 황금기를 주장하는데, 〈아리랑〉의 성공으로 비롯된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전반, 1955년부터 1962년, 그리고 군사정권이 몰락한 1980년대에 그 싹이 트였다고 서술한다.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소도, 2004, 24쪽.

5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5, 2008, 369쪽.

6 1909~1964. 영화제작자. 일제강점기에 이규환과 함께 성봉영화원을 설립하였고, 해방 후 극장 관리인 조직인 한성극장협회가 우익 계열에서 조직되었을 때 회장을 맡아 미군정과 공조하였다.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7 안재석, 「수도영화사와 안양촬영소」, 『한국영화사: 開化期에서 開花期까지』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49쪽.

8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5, 370쪽.

9 1899~1978년. 한국 최초의 영화촬영기사로 촬영, 현상, 녹음 등의 기술 분야를 개척한 영화인이다. 1920년대 초 연쇄활동사진극인 이기세의 〈지기〉를 촬영함으로써 최초의 한국인 촬영기사가 되었고, 1924년 단성사 촬영부의 전속 기사가 되어 한국 최초의 체육기록영화 〈전조선여자올림픽대회〉를 촬영하였고, 전원 한국인이 제작한 〈장화홍련전〉의 촬영, 현상, 편집을 맡았다. 1926년에 〈멍텅구리〉를 감독·촬영하였고, 1927년 〈낙양의 길〉을 감독·촬영하였다. 유현목, 「이필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0 안재석, 『수도영화사와 안양촬영소』, 151~152쪽.

11 안재석, 『수도영화사와 안양촬영소』, 151~152쪽.

12 배수경, 「한국영화 기업화 정책, 신필름 왕국의 탄생」; 김미현 책임편집, 『한국영화사: 開化期에서 開花期까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76~177쪽.

13 조준형, 「신상옥 최은희 그들과 함께 한 한국영화의 흥망성쇠」,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2013.5.14.

14 공영민, 「메가폰을 든 스타 최은희」,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2018.11.7.

15 「안양에 활사회」, 『동아일보』 4면, 1928년 8월 23일.

16 조희문, 「안양지역 극장 변천사 연구」, 『영화교육연구』 9집, 2007, 120쪽.

17 「자유당시흥군당부」, 『조선일보』 2면, 1952년 7월 19일.

18 「타울주고 영화 뵈고 신문배달원에」, 『경향신문』 6면, 1964년 4월 10일.

19 조희문, 「안양지역 극장 변천사 연구」, 『영화교육연구』,2007, 130쪽.

20 위의 글, 131쪽.

21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안양시사』 5, 393쪽.

22 신상옥 연출, 최은희·남궁원·서미경 등 출연, 음악 신중현·최창권. 35mm로 촬영하여 70mm 상영용 프린트로 현상. 한국의 〈사운드 뮤직〉이나 〈마이 페어 레이디〉를 만들겠다는 야심으로 만들어진 뮤지컬 영화이다. 밴드 마스터였던 아버지를 잃은 세 자매는 어머니 이 여사와 노래를 하며 지내다가 어머니에게 짝을 만들어 주기로 결정하고 미학과의 김 교수를 낙점하여 주도면밀한 작전을 펼친다는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23 「최은희, 신상옥이 사랑한 도시 안양 ... 영화도시가 되다」, 『중앙일보』, 2018년 4월 19일.

04 안양의 **체육·종교·언론**

제1장 안양 체육사
제2장 안양 체육의 현재와 지역사회
제3장 안양의 종교
제4장 안양의 언론

우리나라는 1945년 8·15광복을 맞이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일대 전환기를 겪게 되면서, 안양의 체육·종교·언론계 또한 나라 잃은 설움을 딛고 새봄을 맞이하였다. 특히 시 승격 이전부터 시흥군 군청 소재지로서 안양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당시 주도적인 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다.

1장

안양 체육사

고문수 경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1. 안양체육의 발달 과정

1) 일제강점기의 안양체육

(1) 안양 소년운동 단체와 그 활동

1920년대의 소년운동은 조선의 유교적 윤리와 도덕으로부터 소년을 해방하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히 키우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움직임이다. 폭넓은 의미에서 인권운동에 속한다. 1920년대 일제강점기와 3·1운동 직후였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혁신적 운동은 소년들의 인권 신장만을 목표로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소년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함으로써 민족해방, 자주독립, 국권회복을 꾀하는 항일 독립운동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의 소년운동은 각종 감시와 산발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그 체계와 결속이 부진하고 활동 내용도 약하여 조직이 쉽게 와해되는 등 기복이 심했다. 따라서 본래의 목적 달성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방정환을 주축으로 한 '천도교 소년회'라는 단체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활동을 못 했다. 좀 더 새롭고 획기적이며 조직적인 항일 소년운동 단체의 출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1920년대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소년운동 단체가 조직되었다. 국내외 환경의 불리한 악조건 속에서도 눈부신 활동을 거듭했다. 그 당시 소년들은 자신의 육성 발전은 물론 지방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무엇보다 나라를 다시 찾으려는 항일 독립운동의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시흥군에서는 8개의 소년단체가 조직되었는데, 시흥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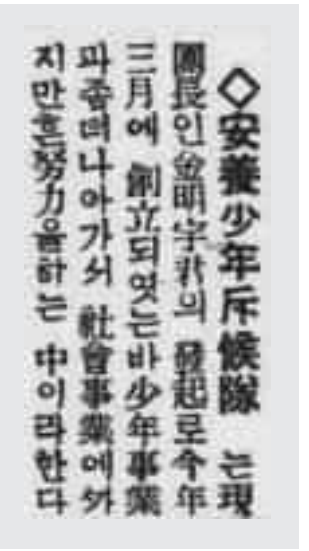
1986 아시아경기 안양시 관내 성화봉송

군·흥동소년회·안양소년군(안양소년 척후대)·잠실소년군·안양수양단·능곡소년회·노량진소년회·죽율리소년회 등이 있다. 이들 단체는 회·단·구락부·군·척후대 등의 명칭을 사용했으며, 이 중에서 군·척후대의 존재를 통해 당시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세계적인 소년 조직체까지 결성되어 있었다. 당시 소년단체의 내부 조직을 보면 여러 단체에서 볼 수 있는 회장(또는 단장·대장·위원장), 부회장(또는 부단장·부대장), 총무(또는 간사), 회계, 서기, 지육부장(또는 문예부장·학습부장·교육부장·교양부장), 운동부장(또는 체육부장), 덕육부장, 전도부장(또는 종교부장), 음악부장, 사교부장 등이 있었다. 그 밖에도 고문, 명예회장 또는 감독자, 지도자, 상담역 등 특이한 부서까지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당시 소년운동에서 소년들을 올바로 지도하고 인도할 수 있는 성인 지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소년운동이 청년운동 단체나 그 밖의 다른 지역 유지들과의 긴밀한 유대하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소년들의 지육, 덕육, 체육을 목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생겨난 당시 소년운동 단체들의 활동은 조철호가 『개벽』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의 기초인 소년들을 개조하여 그들이 장차 사회와 자기 자신을 위해 가장 적절한 자각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즉 강연회와 동화회, 토론회와 웅변회, 체육활동, 연예, 오락 등을 통하여 목적하는 바를 성취했다. 동화회와 토론회 등은 소년들의 지식 계발과 일반 민중 계몽에 크게 공헌한 중요한 활동 중 하나다. 동화회가 소년운동 지도자들이 연사가 되어 행해진 것이라면, 토론회는 소년들이 직접 연사가 되어 연설을 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안양 소년회에서는 동화회를 개최했고, 죽율리 소년회에서는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기록이 있다.

1920년대 한국 소년운동 단체의 여러 활동을 살펴보면 건전한 신체의 단련만이 장차 구국의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죽은 정신이나 약한 신체로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서 체육활동에 가장 많은 힘을 기울였다. 흥동소년회·안양소년군·잠실소년군·안양수양단·능곡소년회·노량진소년회 등은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운동경기에 직접 참여했다. 이 중에서 흥동소년회는 1926년 7월 서빙고소년회와 정구 경기, 1928년 7월 경기소년 축구대회 등을 개최했다.


◇安養少年斥候隊 는現
團長인金明宇씨의 發起로今年
三月에 創立되엿는바少年事業
과중대나아가서 社會事業에外
지만흔努力을하는 中이라한다

안양소년척후대 관련 신문기사
(『동아일보』 1926년 10월 5일)

1926년 '안양소년척후대'에 이어 1927년에는'안양수양단'과 같은 단체들이 소년들의 지적 성장과 민중 계몽을 위해 국권 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1929년'안양청년회'와 1933년 '안양청년단'의 창립은 조기회의 설치 및 무산아동을 위한 학술강습회 개최를 목적으로 했다. 이처럼 소년 및 청년 단체는 지방문화의 중추기관으로 자리잡아 교육열을 고조시켰다. 특히 새로운 사상을 확립하고 경제적 권리를 회복하는 등 모든 지역사회 운동의 중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1933년에는 안양-과천 간 정기 축구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안양리 사람들의 자부심과 정치 의식은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또한 정치 의식의 결집은 1936년 시흥군청이 소재했던 영등포읍이 서울로 편입되자 군청이전기성회郡廳移轉期成會를 조직하고, 서울로 몰려가 "이제는 남이 되었으니 군청을 돌려주오"라는 예스러운 구호를 외치며 군청 이전 시위를 했다. 우여곡절 끝에 8·15광복 후 군청사를 안양으로 이전하는 데 성공했다.

안양리가 도시화되면서 지역의 대표성과 중심성을 확보하자 단체나 기관 이름에 안양이라는 명칭을 빈번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1924년과 1925년에는 안양지역 최초

안양풀장(1941)

의 금융기관인 안양금융조합과 안양우체국, 안양연초조합이 설립되었다. 1926년에는 안양공설시장 개장과 안양소년척후대가 창설되었다. 이어 1927년 안양공립보통학교와 안양수양단이, 1928년에는 안양청년회가 창단되었다. 1930년에는 안양교회(장로교)가 설립되었고, 1933년에는 안양-과천 정기축구대회가 열렸으며, 안양유원지 계곡에는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안양 풀장이 개장되었다.

이와 같이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자기가 속한 단체의 명칭을 통해 혹은 학교 교가를 부르며 또는 이웃 도시와의 축구 경기를 응원하며 안양 사람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생겨난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년단체들이 많은 조직 활동을 했으며, 그중 안양지역에서는 체육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2) 꿋꿋한 기상의 안양체육

우리나라 체육계는 일제강점기 36년간의 억압과 수탈 속에서도 '조선체육회'를 만들어 꿋꿋한 기상으로 한국 체육을 지속시켜 왔다. 조선체육회는 1920년 7월 13일 조선

총독부의 식민통치 아래서 국민의 체력 단련과 민족정신 함양에 큰 뜻을 두고 창립했다. 첫 행사인 '제1회 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1929년 비로소 '전조선 종합경기대회'를 열었는데, 이 대회가 종합 경기로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 행사였다.

제1회 조선야구대회는 현재 제1회 전국체육대회로 인정받고 있으며, 1938년 7월 4일 일제의 탄압으로 조선체육회가 일본인 단체인 조선체육협회에 통합될 때까지 18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해왔던 조선체육회와 더불어 안양체육이 어떠했는지는 당시 신문 보도를 통해 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1923년 8월 9일부터 3일 시흥군 영등포 주민 씨름대회가 열렸다. 매년 음력으로 8월 초순경에 열렸다는 점에서 이미 그 이전부터 현재의 안양지역에서 씨름대회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상품으로 1등 1명에게 소 1마리(70원 상당), 2등 1명에게는 광목 1필, 3등 2명에게는 일목日木 2필, 4등 3명에게는 고무신 2족, 5등 10명에게는 양말 1타打 등을 주었다.

1926년 7월 초하룻날은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현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흥동학교 코트에서 흥동소년회와 서빙고소년회가 정구 경기를 했다. 11월 7일에는 시흥군교육회가 주최한 '전군 6개 공립보통학교 대항 연합정구대회'를 영등포소학교에서 열기도 했다. 1927년 9월 17~21일까지 5일간은 '전 시흥 씨름대회'를 시흥군 영등포에서 열었다. 영등포는 한강변에 위치해 1925년에 입은 홍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역 유지인 이창운과 최준영의 발기로 씨름대회를 개최했다.

1928년 6월 22일 단오절에는 제1회 시흥추천대회(그네뛰기)가 성황리에 열렸다. 『동아일보』 시흥지국(지국장 조희철) 주최로 영등포에서 열린 이 행사는 경성을 비롯해 고양과 고주 등지에서 많은 선수가 참가했다. 이때 최고 503척의 신기록이 세워졌다. 1929년 6월 16일 제2회 대회는 『동아일보』 시흥지국 주최, 노량진청년회 후원으로 열렸다. 4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예선전까지 치렀졌고, 시상은 1등부터 6등까지 시상이 이루어졌다. 한강 인도교 앞이 구경꾼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당시의 보도를 보면,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전통 행사인 그네뛰기에 얼마나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다.

1928년 6월 24일에는 '제1회 시흥군 정구대회'가 영등포소학교 코트에서 『동아일보』 시흥지국 주최로 열렸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4일 안양시장(현 안양1동 구시장)에 마련된 특설 씨름판에서 황소 한 마리를 상품으로 내건 씨름대회가 열려 9일 만에 폐막되었다.

1929년 6월 30일 오전 10시에는 '제2회 경기소년축구대회'가 시흥군 신동면 잠실리

신설 운동장에서 흥동소년회 주최로 열렸다. 이날 대회의 주심은 조선축구심판협회의 김홍열이 맡았고, 보광군普光軍 팀이 우승했다.

1932년 8월 4일 오후 2시에는 부산-신의주 간 마라톤대회가 열려 선수들이 비를 맞으며 안양역 앞을 지나간 기록이 있다. 1933년 8월 25일부터는 시흥군 안양역 광장에서 안양시장의 번영을 위한 두 번째 씨름대회가 열려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 대회는 8월 30일과 9월 4일 장날에도 이어졌으며, 그 이후로도 씨름대회가 계속되었다. 문헌에 따르면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씨름이 유명한 지방이라고 한다.

1932년 7월 21일 안양 석수동에 수영장을 준공하고, 1934년 7월 1일에는 풀장이 개장했다. 안양은 곳곳에 녹음이 무성하여 여름에는 학생의 임간학교 피서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가을에는 단풍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1938년 7월 5일에는 경부선 안양역 앞에 수영장을 개장했다. 1939년 7월 21일까지 각처에서 수영객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

1933년 11월 26일 안양공립보통학교(현 안양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안양청년단 주최로 안양 대 과천의 축구 경기가 열렸다. 과천이 2 대 0으로 승리했다. 1934년 7월 21~22일 양일간은 영등포체육회 주최로 제1회 기호축구대회가 영등포 '삿뽀로' 맥주회사 광장에서 열렸다. 무려 25개 팀이 참가하여 이틀간에 걸쳐 경기를 치렀으나 끝나지 않아 하루를 연기했다. 그러나 23일이 우천인 관계로 24일에서야 경기가 끝났다. 우승은 경성 남대문자동차학교가 차지했다. 이듬해인 1935년 6월 22일부터 3일간 제2회 기호축구대회가 역시 영등포 삿뽀로 맥주회사 광장에서 열렸는데 참가비는 2원이었다.

1935년 9월 14~15일에는 영등포 경성방직회사 앞 광장에서 제1회 기호소년축구대회도 열렸다. 선수 자격은 신장이 5척 2촌까지이고, 참가비는 1원 50전이었다. 이처럼 당시 신문 보도를 통해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안양체육은 축구와 씨름이 주축이 되어 발전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안양이 축구의 도시로 유명해진 원동력으로 보인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우승하자 국민들은 나라 잃은 설움에 북받쳤다. 『동아일보』는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단 일장기를 오려낸 사진을 게재하여 일제에 의해 강제 폐간되는 수난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체육단체에 대한 탄압이 심해져 조선체육회도 일본인 단체인 조선체육협회로 통합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으로 1936년 이후 기록이 전무하여 안양체육에 대한 기록도 찾을 길이 없다. 조선 전체의 체육 역시 공백 상태에 빠졌다.

2) 8·15광복 후의 안양체육

(1) 해방 초기 안양체육의 부흥

우리나라는 1945년 8·15광복을 맞이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일대 전환기를 맞이했다. 체육계도 나라 잃은 설움을 딛고 새봄을 맞이했다. 1945년 8월 17일 조선체육동지회(이후 조선체육회, 대한체육회)가 발족되었고 이어서 각종 단체가 새롭게 탄생했다. 조선체육회는 1945년 9월 30일 미군과 첫 친선 농구 경기를 치렀고, 같은 해 10월 24일부터 4일간 '자유해방경축종합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제26회 전국체육대회로 이어졌다. 육상·축구·농구·배구·야구·정구·럭비 풋볼·자전거·탁구·마술 등 10개 종목의 경기가 열렸다. 이듬해인 제27회 대회부터는 각 경기 단체가 정비되고 질서를 잡아갔다. 드디어 1948년에는 제14회 런던올림픽에 참가하는 등 세계 속 한 민족의 저력을 과시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1950년 제31회 전국체육대회는 한국전쟁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제32회 대회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1951년 전남 광주에서 열렸다. 이후 제54회 대회는 부산에서, 제56회 대회부터는 대구·부산·광주·인천·대전·전주에서 개최되어 중앙과 지방 체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재일 동포를 비롯한 해외 동포들도 선수단을 보내 그야말로 온 민족의 제전으로 전국체육대회를 승화시켰다. 전국체육대회는 이후 2024년까지 105회가 개최되었다. 경기도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승을 했다. 특히 안양시는 경기도의 우승에 큰 역할을 했다.

경기도체육회는 1946년 2월 15일 창립하여 1950년 6월 10일 구자옥을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면서 임원진이 구성되었다. 2024년 10월 현재 경기도체육대회는 70회까지 개최되었다. 안양과 관련한 『조선일보』 기사를 살펴보면, 1953년 5월 8일에 안양경찰서에서 안양 사격대회가 열렸다. 1954년 11월 13일에도 안양경찰서는 시장 앞 사격장에서 많은 관민 유지가 참석한 가운데 추기 사격대회를 개최했다. 1955년 7월 3일에는 안양 유원지에 길이 50m, 폭 20m의 규격 수영장이 개장했다. 1956년 11월 18일에는 안양학생회 주최로 직장 배구대회를 안양경찰서 배구장에서 진행했다. 1957년 10월 17일에는 6·25전쟁으로 해체되었던 안양체육회를 재발족했다. 1960년 11월 22일 안양 읍민관 앞 광장에서 조선일보 안양지국 주최로 당시 권투선수와 인천 권투 팀의 시합이 열렸는데 인천 팀이 우승했다. 이날 경기에는 수천 관중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시흥군 체육대회 안양읍 기수단(1970)

안양이라는 지역공동체 의식과 정체성은 1941년 10월 1일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되면서 일차적으로 완결되었다. 이후 과거 시흥군의 중심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면서 계속 발전했다. 1949년에는 안양읍으로 바뀌었고, 1973년에는 마침내 안양시로 승격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양이 21세기 수도권의 중심도시로서 다시 한번 지역 발전을 위한 성숙한 시민 공동체의식이 요구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2) 체육회 발족과 함께 성장한 안양체육

1973년 7월 1일 시흥군 안양읍에서 안양시로 승격한 즉시 '안양시체육회'가 탄생했다. 안양시체육회는 시흥군 안양읍 시절 시흥체육을 주도했던 안양읍 거주 체육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 8·15광복 이전인 1942년 11월 12일, 21일자 『매일신보』를 보면 시흥군 체육진흥회 결성식이 11월 22일 시흥군 안양면 안양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열다는 기사가 있다. 이것은 안양읍 이전에도 안양이 시흥체육의 중심지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안양공설운동장 체육 행사(1977·1981)

안양읍 당시의 시흥군체육진흥회 임원 명단을 보면 당연직인 회장을 제외하고 부회장·이사 등 임원진이 안양읍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안양이 시흥체육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안양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1973년 안양시 체육회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이때부터 각 종목에서 안양의 체육은 눈부신 성장을 가져왔다.

축구는 안양초·안양중·안양공고, 수영은 석수초·관양여중·근명여중·근명여상, 역도는 신안중·안양공고, 사격은 관양여중·안양고, 씨름은 양명고, 탁구는 만안초교·안양남초교·안양여중·여고, 육상은 관양중, 배구는 안양여중·여고, 유도는 석수초교, 권투는 안양공고·양명고 등 명문 팀이 만들어져 안양뿐 아니라 경기도 대표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큰 공헌을 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이같이 안양체육이 성장가도를 달리게 된 데에는 안양시 체육회 인사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독지가들 그리고 안양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한 결과이다.

안양여고 탁구부 전국 우승(1974)

안양시가 시흥군 안양읍에서 시로 승격된 1973년 9월에 안양체육을 총괄하는 안양시체육회가 창립되었다. 초대 회장은 당시 안양시장인 장용순이 맡았다. 체육회 산하 경기별 가맹단체로는 축구·배구·테니스·탁구 등 4개 협회가 시흥군 시절 임원을 재편하여

안양시체육회 활동을 시작했다. 초창기 예산과 시 규모 등으로 보아 시흥군체육회 시절의 활동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1975년 이후 점차 활성화되었다. 2024년 10월 현재 당연직 회장은 최대호 안양시장, 선출직 부회장은 김능식 안양 부시장이 맡고 있다. 안양시 체육회 산하에는 현재 42개 가맹단체가 등록되어 활동 중이다.

체육회 주관으로 개최된 각종 대회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3년 11월 시승격 기념 제1회 안양시장기쟁탈 구기대회가 개최되어 축구와 배구 2종목만 실시된 가운데 동양나일론이 우승, 한국제지가 준우승을 했다. 1974년 7월에는 제1회 안양시장기쟁탈 동대항대회가 축구, 배구, 탁구, 테니스 등 4종목에 걸쳐 실시되어 우승은 안양 2동, 준우승은 안양 3동이 차지했다. 1975년 5월의 제2회 시장기쟁탈 동대항대회에는 축구, 씨름, 줄다리기, 육상, 자전거, 마라톤, 배구 등 7종목이 실시되었으며 현재까지 정기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1977년과 1978년에는 안양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수해를 입어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수해 현장 복구에 전념했다. 1977년부터 매년 안양체육발전에 공헌한 체육인을 선정하여 '안양시체육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대상·공로상·지도상·선수상·단체상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한편 안양시의 각종 대회 전적을 살펴보면 1986년 11월에 개최된 제32회 경기도체육대회(수원)에서는 임원 44명, 선수 148명 등 총 257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합우승을 차

제49회 경기도체육대회(2003)

지했다.

2003년 제49회 경기도체육대회(수원)와 2004년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안양)에서는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2006년 제52회 고양에서 개최된 대회에서는 총 330명이 출전하여 종합 4위에 올랐다. 경상북도 김천 일원에서 개최된 2006년 제87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경기도가 5연패를 달성했다. 안양시에서는 14종목 68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38개(금15, 은15, 동8)의 메달을 획득했다. 안양시청 팀이 10개(금2, 은5, 동3)를 획득했고, 일반 선수들은 28개(금13, 은10, 동5)를 획득했다.

2016년 이후부터 최근의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안양시의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경기도체육대회 안양시 참가 현황 및 대회 기록(2016~2024년)

회차	연도	기간	개최지	참가인원(안양시)	대회 결과	비고
62회	2016	4.28.~4.30.	포천시	10,500(423명)	4위	
63회	2017	4.27.~4.29.	화성시	12,000(366명)	5위	
64회	2018	4.26.~4.28.	양평군	10,000(391명)	9위	
65회	2019	5.09.~5.11.	안산시	12,000(395명)	7위	
66회	2020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67회	2021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68회	2022	8.25.~8.27.	용인시	12,000(399명)	6위	
69회	2023	5.11.~5.13.	성남시	12,000(409명)	7위	
70회	2024	5.09.~5.11.	파주시	12,000(428명)	9위	

2. 안양체육의 현황

1) 종목단체 현황

안양시는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체육 활성화와 시민들의 레포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활체육 운동장 조성 등 시설 확충 및 정비에 만전을 기했다. 2024년 종목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정회원단체 45개 종목, 준회원단체 2개 종목(아이스하키협회, 체스연맹) 그리고 인정단체 1개(파크골프협회)를 운영하고 있다.

〈표 2〉 안양시 종목단체 현황(2024년 기준)

(단체명은 가나다순 정렬)

순서	단체명	순서	단체명	순서	단체명	비고
1	걷기협회	16	복싱협회	31	주짓수회	
2	검도회	17	볼링협회	32	줄넘기협회	
3	게이트볼협회	18	소프트테니스협회	33	철인3종협회	
4	골프협회	19	수영연맹	34	체조협회	
5	국학기공협회	20	스쿼시연맹	35	축구협회	
6	궁도협회	21	씨름협회	36	클라이밍협회	
7	그라운드골프협회	22	야구소프트볼협회	37	킥복싱협회	
8	농구협회	23	양궁협회	38	탁구협회	
9	댄스스포츠협회	24	역도연맹	39	태권도협회	
10	라켓볼협회	25	요가회	40	테니스협회	
11	롤러스포츠협회	26	용무도협회	41	풋살협회	
12	바둑협회	27	우슈협회	42	합기도협회	
13	배구협회	28	유도회	43	아이스하키협회	준회원단체
14	배드민턴협회	29	육상연맹	44	체스연맹	
15	보디빌딩협회	30	족구협회	45	파크골프협회	인정단체

2) 주요 체육시설

안양시의 주요 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양종합운동장은 프로축구팀인 FC안양의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인 1급 경기장이다. 1986년 6월 30일 동안구 비산3동 1023번지에 건립되었다. 경기장 면적은 축구장 7875㎡, 육상장 1만 9040㎡이고, 수용 인원은 2만 5000명, 좌석 수는 1만 8216석이다. 육상경기를 할 수 있는 트랙은 400m 8레인으로 조성되어 있다. 수용 인원은 1만 7143석이다. 관악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1996년 4월 안양 LG치타스와의 연고를 계기로 최신 조명시설과 조명탑 4기를 설치하여 야간 경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컬러 전광판 1식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관람 문화 경험을 한층 향상시켰다. 2001년 4월 천연잔디를 심어 사계절 녹색의 천연잔디구장으로 탈바꿈하여, 스포츠 메카 도시 안양의 위상을 한껏 높였다.

안양종합운동장

총사업비 8억 4000만 원이 투입된 잔디는 월드컵 구장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한지寒地형 잔디로 식재 면적은 8346㎡이다. 직접 씨를 뿌려 싹이 나도록 하는 공법으로 시공되었다. 사계절 전천후 경기가 가능하여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축구 발전은 물론 권위 있는 국내외 행사 유치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표 3〉 안양종합운동장

시설물		규격	수용인원(명)	비고
종합운동장	축구장	105×75m	25,000명	
	육상장	400×8레인	(17,143석)	
	보조경기장	40×90m		
	테니스장	4020㎡(6개 면)	700명	

안양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한 안양체육관은 2000년 10월 30일 경기건축문화상 비주거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이 부문에 대상을 수상한 건물이 없어 사실상 최고의 건물로 등극한 셈이다. 빛의 체육관으로 불리는 이곳 종합운동장 안에 실내체육관과 빙상장을 증축한 프로젝트로, 안양에 체육문화축제 공간과 국제 수준의 경기장 마련하기 위해 세워졌다. 설계 당시에는 2면이 도로에 접해 있고 도로와의 높이 차이로 요구 시설에 비해

면적이 협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빙상장을 지하에 배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상엔 오히려 여유 공간이 확보되어 오픈스페이스를 육상보조트랙 겸 간이 시민축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안양실내체육관

특히 안양체육관은 빙상장이 지하에 배치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4차원적 빛의 구조물로 시공했다. 한국 전통의 초가집을 형상화한 미려한 외관의 체육관은 4면을 유리로 마감했다. 이를 통해 체육관 내외부의 빛을 서로 교차시키고 도시와 건축물 그리고 관중을 하나로 연결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국제 규격을 만족하는 6690석의 다목적체육관과 1284석의 빙상경기장은 파이프트러스를 노출시켜 압축과 긴장의 미를 선사한다. 이동식 스탠드 기술을 구현한 실내체육관은 경기 외에 강당으로도 쓸 수 있어 각종 공연과 시민 행사에 적합하다. 하이테크한 조형미로 진부한 체육관의 정형을 바꾼 안양체육관은 종합운동장 주 진입로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스포츠 랜드마크로 시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석수체육공원은 만안구 안양로 59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006년 5월 23일 개장 이

석수체육공원

후 주 5일 근무 시대에 걸맞게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춘 공원은 야구장을 비롯해 축구장, 농구장(2면),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8면), 족구장 겸 풋살 경기장 등 6종의 운동시설이 들어서 있다. 2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화장실 그리고 모험놀이 시설, 연못, 녹지 공간 등도 마련되어 있다. 운동시설 중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설은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야구장과 축구장은 유료로 개방한다. 석수체육공원이 준공됨에 따라 시민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휴식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표 4〉 석수체육공원 시설 개요

체육시설	면적(㎡)	규모	세부 시설	비고
축구장	8,812	B=64m L=100m	노면: 인조잔디 좌석: 1,120석	
야구장	14,677	1,3루: 95m 센터: 110m	노면: 인조잔디 좌석: 720석	
농구장	1,461	B=34n L=44m	노면: 우레탄	
족구장(풋살, 배구)	988	B=24m L=44m	노면: 인조잔디	
배드민턴장	1,456	B=36m L=44m	노면: 마사토	
인라인스케이트장	1,725	B=30m L=50m	노면: 우레탄	

호계체육관(안양시 동안구 귀인로길 80번길 52)은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으로 2008년 9월 6일 개관했다. 지하 주차장, 볼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이 조성되어 시민의 다양한 레포츠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호계공원 내에 3면의 실내 게이트볼장도 건립되어 노인들의 여가생활 및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비산체육공원(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89-29 일원/ 롤러경기장 옆)은 5만 8954㎡ 규모를 자랑한다. 이 공원에는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등이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면서 건강과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장소이다.

〈표 5〉 비산체육공원 시설 개요

체육시설	면적(㎡)	규모	세부시설	비고
축구장(1)	9,282	78×119m	노면: 천연잔디	
축구장(2)	9,282	78×119m	노면: 인조잔디	
풋살장	2,222	49.7×22.3m(2개소)	노면: 인조잔디	
농구장	1,156	18.4×31.4m(2개소)	노면: 우레탄	
족구장	1,068	32×17m(2개소)	노면:인조잔디	

2001년 7월에는 민족 고유의 전통 스포츠 중 하나인 궁도를 할 수 있는 궁도장이 탄생하며 또 하나의 명소가 되었다. 평촌 자유공원 부근 우거진 수목 사이 아담한 샛길을 따라 올라가면 9000㎡에 이르는 넓은 녹지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궁도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총사업비 5억 9700만 원을 들여 2000년 10월 착공해 2001년 6월 9일 준공한 궁도장에는 표적 3, 사대 21, 관리정 등의 시설이 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70(호계동)에 위치하는데, 궁도장에는 사정(활터 정자)과 사대(활 쏘는 곳), 고전 막사(활 적중 여부를 알려주는 곳)와 과녁이 갖추어져 있다. 기와로 고풍스러운 운치를 낸 사정 앞엔 28m 길이의 사대가 깔끔하게 자리 잡았으며 과녁까지의 거리는 145m이다. 안양시민은 고즈넉한 사정에서 잡념을 잊고 화살을 과녁에 적중시키는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3) 학교 운동부 운영 현황

2025년 3월 말 기준 안양의 운동부 육성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9개교 7종목 9개 팀 79명, 중학교는 13개교 15종목 16개 팀 215명, 고등학교는 11개교 14종목 15개 팀 2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 각급 학교별 운동부 운영 현황(2025년 3월 말 기준)

종목	초등학교 (9개교 7종목 9개 팀 79명)	중학교 (13개교 15종목 16개팀 215명)	고등학교 (11개교 14종목 15개 팀 221명)
육상	관양초(남5, 여7), 안양초(남2, 여6)	관양중(남2, 여4)	평촌경영고(남3, 여1)
수영	삼성초(남6, 여2)	신성중(남7),	신성고(남6)
축구		안양중(남37)	안양공고(남47)

종목	초등학교 (9개교 7종목 9개 팀 79명)	중학교 (13개교 15종목 16개팀 215명)	고등학교 (11개교 14종목 15개 팀 221명)
야구	연현초(남12)	평촌중(남36)	충훈고(남37)
테니스			양명고(남8)
농구	벌말초(남11)	호계중(남16)	안양고(남12)
배구		연현중(남15)	
탁구		안양여중(여1)	안양여고(여1)
유도	석수초(남5, 여3)		
양궁	안양서초(여10)	안양서중(여4)	성문고(여2)
펜싱		부흥중(남4)	부흥고(남3)
태권도		부흥중(남7, 여8)	성문고(남17, 여5)
볼링		범계중(남8)	평촌고(남10)
롤러	부림초(남1, 여4), 평촌초(여5)	귀인중(여2)	동안고(여2)
골프		신성중(남19, 여14)	신성고(남25, 여38)
빙상		부림중(남4, 여1), 평촌중(여1)	평촌고(남2), 부흥고(여2)
아이스하키		근명중(남25)	

이 중 60만 안양시민의 자랑이자 58년 전통을 자랑하는 안양공고 축구부는 1967년 3월 창단하여 1973년 고등부 추계연맹전 우승을 시작으로 2024년 10월 현재 전국대회에서 28회 우승, 준우승 7회를 기록했으며, 4강에도 수십 차례 들었다. 안양공고 운동부(축구) 졸업생은 김종필, 정해원, 김형열, 이순우, 이영표, 김동진, 이호, 이현창, 유종현, 이주용 등 60여 명이 있다. 주요 선수로는 전 국가대표 이영표, 현 국가대표 조규성, 울산의 이규성, 전북현대 박재용, 안양FC 박종현과 박정훈 등이 있다.

안양공고의 주요 전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9년 제8회 KBS배 추계 전국 중·고축구대회 우승, 1990년 제28회 부산 MBC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우승, 1993년 제26회 대통령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우승, 1995년 제31회 한국추계 남녀 중·고축구연맹전 우승, 1999년 제35회 추계 한국남녀 중·고축구연맹전 우승, 2002년 제10회 백록기 전국고교축구대회 우승, 2011년 전국고등 축구리그 3위, 2019년 제21회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준우승, 2021년 제54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3위, 2024년 금석배 고등학생 U17 유스컵 3위 그리고 2024년 제57회 대통령금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3위, 2025년 제26회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3위 등 축구 명가

제11회 아시아학생체육대회 안양공고 축구부 우승(1981)

로서의 뚜렷한 위상을 보여주었다. 몇 해 전에 실시한 시민 여론조사에서 '안양 하면 생각나는 것'에 당당히 선정되기도 한 안양공고 축구부는 전국 어디에서도 안양이라는 이름을 떠오르게 해주는 이 지역의 자랑이다.

그 밖에도 1998년 덕천초교 여자축구부, 1999년 덕천초교 남자축구부, 2000년 부흥중학교 여자축구부와 2004년 삼성초교 여자축구부가 연이어 창단되어 안양 축구의 중흥을 이끌고 있다. 다만, 안양 축구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학교에 축구부가 더 신설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976년에 창단된 신성고 수영팀은 드물게 수영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각종 수영대회에서 수많은 기록과 입상을 했다. 특히 방승훈, 김태균, 이충희 선수 등 30명이 넘는 국가대표와 전현직 선수 및 코치 등 걸출한 인재를 배출했다. 신성고의 저력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선수와 코치들의 땀으로 이루어진 성과였다.

4)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안양시 체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부)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시범령 제17조에 근거하여 11종목(직장운동경기부 3종목, 복합부 8종목)이 있다.

〈표 7〉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 현황(2025년 3월 말 기준)

구분	체육지도자(코치)	선수	계
육상	2(1)	9	11
수영	2(1)	8	10
롤러(남)	2(1)	9	11
롤러(여)			
계	6	26	32

이 중 안양시청 롤러스케이트 남자팀은 여자팀 창단(2000.03.29)에 이어 2001년 5월 3일에 창단되었다. 남녀 선수는 9명이고, 체육지도자(코치)는 2(1)명이다. 남자팀 창단에는 2000년 부산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여자팀이 경기도 5연패에 결정적 공헌을 한 것이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복합부 8종목에 30명이 있다.

코치/선수 (단위: 명)

종목	계	코치	역도	마라톤	당구	유도	배드민턴	우슈	골프	보디빌딩
인원	30	2	8	8	1	3	4	2	1	1

〈표 8〉 2020~2023년 종목별 대회성적(2023년 12월 말 기준)

종목	연도별	계	금(1위)	은(2위)	동(3위)
총계	2023	182	56	53	73
	2022	166	48	57	61
	2021	68	24	23	21
	2020	40	17	17	6

종목	연도별	계	금(1위)	은(2위)	동(3위)
육상부	2023	31	12	10	9
	2022	25	11	10	4
	2021	9	6	3	0
	2020	5	1	3	1
수영부	2023	87	34	24	29
	2022	62	19	22	21
	2021	26	7	10	9
	2020	8	2	4	2
롤러부	2023	18	4	5	9
	2022	31	12	8	11
	2021	14	7	4	3
	2020	10	5	3	2
복합운동부	2023	46	6	14	26
	2022	48	6	17	25
	2021	19	4	6	9
	2020	17	9	7	1

5) 안양의 프로구단

(1) 안양의 프로농구팀: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Anyang JUNG KWAN JANG Red Boosters)는 경기도 안양시를 연고로 하는 대한민국의 프로농구단이다. 안양의 프로농구팀은 1992년 3월 연고 대학으로 연세대와 중앙대를 지명하여 창단했다. 초대 구단주로 윤세영, 단장 변건, 감독 신동파, 코치 김동광이 취임했다. 일부 다른 프로 구단과 마찬가지로 창단 초기에는 아마추어 구단으로 활약한 경력이 있다. 창단한 그해 11월 코리안리그 2차 대회 준우승, 1992~1993 농구대잔치 1차 리그에서 4위를 했다. 1994년 코리안리그 2차 대회에서 3위에 올랐고, 총감독 신동파, 감독 김동광 등으로 코칭 스태프가 바뀌었다. 1995년 코리안리그 2차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그해 12월에는 제3대 단장으로 이충기, 부

2011~2012시즌 챔피언결정전

〈표 9〉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프로농구단 시즌 성적(2024. 1. 11. 기준)

구분	안양 정관장 레드부스터스 프로농구단
연고일 (창단일)	2005.10.12. (1997.1.)
엠블럼	홍이장군
시즌 성적	· 2005. 5.12. 안양SBS스타즈 농구단 인수 · 2005-2006 정규리그 7위(27승27패) · 2006-2007 정규리그 6위(25승29패) · 2007-2008 정규리그 4위(30승24패) · 2008-2009 정규리그 7위(29승25패) · 2009-2010 정규리그 8위(16승38패) · 2010-2011 정규리그 9위(16승38패) ※2010.10 한국인삼공사 농구단 인수 · 2011-2012 정규리그 2위(36승18패) ※2011-2012 챔피언결정전 우승 · 2012-2013 정규리그 4위(30승24패) · 2013-2014 정규리그 9위(19승35패) · 2014-2015 정규리그 8위(23승31패) · 2015-2016 정규리그 4위(30승24패) · 2016-2017 정규리그 1위(39승15패) ※ 챔피언결정전 우승(통합우승) · 2017-2018 정규리그 5위(29승25패) · 2018-2019 정규리그 7위(25승29패) · 2019-2020 정규리그 3위(26승17패) · 2020-2021 정규리그 3위(30승24패) ※플레이오프 10연승 챔피언결정전 우승 · 2021-2022 정규리그 3위(32승22패) ※ (챔피언결정전 준우승) · 2022-2023 정규리그 1위(37승17패) ※ 챔피언결정전 우승(통합우승 V4) · 2024-2025 정규리그 6위(25승29패)

단장으로 신동파가 부임했다. 1997년 1월 SBS스타즈로 프로농구팀을 재창단 후 아마추어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 원년 정규리그에서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1997~1998년, 1998~1999년 두 시즌 동안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으며, 1998~1999년 정규리그에서 7위에 그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2002~2003년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는 간판 슈터 양희승, 포워드 김훈과 퍼넬 페리, 가드 김상식 등이 활약했으나 선수들의 잦은 부상으로 22승 32패로 8위에 머물렀다. 1998~ 1999년 시즌 이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으나 2004~2005시즌에 33승 21패로 3위에 올라 역대 가장 좋은 성적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2005~2006 시즌에는 27승 27패로 7위에 머물렀다. 2006년 3월에는 우수 외국인 선수인 단테 존

스에게 신중대 안양시장이 명예 안양시민증을 수여하기도 했다.

2010~2011시즌에서는 KT&G가 한국인삼공사로 기업명을 변경하여 안양 한국인삼공사로 팀명을 변경했다. 2011~2012시즌에서는 안양 kgC 인삼공사로 팀명을 변경했으며, 36승 18패로 2위에 올라 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으며 창단 처음으로 챔피언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2016~2017시즌에서는 39승 15패로 창단 첫 정규리그 우승과 동시에 챔피언결정전까지 통합우승을 차지했으며, 2020~2021시즌에는 30승 24패로 KBL 역사상 최초 플레이오프 10연승 무패로 우승을 달성했다. 2021~2022시즌에는 32승 22패로 2년 연속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으며, 2022~2023시즌에서는 37승 17패로 3년 연속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하며 창단 두 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하는 쾌거를 올렸다.

(2) 안양의 프로축구팀: FC안양

안양의 프로축구팀은 FC안양이다. FC안양 창단 이전에는 안양LG치타스프로축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했다. 1996년 4월 연고지가 서울에서 안양으로 확정됨으로써 안양LG치타스가 되었으며, 박병주 감독이 취임했다.

1990년대의 안양종합운동장은 K리그에서 가장 열정적인 경기장 중 하나였으나, 2004년 연고지를 다시 서울로 옮겨 팀명을 FC서울로 개명했다. 그동안 열광적인 응원을 보여주었던 안양시민들은 연고지 이전을 감행한 구단에 큰 실망을 했다.

2004년 안양LG 축구단이 연고지 이전으로 9년간의 공백이 있었으나,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으로 2013년 2월 2일, FC안양이 시민구단으로 탄생했다. 창단 첫해 K리그 챌린지에서 5위(12승 9무 14패)를 기록했으며, 이후 꾸준히 사회공헌·유소년 육성·팬 친화 활동을 이어왔다. 2019년 3위를 차지하며 한 단계 도약했고, 2020년에는 창단 이래 첫 승강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나아가 2024년 창단 11년 만에 K리그1 승격을 달성했다. 같은 해 구단의 의미 있는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이 개봉해 화제를 모았다. FC안양은 '나도 축구선수다', '함께해-보라 봉사단' 같은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U-12, U-15, U-18 직영 유소년 시스템을 통해 지역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구단으로 성장해왔다. 더불어 회원권 확대, 관중 증가, 후원 및 MD 판매 확대로 재정적 자생력을 높여왔다.

앞으로 FC안양은 K리그1 상위 스플릿 진출을 목표로 전력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마

FC안양 창단식(2013)

FC안양 K리그2 우승 K리그1 승격

케팅에 힘쓰는 동시에 유소년 육성에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표 10〉 FC안양 연도별 주요 기록

연도	주 요 내 용
2013	K리그 챌린지 5위, 초대 단장 오근영 · 감독 이우형
2014	리그 5위, 팬 프렌들리 클럽 선정, 사랑나눔상 수상
2015	리그 6위, 통산 100호 골(이효균), 100경기 달성
2016	풀스타디움 클럽 선정, 통산 100호 어시스트, 리그 9위
2017	리그 7위, 통산 200호 골, 고정운 감독 취임
2018	리그 6위, 통산 200경기 달성
2019	리그 3위, 통산 300호 골(조규성), 스포츠 마케팅 어워드 수상
2020	리그 9위, 이우형 감독 재취임
2021	리그 3위, K리그2 통산 100승, 통산 400호 골
2022	리그 3위, 구단 최초 승강플레이오프 진출
2023	리그 6위, 신경호 단장 · 유병훈 감독 취임
2024	K리그2 우승

연도별 관중 현황(리그 기준/ 코리아컵 제외)

구분	2022	2023	2024	2025
홈경기 수	22	18	18	10
총 관중	42,048	59,252	96,705	80,840
평균관중	1991	3,292	5,373	8,084
유료관중	37,658	54,484	94,505	79,120

(3) 안양의 프로 아이스하키팀: HL안양 아이스하키단

대한민국에는 현재 유일한 프로 아이스하키팀이 하나 있는데, 바로 HL안양 아이스하키단이다. HL은 Hockey Loves를 의미하며 이는 팬과 소통하여 대한민국 아이스하키의 저변을 넓히고자 하는 구단의 의지가 담겨 있다. HL안양 아이스하키단은 창단 29주년을 맞이했으며 안양종합운동장 내 실내빙상장(안양 아이스 아레나)을 홈 경기장으로 쓰고 있다.

HL안양 아이스하키단은 1994년 12월 22일 만도 위니아 아이스하키단 이름으로 창단했다. 석탑건설 아이스하키단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아이스하키 실업팀으로 창단한 HL안양은 이듬해 바로 첫 우승을 달성했다. 1996년 HL안양의 감독이자 NHL 스탠리컵 챔피언 출신 백지선(JIM BAEK)을 영입했고, 당시 청춘 드라마 〈아이싱〉에 골리가 출연하는 등 아이스하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1997년 팀명을 한라위니아로 변경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로 많은 아이스하키팀이 해체되자, 한라위니아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3년 아시아리그에 참여했다. 2004년 경기도 안양시와 연고지 협약을 맺으며 본격

2024-2025 정규시즌 아시아리그 아홉 번째 우승

〈표 11〉 HL안양 아이스하키단(2024. 1. 11. 기준)

구분	HL안양 아이스하키단
연고일 (창단일)	2001.09.10. (1994.12.22.)
엠블럼	백곰(THEME)
시즌 성적	· 2001-04시즌 한국리그 챔피언 · 2004-05시즌 아시아리그 5위(18승5무19패) · 2005-06시즌 아시아리그 2위(25승13패) · 2006-07시즌 아시아리그 5위(16승2무16패) · 2007-08시즌 아시아리그 5위(14승2무14패) · 2008-09시즌 정규시즌 아시아리그 1위(25승11패) · 2009-10시즌 정규시즌 아시아리그 1위(26승10패) · 2010-11시즌 정규시즌 아시아리그 4위(24승12패) ※ 챔피언결정전 공동우승(프리 블레이즈) · 2011-12시즌 정규시즌 아시아리그 2위(24승12패) · 2012-13시즌 정규시즌 아시아리그 4위(23승19패) · 2013-14시즌 정규시즌 아시아리그 6위(21승21패) · 2014-15시즌 정규시즌 아시아리그 1위(31승17패) · 2015-16시즌 정규시즌 아시아리그 1위(39승9패) ※ 챔피언결정전 우승(통합우승) · 2016-17시즌 정규시즌 아시아리그 1위(41승7패) ※ 챔피언결정전 우승 (통합우승) · 2017-18시즌 정규시즌 아시아리그 2위(16승12패) ※ 챔피언결정전 우승 · 2018-19시즌 정규시즌 아시아리그 3위(21승13패) · 2019-20시즌 정규시즌 아시아리그 공동우승(사할린) · 2020-21, 21-22 코로나로 아시아리그 시즌 취소 · 2022-23시즌 정규시즌 아시아리그 1위(31승9패) · 2023-24시즌 정규시즌 아시아리그 1위(23승9패) · 2024-25시즌 정규시즌 아시아리그 1위(19승13패) ※ 챔피언결정전 우승(통합우승 V7)

적인 홈 도시로 정착했고, 이때 팀명을 안양 한라아이스하키단으로 변경했다.

아이스하키 불모지에서 돌풍을 일으킨 실업팀인 안양 한라아이스하키단은 2005년 제60회 전국종합아이스하키선수권 대회 우승에 이어 2006년 아시아리그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하여 2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보였다. 1994년 창단 이후 다섯 차례나 한국시리즈 정상에 오른 아이스하키의 명문팀인 한라위니아는 팀명을 '안양 한라위니아'로 바꾸었고, 다음 해인 2005년 7월 또다시 '안양 한라아이스하키단'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2005년 안양 한라아이스하키단의 역대 최고 용병인 패트릭 마르티넥을 영입했고, 마르티넥은 2009~2010년 정규리그 2연패 및 플레이오프 우승을 이끈 후 은퇴했다. 그는 본인 등번호인 43번의 영구 결번까지 받았다.

이후 아시아리그 강팀으로 성장한 안양 한라아이스하키단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16명의 선수를 내보냈다. 비록 실력 차이로 전패했지만 강호 체코와의 경기에서 故 조민호 선수가 올림픽 역사상 첫 득점을 기록했고, 최강팀 중 하나인 핀란드와의 경기에서 브락 라던스키 선수와 안진휘 선수가 득점을 올리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이후 코로나로 인해 2시즌을 쉬고, 국내 유일한 프로팀으로 남은 HL안양 아이스하키단은 2022-2023 시즌 레드이글스와의 챔피언 결정전 5차전에서 연장전 결승골로 통산 일곱 번째 우승을 했다.

6) 안양시 전국소년체육대회 현황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안양시는 2009년도와 2015년도에 신기록을 세웠다. 2014년도와 2019년도에 동일하게 11개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2009년(제38회)부터 2025년(제54회)까지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한 안양시 출신 선수들의 성적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2009~2025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 및 성과

연도	개최지	출전 종목	메달 성적	주요 성과
2009	전라남도	수영, 롤러	금 2, 은 1 동 1	수영·롤러에서 대회 및 한국신기록 다수
2010	대전광역시	수영, 테니스, 양궁, 탁구, 사격, 볼링, 유도, 롤러	금 7 은 9 동 11	-
2011	경남 진주	수영, 테니스, 양궁, 탁구, 사격, 볼링, 유도, 롤러	금 5 은 6 동 5	평촌초 정승연 수영 혼계영 200m 한국 신기록
2012	경기 고양	수영, 테니스, 농구, 롤러, 탁구, 볼링	금 6 은 5 동 8	-

연도	개최지	출전 종목	메달 성적	주요 성과
2013	대구광역시	육상, 수영, 롤러, 양궁, 탁구, 농구	금 9 은 6 동 8	비산중 박경휘·권오석·이성훈 인라인롤러 대회신기록
2014	인천광역시	육상, 수영, 롤러, 양궁, 탁구, 볼링, 테니스, 축구, 사격, 유도, 역도	금 9 은 7 동 11	부안중 유진 역도 대회신기록
2015	제주도	육상, 수영, 롤러, 테니스, 탁구, 농구, 볼링, 골프, 바둑	금 11 은 4 동 4	신성중 이유연 수영 3관왕 · 대회신기록
2016	강원 강릉	육상, 수영, 탁구, 바둑, 양궁, 볼링, 골프	금 4 은 3 동 4	-
2017	충남 아산	수영, 농구, 양궁, 유도, 탁구, 테니스, 볼링, 골프	금 3 은 9 동 5	-
2018	충북 충주	육상, 수영, 테니스, 태권도, 농구, 탁구, 양궁, 볼링, 골프	금 5 은 1 동 4	안양초 김태현 태권도 최우수상
2019	전북 익산			-
2020	서울(취소)	-	대회 취소	코로나 팬데믹
2021	미개최	-	대회 취소	코로나 팬데믹
2022	경북 구미	육상, 수영, 배구, 탁구, 태권도, 골프	금 10 은 3 동 5	-
2023	울산광역시	볼링, 탁구, 테니스, 수영, 농구, 배구, 골프	금 4 은 2 동 7	-
2024	전라남도	수영, 태권도, 양궁, 탁구, 유도, 배구, 볼링, 펜싱	금 6 은 3 동 7	-
2025	경상남도	수영, 태권도, 롤러, 골프,		부림초 허하선 롤러 대회신기록 삼성초 김시윤, 엄도영 수영2관왕

7) 안양시 전국체육대회 현황

안양시의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성적은 2009년도(제90회)에 대회신기록 17개와 한국신기록 2개로 최고 성적을 거두어 안양시의 위상을 높였다. 2010년도(제91회)에 대회신기록 6개와 한국신기록 2개, 2013년도(제94회)에 대회신기록 3개와 한국신기록 2개, 2016년도(제97회)에 대회 신기록 2개와 한국신기록 1개로 해를 더할수록 많이 발전했다. 2017년도(제98회) 이후에도 종목과 종별에서는 많이 발전했다. 2009년(제90회)부터 2023년도(제104회)까지 고등부와 대학부 그리고 일반부에 이르기까지 전국 규모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는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안양시 출신 선수들의 성적 및 성과는 다음과 같다.

연도	개최지	출전 종목	메달 성적	주요 성과
2009	대전광역시	육상, 수영, 롤러, 역도, 골프	금 18 은 17 동 7	육상·수영·롤러 다수 대회 한국신기록 (예: 성결대 여호수아, 안양시청 남유종 등)
2010	경남 진주시	육상, 수영, 롤러, 볼링, 농구, 스쿼시, 댄스스포츠	금14 은14 동8	수영 지예원 한국 신기록, 롤러 김미영 · 이다솜 등 한국 신기록
2011	경기 고양시	육상, 수영, 롤러, 스쿼시, 댄스스포츠, 골프, 볼링, 농구	금13 은14 동13	육상·롤러 대회 신기록 (임원재, 남유종 등)
2012	대구광역시	(자료 없음)	집계 불가	경기도 종합우승(금133, 은131, 동148), 안양시 세부기록 없음
2013	인천광역시	육상, 수영, 롤러, 볼링, 태권도, 골프, 댄스스포츠	금 11 은 16 동 11	롤러 계주 한국신기록 (최주봉 · 조우상 · 박응배 등), 수영 임태정 대회 신기록
2014	제주특별자치도	육상, 수영, 롤러, 볼링, 탁구, 스쿼시, 골프, 댄스스포츠	금 13 은 10 동 6	롤러 김희수 · 최은솔 대회 신기록
2015	강원도 강릉	육상, 수영, 롤러, 볼링, 스쿼시, 댄스스포츠	금 8 은 1 동 19	수영 이태구 대회 신기록

연도	개최지	출전 종목	메달 성적	주요 성과
2016	충남 아산시	육상, 수영, 롤러, 양궁, 스쿼시, 볼링, 농구, 태권도, 댄스스포츠	금 18 은 14 동 13	수영 이태구 한국 신기록, 롤러 박경휘 대회 신기록
2017	충북 충주시	육상, 수영, 롤러, 우슈, 골프, 양궁, 스쿼시, 태권도, 볼링, 댄스스포츠	금 13 은 8 동 9	(주요 기록 미상)
2018	전북 익산	육상, 수영, 롤러, 양궁, 스쿼시, 테니스, 볼링, 댄스스포츠	금 12 은 5 동 8	(주요 기록 미상)
2019	서울특별시	육상, 수영, 롤러, 양궁, 농구, 테니스, 태권도, 댄스스포츠, 보디빌딩, 골프	금 7 은 9 동 8	수영 이정민 대회 신기록, 양궁 조수아 대회 신기록
2020	코로나로 취소	-	-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미개최
2021	경북 구미	수영, 테니스, 양궁, 볼링, 롤러, 댄스스포츠	금 3 은 6 동 3	롤러 박재연 대회 신기록 (단, 고등부만 개최)
2022	울산광역시	육상, 수영, 롤러, 볼링, 댄스스포츠	금 9 은 10, 동 8	(주요 기록 미상)
2023	전남 목포	육상, 수영, 롤러, 볼링, 댄스스포츠, 테니스, 양궁	금 11 은 14 동 16	(주요 기록 미상)
2024	경남 김해	수영, 탁구, 볼링, 골프, 태권도, 테니스, 펜싱	금 14 은 11 동 13	(주요 기록 미상)

3. 안양체육의 활성화 방안

안양시는 지역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2년 6월 창립한 안양시생활체육협의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접하고 참여하여 여가생활과 체력증진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및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체육공원 조성 등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 또한 엘리트 체육 발전에도 기여했다. 특히 1989년 10월에 열린 제70회 전국체육대회는 경기도 일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안양시에서 수

영, 축구, 정구, 태권도 등 4종목을 진행했다. 2001년 6월에는 제11회 안양시의회 의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시민의 애향심 고취와 축구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1991년 창설된 이 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동호인 팀의 참여로 그 권위를 높였다. 2004년 5월에는 제50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하여 1000만 경기도민의 스포츠 대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안양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같은 해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제12회 세계 라켓볼 선수권대회가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아시아권에서는 처음 열린 대회로 전 세계 29개국 155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전을 벌였다.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는 2002년 푸에르토리코대회에서 안양시가 개최지로 확정되면서 아시아 지역 최초로 세계대회를 유치하게 됐다. 이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 개최국으로 그 위상을 높였을 뿐 아니라,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라켓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으로써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경쟁력을 부각시켰다. 성적은 미국이 남녀 단체와 개인전을 모두 휩쓸어 캐나다를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대회 종합 9위(남자 14위, 여자 7위)를 기록했다. 안양시 청소년수련관의 라켓볼 코트는 6면으로 공군사관학교의 10면을 제외하고는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우수한 시설을 자랑한다. 청소년수련관 라켓볼 동호회로는 '굴렁쇠', '퀸샷', '4라켓 파워', 'ARC' 등이 있다.

현재 전 세계 라켓볼 동호인 수는 9500만 명이다. 국내 라켓볼 동호인 수는 약 34만

안양종합운동장 주변 전경

명이고, 안양시 라켓볼 동호인 수는 약 400명 정도이다. 세계대회를 계기로 안양과 우리나라 전체에 라켓볼이 생활체육으로서 대중화되고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06년에는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가 9월 1일부터 9일까지 '속도가 만드는 감동'을 주제로 비산동 안양롤러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50개국에서 국제연맹 임원, 심판, 보도진 등 대회 관계자 300명과 700명의 선수단 등 약 1000여 명이 참여해 역대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한 대회였다. 경기 종목은 트랙 6, 로드 5, 마라톤 등 12개 종목으로 구성되었으며, 트랙 및 로드 경기는 안양롤러경기장, 마라톤 경기는 평촌대로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안양시는 세계대회 유치를 통해 국내외에 안양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롤러 스포츠의 경기력 향상 및 저변확대를 바탕으로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2005년 5월에 조성한 국제 규격의 롤러 전용 경기장은 국제롤러연맹(FIRS)이 2004년 새로 정한 국제 규격에 맞춰 건설된 세계 최초의 복합 기능 경기장으로, 트랙과 로드 경기를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야간 경기를 대비해 국제 규격 2000Lux 이상의 조도를 상회하는 25m 조명탑 4개를 설치했으며, 1/1000초까지 측정 및 판독이 가능한 기록계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안양시 대표선수는 안양시청 소속의 남유종·궉채이, 동안고의 임진선·임진주·김민호·김영민·김미영 등으로 전국 최강인 안양롤러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2334점(금7, 은8, 동8)으로 콜롬비아(2523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이탈리아(2269점)와 미국(2183점)이 그 뒤를 이었다.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대회(2006)

한국은 대회 마지막 날 번외경기로 열린 마라톤 여자 주니어부에서 이슬(15·인천 관교여중)이 1시간 22분 8초 479로 우승했고, 남자 주니어부에서는 김민호

(17·동안고)가 1시간 14분 00초 469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대회의 최대 수확은 금메달 3개를 딴 이명규(17·성호고)로, 남자 주니어 로드 500m를 포함해 트랙 T(타임) 300m와 트랙 30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롤러스케이트의 샛별로 등장했다. 고교 인라인롤러 스타 김경덕과 곽기동도 남자 주니어 1000m와 1만m(EP)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회에서는 세계신기록 2개가 수립되었다.

한편 국제롤러연맹 종합점수 집계방식(경기 순위에 따라 점수를 얻는다)에 따라 노메달의 대만이 5위에 올랐고, 반면에 금메달 7개 등 13개 메달을 딴 뉴질랜드는 10위에 그쳤다. 안양이 경기도의 스포츠 최강 도시로 부상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동안 체육저변을 확대해온 시의 적극적인 지원 시책과 각 체육 단체들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의 결과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안양의 자랑스러운 전문 체육시설로는 안양종합운동장 외에도 실내체육관, 빙상장, 실내수영장, 양궁장, 궁도장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최근까지 시내 곳곳에 마련된 풋살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석수체육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의 생활체육시설도 안양의 자랑거리다. 여기에 각급 학교 운동시설까지 합치면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전국체전 개최도 가능한 수준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안양 출신 선수들은 이들의 시설을 바탕으로 육상, 수영, 축구, 배구, 테니스, 빙상, 인라인롤러 등 다방면에서 한국 체육계의 큰 주역이 되었다. 오늘날 안양

궁도장 '안양정'(2018)

체육의 발전에는 선수와 지도자는 물론 애향심에 불타는 안양지역 체육인들의 남모르는 열정과 희생이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안양체육 발전을 위해 활동의 주체적 특성을 가진 학교체육, 생활체육 그리고 전문체육 측면의 발전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볼 수 있다.

1) 학교체육 발전 방안

안양중학교 체육대회(1973)

학교교육은 직접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일반 교과목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인격 수련과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움직임을 통해 학생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촉진한다. 학교체육은 체육의 소비자이며 앞으로도 자신의 건강을 위해 평생 신체활동을 해야 할 학생들이 인생의 첫 단계에서 경험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받은 인상은 그들이 평생 체육활동에서 갖게 될 태도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학교체육은 학생들에게 체육의 교육적 가치를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평생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운동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학교 운동부는 국위를 선양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정과체육(학교 체육 수업)은 학생과 국민의 신체활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은 학교 운동부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학생 선수들은 각종 국제 대회에 참가하여 국위를 선양해 왔고, 일부에서는 이를 학교체육의 목표 달성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학교의 정과체육이 경시되고, 학생 선수들은 정규수업을 포기한 채 운동에만 전념하는 직업 선수 같은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학생 선수들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학교체육은 일반 학생들에게 체육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를 길러주는 중요한 과정임에도 당시 인식은 그렇지 못했다.

체육은 운동선수들이나 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심지어는 무식한 사람만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체육에 대한 오해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의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의 운동부 중심 육성 방법에서 벗어나 다른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선수 육성 방법에서 기존의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선진국에서 학생 선수를 어떻게 육성하는지를 참고하여 우리만의 육성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스포츠 강국인 미국의 경우 엘리트 체육의 근간을 학교체육에서 찾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과 체육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간 경기를 통하여 엘리트 선수를 육성한다. 전미대학체육협회(NCAA)는 국가대표 선수와 프로 선수를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미국의 톡특한 육성 방법은 시즌제와 학교 대표팀 제도에 있다. 종목별로 정해진 기간에만 경기가 이루어져 수업 결손이 없으며, 소수의 학생 선수가 아닌 많은 학생이 운동부에 참여하여 교육 차원에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 이후 1970년대부터 생활체육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쳤다. 수많은 스포츠 시설과 스포츠클럽이 조성되었고, 많은 일반인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활체육의 저변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엘리트 체육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국가정책으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한 한국과 중국에 밀려 국제 대회에서 번번이 참패하자 1990년대 이후 다시 엘리트 체육 진흥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이미 기반이 형성된 생활체육, 즉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이 중심이 된 이원 체제를 통해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올림픽 등에 일부 프로 선수의 참가가 허용되면서 프로 스포츠협회를 창설하여 체계적으로 선수를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체육을 총괄하는 기구로 독일 스포츠연맹과 종목별 연방 스포츠협회가 있으

며, 이들 모두가 민간 조직이다. 행정부 내 스포츠미디어국은 주로 재정 지원만 하고 있다. 독일 스포츠연맹은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도 관리하기 때문에 스포츠클럽과 단체를 통합하여 생활체육을 중심으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한다. 학교체육이 중심이 되는 미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독일 선수들은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므로 스포츠연맹이 특별히 운동선수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 한 조직에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관리하므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생활체육이 중심이 되어 자연스럽게 엘리트선수가 육성되고 있다. 스포츠연맹 또한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체육 지도자를 교육하며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하여 훈련 캠프를 운영하는 등 지역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최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행정 정책이 엘리트 선수 육성에만 집중되어, 학교체육이나 생활체육 발전은 등한시해온 게 사실다. 그로 인해 학교체육은 거의 존폐 직전에 있으며 생활체육 발전도 미흡한 실정이다. 엘리트 선수들은 1년에 300일 이상 태릉선수촌이나 기타 훈련기관에서 훈련하고 있다. 학생 선수들은 시즌과 관계없이 훈련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들은 국위 선양을 볼모로 훈련에만 전념하다 보니 운동선수 이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메마른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학교 현실은 심각한 상황이지만 선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감독이나 코치도 처음부터 이러한 환경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므로 수업 결손에 대해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선수들은 대회에서 입상하면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해지고, 지도자는 유능한 코치나 교사로 인정받으며, 체육 행정가는 유능한 행정가로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학교 대표선수와 시즌별 경쟁제도를 도입하거나 유럽과 일본처럼 스포츠클럽을 통해 학교 선수들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당장 도입은 힘들더라도 향후 학교체육의 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학교는 직업적인 운동부를 폐지하는 대신 과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스포츠 동호회를 스포츠클럽으로 흡수 통합해야 한다. 또한 여기서 육성된 우수한 선수가 학교, 시도·국가를 대표하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간의 연계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 간의 바람직한 연계를 위해서는 학교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리그를 통하여 우수한 선수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부산, 전주, 목포, 인천 등지에서 학교 청소년 스포츠클럽 형태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물론 이러한 도시들도 나름의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선진국의 발전 모형을 본받아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독특한 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무엇보다 학교 청소년 스포츠클럽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결과 위주와 승리 지향적인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과 시·도의 장래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본도 과거 학교체육이 대표선수의 공급원이었다가 스포츠클럽의 모형으로 변환한 지 30년이 지나서야 국제무대에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또 엘리트 체육 모두가 살아남으려면 우리 나름의 독특한 스포츠클럽 모형을 갖추고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것이다.

2) 생활체육 발전 방안

생활체육의 핵심 슬로건은 '최대 다수의 최대 참여'로, 이를 통해 시민들이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활체육 참여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안양의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 학교체육과의 연계,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생활체육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박달동 친목마을 생활체육 시설 개장(2021)

(1) 생활체육 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안양시생활체육협의회, 안양시 체육청소년과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 선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관련 기관이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전 국민을,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는 경기도민을, 안양시생활체육협의회는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통해 참여자의 건강과 체력증진, 건전한 여가 선용과 선진 체육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안양시 체육청소년과는 안양시의 체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 종합운동장 운영 및 지도 감독 등 안양시의 체육·청소년·교육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공동 목표를 지향하는 생활체육 관련 기관의 상호 협

력은 안양시 생활체육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관별 사업 내용의 중복성을 세밀히 검토하고 각 기관별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업과 분업을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육성,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홍보 및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안양시 생활체육 문화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2) 학교체육과의 연계

학창 시절에 접한 체육문화는 학생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이 미래의 생활체육 애호가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에 속한 체육시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향유하는 공간으로 승화될 때 시설의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학교체육 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가장 큰 저해 요소인 학교시설의 도난 및 훼손 문제와 체육시설의 유지비와 운영비 문제는 수요자 부담 원칙에 근거하여 적절한 사용료와 손해보상비를 지불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황금계획(Golden Plan)을 통하여 엘리트 스포츠 선수 양성과 국민 생활체육 진흥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했다. 특히 학교체육시설 개방이라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체육시설을 확대하고 오늘날과 같은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안양시의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회가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우수한 지도자와의 교류, 체육시설의 적극적인 상호 개방, 행정기관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양시의 체육문화를 상생의 문화로 이끌어간다면 미래 안양 생활체육의 지도자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고 안양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동인이 될 것이다.

(3)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안양시에서는 국선도, 국궁, 게이트볼, 탁구, 에어로빅, 한방체조, 배드민턴, 양궁, 스포츠댄스, 기공체조 등 다양한 생활체육 교실 및 생활체육 광장 프로그램과 유명 선수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안양시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볼링, 배구, 등산, 인라인마라톤, 자전거 타기, 건강 달리기, 농구 등의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안양시민들의 다양한 신체활동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상별(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직장, 주부, 장애인 등)·성별·운동 형태별(개인 운동, 대인 운동, 집단 운동, 긴장

안양실내빙상장(2019)

해소운동, 야외활동, 계절 운동 등)·계층별로 다양한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새롭게 도입된 뉴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 청소년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X-Sport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양적 팽창을 추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각 대상별로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교실을 개설하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단위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보급된다면 안양시민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2015년 안양시 프로젝트인 '건강 100세 시대 안양시 생활체육도시 마스터 플랜[1]'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1975년에 유럽 각국의 체육 관련 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유럽 헌장'에서는 스포츠 활동 참여가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선언했다. 주요 내용은 인종, 성, 연령, 경제적 수준, 사회적 계층, 신체적 능력 등에 따라 체육활동 참여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양시에서 운영 중인 게이트볼, 론볼링, 시민 체육활동인 건강생활 프로그램(어르신 태극권 체조 교실, 체력증진 근력 체조 교실) 등에서 진일보하여 아동과 청

소년, 노인 등 생활체육 소외계층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운동 강도를 적절히 조절한 프로그램이나 변형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확대 적용한다면 안양의 생활체육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4)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생활체육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문제는 시설 확충 방안이다.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체육시설을 늘리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하다.

이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안양시 석수체육관이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설립 예정 중이다. 석수체육관은 공공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프로그램실 등을 갖춘 복합체육시설로이러한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은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일상과 활기찬 생활을 제공하게 된다.

이후 안양시가 추구해야 할 것은 시설 확충 못지않게 효율적인 관리다. 효율적인 관

석수체육관 건립공사 현장(2025)

리란 시설의 시간적·공간적 낭비와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참여자의 수준과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 방침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리 방침을 설정하는 데 생활체육 참여자의 요구와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기존 생활체육 현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설의 일부 이용자의 독점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관리 방책이다.

한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스포츠 7330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운동은 1주일에 3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2]에 참여하자는 범국민 스포츠 캠페인이다. 안양시가 생활체육 관련 기관의 상호 협력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체육과의 연계 방안을 추진하며,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한다면 스포츠 7330 운동을 일상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양시는 건전한 여가 문화와 풍요로운 생활체육 문화가 어우러진 살기 좋은 건강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3) 전문체육 발전 방안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국제대회에서 거둔 성적을 보면 종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각종 세계적인 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외향적으로 나타난 엘리트 체육의 성장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이 숨겨져 있다. 이 글에서는 안양체육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전문체육이 직면한 일반적인 문제를 생각해보고 그 해결책을 제안했다.

우선, 우리나라의 체육정책은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게 중앙 위주 정책을 견지했다. 이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체육활동을 보장하는 체육복지 실현을 저해함으로써 지방체육을 침체시키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의 체육 발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는 지역사회의 체육활동이 활성화되어 중앙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지역사회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은 선수의 구조가 취약하여 경기력이 저조하고, 지방자치 정부의 예산 규모가 영세하여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전문체육이 직면한 문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3월 21일 그동안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각각 독립적으로 담당해오던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종전의 1종목 2단체 체제로 분리 운영되던 각각의 종목별 단체 또한 통합되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생활체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여성과 남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건강한 사람부터 심신장애자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각각의 능력에 따라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반면 엘리트 체육이 지향하는 목표는 개인이 속한 학교, 단체,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를 대표하는 우수한 선수들이 각자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 또는 소속 집단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상이한 목표를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엘리트 체육에 많은 공을 들여왔지만 생활체육만큼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도 체육은 학생이나 선수 또는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수는 운동만 하고 일반인은 관람만 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학교체육의 경우 대외경기의 과열화로 소수 운동선수 양성에만 중점을 두어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사회체육은 그나마 적은 체육시설에서 소수 운동선수만이 전용으로 이용하거나 폐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회적 부재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 발전의 망각지대로 인식되어온 초등학교부터 지속적인 선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같은 엘리트선수 육성체계로는 불가능하다. 초등학생 때부터 지도자가 학생의 잠재적인 스포츠 능력을 발견하고 운동을 권장한다고 해도 학부모로부터 거절당하기 십상이다. 이는 운동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도외시하고 직업 운동선수와 같이 운동에만 전념하는 현실을 학부모들이 잘 알기 때문이다.

앞으로 학교체육은 유럽식 스포츠클럽 모델을 도입하여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선수상을 정립해야 한다.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권위 있는 대회에서 메달을 딴 외국의 유명 운동선수들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운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선수가 아니라 자기 전공이나 전문 영역이 따로 있고, 스포츠를 개인의 성취욕과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체육이 정상화되어 어릴 때부터 스포츠 재능을 발견한 선수들이 클럽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연습과 훈련을 한다면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재정 확보다. 우수한 시스템과 지도자, 선수가 있더라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다면 엘리트 체육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체육 재정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시도의 일반회계 예산 중 문화 및 체육비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문화예술과 체육 관련 비용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예산이다.

둘째, 지방교육예산 중 학교체육비를 늘려야 한다. 학교체육의 내실을 다지기 적절한 재정 확보는 안정적인 체육 재정 마련과 국민체육 진흥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셋째, 기업체의 체육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최근 직장체육의 중요성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종업원의 후생복지책의 일환으로 직장체육시설을 확보하는 등 체육활동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고 있으며, 직장인들도 동호회를 만들어 직장체육을 활성화하고 있다.

넷째, 민간 체육 투자를 확충해야 한다. 비영리적 투자는 주로 체육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및 기타 민간단체가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나 일반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영리적 투자는 영리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생활이 윤택해지면 일반 국민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 이익사업을 개발하고 생활화해야 한다. 향후 생활체육 분야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정을 확보할 수 있으나 엘리트 체육 분야는 재정자원 축소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체육 재정을 적정 규모로 확보하는 데 민간체육단체인 시도 체육회와 각 경기단체를 중심으로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4. 안양을 빛낸 체육인

안양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했거나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체육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안양을 빛낸 체육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양 출신 체육인으로 안양체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다. 둘째, 안양 출신으로 각종 국제대회를 포함한 주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이다. 셋째, 안양 출신은 아니지만 안양 소속 경기단체에서 선수생활을 하면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안양의 명예를 높인 선수이다. 넷째, 안양 출신 체육인으로 각종 프로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함으로써 안양시민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준 인물이다. 물론 안양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자료 미비로 누락된 인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수정 및 보완할 것이다.

1) 구기 스포츠

(1) 축구

김진강 1970년대 이후 안양이 축구 도시로 이름을 드높일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최강의 축구 명문 안양중과 안양공고의 뛰어난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이규남, 김진강, 이윤기, 정종덕, 한광호, 김태환, 김종필 등 안양중과 안양공고를 거쳐 간 훌륭한 지도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다. 이 가운데 김진강은 1970~1975년까지 안양중학교에서, 1976~1981년까지 안양공고에서 축구부 담당교사로 재직하며 안양축구의 붐을 일으킨 주인공이다. 안양중학교 축구부를 맡았던 5년 동안 스포츠소년 축구대회에서 3회의 우승을 차지했고, 전국 중고축구연맹대회에서도 두 차례나 정상에 올랐다. 안양공고로 자리를 옮긴 1976년부터는 대전MBC 전국중고연맹대회, 전국축구선수권대회 등 수차례 팀을 정상에 올리면서 안양축구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당시 안양시민의 최고 관심사였던 안양중과 안양공고는 우승할 때마다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이들이 부산, 광주, 강릉 등으로 원정 경기를 갈 때면 언제나 200명 이상의 지역 응원단이 대동될 만큼 안양시민의 자랑거리였다. 김진강 감독의 지휘 아래 김태환, 기덕서, 조한민, 이재호, 정해원, 조윤환 등 한국을 대표하는 굵직한 선수들이 배출되었다. 이를 통해 안양축구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축구 명가의 기틀을 다질 수

안양공고 축구부와 김진강 감독

있었다. 김진강은 재임 시절 엄격한 지도자이자 교육자로서 학생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르침 덕분에 선수들은 운동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생활과 매너가 좋은 선수들로 인기가 높았다. 경기도교육청 체육장학사, 장학관을 거쳐 용인고, 경기체고, 과천고에서 교장으로 재직한 후 2001년 8월 정년퇴직했다. 그는 오늘날 축구 도시 안양을 일군 숨은 공로자이다.

정해원 1980년 축구팬들의 관심은 신예 정해원에게 집중되었다. 연세대학교 2학년이었던 그는 5월 전국축구선수권 결승전에서 국내 최강팀 충무를 맞아 한국 축구사에 남을 멋진 골을 성공시키며 혜성처럼 등장했다. 전반 중반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은 그는 50m를 단독 드리블하며 수비수 6명과 골키퍼까지 제치고 골을 넣는 명장면을 펼쳐 보였다. 이 골은 오랫동안 축구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고, 한국의 마라도나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같은 해 열린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에서도 그의 진가는 다시 한번 발휘되었다. 준결승전 북한전에서 후반 막판 2골을 대역전승을 거두었다. 1980년대 축구팬들은 새로운 스트라이커의 등장을 주목했다. 특히 그를 배출해낸 안양시민들 모두가 떠나갈 듯 환호를 터트린 순간이었다.

정해원은 안양중학교와 안양공고를 거치며 모교가 축구 명문교로 자리 잡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1983년 창단한 대우 로얄즈에 입단하면서 축구 인생의 전성기를 꽃피웠다. 당시 대우는 정해원과 함께 박성화, 정용환, 이태호, 변병주, 김주성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축구 스타들이 대거 포진한 최강팀이었다. 대우는 1984, 1987, 1991년 리그 우승, 86 아시아 클럽 축구선수권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다. 정해원은 1983~1991년 대우에서 154경기에 출전하여 34골과 11도움을 기록했고, 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든 해트트릭을 세 번이나 달성했다. 1986년에는 10골로 득점왕, 베스트 11, 특별상을, 1987년에는 6골 4도움으로 MVP와 베스트11에도 선정됐다.

대표선수로서의 경력 또한 화려하다. 안양공고 재학 시절 청소년대표로 선발된 후 1980년부터 국가대표로도 뛰며 대통령배 연속골, 1988년 아시안컵, 1989년 월드컵 예선전 등 주요 경기에서 득점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총 58경기, 21골을 기록했다. 그는 침착하고 정확한 슈팅과 세밀하면서도 영리한 플레이로 빼어난 활약을 펼쳤다. 1991년 은퇴 후 1993~1994년까지 대우의 감독대행으로 활동했고, 전남 드래곤즈 코치와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조윤환 안양공고 출신으로 1980년대 국가대표팀 수비수로 화려한 선수생활을 한 조윤환은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지도자의 길을 보여준 젊은 감독이다. 그는 1981년 안양공고를 졸업한 후 명지대와 할렐루야를 거쳐 1986년부터 프로축구팀 유공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1989년 소속팀이 리그 우승을 차지할 당시 베스트11으로 선정되는 등 팀의 높은 공헌도를 인정받으며 선수로서의 전성기를 보냈다.

조윤환의 축구 인생은 은퇴 후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1990년 은퇴 후 팀에서 트레이너와 코치를 역임했다. 1995년 수석코치를 거쳐 1999년 프로축구 사상 최연소인 30대의 나이에 부천 SK 감독으로 선임되었다. 당시 부천 SK는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되었으나 조윤환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특유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젊은 바람을 일으키며 그해 정규리그 2위를 차지했다. 이듬해 대한화재컵 우승, 정규리그 2위, FA컵 3위 등 각종 대회에서 꾸준한 상위권 입상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 1999~2001년 8월까지 부천 SK 감독을 거쳐 2001~2005년 6월까지 전북 현대모터스 감독을 역임했다. 그는 뛰어난 용병술과 화끈한 공격 축구로 명성을 날렸고, 특유의 추진력과 인화력이 뛰어난 감독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영표 1977년 4월 23일 강원도 홍천군에서 태어나 1985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안양으로 이사를 왔다. 안양초등학교 4학년 무렵 축구를 시작했고, 안양중학교와 안양공고를 거쳐 건국대를 졸업한 후 다시 안양 LG에 입단하며 안양이 낳은 자랑스러운 축구인이 되었다. 그는 국가대표선수들과 달리 청소년기부터 1998년 올림픽 대표팀에 뽑히기까지 단 한 번도 청소년대표에 발탁된 적이 없었던 무명 선수였다. 하지만 성실과 끈기로 대학 시절 톱클래스 선수로

급성장했다. 2000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이관우, 김남일, 심재원 등을 제치고 1순위로 안양에 입단해 당시 신인 최고 연봉을 받으며 그 기량을 인정받았다. 그해 안양 LG의 프로축구 정규리그 우승의 일등 공신이 되었다.

지금의 이영표가 있기까지 축구를 시작한 이후 늘 자신의 단점을 알고 고치려 했던 성실성과 실천력이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다. 팀원들이 숙소로 돌아간 뒤에도 혼자서 공과 씨름하며 자기만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매진했다. 그는 콤플렉스였던 작은 체격을 강한 체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힘든 훈련을 마다하지 않았다. 선수 시절 노트북에 일기를 써가며 자기와 상대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뛰어난 개인기와 일대일 상황에서의 강점, 측면 돌파 능력으로 주목을 받았다. 2002년 한일월드컵은 그의 축구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에 출전해 포르투갈의 루이스 피구를 철저히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박지성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다. 이어 이탈리아와의 16강전에서 안정환의 역전 골에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했다. 이후 2003년 1월 네덜란드의 PSV 에인트호번에 진출해 주전 자리를 확고히 했고, 2003~2004 시즌 PSY의 네덜란드리그 우승과 UBPA 챔피언스 리그 4강 신화의 주역이 되었다. 2005년 8월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전격 이적한 후에도 꾸준히 주목받는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국가대표로서도 2002년 한일월드컵 4강과,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 주전으로도 활약했으며 해외 리그에서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축구계에 대해 애정 어린 비판을 아끼지 않는 지성파 선수로도 유명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성실성 등 그의 삶의 자세는 많은 후배 선수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그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다.

김동진 동두천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를 시작한 뒤 직업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안양으로 이사를 했다. 축구 명문 안양중학교와 안양공고에 진학하면서 안양과 첫 인연을 맺은 그는 타고난 재능과 특유의 성실함으로 꾸준히 실력을 쌓았다. 안양공고 2학년 때 19세 이하 청소년대표팀에 발탁되면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2000년 고교 졸업과 동시에 안양 LG치타스에 입단하면서 안양은 그의 축구 인생에서 뗄 수 없는 도시가 되었다. 당시 LG는 고교 유망주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여기에 최태욱·박용호(이상 부평고), 김병채·최원권(이상 동

북고), 김동진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입단 첫해를 무난하게 보내면서 유망주로서 탄탄대로를 걸을 것만 같던 그의 축구 인생은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시련을 맞이했다. 2001년 3월 갑작스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7월에는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특히 히딩크가 유망주를 발굴해 월드컵을 준비하던 시기였기에 이 같은 시련은 그를 더욱 힘들게 했다. 김동진은 6개월의 재활훈련 끝에 다시 일어섰지만 불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2년 아시안게임 태국전에서 쇄골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아시안게임이 끝나자 또다시 오른쪽 무릎 부상이 그를 괴롭혔다.

기나긴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김동진은 각고의 노력과 강도 높은 재활훈련을 통해 드디어 2003 시즌부터 축구 인생의 꽃을 피웠다. 올림픽대표팀 일본과의 평가전에서는 두 골을 터트리며 공격 가담력이 뛰어난 수비수로서의 면목을 과시했고, 소속팀에서도 안정적인 활약을 펼쳐 보였다. 2003년 12월 4일 동아시아대회 홍콩전에서 마침내 코엘류 감독의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었다. 이듬해에는 그리스올림픽에 출전하여 1골 2어시스트의 활약을 하며 대한민국이 8강에 진출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12월 독일과의 평가전에서 그림 같은 논스톱 슈팅 골, 독일월드컵 본선 진출을 결정짓는 박주영의 골 도움 등 큰 경기에서 굵직한 활약을 보였다. 드디어 2006년 생애 처음 독일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김동진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 첫 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에 풀타임 출전하여 안정적인 수비와 수차례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리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그는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대회가 끝난 후 이호와 함께 대표팀의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부임한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적했다. 김동진은 건장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슈팅과 돌파력, 악착같이 따라붙는 집요한 수비가 장점인 선수이다. 고교 시절엔 공격수로 활약했고, 소속팀과 대표팀에서는 수비수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타고난 성실함과 팀을 위한 헌신적인 플레이로 인정받았고, 한국 축구의 미래였으며, 안양을 빛낸 축구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조규성 1998년 1월 25일 안산에서 태어나 이호초등학교와 원곡중학교를 졸업한 뒤, 안양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미드필더로 뛰었지만, 점점 공격력을 인정받으면서 주목받았다. 졸업 후에는 광주대학교 축구부에 들어가면서 미드필더에서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꿨는데, 이 결정이 그의 축구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뒤로 공격수로서 뛰어난 득점력, 위치 선정 그리고 공

중볼 경합 능력을 보여주며 대학 무대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냈고, 여러 프로팀의 관심도 받게 됐다. 조규성은 안양에서 프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2019년 K리그2 FC안양에 입단해 데뷔 시즌부터 14골을 기록하며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시민구단 안양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한 그는 안양에서의 활약을 발판 삼아 K리그1 전북 현대 이적, 국가대표팀 승선, 그리고 2022 카타르 월드컵 무대까지 오르며 한국 축구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특히 월드컵 가나전에서 터뜨린 멀티골은 조규성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공격수로 만들었다. 현재는 덴마크 FC 미트윌란에서 활약하며 유럽 무대에 도전하고 있다.

조규성 선수의 성공은 FC안양의 자부심이자, 안양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안양에서 시작해 세계로 뻗어나간 선수'라는 표현처럼, 조규성의 발자취는 앞으로도 안양이 지닌 스포츠의 힘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2) 배구

이창호 1941년 10월 27일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1·4후퇴 당시 월남하여 안양 피난민촌에 정착했다. 안양유원지에서 장사하던 누나와 함께 생활하며 안양고등공민학교에 다니며 성장한 그에게 안양은 제2의 고향이다. 이후 서울 인창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창호는 큰 신장이 눈에 띄어 배구부에 들어갔다. 그의 배구 인생은 동양의학대학(경희대 전신)을 거쳐 여자배구팀 코치로 이어져 후에 한국 스포츠 역사상 전무후무한 184연승의 신화를 창조했다.

이창호의 성공적인 배구 인생은 한의사라는 그의 또 다른 면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동양의학대학 재학 당시 한의학을 전공한 그는 대학 4학년 때 국가고시에 합격해 졸업 후 3년간 한의사로 활동했다. 이 경험은 이후 그가 지도자와 행정가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여자배구팀 지도자로서 한의사 이창호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선수를 이끌었고, 부상 선수를 직접 치료하며 깊은 신뢰를 얻었다. 이를 통해 얻은 아버

지 같은 감독의 이미지는 경이적인 184연승을 일구어내는 밑거름이 되었다.

대학 졸업 후 한의사로 활동하던 그는 국세청의 여자배구팀 창단과 함께 1968년 다시 배구계로 돌아왔다. 창단 첫해 코치로 국세청을 이끌었던 이창호는 실업연맹전 우승을 일구어냈다. 1969년 박만복 감독 퇴진 이후 감독대행을 맡아 실업연맹 2차 대회 때부터 연승 행진을 시작했다. 이후 미도파, 대농으로 팀 명칭이 바뀌면서 이어진 기록은 무려 16년 동안 계속되었다. 사령탑 이창호는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위대한 기록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창호는 33세 때인 1973년 국가대표 감독을 맡아 최연소 감독의 기록도 남겼다. 1년 후배인 전호관(전 현대 감독)과 번갈아 대표 감독을 맡으며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여자배구의 인기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공격 배구를 지향하는 전호관의 스타일과 수비를 중시하는 이창호의 관리 배구는 한창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한국 여자배구에 팬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창호는 그동안 생활체육전국배구연합회 부회장, 한국실업배구연맹 실무부회장 등 배구 분야의 일은 물론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국정자문위원회 부위원장,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의 국정 분야에 헌신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등 한의학 분야에서도 실무를 쌓았으며, 1973년 체육훈장 백마장, 1978년 국무총리표창, 1988년과 1990년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장윤창 1960년 9월 10일 태어난 장윤창은 논산 가야초등학교에서 안양초등학교로 전학한 뒤 핸드볼선수로 활약했다. 안양초등학교 핸드볼부는 주전으로 소년체전 결승까지 진출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안양중학교에 진학한 잠시 축구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중학교 2학년 때 송산중학교로 전학하며 본격적으로 배구에 입문했고,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한 덕분에 입문 3개월 만에 팀의 주전이 되었다. 2학년 임에도 베스트 6에 뽑히며 세터임에도 공격, 블로킹 등 모든 플레이를 소화한 올라운드 플레이어였다. 배구 명문인 인창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기량이 더욱 두드러졌고, 인창고등학교는 그의 활약에 힘입어 여러 차례 우승을 했다.

장윤창은 고고 시절 이미 대표선수급 실력을 갖춰 최연소로 태극마크를 달았고, 강만

수, 김호철, 강두태 등과 함께 1978년 이탈리아 세계배구선수권대회 4강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일궈냈다. 남자배구팀이 동구권의 강호들과 미국을 꺾고 최초로 세계 4강에 오른 데에는 17세 장윤창의 스파이크와 백어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84년 대통령배 배구대회가 시작되자마자 장윤창은 슈퍼스타로 발돋움했고, 소속팀 고려증권의 우승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MVP, 베스트6, 인기상을 모조리 휩쓸었다. 이러한 그의 활약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배구는 진정한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장윤창이 월드클래스 수준의 선수였음에도 해외 진출을 거절하고 끝까지 국내에 남아 리그와 배구 저변을 넓히는 데 힘썼다. 그는 국내 선수생활을 한 것에 대한 자부심은 물론, 내 나라 내 조국이 먼저라는 신념을 후배들에게 남겼다.

그는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스포츠경영학 석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고, 경기대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의 봉사단체인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동대표, KBS TV 배구해설자, 대한배구협회 이사 등을 겸직했으며, 1979년 체육훈장 백마장, 대통령표창, 대한민국 체육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3) 농구

김재순 시흥군 안양읍 일동리(현재 동안구 관양동)에서 태어나 관양초등학교와 숭의여중, 숭의여고를 졸업했다. 키 177cm의 탁월한 센터였던 김재순은 고교 시절 소속 팀 숭의여고를 무적 팀으로 이끌었다. 특히 1969년 3학년에 재학 중인 숭의여고가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청소년농구대회에 단독으로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고교 졸업을 앞두고 당시 금융실업팀들은 김재순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결국 1970년 제일은행에 입사했다. 그녀의 입단으로 여자 실업 농구는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의 팽팽한 삼각구도를 이루게 되었다. 같은 해 열린 제3회 ABC(아시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발탁된 그녀는 이후 1973년 모스크바 유니버시아드대회와 1974년 테헤란아시안게임 대표로도 선발되었다. 또한 1974년과 1976년 각각 한국과 대만에서 열린 ABC대회에서는 한국이 우승을 차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1975년 이란에서 열린 ABC대회에서는 준우승을 이끄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김재순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73년 체육훈장 기린장을 수상했다.

(4) 테니스

이정명 1980년대 국내 여성 테니스를 대표하는 선수에는 안양 출신 이정명과 김일순이 있었다. 당시 테니스 환경이 열악했던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안양은 상대적으로 일찍 테니스가 보급된 지역이었다. 여기에는 안양시테니스협회를 중심으로 한 많은 원로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다. 안양테니스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최종헌, 하미경, 최지선, 이선영, 문동식, 정렬, 남순옥, 정태성 등 수많은 선수를 배출하며 전국대회를 평정해왔는데 그 전성기를 확실하게 꽃피웠던 두 선수가 바로 이정명과 김일순이었다.

1967년 9월 8일 안양에서 태어난 이정명은 안양초등학교, 안양서여중, 안양여상을 거치며 안양테니스를 전국에 알렸다. 그라운드 스트로크, 특히 포핸드 스트로크가 강한 올라운드 플레이어였던 그녀는 1년 후배인 김일순과 호흡을 맞춰 수많은 복식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단식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을 했다. 한때 다른 선수들이 우승을 하면 '이정명과 김일순이 해외 원정이라도 갔나'란 소리가 들릴 만큼 이들은 국내 테니스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환상의 복식 콤비였다. 그들은 1991년 셰필드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우승하는 등 지금도 깨지지 않은 복식 최다 14승의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정명은 안양서여중 재학 시절부터 일찍이 두각을 나타냈다. 안양여상에 입학하자마자 고등학교 1학년의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이후 포항제철과 명지대를 거치며 화려한 선수 경력을 이어갔고,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에 대표선수로 연속 출전했다. 은퇴 후에는 한솔제지 코치와 TV 해설자로 활약한 자랑스러운 안양의 테니스인이다.

김일순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여성 테니스의 독보적 존재였다. 안양초등학교 4학년 때 테니스에 입문한 후 안양서여중 1학년 때 종별선수권대회 여중부 4강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고, 이듬해 학생선수권대회 패권을 거머쥐었다. 그녀는 안양여상 입학 후 본격적인 국내 최정상급 선수로 행보를 시작해

고교 1학년 때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같은 해인 1984년 전국체전 3관왕을 차지했고, 제1회 프로스펙스국제주니어대회에서 단식과 복식을 모두 석권했다. 이후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했으며, 복식에서도 선배 이정명과 짝을 이루어 무적의 시대를 구가했다.

김일순은 당시 다른 국내 선수들과는 확연히 다른 강력한 서비스와 뛰어난 발리를 구사하는 스타일이었다. 노련하고 빠른 두뇌 회전으로 국제무대에서의 가능성도 인정받았다. 국내에서 더 이상 견줄 상대가 없었던 그녀는 안양여상 3학년 재학 시절부터 국제적으로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86년 윔블던 주니어 대회에서는 복식 4강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고, 1987년에는 세계주니어 랭킹 3위에까지 올라 '주니어 여왕'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1988년과 1992년 두 차례 올림픽에 출천한 김일순은 88서울림픽에서 세계 42위 이노우에를 맞아 2 대 1의 승리를 거두었고, 세계 랭킹 6위 헬레나 수코바를 2 대 1로 격파하며 세계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혼합복식에서도 김봉수와 호흡을 맞춰 16강에 오르며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세계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던 한국 테니스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녀의 활약은 더욱 값진 것이었으며 안양테니스의 자랑이었다. 포항제철에서 실업 선수로 활약한 김일순은 명지대를 거쳐 1993년부터는 삼성증권 테니스단 코치로 활동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테니스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선용 한국 남자 테니스의 차세대 에이스였던 김선용은 주니어 시절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맹활약을 했다. 그는 2002년 자카르타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 우승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2004년에는 아마타컵 태국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 단·복식 우승, 일본 오픈 주니어 챔피언십 테니스 대회 단복식도 석권했다. 오사카시장배 월드 슈퍼주니어 테니스 챔피언십에서는 단식 준우승과 복식 우승을 했다. USTA 인터내셔널 윈터 챔피언십(USTA International Winter Championship)에서도 단·복식 준우승을 거두며 주니어 최고 선수로 활동했다. 그 결과 2005년 초 국제테니스연맹이 발표한 첫 공식 랭킹 집계에서 당당히 세계 주니어 랭킹 1위에 등극했다.

2005년에는 호주오픈주니어선수권대회 단식 준우승에 올라 한국 남자 테니스의 역

사를 다시 썼다. 여자 선수 전미라가 1994년 윔블던 주니어 여자 단식에서 결승까지 오른 적이 있지만 남자부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06년 성인 무대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김선용은 도하아시안게임에서 전웅선과 복식으로 호흡을 맞춰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동안구 비산동에서 태어나 서울 유석초, 신안중, 양명고를 거쳐 명지대학교를 졸업했고,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5) 골프

김시우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안양 신성고를 졸업한 안양 출신 골프 선수다. 그는 17세의 나이에 미국프로골프(PGA) 퀄리파잉 스쿨을 통과했다. 2011년 제29회 한국 주니어 골프 선수권대회 고등부 우승을 시작으로, 2012년 KPGA SK 텔레콤 오픈 공동 3위, 2015에는 PGA 웹닷컴 투어 스톤브레 클래식(WEB.COM TOUR Stonebrae Classic) 우승과 PGA 투어 뉴스 센티넬 오픈 공동 2위를 차지했다. 2016년에는 22세에 PGA투어 윈덤 챔피언십에서 대회 사상 두 번째로 최연소 우승을 거머쥐었고, 같은 해 제네시스 한국프로골프대상 해외특별상을 받았다. 2017년에는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다. 2021년에는 PGA 투어 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우승한 이후 2023년에는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 2위,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 골프 남자단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더불어 미국프로골프협회 소니오픈에서도 우승의 쾌거를 이뤄냈다.

김시우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앞으로 어떤 활약으로 시민들을 놀라게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우영 2001년 안양에서 태어났으며 안양서초, 신성중, 신성고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취미로 골프를 시작했으며, 안양서초 6학년 때 본격적인 선수의 길로 들어섰다. 그는 중고 클럽을 썼음에도 불평불만이 없었고 열심히 노력했다. 2013년 3월 제27회 경기도 종합선수권 골프대회 초등부에서 우승을 하면서 주목받았으며, 이후 출전하는 대회마다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뒀다.

조우영은 2015년 에미앙 챔피언십 주니어컵 단체전, 2017년 경기도협회장배 골프대회, 고등부, 2020년 제27회 송암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2020년 허정구배 제67회 한국 아마추어 골프선수권 대회 우승, 2023년 제40회 OK금융그룹 한국 대학 골프대회 아마추어 대학부에서도 우승했다. 2023년에는 KPGA 스릭슨투어 2회 대회와 KPGA 골프존 오픈 in 제주 우승, 제19회 항저우아시안게임 골프 남자단체 금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올렸다. 2024년에는 KPGA 투어 데상트 코리아 매치플레이에서 2위에 올랐고, KPGA 투어 더채리티클래식에서 프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조우영은 대회 때마다 '컴퓨터 샷'을 앞세워 많은 선수를 놀라게 한다. 한번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대회를 마친 소감에서 "오늘 나쁘지 않았고, 한 단계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다"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였다. 아마추어 시절에도 프로급 선수 못지않은 기량을 선보였고, 1부 투어에서도 그의 경기력은 충분히 통했다. 한 캐스터는 "아마추어 선수가 너무 잘 치니까 형들이 머쓱할 것 같아요"라고 평했다. 비시즌에도 끊임없이 연습에 매진하는 그는 골프에 대한 진정성으로 '노력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황유민 2003년 4월 17일 안양 출생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를 따라 골프연습장에 갔다가 골프채를 처음 잡았다. 초등 5학년 때 출전한 대회에서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며 재능을 발견했고 본격적으로 선수 준비를 시작했다. 안양의 신성중, 신성고를 졸업한 그녀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이름을 널리 알리며 세계 아마추어 랭킹 3위(아시아 1위)까지 올랐다. 시원한 장타와 공격적인 코스 공략으로 팬들의 주목을 받으며 '돌격대장'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20년 국가대표 상비군을 거쳐 2021년부터 2년 연속 태극마크를 달았다. 주요 성적은 2020년 KLPGA투어 휴엔케어 여자오픈 아마추어 우승, 2021 kgA 빛고을중흥배 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우승, kgA 강민구배 한국여자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

승을 했다. 2022년에는 KLPGA 투어 솔라고 점프투어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2023에는 KLPGA 투어 대우위니아 MBN 여자오픈에서 우승을 거머쥐었고, 2024에는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을 제패했다.

그녀는 돌격대장이라는 별명답게 2023 시즌 드라이브 거리 2위를 기록하며 롱 게임에서 강점을 보였다. 퍼팅 또한 강하다. 2023년 시즌 버디율, 평균 버디, 파브레이크 부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할 정도다. 또한 몰아치기에 능해 연속 버디 기록도 여럿 갖고 있다. 다만 약점이라면 장타자라 페어웨이 안착률이 낮고, 적극적인 핀 공략으로 저점이 가끔 터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컷 탈락이 적으며 꾸준한 경기력을 보이는 점은 그녀의 강점이다. 황유민은 해마다 우승은 물론 우승권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 골프의 미래 주역이다. 이는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이 일구어낸 성과물이다.

2) 투기 스포츠

(1) 레슬링

정지현 안양 출신 레슬링 선수로, 20004년 아테네올림픽 그레코로만형 60㎏급 결승에서 쿠바의 로베르토 몬존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명학초등학교 5학년 때 석수초등학교로 전학하면서 체조를 시작했으며, 이후 유도를 거쳐 범계중 3학년 때 레슬링으로 종목을 바꿨고, 분당 서현고와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했다. 유도와 체조, 레슬링 세 종목을 두루 경험한 덕분에 정지현은 하체가 탄탄하고, 유연성과 순발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긴 손을 이용한 잡기 능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지현이 국내 레슬링계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에서였다.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는 아테네올림픽 레슬링 1차 선발전 그레코로만형 55㎏급에서 국내 최강 하태연을 누르며 이름을 알렸다. 2차 선발전에서도 우승해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같은 해 핀란드 오픈국제대회에서 55㎏급 1위를 차지하며 세계무대에서도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부산아시안게임에서는 경험 부족으로 결승 진

출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60㎏급으로 체급을 올려 2004년 아테네올림픽 쿼터 제1차 대회 2위, 같은 해 아테네올림픽 최종선발전 1위, 카자흐스탄 아시아선수권 1위, 헝가리그랑프리 국제대회 2위 등 눈부신 성적을 거두며 최고의 컨디션으로 올림픽 무대에 올랐다.

아테네올림픽 금메달 획득 이후 66㎏에 도전한 정지현은 2005년 유니버시아드대회 파견 선발전 1위, 터키 유니버시아드대회 은메달, 반타아 국제대회 3위, 2006년 터키 베비엠레 그랑프리 국제대회 3위, 카자흐스탄 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현역 선수로 활발한 활약을 보였다.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레슬링 60㎏급 은메달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71㎏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2) 씨름

윤석찬 1984년 창단한 양명고 씨름부는 창단 3년 만인 1986년 전국체육대회 단체전 우승, 1987년 KBS배 전국씨름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며, 전국 고교 씨름의 강자로 급부상했다. 유병헌, 정찬석, 정상현, 유효상, 최경선, 임동옥 등 초창기 양명이 배출한 많은 선수 가운데 윤석찬은 프로씨름에서도 성공적인 선수생활을 이어가며 안양 씨름의 자존심을 드높였다. 1991년 양명고 졸업 후 삼익가구 씨름단에서 선수생활을 시작한 윤석찬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 경기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나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방송을 듣지 못하는 불리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각고의 노력과 의지로 1994년 6월 17일 제78회 체급별장사씨름대회에서 당당히 백두장사에 올랐다. 이후 삼익건설, 세경건설, 현대 등 여러 팀을 거치며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다가 2003년 3월 은퇴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며 장애를 극복한 투지와 상징으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한 씨름판의 멋쟁이로 기억되고 있다.

(3) 복싱

임홍규 1969년 지금의 근명여상 실내체육관 부지에 설립된 대동종합체육관을 시작으로 1971년 안양본백화점 자리의 안양종합체육관, 1973년 안양3동 대농단지의 가건물로 이전하며 시작된 안양체육관의 역사는 곧 안양 복싱의 역사와도 맥을 같이한다. 지금까지 전국대회 우승자 80여 명, 경기도 대표선수 110여 명과 차진호, 호계천, 이호수, 박제석, 이진권, 김배열, 한형민, 전성용, 허준욱, 김종길, 남상수, 강수환 등 한국 챔피언과 국가대표를 배출했다. 안양 복싱의 산실인 안양체육관은 현재 안양종합운동장에 위치하여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안양체육관이 배출한 대표적인 선수 임홍규는 안양중과 양명고를 졸업하고, 1980년대 초반 주니어 라이트급과 라이트급의 두 체급을 석권하며 한국 챔피언에 올랐다. 양명고 재학 시절 출전한 전국체전에서는 57회 밴텀급과 58회 페더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호계천(좌)

이호수(좌)

호계천 신성중과 양명고를 거쳐 수원대에서 복싱선수로 뛰었던 호계천은 1980년대 초반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안양 복싱의 선두 주자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한서독·한스웨덴 친선대회에서 금메달을, 태국에서 열린 제7회 킹스컵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제10회 전국우승컵대회 등 다수의 대회에서도 우승을 거머쥐었다. 양명고 재학 시절 출전한 제61회 전국체전에서는 라이트웰터급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후 호계천은 안양체육관 관장으로 있으면서 안양 복싱의 명맥을 이으며 후진 양성에 주력했다.

이호수 안양중과 양명고를 거쳐 경희대에서 복싱선수로 활동했다. 1985부터 1987년까지는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제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

메달을 목에 걸었다. 제4회 로마월드컵에도 출전했고, 제62회, 제68회, 제6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도 제16회 대통령배 시도대항 복싱대회에서 금메달을, 전국학생선수권대회에서는 무려 일곱 번이나 우승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1980년대 헤비급 강자로서 안양 복싱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선수다.

한형민(우측 첫 번째)

한형민 안양중과 안양공고,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한 한형민은 안양 복싱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인 선수다. 제36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는 제10회 고 김명복 박사배 우승과 1990년 국가대표 선발대회 준우승, 제2회 동아시아대회 금메달 등 각종 대회에서 국내 최강자로 인정받았다. 국가대표로서 아시아선수권에서 우승한 한형민은 안양 복싱 사상 최초로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 출전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어 1997년 서울국제컵에서도 우승을 했으며, 이후에는 경기체고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4) 태권도

곽택용 안양 석수초등학교 시절 처음 태권도를 배웠다. 14년간 태권도 국가대표 시범단으로 활약하며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한 안양 태권도의 대들보다. 신성중과 인천체고를 거쳐 한국체육대학교에 입학한 그는 1992년 제1회 태권도 한마당대회 종합격파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명성을 쌓기 시작했다. 대학 3학년 때는 팔이 골절되는 부상으로 한동안 힘든 시기를 겪기도 했지만 역경을 이겨내고 4학년 때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그리고 1996년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월드컵 태권도대회 라이트급 부문과 세계군인선수권 태권도대회에서 나란히 1위를 차지하면서 전성기를 맞았다.

1999년에는 라오스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해 우리나라 선진 태권도 기술을 전수했

다. 2006년 이후 국가대표 태권도 시범단 코치를 맡았고, 현재는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인수 덕천초등학교, 신성중학교, 풍생고등학교와 용인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안양 태권도의 차세대 주자로 평가받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덕천체육관에 입관하면서 태권도에 입문한 그는 경기도민체전 4연패, 대통령기 1위, 협회장기 2연패, 최우수선수권 2연패, 주니어세계대회 1위, 세계대학선수권대회 1위, US오픈 1위, 춘천오픈 1위, 월드컵 1위, 이란혁명기념 국제태권도대회 2위, 아시아클럽대항 단체전 3위를 차지하는 등 다수의 대회에서 상위 성적을 올리며 안양 태권도의 명성을 널리 알렸다.

홍순일 인덕원초등학교, 백운중학교, 정원고등학교와 용인대학교를 거쳐 국군체육부대 소속이었던 홍순일은 안양 태권도를 이끌었던 선수다. 2002년부터 대통령기 태권도대회에서 매년 상위로 입상했고, 2003년 우수선수선발전 1위, 2004년 협회장기 태권도대회 1위를 차지했다. 2005년에는 영국오픈 국제태권도대회에서 우승하며 국제무대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2007년 아시아클럽선수권대회 3위, 2007년 이란혁명기념 국제태권도대회 2위 등 국내외 대회에서 꾸준한 성적을 거두었다. 홍순일은 태권도 종주국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선수로 발탁되어 안양 태권도의 위상을 높였다.

3) 기초 스포츠

(1) 수영

김봉조 안양삼성초등학교를 졸업한 김봉조는 1960년대 한국 수영의 간판이자 한국 수영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체육인이다. 자유형 400m와 1500m가 주종목이었으며 수영 명문인 서울 오산고 시절 발군의 기량으로 각종 한국신기록을 갱신하며 1960년대 최고의 수영선수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1964년에는 한국 수영 사상 최초로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영광을 누렸다. 선수생활을 마친 뒤에도 김봉조는 지도자와 체육행정가로 활동하며 성공적인 수영인의 삶을 살았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강화위원장을 맡았고,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과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2004 아테네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다. 이후에는 대한수영연맹 경기력향상위원장으로 활약했다.

전옥자 안양의 수영은 제30회부터 50회까지 도민체전에서 무려 21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경기도 내 수영을 평정해왔다. 이 같은 성과는 신성중, 신성고, 근명여중, 근명여상, 관양여중, 안양시청 등 많은 팀의 꾸준한 활약 덕분이었다. 근명여중과 근명여상은 1999년 수영부가 해체되기 전까지 안양 수영을 대표하는 명문 팀 중 하나였다. 변경숙, 전옥자, 최연숙 등이 근명여상의 대표적인 선수로 활동하며 국내 여자 고등부 수영을 완전히 제패했다. 이 가운데 배영 전문 선수였던 전옥자는 출전한 수많은 전국대회를 대부분 휩쓸었을 만큼 국내 최강자로 군림했다. 그녀는 1964년 동경올림픽과 제5회 동경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영의 간판스타로 한국 수영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변경숙 안양의 수영 명문 근명여중과 근명여상을 졸업한 변경숙은 1970년대 한국 여자 수영을 대표하는 선수였다. 근명여중 1학년 때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해 1973년 전국소년체전 자유형 800m와 400m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며 2관왕에 올랐다. 1974년 전국체전에서는 100m, 200m에서 1위를 차지했고, 1975년 5월 아시아에이지그룹 대표선발전에서는 400m와 200m에서 각각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같은 해 해군참모총장배 대회에서는 800m에서 첫 10분대 기록을 내며 5관왕을 했다.

또 1975년 아시아에이지그룹 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800m와 4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웠지만 아깝게도 3위, 4위에 머물고 말았다. 이어 전국수영대회 200m에서 1위를, 전국체전에서는 계영 800m 신기록을 포함해 5관왕에 올랐다. 이후에도 전국제천과 동아수영대회 등 굵직한 대회에서 여러 차례 5관왕을 차지했고 금메달만 100개를 넘게 땄다. 은퇴 후에는 상비군 대표팀과 서울시 소년체전 대표팀 코치를 활동했다.

최연숙 1970년대 한국 수영계의 대들보인 최연숙은 1959년 3월 2일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597(현 만안구 안양동)에서 태어나 안양국민학교와, 근명여중·여상을 거쳐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했다. 1972년 중학교 1학년 때 선수생활을 시작해 1978년까지 7년 동안 한국신기록을 무려 32회나 갱신했고, 1회 한국타이기록과 12개 부문 8개 종목(자유형

100·200·400·800m, 접영 100·200m, 개인혼영 200·400m)에서 신기록을 보유했다.

중학교 1학년 때인 1972년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수영대회에 처음 출전하여 자유형 100m에서 3위를 입상한 것을 시작으로 1973년 전국소년체전, 전국남녀수영대회, 해군참모총장배, 동아일보 수영대회에서 접영 100·200m에서 각각 2관왕으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74년에도 전국소년체전과 아시아에이지그룹 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등 실력을 입증했다. 1975년 고 1 때부터 4개 대회(해군참모총장배대회, 동아수영대회, 전국남여수영대회, 전국소년체전)에서 5관왕을 달성했고, 1976년에도 연거푸 5관왕을 차지하며 명성을 드높였다. 1975~1978년까지 대한수영연맹에 기록된 수영경기 실적 카드 등위란에 모두 1위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무려 63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5관왕만 10회를 기록했고, 3관왕과 2관왕까지 합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실적으로 1975년부터 1977년까지 3년간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최우수선수상 및 대한체육회의 우수선수상을 3회 수상하기도 했다. 1984년에는 1개월간 코치 아카데미를 수료하여 국가대표 코치 자격을 획득했으며, 서울올림픽 선수촌 자원봉사자로도 활동했다.

임철성 안양의 수영 명문 신성고는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 수영의 강자로 자리 잡았다. 최강진, 곽병국, 안기수, 이유석, 김중권 등 전국대회를 주름잡았던 많은 선수를 배출했다. 그중 안양이 낳은 대표적인 수영 스타는 단연 임철성이다. 1989년 신성고 2학년 때 제70회 전국체전에서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각각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같은 해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아시아에이지그룹 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자유형 200·400m, 계영 200m에서 1위를 해 3관왕에 올랐다.

임성철은 신성고 3학년 때인 1990년, 선수 시절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제62회 동아수영대회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우승했고, 해군참모총장배 수영대회에서는 자유형 200·400·800·1500m 모든 종목에서 한국신기록을 갈아 치우는 기염을 토했다. 또 같은 해 열린 북경아시안게임 자유형 1500m에서 3위를 차지해 안양 수영 사상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고교 졸업 후 단국대학교와 안양시청에서 선수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후 모교인 신성고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다.

방승훈 조오련, 지상준의 뒤를 잇는 아시안게임 수영 금메달리스트로, 1975년에 태어나 안양의 수영 명문 신성중학교와 신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중학교 2학년 재학 당시 국가대표로 발탁될 만큼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 제74회 전국체전에서 4관왕을 달성한 것을 비롯해 고교 시절부터 거의 모든 대회를 휩쓸었고 수많은 신기록을 경신한 국내 최강자였다.

방승훈(우측)

방승훈은 고등학교 졸업 후 1994년 히로시마아시안게임 자유형 400m 경기에서 3분 54초 72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양 수영의 오랜 숙원인 국제무대에서의 금빛 한을 풀어내는 순간이었다. 아시안게임 이후에는 1994년 동아수영대회 대학부 자유형 200m와 전국체전 남자 일반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1995년 전국체전 남자 일반 자유형 400m 우승 등 수많은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자유형에서만 20여 차례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기록 제조기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고교 졸업 후 제주대에 진학한 방승훈은 제주시청과 안양시청에서 선수로 활약했고, 체육훈장 기린장을 수상했다.

(2) 육상

구본칠 관양초등학교 5학년 때 시흥군 대표로 출전하며 육상을 시작한 구본칠은 1970년대 남자 육상 400m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1971년부터 1980년까지 무려 10년간 전국체전을 석권했고, 1972년부터 1980년까지 해마다 400m 한국 최고기록도 세웠다. 1975년에는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시즌오픈 육상경기대회 400m에서 48초 2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1위를 차지했다. 같은 해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400m에서는 47초 29로 또다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은메달을 획

구본칠

득했고, 9월 싱가포르에서 국제육상대회 400m에서는 46초 9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1978년에는 월드컵육상대회 아시아 대표로 출전하는 영광을 누렸고, 전국체전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4관왕(200·400m, 400m 계주, 1600m 계주)을 차지했다. 은퇴 후에는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LA올림픽 대표팀 코치로 참가했고, 경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아시아육상경기연맹 기술임원 등으로 활동했다.

김국영 1991년 4월 19일 안양에서 태어나 호원초, 대안중, 평촌정보고를 졸업했다. 단거리 달리기 선수로 2010년 이후 대한민국 남자 100m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예선에서 10초 31을 기록해 31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경신했고, 이어 준결승에서 다시 10초 23을 기록해 자신의 기록을 또 한 번 갈아치웠다.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는 10초 16으로 한국신기록을 새로 세웠으며, 2017년 런던 세계육상선수권에서 100m 예선 10초 24의 기록으로 한국 트랙 선수 사상 최초로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그는 2023 항저우아시안게임 남자 400m 계주에서 동메달을 따냈고, 2024년 MBC 파리올림픽 육상 해설위원으로도 활약했다.

(3) 쇼트트랙

황대헌 1999년 안양에서 태어나 안일초, 부림중, 부흥고를 졸업했다.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선수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현재 남자 100m 세계기록(1:20.875)과 올림픽 기록(1:23.042) 보유자다.

그는 한동안 끊겼던 대한민국 쇼트트랙 에이스 계보를 잇는 선수로 피지컬, 체력, 스타트, 스피드, 안정성, 추월 기술,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까지 고루 갖춘 세계 최정상급

올라운더이자, 현대 쇼트트랙에서 추구하는 스타일에 가장 가까운 선수로 평가받는다.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에이스이자 간판스타지만 실력에 비해 커리어가 아쉬운 편이다. 이는 잦은 부상으로 월드컵 일부 대회에 자주 불참했고, 2019년 세계선수권 준우승 이후 코로나로 4년간 세계선수권에 나가지 못했다. 올림픽 역시 여러 이유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나 베이징올림픽 1500m에서 편파 판정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따내며 아쉬움을 털어냈다.

강윤미 2006년 2월 23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여자 3000m 결승전에서 한국이 캐나다와 이탈리아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4연패를 달성했다. 전다혜, 진선유, 최은경, 변천사와 함께 세계 최강 한국 여자쇼트트랙팀을 이끌며 안양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안겼다.

강윤미는 2003년 세계 주니어 쇼트트랙 선수권대회에서 종합 2위에 오르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듬해 열린 같은 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해 쇼트트랙 최강국 한국의 차세대 주자로 떠올랐다. 2005년에는 세계선수권대회 1500m에서 2위, 3000m에서는 1위를 차지했고,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종합 1위, 5차 대회에서는 종합 3위를 기록했다. 2006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여자부 종합 1위를 거머쥐었다. 이후 한국체육대학교에 입학해 선수생활에 매진했고, 2007년 제23회 동계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3000m에서 다시 한번 금메달을 목에 걸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4) 인라인스케이트

궉채이 1999년 오산초등학교 6학년이던 궉채이는 도내 대회에 참가했다가 박성일 국가대표팀 코치의 눈에 띄어 범계초등학교로 전학해, 본격적인 인라인선수의 길에 접어들었다. 귀인중학교 2학년 때 주니어 대표로 발탁되어 2001년 프랑스 세계선수권 금메달, 2002년 벨기에세계선수권에서는 2관왕을 차지했다. 동안고 재학 시절인 2004년 이탈리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주니어 부문 2관왕에 오르며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권채이

고교 졸업 후 안양시청 인라인롤러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며 본격적으로 성인 무대에 뛰어든 권채이는 2006년에 열린 대만아시아롤러스케이팅선수권대회 여자 시니어 부문에서도 2관왕에 오르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인터넷 얼짱 스타로도 알려져 인라인스케이트 대중화에 견인차 역할을 한 신세대 스타였다.

임진선

임진선 평촌초등학교와 귀인중학교, 동안고등학교를 졸업한 임진선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인라인스케이트를 신었다. 육상을 하던 중 박성일 안양시청 감독의 권유로 인라인스케이트 선수로 전향했고, 주니어 대표를 거쳐 만 17세가 된 2006년 9 시니어대표에 합류해 우효숙, 권채이, 임주희, 김혜미 등과 함께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

임진선은 500m에서 45초 604로 3위를 차지했고, 3000m 계주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니어 무대에서의 경험을 통해 벽을 느끼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06년 제87회 전국체전에서는 타임트라이얼 300m, 스피드 5000m 계주에서 한국신기록으로 우승했고, 트랙 1000m까지 제패하며 3관왕에 올랐다. 우리 선수들이 외국 선수에 비해 체격적인 열세를 면치 못하는 현실에서 175cm의 좋은 신장을 지닌 임진선은 몸집만 조금 더 키우면 국제무대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 인라인스케이트계에서 샛별같이 등장한 그는 한국 인라인스케이트를 이끈 차세대 주자였다.

참고문헌

안양문화원, 『향토체육사』, ㈜ 세움, 2002.

안양시지편찬위원회,『안양시지』, 안양시, 1992.

안양시,『시정백서』, 2004.

안양시, 「건강 100세 시대, 안양시 생활체육도시 마스터 플랜」. 안양시청, 2015.

안양시사,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안양」, 안양시시사편찬위원회, 2008.

안양시체육회, 「안양체육관련 자료」,2006.

시흥군, 「시흥군지」,1988.

조찬식, 「1920년대 경기지방의 소년운동」, 기전문화연구, 1976.

안양시체육회(https://www.aysports.or.kr/)

안양종합운동장(https://www.auc.or.kr/aysc/main/view)

안양호계체육관(https://www.auc.or.kr/hgsports/main/view)

註

1 이 내용은 안양시청 체육생활과에서 2015년에 발간한 안양시 용역 결과보고서이다.

2 가장 적합한 운동 강도는 최대심박수의 50%이다. 일반적으로 최대심박수는 220-나이로 계산한다. 20세 성인의 운동 강도는 220-20×50%로 맥박 수는 100번이다.

2장

안양 체육의 현재와 지역사회

최덕묵 성결대학교 체육교육학과

1.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성적

안양시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은 신기록에서 2009년도와 2015년도, 종목에서는 2014년도와 2019년도에 동일하게 11개 종목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며 많이 발전했다. 2009년(제38회)부터 2023년(제52회)까지 안양시 출신 선수들이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여 기량을 겨룬 입상 성적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제34회 경기도체육대회(1988, 안양종합운동장)

제34회 경기도체육대회 육상경기기록표

수영 부문에서는 비산초등학교 이건(남) 선수가 계영 4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인라인롤러 부문에서 안양동초등학교 최은솔(여), 부림초등학교 김희수(여) 선수 그리고 평촌초등학교 송혜원(여) 선수는 3000m 계주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차지했고, 평촌초등학교 이상현(남) 선수는 1000m에서 대회신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또한 귀인중학교 유가람(여)과 이해원(여) 선수는 3000m 계주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했고, 비산중학교 김승혁(남) 선수는 3000m 계주에서 대회신기록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선수들과 지도자 그리고 운동부 부장 교사들이 함께 노력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안양시의 위상을 높였다.

안양시 소재 초등학생 및 중학생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성적(2009)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09.5.30.~6.2. 전라남도 일원	육상	여초 400m 계주	금	이혜연	비산초	
	수영	남초 계영 400m	금	이 건	비산초	대회신기록
		남초 자유형 50m	금			
		여초 혼계영 200m	금	양지원	희성초	
		남초 자유형 100m	은	이 건	비산초	
		여초 평영 50m	은	양지원	희성초	
		여초 접영 50m	은	정승연	평촌초	
		남중 자유형 800m	은	강민기	신성중	
	유도	남초 개인전 53㎏ 이하	동	조상훈	석수초	
		여중 개인전 48㎏ 이하	금	박다솔	범계중	
	양궁	여초 개인종합	동	김두연	안양서초	
		여초 20m	동			
		여초 40m	동			
		여중 단체종합	은	임세리	안양서중	
	역도	남중 용상 77㎏	금	배현석	부안중	
		남중 합계 77㎏	은			
		남중 인상 77㎏	은			
	롤러	여초 300m포인트	금	최은솔	안양동초	
		여초 3000m 계주	금	최은솔 김희수 송혜원	안양동초 부림초 평촌초	대회신기록
		남초 300mT.R	은	최상렬	부안초	
		남초 1000m	은	이상현	평촌초	대회신기록
		남초 3000m포인트	은			
		남초 3000m 계주	은	이상현 최상렬 김민기	평촌초 부안초 부림초	
		여초 1000m	은	김희수	부림초	
		여초 300mT.R	동			
		여중 1000m	금	유가람	귀인중	
		여중 EP10000m	금			
		여중 3000m 계주	금	유가람 이해원	귀인중	한국신기록
		남중 3000m 계주	동	김승혁	비산중	대회신기록
	테니스	여중 단체전	금	장수정 이희주	안양서여중	

* 자료 : 안양시 체육회 제공

안양시 소재 초등학생 및 중학생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0)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10.8.11.~8.14. 대전광역시	육상	여초 100m	금	이혜연	비산초	
		여초 200m	금			
		여초 높이뛰기	은	장선영		
		여초 400mR	동	이혜연		
	수영	남중 배영 50m	은	이우석	귀인중	
		남중 계영 400m	은			
		남중 혼계영 400m	은	임정태	신성중	
		남중 배영 100m	동			
		남중 배영 200m	동			
		여중 계영 400mR	동	박정민	인덕원중	
		남초 계영 400m	은	이태구	부흥초	
		남초 자유형 200m	동			
	유도	남초 개인전 53㎏ 이하	금	김한솔	석수초	
		여중 개인전 63㎏ 이하	금	공서영	범계중	
		남중 개인전 73㎏ 이하	동	정재현		
	양궁	여초 단체전	은	윤효빈	범계초	
				임예나	만안초	
		여중 단체종합	금	임세리	안양서중	
		여중 30m	동			
	탁구	여초 단체전	은	윤효빈	범계초	
				임예나	만안초	
		여중 단체전	금	이유진	안양여중	
	롤러	여초 3000m 계주	동	송혜원	평촌초	
		여중 1000m	금	이해원	귀인중	
		남중 3000m 계주	은	이경호	비산중	
		여중 3000m 계주	동	이해원 최선영	귀인중	
		여중 E15000m	동	이해원		
	테니스	여중 단체전	은	이희주 장수정 현한비	안양서여중	
	농구	남초 단체전	동	단체전 (10명)	벌말초	

안양시 소재 초등학생 및 중학생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1)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11.5.28.~5.31. 경상남도 진주	수영	여초 혼계영 200m	금	정승연	평촌초	한국신기록
		여초 접영 100m	은			
		여초 접영 50m	동			
		여중 개인혼영 200m	동	박정민	인덕원중	
		여중 자유형 400m	동			
	테니스	남초 단체전	동	박의성	신안초	
		여중 단체전	금	김다혜 윤소희 박예림 배도희	안양서여중	
	양궁	여초 개인종합	은	황재민	안양서초	
		여초 단체종합	은			
		여초 25m	은			
	탁구	여중 단체전	금	이유진	안양여중	
	사격	여중 공기권총단체	금	성예빈	인덕원중	
	볼링	여중 2인조전	은	정정윤	범계중	
	유도	남중 개인전 81㎏ 이하	은	김찬우	범계중	
	롤러	여중 3000m 계주	금	김희수 최은솔 최선영	귀인중	
		여중 300mT.R	동	김희수	귀인중	

수영 부문에서 평촌초등학교 정승연(여) 선수는 혼계영 2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안양시 소재 초등학생 및 중학생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2)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12.5.26.~5.29 경기도 고양시	수영	여중 혼계영 400m	은	정승연	평촌중	
		여중 접영 100m	동			
	테니스	남초 단체전	금	박의성	신안초	
		여중 단체전	금	박수빈 배도희 허주은 박예림	안양서여중	
	농구	남초 단체전	동	벌말초	단 체 전	
	롤러	남초 3000m 계주	은	김태양 이원형 박현수 임두희	안양동초 평촌초 부림초 안양동초	
		여초 300mT.R	은	박소연	평촌초	
		여초 3000m포인트	은			
		여초 3000m 계주	은	김채연 박소연	안양동초 평촌초	
		남초 300mT.R	동	김태양	안양동초	
		남초 3000m포인트	동	이원형	평촌초	
		남중 1000m	금	김민기	비산중	
		남중 E1500m	금	이상현		
		여중 300mT.R	금	김희수	귀인중	
		남중 EP10000m	동	이상현	비산중	
		여중 1000m	동	김희수	귀인중	
	탁구	여중 단체전	동	윤효빈	안양여중	
	볼링	여중 4인조전	금	정정윤	범계중	
		여중 개인전	동			

안양시 소재 초등학생 및 중학생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3)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13.5.25.~5.28. 대구광역시	육상	남중 4×400mR	금	박상준	관양중	
		여중 원반던지기	동	이수진		
	수영	남초 자유형 200m	은	허준서	범계초	
		남초 계영 400m	은			
		남중 자유형 800m	금	이태구	신성중	
		남중 자유형 400m	금			
		여중 접영 100m	금	정승연	평촌중	
		여중 접영 50m	금			
		여중 혼계영 400m	은			
		남중 계영 400m	동	이태구 이유연	신성중	
		남중 혼계영 400m	동	이태구		
	롤러	남초 300mT.R	동	신주성	부림초	
		남초 3000m계주	동			
		남중 1000m	금	박경휘	비산중	
		남중 E1500m	금			대회신기록
		남중 3000m 계주	은	권오석 박경휘 이성훈		대회신기록
		여중 1000m	동	권부송	귀인중	
		여중 3000m 계주	동	권부송 박소연		
	양궁	여초 25m	금	이지현	안양서초	
		여초 단체종합	은	이지현 오다은		
	탁구	여초 단체전	은	서경원 이윤지 박신지	만안초	
		여중 단체전	금	윤효빈	안양여중	
	농구	남중 단체전	동	김대욱 외 11명	호계중	

인라인롤러 부문에서 비산중학교 박경휘(남) 선수는 F15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비산중학교 권오석·박경휘·이성훈(남) 선수는 3000m 계주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양시 소재 초등학생 및 중학생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4)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14.5.24.~5.27. 인천광역시	육상	여초 400mR	금	신혜린	비산초	
	수영	남초 접영 50m	동	장규성	안양부안초	
		여중 접영 100m	금	정승연	평촌중	
		남중 자유형 100m	은	이유연	신성중	
		남중 자유형 200m	은			
		남중 계영 400m	은			
		여중 접영 50m	은	정승연	평촌중	
		여중 혼계영 400m	은			
		남중 개인혼영 200m	동	김병준	신성중	
		남중 혼계영 400m	동	이유연		
	롤러	남초 1000m	금	신주성	부림초	
		남초 300mT.R	동			
		남초 3000m 계주	동			
				최현호	평촌초	
		여중 3000m 계주	은	박소연	귀인중	
	양궁	여초 20m	은	오은수	안양서초	
	탁구	여초 단체전	금	서경원 이윤지	만안초	
		여중 단체전	동	김예본	안양여중	
	볼링	남중 2인조전	금	정재원	범계중	
		여중 4인조전	금	이정민		
	테니스	남중 단체전	금	김재훈	신안중	
		여중 단체전	금	이은혜	안양서여중	
	축구	여중 단체전	금	김보현 외 15명	안양부흥중	
	사격	여중 공기권총 개인	동	권해람	부림중	
	유도	남중 51㎏ 이하	동	이호연	범계중	
	역도	남중 합계 94㎏ 이상	동	유 진	부안중	대회신기록
		남중 인상 94㎏ 이상	동			
		남중 용상 94㎏ 이상	동			

역도 부문에서 부안중학교 유진(남) 선수가 합계 94㎏ 이상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동메달을 차지했다.

안양시 소재 초등학생 및 중학생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5)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15.5.30.~6.02. 제주종합경기장	육상	남중 포환던지기	금	이민혁	관양중	
	수영	남초 접영 50m	금	박성환	샘모루초	
		남중 자유형 100m	금	이유연	신성중	대회신기록
		남중 개인혼영 200m	금			대회신기록
		남중 혼계영 400m	금			대회신기록
		남중 계영 400m	은			
	롤러	남초 1000m	동	박준수	부림초	
		남중 EP10000m	은	임두희	비산중	대회신기록
		남중 3000m 계주	은	김태양 임두희 박현수 안세민	비산중	
	테니스	여초 단체전	금	임희래 구연우	신안초	
		남중 단체전	금	심민석	신안중	
	탁구	여초 단체전	금	이새롬	만안초	
		여중 단체전	금	이윤지	안양여중	
	농구	남중 단체전	은	정연우 외 11명	호계중	
	볼링	여중 2인조전	금	이정민	범계중	
		여중 개인전	동			
		여중 4인조전	금	이정민 김현지	범계중	
	골프	남중 단체전	동	조우영	신성중	
	바둑	남중 단체전	동	김만중	호성중	

수영 부문에서 신성중학교 이유연(남) 선수가 자유형 1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 신성중학교 이유연(남) 선수가 개인혼영 2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 신성중학교 이유연(남) 선수가 혼계영 4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로 3관왕을 차지했다. 그리고 인라인롤러 부문에서 비산중학교 임두희(남) 선수가 EP1만m에서 은메달로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안양시 소재 초등학생 및 중학생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6)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16.5.28.~5.31. 강원도 강릉시	육상	여초 높이뛰기	동	최서정	안양초	
	수영	남초 접영 100m	금	장규성	부안초	
		남초 접영 50m	동	장규성		
		남초 계영 400m	동	장규성 김원준	부안초 안양동초	
		남중 계영 400m	은	오정훈	신성중	
	탁구	여초 단체전	금	최예진 장윤진	만안초	
	바둑	남초 단체전	은	강현재	범계초	
		남중 단체전	동	김만중	호성중	
	양궁	여초 단체종합	은	안서윤	안양서초	
	볼링	여중 4인조전	금	김단비	범계중	
		여중 2인조전	은			
	골프	남중 단체전	금	김민규 송태훈	신성중	

안양시 소재 초등학생 및 중학생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7)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17.5.27.~ 5.30. 충남 아산시	수영	여초 접영 50m	금	김은빈	안양신기초	
		남초 계영 400m	은	김원준	안양동초	
		여초 혼계영 200m	은	김은빈	안양신기초	
		여초 접영 100m	동			
		여초 접영 100m	동	박지민	샘모루초	
		남중 자유형 200m	은	오정훈	신성중	
		남중 접영 50m	은	안준성		
		남중 자유형 100m	동	오정훈		
		남중 혼계영 400m	동	안준성		
	농구	남초 단체전	금	임영찬 외 11명	벌말초	
	양궁	여초 단체종합	금	김서윤	안양서초	
		여중 단체종합	은	이수민	안양서중	
	유도	남초 개인전 65㎏ 이상	은	김성현	석수초	
	탁구	여초 단체전	은	장윤진	만안초	
	테니스	남초 단체전	동	노호영	비산초	
	볼링	여중 4인조전	은	홍윤진	범계중	
	골프	여중 단체전	은	손예빈	신성중	

안양시 소재 초등학생 및 중학생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8)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18.5.26.~5.29. 충북 충주시	육상	여중 높이뛰기	은	최서정	관양중	
	수영	남초 배영 100m	동	강태희	삼성초	
	테니스	남초 단체전	금	박지완	신안초	
	태권도	46㎏ 초과 50㎏ 까지	금	김태현	안양초	최우수상
	농구	남초 단체전	동	강민수 외 6명	벌말초	
		남중 단체전	동	정현석 외 11명	호계중	
	탁구	여초 단체전	동	김정인 외 3명	만안초	
	양궁	여중 40m	금	김세연	안양서중	
	볼링	남중 4인조	금	김성탁	범계중	
	골프	여중 단체전	금	황유민	신성중	

태권도 부문에서 안양초등학교 김태현(남) 선수가 49㎏ 초과 50㎏까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금메달을 받았다.

안양시 소재 초등학생 및 중학생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9)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19.5.25.~5.28. 전북 익산시	육상	여초 400m 계주	금	신은지	관양초	
		여초 멀리뛰기	금	신예빈		
		여초 200m	은	신은지		
	수영	남초 계영 400m	은	이정현	삼성초	
		남초 평영 50m	동			
		남중 혼계영 400m	금	김은총	신성중	
		남중 자유형 800m	금	장규성		
		남중 평영 100m	은	김은총		
		남중 자유형 400m	은	장규성		
		남중 계영 400m	동			
		남중 계영 400m	동	김태정		
	테니스	남초 단체전	동	박지완	신안초	
		남중 단체전	금	이해진, 주태완	신안중	
	탁구	여초 단체전	금	김수지, 이승은 최예서	만안초	
		여중 단체전	동	김지민, 최예진	안양여중	
	농구	남초 단체전	은	강현수 외 7명	벌말초	
	유도	남초 53㎏ 이하급	동	이주환	석수초	
	태권도	남초 38㎏ 초과 42㎏까지	금	문진호	안양초	
		남초 34㎏ 초과 38㎏까지	금	최봉혁		
		남초 46㎏ 초과 50㎏까지	동	오지훈		
		남초 54㎏ 초과 58㎏까지	동	황우혁		
	볼링	남중 4인조	금	박태연	범계중	
		남중 2인조	동			
	역도	남중 인상 69㎏	금	여대환	부안중	
		남중 합계 69㎏	동			
	펜싱	남중 플러레	동	최민규	부흥중	
	롤러	여중 500m+D	동	공지희	귀인중	

* 안양시 소재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참가하는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당초 2020.5.30.~ 6.02. 개최 예정, 개최지 서울특별시 일원)는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대회 참가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하여 2020년(제49회)과 2021년도(제50회)에는 열리지 않았다.

안양시 소재 초등학생 및 중학생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성적(2022)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22.5.28.~5.31. 경북 구미시	육상	2인조전	금	강지후	범계중	
		4인조전	금	강지후 임하일		
		2인조전	동	임하일		
	수영	남중 자유형 800m	금	황 건	신성	
		남중 접영 200m	금	이훈희		
		남중 계영 400m	은	이준상		
		남중 혼계영 400m	은	방수민		
				이우진		
	배구	남중 단체전	동	강민석 외 11명	연현중	
	탁구	여초 단체전	금	최예담	만안초	
		여중 단체전	금	김수지 박예령 이승은 최예서	안양서중	
	태권도	남중 41㎏ 초과 45㎏까지	금	서은수	성문중	
		남중 49㎏ 초과 53㎏까지	금	문진호		
		남중 69㎏ 초과 73㎏까지	은	오지훈		
		남초 34㎏까지	동	김강민	안양초	
		남초 38㎏ 초과 42㎏까지	동	김찬민		
	골프	여초 단체전	금	정서린	귀인초	
		여중 단체전	금	현세린	신성중	
		남중 단체전	동	박재현		

안양시 소재 초등학생 및 중학생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성적(2023)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2023.5.27.~5.30. 울산종합운동장	볼링	남중 2인조전	금	여승윤	범계중	
		남중 4인조전	금	여승윤		
		여중 4인조전	금	홍재령		
		여중 2인조전	동	홍재령		
	탁구	여중 단체전	금	박예령	안양여중	
		여초 단체전	동	김자인	만안초	
	테니스	남중 단체전	은	이성민	씽크론 아카데미	
	수영	여초 계영 400m	은	박혜원	삼성초	
		여초 자유형 200m	동			
		남중 접영 200m	동	이훈희	신성중	
	농구	남중 단체전	동	김건우 외 11명	호계중	
	배구	남중 단체전	동	강민석 외 11명	연현중	
	골프	남초 단체전	동	천지율	안양남초	

2. 전국체육대회 입상 성적

안양시의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성적은 2009년도(제90회)에 대회신기록 17개와 한국신기록 2개로 최고 성적을 거두어 시의 위상을 높였다. 그리고 2010년(제91회)에 대회신기록 6개와 한국신기록 2개, 2013년도(제94회)에 대회신기록 3개와 한국신기록 2개, 2016년도(제97회)에 대회신기록 2개와 한국신기록 1개로 해를 더할수록 많이 발전했다. 2017년(제98회) 이후에도 종목과 종별에서는 큰 발전을 보였다. 2009년(제90회)부터 2023년(제104회)까지 고등부와 대학부 그리고 일반부에 이르는 전국 규모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안양시 출신 선수들이 거둔 입상 성적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안양시 소재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 전국체육대회 입상 성적(2009)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0회 전국체육대회 2009.10.20.~10.26.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육상	남일 110m 허들	은	이정준	안양시청	
		여일 100m	은	오형미		대회신기록
		여일 4×100mmR	은			
		남일 4×100mmR	동	임성훈		
		남고 100m	금	김국영	평촌정보고	대회신기록
		남고 4×100mmR	금	김국영,임원재		
		남대 200m	금	여호수아	성결대	대회신기록
		남대 4×400mmR	금			
		남대 100m	은			
		남대 4×100mmR	은			대회신기록
	수영	남일 혼계영 400m	금	조유빈,정용	안양시청	대회신기록
		여일 계영 400m	은	선보경		
		여일 계영 800m	은	백일주		대회신기록
		여일 평영 50m	은	선보경		
		여일 혼계영 400m	은	변혜영,백일주		대회신기록
		여일 평영 50m	동	변혜영		
		여일 평영 100m	동			
		남고 계영 400m	금	김정훈	신성고	대회신기록
		남대 접영 200m	금	정 용	한국체대	대회신기록
		남고 자유형 100m	은	김정훈	신성고	
		여고 자유형 400m	은	지예원	관양고	
		여고 계영 400m	은			
		여고 계영 800m	은			
		여고 혼계영 400m	은	김민지		대회신기록
		남대 개인혼영 200m	동	김명환	성결대	
	롤러	남일 스피드 3000mT.R	금	이명규	안양시청	대회신기록
		남일 1000mO.R	금	남유종		대회신기록
		남일 스피드 3000m 계주	금	지민규,이명규 남유종,김민호		한국신기록
		여일 스피드 300mT.R	금	임진선		대회신기록
		여일 스피드 1000mO.R	금			
		여일 스피드 3000m 계주	금	조은진,공희다 김미영,임진선		한국신기록
		남일 스피드 15000m 제외경기	은	남유종		대회신기록
		여일 스피드 1000mO.R	동	김미영		
		여고 스3000m 계주	금	박정언,서소희	동안고	대회신기록
		남고 스피드 300mT.R	동	류헌규		
	역도	남일 인상 94㎏	금	김민재	안양시청	대회신기록
		남일 용상 94㎏	은			
		남일 합계 94㎏	은			대회신기록
		남고 용상 94㎏	금	서상혁	경기체고	
		남고 합계 94㎏	동			
	골프	단 체 전	금	김민휘	신성고	
		개 인 전	금			

육상 부문에서는 안양시청 오형미(여) 선수가 400m 계주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은메달, 평촌정보고등학교 김국영 선수와 임원재(남) 선수는 400m 계주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한 성결대학교 여호수아 선수는 1600m 계주에서 금메달과 400m 계주에서 은메달로 각각 대회신기록을 수립했다.

수영 부문에서는 안양시청 조유빈과 정용(남) 선수가 혼계영 400m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안양시청 백일주(여) 선수는 혼계영 4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은메달을 차지했고, 안양시청 변혜영·백일주(여) 선수는 혼계영 400m에서 대회신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그리고 신성고등학교 김정훈(남) 선수는 계영 4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한국체육대학교 정요(남) 선수는 접영 200m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관양고등학교 김민지(여) 선수는 혼계영 400m에서 대회신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인라인롤러 부문에서 안양시청 이명규(남) 선수는 스피드 3000mT.R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안양시청 남유종(남) 선수는 1000mO.R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받았다. 또한 안양시청 지민규, 이명규, 남유종, 김민호(남) 선수는 3000m 계주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받았다. 안양시청 임진선(여) 선수는 스피드 300mT.R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 안양시청 조은진·공희다·김영·임진선(여) 선수는 3000m 계주에서 한국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양시청 남유종(남) 선수는 15000m 제외경기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동안고등학교 박정언·서소희(여) 선수는 스피드 3000m 계주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다.

역도 부문에서 안양시청 김민재(남) 선수는 인상 94㎏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합계 94㎏에서도 대회신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선수들과 지도자 그리고 운동부 부장 교사들이 함께 노력하여 전국체육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안양시의 위상을 높였다.

안양시 소재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 전국체육대회 입상 성적(2010)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1회 전국체육대회 2010.10.6.~10.12. 경남 진주시	육상	여일 100m허들	금	이연경	안양시청	
		남일 200m	은	김국영		
		남일 4×100mR	은			대회신기록
		남일 100m	동			
		남대 4×400mR	금	장총명 이상천	성결대	대회신기록
		남대 4×100mR	은	장총명 임원재		
		여대 400m허들	은	김혜인		
	수영	여일 계영 800m	금	백일주	안양시청	
		여일 계영 400m	동			
		남일 혼계영 400m	동	조유빈		
		여고 자유형 400m	금	지예원	관양고	한국신기록
		여고 자유형 800m	금			
		여고 계영 800m	금			
		여고 혼계영 400m	금			
		남고 계영 400m	은	김정훈	신성고	
		남고 계영 800m	은			
		여고 계영 400m	은	이예진 지예원	관양고	
		남대 평영 100m	동	김명환	성결대	
		남대 평영 50m	동			
	롤러	여일 스피드 3000m 계주	금	김미영 이다솜 이초롱 조은진	안양시청	한국신기록
		여일 스피드 300mT.R	은	김미영		
		남일 1000mO.R	동	남유종		
		남일 스피드 3000m 계주	동	김두환 남유종 김민호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1회 전국체육대회 2010.10.6.~10.12. 경남 진주시	롤러	남고 스300mT.R	금	류헌규	동안고	대회신기록
		여고 스E+P10000m	금	유가람		
		여고 스15000m 제외경기	금			대회신기록
		남고 스1000mO.R	은	류헌규		
		여고 스E+P10000m	은	이소영		
		여고 스피드 3000m 계주	은	박정언 유가람		대회신기록
		남고 스피드 15000m 제외경기	동	정훈종		대회신기록
	볼링	5인조 경기	금	윤태익	동안고	
		3인조 경기	은			
		개인전	은			
	농구	남고 단체전	금	단체전	안양고	
	스쿼시	여고 개인전	은	최유라	백영고	
	댄스스포츠	고등부	금	송혜리	안양예술고	

육상 부문에서는 안양시청 김국영(남) 선수가 400m 계주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은메달, 성결대학교 장총명·이상천(남) 선수는 1600m 계주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받았다.

수영 부문에서는 관양고등학교 지예원(여) 선수가 자유형 4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인라인롤러 부문에서 안양시청 김미영·이다솜·이초롱·조은진(여) 선수가 스3000m 계주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한 동안고등학교 류헌규(남) 선수는 스300mT.R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유가람(여) 선수는 스피드15000m 제외경기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리고 동안고등학교 박정언·유가람(여) 선수는 스피드3000m 계주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은메달, 동안고등학교 정훈종(남) 선수는 스피드 15000m 제외경기에서 대회신기록으로 동메달을 받았다.

안양시 소재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 전국체육대회 입상 성적(2011)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2회 전국체육대회 2011.10.6.~ 10.12. 경기도 고양시	육상	남일 400m 계주	금	김국영,김진국	안양시청	
		여일 400m 계주	은	오형미,김소연		
		남일 200m	동	김국영		
		여일 100m 허들	동	안재희		
		남대 400m	금	성혁재	성결대	
		남대 400m 계주	금	임원재,마인강		대회신기록
		남대 1600m 계주	금	조성학,성혁재		
		여대 400m허들	동	김혜인		
	수영	여일 자유형 200m	은	김정혜	안양시청	
		여일 계영 800m	은	김정혜,전미경 김주연,채명화		
		남일 계영 800m	은	원동현		
		여일 접영 50m	동	정재희		
		남고 계영 800m	은	김정훈	신성고	
		남고 자유형 100m	은			
		남고 계영 400m	은			
		남고 평영 200m	은	양철영		
		남고 배영 200m	동	임태정		
		여고 계영 400m	은	이예진	관양고	
		여고 혼계영 400m	은			
		여고 계영 800m	은			
		여고 배영 200m	동	이자경		
	롤러	남일 15000m	금	남유종	안양시청	대회신기록
		남일 10000mOR	금			
		여일 10000mOR	금	김미영		
		여일 15000m	은	이나나		
		여일 3000m 계주	은	이나나,김미영 박정언,장수지		
		남일 E+10000	동	조우상		
		남일 3000m계주	동	남유종,김민호 김두환,이영우		
		여고 E+10000m	금	이소영	동안고	
		여고 3000m 계주	금	이소영,서소희 우라름		
		여고 E+10000m	동	유가람		
		남고 E+10000m	동	정홍래		
		남고 15000m	동	정훈종		
		여고 15000m	동	유가람		
	스쿼시	여자부 개인전	금	최유라	백영고	
	댄스 스포츠	라틴댄스	금	심영은	신성고	
		스탠더드	금	김동찬		
	골프	단체전	금	김대환	신성고	
	볼링	5인조 경기	은	정지은	평촌고	
	농구	남고 단체전	동	단체전	안양고	

안양시 소재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 전국체육대회 입상 성적(2012)　　* 자료를 찾을 수가 없음.

안양시 소재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 전국체육대회 입상 성적(2013)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4회 전국체육대회 2013.10.18.~10.24. 인천광역시	육상	여일 400m 계주	금	김소연	안양시청	
		남일 400m 계주	금	조규원,김진국		
		남일 200m	동	조규원		
		남대 400 계주	은	김우삼	성결대	
	수영	여일 스피링보드1m	은	임주영	안양시청	
		여일 싱크로다이빙 3m	은			
		여일 스피링보드3m	은			
		여일 평영 50m	은	정하은		
		남고 배영 200m	금	임태정	신성고	대회신기록
		남고 개인혼영 200m	은			
		남고 계영 800m	은			
		남일 평영 50m	은	김명환	성결대	
		남고 혼계영 400m	은	임태정	신성고	
		남일 평영 100m	동	김명환	성결대	
		여고 계영 400m	동	이아선	관양고	
		여고 자유형 200m	동			
		여고 계영 800m	동			
		여고 혼계영 400m	동	이아선,박새미		
	롤러	여일 스E+P10000m	금	유가람	안양시청	
		여일 스15000m 제외	금			
		남일 스1000mO.R	은	박응배		대회신기록
		남일 스300mT.R	은	엄한준		
		남일 스3000m 계주	은	최봉주,조우상 엄한준,박응배		한국신기록
		여일 스3000m 계주	은	유가람,김미영 장수지,박정언		한국신기록
		여일 1000mO.R	동	김미영		
		여고 스300mT.R	은	김희수	동안고	
		여고 Tm3000m 계주	동	이해원,김희수		대회신기록
	볼링	남고 3인전	금	신은석	동안고	
		남고 5인전	금			
	태권도	남고 -54㎏급	동	김창진	성문고	
		남고 -80㎏급	동	천 한 웅		
	골프	여일 단체전	금	인주연,이소영	안양여고	
		여일 개인전	금	이소영		
		여일 개인전	은	인주연		
		남일 단체전	은	박장호,곽현진	신성고	
	댄스스포츠	고등 스탠더드 3종목	금	최유리	안양예고	
		고등 스탠더드 5종목	금	김동찬	신성고	
		고등 라틴 5종목	동	김홍인	안양예고	

수영 부문에서는 신성고등학교 임태정(남) 선수가 배영 2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인라인롤러 부문에서 안양시청 박응배(남) 선수가 스1000mO.R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은메달을, 최주봉·조우상·엄한준·박응배(남) 선수는 스3000m 계주에서 한국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받았다. 안양시청 유가람, 김미영, 장수지, 박정언(여) 선수는 스3000m 계주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받았다. 그리고 동안고등학교 이해원, 김희수(여) 선수는 Tm3000m 계주에서 대회신기록으로 동메달을 받았다.

안양시 소재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 전국체육대회 입상 성적(2014)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5회 전국체육대회 2014.10.28.~11.3. 제주특별자치도	육상	남일 4×100mR	금	김국영	안양시청	
		남일 4×400mR	금	박세정		
		남일 100m	은	김국영		
		남일 200m	동			
		남대 4×100mR	금	김우삼	성결대	
	수영	여일 싱크로다이빙10m	금	이예림	안양시청	
		남일 배영 200m	금	임태정		
		남일 혼계영 400m	은			
		여일 개인혼영 400m	동	정하은		
		남고 자유형 1500m	금	이태구	신성고	
		남고 개인혼영 200m	금	구기웅		
		남고 개인혼영 400m	금			
		남일 배영 50m	은	정동원	성결대	
		남고 계영 800m	은	구기 웅	신성고	
		남고 계영 400m	동			
		여고 혼계영 400m	동	이아선	관양고	
	롤러	여일 스E+P10000m	금	유가 람	안양시청	
		여일 스15000m 제외	은			
		여고 스1000mO.R	금	김희수	동안고	
		여고 스300mT.R	은			
		여고 스3000m 계주	은	김희수,최은솔		대회신기록
		여고 스300mT.R	동	최은솔		
	볼링	여고 5인조 경기	금	장지원	평촌고	
	탁구	여고 개인전	은	이유진	안양여고	
	스쿼시	남고 개인전	은	류한동	백영고	
		여고 개인전	은	허민경		
	골프	여일 단체전	금	이소영	안양여고	
		여일 개인전	금			
	댄스스포츠	고등 라틴 3종목	동	노민국	신성고	

인라인롤러 부문에서 동안고등학교 김희수, 최은솔(여) 선수는 스3000m 계주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안양시 소재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 전국체육대회 입상 성적(2015)

구 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6회 전국체육대회 2015.10.16.~10.22. 강원도 강릉	육상	100m	금	김우삼	성결대	
		4×100mR	금			
		4×100mR	은	박세정	안양시청	
		원반던지기	은	이수진	평촌경영고	
	수영	배영 50m	은	김산하	안양시청	
		자유형 800m	동	박찬이		
		배영 200m	동	김산하		
		접영 200m	동	이정민		
		개인혼영 400m	동	정하은		
		혼계영 400m	동	정하은,이정민 김산하		
		계영 800m	동	박찬이,이정민 정하은		
		접영 50m	금	정승연	안양고	
		혼계영 400m	금			
				이아선	관양고	
		자유형 1500m	금	이태구	신성고	
		계영 800m	은			
		계영 800m	동	정승연	안양고	
		접영 100m	동			
		자유형 400m	동	이태구	신성고	
		혼계영 400m	동			대회신기록
		계영 400m	동			
		개인혼영 400m	동	김병준		
		자유형 200m	동	이아선	관양고	
		자유형 400m	동			
	롤러	스피드E+P10000m	은	유가람	안양시청	
		스피드 15000m 제외 경기	동			
		스피드 1000mOR	금	김희수	동안고	
		스피드 3000m 계주	금	김희수 최은솔		
		스피드 1000mOR	은	최은솔		
		스피드 3000m 계주	은	박경휘,이성훈 이상현		
		스피드 3000mTR	동	최은솔		
	볼링	여고 3인조	동	정정윤	평촌고	
		여고 5인조	동			
	스쿼시	개인전	금	류한동	백영고	
		개인전	은	오승희		
	댄스스포츠	라틴 5종목	은	손유진,길정호	안양예고	
		스탠더드 3종목	은	문유빈		
				정동주	신성고	
		스탠더드 5종목	동	김주빈		
				김세리	안양예고	

수영 부문에서는 신성고등학교 이태구(남) 선수는 혼계영 4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동메달을 차지했다.

안양시 소재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 전국체육대회 입상 성적(2016)

구 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7회 전국체육대회 2016.10.7.~10.13(7일간) 충남 아산시	육상	남일 4×100MR	은	김진국,조규원	안양시청	
		남대 100m	금	김우삼	성결대	
		남대 4×100R	금	이우세,김우삼		
		여대 100m	은	오선애		
		여대 200m	은			
	수영	남일 혼계영 400m	금	김정훈	안양시청	
		남일 자유형 100m	은			
		여일 개인혼영	은	정하은		
		여일 자유형 800m	동	정유라		
		남일 접영 200m	동	정 용		
		남일 계영 400m	동	김정훈		
		남고 접영 200m	금	이태구	신성고	한국신기록
		남고 자유형 200m	금	이유연		
		남고 자유형 400m	금			
		남고 계영 800m	은	이유연,이태구		
		여고 계영 800m	은	정승연	안양고	
		여고 혼계영 400m	은			
		남고 혼계영 400m	은	이유연,이태구	신성고	대회신기록
		여고 접영 50m	동	정승연	안양고	
		남고 개인혼영 200m	동	김병준	신성고	
		남고 계영 400m	동	이태구,이유연		
		남고 개인혼영 400m	동	김병준		
	롤러	스피드E+P10000m	금	유가람	안양시청	
		스피드15000m 제외경기	금			
		스피드15000m 제외경기	금	김진영		
		스피드E+P10000m	은	정홍래		
		남고 스피드 100MOR	은	박경휘	동안고	대회신기록
		여고 스피드 3000m 계주	동	염혜빈,송혜원		
	양궁	여고 50m	금	전완서	성문고	
		여고 단체전	은			
		여고 30m	동			
	스쿼시	여고 개인전	금	오승희	백영고	
		남고 개인전	금	류한동		
	볼링	여고 개인전	금	김현지	평촌고	
		여고 3인조전	금	신진원		
		여고 2인조전	은	이정민		
		남고 2인조전	동	신진원		
		여고 3인조전	동	이정민		
		여고 5인조전	동	김현지,이정민		
	스쿼시	여고 개인전	금	오승희	백영고	
		남고 개인전	금	류한동		
	농구	남고 단체전	은	양승연 외 11명	안양고	
	태권도	여고 -73㎏	금	명 미 나	성문고	

구 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댄스 스포츠	고등 스탠더드 5종목	금	문 유 빈	안양예술고	
				정 동 주	신성고	
		고등 라틴 5종목	동	김 동 구		
				조 은 애	안양예고	

수영 부문에서는 신성고등학교 이태구(남) 선수는 접영 2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신성고등학교 이유연·이태구(남) 선수는 혼계영 400m에서 대회신기록으로 은메달을 받았다.

인라인롤러 부문에서 동안고등학교 박경휘(남) 선수는 스피드100mOR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은메달을 받았다.

안양시 소재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 전국체육대회 입상 성적(2017)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8회 전국체육대회 2017.10.20.~10.26. 충북 충주시	육상	남대 4×100mR	금	김영우	성결대	
		여대 100m	은	오선애		
	수영	여일 자유형 800m	은	이해림	안양시청	
		여일 자유영 400m	동			
		여일 평영 50m	동	정하은		
		남고 자유형 1500m	금	이유연	신성고	
		남고 자유형 100m	은			
		남고 계영 400m	은			
		남고 계영 800m	은			
		남고 혼계영 400m	동			
	롤러	스피드15000m 제외경기	금	유가람	안양시청	
		스피드E+P10000m	은			
		스피드3000m 계주	동	정홍래,김왕남		
	우슈	남일 75㎏	은	이광용	안양시체육회	
	골프	여일(단체전)	금	이슬기	신성고	
	양궁	여고 단체전(시범종목)	동	조수아,이유림	성문고	
		여고 30m(시범종목)	동	조수아		
	스쿼시	남고 개인전	동	김남경	백영고	
		여고 개인전	동	오승희		
	태권도	여고 -73㎏급	금	명미나	성문고	
		여고 단체전(시범종목)	금			
	볼링	여고 3인조전	금	김현지	평촌고	
		여고 5인조전	금			
		여고 마스터스	금			
		여고 개인전	은			
		여고 2인조	동			
	댄스 스포츠	고등(스탠더드 5종목)	금	정동주	신성고	
			금	문유빈	안양예술고	
		고등(라틴 5종목)	금	김준규		
			금	전주연		

안양시 소재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 전국체육대회 입상 성적(2018)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9회 전국체육대회 2018.10.12.~10.18. 전북 익산	육상	남일 4×100mR	금	이지우	안양시청	
		남일 200m	동	양창성		
		남대 4×100mR	금	김영현	성결대	
		여대 높이뛰기	은	장선영	한국체대	
	수영	남일 자유형 1500m	금	구기웅	안양시청	
		남일 자유형400m	동			
		남일 계영 800m	동			
		여일 자유형 800m	은	이정민		
		여일 계영 800m	동	이정민 송민주 정하은		
		남일 접영 200m	금	이태구	한국체대	
		남일 배영 50m	금	정동원	성결대	
	롤러	스피드 15000m 제외경기	금	유가람	안양시청	
		스피드 E+P10000m	금			
	양궁	여일 70m컴파운드	은	조수아	성문고	
	스쿼시	여고 개인전	금	송채원	백영고	
		남고 개인전	동	김석진		
	테니스	남고 단체전	은	심민석	양명고	
		남대 단체전	동	신동휘	성결대	
	볼링	여고 2인조전	금	이정민	평촌고	
		여고 3인조전	금			
		여고 5인조전	금	이정민 김현지		
		여고 3인조전	은	김현지		
		여고 마스터즈	동	이정민		
	댄스스포츠	고등(스탠더드 3종목)	금	이현주	안양예고	
		고등(라틴 5종목)	동	이예본 최준영		

안양시 소재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 전국체육대회 입상 성적(2019)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2019.10.4.~10.10. 서울특별시	육상	남대 4×400mR	금	신윤섭	성결대	
		여대 400m 허들	은	하제영		
		여대 멀리뛰기	동	고지혜		
		여대 원반던지기	동	이수진	한국체대	
	수영	여일 자유형 800m	은	이정민	안양시청	대회신기록
		여일 개인혼영 400m	은	정하은		
		여일 개인혼영 200m	동			
		여일 평영 200m	동	권세현		
		남일 자유형 400m	동	이유연	한국체대	
		남일 계영 400m	동			
		남고 계영 800m	동	오정훈	신성고	
	롤러	여일 스피드 15000m 제외경기	금	유가람	안양시청	
		여일 스피드 E+P10000m	금			
	양궁	여일 50m 컴파운드	금	조수아	성문고	대회신기록
		여일 단체 컴파운드	동			
	농구	남고 단체전	은	김도은 외 10명	안양고	
	테니스	남고 단체전	은	김형진	양명고	
	태권도	여대 -73㎏급	금	명미나	경 희 대	
		여고 -62㎏급	은	송나연	성문고	
	댄스스포츠	고등 스탠더드 3종목	금	장은서	안양예고	
				유지혁	신성고	
		고등 라틴 5종목	은	김민서	안양예고	
	보디빌딩	남일 미들급 85㎏	은	강민우	신강헬스	
	골프	여일 단체전	금	손예빈	신성고	
		남일 단체전	은	조우영,김윤구		

* 안양시 소재 고등학생 및 일반 선수가 참가하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2020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했다.

수영 부문에서는 안양시청 이정민(여) 선수가 자유형 8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양궁 부문에서는 성문고등학교 조수아(여) 선수가 50m 컴파운드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안양시 소재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 전국체육대회 입상 성적(2021)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2021.10.8.~10.14. 경상북도 구미	수영	남고 혼계영 400m	은	김태정,이기승	신성고	
	테니스	남고 단체전	동	김형진,엄두현 이윤택,이해진	양명고	
	양궁	30m	금	안서유	성문고	
		60m	은			
		50m	은			
		혼성단체전	은			
	볼링	남고 3인조	금	박태연	평촌고	
		남고 5인조	금			
	롤러	스프린트500m+D	동	박재연	동안고	대회신기록
		여고 스피드 3000m 계주	은	박재연		
				정준희		
	댄스스포츠	라틴 3종목	은	김민서	안양예고	
		라틴 5종목(시범종목)	동	윤민준,최혜원		

* 안양시 소재 고등학생 및 일반 선수들이 참가하는 2021년 102회 전국체육대회는 2021년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대한민국 경상북도 구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인 팬데믹(감염병)으로 인하여 일반부와 대학부는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입시를 위하여 대회 참가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과 보호 의무를 잘 지키면서 대회 성적이 필요한 고등부 선수들의 경기만 개최되었으며 종합순위는 가리지 않았다.

인라인롤러 부문에서 동안고등학교 박재연(여) 선수는 스프린트500m+D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동메달을 차지했다.

안양시 소재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 전국체육대회 입상 성적(2022)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2022.10.7.~10.13. 울산광역시	수영	배영 50m	금	김 산 하	안양시청	
		배영 100m	금			
		개인혼영 200m	은	정 하 은		
		개인혼영 400m	은			
		자유형 400m	은	이 정 민		
		자유형 800m	은			
		평영 200m	은	권 세 현		
		자유형 1500m	은	최 용 진		
		자유형 200m	동	박 정 주		
		계영 400m(단체전)	동	김산하,박정주		
		자유형 1500m	동	오 세 범		
		자유형 200m	동	이 유 연		
		자유형 100m	동			
		계영 800m 단체전	동			
		계영 800m	은	김 은 총	신성고	
		혼계영 400m(단체전)	은	김 태 정		
		계영 400m(단체전)	동	김은총,김태정		
	육상	4×400mR	금	신혜린,하제영	성결대	
		400m	동	하 제 영		
		4×100mR	은	문해진,이정태	안양시청	
	롤러	스피드E+10,000m	금	유 가 람		
		스피드10000m 제외경기	금			
	볼링	2인조	금	남 다 민	평촌고	
		3인조	금			
		5인조	금			
		개인전	금	조 용 훈		
	댄스스포츠	라틴 5종목	은	김동성,양지민	안양예고	

안양시 소재 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 전국체육대회 입상 성적(2023)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2023.10.13.~10.19. 전남 목포	육상	4×400mR	금	노다원	성결대	
		4×400mR(mixed)	동	신혜린		
		4×100mR	은	문해진,이정태	안양시청	
		4×400mR(mixed)	은	하제영		
	수영	여일 배영 50m	금	김산하	안양시청	
		여일 배영 100m	금			
		여일 평영 200m	금	권세현		
		여일 자유형 200m	금	박정주		
		남일 자유형 800m	금	김영현		
		남일 자유형 400	동			
		남일 자유형 1500	은	오세범		
		남일 계영 800	동	김영현		
				여승빈	성결대	
		여일 자유형 400	은	이정민	안양시청	
		여일 자유형 1,500	은	문희원		
		여일 평영 100	동	권세현		
		여일 혼계영 400	은	김산하,권세현		
		여일 계영 400	동	박정주,김산하		
		여일 계영 800	동	박정주,이정민		
		남고 자유형 200	은	김태정	신성고	
		남고 자유형 1500	은	황 건		
		남고 평영 50	은	김은총		
		남고 혼계영 400	동	김태정		
		남고 계영 400	동	김태정,김은총		
		남고 계영 800	은	김은총,김태정		
	롤러	스피드E+P10000m	은	유가람	안양시청	
		스피드10000m 제외경기	동			
		스피드3000m 계주	동	유가람,권부송 정고은		
		스피드1000mO.R	동	정준희	동안고	
	볼링	3인조	금	박태연	평촌고	
		5인조(단체전)	금	박태연,강지후		
		마스터즈	금	박태연		
		5인조	금	박시은		
		2인조	금	강지후		
		3인조	동			
	댄스스포츠	룸바(R)	은	김동성,에예림	안양예고	
		차차차(C)	은	윤민준		
		파소도블레(Pa)	동	김동성,이예림		
	테니스	단체전	동	박지완,엄동현	양명고	
		개인전 단식	동	추주훈		
	양궁	60m	은	김미강	성문고	
		50m	동			

3.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입상 성적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복싱, 역도, 마라톤)의 입상 성적은 해를 더할수록 많이 발전했다. 2014년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를 필두로 하여 2023년까지 전국 규모의 실업 선수들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는 대회에서 안양시 출신 복합운동부 선수들이 메달을 차지하며 거둔 입상 성적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복싱 입상 성적(2014)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2014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복싱대회 2014.4.6.~4.10. 경북 영주 (국민체육센터)	복싱	91㎏	1위	이근희	안양시체육회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역도 입상 성적(2015)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제53회 전국남자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 2015.3.25.~ 3.30. 강원, 양구(용하체육관)	역도	인상	동	한지환	안양시체육회
2015 전국실업역도 선수권대회 2015.3.30.~ 4.2. 전남 보성(다향체육관)		용상	금	김세혁	
		합계	금		
제63회 전국춘계남자 역도경기대회 2015.4.17.~ 4.22. 충남 청양(군민체육관)		인상	금	한지환	
		용상	금		
제87회 전국남자 역도선수권대회 2015.7.6.~7.13. 경남 고성(역도전용경기장)		인상	은	김세혁	
		합계	은		
2015 한국실업역도 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 2016.7.20.~7.23. 강원 양구(용하체육관)		인상	은	유광근	
		합계	은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마라톤 입상 성적(2015)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제1회 대구전국실업 육상경기대회 2015.2.26. (대구육상진흥센터 내 실내육상경기장)	마라톤	3000m	2위	김미선	안양시체육회
제69회 전국육상경기 선수권대회 2015.6.26.~ 6.30. (문경 국군체육부대 육상경기장)		10000m	3위	김미희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복싱 입상 성적(2015)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제47회 전국복싱 우승권복싱대회 2015.11.27.~ 11.30. 충남 청양(군민체육관)	복싱	81㎏	1위	김승우	안양시체육회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역도 입상 성적(2016)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제54회 전국남자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 2016.3.24.~ 3.29. 전남 보성(다향체육관)	역도	인상	은	한지환	안양시체육회
		용상	은		
전국실업역도 선수권대회 2016.3.21.~ 3.23. 전남 보성(다향체육관)		인상	금	유광근	
			동	김정규	
			동	김세혁	
		용상	은	유광근	
			동	김정규	
전국남자역도 선수권대회 2016.4.21.~ 4.28. 경남 고성(역도전용경기장)		인상	금	유광근	
			동	김정규	
			동	한지환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용상	동	김정규	안양시체육회
			동	한지환	
		합계	금	유광근	
제64회 전국춘계남자 역도경기대회 2016.6.23.~ 6.28. 강원 양구(용하체육관)		용상	금	배한솔	
		합계	금		
한국실업역도 연맹회장배 역도경기대회 2016.7.20.~ 7.23. 강원 양구(용하체육관)		인상	동	김세혁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역도 입상 성적(2017)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한국실업역도 회장배역도대회 2017.7.20.~ 7.24. 강원도 양구(용하체육관)	역도	인상	동	김세혁	안양시체육회
				김정규	
		용상	동	김세혁	
		합계	동	김정규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마라톤 입상 성적(2017)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경기국제 하프마라톤대회 2017.2.26. 수원종합운동장 및 수원시 일원	마라톤	하프마라톤	6위	김미희 이은혜	안양시체육회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복싱 입상 성적(2017)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제7회 한국실업복싱 협회장배 전국실업복싱대회 2017.7.20.~ 7.24. 강원 홍천(실내체육관)	복싱	56㎏	3위	김대성	안양시체육회
		81㎏	3위	김승우	
		91㎏	3위	이근희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역도 입상 성적(2018)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한국실업역도 선수권대회 2018.3.27.~ 3.30. 강원 양구(용하체육관)	역도	용상	금	신기안	안양시체육회
		합계	금		
한국실업역도 회장배역도대회 2017.07.20.~ 07.24. 강원 양구(용하체육관)		인상	동	김세혁	
			동	김정규	
		용상	동	김세혁	
		합계	동	김 정 규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역도 입상 성적(2019)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전국실업역도 선수권대회 2019.3.12.~ 3.15. 강원 양구(용하체육관)	역도	용상	동	신기안	안양시체육회
		합계			
제78회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 2019.4.4.~ 4.9. 서울 올림픽 역도경기장		인상	동	유광근	
			동	배한솔	
			은	장하늘	
			은	신기안	
			은	임희창	
			동	김해운	
		용상	은	유광근	
			동	배한솔	
			은	장하늘	
			은	신기안	
			은	임희창	
		합계	은	유광근	
			동	배한솔	
			은	장하늘	
			은	신기안	
			은	임희창	
제67회 전국춘계남자 역도경기대회 2019.4.24.~ 5.2. 강원 양구(용하체육관)		인상	동	김해운	
			동	장하늘	
		용상	동		
		합계	동		
			동	김해운	
한국실업역도연맹 회장배역도대회 2019.7.20.~ 7.23. 강원 양구(용하체육관)		인상	동	신기안	
		합계	은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마라톤 입상 성적(2019)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제1회 말레이시아오픈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2019.3.28.~ 3.31.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	마라톤	여일(800m)	3위	윤승태	안양시체육회
제81회 싱가포르오픈 육상선수권대회 2019.3.28.~ 3.29.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		남일(5000m)	3위	고준석	
태국오픈 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19.5.16.~ 5.22. 태국 방콕		여일(3000m)	2위	임지수	
2019 HAPPY700 평창 대관령 전국하프 마라톤대회 2019.8.16. 강원 평창 대관령 일원		여일 단체	6위	임지수 김희연 윤승태	
조선일보 주니어하프마라톤대회 2019.10.27. 강원 춘천		개인	2위	임지수	
			3위	윤승태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복싱 입상 성적(2019)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전국종별 복싱선수권대회 2019.6.20.~ 6.24. 청양군민체육관	복싱	91㎏	3위	김승우	안양시체육회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역도 입상 성적(2020)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제68회 전국춘계남자 역도경기대회 2020.7.16.~ 7.23. 충남 서천	역도	인상	금	신기안	안양시체육회
			금	하명찬	
			은	장하늘	
		용상	금	신기안	
			금	하명찬	
			은	장하늘	
		합계	금	신기안	
			금	하명찬	
			은	장하늘	
전국실업역도 선수권대회 2020.8.11.~ 8.14. 강원 양구(용하체육관)		합계	동	하명찬	
제79회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 2020.10.14.~ 10.19. 강원 양구(용하체육관)		인상	은	하명찬	
		용상	금	신기안	
			금	임희창	
			은	하명찬	
		합계	금	신기안	
			은	임희창	
			은	하명찬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역도 입상 성적(2021)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전국실업역도 선수권대회 2021.3.27.~ 3.30. 강원 양구(용하체육관)	역도	용상	은	신기안	안양시체육회
		합계	동		
제69회 전국춘계남자 역도경기대회 2021.3.31.~ 4.7. 강원 양구(용하체육관)		용상	금	김남혁	
			금	김해운	
			은	홍요한	
			동	정운현	
		합계	금	김남혁	
			은	홍요한	
			동	김해운	
			동	정운현	
제80회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 2021.5.7.~ 5.12. 전남 강진		용상	은	신기안	
			동	정운현	
		합계	은	신기안	
			동	정운현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역도 입상 성적(2022)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제70회 전국춘계남자 역도경기대회 2022.4.6.~ 4.14 강원 양구(용하체육관)	역도	인상	금	정운현	안양시체육회
			은	손찬영	
		용상	은	정운현	
			은	손찬영	
		합계	금	정운현	
			은	손찬영	
제81회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 2022.5.7.~ 5.13. 충남 서천(군민체육관)		인상	은	신기안	
			은	정운현	
		용상	동	신기안	
			동	홍요한	
		합계	은	정운현	
			동	신기안	
전국실업역도 선수권대회 2022.11.8.~ 11.11. 충남 서천(군민체육관)		인상	동	손찬영	
		용상	금	신기안	
			동	손찬영	
		합계	은	신기안	
			동	정운현	
제60회 전국남자주니어 역도선수권대회 2022.11.18.~ 11.25. 전남 완도(청해진스포츠센터)		인상	은	정운현	
		용상	금	김연산	
			은	정운현	
		합계	금	김연산	
			은	정운현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마라톤 입상 성적(2022)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제주 전국로드레이스대회 2022.1.23 제주 한림종합운동장	마라톤	개인	5위	김연아	안양시체육회
		단체	5위	김연아 임은하 김미희	
제16회 한국실업육상연맹 전국크로스컨트리대회 2022.2.13. 서귀포 강창학경기장		단체	4위	고준석 최준우 박진범	
제26회 전국실업육상경기 선수권대회 2022.3.30.~ 4.1. 전남여수망마경기장		개인	3위	김연아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2022.7.6.~ 7.8. 강원도 고성종합경기장		개인	3위	김연아	
농민사랑 전북익산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ChampionShip대회 2022.8.30.~ 9.`1. 익산종합경기장		개인	3위	김연아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역도 입상 성적(2023)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제1회 대한역도연맹 회장배 전국역도경기대회 2023.3.29.~ 4.5. 강원 양구(용하체육관)	역도	인상	동	신기안	안양시체육회
		인상	은	손찬영	
		용상	동		
		합계	동		
제71회 전국춘계남자 역도경기대회 2023.4.19.~ 4.26. 충남 당진(신성대학교 체육관)		인상	금	손찬영	
		용상	금		
		합계	금		
제82회 문곡서상천배 역도경기대회 2023.6.1.~ 6.8. 충남, 서천(군민체육관)		인상	은	신기안	
			은	임희창	
			동	손찬영	
		용상	동	박재균	
			동	손찬영	
		합계	동	박재균	
			동	손찬영	
			동	신기안	
			동	임희창	
한국실업역도 연맹회장배역도경기대회 2023.7.24.~ 7.27. 강원 양구(용하체육관)		용상	은	박재균	
			동	신기안	
		합계	동	박재균	
			동	신기안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마라톤 입상 성적(2023)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Amazing 익산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2023.3.29.~ 3.31. 익산종합경기장	마라톤	개인	금	하제영	안양시체육회
싱가포르오픈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2023.4.26.~ 4.28. Tentative Home of Athletics		5000m	은	김연아	

4.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성적

안양시는 2014년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 3개를 수립하며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시의 위상을 높였다. 그리고 2016년도와 2022년도에도 각각 대회신기록 2개를 수립하는 등 나날이 발전했다. 2009년(제90회)에 초등부와 중등부에서 좋은 성적을 낸 이후 고등부와 일반부로까지 성장한 것이다. 전국의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안양시 출신 선수들이 거둔 입상 성적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안양시 소재 초·중·고·대학·일반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성적(2009)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009.2.10.~2.13. 서울, 경기, 강원 등	쇼트트랙	여중 500m	금	이소연	평촌중	
		여중 3000m	금	노도희		
		남초 2000m 릴레이	은	황대헌	안일초	
		여중 500m	은	김담민	부림중	
		여중 1000m	은	이소연	평촌중	
		여중 2000m 릴레이	은	노도희,이소연, 신지은		
	피겨	여중 싱글B조	금	곽민정	평촌중	
		남초 싱글C조	은	양재협	신기초	
		여중 싱글B조	은	김혜린	평촌중	
	스피드	남초 3000m	은	김민석	범계초	

안양시 소재 초·중·고·대학·일반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0)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010.2.2.~2.5. 서울, 강원 등	쇼트트랙	남초 1500m	금	황대헌	안일초	
		남초 2000m	금	황대헌		
		남초 2000m 릴레이	금	황대헌		
		여중 3000m 릴레이	금	김담민	부림중	
				이승진	평촌중	
				노도희		
		여중 1500m	금	노도희		
		여중 3000m	금	노도희		
		여고 500m	금	이소연	평촌고	대회신기록
		여고 1000m	금	이소연		
		남중 3000m 릴레이	은	박태언	평촌중	
		여중 3000m	은	김담민	부림중	
		여중 500m	동	김담민		
		여중 1000m	동	이승진	평촌중	
	피겨	여초 싱글B조	은	조경아	부흥초	
		여초 싱글D조	은	김태경	평촌초	
		여초 싱글B조	동	최 휘	부흥초	
		여초 싱글C조	동	박경원	안양동초	
		남중 싱글C조	동	양재협	평촌중	
		여중 싱글B조	동	김혜린		
	스피드	남초 1600m 팀추월	은	김민석	범계초	
		남초 1500m	동	김민석		

쇼트트랙 부문에서 평촌고등학교 이소연(여) 선수는 5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안양시 소재 초·중·고·대학·일반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1)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2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011.2.15.~2.18. 서울, 강원, 전북	쇼트트랙	남초 1500m	금	황대헌	안일초	
		남초 2000m	금			
		남초 2000m 릴레이	은			
		여중 3000m 릴레이	금	노도희	평촌중	
		남중 3000m 릴레이	은	박태언		
		남중 1000m	은	박태언		
		여고 3000m 릴레이	금	이승진	평촌고	
		여고 3000m	동			
		남고 3000m 릴레이	은	김철민	부 흥 고	
	피겨	여초 싱글C조	은	조희수	동안초	
		남중 싱글C조	동	양재협	평촌중	
	스피드	남초 1500m	금	김민석	범계초	
		남초 1000m	금			

안양시 소재 초·중·고·대학·일반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2)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012.2.14.~2.17. 서울, 강원, 전북	쇼트트랙	남초 1500m	금	황대헌	안일초	
		남초 2000m				
		남초 2000m 릴레이				
		여대 3000m 릴레이	금	박연정	대림대	
		여고 1500m	은	노도희	평촌고	
		여대 3000m 릴레이				
	피겨	여초 싱글D조	금	전혜진	신기초	
		남중 싱글D조	동	양재협	평촌중	
	스피드	남초 1500m	금	김민석	범계초	
		남초 1000m				
		남초 4주종합				

안양시 소재 초·중·고·대학·일반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3)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013.2.18.~2.21. 서울, 강원, 전북	쇼트트랙	남중 3000m 릴레이	금	황대헌	부림중	
		여고 1500m	금	노도희	평촌고	
		여고 3000m	금			
	피겨	남초 싱글C조	금	박성훈	해오름초	
		남고 싱글C조	금	양재협	평촌고	
		여초 싱글D조	은	전혜진	신기초	
		여중 싱글C조	은	이정민	평촌중	
		여초 싱글D조	동	유지민	양지초	
		여중 싱글B조	동	김태경	평촌중	
	스피드	남중 3000m	금	김민석	평촌중	
		남중 5000m	금			
		남중 8주종합	금			
	아이스하키	남중 아이스하키	동	근명중	근명중	
	스노보드	남고 프리스타일	은	오재건	백영고	

안양시 소재 초·중·고·대학·일반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4)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014.2.26.~ 3.1. 서울,강원,전북	쇼트트랙	남중 500m	금	황대헌	부림중	
		남중 3000m 릴레이	금			
		남중 1000m	금			대회신기록
		여초 200m	금	서휘민	벌말초	
		여초 2000m 릴레이	금			
		여고 1500m	금	노도희	평촌고	
		여고 3000m	금			
		남중 3000m 릴레이	금	윤정민	부림중	
		남중 3000m	은	정호경		
		여고 3000m 릴레이	은	노도희	평촌고	
		2000m 릴레이	동	최영윤	샘모루초	
	피겨	싱글D조	금	황윤서	부림중	
		싱글B조	금	최유진		
		싱글C조	금	양재협	평촌고	
		싱글B조	금	박성훈	해오름초	
	스피드	남중 3,000m	금	김민석	평촌중	대회신기록
		남중 5,000m	금			대회신기록
		남중 8주종합	금			
		6주	금	엄채린		
		1500m	은			
		3000m	동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단체전	은	안양한라	안양한라	

쇼트트랙 부문에서 부림중학교 황대헌(남) 선수는 10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스피드 부문에서 평촌중학교 김민석(남) 선수는 30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따냈고, 5000m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안양시 소재 초·중·고·대학·일반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5)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015.2.25.~2.28. 서울, 강원, 전북	쇼트트랙	여초 1500m	금	서휘민	벌말초	
		여중 3000m	금	윤정민	부림중	
		남초 500m	은	최영윤	샘모루초	
		남초 1000m	은	최영윤		
		여초 500m	은	서휘민	벌말초	
		남중 3000m	은	황대헌	부림중	
		남중 3000m 릴레이	은	정호경 황대헌	부림중	
		남초 2000m 릴레이	은	김상현 최영윤 이형우	안일초 샘모루초 석수초	
		여초 2000m 릴레이	은	김민서 서휘민 이희연	평촌초 벌말초 부림초	
		남중 1500m	동	정호경	부림중	
		남중 3000m	동			
	피겨	남초 싱글A조	금	박성훈	해오름초	
		여초 싱글B조	동	김나영	인덕원초	
	스피드	남중 5000m	금	김민석	평촌중	대회신기록
		남중 1500m	금			
		남중 8주	금			
		여고 6주	금	엄채린	평촌고	
		남대 8주	동	김병수	대림대	
	아이스하키	일반 단체전	금	안양한라	안양한라	

스피드 부문에서 평촌중학교 김민석(남) 선수는 50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안양시 소재 초·중·고·대학·일반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6)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016.2.23.~2.26. 경기, 강원, 서울, 인천	쇼트트랙	여중 1000m	금	서휘민	부림중	대회신기록
		여중 1500m	금			
		여중 3000mR	금			
		여고 3000mR	은	윤정민	부흥고	
		남초 2000m	동	김민서	평촌초	
		남중 3000mR	동	정호경	부림중	
	피겨	여중 싱글A조	금	김하늘	평촌중	
		여중 싱글C조	금	지혜승		
		여중 싱글C조	동	박소연	부림중	
	스피드	남중 1500m	금	김민석	평촌중	대회신기록
		남중 5000m	금			
		남중 8주	금			
		남중 매스스타트	금			
		여고 1000m	은	엄채린	평촌고	
		여고 1500m	은			
		여고 매스스타트	동			
		남대 8주	동	김병수	대림대	
	산악	여일 속도	동	손계순	안양김종현 클라이밍센터	시범종목

쇼트트랙 부문에서 부림중학교 서휘민(여) 선수가 여중 10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따냈고, 스피드 부문에서 평촌중학교 김민석(남) 선수가 1500m에서 대회신기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리고 산악 부문에서 안양김종현 클라이밍센터 손계순(여) 선수가 시범종목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양시 소재 초·중·고·대학·일반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7)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8회 국동계체육대회 2017.2.9.~2.12.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쇼트트랙	여중 1500m	금	서휘민	부림중	
		여중 3000m	금			
		여중 3000mR	금			
		남고 500m	금	황대헌	부흥고	
		남고 1000m	금			
		여고 3000mR	금	윤정민	부흥고	
		여고 500m	금	김예진	평촌고	
		여고 3000mR	금			
		여고 3000m	은	윤정민	부흥고	
		남고 3000mR	동	황대헌	부흥고	
	피겨	여중 싱글A조	동	김하늘	평촌중	
		여고 싱글A조	동	김채영	부흥고	
	스피드	남고 1500m	금	김민석	평촌고	
		남고 5000m	금			
		남고 8주	금			
		남고 매스스타트	금			
		여고 6주	금	엄채린	평촌고	
		남대 8주	금	김병수	대림대	
		여고 1000m	은	엄채린	평촌고	
		여중 3000m	은	황고은	평촌중	
		여중 6주	은			
		여중 매스스타트	은			
		남대 10000m	은	김병수	대림대	
		남초 1000m	은	남현율	달안초	
		여고 매스스타트	동	엄채린	평촌고	
		여고 1500m	동			
	아이스하키	남중 단체전	동	근명중	근명중	

안양시 소재 초·중·고·대학·일반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8)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018.1.3.~1.19.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등	쇼트트랙	남초 2000m	금	남현율	달안초	
		여중 3000m 계주	은	김민서	부림중	
		남초 2000m 계주	은	남현율	달안초	
		남중 500m	동	김상현	부림중	
		남초 1000m	동	남현율	달안초	
	피겨	여고 싱글A조	금	이서영	평촌고	
		여고 싱글A조	은	고순정	부흥고	
		여초 싱글D조	은	이보희	안양관악초	
	스피드	남중 5000m	금	최영윤	부림중	
		남중 팀추월	금			
		여고 매스스타트	금	윤정민	부흥고	
		여고 팀추월	금			
		남중 1500m	은	최영윤	부림중	
		여고 1500m	은	윤정민	부흥고	

안양시 소재 초·중·고·대학·일반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9)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019.2.19.~2.22.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등	쇼트트랙	여고 3000mR	금	서휘민	평촌고	대회신기록
		여고 500m	금			
		남중 3000mR	은	남현율	부림중	
		남초 2000mR	동	김기현	샘모루초	
	피겨	여초 싱글 A조	금	황지현	호원초	
		여중 싱글C조	은	이주연	평촌중	
		여초 싱글A조	은	정민서	해오름초	
	스피드	남고 8주 팀추월	금	최영윤	평촌고	
		여고 매스스타트	은	황고은		
		남고 1500m	은	최영윤		
		남고 5000m	동			
	아이스하키	일반부 단체전	금	안양한라	안양한라	
	봅슬레이 스켈레톤	봅슬레이 4인승	은	이상로,이재석 이예원,이효동	성결대	시범종목

* 안양시 소재 초·중·고·대학·일반 선수가 참가하는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020년도(제101회)와 2021년도(제102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했다.

쇼트트랙 부문에서 평촌중학교 서휘민(여) 선수가 3000mR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부문에서 성결대학교 이상로, 이재석, 이예원, 이효동(남) 선수가 봅슬레이 4인승 시범종목에 참가하여 은메달을 따냈다.

안양시 소재 초, 중, 고, 대학, 일반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성적(2022)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022.2.25.~2.28.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등	쇼트트랙	남초 1000m	금	정현우	비산초	대회신기록
		남초 1500m	금			
		2000m 릴레이	금			
		남고 1500m	금	남현율	평촌고	
		남중 1500m	금	김기현	부림중	
		여중 3000m	은	이채연	평촌중	
		3000m 릴레이	동	남현율	평촌고	
		3000m 릴레이	동	김기현	부림중	
	피겨	여초 싱글C조	은	김유성	평촌초	
		여초 싱글B조	은	김유재		
	스피드	6주	금	김민서	평촌고	
		매스스타트	금			대회신기록
		여고 3000m	은			
	아이스하키	일반부 단체전	금	안양한라	안양한라	

쇼트트랙 부문에서 비산초등학교 정현우(남) 선수가 10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따냈고, 스피드 부문에서는 평촌고등학교 김민서(여) 선수가 매스스타트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했다.

안양시 소재 초·중·고·대학·일반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성적(2023)

구분	종목	종별	성적	입상자	소속	신기록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023.2.17.~2.20. 서울, 경기, 강원, 경북 등	쇼트트랙	남고 1000m	금	남현율	평촌고	
		2000m 릴레이	은	김태린	양지초	
		2000m	은	이규민	덕천초	
		2000m 릴레이	동			
		3000m 릴레이	동	남현율 김기현	평촌고	
		3000m	동	김 현		
	피겨	여중 싱글B조	금	김유성	평촌중	
	아이스하키	일반부 단체전	금	안양한라	안양한라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	은	이지은	부림초	

5.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성적

안양시의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성적은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발전했다. 2009년 제55회부터 2023년 69회까지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정식종목 21개(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복싱, 역도, 씨름, 유도, 검도, 궁도,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 골프, 보디빌딩, 우슈, 사격, 당구)와 시범종목 3개(농구, 레슬링, 바둑)에 참가하여 안양시 대표 선수들이 노력하여 거둔 입상 성적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아쉬운 점은 2014년(제60회)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경기도체육대회가 개최되지 못했으며, 2020년(제66회)과 2021년(제67회)에도 세계적인 팬데믹(감염병)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다.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성적(2009년)

구분	메달	종목	입상자	종별	소속	비고
	계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 2009.5.9.~5.11. 이천시	2위	수영		개인종목	안양시체육회	
		축구		단체종목		
	3위	역도		개인종목		
		볼링		단체종목		
		배드민턴		개인종목		

제56회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0년)

구분	메달	종목	입상자	종별	소속	비고
계						
제56회 경기도 체육대회 2010.5.1.~5.3. 부천시	2위	수영		개인종목	안양시체육회	
	3위	사격				
	부별 3위	정구(남)		단체종목		
		배구(남)				

제57회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1년)

구분	메달	종목	입상자	종별	소속	비고
계						
제57회 경기도 체육대회 2011.5.12.~5.14. 수원시	2위	축구		단체종목	안양시체육회	
		정구				
		우슈		개인종목		
	3위	수영				

제58회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2년)

구분	메달	종목	입상자	종별	소속	비고
계						
제58회 경기도 체육대회 2012.5.11.~5.13. 평택시	2위	수영		개인종목	안양시체육회	
		테니스		단체종목		
		복싱		개인종목		
		보디빌딩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3년)

구분	메달	종목	입상자	종별	소 속	비고
	단체 입상 종목		4종목			
제59회 경기도 체육대회 2013.5.14.~5.16. 연천군	2위	축구		단체종목	안양시체육회	
		수영		개인종목		
		검도		단체종목		
		우슈		개인종목		
	개인 입상 인원		31명			
	금메달	육상	김국영	남일 100m 남일 400 계주		
			조규원	남일 200m 남일 400m 계주		
			박세정 김진국	남일 400m 계주 남일 400m 계주		
		수영	정하은	평영50m		
		역도	박광현	105㎏급 합계 1위 105㎏급 인상 1위 105㎏급 용상 1위		
		보디빌딩	신익근	헤비급		
	은메달	육상	임민아 김소연	여고 멀리뛰기 여일 100m		
		수영	박찬이 전미경 김주연 정재희	배영 100m 계영 200m 계영 200m 접영 50m		
		복싱	김은선 정선우	56㎏ 75㎏		
		역도	김세혁 권 덕	62㎏급 69㎏급		
		보디빌딩	김영범	85㎏		
		우슈	심도형 김동영	장권전능 남권전능		
	동메달	육상	홍민지	여고 멀리뛰기		
		수영	양철영	평영 100m		
		씨름	정병철	경장급-75㎏		
		유도	신경섭	개인전+100㎏		
		역도	이병수	77㎏급 용상		
		태권도	문세영 최성원 임수정	54㎏ 87㎏ 67㎏		
		보디빌딩	김은엽	75㎏		
		우슈	문옥배 우정훈	산타-56㎏ 산타-65㎏		

* 안양시 소재 선수가 참가하는 2014년(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했다.

제61회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5년)

구분	메달	종목	입상자	종별	소 속	비고
	단체 입상 종목		6종목			
제61회 경기도 체육대회 2015.4.30.~5.2. 안성시	2위	수영		개인종목	안양시체육회	
		정구		단체종목		
	3위	역도		개인종목		
		복싱				
	여자1위	검도		단체종목		
	시범1위	농구		단체종목		
	개인 입상 인원		33명			
	금메달	육상	홍민지	여고 멀리뛰기		
		수영	이정민	여일 배영 100m 여일 접영 100m 여일 혼계영 200m		
			정하은	여일 평영 50m 여일 혼계영 200m		
			김산하	여일 배영 100m 여일 혼계영 200m		
			박은지	여일 혼계영 200m		
		역도	김정규	+105㎏급 합계 1위 +105㎏급 인상 1위 +105㎏급 용상 1위		
		보디빌딩	강민우	미들급 85㎏		
	은메달	육상	신해운	남일 400mR		
			신진식	남일 400mR		
			김진국	남일 400mR		
			박세정	남일 400mR		
			김미선	여일 50000m		
		수영	정 솔	여일 계영 200m		
		복싱	김승우	75㎏		
			정선우	91㎏		
		역도	유광근	85㎏급		
			한지환	105㎏급		
		태권도	김수림	46㎏		
			문세영	63㎏		
		유도	정수덕	라이트급 73㎏		
		골프	김승오	개인전		
	동메달	육상	김재성	남일 1500m		
			김진아	여일 200m		
			김미희	여일 16000mR		
			박승희	여일 16000mR		
		복싱	김태선	60㎏		
			강문규	81㎏		
			이상민	+91㎏		
		유도	박종석	66㎏		
		역도	권 덕	77㎏급 용상		
			윤범석	77㎏급 용상		
			박성렬	77㎏급 용상		
			김세혁	77㎏급 용상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6년)

구분	메달	종목	입상자	종별	소 속	비고
	단체 입상 종목		8종목			
제62회 경기도 체육대회 2016.4.28.~4.30. 포천시	1위	우슈		개인종목	안양시체육회	
	2위	유도		개인종목		
		역도		개인종목		
	3위	수영		개인종목		
		정 구		단체종목		
		보디빌딩		개인종목		
		마라톤 (여자)		단체종목		
	시범1위	바둑		개인종목		
	개인 입상 인원		51명			
	금메달	육상	김진국 박세정 조규원 양창성	남일 400m 계주		
		수영	김정훈	남일 자유형100		
		역도	한지환	인상 1위,용상 1위 합계 1위		3관왕
			김세혁	인상 1위,합계 1위		2관왕
		보디빌딩	강민우	남일 미들급 85㎏		
			김영범	남일 라이트헤비급 90㎏		
		우슈	김동현	남일 장권전능		
			서정우	남일 산수-56㎏		
		당구	안지수	1쿠션개인전		
			김병준	포켓8볼		
		바둑	최호철 김영삼 주치홍 김창진	단체일반		
	은메달	육상	이민혁	남고 포환던지기		
			조동화	여고 5000m		

구분	메달	종목	입상자	종별	소 속	비고
제62회 경기도 체육대회 2016.4.28.~4.30. 포천시			김미선 박승희 김미희 양연준 이은혜	여일 마라톤10㎞	안양시체육회	
	은메달	역도	김정규	+105㎏		
			유광근	85㎏		
		복싱	김대성	라이트급 60㎏		
			김대용	웰터급 69㎏		
		보디빌딩	김은엽	웰터급 70㎏		
		유도	고승조	라이트급 73㎏		
	동메달	육상	안한근	남일 800m		
		수영	황진우 김준한 정 용	남일 계영 200		
			김용미 박찬이 정하은 이아서	여일 계영 200		
		역도	배한솔	남일 85㎏		
		복싱	김상현	남일 52㎏		
		유도	김용균	남일 66㎏		
			정수덕	남일 60㎏		
			김태훈	남일 100㎏		
			최민영	남일 +100㎏		
		우슈	류호섭	남일 산수-60㎏		
			윤동림	남일 산수-75㎏		
		바둑	문국현 김용균	남자개인		
			허선자	여자개인		
			허 윤 김현숙	혼성페어		

역도 부문에서 안양시체육회 한지환(남) 선수가 인상과 용상 그리고 합계에서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고, 김세혁(남) 선수는 인상과 합계에서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7년)

구분	메달	종목	입상자	종별	소속	비고
	단체 입상 종목		9종목			
제63회 경기도 체육대회 2017.4.27.~4.29. 화성시	2위	역도		개인종목	안양시체육회	
		검도		단체종목		
		배구		단체종목		
		사격		단체종목		
	3위	수영		개인종목		
		정구		단체종목		
		테니스		단체종목		
	부별2위	마라톤		단체종목		
	시범1위	바둑		개인종목		
	개인 입상 인원		45명			
	금메달	육상	조규원	남일 200m		
			이민혁	남고 포환던지기		
		수영	정하은	자유형 100m, 평영 50m		2관왕
			이정민	접영 100m		
		역도	유광근	남일 용상 1위, 합계 1위		2관왕
			김정규	남일 인상 1위, 합계 1위		
		복싱	이근희	남일 91㎏ 이상		
		보디빌딩	김은엽	남일 웰트급 75㎏		
			강민우	남일 미드급 85㎏		
			김영범	남일 라이트헤비급 90㎏ 까지		
		태권도	김창진	남일 -54㎏		
		우슈	서정우	남일 태극권		
			최민준	남일 산수-65㎏		

구분	메달	종목	입상자	종별	소속	비고
제63회 경기도 체육대회 2017.4.27.~4.29. 화성시	은메달	육상	박성수	남일 200m	안양시체육회	
			양창성 박성하	남일 400mR		
			안한근 김지원 권용재 김미희 이은혜 신보경	마라톤		
		수영	이해림	접영 50m		
		역도	김세혁	남일 인상		
			한지환	남일 용상		
		보디빌딩	김영준	남일 헤비급 90㎏ 초과		
		태권도	윤홍중	남일 -58㎏		
		우슈	이광용	남일 산수-75㎏		
		바둑	백현민	남자개인		
	동메달	육상	장선영	여일 높이뛰기		
		수영	박찬이	계영 200m		
		역도	유민국	남일 인상		
		복싱	김대성	남일 56㎏		
			정훈영	남일 64㎏		
			정선우	남일 91㎏		
			김태원	남일 69㎏		
		유도	정수덕	남일 미들급 90㎏		
		태권도	김소희	여일 -53㎏		
		바둑	김영삼 문국현 김경학 허 윤	단체일반		
			김현아	여자개인		
			김형수 이태경	혼성페어		

수영 부문에서 안양시체육회 정하은(여) 선수가 자유형 100m와 평영 50m에서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고, 역도 부문에서는 안양시체육회 유광근(남) 선수가 남일 용상과 합계에서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8년)

구분	메달	종목	입상자	종별	소속	비고
	단체 입상 종목		5종목			
제64회 경기도 체육대회 2018.4.26.~4.28. 양평군	2위	역도		개인종목	안양시체육회	
	3위	수영		개인종목		
		궁도		단체종목		
	부별3위	마라톤		단체종목		
		축구(여)		개인종목		
	개인 입상 인원		36명			
	금메달	역도	신기안	69㎏ 용상 1위 69㎏ 인상 1위 69㎏ 합계 1위		3관왕
			유광근	85㎏ 용상 1위 85㎏ 합계 1위		2관왕
		우슈	서정우	산타 56㎏		
		태권도	명미나	-73㎏		
		육상	조규원	200m		
	은메달	수영	이정민	자유형 50m		
			최종훈	자유형 100m		
			정하은	평영50m		
			이태구	접영100m		
			길우정	배영50m		
		우슈	김동영	투로 태극권전능		
		궁도	이경석	개인전		
		역도	유민국	인상 94㎏		
		보디빌딩	김영준	+90㎏		
			김은엽	-75㎏		

구분	메달	종목	입상자	종별	소속	비고
제64회 경기도 체육대회 2018.4.26.~4.28. 양평군	은메달	복싱	김대성	56㎏	안양시체육회	
			전영남	75㎏		
		육상	장선영	높이뛰기		
	동메달	수영	송민주	자유형 50m		
			최종훈	자유형 50m		
			구기웅	자유형 100m		
			이정민	자유형 100m		
			송민주	접영 100m		
		우슈	최민준	산타-65㎏		
			윤동림	산타-75㎏		
		역도	한지환	105㎏		
		씨름	임동옥	청장급		
		유도	박종석	하프라이트급 -66㎏		
			정수덕	미들급-90㎏		
			김태훈	하프헤비급-100㎏		
		보디빌딩	강민우	-85㎏		
		복싱	김승우	81㎏		
		육상	김미희	10㎞		
			장경원	400m 계주		
			정현석	400m 계주		
			최원진	400m 계주		

역도 부문에서 안양시체육회 신기안(남) 선수가 인상과 용상 그리고 합계에서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고, 유광근(남) 선수는 용상과 합계에서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제65회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성적(2019년)

구분	메달	종목	입상자	종별	소속	비고
	단체 입상 종목		8종목			
제65회 경기도 체육대회 2019.5.9.~5.11. 안산시	2위	역도		개인종목	안양시체육회	
		수영		개인종목		
		마라톤		단체종목		
	부별3위	축구(여)		단체종목		
		테니스(여)		단체종목		
		배드민턴(여)		단체종목		
		배구(여)		단체종목		
	시범	농구		단체종목		
	개인 입상 인원		35명			
	금메달	수영	이유연	자유형 50m 1위 100m 1위		2관왕
			이태구	접영 100m		
		육상	정현석	400m 계주		
			최원진			
			김병찬			
			이용하			
		우슈	김동영	태극권		
		태권도	명미나	-73㎏		
	은메달	수영	정하은	평영 50m		
			이정민	자유형 100m		
			권세현	평영 100m		
		역도	신기안	-67㎏		
			장하늘	+109㎏		
			임희창	-73㎏		
		육상	이민혁	남고 투포환		
		보디빌딩	강민우	-90㎏		
		복싱	김대성	-56㎏		
			김승우	-81㎏		
	동메달	수영	강지윤	접영 50m		
			김주신	배영 100m		
			박시율	계영 200m		
			송민주	배영 50m		
		역도	배한솔	-81㎏		
			유광근	-89㎏		
		유도	유호상	-90㎏		
			김용균	-60㎏		
		육상	양창성	200m		
			신용욱	1500m		
			장선영	여 높이뛰기		
			임우진	남고200m		
			조규원	남 1600 계주		
		당구	한수아	포켓9볼		
		복싱	이근희	-91㎏		
		태권도	이예지	-61㎏		
		바둑	이현령	개인전		

* 안양시 소재 선수가 참가하는 경기도체육대회는 2020년(제66회)과 2021년(제67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했다.

수영 부문에서 안양시체육회 이유연(남) 선수가 자유형 50m와 100m에서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성적(2022년)

구분	메달	종목	입상자	종별	소속	비고
	단체 입상 종목		9종목			
제68회 경기도 체육대회 2022.8.25.~ 8.27. 용인시	2위	골프		개인종목	안양시체육회	
		역도		개인종목		
	3위	농구		단체종목		
		수영		개인종목		
		유도		개인종목		
		우슈		개인종목		
	부별1위	마라톤		단체종목		
	부별3위	배구(여)		단체종목		
		소프트테니스(남)		단체종목		
	개인 입상 인원		35명			
	금메달	육상	이정태	200m, 400m 계주		2관왕
			문해진	400m 계주		
			최원진	400m 계주		
			이용하	400m 계주		
		수영	김산하	배영 50m 배영100m		2관왕
			권세현	평영 100m		
			정하은	평영 50m		
			이유연	자유형 100m		
		우슈	류호섭	60㎏		
	은메달	육상	최진환	1600m 계주		
			전혜성	남고 포환던지기		
		수영	박정주	계영 200m		
			이정민	계영 200m		

구분	메달	종목	입상자	종별	소속	비고
제68회 경기도 체육대회 2022.8.25.~ 8.27. 용인시	은메달	역도	김연산	-81㎏	안양시체육회	
			김해운	-89㎏		
			홍요한	-96㎏		
			손찬영	-109㎏		
		우슈	김동영	투로		
			김도언	-75㎏		
		태권도	권순철	-63㎏		
	동메달	골프	황국현	개인 3위		
		육상	고준석	여일부 5,000m		
			김연아	남일부 5,000m		
			임은하	여일부 10km		
		수영	이현민	혼계영 200m		
			이기승	평영 100m		
			최용진	혼계영 200m		
		역도	신기안	-73㎏		
			정운현	-96㎏		
		우슈	온장훈	-56㎏		
			최민준	-65㎏		
		유도	박상인	-60㎏		
			박종석	-66㎏		
			박종민	-73㎏		
			조상훈	-100㎏		
		복싱	최한중	-52㎏		
		씨름	김건우	-80㎏		
		태권도	오정택	-58㎏		
			구본이	-53㎏		
			이예지	-67㎏		

육상 부문에서 안양시체육회 이정태(남) 선수가 200m와 400m 계주에서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고, 수영 부문에서는 안양시체육회 김산하(여) 선수가 배영 50m와 배 100m에서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제69회 경기도체육대회 입상 성적(2023년)

구분	메달	종목	입상자	종별	소속	비고
	단체 입상 종목		8종목			
제69회 경기도 체육대회 2023.5.11. ~5.13. 성남시	3위	축구		단체종목	안양시체육회	
		사격		단체종목		
	부별1위	마라톤		단체종목		
	부별3위	축구(여)		단체종목		
		소프트 테니스(여)		단체종목		
		탁구(남)		단체종목		
		검도(여)		단체종목		
		배드민턴 (여)		단체종목		
	개인 입상 인원		37명			
	금메달	수영	김산하	배영 50m 배영 100m 계영 200m 혼계영 200m		4관왕
			이정민	자유형 100m, 계영 200m, 혼계영 200m		3관왕
			박정주	자유형 200m, 계영 200m 혼계영 200m		3관왕
			권세현	평영 50m, 평영 100m 혼계영 200m		3관왕
			정하은	개인혼영 200m, 계영 200m		2관왕
		육상	이정태	200m, 400m 계주		2관왕
			문해진	400m 계주		
			최원진	400m 계주		
			이용하	400m 계주		
			하제영	400m		
			전혜성	포환던지기		
			민진홍	남일부 10km		

구분	메달	종목	입상자	종별	소속	비고
제69회 경기도 체육대회 2023.5.11. ~ 5.13. 성남시		우슈	온장훈	-56㎏	안양시체육회	
	은메달	역도	신기안	-73㎏		
			손찬영	-109㎏		
			박재균	+109㎏		
		육상	공혁준	1600m 계주		
			정지훈	1600m 계주		
			최진환	1600m 계주		
		태권도	나소연	-49㎏		
		당구	안지수	1쿠션 개인전		
		사격	김만영			
	동메달	역도	임희창	-81㎏		
			정운현	-109㎏		
			김해운	-96㎏		
		수영	김영현	자유형 200m, 개인혼영 200m		
			문희원	접영 50m 배영 100m		
			오서연	평영 100m		
			강지윤	자유형 50m		
		육상	고준석	남일부 5,000m		
		유도	김용균	-66㎏		
		박종민	-81㎏	-81㎏		
			조상훈	-90㎏		
		복싱	최한중	-52㎏		
			이충효	-91㎏		
		태권도	김규민	-54㎏		
		보디빌딩	이성회	-85㎏		

수영 부문에서 안양시체육회 김산하(여) 선수가 배영 50m와 100m, 계영 200m와 혼계영 200m에서 1위를 차지하며 4관왕에 올랐다. 그리고 이정민(여) 선수는 자유형

100m, 계영 200m, 혼계영 200m에서 1위를 하며 3관왕을 차지했고, 박정주(여) 선수도 자유형 200m, 계영 200m, 혼계영 200m에서 1위를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다. 권세현(여) 선수는 평영 50m, 평영 100m, 혼계영 200m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역시 3관왕에 올랐고, 정하은(여) 선수는 개인혼영 200m와 계영 200m에서 1위를 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육상 부문에서 안양시체육회 이정태(남) 선수는 200m와 400m 계주에서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이와 같이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안양시 소속 복합운동부, 전국동계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의 기초가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공부하는 운동선수상을 정립하기 위해 결과 위주의 승리지향적인 정책이 아니라 과정도 결과도 모두 존중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수업 보장과 미래를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뿐만 아니라 국가가 함께한다는 믿음을 줄 때 학교체육이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엘리트선수를 발굴 및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안양시 소속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실업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체계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을 육성한다면 초변화 대전환 시대에 안양시의 큰 스포츠 자산이 될 것이며, 또한 안양시의 스포츠 문화 위상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3장

안양의 종교

이은선 백석대학교 초빙교수(안양대학교 명예교수)

1. 종교인구 현황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종교를 가진 전국의 인구는 직전 조사 때인 2005년 2497만 766명보다 341만 7092명이 감소한 2155만367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의 43.9%로 10년 전의 53.1%에 비해 9.2%포인트 감소했고, 무교인 비율은 2005년 47.1%에서 56.1%로 늘어 9%가 증가하면서 종교인 비율을 앞질렀다.

종교별로는 개신교 인구가 967만 5761명(19.7%)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761만9332명(15.5%), 천주교 389만 331명(7.9%) 순이었다.[1]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총인구 중 불교 인구가 22.8%(1072만)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18.3%(861만), 천주교 10.9%(514만) 순으로 나타났다. 198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교를 조사한 이후 2015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개신교 인구가 불교 인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외에는 0.1%가 넘는 종교가 없었던 데 반해, 2015년에는 원불교 0.17% 유교 0.15% 천도교 0.13%로 이들 3개 종교가 0.1%를 넘어섰다.

〈표 1〉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국, 경기도, 안양시 주요 종교 비율 (단위: %)

	합계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기타
전국	43.9	15.5	19.7	7.9	0.17	0.15	0.13	0.2
경기도	43.3	10.7	23	9	0.1	0.15	0.15	0.17
안양시	45.9	10.5	24.9	9.9	0.12	0.11	0.15	0.2

201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안양시의 인구는 56만 7871명이고, 이 중 종교 인구는 26만 674명으로 전체 인구의 45.9%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우리나라 총인구 중 종교인구 비율인 43.9%와 경기도의 종교인구 비율인 43.3%보다 2% 이상 높다. 그렇지만 안양시의 종교인구 비율은 2005년 54.8%에서 8.9% 감소하여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으며, 감소 추세는 전국적인 흐름과 유사하다. 안양시의 두 개 구 중 동안구의 종교인구 비율은 46.8%로 만안구의 44.6%보다 높은데, 2005년엔 동안구가 3% 높았으나, 2015년에는 2.2% 차이로 줄어들었다.

〈표 2〉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안양, 만안구, 동안구의 종교인구와 비율 (단위: 명, %)

	합계	종교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대순	대종교	기타
안양	567,871	260,674	59,559	141,408	56,135	667	617	878	269	20	1,121
비율	100	45.9	10.5	24.9	9.9	0.12	0,11	0.15	0.05	0.003	0.2
만안	235,351	104,903	26,023	57,647	19,612	232	337	452	132	20	448
비율	100	44.6	11.1	24.5	8.3	0.1	0.14	0.2	0.06	0.008	
동안	332,520	155,771	33,536	83,761	36,523	435	280	456	137	0	673
비율	100	46.8	10.1	25.2	10.1	0.13	0.08	0.14	0.04		

2015년에 조사된 안양시의 종교 분포를 보면 불교, 기독교(개신교), 기독교(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대순진리회, 대종교, 기타 등이다. 안양시 종교 가운데 개신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불교는 5만 9559명으로 전체 안양 인구 가운데 10.5%이고, 종교인구 가운데서는 22.8%를 차지한다. 불교인구 비율은 경기도와는 비슷하고, 전국의 15.5%에 비해서는 5%나 낮다. 기독교(개신교)는 14만 1408명으로 전체 안양 인구 가운데 24.9%이고 종교인구 가운데서는 54.2%에 해당했다. 개신교는 전국의 19.7%에 비해 5.2% 높고 경기도와 비교해서도 1.9% 정도 높다. 기독교(천주교)는 5만 6135명으로 전체 안양 인구 가운데 9.9%이고, 종교인구 가운데서는 21.5%를 차지했다. 천주교도 전국의 7.9%에 비해서는 2%가 높고, 경기도보다 0.9%가 높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안양시가 개신교와 천주교 비율은 전국보다 상당히 높은 반면 불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경기도 지역을 전국과 비교해보면 경기도 역시 전국보다 불교는 약하고, 개신교와 천주교가 강하게 나타났다. 경기도 지역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이 많아서 전통문화와의 연결고리가 약한 것이 불교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낮은 원인일 수도 있다. 원불교는 667명으로 안양시 인구 중에서 0.12%, 유교는 617명으로 0.11%, 천도교는 878명으로 0.15%, 대순진리회 269명으로 0.05%, 대종교는 20명으로 0.003%이다.

만안구와 동안구를 비교해보면 동안구의 종교인구 비율이 2.2% 높은데, 천주교와 개신교의 종교인구 비율이 만안구보다 높기 때문이다. 종교비율로 볼 때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불교는 1% 높은 반면, 동안구는 만안구보다 개신교는 0.7%, 천주교는 1.9% 높다. 만안구는 북쪽으로는 관악산과 삼성산, 서쪽으로는 수리산이 자리한 구시가지로 전통사찰이 많은데, 특히 삼성산에는 안양사, 삼막사, 염불암, 망월암, 반월암 같은 많은 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다. 만안구는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천도교, 대순진리회, 대종교 등 전통 종교 인구도 동안구보다는 비율이 높다. 동안구가 천주교 비율이 높은 것은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천주교 성당이 많이 늘어나 만안구는 성당이 4개인 데 반해 동안구에는 8개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며, 개신교의 경우 안양시 통계에 따르면 교회 숫자는 만안구가 많지만 규모가 큰 교회가 평촌 지역에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 안양시 1995, 2005, 2015년 주요 종교 인구통계와 비율

(명, %)

연도	합계	종교인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대순	대종교	기타
2015	567,871	260,674	59,559	141,408	56,135	667	617	878	269	20	1,121
비율	100	45.9	10.5	24.9	9.9	0.12	0.11	0.15	0.05	0.003	0.2
2005	609,886	334,221	100,909	145,599	83,951	925	578	504	227	24	1,504
비율	100	54.8	16.5	23.9	13,8	0.15	0.09	0.08	0.04	0.004	0.25
1995	590.545	325,758	108,837	159,131	52,559	719	1053	411	772	82	2,194
비율	100	55.2	18.4	26.9	8.9	0.12	0.18	0.07	0.13	0.01	0.37

1995년부터 10년 주기로 세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 추이를 보면 안양시 인구는 2005년이 가장 많았고, 2015년에는 4만 1955명이 줄어 인구가 7% 이상 감소하면서 1995년보다도 적어졌다. 종교인구 비율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0.4% 감소한 데 반해, 2015년에는 8.9% 줄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불교 신자의 경우는 18.4%에서 16.5%로 다시 10.5%로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개신교는 26.9%에서 23.9%로 내려갔다가 24.9%로 올라갔다. 천주교는 8.9%에서 13.8%로 올라갔다가 9.9%로 내려갔다. 2015년 통계를 2005년 통계와 비교해보면 불교가 16.5%에서 10.5%로 6% 줄

어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천주교도 13.8%에서 9.9%로 3.9% 줄어든 반면, 개신교는 23.9%에서 24.9%로 1% 증가했다.

지금까지 안양시의 전체적인 종교 비율을 설명했는데, 아래에서는 각 종교의 전체적인 개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가장 오랜 종교인 불교를 먼저 살펴보고, 천주교와 개신교를 개관한 후에 다른 종교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2. 불교

1) 안양 불교의 역사와 문화재

현재 안양에는 안양사, 삼막사, 염불암, 망해암 등 4개의 전통 사찰과 몇 개의 사지가 남아 있다. 전통 사찰은 민족문화유산으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사찰로 전통사찰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남아 있는 사지들 가운데 중요한 곳이 중초사지이며 안양사와 관련되어 있다. 중초사지는 당간지주에 새겨놓은 기록으로 건축 시기가 확인되는 유일한 곳이다. 당간지주는 절에서 행해지는 행사를 알리고자 당幢이라는 깃발을 매다는 당간幢竿이라 불리는 장대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돌기둥을 말한다. 중초사지에 남아 있는 당간지주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간지주는 신라 흥덕왕 때인 827년에 세워진 것이다.[2] 그러므로 중초사는 통일신라 흥덕왕 때 건립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현재 절은 남아 있지 않다. 이 당간지주는 1963년에 보물 4호로 지정되었고, 중초사 삼층석탑이 남아 있는데 한때 보물 5호였다가 1997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164호로 지정되었다.[3]

전설로는 중초사 자리에 고려 태조가 능정 스님을 통해 안양사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안양사는 왕실의 보호와 후원 속에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양사라는 절은 조선시대 소실되었으며, 현재 그 자리에는 안양박물관과 김중업박물관이 자리한다. 그리고 1941년에 시흥군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명될 때 안양이라는 이름이 이 안양사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안양이란 불교에서 그리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괴로움이 없으며 안락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상향인 극락정토를 가리킨다.[4] 옛 안양사터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1960년에 지어진 현재의 안양사가 세워져 있다. 이 안양사에 옛 안양사에 있었던 귀부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 귀부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93호로 지정되었으며, 안양사 부도는 안양시 향토문화재 3호로 지정되었다.[5]

중초사는 통일신라시대에 건립된 것을 당간지주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지만, 나머지 안양에 있는 전통 사찰들의 역사는 기록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전설로는 신라시대와 연결되어 있다. 삼막사는 원효, 의상, 윤필 세 승려에 의해 지어졌다고 알려진 절이다. 사지寺誌에 의하면 원효가 창건하고 신라 말 도선이 중건하여 관음사라 개칭했으며, 고려 태조가 중수하여 삼막사라 했다고 한다. 1394년(태조 3)에는 왕사 무학이 이 절에서 국운의 융성을 기원하였는데, 이러한 인연으로 1407년 왕명에 의하여 중건되었다.[6] 이 유서 깊은 삼막사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인 마애삼존불(94호), 3층 석탑(112호), 사적비(125호) 3점이 보존되어 있으며, 향토문화재로는 삼귀자(4호), 감로정 석조(5호) 2점이 있고, 민속문화재인 삼막사 남녀근석, 경기도문화재자료 삼막사 명부전(60호) 등이 있다. 삼막사는 안양에 자리한 전통 사찰 가운데 가장 많은 문화재를 소장한 곳이다.

염불암은 안양의 삼성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으며, 태조 왕건이 좌선삼매에 든 노승 능정을 위해 안흥사를 건립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그 후 조선시대 1407년 태종의 왕명에 의해 관악산의 여러 사찰들과 함께 중건되었으며, 18세기 여러 문집에 이 사찰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 시기에 유명한 사찰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7] 이 절에는 수령이 600년 된 보리수가 있어서 오래된 고찰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염불사 부도는 안양 향토문화재 2호이다. 그리고 석수1동 보장사에 있는 마애종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92호로 지정되었다. 이와 같이 안양의 많은 불교 유적들이 경기도와 안양시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안양사지

망해암은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고, 조선시대 1407년 태종의 명에 의해 중건되었다.[8] 망해는 서쪽 바다를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안양 8경 가운데 하나이다. 6·25전쟁 때 소실되었으나 중건되었다.

2) 안양의 불교 현황

안양에는 현재 다양한 불교 종파에 속한 116개의 사찰이 있다. 불교 종파 가운데 가장 큰 종파가 조계종이다. 안양에 있는 조계종에 속한 절들의 본사 역할을 하는 절이 화성에 위치한 용주사이다. 용주사는 신라시대에 건립된 길양사 터 위에 정조 임금이 세운 절이다. 이 절은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왕릉을 돌보는 능침사찰이었고, 1911년 사찰령에 의해 전국의 사찰이 30개의 본산으로 구획되었는데, 이때 용주사는 안양 지역의 절들을 사찰하는 중심 사찰인 본산이 되었다. 그래서 해방 후에 불교계가 여러 파로 나누어질 때 조계종이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했는데, 용주사는 조계종 제2교구 본사로서 안양지역의 조계종 전통 사찰들은 모두 말사로 소속되어 있다. 안양에는 현재 4개의 전통 사찰과 함께 아래 표와 같은 불교종파에 따른 사찰들이 있다.

〈표 4〉 안양지역 불교 종단별 사찰 현황

종단명	사찰 숫자			비고(전통 사찰)
	1990[12]	2005[13]	2024[14]	
대한불교조계종	16	23	27	삼막사, 염불암,망해암
한국불교태고종	27	22	25	안양사
대한불교일붕선교종		8	8	
대한불교일승종	4	8	7	
계율청정종단불교조계종			5	
대한불교삼론종		5	2	
대한불교대각종			3	
대한불교조동종		3	2	
대한불교관음종		2	2	
한국불교법륜종		2	2	
한국불교법상종	2	2	1	
한국불교법화종	4	2	4	
한국불교대승여래종		1	1	
대한불교대승종		1	1	
대한불교보문종	1	1	1	

종단명	사찰 숫자			비고(전통 사찰)
	1990[9]	2005[10]	2024[11]	
대한불교원효종	2	1	1	
대한불교조화종		1		
대한불교총화종	4	1	2	
대한불교본원종			1	
대한불교미륵종			1	
한국불교여래종			1	
한국불교조계종			1	
선학원		1		
기타		13	18	
총 계	60	97	116	

한국 불교는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된 후 일본의 정책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1926년 말 조선총독부가 불교 사찰을 관리하는 사법 개정을 통해 승려들에게 결혼과 고기 먹는 것을 승인한 것은 조선 불교를 일본 불교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승려의 결혼을 허용한 후에 해방 당시 대부분의 승려가 결혼을 했다. 결혼한 대처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해방 후 비구·대처승 간의 분쟁으로 비화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찰의 운영권을 비구니들에게만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한 1954년부터 '정화불사淨化佛事', 즉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났다. 이후 비구승과 대처승이 함께 구성한 통합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이 1962년 출범했으며 25교구 본산제가 시행되었으나, 1970년 대처승들은 한국불교태고종을 설립하여 분종했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은 승려의 결혼생활을 인정하지 않으나, 한국불교태고종은 이를 인정한다.

불교계는 현재 다양한 종파로 분립되어 있는데,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신해 전통사찰보존법이 시행되면서 종단은 갑작스럽게 증가되었다. 불교재산관리법에 묶여 있던 사찰의 매매나 양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종단의 등록제가 폐지되면서 법인격을 갖추면 어느 단체나 종단으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15] 불교 종파 가운데 태고종·총화종·보문종·원효종·화엄종·정토종 등은 조계종과의 재산 분규 과정에서 생겨난 종파들이고, 용화종·미륵종·법상종 등은 증산교 계열이 불교계로 들어온 경우이며, 한국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일승종 불입종·보문법화종·영산법화종 등은 일련정종(창가학회)에서 나온 법화사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단들이다.[16] 불교 종단들이 모여 불교종단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협의회는 1967년 5개(조계종, 태고종, 법화종, 진

각종, 관음종) 종단연합단체에서 출발해 1969년 12개 종단으로 확대되었고, 1973년 19개 회원 종단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30개 종단이 회원 종단이 되었다.

1990년도 안양의 불교 현황을 보면 만안구에 48개, 동안구에 12개로 총 60개 사찰이 있었다. 당시에 태고종이 27개로 가장 많았고, 조계종이 16개였으므로 33개로 두 종파가 과반이 넘었다. 총화종·법화종·일승종에 각각 4개 사찰이 속해 있었고, 법상종과 원효종은 각각 2개 사찰이 속했으며, 보문종은 1개 사찰이 속했다.[17] 그러므로 이 시기는 태고종과 조계종 이외에는 6개 교파가 있을 정도로 안양에 불교 교파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2005년 불교 사찰이 97개로 늘어나면서 불교 종파가 상당히 다양해졌다.[18] 1995년에는 태고종 사찰이 많았는데, 2005년에는 조계종 사찰이 23개로 태고종 사찰보다 많아졌다. 안양에 있는 조계종 사찰 중에서 용주사 본사의 말사로 속해 있는 절은 삼막사, 염불암, 망해암, 백련사 등 4개에는 용주사는 조계종의 제2대교구 본사이고, 안양의 4개 사찰이 이 본사의 말사로 속해 있다. 그리고 불교 종파가 8개에서 16개로 배 이상 늘어났다. 일붕선교종, 삼론종, 조동종, 관음종, 법륜종, 대승여래종, 대승종, 조화종 등 8교파가 새롭게 들어왔다. 2024년 불교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데, 불교 종파의 숫자는 16개에서 21개로 늘어났으며, 사찰의 숫자도 116개로 늘어났다. 현재 만안구에 79개, 동안구에 37개 사찰이 있다. 새로운 종파로 계율청정종단불교조계종, 대각종, 본원종, 미륵종, 여래종, 한국불교조계종이 생겨났고 조화종은 확인되지 않는다. 안양에는 불교종단협의회에 속한 30개 종단 가운데 2024년에는 19개 종단[19]이 사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개인 계율청정종단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조계종은 여기에 속해 있지 않았다.

3. 천주교

1) 장내동성당 건립과 안양지역 성당들의 확장

천주교는 안양지역에서 1830년대에 생겨난 수리산 교우촌에서 출발하여 발전했는데,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끝나자 안양·시흥 지역 곳곳에 공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1884년 하우현에 서울 신부들이 관할하는 공소가 생겨났으며[20] 1900년에 갓등이 성당에서 분리하여 성당이 되었다. 안양 본당의 모태가 되는 안양공소는 하우현 본당 관할 공소로 역시 박해 이후 생겨난 공소였다. 안양공소가 발전하여 1954년에 본당을 건립

장내동성당(안양중앙성당 제공)

장내동성당 최초 견진성사 기념(1956, 안양중앙성당 제공)

했으며, 신자는 약 30세대로 공소를 포함해도 신자 수가 1000명을 넘지 않았다.[21] 안양본당은 다양한 사목을 펼쳐 안양지역에 복음을 전해왔다. 1956년 4월에 개원한 본당 부설 안양유치원은 안양 최초의 유치원으로 안양지역 유아교육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22] 순교자 현양에도 앞장서서 본당은 1963년 5월에 수리산에 순교기념비를 설립했다.[23]

안양의 장내동 중앙성당이 1954년에 건립되었고 본당의 신자 수는 날로 증가해 그 관할하에 있던 공소들이 점차 본당으로 성장해갔다. 호계동성당은 군포 공소가 1975년에 본당으로 승격한 성당이다.[24] 장내동성당 신도들의 숫자가 증가하여 1978년에 비산동성당과 명학성당이 분립하게 되었고, 1983년에 석수동본당이 분립했다.[25] 1990년대에는 5개의 성당이 새로 설립되었는데, 1995년에 평촌성당, 1997년에 인덕원성당과 호평성당, 1998년에 범계성당과 관악성당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 매곡성당과 벌말성당이 세워졌다.[26]

2) 수원교구 제2대리구 소속의 안양지역 성당

천주교 수원교구 제2대리구는 과천, 광명, 광주, 군포, 성남, 시흥, 안산, 안양, 여주, 이천, 의왕, 하남시, 양평군을 행정구역으로 11개 지구 내 총 108개의 본당과 7개의 성지로 이루어져 있다.[27] 안양지역의 성당들은 수원 교구의 제2대리구에 속하는데, 안양1지구와 안양2지구로 나뉘어 있다. 안양1지구에는 안양 소재 8개 성당이 있고, 2지구에는 9개 성당이 속해 있는데 4개는 안양에, 2개는 과천에, 3개는 의왕에 자리한다. 군포 의왕지구에는 10개 성당이 위치한다.

안양1지구에는 중앙, 관악, 명학, 범계, 비산동, 석수동, 호계동, 호평 등 8개 본당이 있다.안양2지구에는 인덕원, 과천, 매곡, 벌말, 별양동, 청계, 평촌, 포일, 하우현 등 9개 본당이 있는데, 과천 본당과 별양동성당은 안양2지구에 속해 있지만 과천에 위치하고, 청계성당과 포일성당, 하우현성당은 의왕에 위치하여 안양지역 본당은 4개이다. 안양지역의 성당 숫자는 현재도 2003년과 동일하게 12개이고, 안양지역 군부대를 위한 성가브리엘성당과 충의성당이 있다.

안양지역의 천주교는 1980년까지는 5개 성당이 있었는데,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사이에 7개가 늘어났다. 이 시기는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던 시기와 겹쳐 있다. 평촌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천주교 신자들이 크게 늘어났으며, 그 이후에는 성당 건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계상으로 보면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천주교 신자가 급증하여 1995년 5만 2559명에서 2005년 8만 3951명으로 늘어났다. 이때 만안구는 2만 382명에서 3만 1762명으로, 동안구는 3만 2177명에서 5만 2189명으로 늘어났다. 만안구는 1만 1000여 명 늘어날 때 동안구는 2만 명 이상이 늘어났다. 2015년에는 5만 6135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만안구는 2만 382명에서 1만 9612명으로 4000명이 채 줄어들지 않은 데 반해, 동안구는 5만 2189명에서 3만 6523명으로 1만 5000명 이상이 줄어들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상으로 보면 동안구에서 2000년에 천주교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가 2015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5년부터 4000명이 증가한 결과가 되었다.

류성민 교수가 2007년 1월에 재구성한 12개 성당의 신도 숫자는 5만 8439명으로 나타나는데, 이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1995년보다 6000여 명 증가했다가 2015년에 20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되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4년 6월 수원교구 홈페이지[28]에 나와 있는 안양지역 12개 성당의 성도들 통계는 아래와 같으며, 전체 신도들의 합계는 5만 1756명이다.

〈표 5〉 안양지역 관내 성당

성당명	설립연도	소재지	주임신부	관할구역	신도 숫자
중앙성당	1954	만안구 장내로 116	김형중	안양 3, 4, 5동, 박달 1동	8,523
호계동성당	1975	동안구 흥안대로 84번길 104	이승준	호계 1, 2, 3동	3,718
비산동성당	1978	동안구 경수대로 952	서용석	비산동전지역, 안양1동	4,960
명학성당	1978	만안구 문예로 24	노성호	안양 6, 8동, 산본1동 일부	1,705
석수동성당	1983	만안구 석천로198번길 27	홍창진	석수 2동	3,031
평촌성당	1995	동안구 평촌대로40번길 126	김우정	갈산, 귀인동, 내손1동 일부	6,708
인덕원성당	1997	동안구 관악대로 466(관양동)	이근덕	관양동	5,471
호평성당	1997	동안구 전파로95번길 16(호계동)	이상선	비산 2동, 부림동, 부흥동, 달안동	4,459
관악성당	1998	만안구 경수대로1140번길 24(안양동)	이종덕	석수1동, 안양2동 일부	1,985
범계성당	1998	동안구 경수대로 733(호계동)	정성진	범계동, 호계 2동 일부	4,257
벌말성당	2003	동안구 흥안대로439번길 48(관양동	박전동	평안동, 범계동 일부	4,902
매곡성당	2003	동안구 운곡로 48(비산동)	이광휘	비산3동, 비산 1동과 2동 일부	2.047
					51,756

4. 개신교

1) 개신교 교파들의 형성 과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 전에는 안양지역에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가 자리 잡고 있었다. 장로교는 1910년에 세워진 부림리교회(1975년에 동은교회로 개명)와 1930년에 세워진 안양리교회가 있었고, 1939년에 안양감리교회와 안양성결교회가 세워졌다.

해방 후 장로교회는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하여 1952년에 고려파가 분열했고, 신학사상의 문제로 1953년에 기장파가 분열했으며, WCC 가입 문제로 1959년에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했다. 그 후 1972년에 대신교단이 세워졌고 김치선 목사가 세웠던 대한신학교가 1981년 안양으로 이전하면서 대신교단도 안양에서 크게 성장했다. 1979년 이후 장로교단들이 여러 교단으로 나누어지면서 다양한 장로교단이 안양에 자리 잡게 되었다. 성결교단은 1960년대 WCC 가입을 둘러싸고 기독교성결교회와 예수교성결교회로 분열했다. 예수교성결교회의 김응조 목사가 1962년에 성결신학교를 세웠으며 1975년에 캠퍼스를 안양으로 이전했고 그 이후로 예수교성결교회가 많아졌다.

안양교회 주일학교(1944, 안양중앙교회 제공)

부림리교회(1970, 동은교회 제공)

2) 안양지역 교회들의 분포 현황

1990년 안양지역의 교회 숫자는 359개였고, 교파는 38개였다. 당시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44개, 통합 32개, 정통 35개 등 장로교 267개, 감리교 33개, 성결교 25개, 침례교 22개, 오순절교 9개 등이었다.[29] 2005년 안양지역의 교회 숫자는 513개였고, 합동 80개, 통합 41개, 합동정통(현재 백석) 62개 등 장로교가 364개, 성결교 60개, 감리교 45개, 침례교 26개, 오순절교 15개 등이었다.[30] 2024년 안양에는 580여 개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데, 교회 분포를 보면 동안구보다는 만안구에 더 많다. 만안구에서 확인되는 교회는 325개이고, 동안구에는 255개로 총 580개이다. 2005년까지 일반적으로 동안구에 기독교 인구가 많고 교회 숫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안양시에서 제공한 교회 주소록에 따르면 만안구에 소재한 교회가 동안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파별로 보면 장로교단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기하성 순으로 많다. 장로교가 580개 교회 가운데 376개로 65%를 차지하고 있다. 장로교단 가운데는 합동교단과 백석교단에 100개가 넘는 교회가 소속되어 있으며,[31] 개혁교단과 대신교단은 백석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많이 축소되었다. 그다음으로 성결교가 70개, 감리교가 53개, 침례교가 35개, 오순절교는 31개가 되었다. 대표적인 교회들을 보면 안양리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안양중앙교회와 안양제일교회가 있다. 안양중앙교회는 기독교장로회 소속이고, 안양제일교회는 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이다. 합동교단 측 교회는 1950년대 설립된 석수교회가 대표적이다. 기독교감리교회는 안양감리교회가 대표적이고, 예하성은 은혜교회와 진리교회가 대표적이다. 2020년 교회 숫자는 안양시연합회가 작성한 각 교단 소속 교회들의 숫자를 근거로 작성했고, 일부는 2024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그 통계를 사용했다.[32]

안양에 개신교가 큰 교세를 유지하는 데는 기독교대학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종합대학으로는 장로교의 안양대학교, 성결교인 성결대학교가 있고, 대학원대학교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가 있는데 이들 졸업생들의 목회활동이 안양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독교 고등학교로는 백영고등학교, 성문고등학교, 신성고등학교, 안양상업고등학교가 있고, 기독교 중학교로는 성문중학교와 신성중학교가 있다. 개신교의 연합기구로서 안양시 기독교청년연합회(YMCA)와 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가 있고, 안양에 있는 대부분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는 안양시기독교연합회가 있다. 안양시기독교연합회는 안양지역 교회들의 연합기구로서 1965년에 창립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표 6〉 1990, 2005 , 2020년 교회 통계

교단	교파	교회 숫자			비교
		1990년	2005년	2020년	
장로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44	80	115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32	41	56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35	62	109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50	27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22	39	6	
	한국기독교장로회	12	13	10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	12	8	4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총회)		7	2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		7	5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진리)		7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	29	7		
	대한예수교장로회(장신)	12	5		
	대한예수교장로회(보수합동)		5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동신)		4	3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합신)		3	14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6	3	8	
	대한예수교장로회(고려)	2	5	0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0	8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			6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성총회)			1	
	대한예수교장로회((복음)신성)			1	
	대한예수교장로회(재건)			1	
	기타 장로교단		18		
	합계	206	364	376	
감리교	기독교대한감리회	32	42	52	
	기타 감리회		3	1	
	합계	32	45	53	
성결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18	41	54	
	기독교대한성결교회	7	18	15	
	기독교한국성결교회		1	1	
	합계	25	60	70	
침례교	기독교한국침례회	22	25	31	
	성서침례교회		1	4	
	합계	22	26	35	
오순절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6	14	30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6	1	1	
	합계	12	15	31	

교단	교파	교회 숫자			비교
		1990년	2005년	2020년	
구세군		1	1	2	
대한성공회		1	1	1	
그리스도의 교회		1	1	1	
대한예수교 루터회				1	
기타		59		10	
총 계		359	513	580	

안양시기독교연합회는 안양지역 교회들의 연합기구로서 1965년에 창립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안양시 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는 1986년에 창립되었고, 기독교청년연합회는 1989년에 창립되어 다양한 기독교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5. 유교

유교는 신라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져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조선시대 이후에는 관혼상제가 유교식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우리나라 장례식과 제사의식에 유교의 영향이 강하게 미쳐서 현재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생활의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사에서도 유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은 611명 정도였다. 안양에 현재 유교 관련 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44년에 안양향교, 시흥향교, 과천향교가 통합되어 과천지역에 위치했는데 그때는 시흥향교로 불렸다. 하지만 1996년에 과천향교로 복원되었다. 과천향교는 경기도 국가유산 자료 제9호로 지정되어 있다.[33]

6. 천도교

천도교는 동학을 계승하여 발전한 한국의 신흥 종교이다. 조선 말기에 최제우 대신사가 민족주의 신앙을 제창하며 창립한 동학을 1905년 3대 교주 손병희가 천도교로 개편했다.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후에 박해를 받았으나 1907년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았

다. 일제강점기에는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활발한 교세를 이어갔다. 현재 안양에 878명의 신자가 있으나 천도교 교당은 없다.

7.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는 강증산이 화신했다고 믿는 구천상제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1925년 조정산에 의해 대순진리회가 하나의 종교로 성립되었고, 1969년 박우당에 의해 종단으로 성립되었다. 박우당은 새로운 종단을 창설하기 전에 수리산에서 49일간 공부했다고 하며 그래서 수리산은 대순진리회의 성지 가운데 하나이다. 안양에 269명의 신자가 있다.

8. 원불교

원불교는 일제강점기에 박중빈이 창시한 토착 종교이며, 안양지역에 안양교당과 동안양교당 2개의 교당이 있으며 667명의 신자가 있다. 1967년 안양시 중앙동에 안양교당을 설립하면서 경기 인천지역에 전교되기 시작했다.

9. 대종교

대종교는 1909년에 단군교로 창설된 후에 이름을 대종교로 바꾸었다. 대종교는 일제 때 많은 탄압을 받았으며, 해방 후 서울 종로구 당추동에 총본사를 두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문공부에 종교단체등록을 필했으며, 1951년 안양에 대종교안선포교당을 설치했다. 김교근은 광복 후 단군성상을 전국에 보급하다가 안선포교당의 대표를 맡으면서 안양3동 1030번지에 단군전을 건립했다. 단군전 시흥·안양봉찬회는 안양시 안양2동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옛 단군소상과 존영을 봉안해놓은 채 1981년 이후 계속해서 개천대제를 봉행하고 있으며,[34] 20명의 신자가 있다.

10. 민간신앙

안양지역에서는 매년 음력 7~10월 사이에 석수1동의 삼막골 쌍신제, 인덕원마을 현감 비석제, 관양1동 수촌마을 도당제, 비산1동 비산동 동고제, 안양2동 할머니산 산신제, 석수1동 석수동 할아버지산 산신제, 충훈부 꽃뫼산 산신제 등이 있다.[35] 예부터 산신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강력한 숭배 대상이어서 조상들은 산신을 모시는 당산제堂山祭를 산신제라 하며 제를 올리고 마을의 안녕과 평안 등을 빌었다. 산신제와 동제 등은 산신과 마을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과 평화, 무사태평을 바라는 의식이었는데, 요즘은 지역사회 단합을 위해 지내는 곳들도 있으며, 민간신앙으로 지속되고 있다.

또한 수리산 산신제는 안양시 문화원이 주최하고 수리산 산신보존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병목안 시민공원에서 4월에 개최된다. 안양시 향토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었다.[36] 삼성산 삼막사에는 민간신앙의 대상이었던 자연석으로 된 남녀근석이 있으며,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민속문화재(현, 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바위를 만지면서 자식 두기를 원하고 순조로운 출산과 일가의 번영, 무병 및 장수를 빌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1. 저서

장내동교회, 『천주교 장내동 교회사』, 크리스챤출판사, 1989.

안양시, 『안양시지』, 안양시, 1992.

안양시, 『안양시 문화유적 총람』, 안양시, 1996.

안양문화원, 『안양의 역사와 문화』, 안양문화원, 1998.

안양시, 『안양시사: 안양의 종교편』, 안양시, 2008.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안양시기독교연합회 50년사』, 2020.

2. 논문 및 신문자료

차차석, 「한국불교계의 종단 난립 원인과 문제점 분석」, 『대각사상』, 대각사상연구원, 2018, 301-323.

노길명, 「불교계 신흥종교」, 『가톨릭신문』, 1987년 9월 20일자, 7면

3. 인터넷 자료

「한국의 사찰: 종단사찰」, 사자후(SAJAHOO) https://www.sajahoo.com, 2024년 7월 29일.

「불교정보: 종단소개」, 만불회(http://www.manbulhoi.org), 2024년 7월 29일.
「중초사지 삼층석탑」,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https://ngoanyang.or.kr), 2024년 7월 31일.
2015년 「성별/연령별/종교별 인구-시군구」,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2024년 7월 28일.
「대리구 현황」, 천주교 수원교구 제2대리구(https://v2.casuwon.or.kr), 2024년 8월 1일.
김정대, 「나라 어려운 이 때 단군정신 절실하다」, https://www.1gan.co.kr, 2024년 8월 2일.
안양시, 「현감비석제」, https://blog.naver.com, 2024년 8월 2일.
안양시, 「석수동 쌍신제, 할아버지산 산신제」, https://m.blog.naver.com, 2024년 8월 3일.
「문화유산: 과천향교」, 경기역사문화유산원(https://gjicp.ggcf.kr), 2024년 8월 3일.

註

1 국가통계포털, 2015년 「성별/연령별/종교별 인구-시군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1502, 2024년 7월 28일. 이하 통계 자료는 이 포털에 실린 2015년, 2005년, 1995년 종교 통계 자료를 이용했다.
2 안양시, 『안양시 문화유적 총람』, 1996, 22.
3 앞의 책, 98.;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 「중초사지 삼층석탑」, https://ngoanyang.or.kr/8811 2024년 7월 31일
4 안양시, 『안양시지』, 1992, 636-637.
5 안양시, 『안양시 문화유적 총람』, 91.
6 안양시, 『안양시지』, 1992, 1503.; 『안양의 역사와 문화』, 안양문화원, 1998, 39.
7 『안양시지』, 안양시, 1992, 1504.; 『안양의 역사와 문화』, 안양문화원, 125.
8 『안양시지』, 안양시, 1992, 1505.; 『안양의 역사와 문화』, 안양문화원, 183.
9 안양시, 『안양시지』, 1992, 1500.
10 안양시, 『안양시사: 안양의 종교편』, 안양시, 2008, 581.
11 2024년 불교 종파 통계는 안양시 종교 자료와 불교 사찰 정보를 제공하는 사자후(SAJAHOO), 「한국의 사찰: 종단사찰」과 만불회, 「불교정보: 종단소개」에 2024년 7월 29일에 접속하여 각 종파의 통계를 취합하여 작성했다.
12 안양시, 『안양시지』, 1992, 1500.
13 안양시, 『안양시사: 안양의 종교편』, 안양시, 2008, 581.
14 2024년 불교 종파 통계는 안양시 종교 자료와 불교 사찰 정보를 제공하는 사자후(SAJAHOO), 「한국의 사찰: 종단사찰」과 만불회, 「불교정보: 종단소개」에 2024년 7월 29일에 접속하여 각 종파의 통계를 취합하여 작성했다.
15 차차석, 「한국불교계의 종단 난립 원인과 문제점 분석」, 『대각사상』, 대각사상연구원, 2018, 310.
16 노길명, 「불교계 신흥종교」, 『가톨릭신문』, 1987년 9월 20일자, 7면.
17 안양시, 『안양시지』, 1992, 1500.
18 안양시, 『안양시사: 안양의 종교편』, 2008, 581.
19 19개 종단의 이름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태고종, 대한불교관음종, 대한불교대각종, 대한불교보문종, 대한불교원효종,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한불교총화종, 대한불교삼론종, 대한불교대승종, 대한불교미륵종, 대승불교본원종, 한국불교여래종, 대한불교조동종, 대한불교법상종, 한국불교법륜종, 대한불교일승종, 대한불교법화종이다.
20 장내동교회, 『천주교 장내동 교회사』, 크리스챤출판사, 1989, 73.
21 앞의 책, 84.
22 앞의 책, 85.
23 앞의 책, 96.
24 앞의 책, 115.
25 앞의 책, 128, 146.
26 안양시, 『안양시사: 안양의 종교편』, 2008, 570.
27 천주교 수원교구 제2대리구, 「대리구 현황」, https://v2.casuwon.or.kr/vicariatus/status, 2024년 8월 1일.
28 https://www.casuwon.or.kr/parish/parish
29 안양시, 『안양시지』, 1992, 1484~1496.
30 안양시, 『안양시사: 안양의 종교편』, 2008, 554.
31 과거에 합동정통이었던 백석교단은 2014년 개혁과 통합했고 2014년에 대신과 통합했다가 일부가 다시 탈퇴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백석은 현재 109개 교회가 소속한 교단이 되었다.
32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안양시기독교연합회 50년사』, 2020, 226~234.
33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문화유산: 과천향교」, https://gjicp.ggcf.kr, 2024년 8월 3일.
34 김정대, 「나라 어려운 이때 단군정신 절실하다」, https://www.1gan.co.kr/news, 2024년 8월 2일.
35 안양시, 「현감비석제」, https://blog.naver.com, 2024년 8월 2일.
36 안양시, 「석수동 쌍신제, 할아버지산 산신제」, https://m.blog.naver.com, 2024년 8월 3일.

4장

안양의 언론

김우태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 (전 안양저널 기자)

1. 지역언론 개괄

안양의 지역언론을 개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언론이 역사·정치·사회적으로 다양한 시대를 거치며 태동 및 변천해온 전반적인 현황과 뿌리를 먼저 짚어보고, 1980년대 후반 언론자유화로 출발한 지역언론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1992년 발간된 『안양시지安養市誌』[1]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구한말부터 출발한 한국 언론의 발자취를 비롯해 1973년 안양시 승격 이후부터 1992년까지 안양의 언론 현황을 참고해 정리했다.

이후 2000년대를 전후로 한 풀뿌리 지역신문의 활성화에 이어 최근 수많은 인터넷 언론이 범람하고 있는 안양 지역언론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우리나라 언론의 발자취(구한말~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은 1883년(고종 20년) 10월 1일(음력) 발간된 『한성순보漢城旬報』로 김옥균·박영효 등 개화파[2]가 주도하여 박문국[3]에서 발행한 관보로서 통한문체로 월 3회 매월 1일자로 발간되었으나,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4]'의 실패로 개화당이 실각되고 박문국이 불에

『한성순보』와 『한성주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타버려 부득이 1년 만에 종간되었다.

1886년 1월 25일 『한성순보』의 복간 형식으로 박문국에서 창간한 『한성주보漢城週報』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간신문이다. 국·한문을 혼용하여 관리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독자 대상에 포함해 발행했다. 1888년 7월 7일 박문국 폐지로 총 120여 호를 발행하고 폐간되었다.

이후 1896년 4월 7일 창간된 『독립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다. 계몽적 신문의 필요성을 인식한 서재필과 유길준, 개화파 내각의 합작으로 탄생했다. 『독립신문』은 격일로 시작하여 일간으로 발행했으며, 순한글판과 영문판 두 가지로 발간하면서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권신장을 위한 국민의 대변지 역할을 수행했으나, 1898년 독립협회가 해산된 후 1899년 12월 4일 자 신문을 끝으로 종간되었다가 영구 폐간되었다.

이어 1898년 9월 5일 남궁억 등이 민간 일간지로 『황성신문皇城新聞』을 발간했는데, 1905년 '을사늑약[5]' 체결로 외교권이 박탈당하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代哭'이라는 논설의 주필이던 장지연이 게재하여 일본의 침략 행위와 정부의 무능을 지탄하며 국민들에게 항일·자주·독립정신을 고취시켰다.

1898년에는 이종일·유영석·이승만 등이 순한글체의 『제국신문帝國新聞』(원명: 뎨국신문)을 발행하여 대중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민족주의와 정치·사회적 계몽에 주력했다.

1904년에는 러일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왔던 영국인 베델(Ernest Thomas Bethell)이 양기탁 등 민족진영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를 창간했다. 당시 우리의 민간신문은 일본의 검열을 받아야 했으나, 이 신문은 영국인이 발행

인을 맡고 있어 검열을 피하며 민족진영의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항일정신을 고취시켰다. 하지만 1910년 '한일합방'으로 주권이 상실되자, 조선총독부가 이를 매수하여 기관지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매일신보』로 변경되었다.

『대한매일신보』

또한 1906년에는 천도교에서 손병희·오세창·신광희 등이 『만세보萬世報』를 창간하여 친일단체인 '일진회一進會'의 반민족적 처사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만세보』에는 우리나라 신문소설의 효시가 된 이인직의 「혈의 누」를 연재하여 근대 소설사를 개척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천주교계의 주간지 『경향신문京鄕新聞』이 발행되어 애국계몽운동을 지향했으며, 1909년에는 오세창·장효근 등이 『대한민보大韓民報』를 발행하여 애국계몽단체인 '대한자강회'를 배경으로 '일진회'를 비판했다.

이 당시 잡지도 발간되었는데, 1901년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Homer Hulbert)가 영문 월간지 『코리아 리뷰(Korea Review)』를 발행해 주한 외국인 등에게 한국을 소개했다. 1906년에는 장지연, 장응량, 심의성 등이 『조양보朝陽報』를 창간해 월 2회 발행으로 국내외 정세를 보도했으며, 1908년에는 최남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월간 종합잡지인 『소년小年』을 창간하는 등 언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청소년 잡지 『소년』

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6]'으로 일본은 모든 신문을 강제 폐간시키고 『매일신보』만 총독부의 기관지로 남게 되었으니, 이때부터 1919년까지 우리나라의 언론은 암흑기를 맞이했다.

이후 근대 민족운동의 시초인 '3·1운동[7]'이 일어나자 일본은 문화정치를 표방하며 한국인이 경영하는 신문 간행을 허가했다. 그 결과 1920년 『동아일보東亞日報』,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간호

『조선일보』 창간호

『시대일보』 창간호

朝鮮日報』, 『시대일보時代日報』 등 민간 3대지가 탄생했다.

이 신문들은 1920년부터 1940년까지 20년 동안 민족문화를 앙양하며 민족적 투쟁을 활발히 펼쳤다. 이에 일본은 검열 등의 수단으로 통제하다가 1940년 8월 10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해 강제 폐간을 단행하면서 1945년 광복 전까지 우리나라의 언론 역사에 다시금 어두운 시대가 도래했다.

2) 광복 이후 우리나라 및 경기도 언론

1945년 광복을 맞이하여 3000만 우리 겨레는 35년간 억눌렸던 자유를 마음껏 구가했다. 언론 분야에서도 활판·등사를 이용한 전단 같은 신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극좌지로 『조선인민보朝鮮人民報』를 비롯해 『해방일보解放日報』, 『독립신보獨立新報』가 발간되었고, 극우지로는 『대동신문大東新聞』, 『대한독립신문大韓獨立新聞』이 나왔으며, 중간지中間紙로 『중외일보中外日報』 등이 있었다.

경기도에는 『대중일보大衆日報』가 우파지로 나왔고, 좌파지로는 『인천신문仁川新聞』이 있었다. 특히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중간되어 전통적인 민족지의 명맥을 이어갔으며, 이후 우리나라의 언론은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하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보도중심주의[8]'를 채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의 언론은 1973년 『연합신문聯合新聞』, 『경기매일신문京畿每日新聞』, 『경기일보京畿日報』가 통합되면서 『경기신문京畿新聞』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로써 당시에는 도내

에서 유일한 신문이 되었으며 1982년 『경인일보京仁日報』로 개제되었다.

이후 1988년 제6공화국이 들어서고 언론자유화 조치가 단행되자 전국적으로 새로운 신문들이 창간되었는데, 같은 해 도내에서도 『경기일보』와 『인천신문仁川新聞』·『기호일보畿湖日報』가 창간되었다. 이어 『중부일보中部日報』, 『경인매일京仁每日』 등이 창간되는 등 수많은 언론이 출현하면서 지역 언론이 태동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경인일보』

현재 경기도 내 주요 지방일간지

2. 지역언론의 태동과 발전

1) 시흥군 시절 안양의 언론

1973년 시 승격 이전의 안양은 시흥군에 속해 있었으며 군청이 안양읍에 소재하여 시흥군 지역 언론은 실질적으로 안양을 중심으로 주도적인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에는 『대중일보』(현재 『경인일보』)와 『자유신문』, 『기호일보畿湖日報』, 『산업경제신문』, 『코리아 타임스』(현재 한국일보 발행) 등 다수의 시흥 주재기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61년 '5·16군사정변[9]' 후에는 군 단위 주재기자를 금지함에 따라 『경기매일신문』, 『경기일보』, 『연합신문』의 지방지 기자만 남게 되었다. 이어 1963년 이후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대한일보』, 『신아일보』, 『경제통신』 등 유수의 중앙지들이 각 지방주재 특파원 제도를 만들어 기자들을 파견했다.

1972년 '10월 유신[10]' 이후 또다시 언론이 수난을 겪게 되면서 중앙지의 지방 주재기자가 철수하고 시·도 주재기자만 허용되었으나, 1973년 안양이 읍에서 시로 승격되면

서 다시 여러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 주재기자들이 상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제5공화국[11]'이 출범하던 1980년 10월 '언론통폐합조치'에 따라 모든 중앙일간지의 지방 주재기자가 철수했고, 안양시에는 『연합통신』·『경인일보』·『KBS』·『MBC』 기자만 남게 되었다.

1988년 '제6공화국[12]'이 출범하면서 '언론자유화조치'가 단행되어 시·도에 주재기자가 허용되고 지방 일간지도 속속 창간했으며, 안양시에도 수십 명에 이르는 중앙지·방송사·지방지 주재기자들이 출입하게 되었다. 1992년 발간된 「안양시지」에 따르면 같은 해 8월 기준으로 안양시청 출입 언론사는 『연합통신』, 『조선일보』, 『KBS』, 『MBC』, 『SBS』,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인천일보』, 『기호일보』, 『경인매일』, 『한국수도권일보』, 『한양일보』, 『한서일보』 등으로 나타났다.

2) 안양 지역언론의 출발

안양시에는 1988년 '언론자유화조치' 이후 지역 언론이 창간되기 시작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등록 현황'에 따르면 1989년 2개 『주간 새안신문』·『주간 안양신문』, 1990년 3개 『주간 경안신문』·『격주간 경기남부신문』·『격주간 한양타임즈』, 1991년 5개 『주간 경기저널』·『격주간 한양경제신문』·『주간 경기공동신문』·『안양저널』·『주간 경안경제신문』 등 3년간 총 10개의 지역언론이 창간되었다.

안양시 지역언론 등록 및 폐간 현황(1989~1991년 기준)

번호	제 호	발행인	등록일	폐간일
1	주간 새안신문	임정조	1989.04.27.	1999.09.20.
2	주간 안양신문	이병호 *	1989.05.17.	1996.12.23.
3	주간 경안신문	김봉근 **	1990.03.05.	1997.06.26.
4	격주간 경기남부신문	조용묵	1990.09.12.	1997.06.25.
5	격주간 한양타임즈	김봉근 **	1990.11.06.	1997.06.26.
6	주간 경기저널	이병호 *	1991.02.06.	2000.07.10.
7	격주간 한양경제신문	김봉근 **	1991.03.14.	1997.06.26.
8	주간 경기공동신문	마기열 *	1991.04.13.	1997.11.28.

번호	제 호	발행인	등록일	폐간일
9	안양저널	이경희	1991.04.22.	2002.12.27.
10	주간 경안경제신문	김봉근 **	1991.08.27.	1997.06.2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안양의 지역언론은 주간 및 격주간으로 발간되었는데, 보도 위주의 신문은 『안양신문』·『새안신문』·『경안경제신문』이 대표적이었고, 『안양저널』은 유일한 보도 위주 잡지였다. 이 당시 특이할 사항은 『안양신문』의 사주였던 마기열*이 『경기저널·경기공동신문』의 경우도 본인과 배우자(이병호) 등을 발행인으로 등록했고, 『경안신문』의 발행인 김봉근**이 『한양타임즈』·『한양경제신문』·『경안경제신문』도 발행했던 것이다. 이는 언론자유화 조치 이후 정기간행물 등록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중앙언론에서 활동했던 특정인이 다수의 지역언론을 등록해 운영하는 사례가 안양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언론자유화조치 이후 짧은 기간 동안 지역언론들은 양적으로는 안양의 언론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은 있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안양시민의 정서에 다가서지 못한 채 언론폐해의 문제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신문 가운데 상당수가 운영난 및 경영미숙 등으로 정간 또는 폐간을 반복하면서 지역언론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1) 『새안신문』 공식적 안양 최초의 지역신문

지역언론 등 정기간행물 등록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적인 자료에 따라 안양 최초의 지역신문은 1989년 4월 27일 등록한 『새안신문』이라 할 수 있는데, 지난 1992년 발간된 『안양시지』에 따르면 『새안신문』은 등록 당시 『안양민보』로 창간하여 월 2회 순간으로 발행했으나 6개월 만에 운영난으로 신문 발행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안양서예학원 황용갑 원장이 인수해 『새안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고 1989년 11월 주간지로 속간했다. 『새안신문』은 기사를 보강해 안양의 문화·생활정보·시정 소식 등을 다루었으며, 임정조·오면교·조성태 등이 회장을 맡아 1992년 지령 100호를 넘기며 꾸준히 발행되었으나 1999년 9월 20일 경영난 등으로 폐간했다.

(2) 비공식적 안양 최초 주간신문 『우리장터』

한편 1992년 발간된 『안양시지』에는 안양 최초의 주간신문으로 『우리장터』를 기술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간행물 등록 자료에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이를 차치하고 당시 『안양시지』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장터』는 1988년 4월 21일 정기간행물 등록 당시 책자 형태의 광고 위주 상업지였으나, 1989년 2월 창간호를 발행하면서 타블로이드판형의 신문으로 제작하여 생활정보와 시정 소식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990년 2월 26일 『우리안양』으로 제호를 개제하면서 일반 신문 판형으로 확대해 발간했고, 내용 면에서도 보도 부문을 증강하는 등의 변화를 모색했으나 1992년 1월 29일 경영난으로 폐간되었다고 당시 『안양시지』에 기록되어 있어, 비공식적인 안양 최초의 주간신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편 『우리안양』은 현재 안양시 시정소식지의 제호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월 25일 발행하여 시민에게 무료로 배부되고 있다.

(3) 안양신문

1988년 언론자유화조치 이후 안양의 공식적인 두 번째(비공식적 세 번째) 지역신문인 『안양신문』은 중앙언론 출신 마기열이 1989년 5월 17일 등록하여 같은 해 8월 창간호를 발행했다. 창간 당시 권수창이 회장을 맡았고, 전무 겸 주필에 조성태를 비롯해 양효직·이경희·김미숙 등 12명의 기자가 활동했다. 『안양신문』은 신문전산편집시설(CTS)까지 설치하고 과거 시흥군 지역인 안양·군포·의왕·과천·안산·광명 등을 발행권역으로 활발한 취재 활동을 펼쳤으나, 회장·전무이사·자문위원·전문위원 등 많은 인원을 확보한 데다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사주가 물러나는 등 수난을 겪기도 했다. 이후 회장을 두 차례 교체하며 재정비를 시도했으나 1992년 1월 지령 116호를 끝으로 발행을 중단했으며 1996년 12월 23일 폐간했다. 이후 『안양신문』에 근무했던 기자들은 『경인매일신문』(박용환 등)·『군포산본신문』(김미숙) 등 타 신문사로 자리를 옮기거나 『경안신문』·『경안경제신문』(김봉근)·『안양저널』(이경희) 등 지역언론을 창간하며 언론활동을 이어갔다.

(4) 경안신문, 한양타임스, 한양경제신문, 경안경제신문

중앙언론 출신으로 『안양신문』 말기에 편집을 맡아왔던 김봉근은 1990년 3월 15일 『경안신문』에 이어 1990년 11월 6일 『한양타임즈』, 1991년 3월 14일 『한양경제신문』, 1991년 8월 27일 『경안경제신문』 등 무려 4개의 지역언론을 등록 및 발행하여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기사를 발굴하려 노력했으나 운영난 등으로 인해 1997년 6월 26일 모두 폐간되었다.

(5) 경기남부신문

남부순복음교회(현재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 목사가 1990년 9월 12일 등록하여 생활정보와 교회소식 등을 다루며 격주 발행되었으나, 1997년 6월 25일 폐간되었다.

(6) 안양저널

『안양저널』

1991년 4월 22일 정기간행물 등록 후 8월 창간했으며, 『안양신문』 출신 이경희가 발행인을 맡아 첫선을 보인 안양의 유일한 잡지였다. 안양 시정 소식과 생활정보, 문화소개, 인물탐방 등을 다루며 월 2회 발행했으며, 임종찬 편집국장을 주축으로 안양 제일의 주간지 제작을 위해 노력했으나, 경영난 등으로 말기에 불규칙적으로 발행되다가 2002년 12월 27일 폐간되었다.

(7) 안양교차로 등 상업지

1992년부터는 『안양교차로』·『안양동네방네』·『안양사방팔방』에 이어, 1993년 『안양벼룩시장』, 1994년 『안양정보시대』, 『안양파랑새정보』, 『안양알림방』 등 3년간 7개 이상의 부동산, 구인·구직, 중고판매 등 지역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지인 생활정보신문[13]이 생겨나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되었으나, 교차로와 벼룩시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1999년 대부분 폐간되었다.

번호	제 호	발행인	등록일	폐간일
1	안양동네방네	최재범	1992.5.4.	1999.9.20.
2	안양교차로	박창웅	1992.6.9.	발행중
3	안양사방팔방	정치만	1992.6.20.	1999.9.20.
4	안양벼룩시장	음범택	1993.2.22.	2018.12.31.
5	안양정보시대	이재일	1994.1.24.	1999.8.2.
6	안양파랑새정보	김근환	1994.5.3.	1999.8.2.
7	안양알림방	임재욱	1994.8.25.	1999.9.20.

자료 : 「안양시 생활정보신문 등록 및 폐간 현황」, 1992~1994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8)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 지국·지사

일간신문사의 신문 배포와 판매를 담당하는 지국의 경우도 과거 언론 환경이 척박했던 시절에는 긴급한 소식 전달 등 언론의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에는 시흥군 안양읍 시절부터 군청 소재지였던 관계로 중앙일간지와 지방일간지 지국이 밀집해 있었고, 1973년 시 승격 이후 인구가 증가하고 시세가 확장됨에 따라 1992년 8월 기준 70여 개의 지국 및 지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 중에는 『조선일보』가 12개 지국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일보』·『한국일보』 각 9개, 『동아일보』 8개, 『한겨레』 7개, 『경향신문』 6개, 『국민일보』 5개, 『서울신문』·『세계일보』 각 4개 등이 있었으며, 지방지의 경우는 『경인일보』·『경기일보』·『중부일보』·『인천일보』·『기호일보』·『경인매일』·『한국수도권일보』·『한서일보』·『한양일보』 등이 8개 지사 및 분실을 두고 있었다.

(9) TV·라디오·유선방송

1992년 발간된 『안양시지』에 따르면 1961년 시흥군 안양읍 당시에는 흑백TV 1대, 라디오 938대(시흥군 통계자료 참고)가 있었는데, 시 승격 이후인 1975년에는 흑백TV 6258대, 라디오 2만 682대로 늘었으며, 이는 당시 안양시 인구가 13만 4862명에 가구수는 2만 9182가구였던 것을 고려하면 흑백TV는 4~5가구당 1대, 라디오는 3가구당 2대 정도를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979년에는 흑백TV가 3만 3767대로 4년 전보다 5.4배, 라디오는 4만 9680대로 2.4배 증가했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으며, 1983년부터는 컬러TV가 보급되면서 흑백TV는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1974년 7월 안양에 유선방송이 처음 들어왔으며, 1992년 3월 '종합유선방송 시대'를 맞이하여 안양·비산·관양·평촌·호계·석수·중앙·유원지 등 8개 출장소로 늘어났다. 당시 유선방송은 공중파 난시청 지역인 안양에 정규방송을 가입자에게 중계해주고, 관공서 공지사항, 지역의 주요행사 안내, 주민생활 관련 홍보 등 공익성 있는 사업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유선방송은 1974년 방송 개시부터 매년 25%의 가입 증가율을 보여 1992년 기준 안양시 총세대 수 14만 757세대 중 유선방송 가입 세대는 약 32%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후 유선방송은 1990년대 후반 케이블TV로 발전했고, 자체적으로 안양지역 뉴스를 보도하며 지역언론(티브로드 안양방송/ 현재 SK브로드밴드)으로서 역할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안양의 언론은 중앙지 및 지방지가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시 승격 후 15년이 지난 1988년부터 안양지역지들이 창간되면서 지역언론의 독자적인 발전을 기대했으나, 지역주민의 인지도 부족 및 경영난 등으로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지역 언론의 현재

1) 안양 지역언론의 중흥기

1988년 언론자유화조치 이후 우후죽순처럼 출발한 안양 지역언론의 일장춘몽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다시금 중흥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1993년 문민정부 출범을 기치로 김대중정부에 이어 노무현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지역주민 참여를 중시하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풀뿌리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기울였던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 당시 PC통신에 이어 인터넷 보급 확산에 따른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 수단의 급속한 발전이 일어났으며, 2000년 2월 22일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모토로 창간한 중앙 인터넷언론인 『오마이뉴스』를 통해 여러 지역언론의 기사가 전국적으로 공유되고 관심도를 높이는 데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던 영향도 지역언론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또한 1993년 10월 9일 창간한 중앙 주간지 『내일신문』이 주요 지역마다 '지역판'을 발행하면서 안양에도 『안양 내일신문』이 발간되었고, 보도와 지역광고를 혼합한 형태의 유가지와 무가지 배포 전략을 병행했다. 그러자 당시 안양의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와 『벼룩시장』에서도 자매지로 지역신문을 창간하는 연쇄반응이 일어나면서 지역언론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2년 안양 최초의 시민주 지역신문인 『안양시민신문』 창간으로 이어지며 안양 지역언론의 중흥기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주간신문 씨알

『주간신문 씨알』

1990년대 안양시의 대표적인 생활정보지로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는 『안양교차로』의 박창웅 대표가 지역사회의 밝은 소식을 전달하겠다며 1995년 11월 16일 『주간신문 씨알』을 등록하고 1996년 9월 19일 『교차로』 자매지로 창간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이후 5년간 꾸준히 발행되던 『주간신문 씨알』은 당초 '미담 신문'이라는 발행 취지와는 달리 소속 기자들이 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에 나서자, 상업지로서 행정기관과의 마찰 등을 우려해 2002년 12월 3일 폐간했다.

(2) 안양포커스

안양시의 생활정보지였던 『안양벼룩시장』의 음범택 대표도 1996년 9월 2일 자매신문으로 『안양포커스』를 창간해 지역언론으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꾸준히 발행했으나, 만성적인 적자 등을 이유로 2002년 8월 31일 폐간했다. 그 당시 『안양포커스』와 『주간신문 씨알』의 급작스런 폐간으로 인해 지역사회에도 상당한 파장과 함께 아쉬움을 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의 폐간으로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당시의 상황을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인용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10월 10일 주간신문 안양포커스의 발행 중단에 이어 지난 5년 동안 안양-군포-의왕권 지역의 다양한 뉴스와 소식을 전해오던 『주간신문 씨알』마저 1996년 9월 19일 창간호 발행 5년 만인 오는 11월 말 발행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언론의 암흑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생활정보지인 안양교차로에서 발행해 온 '안양씨알'은 안양과 군포, 의왕, 과천 등 안양권 4개 지자체의 문화, 생활, 행사 등 중앙일간지에 가려 담아내지 못하는 지역의 소식과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훈훈하고 따뜻한 미담과 지역의 다양한 행사들을 전해줘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안양포커스에 이어 안양씨알의 발행 중단은 지역시민과의 정보교류 창구가 사라졌다는 점뿐 아니라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언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되어야 할 홍보매체가 오히려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큰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번 주간신문 씨알의 발행 중단 결정도 지난 안양포커스와 마찬가지로 연 1억원 가까이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며 무가지로 배포해온 데 따른 재정난인 것으로 알려졌다."

(3) 안양광역신문

이어 1998년 3월 4일 『안양광역신문』을 정성환 대표가 등록해 창간했으나, 발행 기간은 오래된 반면 주간 발행주기가 다소 지켜지지는 못했으며, 현재는 박복만 발행인이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4) 안양시민신문

안양 최초의 시민주市民株 지역신문이라 할 수 있는 『안양시민신문』은 안양 출신 한국의 대표적 문인 김대규[14] 시인이 '안양사랑'의 지역지를 표방하며 지역 유지 중심의 시민 150여 명 발기인의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2002년 5월 22일 등록해 6월 15일 창간했다.

앞서 『주간신문 씨알』의 주필로 칼럼을 연재했던 김 시인은 『안양저널』과 『씨알』 출신의 김우태 기자와 『안양 내일신문』·『안양포커스』 출신 한정원 기자를 중심으로 신문을 발행했다.

특히 2004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2005년에 첫 시행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에 『안양시민신문』이 경기서남부권 지역언론 가운데 유일하게 선정(전국 42개사 : 일간 5, 주간 37)되어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안양시민신문』 준비1호

『안양시민신문』 준비2호

『안양시민신문』 200호

『안양시민신문』 201호

2006년 우선지원대상에도 2년 연속 선정(전국 59개사 : 일간 18, 주간 41)됨에 따라 우수 지역언론의 공신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창간 후 3년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 발기인 후원금 약 3억여 원이 거의 소진되어 운영 위기에 당면했고, 이에 당초의 안양 지역유지 중심이 아닌 시민단체 인사들이 매월 경영분담금 지원을 조건으로 신문사 이사진으로 대거 참여했다.

처음에는 안양의 보수와 진보의 화합이라는 명분을 실현하는 듯 보였으나, 결국 내외부적 갈등으로 창간 발기인 등 지역 유지들이 등을 돌리면서 지역적 기반이 흔들리고 편집 방향 또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면서 결국 창간 18년 만인 2020년 5월 22일 폐간되고 말았다.

안양시 주요 지역언론 등록 및 폐간 현황(1995~2016년 기준)

번호	제 호	발행인	등록일	폐간일
1	주간신문 씨알	박창웅	1995.11.16.	2002.12.3.
2	안양자치신문	차곡재	1996.3.11.	1999.1.28.
3	안양포커스	음범택	1996.9.2.	2002.8.31.
4	안양광역신문	김나영(정성환/박복만)	1998.3.4.	발행 중
5	안양시민신문	박길용(김대규)	2002.5.22.	2020.5.22.
6	안양뉴스(인터넷)	문경식(이민선)	2006.11.16.	2007.3.20.
7	안양군포의왕 주간현대	이여춘	2009.8.3.	발행 중
8	경기남부신문	이승길	2012.3.7.	휴간
9	안양신문	김용환	2016.8.1.	발행 중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 지역언론의 현재 '인터넷언론 범람'

안양 지역언론의 중흥기는 『안양시민신문』 폐간 이후 다시금 쇠퇴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인터넷언론의 범람 등으로 인한 혼돈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24년 6월 현재 안양시 출입 언론사는 통신사 15개, 방송사 13개, 중앙일간지 49개, 지방일간지는 31개로 다소 증가 추세에 있고, 지역주간지는 『안양광역신문』·『안양신문』·『안양 내일신문』·『안양 주간현대』 등 4개에 불과하다. 반면, '인터넷언론'은 언론의 종류, 중앙과 지역 등의 경계가 무의미한 관계로 무려 276개 이상으로 창궐하고 있는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안양 첫 지역 인터넷언론 안양뉴스

안양의 첫 인터넷언론은 만안구 석수동 연현마을 아스콘 제조업체(제일사업개발)의 대기오염 피해 문제와 관련해 신축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2006년 11월 16일 이민선이 등록한 『안양뉴스』라 할 수 있는데, 초창기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나 '1인 미디어'의 한계 등으로 2007년 3월 20일 폐간되었다.

(2) 지역 인터넷언론의 시작 '안양지역시민연대'

이에 앞서 1998년 창립한 시민단체인 '안양지역시민연대'에서 자체 활동과 안양지역의 시민단체 소식을 전달하던 '전자팩스신문'으로 시작해 인터넷 발달과 함께 개설한 시민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안양 지역신문 등의 기사를 전달하면서 직간접적인 인터넷언론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비공식적인 안양 인터넷언론의 출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안양지역시민연대 사무처장과 대표를 맡았던 최병렬 『오마이뉴스』 기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까지도 '안양지역도시기록연구소' 사이트(https://ngoanyang.or.kr/27)를 통해 활동을 계속하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3) 주간 현대·안양신문

현재 안양시 출입 지역언론은 『안양 내일신문』, 『안양광역신문』을 비롯해 2009년 8

월 3일 이여춘 발행인이 등록한 『안양·군포·의왕 주간현대』와 2016년 8월 1일 김용환 발행인이 등록한 『안양신문』 등 4개로 나타났으며, 다시금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4) 안양시 출입 언론

안양시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안양시 출입 언론사는 무려 388개에 달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가 49개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경인일보』·『경기일보』·『중부일보』·『인천일보』·『기호일보』·『경기신문』 등 지방일간지도 31개에 달해 이른바 '종이신문'이 전체의 21%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지역주간신문은 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방송사는 13개 출입사 중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을 제외한 지역방송은 경인방송과 SK브로드밴드(구 티브로드 안양방송) 등 2개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인해 연합뉴스·뉴시스·뉴스1 등으로 대표되는 통신사의 경우도 15개로 증가 추세이며, 현재 276개에 달하는 인터넷언론의 경우는 기준 시점마다 숫자가 늘어날 정도로 그야말로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안양의 지역언론은 인터넷언론의 홍수 속에서도 정작 안양시민에게 필요한 지역사회의 소식과 정보 전달 기능은 오히려 축소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안양 지역언론이 다시금 안양시민의 관심 속에서 지역사회의 생생한 뉴스를 발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건전한 여론을 주도하는 전성기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안양시 출입 언론사 현황(2024년 6월 기준)

번호	종 류	주요 언론사	언론사 수
1	통신사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	15
2	방송사	KBS, MBC, SBS, OBS, YTN, 연합뉴스TV, MBN, MTN, TBS, 매일경제TV, 국경제TV, 경인방송, SK브로드밴드	13
3	중앙일간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문화일보, 내일신문,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	49
4	지방일간지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인천일보, 기호일보, 경기신문 …	31
5	지역주간지	안양광역신문, 안양신문, 안양내일신문, 주간현대	4
6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쿠키뉴스, 프레시안, 데일리안, 더팩트, 더리포트 … 뉴스100, 뉴스다, 뉴스따옴, 뉴스더원, 뉴스라이트, 뉴스로, 뉴스쉐어, 뉴스앤뉴스, 뉴스야, 뉴스에이, 뉴스영, 뉴스웨이, 뉴스인오늘, 뉴스인020, 뉴스줌, 뉴스체인지, 뉴스캐치, 뉴스타운, 뉴스타워, 뉴스통통, 뉴스파노라마, 뉴스팍, 뉴스패치, 뉴스폼, 뉴스프리존, 뉴스피크, 뉴스핏, 뉴스후, 뉴시안 … …	276
합 계		388	

자료 : 안양시 홍보기획관 언론팀 제공

註

1 안양시지편찬위원회(박유선), 『안양시지』제5장 언론, 안양시, 1992, 1558~1570쪽.

2 조선시대 말기 개화를 주장한 정치 세력을 일컫는 말로, 개화당開化黨이라고도 함.

3 조선시대에 설립된 기관으로, 외교 문서의 작성과 번역을 담당했음.

4 1884년 12월 4일(음력 10월 17일)에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등 개화파가 조선의 개화를 위해 일으킨 정변.

5 1905년 11월 17일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6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7 1919년 3월 1일을 기해 일어난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족의 독립투쟁 정신을 고취하고 일본의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음.

8 언론이 사실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태도로서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올바를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역할과 책임을 강조함.

9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5기와 8기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두산백과).

10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두산백과).

11 1979년 10·26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한 후 전두환·노태우·정호용 등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세력이 주도하여 수립했다(두산백과).

12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발표된 6·29 민주화 선언에 의해 1987년 10월 29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하여 민주적으로 개정된 헌법 제10호에 의해 성립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

13 지역사회의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구인구직·부동산·중고물품거래·자동차매매·생활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했으며,『피알시대』·『경기취업저널』·『안양신문고』·『가로수』등도 있었다고 함.

14 김대규 시인(1942-2018) 안양 출신 한국의 대표적 시인으로 1960년 시집 『영靈 유형』으로 등단, 「흙의 사상」·「시인의 편지」·「사랑의 팡세」 등이 대표작. '후광문학상'·'제4회 편운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안양예총 회장·『중부일보』 논설위원·안양대학교 겸임교수, 『안양시민신문』 발행인·회장 등을 역임했음.

집필(가나다순)

강혜영　전 안양문화원 학예연구사
고문수　경인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김명숙　전 동덕여대 국사학과 교수
김수정　안양문화예술재단 차장
김연수　안양문화예술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김예승　대림대학교 사무행정학과 교수
김우태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
박형만　안양예총 사무국장
유옥환　전 안양시 동안구도서관장
이은선　백석대학교 초빙교수(안양대학교 명예교수)
이재옥　안양예총 회장
장지섭　안양문인협회 부회장
정민아　성결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최덕묵　성결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기획총괄

김지석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선임연구원
구본태 안양시사편찬위원회 연구원

편집

김지석, 박소영

교정·교열

박소영, 이우석

안양시사 08　**교육과 문화**

발행일 | 2025년 12월 15일
발행처 | 안양시사편찬위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TEL. 031-8045-2064
디자인&인쇄 | 홍익기획
TEL. 02-2274-8110

발간등록번호
ISBN 979-11-94861-17-1
ISBN 979-11-94861-09-6 (세트)

안 양 시 사

THE HISTORY OF ANYANG CITY

ISBN 979-11-968617-4-7
ISBN 979-11-968617-1-6 (세트)
04900
비매품/무료
클리오메디